부록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근재집謹齋集
동사강목東史綱目
구암유고久庵遺稿 · 구암집久庵集
옥동집玉洞集[유한계록(遊寒溪錄)]
기언記言
양주읍지襄州邑誌
강원도지江原道誌

부록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근재집謹齋集

동사강목東史綱目

구암유고久庵遺稿 · 구암집久庵集

옥동집玉洞集 [유한계록(遊寒溪錄)]

기언記言

양주읍지襄州邑誌

강원도지江原道誌

삼국사기 三國史記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1145년)경 김부식이 신라 · 고구려 · 백제 3국의 정치적인 흥망과 변천을 중심으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인종의 명에 따라 김부식의 주도하에 11명이 참여하여 편찬되었다. 이 책이 만들어진 12세기 전반의 상황은 고려 건국 후 200여년이 흘렀고 문벌귀족문화가 절정기에 이르렀으며, 유교와 불교가 서로 어우러져 고려 왕조가 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기 역사의 확인 작업으로 전 시대의 역사정리가 필요하였다. 조정에서는 거란을 물리친 후 자신감에 차 있었고 여진의 위협에 대한 강렬한 국가의식이 고조되어 있었다. 한편 문벌귀족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각했는데, 분열과 갈등을 국가가 망할 수 있는 원인으로 강조함으로써 현실비판의 뜻과 역사의 교훈을 후세에 알리려 하였다.

이 책을 간행한 경위는 경주부윤(慶州府尹) 이계복의 『삼국유사』 중간에 밝힌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삼국본사(三國本史)와 유사(遺事) 두 책이 다른 데서는 간행된 적이 없고 본부(경주부)에 판이 있기는 하지만 오래되어 판이 망가져 한 줄에 겨우 4~5자 밖에는 알아볼 수 없다' 고 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책의 크기는 가로 20.7㎝, 세로 30.2㎝이며, 원판이 닳아서 복구할 수 없는 곳, 잘못된 글자, 빠져 있는 글자 등의 결점은 있지만 『옥산서원본(玉山書院本)』과 함께 현재까지는 가장 완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통일신라시대를 포함한 한국고대사를 연구함에 있어 『삼국유사』와 더불어 역사자료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지에 첨부한 부록 물은 양양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 부분 발췌하여 편집실에서 재편집한 것이다.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宣撰

輸忠定難靖國贊化同德功臣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守
太保門下侍中判尚書吏禮部事集賢殿太學士監修國史
上柱國致仕臣金富軾奉
宣撰

新羅本紀第一 始祖赫居世 居西干
南解次次雄儒理尼師今脫解尼師今婆娑尼師今祇摩尼
師今逸聖尼師今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赫居世 居西干

始祖姓朴氏諱赫居世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丙
辰一曰正月十五日即位號居西干時年十三国號徐那伐先是
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爲六村一曰閼川楊山村二曰突
山高墟村三曰觜山珍支村或云干珍村四曰茂山大樹村五
曰金山加利村六曰明活山高耶村是爲辰韓六部高墟村
長蘇伐公望楊山麓蘿井傍林間有馬跪而嘶則往觀之忽
不見馬只有大卵剖之有嬰兒出焉則收而養之及年十餘
歲岐嶷然夙成六部人以其生神異推尊之至是立爲君焉
辰人謂瓠爲朴以初大卵如瓠故以朴爲姓居西干辰言王或
云呼貴人之稱
四年夏四月辛丑朔日有食之
五年春正月龍見於閼英井右脇誕生女兒老嫗見而異之
收養之以井名名之及長有德容始祖聞之納以爲妃有賢
行能內輔時人謂之二聖
八年倭人行兵欲犯邊聞始祖有神德乃還
九年春三月有星孛于王良
十四年夏四月有星孛于參
十七年王巡撫六部妃閼英從焉勸督農桑以盡地利
十九年春正月卞韓以國來降
二十一年築京城號曰金城是歲高句麗始祖東明立
二十四年夏六月壬申晦日有食之
二十六年春正月營宮室於金城
三十年夏四月己亥晦日有食之樂浪人將兵來侵見邊人
夜戶不扃露積被野相謂曰此方民不相盜可謂有道之國
吾儕潛師而襲之無異於盜得不愧乎乃引還
三十二年秋八月乙卯晦日有食之
三十八年春二月遣瓠公聘於馬韓馬韓王讓瓠公曰辰卞
二韓爲我屬国比年不輸職貢事大之禮其若是乎對曰我
國自二聖肇興人事修天時和倉庾充實人民敬讓自辰韓
遺民以至卞韓樂浪倭人無不畏懷而吾王謙虛遣下臣修
聘可謂過於禮矣而大王赫怒劫之以兵是何意耶王憤欲
殺之左右諫止乃許歸前此中國之人苦秦亂東來者衆多
處馬韓東與辰韓雜居至是寖盛故馬韓忌之有責焉瓠公
者未詳其族姓卒倭人初以瓠繫腰度海而來故稱瓠公
三十九年馬韓王薨或說上曰西韓王前辱我使今當其喪
征之其国不足平也上曰幸人之災不仁也不從乃遣使弔
慰
四十年百濟始祖溫祚立
四十三年春二月乙酉晦日有食之
五十三年東沃沮使者來獻良馬二十匹曰寡君問南韓有
聖人出故遣臣來享
五十四年春二月己酉星孛于河鼓
五十六年春正月辛丑朔日有食之
五十九年秋九月戊申晦日有食之
六十年秋九月二龍見於金城井中暴雷雨震城南門
六十一年春三月居西干升遐葬蛇陵在曇巖寺北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東明聖王

始祖東明聖王姓高氏諱朱蒙一云鄒 一云衆解先是扶餘王解夫婁老無子祭山川求嗣其所御馬至鯤淵見大石相對流淚王怪之使人轉其石有小兒金色蛙形蛙一作蝸王喜曰此乃天賚我令胤乎乃收而養之名曰金蛙及其長立爲太子後其相阿蘭弗曰日者天降我曰將使吾子孫立國於此汝其避之東海之濱有地號曰迦葉原土壤膏腴宜五穀可都也阿蘭弗遂勸王移都於彼國號東扶餘其舊都有人不知所從來自稱天帝子解慕漱來都焉及解夫婁薨金蛙嗣位於是時得女子於大白山南優渤水問之曰我是河伯之女名柳花與諸弟出遊時有一男子自言天帝子解慕漱誘我於熊心山下鴨淥邊室中私之即徃不返父母責我無媒而從人遂謫居優渤水金蛙異之幽閉於室中爲日所炤引身避之日影又逐而炤之因而有孕生一卵大如五升許王棄之與犬豕皆不食又棄之路中牛馬避之後棄之野鳥覆翼之王欲剖之不能破遂還其母其母以物裹之置於暖處有一男兒破殼而出骨表英奇年甫七歲嶷然異常自作弓矢射之百發百中扶餘俗語善射爲朱蒙故以名云金蛙有七子常與朱蒙遊戲其伎能皆不及朱蒙其長子帶素言於王曰朱蒙非人所生其爲人也勇若不早圖恐有後患請除之王不聽使之養馬朱蒙知其駿者而減食令瘦駑者善養令肥王以肥者自乘瘦者給朱蒙後獵于野以朱蒙善射與其矢小而朱蒙殪獸甚多王子及諸臣又謀殺之朱蒙母陰知之告曰國人將害汝以汝才略何徃而不可與其遲留而受辱不若遠適以有爲朱蒙乃與烏伊摩離陝父等三人爲友行至淹淲水一名盖斯水在今鴨綠東北欲渡無梁恐爲追兵所迫告水曰我是天帝子何伯外孫今日逃走追者垂及如何於是魚鼈浮出成橋朱蒙得渡魚鼈乃解追騎不得渡朱蒙行至毛屯谷魏書云至音述水遇三人其一人着麻衣一人着衲衣一人着水藻衣朱蒙問曰子等何許人也何姓何名乎麻衣者曰名再思衲衣者曰名武骨水藻衣者曰名黙居而不言姓朱蒙賜再思姓克氏武骨仲室氏黙居少室氏乃告於衆曰我方承景命欲啓元基而適遇此三賢豈非天賜乎遂揆其能各任以事與之俱至卒奔川魏書云至紇升骨城觀其土壤肥美山河險固遂欲都焉而未遑作宮室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國號高句麗因以高爲氏一云朱蒙至卒本扶餘王無子見朱蒙知非常人以其女妻之王薨朱蒙嗣位時朱蒙年二十二歲是漢孝元帝建昭二年新羅始祖赫居世二十一年甲申歲也四方聞之來附者衆其地連靺鞨部落恐侵盜爲害遂攘斥之靺鞨畏服不敢犯焉王見沸流水中有菜葉逐流下知有人在上流者因以獵徃尋至沸流國其国王松讓出見曰寡人僻在海隅未嘗得見君子今日邂逅相遇不亦幸乎然不識吾子自何而来荅曰我是天帝子来都於某所松讓曰我累世爲王地小不足容兩主君立都曰淺爲我附庸可乎王忿其言因與之鬪辯亦相射以校藝松讓不能抗

二年夏六月松讓以國来降以其地為多勿都封松讓為主麗語謂復舊土為多勿故以名焉

三年春三月黄龍見於鶻嶺

秋七月慶雲見鵾嶺南其邑青赤

四年夏四月雲霧四起人不辨色七日

秋七月營作城郭宮室

六年秋八月神雀集宮庭

冬十月王命烏伊扶芬奴伐大白山東南荇人國取其地為城邑

十年秋九月鸞集於王臺

冬十一月王命扶尉猒伐北沃沮滅之以其地爲城邑

十四年秋八月王母柳花薨於東扶餘其王金蛙以大后禮葬之遂立神廟

冬十月遣使扶餘饋方物以報其德

十九年夏四月王子類利自扶餘與其母逃歸王喜之立爲太子

秋九月王升遐時年四十歲葬龍山號東明聖王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溫祚王

百濟始祖溫祚王其父鄒牟或云朱蒙自北扶餘逃難至卒本扶餘扶餘王無子只有三女子見朱蒙知非常人以弟二女妻之未幾扶餘王薨朱蒙嗣位生二子長曰沸流次曰溫祚或云朱蒙到卒本娶越郡女生二子及朱蒙在北扶餘所生子來爲太子沸流溫祚恐爲太子所不容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百姓從之者多遂至漢山登負兒嶽望可居之地沸流欲居於海濱十臣諫曰惟此河南之地北帶漢水東據高岳南望沃澤西阻大海其天險地利難得之勢作都於斯不亦宜乎沸流不聽分其民歸弥鄒忽以居之溫祚都河南慰禮城以十臣爲輔翼國號十濟是前漢成帝鴻嘉三年也沸流以彌鄒土濕水鹹不得安居歸見慰禮都邑鼎定人民安泰遂慙悔而死其臣民皆歸於慰禮後以來時百姓樂從改號百濟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故以扶餘爲氏一云始祖沸流王其父優台北扶餘王解扶婁庶孫母召西奴卒本人延陁勃之女始歸于優台生子二人長曰沸流次曰溫祚優台死寡居于卒本後朱蒙不容於扶餘以前漢建昭二年春二月南奔至卒本立部號高句麗娶召西奴爲妃其於問基創業頗有內助故朱蒙寵接之特厚待沸流等如己子及朱蒙在扶餘所生禮氏子孺留來立之爲太子以至嗣位焉於是沸流謂第溫祚曰始大王避扶餘之難逃歸至此我母氏傾家財助成邦業其助成郅業其勤勞多矣及大王厭世國家屬於孺留吾等徒在此欝欝如疣贅不如奉母氏南遊卜地別立國都遂與弟率黨類渡浿帶二水至彌鄒忽以居之北史及隋書皆云東明之後有仇台篤於仁信初立國于帶方故地漢遼東大守公孫度以女妻之遂爲東夷強國未知孰是

元年夏五月立東明王廟

二年春正月王謂羣臣曰靺鞨連我北境其人勇而多詐宜繕兵積穀爲拒守之計

三月王以族父乙音有智識膽力拜爲右輔委以兵馬之事

三年秋九月靺鞨侵北境王帥勁兵急擊大敗之賊生還者十一二

冬十月雷桃李華

四年春夏旱饑疫

秋八月遣使樂浪修好

五年冬十月巡撫北邊獵獲神鹿

六年秋七月辛未晦日有食之

八年春二月靺鞨賊三千來圍慰禮城王閉城門不出經旬賊糧盡而歸王簡銳卒追及大斧峴一戰克之殺虜五百餘人

秋七月築馬首城竪瓶山柵樂浪太守使告曰頃者聘問結好意同一家今逼我疆造立城柵或者其有蠶食之謀乎若不渝舊好隳城破柵則無所猜疑苟或不然請一戰以決勝負王報曰設險守國古今常道豈敢以此有渝於和好宜若執事之所不疑也若執事恃強出師則小國亦有以待之耳由是與樂浪失和

十年秋九月王出獵獲神鹿以送馬韓

冬十月靺鞨寇北境王遣兵二百拒戰於昆彌川上我軍敗績依青木山自保王親帥精騎一百出烽峴救之賊見之即退

十一年夏四月樂浪使靺鞨襲破瓶山柵殺掠一百餘人

秋七月設禿山狗川兩柵以塞樂浪之路

十三年春二月王都老嫗化爲男五虎入城

王母薨年六十一歲

夏五月王謂臣下曰國家東有樂浪北有靺鞨侵軼疆境少有寧曰況今妖祥屢見國母弃養勢不自安必將遷國予昨出巡觀漢水之南土壤膏腴宜都於彼以圖久安之計

秋七月就漢山下立柵移慰禮城民戶

八月遣使馬韓告遷都遂畫定疆場北至浿河南限熊川西窮大海東極走壤

九月立城闕

十四年春正月遷都

二月王巡撫部落務勸農事
秋七月築城漢江西北分漢城民
十五年春正月作新宮室儉而不陋華而不侈
十七年春樂浪來侵焚慰禮城
夏四月立廟以祀國母
十八年冬十月靺鞨掩至王帥兵逆戰於七重河虜獲酋長
素牟送馬韓其餘賊盡坑之
十一月王欲襲樂浪牛頭山城至臼谷遇大雪乃還
二十年春二月王設大壇親祠天地異鳥五來翔
二十二年秋八月築石頭高木二城
九月王帥騎兵一千獵斧峴東遇靺鞨賊一戰破之虜獲生
口分賜將士
二十四年秋七月王作熊川柵馬韓王遣使責讓曰王初渡
河無所容足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今以國完民聚謂莫與我敵大設城池侵犯
我封疆其如義何王慙遂壞其柵
二十五年春二月王宮井水暴溢漢城人家馬生牛一首二
身曰者曰井水暴溢者大王勃興之兆也牛一首二身者大
王并鄰國之應也王聞之喜遂有并呑辰馬之心
二十六年秋七月王曰馬韓漸弱上下離心其勢不能又儻
爲他所并則脣亡齒寒悔不可及不如先人而取之以免後
艱
冬十月王出師陽言田獵潛襲馬韓遂并其國邑唯圓山錦
峴二城固守不下
二十七年夏四月二城降移其民於漢山之北馬韓遂滅
秋七月築大豆山城
二十八年春二月立元子多婁爲太子委以內外兵事
夏四月隕霜害麥
三十一年春正月分國內民戶爲南北部
夏四月雹
五月地震
六月又震
三十三年春夏大旱民饑相食盜賊大起王撫安之
秋八月加置東西二部
三十四年冬十月馬韓舊將周勤據牛谷城叛王躬帥兵五
千討之周勤自經腰斬其尸并誅其妻子
三十六年秋七月築湯井城分大豆城民戶居之
八月修葺圓山錦峴二城築古沙夫里城
三十七年春三月雹大如雞子鳥雀遇者死
夏四月旱至六月乃雨漢水東北部落饑荒亡入高句麗者
一千餘戶浿帶之間空無居人
三十八年春二月王巡撫東至走壤北至浿河五旬而返
三月發使勸農桑其以不急之事擾民者皆除之
冬十月王築大壇祠天地
四十年秋九月靺鞨來攻述川城
冬十一月又襲斧峴城殺掠百餘人王命勁騎二百拒擊之
四十一年春正月右輔乙音卒拜北部解婁爲右輔解婁卒
扶餘人也神識淵與年過七十旅力不愆故用之
二月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十五歲以上修營慰禮城
四十三年秋八月王田牙山之原五日
九月鴻鴈百餘集王宮曰者曰鴻鴈民之象也將有遠人來
投者乎
冬十月南沃沮仇頗解等二十餘家至斧壤納款王納之安
置漢山之西
四十五年春夏大旱草木焦枯
冬十月地震傾倒人屋
四十六年春二月王薨

卷第三十五 雜志 第四

水城郡本高句麗 買忽郡 景德王改名今水州
溟州本高句麗 河西良 一作何瑟羅 後屬新羅
賈耽 古今郡國志云今新羅北界溟州蓋濊之古國前史以扶餘爲濊地蓋誤
善德王時爲小京置仕臣太宗王五年唐顯慶三年以何瑟羅地連靺鞨罷京爲州置軍主以鎭之景德王十六年改爲溟州今因之領縣四
旌善縣本高句麗 仍買縣 景德王改名今因之
棟 一作棟 隄縣本高句麗 東吐縣 景德王改名今未詳
支山縣 本高句麗縣 景德王因之今連谷縣
洞山縣本高句麗 穴山縣 景德王改名今因之
三陟郡本悉直國 婆娑王世來降智證王六年梁天監四年爲州以異斯夫爲軍主景德王改名今因之領縣四
竹嶺縣本高句麗 竹峴縣 景德王改名今未詳
滿卿 一作鄕 縣本高句麗 滿若縣 景德王改名今未詳
羽谿縣本高句麗 羽谷縣 景德王改名今因之
海利縣本高句麗 波利縣 景德王改名今未詳
守城郡本高句麗 迊城郡 景德王改名今杅城縣領縣二
童山縣本高句麗 僧山縣 景德王改名今烈山縣
翼嶺縣本高句麗 翼峴縣 景德王改名今因之
高城郡本高句麗 達忽 眞興王二十九年爲州置軍主景德王改名今因之領縣二
豢猳縣本高句麗 猪迊穴縣 景德王改名今因之
偏嶮縣本高句麗 平珍峴縣 景德王改名今雲巖縣

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高句麗始居中國北地則漸東遷于浿水之側渤海人武藝曰昔高麗盛時士三十萬抗唐爲敵則可謂地勝而兵強至于季末君臣昏虐失道大唐再出師新羅援肋討平之其地多入敦海 靺鞨新羅亦得其南境以置漢 朔 溟三州及其郡縣以備九州焉

何瑟羅州 一云河西良一云河西 乃買縣 東吐縣 支山縣 穴山縣 迊城郡 一云加阿忽 僧山縣 一云所勿達 翼峴縣 一云伊文縣 達忽 猪迊穴縣 一云烏斯押 平珍峴縣 一云平珍波衣 道臨縣 一云助乙浦 休壤郡 一云金惱 習比谷 一作呑 吐上縣 岐淵縣 鵠浦縣 一云古衣浦 竹峴縣 一云柰生於 滿若縣 一云兮 波利縣 于珍也郡 波且縣 一云波豊 也尸忽郡 助攬郡 一云才攬 靑已縣 屈火縣伊火芧縣于尸郡 阿兮縣 悉直郡 一云史直 羽谷縣右高句麗州郡縣共一百六十四其新羅改名及今名見新羅志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 충렬왕 7년(1281년)경에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一然)이 편찬한 사서(史書)로, 5권 2책(권1~5)이며, 목판본이다.

조선 초기본은 국보 제306-(1)호, 중종임신본(中宗壬申本)은 국보 제306-(2)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삼국유사'는 전체 5권 2책으로 되어 있고, 권과는 별도로 왕력(王歷)·기이(紀異)·흥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 등 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력은 삼국·가락국·후고구려·후백제 등의 간략한 연표이다. 기이편은 고조선으로부터 후삼국까지의 단편적인 역사를 서술하였다. 기이편의 서두에는 이 편을 설정하는 연유를 밝힌 서(敍)가 있다. 흥법편은 삼국의 불교수용과 그 융성에 관한 내용, 탑상편은 탑과 불상에 관한 내용, 의해편은 원광서학조(圓光西學條)를 비롯한 신라의 고승들에 대한 전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 신주편은 신라의 밀교적 신이승(神異僧)들에 대한 내용, 감통편은 신앙의 영이감응(靈異感應)에 관한 내용, 피은편은 초탈고일(超脫高逸)한 인물의 행적, 효선편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불교적인 선행에 대한 미담 등을 각각 수록하였다.

삼국유사는 한국고대의 역사·지리·문학·종교·언어·민속·사상·미술·고고학 등 총체적인 문화유산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역사·불교·설화 등에 관한 서적과 문집류, 고기(古記)·사지(寺誌)·비갈(碑碣) 등 지금은 전하지 않는 문헌들이 많이 인용되었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차자표기(借字表記)로 된 자료인 향가, 서기체(誓記體)의 기록, 이두로 된 비문류, 전적에 전하는 지명 및 인명의 표기 등은 한국고대어 연구의 귀한 자료가 되며 14수의 향가는 우리 나라 고대문학연구의 값진 자료이다. 셋째, 한국고대미술의 주류인 불교미술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탑상편의 기사는 탑·불상·사원건축 등에 그리고 역사고고학의 대상이 되는 유물·유적, 특히 불교의 유물·유적을 조사·연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헌으로 꼽힌다. 넷째, 풍류도(風流道)를 수행하던 화랑과 낭도들에 관한 자료를 상당히 전해주고 있다. 종교적이고 풍류적인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삼국사기』 화랑관계 기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본지에 첨부한 부록 물은 양양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 부분 발췌하여 편집실에서 재편집한 것이다.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第三 順道肇麗

順道肇麗道公之次亦有法深義淵曇嚴之流相継而興教然古傳無文今亦不敢編次詳見僧傳

高麗本記云小獸林王即位二年壬申乃東晉咸安二年孝武帝即位之年也前恭符堅遣使及僧順道送佛像經文時堅都關中即長安又四年甲戌阿道來自晉明年乙亥二月創肖門寺以置順道又創伊弗蘭寺以置阿道此高麗佛法之始僧傳作二道來自魏云者誤矣實自前秦而來又云肖堅校勘門寺今興國伊弗蘭寺今興福者亦誤按麗時都安市城一名安丁忽在遼水之北遼水一名校勘鴨淥今云安民江豈有松京之興國寺名

讚曰鴨淥春深渚草鮮白沙鷗鷺等閑眠忽驚柔櫓一聲遠何處漁舟客到烟

卷第三 興法第三 難陁闢濟

百濟本記云第十五僧傳云十四誤枕流王即位甲申東晉孝武帝大元校勘九年胡僧摩羅難陁至自晉迎置宮中禮敬明年乙酉創佛寺於新都漢山州度僧十人此百濟佛法之始又阿莘王即位大校勘元十七年二月下敎崇信佛法求福摩羅難陁譯云童學其異迹詳見僧傳

讚曰天造從來草昧間大都爲伎也應難翁翁自解呈歌舞引得傍人借眼看

卷第三 興法第三 阿道基羅一作我道又阿頭

新羅本記第四云第十九訥祇王時沙門墨胡子自高麗至一善郡郡人毛禮或作毛祿於家中作堀室安置時梁遣使賜衣著香物高得相詠史詩云梁遣使僧曰元表宣送溟檀及經像君臣不知其香名與其所用遣人齎香遍問國中墨胡子見之曰此之謂香也焚之則香氣芬馥所以達誠於神聖神聖未有過於三寶若燒此發願則必有靈應訥祇在晉宋之世而云梁遣使恐誤時王女病革使召墨胡子焚香表誓王女之病尋愈王喜厚加賚貶俄而不知所歸

又至二十一毗處王時有我道和尚與侍者三人亦來毛禮家儀表似墨胡子住數年無疾而終其侍者三人留住講讀經律徃徃有信奉者有注云與本碑及諸傳記殊異又高僧傳云西竺人或云從吳來按我道本碑云我道高麗人也母高道寧正始間曹魏人我姓我也崛摩奉使勾麗私之而還因而有娠師生五歲其母令出家年十六歸魏省覲崛摩投玄彰和尚講下就業年十九又歸寧於母母謂曰此國于今不知佛法爾後三千餘月雞林有聖王出大興佛教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墟一曰金橋東天鏡林今興輪寺金橋謂西川之橋俗訛呼云松橋也寺自我道始基而中廢至法興王丁未草創乙卯大開眞興王畢成二曰三川歧今永興寺与興輪開同代三曰龍宮南今皇龍寺眞興王癸酉始開四曰龍宮北今芬皇寺善德甲午始開五曰沙川尾今靈妙寺善德王乙未始開六曰神遊林今天王寺文武王己卯開七曰婿請田今曇嚴寺皆前佛時伽藍之墟法水長流之地爾歸彼而播揚大敎當東嚮於釋祀矣道稟敎至雞林寓正王城西里今嚴莊寺于時未雛王即位二年癸未也詣闕請行敎法世以前所未見爲嫌至有將殺之者乃逃隱于續林今一善縣毛祿家祿与礼形近之訛古記云法師初來毛祿家時天地震驚時人不知僧名而云阿頭彡麼彡麼者乃鄒言之称僧也猶言沙弥也三年時成國公主疾巫醫不效校勘勑使四方求醫師嶷然赴闕其疾遂理王大悅問其所須對曰貧道百無所求但願創佛寺於天境校勘林大興佛敎奉福邦家爾王許之命興工俗方質儉編茅葺屋住而講演時或天花落地号興輪寺毛祿之妹名史氏投師爲尼亦於三川歧創寺而居名永興寺未幾末校勘雛王即世國人將害之師還毛祿家自作塚閉戶自絶遂不復現因此大敎亦廢至二十三法興大王以蕭梁天監十三年甲午登位乃興釋氏距末校勘雛王癸未之歲二百五十二年道寧所言三千餘月驗矣

據此牟記與牟碑二說相戾不同如此嘗試論之梁唐二僧傳及三國牟史皆載麗濟二國佛教之始在晉末大元之間則二道法師以小獸林甲戌到高麗明矣此傳不誤若以毗處王時方始到羅則是阿道留高麗百餘歲乃來也雖大聖行止出沒不常未必皆爾抑亦新羅奉佛非晩甚如此又若在末校勘雞之世則却超先於到麗甲戌百餘年矣于時雞林未有文物禮教國号猶未定何暇阿道來請奉佛之事又不合高麗未到而越至于羅也設使暫興還廢何其間寂寥無聞而尚不識香名哉一何大後一何大先揆夫東漸之勢必始于麗濟而終乎羅則訥祗旣與獸林世相接也阿道之辭麗抵羅宜在訥祗之世又王女救病皆傳爲阿道之事則所謂墨胡者非真名也乃指目之辭如梁人指達摩爲碧眼胡晉調釋道安爲柒道人類也乃阿道危行避諱而不言名姓故也蓋國人隨其所聞以墨胡阿道二名分作二人爲傳爾況云阿道儀表似墨胡則以此可驗其一人也道寧之序七處直以創開先後預言之兩傳失之故今以沙川尾躋於五次三千餘月未必盡信書自訥祗之世抵乎丁未无慮一百餘年若曰一千餘月則殆幾矣姓我單名疑厲 難詳

又按元魏釋曇始一云惠始傳云始關十人自出家已後多有異迹晉孝武大校勘元九年末賣經律數十部姓遼東宣化現授三乘立以歸戒蓋高麗聞道之始也義熙初復遝開校勘中開導三輔始足白於面雖涉泥水未嘗沾濕天下咸稱白足和尚云晉末朔方凶奴赫連勃勃破獲關中斬戮無數時始亦遇害刀不能傷勃勃嗟嘆之普赦沙門悉皆不殺始於是潛遁山澤修頭陁行拓拔燾復尅長安擅威關洛時有博陵崔皓小習左道猜嫉釋教旣位居僞輔爲燾所信乃與天師冦謙之說燾佛教無益有傷民利勸令廢之云云大 平之末始方知燾將化時至乃以元會之日忽杖錫到宮門燾聞令斬之屢不傷燾自斬之亦無傷飼北園所養虎亦不敢近燾大生慙懼遂感癘疾崔冦二人相次發惡病燾以過由於彼於是諫滅二家門族宜校勘下國中大弘校勘佛法始後不知所終議曰曇始以大 校勘元末到海東義熙初還關中則留此十餘年何東史無文始旣恢詭不測之人而與阿道墨胡難陁年事相同三人中疑一必其變諱也

讚曰雪擁金橋凍不開雞林春色未全迴可怜青帝多才思先著毛郎宅裏梅

卷 第三 興法第三 原宗興法厥訥祗世一百餘年猒髑滅身

新羅牟記法興大王即位十四年小臣異次頓爲法滅身即蕭梁普通八年丁未西竺達摩來金陵之歲也是年朗智法師亦始住靈鷲山開法則大教興衰必遠近相感一時於此可信元和中南澗寺沙門一念撰髑香墳禮佛結社文載此事甚詳其略曰昔在法興大王垂拱紫極之殿俯察扶桑之域以謂昔漢明感夢佛法東流寡人自登位願爲蒼生欲造修福滅罪之處於是朝臣鄉傳云工目謁恭等未測深意唯遵理國之大義不從建寺之神略大王嘆曰於戲寡人以不德丕承大業上虧陰陽之造勘化下無黎庶之歡萬機之暇留心釋風誰與爲伴粤有內養者姓朴字猒髑或作異次或云伊處方音之別也譯云猒也髑頓道覩獨等皆隨書者之便乃助辭也今譯上不譯下故云猒髑又厥覩等也其父未詳祖阿珍宗即習寶葛文王之子也新羅官爵凡十七級其第四曰波珍飡亦云阿珍飡也宗其名也習寶亦名也羅人凡追封王者皆称葛文王其實史臣亦云未詳又按金用行撰阿道碑舍人時年二十六父吉升祖功漢曾祖乞解大王

挺竹栢而爲質抱水鏡而爲志積善曾孫望宮內之爪牙聖朝忠臣企河清之登侍時年二十二當充舍人羅爵有大舍小舍等蓋下士之秩瞻仰龍顏知情擊目奏云臣聞古人問策葛蒉願以危罪啓諮王曰非爾所爲舍人曰爲國亡身臣之大節爲君盡命民之直義以謬傳辭刑臣斬首則萬民咸伏不敢違教王曰解肉枰軀將贖一鳥洒血摧命自怜七獸朕意利人何殺無罪汝雖作功德不如避罪舍人曰一切難捨不過身命然小臣夕死大教朝行佛日再中聖主長安王曰鸞鳳之子幼有凌霄之心鴻鵠之兒生懷截波之勢爾得如是可謂大士之行乎於焉大王權整威儀風刁東西霜仗南北以

召群臣乃問卿等於我欲造精舍故作留難卿傳云髑爲以王命傳下與工創寺之意羣臣來諫王乃責怒於髑刑以僞傳王命於是羣臣戰戰兢懼倥侗作誓指手東西王喚舍人而詰之舍人失色無辭以對大王忿怒勑令斬之有司縛到衙下舍人作誓獄吏斬之白乳湧出一丈鄉傳云舍人誓曰大聖法王欲興佛教不顧身命多却結緣天垂瑞祥遍示人庶於是其頭飛出落於金剛山頂云云天四黯黲斜景爲之晦明地六震動雨花爲之飄落聖人哀戚沾悲淚於龍衣冢宰憂傷流輕汗於蟬冕甘泉忽渴魚鼈爭躍直木先折猿猱群鳴春宮連毓之侶泣血相顧月庭交袖之朋斷腸惜別望柩聞聲如喪考妣咸謂子推割股未足比其苦節弘演剖腹詎能方其壯烈此乃扶丹墀之信力咸阿道之本心聖者也遂乃葬北山之西嶺卽金剛山也傳云頭飛落處因葬其地今不言何也內人哀之卜勝地造蘭若名曰刺楸寺於是家家作禮必獲世榮人人行道當曉法利

真興大王卽位五年甲子造大興輪寺按国史與鄉傳実法與王十四年丁未始開二十一年乙卯大伐天鏡林始與工梁棟之材皆於其林中取足而階礎石龕皆有之至真興王五年甲子寺成故云甲子僧傳云七年誤大清之初梁使沈湖將舍利天壽六年陳使劉思并僧明觀奉內経并次寺寺星張塔塔鴈行竪法幢懸梵鏡龍象釋徒爲寰中之福田大小乘法爲京國之慈雲他方菩薩出現於世謂芬皇之陳那浮石寶蓋以至洛山五臺等是也西域名僧降臨於境由是併三韓而爲邦掩四海而爲家故書德名於天鋭之樹影神迹於星河之水豈非三聖威之所致也謂我道法與獾髑也降有國統惠隆法主孝圓金相郎大統鹿風大書省真怒波珍飡金鼈等建舊塋樹豐碑元和十二年丁酉八月五日卽第四十一憲德大王九年也興輪寺永秀禪師于時瑜伽諸德皆称禪師結湊斯塚禮佛之香徒每月五日爲魂之妙願營壇作梵又鄉傳云鄉老每當忌旦設社會於興輪寺則今月初五乃舍人捐軀順法之晨也嗚呼無是君無是臣無是臣無是切可謂劉葛魚水雲龍感會之美歟法興王旣舉廢立寺寺成謝冕旒披方袍施宮戚爲寺隷寺隷至今称王孫後至太宗王時宰輔金良圖信向佛法有二女曰花寶蓮寶捨身爲此寺婢又以逆臣毛尺之族没寺爲隷二族之裔至今不絶主住其寺躬任弘化真興乃繼德重聖承衮職處九五威率百僚号令畢備因賜額大王興輪寺

前王姓金氏出家法雲字法空僧傳与諸說亦以王妃出家名法雲又真興王爲法雲又以爲真興之妃名法雲頗多疑混冊府元龜云姓募名叅初興役之乙卯歲王妃亦創永興寺慕史氏之遺風同王落彩爲尼名妙法亦住永興寺有年而終國史云建福三十一年永興寺塑像自壞未幾真興王妃比丘尼卒按真興乃法興之姪子妃思刀夫人朴氏牟梁里英失角干之女亦出家爲尼而非永興寺之創主也則恐真宇當作法謂法興之妃巴刁夫人爲尼者之卒也乃創寺立像之主故也二興捨位出家史不書非經世之訓也

又於大通元年丁未爲梁帝創寺於熊川州名大通寺熊川卽公州也時屬新羅故也然恐非丁未也乃中大通元年己酉歲所創也始創與輪之丁未未暇及於他郡立寺也

讚曰聖智從來萬世謀區區輿議謾秋毫法輪解逐金輪轉舜日方將佛日高右原宗徇義輕生已足驚天花白乳更多情俄然一釰身亡後院院鍾聲動帝京右獾髑

卷 第三 塔像 第四 迦葉佛宴坐石

玉龍集及慈藏傳與諸家傳紀皆云新羅月城東龍宮南有迦葉佛宴坐石其地卽前佛時伽藍之墟也今皇龍寺之地卽七伽藍之一也按國史真興王卽位十四開國三年癸酉二月築新宮於月城東有皇龍現其地王疑之改爲皇龍寺宴坐石在佛殿後面甞一謁焉石之高可五六尺來圍僅三肘幢立而平頂真興創寺已來再經災火石有析裂處寺僧貼鐵爲護

乃有讚曰惠日沉輝不記年唯餘宴坐石依然桑田幾度成滄海可惜巍然尚未遷旣而西山大兵已後殿塔煨燼而此石亦夷没而僅與地平矣

按阿含經迦葉佛是賢劫第三尊也人壽二萬歲時出現於世擾此以增減法計之每成劫初皆壽無量歲漸減至壽八萬歲時爲住劫之初自此又百年減一歲至壽十歲時爲迦葉佛宴坐石

一減又增至人壽八萬歲時爲一增如是二十減二十增爲一住劫此一住劫中有千佛出世今卒師釋迦是第四尊也四尊皆現於第九減中自釋尊百歲壽時至迦葉佛二萬歲時已得二百萬餘歲若至賢劫初第一尊拘留孫佛時又幾

萬歲也自拘留孫佛時上至劫初無量歲壽時又幾何也自釋尊下至于今至元十八年辛巳歲已得二千二百三十矣自拘留孫佛歷迦葉佛時至于今則直幾萬歲也有卒朝名士吳世文作歷代歌從大金貞祐七年己卯逆數至四萬九千六百餘歲爲盤古開闢戊寅又延禧宮録事金希寧所撰大一歷法自開闢上元甲子至元豐甲子一百九十三萬七千六百四十一歲又纂古圖云開闢至獲麟二百七十六萬歲按諸經且以迦葉佛時至于今爲此石之壽尚距於劫初開闢時爲兒子矣三家之說尚不及茲兒石之年其於開闢之說疎之遠矣

卷 第三 塔像 第四 遼東城育王塔

三寶感通録載高麗遼東城傍塔者古老傳云昔高麗聖王按行國界次至此城見五色雲覆地徃尋雲中有僧執錫而立旣至便滅遠看還現傍有土塔三重上如覆釜不知是何更徃覓僧唯有荒草掘尋一丈得杖并履又掘得銘上有梵書侍臣識之云是佛塔王委曲問詰荅曰漢國有之彼名蒲圖王本作休屠王祭天金人因生信起木塔七重後佛法始至具知始末今更損高卒塔朽壞育王所統一閻浮提洲處處立塔不足可悋又唐龍朔中有事遼左行軍薛仁貴行至隋主討遼古地乃見山像空曠蕭條絶於行徃問古老云是先代所現便圖 寫來京師具在若函按西漢與三國地理志遼東城在鴨緑之外屬漢幽州高麗聖王未知何君或云東明聖帝疑非也東明以前漢元帝建昭二年即位成帝鴻嘉壬寅升遐于時漢亦未見具葉何得海外陪臣已能識梵書乎然稱佛爲蒲圖 王似在西漢之時西域文字或有識之者故云梵書爾按古傳育王命鬼徒每於九億人居地立一塔如是起八萬四千於閻浮界内藏於巨石中今處處有現瑞非一蓋真身舍利感應難思矣讚曰育王寶塔遍塵寰雨濕雲埋蘚緬班想像當年行路眼幾人指點祭神墦

卷 第三 塔像 第四 金官城婆娑石塔

金官虎溪寺婆娑石塔者昔此邑爲金官國時世祖首露王之妃許皇后名黄玉以東漢建武二十四年甲申自西域阿踰陁國所載來初公主承二親之命泛海將指東阻波神之怒不克而還白父王父王命載茲塔乃獲利涉來泊南涯有緋帆茜旗珠玉之美今云主浦初解綾袴於岡上處曰綾峴茜旗初入海涯曰旗出邊首露王聘迎之同御國一百五十餘年然于時海東未有創寺奉法之事蓋像教未至而土人不信伏故本記無創寺之文逮第八代銍知王二年壬辰置寺於其地又創王后寺在阿道訥祇王之世法興王之前至今奉福焉兼以鎮南倭具見本國本記塔方四面五層其彫鏤甚奇石微赤班色其質良脆非此方類也本草所云黜雞冠血爲驗者是也金官國亦名駕洛國具載本記

讚曰載厥緋帆茜旆輕乞靈遮莫海濤驚豈徒到岸扶黄玉千古南倭遏怒鯨

卷 第三 塔像 第四 高麗靈塔寺

僧傳云釋普德字智法前高麗龍岡縣人也詳見下本傳常居平壤城有山方老僧來請講經師固辭不免赴講涅槃經四十餘卷罷席至城西大寶山嵓穴下禪觀有神人來請宜住此地乃置錫杖於前指其地曰此下有八面七級石塔掘之果然因立精舍曰靈塔寺以居之

卷 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丈六

新羅第二十四真興王即位十四年癸酉二月將築紫宮於龍宮南有黄龍現其地乃改置爲佛寺号黄龍寺至己丑年周圍墻宇至十七年方畢未幾海南有一巨舫來泊於河曲縣之絲浦今蔚州谷浦也撿看有牒丈云西竺阿育王聚黄鐵五萬七千斤黄金三萬分別傳云鐵四十万七千斤金一千兩恐誤或云三万七千斤將鑄釋迦三尊像未就載舡泛海而祝曰願到有

緣國土成丈六尊容并載模樣一佛二菩薩像縣吏具狀上聞勑使卜其縣之城東爽塏之地創東竺寺邀安其三尊輸其金鐵於京師以大建六年甲午三月寺中記云癸巳十月十七日鑄成丈六尊像一鼓而就重三萬五千七斤入黃金一萬一百九十八分二菩薩入鐵一萬二千斤黃金一萬一百三十六分安於皇龍寺明年像淚流至踵 沃地一尺大王升遐之兆或云像成在真平之世者謬也別本云阿育王在西竺大香華國生佛後一百年間恨不得供養真身斂化金鐵若干斤三度鑄成無功時王之太子獨不預斯事王使詰之太 子奏云獨力非功曾知不就王然之乃載舡泛海南閻浮提十六大國五百中國十千小國八萬聚落靡不周旋皆鑄不成最後到新羅國真興王鑄之於文仍林像成相好畢備阿育此飜無憂後大德慈藏西學到五臺山感文殊現身授訣仍囑云汝國皇龍寺乃釋迦與迦葉佛講演之地宴坐石猶在故天竺無憂王聚黃鐵若干斤泛海歷一千三百餘年然後乃到而國成安其寺蓋威緣使然也与別記所載符同像成後東竺寺三尊亦移安寺中寺記云真平五年甲辰金堂造成善德王代寺初主真骨歡喜師第二主慈藏國統次國統惠訓次廂律師云今兵火已來大像與二菩薩皆融没而小釋迦猶存焉

讚曰塵方何處匪真鄉香火因緣最我邦不是育王難下手月城來訪舊行藏

卷 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九層塔

新羅第二十七善德王即位五年貞觀十年丙申慈藏法師西學乃於五臺感文殊授法詳見本傳文殊又云汝國王是天竺刹利種王預受佛記故別有因緣不同東夷共工之族然以山川崎嶮故人性麁悖多信邪見而時或天神降禍然有多聞比丘在於國中是以君臣安泰萬庶和平矣言已不現藏知是大聖變化泣血而退經由中國太和池邊忽有神人出問胡爲至此藏荅曰求菩提故神人禮拜又問汝國有何留難藏曰我國北連靺鞨南接倭人麗濟二國迭犯封陲隣冠縱橫是爲民梗神人云今汝國以女爲王有德而無威故隣國謀之宜速歸本國藏問歸鄉將何爲利益乎神曰皇龍寺護法龍是吾長子受梵王之命來護是寺歸本國成九層塔於寺中隣國降伏九韓來貢王祚永安矣建塔之後設八關會赦罪人則外賊不能爲害更爲我於京畿南岸置一精廬共資予福予亦報之德矣言已遂奉王而獻之忽隱不現寺中記云於終南山圓香禪師処受建塔因由

貞觀十七年癸卯十六日將唐帝所賜經像袈裟幣帛而還國以建塔之事聞於上善德王議於群臣群臣曰請工匠於百濟然後方可乃以寶帛請於百濟匠名阿非知受命而来經營木石伊于龍春一云龍樹幹蠱率小匠二百人初立刹柱之日匠夢本國百濟滅亡之狀匠乃心疑停手忽大地震動晦冥之中有一老僧一壯士自金殿門出乃立其柱僧與壯士皆隱不現匠於是改悔畢成其塔

刹柱記云鐵盤已上高四十二尺已下一百八十三尺慈藏以五臺所授舍利百粒分安於柱中并通度寺戒壇及大和寺塔以副池龍之請大和寺在阿曲縣南今蔚州亦藏師所創也樹塔之後天地開泰三韓爲一豈非塔之靈祚乎後高麗王將謀伐羅乃曰新羅有三寶不可犯也何謂也皇龍丈六并九層塔與真平王天賜玉帶遂寢其謀周有九鼎楚人不敢北窺此之類也

讚曰鬼拱神扶壓帝京輝煌金碧動飛甍 登臨何啻九韓伏始覺乾坤特地平

又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云新羅第二十七代女王爲主雖有道無威九韓侵勞若龍宮南皇龍寺建九層塔則隣國之災 可鎮第一層日本第二層中華第三層吳越第四層托羅第五層鷹遊第六層靺鞨第七層丹國第八層女狄第九層濊貊又按國史及寺中古記真興王癸酉創寺後善德王代貞觀十九年乙巳塔初成三十二孝昭王即位七年聖曆元年戊戌六月霹靂寺中古記云聖德王代誤也聖德王代無戊戌第三十三聖德王代庚申歲重成四十八景文王代戊子六月第二霹靂同代第三重修至本朝光宗即位五年癸丑十

月第三霹靂現宗十三年辛酉第四重成又靖宗二年乙亥第四霹靂又文宗甲辰年第五重成又憲宗末年乙亥第五霹靂肅宗丙子第六重成又高宗十六年戊戌冬月西山兵火塔寺丈六殿宇皆災

卷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新羅第三十五景德大王以天寶十三甲午鑄皇龍寺鍾長一丈三寸厚九寸八重四十九万七千五百八十一斤施主孝貞伊王三毛夫人匠人里上宅下典肅宗朝重成新鍾長六尺八寸

又明年乙未鑄芬皇藥師銅像重三十万六千七百斤匠人本彼部強古乃未

又捨黃銅一十二万斤爲先考聖德王欲鑄巨鍾一口未就而崩其子惠恭大王乾運以大曆庚戌十二月命有司鳩工徒乃克成之安於奉德寺寺乃孝成王開元二十六年戊寅爲先考聖德大王奉福所創也故鍾銘曰聖德大王神鍾之銘聖德乃景德之考典光大王也鍾本景德爲先考所施之金故称云聖德鍾尒朝散大夫前 太子司議郎翰林郎金弼奉教撰鍾銘文煩不録

卷第三 塔像 第四 靈妙寺丈六

善德王創寺塑像因緣具載良志法師傳景德王即位二十三年丈六改金租二万三千七百碩良志傳作像之初成之費今兩存之

卷第三 塔像 第四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竹嶺東百許里有山屹然高峙真平王九年甲申忽有一大石四面方丈彫四方如來皆以紅紗護之自天墜其山頂王聞之命駕瞻敬遂創寺嵓側額曰大乘寺請比丘亡名誦蓮經者主寺洒掃供石香火不廢号曰亦德山或曰四佛山比丘卒既葬塚上生蓮又景德王遊幸栢栗寺至山下聞地中有唱佛聲命掘之得大石四面刻四方佛因創寺以掘佛爲号今訛云掘石

王又聞唐代宗皇帝優崇釋氏命工作五色氍毹又彫沉檀木與明珠美玉爲假山高丈餘置氍毹之上山有巉嵓倅石澗冗區隔每一區內有歌舞伎樂列國山川之狀微風入戶蜂蝶翱翔鷲雀飛舞隱約視之莫辨真假中安萬佛大者逾方寸小者八九分其頭或巨黍者或半菽者螺髻白毛眉目的皪相好悉備只可髣髴莫得而詳因号萬佛山更鏤金玉爲流蘇幡蓋菴羅蒼蔔花果莊嚴百步樓閣臺殿堂榭都大雖微勢皆活動前有旋遶比丘像千餘軀下列紫金鍾三簴皆有閣有蒲牢鯨魚爲撞有風而鍾鳴則旋遶僧皆仆拜頭至地隱隱有梵音盖關楗在乎鍾也雖号萬佛其實不可勝記

既成遣使献之代宗見之嘆曰新羅之巧天造非巧也乃以九光扇加置嵓岫間因謂之佛光四月八日詔两街僧徒於內道場禮万佛山命三藏不空念讚密部真詮千遍以慶之觀者皆嘆伏其巧

讚曰天糅滿月四方裁地湧明毫一夜開妙手更煩彫萬佛真風要使遍三才

卷第三 塔像 第四 生義寺石彌勒

善德王時釋生義常住道中寺夢有僧引上南山而行令結草爲標至山之南洞謂曰我埋此處請師出安嶺上既覺與友人尋所標至其洞掘地有石弥勒出置於三花嶺上善德王十二年甲辰歲創寺而居後名生義寺今訛言性義寺忠淡師每歲重三重九烹茶献供者是此尊也

卷第三 塔像 第四 前後所藏舍利

國史云真興王大清三年己巳梁使沈湖送舍利若干粒善德王代貞觀十七年癸卯慈藏法師所將佛頭骨佛牙佛舍

利百粒佛所著緋羅金點袈裟一領其舍利分爲三一分在
皇龍塔一分在太和塔一分并袈裟在通度寺戒壇其餘未
詳所在壇有二級上級之中安石蓋如覆鑊諺云昔在夲朝
相次有二廉使禮壇舉石鑊而敬之前感脩蟒在函中後見
巨蟾蜍石腹自此不敢舉之近有上將軍金公利生庚侍郎
碩以高廟朝受旨指揮江東仗節到寺擬欲舉石瞻禮寺僧
以徃事難之二公令軍士固舉之內有小石函函襲之中貯
以瑠璃筒筒中舍利只四粒傳示瞻敬筒有小傷裂處於是
庾公適蓄一水精函子遂奉施兼藏焉識之以記移御江都
四年乙未歲也古記稱百枚分藏三虖今唯四爾旣隱現隨
人多小不足恠也又諺云其皇龍寺塔災之日石鑊之東面
始有大斑至今猶然即大遼應曆三年癸丑歲也本朝光廟
五載也塔之第三災也曺溪無衣子留詩云聞道皇龍災塔
日連燒一面示無間是也自至元甲子已來大朝使佐本國
皇華爭来瞻禮四方雲水輻湊來叅或舉不舉真身四枚外
變身舍利碎如砂礫現於[illegible]外而異香郁烈祘日不歇者比
比有之此末季一方之奇事也
唐大中五年辛未入朝使元弘所將佛牙今未詳所在新羅文聖
王代後唐同光元年癸未本朝大祖即位六年入朝使尹質所
將五百羅漢像今在北崇山神光寺大宋宣和元年己卯睿廟
十五年入貢使鄭克永李之美等所將佛牙今內殿置奉者是
也
相傳云昔義湘法師入唐到終南山至相寺智儼尊者處隣
有宣律師常受天供每齋時天厨送食一日律師請湘公齋
湘至坐定旣久天供過時不至湘乃空鉢而歸天使乃至律
師問今日何故遲天使曰滿洞有神兵遮擁不能得入於是
律師知湘公有神衛乃服其道勝仍留其供具翌日又邀儼
湘二師齋具陳其由湘公從容謂宣曰師旣被天帝所敬嘗
聞帝釋宮有佛四十齒之一牙爲我等輩請下人間爲福如
何律師後與天使傳其意於上帝帝限七日送與湘公致敬
訖邀安大內後至大宋徽宗朝崇奉尤道時國人傳畐讖曰
金人敗國黃巾之徒諷日官奏曰金人者佛教之謂也將不
利於國家議將破滅釋氏坑諸沙門焚燒経典而別造小舡
載佛牙泛於大海任隨緣流泊
于時適有本朝使者至宋聞其事以天花茸五十領紵布三
百疋行賂於押舡內史密授佛牙但流空舡使臣等旣得佛
牙來奏於是睿宗大喜奉安于十負　殿左掖小殿常鑰匙殿
門施香燈于外每親幸日開殿瞻敬
至壬辰歲移御次內官忩遽中忘不收撿至丙申四月御願
堂神孝寺釋湜光請致敬佛牙聞于上勑令內臣遍檢宮中
無得也時栢臺侍御史崔冲命薛伸急徵于諸謁者房皆未
知所措內臣金承老奏曰壬辰年移御時紫門日記推看從
之記云入內侍大府卿李白全受佛牙函云召李詰之對曰
請歸家更尋私記到家檢看得左番謁者金瑞龍佛牙函准
受記來呈召問瑞龍無辭以對又以金承老所奏云壬辰至
今丙申五年間御佛堂及景靈殿上守等囚禁問當依違未
決
隔三日夜中瑞龍家園墻裏有投擲物聲以火檢看乃佛牙
函也函本內一重沉香合次重純金合次外重白銀函次外
重瑠璃函次外重螺鈿函各幅子如之今但　瑠璃函爾喜得
之入達于內有司議金瑞龍及兩殿上守皆誅晉陽府奏云
因佛事不合多傷人皆免之更勑十負殿中庭特造佛牙殿
安之令將士守之擇吉日請神孝寺上房湜光領徒三十人
入內設齋敬之其日入直承宣崔弘上將軍崔公衍李令長
內侍茶房等侍立于殿庭依次頂戴敬之佛牙區穴間舍利
不知數晉陽府以白銀合貯而安之時主上謂臣下曰朕自
亾佛牙已來自生四疑一疑天宮七日限滿而上天矣二疑
國亂如此牙旣神物且移有緣無事之邦矣三疑貪財小人
盜取函幅弃之溝壑矣四疑盜取珎利而無計自露匿藏家
中矣今第四疑當之矣乃放聲大哭滿庭皆洒涕獻壽至有
煉頂燒臂者不可勝計得此實録於當時內殿焚修前祇林
寺大禪師覺猷言親所眼見使予録之

又至庚午出都之亂顚沛之甚過於壬辰十負殿監主禪師心鑑亡身佩持獲免於賊難達於大內大賞其功移授名刹今住氷山寺是亦親聞於彼
真興王代天嘉六年乙酉陳使劉思與釋明觀載送佛經論一千七百餘卷
貞觀十七年慈藏法師載三藏四百餘函來安于通度寺
興德王代大[校勘 001]和元年丁未入學僧高麗釋丘德賫佛經若干函來王與諸寺僧徒出迎于興輪寺前路
大中五年入朝使元弘賫佛經若干軸來羅末普耀禪師再至吳越載大藏經來即海龍王寺開山祖也大宋元祐甲戌有人真讚云偉哉初祖巍乎真容再至吳越大藏成功賜銜普耀鳳詔四封若問其德白月清風又大定中漢南管記彭祖逖留詩云水雲蘭若住空王況是神龍穩一場畢竟名藍誰浔似初傳像教自南方有跋云昔普耀禪師始求大藏於南越洎旋返次海風忽起扁舟出没於波間師即言曰意者神龍欲留經耶遂呪願乃誠兼奉龍歸焉於是風靜波息旣浔還國遍賞山川求可以安邀處至此山忽見瑞雲起於山上乃與高第弘慶經營蓮社然則像教之東漸實始乎此漢南管記彭祖逖題寺有龍王堂頗多靈異乃當時隨經而来止者也至今猶存
又天成三年戊子默和尚入唐亦載大藏經來本朝睿廟時慧照國師奉詔西學市遼本大藏三部而来一本今在定惠寺海印寺有一本許叅政宅有一本
大安二年本朝宣宗代祐世僧統義天入宋多將天台教観而来此外方冊所不載高僧信士往来所賫不可詳記大教東漸洋洋乎慶矣哉
讚曰華月夷風尚隔烟鹿園鶴樹二千年流傳海外真堪賀東震西乾共一天
按此録義湘傳云永徽初入唐謁智儼然攄浮石本碑湘武德八年生丱歲出家永徽元年庚戌與元曉同伴欲西入至高麗有難而廻至龍朔元年辛酉入唐就學於智儼總章元年儼遷化咸享二年湘来還新羅長安二年壬寅示滅年七十八則疑與儼公齋於宣律師處請天宮佛牙在辛酉至戊辰七八年間也本朝高庙入江都壬辰年疑天宮七日限滿者誤矣忉利天一日夜當人間一百歲且從湘公初入唐辛酉計至高庙壬辰六百九十三歲也至庚子年始滿七百年而七日限已滿矣至出都至元七年庚午則七百三十年若如天言而七日後還天宮則禪師心鑑出都時佩持出献者恐非真佛牙也於是年春出都前於大內集諸宗名德乞佛牙舍利精勤雖切而不得一枚則七日限滿上天者幾矣二十一年甲申修補國清寺金塔國主與莊穆王后幸妙覺寺集衆慶讚訖右佛牙與洛山水精念珠如意珠君臣與大衆皆瞻奉頂戴後并納金塔内予亦預斯會而親見所謂佛牙者長三寸許而無舍利焉無極記

卷 第三 塔像 第四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昔義湘法師始自唐来還聞大悲真身住此海邊崛内故因名洛山盖西域寶陁洛伽山此云小白華乃白衣大士真身住處故借此名之齋戒七日浮座具晨水上龍天八部侍從引入崛内叅禮空中出水精念珠一貫給之湘領受而退東海龍亦献如意寶珠一顆師捧出更齋七日乃見真容謂曰於座上山頂雙竹湧生當其地作殿宜矣師聞之出崛果有竹從地湧出乃作金堂塑像而安之圓容麗質儼若天生其竹還没方知正是真身住也因名其寺曰洛山師以所受二珠鎮安于聖殿而去後有元曉法師継踵而來欲求瞻禮初至於南郊水田中有一白衣女人刈稻師戲請其禾女以稻荒戲荅之又行至橋下一女洗月水帛師乞水女酌其穢水献之師覆弃之更酌川水而飲之時野中松上有一青鳥呼曰休醍□和尚忽隱不現其松下有一隻脫鞋師旣到寺觀音座下又有前所見脫鞋一隻方知前所遇聖女乃真身也

故時人謂之觀音松師欲入聖崛更覩真容風浪大作不得入而去

後有崛山祖師梵日太和年中入唐到明州開國寺有一沙彌截左耳在衆僧之末與師言曰吾亦鄉人也家在溟州界翼嶺縣德耆坊師他日若還本國須成吾舍旣而遍遊叢席得法於盐官事具在本傳以會昌七年丁卯還國先創崛山寺而傳教

大中十二年戊寅二月十五日夜夢昔所見沙彌到窓下曰昔在明州開國寺與師有約旣蒙見諾何其晚也祖師驚覺押數十人到翼嶺境尋訪其居有一女居洛山下村問其名曰德耆女有一子年才八歲常出遊於村南石橋邊告其母曰吾所與遊者有金色童子母以告于師師驚喜與其子尋所遊橋下水中有一石佛昇出之截左耳類前所見沙彌即正趣菩薩之像也乃作簡子卜其營構之地洛山上方吉乃作殿三間安其像古本載梵日事在前相曉二師在後然按湘曉二師尒□於高宗之代梵日在於會昌之後相昌一百七十餘歲故今前却而編次之或云梵日爲相之門人謬妄也

後百餘年野火連延到此山唯二聖殿獨免其災餘皆煨燼及西山大兵已來癸丑甲寅年間二聖真容及二寶珠移入襄州城大兵來攻甚急城將陷時住持禪師阿行古名希玄以銀合盛二珠佩持將逃逸寺奴名乞升奪取深埋於地誓曰我若不免死於兵則二寶珠終不現於人間人無知者我若不死當奉二寶献於邦家矣甲寅十月二十二日城陷阿行不免而乞升獲免兵退後掘出納於溟州道監倉使時郎中李祿綏爲監倉使受而藏於監倉庫中每交代傳受至戊午十一月本業老宿祇林寺住持大禪師覺猷奏曰洛山三珠國家神寶襄州城陷時寺奴乞升埋於城中兵退取納監倉使藏在溟州營庫中今溟州城殆不能守矣宜輸安御府主上允可發夜別抄十人率乞升取於溟州城入安於內府時使介十人各賜銀一斤米五石

昔新羅爲京師時有世達寺今興教寺也之莊舍在溟州棆李郡按地理志溟州無棆李郡唯有棆城郡本棆生郡今寧越又牛首州領縣有棆靈郡本棆已郡今剛州牛首州今春以今言棆李郡未知孰是本寺遺□僧調信爲知莊上悅□守金昕公之女惑之深屢就洛山大悲前潛祈得幸方數年間其女已有配矣又徃堂前惡大悲之不遂已哀泣至日暮情思倦憊俄成假寢忽夢金氏娘容豫入門粲然啓齒而謂曰児早識上人於半面心乎愛矣未嘗暫忘迫於父母之命強從人矣今願爲同穴之友故來爾信乃顚喜同故鄉里計活四十餘霜有児息五家徒四壁藜藿不給遂乃落魄扶携糊其口於四方如是十年周流草野懸鶉百結亦不掩体適過溟州蟹縣嶺大児十五歲者忽餧死痛哭收瘞於道從孿餘四口到羽曲縣今羽縣也結茅於路傍而舍夫婦老且病飢不能與十歲女児巡乞乃爲里媪所噬號痛卧於前父母爲之歔欷泣下數行婦乃□澁拽涕倉卒而語曰予之始遇君也色美年芳衣袴稠鮮一味之甘湏與子分之数尺之煖得與子共之出虜五十年情鍾莫逆恩愛綢繆可謂厚緣自比年來衰病歲益深飢寒日益迫傍舍壺漿人不容乞千門之耻重似丘山児寒児飢未遑計補何暇有愛悅夫婦之心戚紅顔巧笑草上之露約束芝蘭柳絮飄風君有我而爲累我爲君而足憂細思昔日之歡適爲憂患所階君乎予乎奚至此極與其衆鳥之同餧焉知隻鸞之有鏡寒弃炎附情所不堪然而行止非人離合有數請從此辞信聞之大喜各分二兒將行女曰我向桑梓君其南矣方分手進途而形開殘燈翳吐夜色將闌及旦鬢髮盡白惘惘然殊無人世意已猒勞生如飫百年辛苦貪染之心洒然氷釋於是慚對聖容懺滌無已歸撥蟹峴所埋兒乃石弥勒也灌洗奉安于隣寺還京師免莊任傾私財創淨土寺勲修白業後莫知所終議曰讀此傳掩卷而追繹之何必信師之夢爲然今皆知其人世之爲樂欣欣然役役然特未覺尒乃作詞誡之曰快適湏臾意已閑暗從愁裏老蒼顔不湏更待黄粱熟方悟勞生一夢間治身臧否先誠意繘夢蛾眉賊夢藏何似秋來清夜夢時時合眼到清涼

고려사高麗史 [조선 역사서]

문종 1년(1451년)에 완성된 고려시대에 관한 관찬(官撰)의 역사책.

동활자(갑인자)본. 세종 31년(1449년)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2년 반 만에 완성을 보고, 단종 2년(1454년)에 간행했다.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이선제(李先齊) 등의 관료들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책의 구성은 기전체 방식을 따랐으며 세가 46권, 지 39권, 표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 등 총 13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과 짝하여 편년체로 구성된 고려시대사인 〈고려사절요〉가 문종 2년(1452년)에 편찬되었다.

본지에 첨부한 부록 물은 양양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 부분 발췌하여 편집실에서 재편집한 것이다.

高麗史

卷五 世家 五 顯宗 20年 5月
五月。乙丑。東女眞四百餘人寇洞

卷五 世家 五 顯宗 21年 2月
甲午。交州。翼嶺。洞山縣地震。

卷八 世家 八 文宗 17年 1月
戊申。三司奏。翼嶺縣及西北面成州箐田場地産黃金。請附貢籍。

卷十 世家 十 宣宗 8年 6月
甲辰。都兵馬使奏。往年。蕃賊寇昌州。兵馬錄事安先俊等。領卒出屯德寧戍。遣郎將高猛等。追捕奮擊。賊大潰。校尉崇儉。隊正邊鶴等。突入賊中。士卒增氣。俘斬有功。乞加職賞。以勸將來。制可。

卷十 世家 十 獻宗 元年 2月
辛卯。宋商黃冲等三十一人。與慈恩宗僧惠珍來。王命近臣文翼。備軒蓋迎珍。置于普濟寺。珍常曰。爲欲見普陀落山聖窟而來。請往觀之。朝議竟不許。

卷二十四 世家 二十四 高宗 40年 10月
丙寅。蒙兵陷襄州。

卷二十七 世家 二十七 元宗 12年 3月
己巳。東界安集使報。襄州民張世。金世等。謀殺守令及吏士。事覺伏誅。其餘黨天瑞等。潛投古和州趙暉。請兵四百餘人。猝入襄州。誣以謀率人民。徙居海島。驅掠知州及吏民千餘人。分載三船而去。

卷二十七 世家 二十七 元宗 12年 6月
丙申。蒙古遣斷事官只必哥等六人來。詔曰。卿嚮遣印公秀。奏曰。小邦蓄積。就陸之日。悉爲逆賊攘奪。又因供億王師。罄盡無餘。斂及中外臣民。甚爲艱窘。而又耕牛不畜。難於徵索。乃勑有司前往體問。卿方上表。謂軍馬接秋糧餉。限以力盡。不令受飢。屯田農牛。農器等。漸次當依元數。則前奏豈非虛妄。且匹夫一言不誠。尚恐不爲人所信。卿一國臣民之主。敷奏不實。可乎。爾後愼勿如此。卿又云。吾之民亦是皇帝之民也。使其失業。不堪勞苦。則恐有貳於盜賊。若不揆力陳實。早達于宸所。以至困窮。誰任其責。蓋由爾國不逞之人。肆爲叛逆。以致軍民之勞。旣爲一家。初無內外之閒。如撫定之後。豈坐視人民困苦。而不加恤哉。尚體至仁。益殫誠赤。
中書省移文曰。宣使沈渾回齎表文。曰。襄州天瑞等縛打官員。詐稱謀入水內。據取納官之辭。悉剃頭。驅虜百姓。入古和州。欽奉聖旨。差官前去取問。竝王京避役犯罪之人。多竄于西京。亦令差去使臣。徇問是實。分付王國請各差官。一同取問。又曰。聞前大卿閔昉能治人手足疾。可速遣來。昉素無行義。坐法免。廢錮累年。聞帝有足疾。見達魯花赤沈渾。妄言能醫術。渾信之。達于帝而召之。授尚書左丞以遣之。

卷二十七 世家 二十七 元宗 12年 7月
秋七月。丙寅。只必哥至西京而還。時。古和州趙暉自蒙古來。以詔授只必哥曰。襄州人實自納款于上朝。非我驅迫其民也。吾以此奏于帝。受詔而來。只必哥推刷西京逃民而來西京。又欲割西海道銀波莊。三進江爲屬縣。
王又報中書省曰。銀波莊。三進江。本西海道所屬。今西京人托言。頭輦哥國王來在西京時。已籍兩處人民。是其妄言明矣。年前頭輦哥班師。至今年正月十五日。有西京百戶福大始至其處。脅其人民而開剃。則時有先後。理有曲直。伏冀一依帝命。使彼人民悉復屬款。

卷二十七 世家 二十七 元宗 14年 3月
庚午。馬絳還。以大將軍宋玢伴行。皇后嘗求見洛山寺觀音如意珠。使玢獻之。

卷四十四 世家 四十四 恭愍王 23年 6月
甲辰。倭寇襄州。我軍與戰。斬首百餘級。

卷四十五 世家 四十五 恭讓王 2年 9月
遣內侍于演福洛山王輪等寺。設齋祈福。王自卽位以來。每月朔望。必於宮中。招僧講經。每四時。必於十三所。祈恩曰。道場。曰。法席。曰。別祈。恩諂事神佛。大臣臺諫每論。不聽。

卷五十五 志 九 五行 三
太祖十一年。六月。甲戌。碧珍郡地震。
光宗二十二年。十二月。壬寅。地震。
二十三年。二月。地震。

顯宗三年。三月。庚午。慶州地震。
十二月。丁丑。慶州地震。
四年。二月。壬午。慶州地震。
三月。辛丑。金州地震。
十一月。丁未。금ᄀᆞᆫ州地震。
十二月。丙戌。金慶二州地震
五年。八月。丙子。慶州地震。
六年。十一月。甲申。慶州地震。
十一年。閏十一月。癸巳。漣州地震。
十四年。五月。乙亥。金州地震。
十五年。十一月。己酉。尙州地震
十六年。四月。辛未。嶺南道廣平河濱等十縣地震。
壬申。嶺南道廣平河濱等十縣地震。亦如之。
乙亥。嶺南道廣平河濱等十縣地震。亦如之。
七月。丁亥。慶尙清州。安東。密城地震。
二十一年。二月。甲午。交州。翼嶺。洞山縣地震。
德宗元年。十月。尙州等處十餘縣地震。
二年。六月。壬寅。安東府陜州地震。
靖宗元年。六月。丙辰。京城地震。……

卷五十八 志 十二 地理 三 東界 安邊都護府登州
安邊都護府。登州。本高句麗比列忽郡。 一云泼城郡。 新羅眞興王十七年。爲比列州。置軍主。景德王。改朔庭郡。高麗初。稱登州。成宗十四年。置團練使。顯宗九年。更今名。高宗時。定平以南諸城。被蒙兵侵擾。移寓江陵道襄州。再移杆城。幾四十年。忠烈王二十四年。各還本城。別號朔方。 成廟所定。 有國島。屬縣七。領防禦郡九。鎭十。 使三。將七。 縣令官八。

卷五十八 志 十二 地理 三 東界 翼嶺縣

翼嶺縣。本高句麗翼峴縣。 一云伊文縣。

新羅景德王。改今名。爲守城郡領縣。顯宗九年。置縣令。高宗八年。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使。四十一年。降爲縣令。四十四年。以降賊。又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陞知襄州事。別號襄山。有東海神祠屬縣一。

洞山縣。本高句麗穴山縣。新羅景德王。改今名。爲溟州領縣。顯宗九年。來屬。

卷八十 志 三十四 食貨 三 賑恤

災免之制。成宗七年。十二月。判。水旱蟲霜爲災。田損四分以上免租。六分免租布。七分租布役俱免。十年。十月。幸西都。民戶有以疾疫。失農業者。免其租賦。

穆宗九年。二月。謂有司曰。比年秋穀不登。百姓艱食。自統和二十一年以來。貢賦未納者。竝除之。其有絶食。無穀種者。開倉賑給。

六月。戊戌。震天成殿。肆赦。仍減今年稅布之半。

竝蠲甲辰年前逋欠租稅。

顯宗二十年。七月。以朔方道。登。溟州管內。三陟。霜陰。鶴浦。派川。歙谷。金壤。碧山。臨道。雲岩。豢猳。高城。安昌。列山。杆城。翼嶺。洞山。連谷。羽溪等十九縣。竝被蕃賊侵擾。特蠲租賦。……

……

卷八十二 志 三十六 兵 二 站驛

……溟州道掌二十八。大昌。橫溪。珍富。大化。芳林。雲橋 溟州 。安昌。鳥原 橫川。木界。安仁。丘山。高坦 溟州 。樂豐 羽溪 。同德 連谷 。餘粮德新。興府。祖召 蔚珍 。祥雲。翼令。降仙 襄州 驎駒 洞山 。……

分各驛丁戶爲六科。以金郊。臨波。金嵓。寶山。安城。龍泉。嵓嶺。洞仙。高原。生陽。懷蛟。林原爲一科。以安定。迎德。通寧。雲嵓。興林。興郊。長若。安信。新安。雲興。林畔。通陽。豐陽。興化鎭驛爲二科。以白嶺。玉雞。龍潭。嵐泉。林湍。松間。丹林。銀漢。孤山。藍山。寶龍。鐵關。德嶺。通達。和遠。城陽。康樂。太平。長興。玉兒。葦溪。朔安爲三科。以通德。善田。金川。長利。長歡。風湍。通堰。熊壤。通蕃。長壽爲四科。以金谷。深洞。淸湍。望丁。金剛。丹林。沙溝。石牛。興泉。密田。桃摘。田原。臨江縣驛。利嶺。直木。保安。安撫。甘泉。山梁。高岑。竹芭。灌木。射嵓。淸澗。安奇。桑樹。雙谷。大昌。橫深。珍富。大和。芳林。雲橋。安仁。壽山。新池。雲峯。驥驎。班石。陶工。金洞。管山。深源。德新。洞陰縣驛爲五科。以楊溪。嘉原。靑澗。長材。雲半。金化縣驛。僧嶺縣驛。朔寧縣驛。元貞。芳春。遂人。富昌。甘泉。連峯。仁嵐。蒼峯。嵐嵀。圓壤。瑪瑙。希嵀縣驛。臨川。同德。驎駒。樂豐。平陵。喬柯。史直。龍化。沃源。興富。召召。木界。烏原。慈山。降仙。玉地。白原。兎山縣驛。溫泉。往谷。泉頭。今勿。雲嵓。長林爲六科。一科丁七十五。二科丁六十。三科丁四十五。四科丁三十。五科丁十二。六科丁七。……

卷八十二 志 三十六 兵 二 城堡

……穆宗三年。城德州。七百八十四閒。門五。水口九。城頭二十四。遮城三。四年。城永豐。平虜二鎭。六年。修德州。嘉州。威化。光化四城。八年。城鎭溟縣。五百一十閒。門五。城金壤縣。七百六十八閒。門六。城郭州。七百八十七閒。門八。水口一。城頭五。遮城二。九年。城龍津鎭。五百一閒門六。城龜州。一千五百七閒 門九。水口一。城頭四十一。遮城五。重城一百六十八。十年。城興化鎭。蔚珍。又城翼嶺縣。三百四十八閒。門四。十一年。城通州。城登州。六百二閒。門十四。水口二。……

卷八十三 志 三十七 兵 三 州縣軍

東界。

安邊府。都領一。郎將二。別將四。校尉十二。隊正二十七。抄軍。左右軍各八隊。寧塞軍三隊五人。計百五十。工匠一梗。計三十三人。

瑞谷縣。別將一。校尉二。隊正三。左軍一隊。右軍二隊。寧塞一隊三十一人。工匠一梗。

汶山縣。右軍一隊。工匠一梗。

衛山縣。校尉一。左軍二隊。右軍一隊。寧塞一隊。工匠一梗。

翼谷縣。校尉一。左軍一隊。寧塞一隊。鐵垣戍。右軍。寧塞各一隊。凝川貢所。左軍。寧塞各一隊。行軍四十六。

孤山縣。別將一。校尉三。隊正七。抄軍。左右軍各二隊。寧塞一隊。

鶴浦縣。別將一。校尉二。隊正四。抄軍二隊。左右軍各一隊。寧塞一隊。壓戍戍。校尉一。隊正二。左右軍各一隊。寧塞七人。霜陰縣。校尉一。隊正二。左右軍各一隊。寧塞一隊。禾登戍。左右軍各一隊。寧塞五人。福寧鄕。校尉一。隊正二。左右軍。寧塞各一隊。

和州。都領一。郎將三。別將七。校尉十三。隊正三十二。抄軍。左軍各十隊。右軍八隊。寧塞四隊。工匠一梗。

高州。都領一。郎將三。別將七。校尉十五。隊正三十二。抄軍。左軍各一隊。右軍八隊。寧塞二隊。投化。田匠各一梗。宜州。都領一。別將三。校尉七。隊正十六。抄軍。左軍各五隊。右軍四隊。寧塞二隊。工匠一梗。

文州。都領一。郎將二。別將四。校尉九。隊正二十二。抄軍六隊。左軍八隊。右軍五隊。寧塞一隊。工匠一梗。

長州。都領一。郎將二。別將四。校尉九。隊正三十三。抄軍六隊。左軍八隊。右軍六隊。寧塞三隊。鉏川軍四隊。

定州。都領一。郎將四。別將八。校尉十六。隊正三十七。抄軍十四隊。左軍十三隊。右軍六隊。寧塞四隊。

德州。都領一。郎將二。別將四。校尉八。隊正二十。抄軍。左軍各九隊。右軍四隊。寧塞六十六人。

元興鎭。都領一。郎將二。別將五。校尉十三。隊正二十九。抄軍。左軍各九隊。右軍四隊。寧塞四隊。

沙工四隊。

寧仁鎭。都領。郎將各一。別將三。校尉七。隊正十六。抄軍四隊。左軍六隊。右軍四隊。寧塞二隊。

耀德鎭。都領。郎將各一。別將八。校尉九。隊正二十。抄軍八隊。左軍四隊。右軍六隊。寧塞二隊。工匠一梗。

鎭溟縣。都領一。別將二。校尉六。隊正十一。抄軍五隊。右軍二隊。寧塞一隊。田匠一梗。

長平鎭。都領一。別將二。校尉六。隊正十三。抄軍。左軍各五隊。右軍二隊。寧塞一隊。

龍津鎭。都領一。別將二。校尉四。隊正十。抄軍。右軍各二隊。左軍四隊。寧塞二隊。工匠一梗。

永興鎭。都領一。別將二。校尉五。隊正十一。抄軍。左軍各四隊。右軍三隊。寧塞二隊。靜邊鎭。都領一。校尉五。隊正十一。抄軍四隊。左軍三隊。右軍四隊。寧塞四十人。

雲林鎭。校尉一。隊正三。左軍二隊。右軍一隊。寧塞一隊。

永豐鎭。別將一。校尉二。隊正五。左右軍各二隊。寧塞一隊。

險守鎭。別將一。校尉二。隊正六。左軍三隊。右軍二隊。寧塞一隊。工匠一梗。

金壤縣。別將二。校尉四。隊正十。抄軍四隊。左右軍各三隊。寧塞一隊。

高城縣。別將一。校尉四。隊正九。抄軍一隊。左軍一隊。右軍三隊。寧塞二隊。

杆城縣。別將一。校尉五。隊正十。抄軍。左軍各四隊。右軍二隊。寧塞一隊。

翼令縣。別將三。校尉三。隊正九。抄軍。右軍各四隊。左軍二隊。寧塞一隊。

溟州。別將五。校尉十。隊正二十三。抄軍。左右軍各八隊。寧塞四隊。工匠一梗。

三陟縣。別將一。校尉八。隊正十六。抄軍。左軍各四隊。右軍九隊。寧塞一隊。工匠一梗。

蔚珍縣。別將一。校尉三。隊正八。抄軍。左軍各二隊。右軍三隊。寧塞一隊。

金晅 開物。

金晅。字用晦。義城縣人。元宗元年。登第。林衍之廢立也。忠烈以世子在元。帝議欲冊爲東安公。遣兵來討衍。會晅以聖節使書狀。如元。上書言。賊若聞世子受冊爲公。必諭國人曰。上國已削王爵。國當除矣。莫如死守社稷。則人皆信之。如此難以歲月下。非朝廷利也。帝允之。

十一年。出爲金州防禦。密城人殺其宰以叛。移牒郡縣。皆隨風而靡。晅出勝兵。先斷賊路。召慶州判官嚴守安至。則相與勒兵。告按廉使李淑眞爲討賊計。淑眞恇怯。喚術僧卜吉凶。故爲遷延。晅手劍擊其僧。叔眞懼而從。賊聞之。斬渠魁以降。三別抄叛。欲分兵向慶尙。而金在邊先受敵。晅以計拒之。賊不得入。一道賴以安。論其功。陞本州爲金寧府拜晅禮部郎中。仍爲都護以鎭之。

忠烈元年。由摠郎。出爲全羅道部夫使。至菁好驛。見全羅按察盧景綸。驛輸內膳于京。甚夥。私膳居半。取其私膳歸國庫。景綸女壻金天緖。適爲水原書記。取以獻王。景綸訴于王。免晅官。俄貶襄州副使。累遷至左諫議大夫。進拜密直學士。多歷淸要。忠宣以世子在元。晅以春宮侍讀。從之。官至政堂文學。被譖請還國。告病不出。仍致仕。後就加贊成事。

三十一年。卒。年七十二。性淸介。疾惡如讎。所至人憚之。善隸書。子瑞卿。瑞廷。瑞廷。後改開物

卷一百十一 列傳 二十四 諸臣 崔宰

崔宰。

崔宰。字宰之。完山人。父得枰。廉正自守。人敬憚之。官至選部典書。宰。忠肅朝。登第。累遷中部令。出知瑞州事。以母憂不赴。明年。汰冗官。有薦宰者。王以有父風。卽除監察持平。宰不獲已就職。忠惠卽位。乃褫其職。王被執。如元。凡王所設置。悉皆更革。立都監。以宰爲判官。宰嘆曰。王之失德。非王自爲。乃左右逢之耳。逢之於前。揚之於後。吾實恥之。稱疾不出。

忠穆時。轉典法正郎。出知興州事爲印承旦所忌。罷遷典客副令。

忠定時。知襄州。有使者降香。凌辱存撫使。宰曰。將及我矣。棄官歸。執政喜白王。除監察掌令。

恭愍初。陞執義。改尙書右丞。後爲尙州牧使。王避紅賊南幸。駐蹕于尙。宰盡心供辦。然不饋遺左右。左右短之。遂罷。起爲監察大夫。尋封完山君。移典理判書。

辛禑三年。拜密直副使商議。固辭乞退。復封完山君四年。卒。性剛直不撓。見重於世。子思美。德成。有慶。

卷一百三十 列傳 四十三 叛逆 四 趙暉

趙暉。

趙暉。本漢陽府人。後徙居龍津縣。高宗四十五年。蒙古兵大至。高和定長宜文等十五州人。入保猪島。東北面兵馬使愼執平。以猪島城大人少。守之甚難。遂以十五州人徙竹島。島狹隘。無井泉。人皆不欲。執平强驅納之。人多逃散。入者十二三。糧儲乏少。執平分遣別抄。請粟於朝。催運他道。守備稍懈。暉與定州人卓靑。及登文州諸城人合謀。引蒙古兵。乘虛殺執平及登州副使朴仁起。和州副使金宣甫。京別抄等。遂攻高城。焚燒廬舍。殺掠人民。以和州迤北附于蒙古。蒙古乃置雙城摠管府于和州。以暉爲摠管。靑爲千戶。明年。暉黨自稱官人。引蒙古兵。來攻寒溪城。防護別監安洪敏。率夜別抄。出擊盡殲之。王使郎將金器成。別將郭貞有。齎國贐。如蒙古屯所慰之。器成等至文州。暉黨在寶龍驛。與蒙古兵三十餘人。殺器成等竝傔從十三人。掠國贐而去。暉黨。又引東眞國兵。屯春州泉谷村。有神義軍五人。詐稱蒙古將軍羅大〔車羅大〕使者。馳入其屯曰。解爾弓劍。聽元帥敎命。高麗太子將入朝。汝何殺高麗使者。奪國贐乎。爾罪當死。皆伏地股栗。於是。揮鞭召別抄。四面攻之。無一脫者。遂得國贐。及器成等衣物而還。

元宗十二年。襄州民張世。金世等。以蒙古將有所鞫。謀殺守令吏士。將逃匿遠地。事覺伏誅。其餘黨天瑞等八人。潛投暉請兵。暉給四百餘人。猝入襄州。執縛知州事兩班等。誣以謀率人民。徙居海島。遂欲脅遷于和州。王請達魯花赤。遣人往諭。天瑞不聽。驅掠知州及吏民一千餘人而去。王奏于蒙古。請治天瑞等罪。帝遣只必哥來問之。時。只必哥在西京。暉自蒙古還。謂只必哥曰。我奏襄州人。實自納款上朝。非我驅迫其民。帝卽以詔授我。使勿問。只必哥遂不問。子良琪襲摠管。孫暾自有傳。

卷一百三十 列傳 四十三 叛逆 四 趙彝

趙彝 金裕 (李樞)。

趙彝。初名蘭如。咸安人。嘗爲僧歸俗。學擧子業。中進士。後反入元。稱秀才。能解諸國語。出入帝所譖曰。高麗與日本隣好。元遣使日本。令本國鄉導。元宗遣宋君斐。偕元使如日本。至巨濟。因波險乃還王遣君斐。如元奏曰。日本大洋萬里。風濤險惡。且小邦未嘗通好。帝大怒詰責。於是。王遣潘阜如日本又遣安慶公淐。如元奏之。帝以彝譖。怒不解。責淐甚嚴。淐還。彝矯旨。勒留中路。淐復入告中書省。乃得還。淐遂憂憤成疾。至東京。東京人又拘傔從。劫奪馬價。然後放之。彝常以讒毁爲事。竟不得志而死。有金裕。李樞者。亦反人也。

卷一百三十 列傳 四十三 叛逆 四 金裕

裕登第。永寧公綏之入質也。樞副韓就。選弓箭陪卒裕作詩求行。就愛其詩。置選中。裕旣入朝。背本國常欲奉使還。以逞其欲。乃語丞相安童曰。海東三山有藥物。若遣我可得。安童信之。遂遣裕及申百川來裕矜其戎服。略無愧色。傳安童書曰。聞王國土產藥品。可備尙醫用者。今遣金裕等往採。可給人力。令收以歸。其藥品。海東三山液藥方。大嶺山香栢子六十斤。智靈洞全蜜四十斤。有體人蔘。合用造酒方。永同郡香麴子五十斤。南海島失母松五十斤。服藥後膳方。金剛山石茸六十斤。大嶺山南榧子五十斤。松膏餠三十斤。沐浴方。觀音松上水風眠松葉二百斤。及裕等還。王遣譯語郎將康禧。答書曰。伏承鈞旨。諭以小邦所產藥品。令採進。就問裕等。一依名數採進。但觀音松上水。未審所在。問諸裕等。則云在洛山上。卽欲遣人。與裕等索之。反云多得風眠松葉。則松上水無亦不妨。此曾啓都堂。稟旨而來。便不往索。若觀音松上水。本無之物也。松膏餠則取松白皮熟鍊。灰水百杵。和蜜汁粘麪。乃作餠。裕以爲自生於松上。皆誑言也。

卷一百三十五 列傳 四十八 辛禑 9年 10月

李乙珍及副元帥權玄龍。兵馬使郭忠輔。擊倭于洞山縣。斬二十餘級。獲馬七十二匹。賊收餘衆。退泊高城浦。遣鎭撫金光美。獻捷。禑賜乙珍。玄龍。忠輔白金各五十兩。軍士之力戰者三人。銀盃各一事。光美馬一匹。

卷一百三十五 列傳 四十八 辛禑 11年 4月

倭寇襄州。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 역사서]

고려시대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치통감〉을 모범으로 하여 조선 문종 2년(1452년) 2월에 춘추관에서 편찬한 편년체 역사책이다.

35권 35책. 편찬에 참가한 사람들은 김종서 · 정인지 · 이선제 · 신석조 · 신숙주 · 김례몽 · 양성지 · 이예 · 김지경 · 김윤복 · 이극감 · 윤기무 · 박윤정 · 홍우치 · 이효장 · 김효우 · 김용 · 한서봉 · 허익 · 박팽년 · 유성원(이상〈고려사〉편찬에도 참가) · 이계전 · 김맹헌 · 김질 · 어익 · 이윤인 · 윤자영 · 김한개 등이다.

조선왕조를 건립한 뒤, 조선은 건국을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전 왕조인 고려의 역사 정리 작업을 하였다. 이를 위해 정도전 · 정총 · 윤소종 등이 태조 4년(1395년)에 만든 것이 〈고려국사 高麗國史〉이다. 〈고려국사〉는 ① 고려시대 역사서술을 계승하여 원 간섭기 왕의 칭호를 종(宗)이라 하지 않고 왕으로 고쳐 쓴 것을 그대로 답습했고, ②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을 합리화했으며, ③ 수찬자가 통치이념을 정립하려는 목적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국사〉는 고려말의 기사가 다르다고 하여 태종의 명으로 태종 14년(1414년) 5월에 하륜이 개정하게 되었으나 1416년 하륜이 죽게 되면서 완결되지 못하였다. 세종 역시 〈고려국사〉가 〈고려실록〉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 개정판이 세종 6년(1424년) 8월에 완성된 〈수교고려사 讎校高麗史〉이다. 〈수교고려사〉는 〈고려국사〉에서 군주와 왕실에 대한 칭호와 원 간섭기의 관제를 고쳐 쓴 것이다. 이후 1438년 〈태종실록〉과 〈자치통감훈의본(訓義本)〉을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은 다시 고려사를 편찬하게 한 것이다.

본지에 첨부한 부록 물은 양양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 부분 발췌하여 편집실에서 재편집한 것이다.

高麗史節要

卷之二 穆宗 宣讓大王 十年

春二月契丹遣耶律延貴來加冊王爲守義保邦推誠奉聖功臣開府儀同三司守尚書令兼政事令上柱國食邑七千戶。創眞觀寺九層塔。夏六月賜趙元等六人明經三人及第。秋七月御史臺奏慶州人融大詐稱新羅元聖王遠孫認良民五百餘口爲奴婢以贈宮人金氏及平章事韓蘭卿吏部侍郎金諾爲援今已按問得實乞罪之王怒乃流蘭卿于州金諾于海島金氏罰銅一楊百斤聞者皆賀。冬十月幸鎬京齋祭赦流罪以下蠲田租一年沿路州縣半之加國內神祇勳號。○城興化鎭翼嶺蔚珍縣。是歲鎬京地震。耽羅奏瑞山湧出海中遣大學博士田拱之往視之耽羅人言山之始出也雲霧晦冥地動如雷凡七晝夜始開霽山高可百餘丈周圍可四十餘里無草木煙氣冪其上望之如石硫黃人恐懼不敢近拱之躬至山下圖其形以進。

卷之三 顯宗 元文大王 二十年

春正月癸巳千秋太后皇甫氏薨葬幽陵。二月以王嫌名改人姓筍爲孫。閏月始令文官四品以下年未六十者每暇日習射于東西郊。女眞賊船三十餘艘來寇東鄙船兵都部署判官趙閏貞擊走之。禁中外軍士請托規免征役。東西女眞阿忽沙一羅骨蓋等一百餘人來獻馬兵器增爵一級。三月東女眞賊船十艘寇溟州兵馬判官金厚擊却之。夏四月設藏經道場於會慶殿飯僧一萬于毬庭。契丹遣大將軍耶律延寧等來聘。契丹人曹兀絜家來奔議增大廟籩豆禮部據王制豐年不奢凶年不儉之義執不可乃止。○五月東女眞四百餘人寇洞山縣。王謂宰相曰女眞屢犯邊陲爲害滋甚宜招諭渠帥厚加賞賜此所謂以德懷人也參知政事郭元奏曰女眞人面獸心與其懷之以惠曷若震之以威王然之。六月耽羅世子孤烏弩來朝授游擊將軍賜袍一襲。盜起廣州山藪遣龍虎軍將校往捕之。徵有妻僧充重光寺役徒。秋七月契丹遣將軍耶律管寧等來賀生辰。耽羅獻方物。以朔方道登溟州管內十九縣竝被蕃賊侵擾特蠲租賦。耽羅民貞一等還自日本初貞一等二十一人泛海漂風到東南極遠島島人長大遍體生毛語言殊異劫留七月貞一等七人竊小船東北至日本那沙府乃得生還。八月丁亥朔日食。東女眞大相噲拔率其族三百戶來投賜渤海古城地處之。宋廣南莊文寶等八十人來獻土物。癸卯王西巡。命參知政事李可道左僕射異膺甫御史大夫皇甫兪義尚書左丞黃周亮徵丁夫二十三萬八千九百三十八人工匠八千四百五十人築開京羅城先是平章事姜邯贊以京都無城郭請築之可道初定城基令人持傘環立登高而進退之均其闊狹周一萬六百六十步高二十七尺廊屋四千九百一十間。九月契丹東京將軍大延琳遣大府丞高吉德告建國兼求援延琳渤海始祖大祚榮七代孫叛契丹國號興遼建元天興。甲子次鹽州路上御製重陽詠菊詩一首宣示翰林學士以下卽令和進丁卯遂幸海州蠲鹽海今年租稅之半所歷州縣耆年篤疾賜酒食布貨有差。教曰近聞宮院屬莊戶徭役煩重民不聊生殿中省檢覈存恤。宴扈從文武常參以上賜物有差。冬十月甲午王至自海州。十一月賜開京羅城及重光寺造成都監員吏爵一級。以平章事徐訥判西京留守事尚書左僕射李端爲西京留守使。加李可道檢校太尉輸忠創闕致盛功臣賜姓王氏給開城縣莊田。參知政事郭元卒元性清廉工文詞歷位臺省以吏能稱然不自重與李作仁厚善人以此譏之及興遼叛密奏曰

鴨江東畔契丹保障今可乘機取之崔士威徐訥金猛等皆上書不可元固執遣兵攻之不克慚恚發疽而卒。東女眞求頭等三十餘人來朝。十二月興遼國太師大延定引東北女眞與契丹相攻遣使乞援王議諸輔臣侍中崔士威平章事蔡忠順言兵者危事不可不愼彼之相攻安知非我利耶但可修城池謹烽燧以觀其變耳王從之自此路梗與契丹不通。起復西北面判兵馬事柳韶赴鎭時興遼求援不許故遣韶備之。

卷之六 獻宗 恭殤大王 元年

……。〇二月東女眞懷化將軍所羅等二十八人奉國將軍豆門等四十八人來獻馬王御宣政殿賜見命近臣崔弘嗣問邊宜賜酒食衣帶布帛。宋商黃冲等三十一人與慈恩宗僧惠珍來命近臣迎置于普濟寺珍常曰爲欲見普陁落山聖窟而來請往觀之不許。……

卷之十七 高宗 安孝大王[四] 四十年

……冬十月蒙兵圍登州遂趣金壤城。加上大廟九室及十九陵尊謚。蒙兵圍楊根城防護別監尹椿率衆出降蒙兵選精銳六百使椿領之留蒙兵三百鎭之刈禾備糧餉椿移書原州防護別監鄭至麟諭降至麟不聽城守益固蒙兵解圍去。李峴與蒙兵攻天龍山城黃驪縣令鄭臣旦防護別監趙邦彦出降。〇蒙兵陷襄州。命宰樞致仕及文武四品以上議却兵之策僉曰莫如太子出降王怒使承宣李世材詰之曰遣太子則可保無後患耶議從誰出宦者閔陽宣進曰崔侍中亦可其議王怒稍霽曰宰樞善圖之王又遣世材就崔沆問誰可使蒙軍者沆奏曰此非臣所決惟上裁之。也窟等圍攻忠州前少卿鄭壽率二子自京山府來降。……

卷之十八 元宗 順孝大王[一] 九年

……十一月金俊擅奪龍山別監李碩所獻內膳船二艘初俊子承宣皚家奴因事往忠州與碩有憾及還聞碩船載內膳來泊于江訴碩於皚皚告其父遣夜別抄奪其膳或入己家或分與夜別抄未幾俊見王王以碩所上膳狀示俊俊變色而退還收以獻王却之曰旣奪而復獻於義可乎今所進之物皆寡人將供祭醮之用碩承命已久曾不速進而見奪是碩之罪也流于島遂以內侍權仁紀代之未幾召碩還由是王益惡俊。〇蒙古遣兵部侍郎黑的禮部侍郎殷弘等來詔曰向委卿導達使者送至日本卿乃飾辭以爲風浪險阻不可輕涉中道乃還其言若是何由得達今來奏有潘阜至日本逼而送還之語此亦安足取信今復遣使以往期於必達卿當令重臣導達毋致如前稽阻丞相安童遣金裕申百川等來索大嶺山香柏子榧子松膏餠智靈洞全蜜有體人蔘永洞郡香麴子南海島失母松金剛山石茸觀音松上水風眠松葉裕百川皆本國人也裕嘗登第選爲永寧公陪從久在蒙古謀欲東歸乃言於安童曰海東三山有藥物若遣我索之可得安童信而遣之觀音松上水本無之物也問諸裕等則曰在洛山上王欲差人從裕百川索之裕等云多得風眠松葉則松上水無亦不妨松膏餠裕亦以爲自生於松上皆誑言也。

卷之十九 元宗 順孝大王[二] 十二年

……三月蒙古遣忻都及史樞等代阿海詔曰朕嘗遣信使通諭日本不謂執迷固閉難以善言開諭此卿所知今將經略於彼勑有司發卒屯田用爲進取之計庶免爾國他日轉輸之勞仍復遣使持書先示招懷卿其悉心盡慮裨贊方略期於有成以稱朕意又中書省移文曰欽奉帝旨以忻都史樞行經略司於鳳州等處營軍屯田所有屯田牛六千頭除

東京等處起遣一半餘三千頭令經略司受直王國和市外農器種子葛秣之類及接秋軍糧一就供給無致闕乏。○襄州民張世金世等謀殺守令及吏士事覺伏誅其黨天瑞等八人潛投和州趙暉請兵四百餘人猝入襄州執知州事欲脅遷和州王請達魯花赤遣人往諭天瑞不聽驅掠知州及吏民一千餘人以去。三別抄寇合浦縣執監務而去。鳳州經略司以絹一萬二千三百五十匹市農牛。樞密使金鍊還自蒙古帝聞崇謙及密城人謀叛凡所奏陳皆不允。蒙古斷事官沈渾來索軍糧初大將軍康允紹附洪茶丘妄言本國多蓄軍糧茶丘以告中書省故索之。印公秀還自蒙古帝詔曰王所奏陳朕悉知之嚮王在國中猶有姦人生事今叛人未靖王不可來。……

卷之十九 元宗 順孝大王[二] 十四年

……○三月馬絳還以大將軍宋玢伴行皇后嘗求見洛山寺如意珠使玢獻之。元復遣趙良弼如日本招諭良弼至大宰府不得入國都而還。西海道戰艦二十七艘至伽耶召島遇大風敗沒南京判官任恂仁州副使李奭等一百十五人溺死慶尚道戰艦二十七艘亦敗溺。元遣使來索御床材香樟木。……

卷之十九 忠烈王[一] 元年

……十一月遣僉議贊成事兪千遇如元賀正告改官制獻處女十人。○分遣部夫使于諸道摠郎金晅如全羅道行至菁好驛全羅道按察盧景綸驛輸內膳于京甚夥私膳居半晅取私膳輸之國庫景綸增金天緒適爲水原掌書記取以爲獻景綸又訴於王王免晅官以宋由義代之尋貶晅爲襄州副使。元遣使來作軍器以起居郎金磾偕往慶尚全羅道斂民箭羽鏃鐵。……

卷之二十五 忠惠王 五年

……五月賜宦者高龍普功臣號。元遣李庥奉璮等來冊王爲開府儀同三司征東行中書省左丞相上柱國高麗國王。○金海君李齊賢上書都堂曰今我國王以古者元子入學之年承天子明命紹祖宗重業而當前王顚覆之後可不小心翼翼以敬以愼敬愼之實莫如修德修德之要莫如嚮學今祭酒田淑蒙已名爲師更擇賢儒二人與淑蒙講孝經語孟大學中庸以習格物致知誠意正心之道而選衣冠子弟正直謹厚好學愛禮者十輩爲侍學左右輔導四書旣熟六經以次講明驕奢淫泆聲色狗馬不使接于耳目習與性成德造罔覺此當務之莫急者也君臣義同一體元首股肱不親附可乎今宰相非宴會不相接非特召不得進此何理乎當請日坐便殿每與宰相論議政事或可分日進對雖無事不廢此禮不然則大臣日疏宦寺日親生民休戚宗社安危恐莫得而上聞也政房之名起于權臣之世非古制也當革政房歸之典理軍簿置考功司標其功過論其才否每年六月十二月受都目考政案用以黜陟永爲恒規則可以絶請謁之徒杜僥倖之門今若因循不復古制深恐將來梁將祖倫朴仁壽高謙之輩蜂起而黑冊之謗不可遏也鷹坊內乘毒民尤甚者前已下令革罷後復遷延中外失望至使龍普馳出見責可不愧于心乎德寧寶興等庫凡非古制者一切釐革庶永不負聖旨勤恤之意刺史守令得其人則民受其福不得其人則民遭其害官高而降爲者偃肆不遵法年邁而求得者昏懦不任事或以請謁起壟畝垂金魚者又不足言也請如古制朝士之未入參者必經監務縣令至于四品例爲牧守而監察司按廉使必行褒貶爲之賞罰所謂官高者年邁者用請謁起壟畝者如不得已寧授京官勿與親民之任行之二十年流亡不復貢賦不足未之有也金銀錦繡不產我國前輩公卿被服只用素段若紬布器皿只用

鍮銅瓷瓦德陵作一衣問直則重輟而不爲穀陵嘗責前王
慶金之衣揷羽之笠非吾祖舊法有以見國家四百餘年能
保社稷徒以儉德也近來風俗窮極奢侈民生困而國用匱
職此而已請宰相今後不以錦繡爲服金玉爲器又不使衹
服乘馬者擁其後各務儉約諷上而化下風俗可以歸厚也
前者迫徵暴斂之布便合歸於納者然恐官吏夤緣爲姦細
民未蒙實惠故宜分付諸司以充來歲雜貢令其得免先納
借貸之弊行省旣有文移當早施行三食邑旣立之後百僚
俸祿不備夫以一國之主取群臣養廉之資以實私藏豈不
貽譏後世請聞諸兩宮罷食邑還屬廣興倉充其俸祿京畿
土田除祖業口分餘皆折給爲祿科田行之近五十年通者
權豪之門奪占略盡中間屢議釐革輒以危言脅欺上聽卒
莫能行此大臣不固執之所致也果能釐革悅者甚衆不悅
者權豪數十輩而已何憚而不果爲哉州郡遠年貢賦之逋
欠者有司百計迫徵十分莫得其一祇是斂怨而已望下令
自至正三年已前逋欠貢賦一切蠲免前此數年窮民有因
暴斂典賣男女請令諸道存撫按廉使出牓許其來京自告
因以官財量給贖還其買者亦令自首若不自首不與其直
勒還父母甚者治罪。……

卷之三十二 辛禑[三] 辛禑九年

……冬十月都體察使崔公哲至狼川倭突出掩擊擒其子
體覆使鄭承可與倭戰于楊口敗績退屯春州賊追至春州
陷之遂侵加平縣元帥朴忠幹與戰逐之斬首六級賊入據
清平山以贊成事商議禹仁烈爲都體察使前密直林大匡
爲助戰元帥往擊之。泥城萬戶報遼東摠兵官奏曰韃韃
遣文哈剌不花於高麗欲與攻遼請遣兵救之帝命孫都督
領戰艦八千餘艘征我國到遼東將發船會韃韃軍擊渾河
口子都督兵與戰不克而還禑命備守邊鄙。臺諫上疏曰

近來隣國有警海寇深入往來反間事變可畏殿下不擇晝
夜單騎馳騁臣等憂危諫至再三輒賜兪允而宦官內豎衛
士圍人逢迎諛說導上非禮反使殿下出入無時失信於國
不忠不道莫此爲甚其內乘別監及速古赤宦官內豎之執
事者請加鞫問以鑑後來且辭者出納王命其任匪輕是以
古者必擇正直謹愼者二人以充其任今加置二人而反有
所不逮殿下出入不以告百官請依古制擇置二人汰去其
餘疏上禑杖宦官金吉逢配泥山黜內豎徐良守內乘別監
金千用逃令索之。倭寇安邊府歙谷縣四出虜掠如蹈無
人之境禑以密直提學商議趙浚爲江陵交州道都檢察
使。○李乙珍及副元帥權玄龍兵馬使郭忠輔擊倭于洞
山縣斬二十餘級獲馬七十二匹賊收餘衆退泊高城浦禑
賜乙珍等白金有差。……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년)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 :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술하는 역사서술의 한 방식)로 기록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사료의 편찬에 있어서 사관이라는 관직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도 보장되었다. 실록을 편찬하는 작업은 다음 왕이 즉위한 후 실록청을 열고 관계된 관리를 배치하여 펴냈으며, 사초는 임금이라 해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였다. 사료가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실록을 보관하던 창고)에 각 1부씩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지만 20세기 초까지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의 사고에 남아서 전해내려 왔다.

정족산사고, 태백산사고의 실록은 1910년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하였다가, 광복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다. 오대산사고본 실록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어 남은 27책만이 경성제국대학(현재 서울대학교)으로 돌아왔고(1932년), 추가 확인된 47책은 93년만인 2006년 7월 일본으로부터 반환되었다. 오대산사고본 47책은 기존 규장각 소장 오대산사고본과 동일본으로서 국보 제151호에 추가 지정되었다(2007. 2.26.)

적상산사고본 실록은 구황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갔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태백산사고본 848책은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74책, 기타 산엽본 21책 총 2,077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본지에 첨부한 부록 물은 양양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 부분 발췌하여 편집실에서 재편집한 것이다.

太宗實錄
卷之二
太祖實錄
卷第六
附錄 十五

純宗大王實錄
卷之二十八
憲宗大王實錄
卷之一
哲宗大王實錄
卷之二

朝鮮王朝實錄

太祖 1卷 總序 11番記事
○居數歲無子與崔氏禱于洛山觀音窟夜夢有一衲衣僧來告曰:必生貴子當名以善來。未幾有娠果生子於宜州遂名曰善來是爲度祖。窟在今江原道襄陽府。時翼祖往來安邊而亦或往來於和州咸州。

太祖 2年(1393) 癸酉 2月 20日(乙未)
○乙未/大風、城中多失火。
江陵道襄州一家失火 延燒官舍民家殆盡

太祖 6年(1397) 丁丑 1月 24日(丁丑)
○丁丑/陞江原道襄州爲府。上之外親鄉也。

太宗 1年(1401) 辛巳 1月 25日(乙酉)
○以趙浚爲判門下府事李舒贊成事郭樞藝文館太學士鄭矩藝文館學士李至政堂文學。大司憲金若采中丞全順仍除本職其餘臺官皆補外。柳斗明密陽府使李灌知襄州事安從約黃州判官許稠完山判官。初稠爲司憲雜端罷仕夜歸有鷹坊人十數騎臂鷹過行稠令所由執其奴囚于典獄。鷹人以聞命召稠。稠率吏七人入闕門把門甲士止之只令一吏隨入。上問稠曰:囚鷹人奴久不放何也稠對曰:所司常奉命而行此輩埋沒所司故囚其奴。近無齊坐臣適有疾不仕故未放。稠又囚門者奴累日不放上聞之命巡軍囚稠奴十口。中丞全啓曰:臺員常奉王命故辟道而行所以尊王命也。今鷹人騎馬過行門者執退從吏豈尊王命之道乎稠之振綱所以尊王命也請放稠奴。上曰:鷹人將予所授牌者也。門者禁其出入之煩乃其職也。且予見中國之制雖公卿不得多率人入闕門。卿等以爲鷹人門者埋沒所司予以爲卿等埋沒寡人也。又古法臺省員有失則雖同僚輒劾之則不然反以予爲非可乎所囚稠之奴當終月不放矣。順退侍史柳斗明李灌雜端安從約等劾大司憲金若采中丞全順。上疏略曰:　上召稠數罪囚其奴十名若采一不諫諍殊無憲臣之義。乞削職竄外以勵後來。中丞全順抗言獨啓未蒙俞允則還家不仕可也任然行公有乖憲司之職。乞罷職不敍。雜端許稠多率根隨有違定制受辱門者任然出仕乞幷罷職。憲官衣冠丘史異於常員行路易避非畏其人畏上命也。雜端許稠罷仕還家李丕文天奉等十餘人任然犯馬稠使執從人反見凌辱非唯埋沒所司不畏上命狂暴太甚。殿下反責憲司之臣臣等恐秉筆之士直書于策以貽後世聖德之累。左右諫臣悉知其非囁嚅不言皆非愛君也。伏望殿下優容讜直特命攸司將李丕文天奉等收其職牒竄逐外方以杜後人狂暴之端。疏上忤旨坐貶。

太宗 1年(1401) 辛巳 1月 26日(丙戌)
○丙戌/門下府郎舍左散騎常侍李復始等劾金若采全上疏曰:賞罰爲政之大本不可不愼。賞罰無章何以勸懲今密陽府使柳斗明知襄州事李灌黃州判官安從約等爲憲官將大司憲金若采、中丞全順不顧掌務得罪公然視事之狀完山判官許稠爲雜端再辱君命任然出仕之故與李丕文天奉凌犯所司之罪具疏以聞。其言讜直實合於理。殿下不卽兪允反加貶黜皆授外官是使人臣直氣摧折雖有可言之事將囁嚅而莫敢進言也。臣等伏覩殿下求言之教有曰:欲修弭災之道宜求讜直之言。未幾而斗明等以讜言見貶其於初政示信於人之義如何賞善罰惡之道如何伏望殿下以柳斗明李灌安從約等置之顯秩

將其所啓之事俞允施行以明賞罰公道幸甚。上不允。郎舍退取憲司疏觀其辭連諫官皆辭職。上召復始等問其故對曰:憲司以臣等爲不能盡職故耳。

太宗 5年(1405)乙酉 9月 17日(己酉)

○己酉/議政府請免江原道諸州租稅從之。啓曰:淮陽旌善風損禾穀三分之一其租稅米布相半春州襄州杆城通州羽溪風水蟲損禾穀二分之一其租稅納布三陟蔚珍平海高城風水損五分之四免其租稅。

太宗 7年(1407) 丁亥 9月 11日(辛酉)

○辛酉/盧閈咸傳霖回自京師。傳霖啓皇帝對臣等反覆諭以安南之不順王師之仗義。閈齎禮部咨來咨曰:永樂五年七月二十二日內史趙都孔原奉金至金良等欽奉聖旨:各處來的使臣帶家信來。於是命政府行移赴京火者親屬在處。羅州趙都益州孔原奉樂安朴麟泰山黃中咸悅李安景報令金浮蔚州金禧大丘金至襄州金良 韓山金禾燕岐李行利川朴得金音水原田子厚朔寧趙良嘉禾吳正永寧金復定州崔仁桂。

太宗 8年(1408) 戊子 9月 20日(乙丑)

○乙丑/江原道襄州等五郡雨雹深或五寸。

太宗 11年(1411)辛卯 閏12月 27日(癸未)

○司諫院上疏二道。其一曰國家外設州府郡縣選揀臣僚分符治民猶恐守令不謹其職又遣監司專制一方。爲監司者宣布德音明行黜陟其職也。今江原監司朴習欲事左右掠美市恩將綿麻布共五十二匹分贈代言司與典農寺其轉輸之際驛廩之費不貲。事露敬差官禮賓寺尹柳頲欲聞于上而不果習先以頲罪馳聞。凡官物雖一錢之微皆出於民道內淮陽府使閔校知襄州事朴翺三陟府使李原密知杆城郡事趙敬夫知通州事李叔卿知高城郡事金渚判蔚珍縣事盧倚知平昌郡事南仁瑋知靈越郡事金益精原州判官吳先敬江陵判官李孟常洪川監務成翼之橫川監務宋斯殷等亦以綿布皮紙贈送是監司倡之而守令不懼也。其斂民行貨之罪不可不徵。頲承敬差之命行至此道路見贈餽之物收置原州不卽啓聞聞監司請己之罪而後乃聞。又要得在逃臧獲以其家奴載諸輜重之馬遍行郡縣且以所善淮陽教授官李路擅自給暇乘馹還家其罪不小。右代言趙末生以近侍之臣常居宮禁供費之物不當外求乃令波吾赤金承禮求貨於江原道判典農寺事李慤掌務判官閔犀角等亦行求請。請將此人等按律施行。其二曰薦引人材不可不愼也故國家立薦擧之法而擧非其人則罪及擧主。今安城君李叔蕃所擧宋克良任宣州亂政免職前摠制李承幹所擧金河山任利川陽德二縣皆見貶黜宜加謬擧之罪。且克良見罷未幾旋受慶尙右道萬戶之任竊恐賞罰無章則爲惡者無所徵矣。請收克良職牒懲之。上曰:叔蕃承幹之罪則勿論。

太宗 15年(1415) 乙未 8月 25日(己丑)

○江原道都觀察使李貴山據襄州府使呈新作倉庫上謂使人曰:歸語爾觀察使。禾穀不稔而謂之豐則是佞臣也稔而謂之儉則是亦不直也。襄州呈內不言儉年而監司謂之中儉年。如此者意其預防講武也。又命承政院曰:陳言者請停講武且予厭聞臺諫之言亦不欲行。又謂代言等曰:予本不欲講武於橫城等處而監司尙令刈草何哉欲爲宗廟薦禽出於楊根等處四五日足矣。柳思訥曰:若止四日而無禽則難矣請加數日。命曰:不可役京畿失農之人。又傳旨京畿及江原道都觀察使曰:自今私獵禁

處毋竝禁拾橡實之人。

太宗 16年(1416) 丙申 8月 10日(己巳)

○己巳/改郡縣之號。曹請改音韻相近各官之號乃以靑州爲北靑襄州爲襄陽寧山仍古號爲天安甫城仍古號爲眞寶甫川仍古號爲醴泉橫川爲橫城報令爲報恩。又啓:文科出身六品以上敎授官稱某官儒學敎授官參外稱訓導官生員進士稱敎導。又醫學敎授官改稱某道醫學敎諭。從之。

太宗 16年(1416) 11月 6日(癸巳)

……崙晋州人順興府使允麟之子也。中至正乙巳科座主李仁復一見奇之以其弟仁美之子妻之。辛亥知榮州按廉使金湊上其治行第一召拜考功佐郎。累官至簽書密直司事。戊辰春崔瑩興師犯遼陽崙力陳不可瑩怒放之襄州。……

世宗 22年(1440) 庚申 12月 8日(丁丑)

○丁丑/前判漢城府事許周卒周字伯方一字伯公慶尙道河陽縣人。養于舅監察大夫崔宰之家宰奇其氣度曰:此兒不凡。初以蔭補官歷遷至典法正郎。時權臣有訟奴婢者周知其曲將欲斷之長官逼於勢陰庇之周守法不阿長官洩其議。權臣屢至周私第卑辭請之周竟不從權臣深銜之及爲政訪提調乃罷周職。歲乙丑出知襄州事。時倭寇充斥民不安業皆竄匿山谷以避之。周下車卽築邑城備禦有制。戊辰又知安城郡事吏民畏服秩滿除開城少尹。……

世宗地理志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襄陽都護府

◎襄陽都護府使一人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改名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高宗八年辛巳以能禦丹兵陞改襄州防禦使南宋寧宗嘉定十四年。四十四年丁巳以降賊降爲德寧監務。南宋理宗寶祐六年。元宗元年庚申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丁丑以外鄕陞爲府太宗十三年癸巳例改都護府十六年丙申改襄陽。別號襄山。屬縣一洞山縣本高句麗穴山縣新羅改今名爲溟州領縣麗顯宗戊午移屬翼嶺縣任內本朝因之。名山雪嶽在府西新羅時爲小祀。東海神祠堂。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中祀。四境東距海口七里南距江陵任內連谷五十里西距麟蹄三十六里北距杆城三十三里。戶八百五十七口一千二百七十七。洞山縣戶一百二十五口二百十八。軍丁侍衛軍七十三舡軍一百九十五。土姓二金李亡姓四孫朴河鄭續姓三張林尹。洞山縣姓四朴金崔陳來姓一林亡姓一李。厥土多堉俗業海錯崇習武藝墾田一千八百三十三結。水田五分之二强。土宜五穀 桑麻苧柿梨栗猪漆。土貢蜂蜜黃蠟松子胡桃五倍子芝草石茸狐皮狸皮獐皮大口魚文魚沙魚年魚全鮑紅蛤水魚常蘿席正鐵藥材人蔘五味子當歸茯苓安息香蓽茇芎藭白花蛇熊膽防風白膠香白芨牧丹皮。土産篠。石鐵産府西十里鐵掘山。鹽盆二十二。洞山縣鹽盆十八邑土城周回一千八十八步。擁金山石城在府北。周回一千九百八十步兩側岩石間水湧流爲泉。驛四連倉祥雲降仙麟丘。在洞山縣。要害自本府西去麟蹄境所等羅領三十六里。烽火四處水山在府東南準任內洞山廣汀北準府德山。德山北準杆城竹島陽也山在洞山縣南南準速谷注乙文北準廣汀。廣汀在縣北。南準陽也山北準德山。

世宗地理志 咸吉道 安邊都護府
⊙安邊都護府使一人兼永興道左翼兵馬。
本高句麗淺城郡一云比列忽郡。新羅眞興王十七年丙子梁大平元年。爲比列州置軍主。景德王改朔定郡至高麗改爲登州成宗乙未置團練使顯宗戊午改今名高宗時定平以南諸城被蒙兵侵擾移寓江陵道襄州再移杆城幾四十年忠烈王二十四年戊戌元成宗大德二年。各還本城。本朝太宗癸未以府人從趙思義作亂降爲監務明年復舊號屬縣八文山縣……

世宗 2年(1420) 庚子 11月 5日(己巳)
……一襄陽都護府使邊處厚言
今國家於大小官吏以至庶民墳墓步數皆有定式禁人樵採。無識之徒貪其地利耕破古塚暴骨犁鋤自今痛行禁止。……

世宗 4年(1422) 壬寅 1月 25日(癸未)
○司憲府啓
前判定州牧事邊處厚曾任襄陽時衙中所藏麤布九十匹乾魚百五十首鹽十斗等物來處不直答通又以衙中乾魚及官中乾魚幷百五十首海藿四十束 換生繭六石私用。又收巫女鍮鐵十一兩幷衙中鍮鐵造鍮鉢私用。又密買境內洛山寺眞水精念珠二十一枚。又請鹽于境內山城浦萬戶李養脩換緜花及楮。辭連各人明白納招而處厚不承請收職牒鞫問。 上以犯在赦前命勿論。

世宗 6年(1424) 甲辰 2月 5日(辛亥)
○江原道監司黃喜啓曰
道內如通川之郡失農最甚還上之未克收納宜矣。餘江陵蔚珍襄陽平海高城等官或四萬餘石只收二三千石或三萬餘石只收五六百石冒謂畢納虛錄會計至於救荒之際倉無所儲其欺罔國家莫甚焉。乞將上項守令幷下攸司論罪。 上曰比年江原道失農尤甚民不聊生扶老携幼散之四方。若以還上未收加罪守令實爲未便其勿擧論。

世宗 6年(1424) 甲辰 9月 16日(戊子)
○戊子江原道江陵襄陽杆城暴風以雨傷禾。

世宗 8年(1426) 丙午 7月 15日(丙午)
○遣禮官致祭于卒都按撫使辛有定。其祭文曰委質效忠節不渝於夷險褒功紀德禮當備於哀榮惟卿稟性剛明操行敏達旣夙抱其將略又精通於吏才。慷慨敢言有古直臣之氣廉淸寡欲自同寒士之風。爰自幼年遂躋膴仕。從聖祖於潛邸乃有原從之勳事昭考於儲宮以委軍事之重。由是歷揚中外蔚有名聲。秋部議刑決訟平允三司治賦會計詳明。以至分符數州建節諸鎭。軍民立祠之遺愛無愧羊公夷虜款塞之威風有同班氏。庚寅之歲野人犯邊。震擾我士民虔劉我將卒。卿爲副帥奬礪王師。殲群醜於一戎掃妖氛於千里功固大矣。早以養疾謝事居閑。庶休致於桑榆永有資於龜鑑。云胡不愁遽爾盡傷。命有司而易名又遣官而致奠。於戲耆英已逝蓋舊績之難忘恤典斯加慰貞魂之不昧。
(註) 양공(羊公) : 진(晉)나라 무제(武帝) 때의 양호(羊祜)를 말함。 일찍이 양양(襄陽)에 있을 때에 늘 현산(峴山)에 올라가 쉬고는 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 비(碑)를 세우고 세시(歲時)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비를 보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타루비(墮淚碑)라 불렀음。

世宗 12年(1430) 庚戌 4月 22日(辛卯)
○左司諫申包翅上疏曰臣等竊聞女無廉恥棄夫如筌士無廉恥棄君如鉏廉恥道喪國何用旃然則廉恥有國之大維士風之大節不可不礪也臣等以趙末生曾犯貪汚不可輕宥具疏申請未蒙兪允不勝憤切。末生爲人旣有學問不可謂無知也。挾掌政權不畏邦憲受人賄賂賣官鬻爵頤指官吏逞欲無忌固非一二計也。歲在丁酉爲知申事受洪忠之田以朝奉加保功差龍媒萬戶忠無故見代。及庚子爲兵曹判書又加保義差襄陽萬戶此其一也。……

世宗 12年(1430) 庚戌 10月 23日(庚寅)
○先是傳旨于江原咸吉道監司曰今所訪蓼島在襄陽府靑臺上通川縣堂山登望則見于子丑間在吉州無時串洪原縣蒲靑社望見則見于巳午間。其令詳明勤恪人望見以聞。至是咸吉道監司報令殿直田闢等四人往無時串登望海中有東西二峯如島嶼一微高一差小中有一大峯。立標測之正當巳午間。遂送闢于京

世宗 14年(1432) 壬子 7月 18日(甲戌)
○先是襄陽人百姓朴堅內等殺記官有智監司高若海毆其實移牒刑曹刑曹以爲未悉請令趙克寬金連枝等幷鞫以啓。克寬等劾若海等所推不實若海悉書堅內打殺有智之狀投諸代言金宗瑞曰事之明白如此克寬所推未知何意。上若有問其悉以啓。 宗瑞直以其書啓云若海心欲發明。下義禁府

世宗 14年(1432) 壬子 10月 16日(辛丑)
○戶曹啓江原道附近慶尙道慶州興海迎日淸河盈德寧海靑松眞寶等各官豐儲倉廣興倉納米穀移納于江原道三陟以南各官咸吉道附近江原道江陵襄陽通川杆城高城歙谷等各官豐儲倉廣興倉納米穀移納于咸吉道安邊府。咸吉道各官濟用監納往歲未納人蔘請幷蠲減。從之。

世宗 15年(1433) 癸丑 閏8月 1日(辛亥)
○以尹淮爲中樞院使兼成均大司成金孟誠工曹左參判邊處厚同知中樞院事禹孝剛左正言崔井安右正言。淮母喪未闋起復就職詣闕飮酒大醉到承政院失儀人多譏之。處厚嘗守襄陽得貪汚之名不敍起爲訓鍊觀提調久不調至是除職。

世宗 15年(1433) 癸丑 閏8月 2日(壬子)
○留後司斷事官李元根襄陽都護府使林穆辭上引見命元根曰留後司地窄民多事務煩劇汝往乃任勤謹以治。命穆曰其道近年凶歉民生可慮盡心賑恤俾無飢民且愼刑罰。

世宗 17年(1435) 乙卯 9月 25日(癸巳)
○判忠州牧使柳孟聞襄陽府使宋翼等辭引見曰守令之職恤刑之外無餘事矣往愼哉

世宗 19年(1437) 丁巳 1月 24日(甲寅)
○京中及京畿慶尙道安東尙州等二十五官江原道襄陽等十一官忠淸道忠州等四十三官全羅道全州等二十六官地震。

世宗 20年(1438) 戊午 7월 26일(戊申)
○傳旨江原道監司茂陵島本人物所居之處自昔往來之地也。然近日差人經涉大洋尙恐險阻夙夜憂慮況此蓼島雖稱在某處固無來往之者予以衰老之年敢望尋覓但本島諺稱在襄陽之東不可不知其在何處也卿宜更加

訪問以達。

世宗 27年(1445) 乙丑 6月 12日(甲寅)

○甲寅/諭江原道監司內贍寺令史金滿告襄陽府人金延奇嘗言東距府海路百餘里之地有蓼島。今更詳問延奇等備悉以聞。

世宗 27年(1445) 乙丑 7月 13日(乙酉)

……尼山爲中路。南陽江華驪興利川順天延安三陟襄陽鐵原寧海順興長興豐德安山仁川安城朔寧楊根林川淸風泰安韓山舒川沔川瑞山益山珍島錦山珍山金堤谷山安岳遂安豐川白川平海通川旌善高城杆城寧越平昌咸陽草溪醴川醴泉興海靑松昆陽寶城樂安靈光富平陽川金浦長湍砥平積城漣川川寧喬相喬桐臨津交河臨江麻田陰竹陽城加平通津鴻山提川平澤懷仁定山靑陽淸安懷德鎭岑扶餘石城庇仁藍浦結城保寧唐津永春報恩靑山木川龍潭連山臨陂萬頃綾城光陽龍安咸悅扶安咸平玉果高山沃溝興德高敞高敞茂長務安求禮谷城雲峯長水鎭安茂朱同福和順興陽新恩瓮津文化牛峯長連信川松禾長淵康翎江陰兎山般栗蔚珍歙谷伊川平康洪川橫城楊口麟蹄安峽盈德固城巨濟南海居昌宜寧河陽龍宮奉化淸河漆原鎭海河東仁同眞寶知禮安陰玄風山陰丹城比安禮安迎日長鬐昌寧泗川機長機張大興狼川德山牙山爲小路。……

世宗實錄地理志 京都漢城府

……封境東至襄陽五百四十里西至豐川六百里南至海珍九百八十里北至閭延一千四百七十里東北至慶源東南至東萊八百七十里西南至泰安三百九十里西北至義州一千一百四十里。

世宗實錄地理志 江原道

◈江原道本濊貊之地後爲高句麗所有。至高麗時嶺東則成宗十四年乙未稱朔方道宋太宗至道元年。明宗八年戊戌宋孝宗淳熙六年。稱沿海溟州道元宗四年癸亥宋理宗景定四年。稱江陵道恭愍王五年丙申元順帝至正十六年。稱江陵朔方道又明年丁酉稱江陵道又四年庚子稱朔方江陵道又七年丙午復稱江陵道。嶺西則明宗戊戌稱春州道其後或稱東州道元宗癸亥爲交州道恭讓王元年戊辰大明洪武二十一年。幷嶺東西爲交州江陵道以忠州所管昌平郡來屬。庚午增廣京畿割鐵原永平移屬京畿至本朝太祖四年乙亥始稱江原道都觀察使置司原州。恭靖王元年己卯以原州任內永春忠州所管寧越爲犬牙換屬焉。太宗癸巳又割加平朝宗移屬京畿。東至襄陽海口西至京畿加平縣南至忠淸道永春縣至鐵嶺東西二百五十里南北五百五十八里。所管大都護府一牧一都護府四郡七縣十一。名山曰雉岳在原州東琚瑟岬山在原州任內酒泉縣北俗號白德山。義館嶺在淮陽府北金剛山在淮陽任內長楊縣東一名皆骨一名楓岳。五臺山在江陵府西八峯山在洪川縣西太伯山在三陟府西。大川曰昭陽江其源出自麟蹄縣伊布所歷瑞和楊口縣至春川府北爲昭陽江。母津其源出自淮陽任內長楊縣境金剛山歷和川縣至淮陽府北爲德津溟所至金城任內岐城縣北爲菩提津至狼川縣南爲南津至春川府北爲母津南流合昭陽江之水達于京畿楊根郡西爲龍津。蟾江其源出自橫城德高山經流橫城縣過原州梨遷甲串至興原倉爲蟾江入于驪江。伊川德津溟所其源出自咸吉道安邊任內永豐縣境防墻洞南至京畿安峽縣爲黃浦卽臨津之上流也。錦障江其源出自五臺山洞金剛淵經流珍富驛水多寺洞至旌善郡北爲廣灘至郡南入

于大陰江。二水合流入于加灘至平昌郡東爲淵火津至寧越郡東爲錦障江。加斤同津其源出自江陵嶺西竹源金川等地歷向彌村芳林驛至平昌郡北爲龍淵津至寧越郡西爲加斤同津至郡南與錦障江合流經忠淸道永春縣至忠州爲淵遷。戶一萬一千八十四口二萬九千單九。軍丁侍衛軍二千二百七十六舡軍一千三百八十四守城軍十一鎭屬防牌二十五。墾田六萬五千九百十六結。賦稻米粟米黃豆荅豆赤小豆末醬眞麥蕎麥米芝麻芝麻油蘇子油正布厥貢蜂蜜黃蠟松子榛子柿子五倍子芥子木瓜胡桃梨大棗川椒栗芝草紅花松花槐花石茸眞茸全漆每漆牛皮馬皮狐皮狸皮貂皮虎皮豹皮鹿皮山獺皮水獺皮海獺皮猪皮魚皮獐皮熊皮豹尾狐尾熊毛猪毛鹿脯乾猪文魚大口魚年魚沙魚水魚魚油全鮑紅蛤鮑甲牛鮑斑猫白檀香紫檀香鞍枝木器瓢生麻孰麻三股繩兩股繩椵繩松脂油苞野葱磁器陶器紙休紙席雜羽肋柳器葡萄猴葛葛皮自作木塑木木弓梓木材木炭松烟馬衣朱土兎醢生鹿兎家猪藿藥材虎骨熊膽牛黃牛膽羚羊角猪膽酥油猸油獺膽鹿角膠馬鳴退鹿角虎脛骨阿膠臘兎頭猬皮白花蛇蟾酥蟬脫射干露蜂房蜥蜴石決明水蛭烏魚骨蝨蟲空靑膃肭臍五味子枸杞子栢子仁川椒枳殼牡丹皮地骨皮桑白皮蘗皮茯神安息香白膠香松脂之煉者。乾漆白茯苓杏仁木通赤茯苓栢葉栢胎木方己楮葉桑寄生郁李仁桃仁人蔘苦蔘蒼朮前胡半夏黃耆括蔞續繼澤蘭當歸蛇床子蓽茇葛根天麻細辛牛膝藍漆葳靈仙吉梗地榆酸醬獨活升麻草烏頭徐長卿白芍藥赤芍藥海藻山藥蓮子防風紫荷蕖白芨白斂白鮮皮白芷白朮白合鸚粟殼虎杖根金銀花旋覆花漏草商陸葶歷子茅香石菖蒲菖蒲貫衆萵本馬兜鈴大戟忍冬草京三稜紫胡昆布玄蔘赤箭何首烏芎藭木賊天南星莒茹牽牛子覆盆子決明子車前子藜蘆石膏水泡石磁石赤石。種養藥材惡實生地黃麻子黃葵子紫蘇黃菊白篇豆大黃黑豆粟楔荊芥薄荷。鎭二三陟杆城。太祖六年丁丑始置鎭二。鎭無留防軍有事則以侍衛牌充之。兵馬都節制使置司江陵府都觀察使兼之。水軍萬戶守禦處六越松浦在平海東舡一艘軍七十。束草浦在襄陽北舡三艘軍二百單十。江浦口在高城南舡三艘軍一百九十六。三陟浦在府東舡四艘軍二百四十五。守山浦在蔚珍南舡三艘軍一百九十一。連谷浦在縣東。舡三艘軍一百九十一。驛丞三人。保安道丞所管驛二十保安仁嵐富昌原昌連峯泉甘延平藥水平安餘粮蒼峯葛豐烏原碧呑好善安興由原新興陽淵丹丘。大昌道丞所管驛二十八大昌安仁珍富丘山橫溪大和芳林雲交木界高丹大康高岑登路樂豐臨溪冬德麟丘連倉祥雲降仙淸澗竹苞雲根明波養珍朝珍巨豐眞德。平陵道丞所管驛九平陵史直交可龍化沃原興富守山德神達孝。

世宗實錄地理志 襄陽都護府

◎襄陽都護府使一人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改名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高宗八年辛巳以能禦丹兵陞改襄州防禦使南宋寧宗嘉定十四年。四十四年丁巳以降賊降爲德寧監務。南宋理宗寶祐六年。元宗元年庚申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丁丑以外鄕陞爲府太宗十三年癸巳例改都護府十六年丙申改襄陽。別號襄山。屬縣一洞山縣本高句麗穴山縣新羅改今名爲溟州領縣。高麗顯宗戊午移屬翼嶺縣任內本朝因之。名山雪嶽在府西新羅時爲小祀。東海神祠堂。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中祀。四境東距海口七里南距江陵任內連谷五十里西距麟蹄三十六里北距杆城三十三里

戶八百五十七口一千二百七十七。洞山縣戶一百二十五口二百十八。軍丁侍衛軍七十三舡軍一百九十五。土姓二金李亡姓四孫朴河鄭續姓三張林尹。洞山縣姓四朴金崔陳來姓一林亡姓一李厥土多堉俗業海錯崇習武藝墾田一千八百三十三結。水田五分之二强。土宜五穀桑麻莞柿梨栗猪漆。土貢蜂蜜黃蠟松子胡桃五倍子芝草石茸狐皮狸皮獐皮大口魚文魚沙魚年魚全鮑紅蛤水魚常藿席正鐵。藥材人蔘五味子當歸茯苓安息香蓽茇芎藭白花蛇熊膽防風白膠香白芨牧丹皮。土産篠。石鐵産府西十里鐵掘山。鹽盆二十二。洞山縣鹽盆十八。邑土城周回一千八十八步。擁金山石城在府北。周回一千九百八十步兩側岩石間水湧流爲泉。驛四連倉祥雲降仙麟丘。在洞山縣。要害自本府西去麟蹄境所等羅領三十六里。烽火四處水山在府東南準任內洞山廣汀北準府德山。德山北準杆城竹島陽也山在洞山縣南南準速谷注乙文北準廣汀。廣汀在縣北。南準陽也山北準德山。

世宗實錄地理志 江原道 金城郡

……土姓三孫盧劉亡姓二蘇申續姓五崔原州來。宋慶州來。李寧州來。黃平海來。鄭襄陽來皆鄕吏。通溝姓二李朴亡姓四田林尹朴續姓二金徐亡岐城亡姓三朴高文續姓一金亡來姓二朴通溝來。許平康來。……

文宗 卽位年(1450) 庚午 9月 19日(庚申)

……臨江及江原道鐵原屬之原平府爲一都會以交河臨津長湍積城麻田屬之開城府則依舊例每年煮取以附近豐德郡屬之。江原道則三陟府爲一都會以蔚珍平海江陵屬之襄陽府爲一都會以杆城高城通川歙谷屬之原州任內酒泉縣爲一都會以旌善平昌寧越原州橫城洪川屬之春川府爲一都會以楊口狼川麟蹄淮陽金城平康金化屬之……

文宗 1年(1451) 辛未 11月 28日(壬戌)

○江原道監司啓前此兵曹移關各官邑城依正統四年受敎視年豐歉一時俱作造築事已曾行移今年農稍稔、故通川邑城周回三千七百四十五尺役本郡及鐵原金化平康金城狼川軍人一千九百八十二名歙谷邑城周回三千三百三十尺役本縣及淮陽安峽伊川軍人一千六百二十九名襄陽邑城周回二千七百二十四尺役本府及原州軍人一千四百七十五名江陵邑城周回三千七百二十尺役本府及平昌寧越旌善軍人一千五百五十六名平海邑城周回二千二百二十九尺役本郡及蔚珍三陟軍人八百九十九名杆城邑城周回二千七百九尺役本郡及洪川橫城軍人一千十四名高城邑城周回二千二百十三尺役本郡及春川楊口麟蹄軍人一千五百九十一名竝限二十日築之高或十餘尺或七八尺或五六尺。

端宗 1年(1453) 癸酉 6月 9日(甲午)

……江原道原州都會則本州及平昌橫城洪川寧越等五邑甲三部胄三頂角弓十五張長片箭弓伶羅韜筒兒各十五部江陵都會則本府及襄陽旌善等三邑甲三部胄三頂角弓十五張長片箭弓伶羅韜筒兒各十五部三陟都會則本府及平海蔚珍等三邑甲二部胄二頂角弓十張長片箭弓伶羅韜筒兒各十部杆城都會則本郡及高城通川歙谷麟蹄楊口淮陽等七邑甲四部胄四頂角弓二十張長片箭弓伶羅韜筒兒各二十部春川都會則本府及金化金城狼川伊川平康安峽鐵原等八邑甲三部胄三頂角弓十五張

長片箭弓伇羅鞜筒兒各十五部。以爲常額令觀察使考軍器監常定式例分定諸邑及都會依法製造。如有不堅緻者則工匠該吏及監造守令監鍊官竝依律科罪。從之

端宗 2年(1454) 甲戌 4月 25日(丙午)

○義禁府啓襄陽鄕吏加德陵辱府使碩惡莫甚雖在赦前不可不懲。請永屬他道殘驛吏。從之。

世祖 1年(1455) 乙亥 9月 1日(癸未)

○兵曹啓諸道沿海要害之處皆設鎭置將以固戍禦腹裏州縣未嘗設鎭若寇賊竊發邊鎭莫敢枝[抵]梧[捂]則必將闌入如蹈無人之境不可不慮。請於內地量置巨鎭以旁近諸邑分屬爲中左右翼。其分翼諸邑及節目具錄于後。……江原道江陵道中翼江陵左翼襄陽右翼三陟平海蔚珍原州道中翼原州横城左翼寧越平昌旌善右翼春川楊口洪川麟蹄狼川。鐵原道中翼鐵原安峽左翼伊川右翼平康。淮陽道中翼淮陽左翼金化右翼金城。高城道中翼高城左翼通川歙谷右翼杆城。……

世祖 1年(1455) 乙亥 9月 23日(乙未)

○乙未/地震于江原道襄陽杆城降香祝行解怪祭。

世祖 3年(1457) 丁丑 10月 20日(庚戌)

○兵曹啓今奉傳旨革諸道中左右翼量置巨鎭所屬諸邑磨勘具聞。……江原道江陵鎭襄陽旌善三陟鎭蔚珍平海杆城鎭高城通川歙谷淮陽鎭金城平康伊川鐵原金化安峽春川鎭狼川楊口麟蹄洪川原州鎭平昌寧越横城。從之。

世祖 5年(1459) 己卯 6月 18日(戊辰)

○傳旨義禁府曰難以後亂臣等緣坐男夫內各其未成丁者待滿十六歲決罪人及保授人等竝放送永爲庶人外方從便。女人內除原係賤口外處賜給良女願贖身從願施行且其中男夫原係公私賤者令各其官主依他役使安置人慶尙道山陰趙枚全羅道興陽任敬義定役人江原道淮陽申得敬鐵原孟孫充軍人江原道襄陽金雄虎全羅道珍島朴俗流人江原道淮陽金龍咸吉道富寧金斡生鍾城金珣慶尙道固城鄭得賢河東鄭同泗川洪山付處人全羅道龍安禹繼蕃外方從便人李樑材李三老李承命金石公崔千齡奉忠孝河紹義張和等放遣。

世祖 6年(1460) 庚辰 11月 9日(辛巳)

○傳旨兵曹曰下三道諸邑人戶內取才入格京軍士外諸色軍士及良民鄕戶中富實者慶尙道二千五百戶全羅道一千五百戶忠淸道五百戶抄定徙居于平安黃海江原道閑曠之地。又曰今平安黃海江原道勒令徙居下三道諸邑人戶及平安黃海江原咸吉道諸邑自願徙居人內徙居于黃海道白川延安海州安岳豐川瓮津文化長連信川長淵松禾康翎殷栗江原道原州江陵三陟襄陽平海通川旌善杆城寧越平昌高城蔚珍歙谷安峽等邑者復戶十二年免稅九年……

世祖 7年(1461) 辛巳 1月 11日(壬子)

○戶曹啓國屯田之法載在六典而獨於平安道郭山安州三和黃海道黃州遂安康翎咸吉道定平德源江原道連谷三陟襄陽高城蔚珍置之自餘諸邑則時未置焉。請令諸道觀察使依《大典》擇荒閑可耕之地作屯田如無則以屬公田及絶戶田爲之具錄結負之數以啓如有不用心觀察使守令痛行糾理。從之。

世祖 7年(1461)辛巳 8月 11日(戊寅)
○兵曹據京畿忠淸全羅慶尙道都巡察使尹子雲關啓咸吉道徙民二千五百戶入送時沿途諸邑非唯供饋至於茭草柴炭等物支備亦難請分路令沿途諸邑預先儲備。以平海蔚珍三陟江陵襄陽杆城高城通川歙谷爲一路原州橫城洪川春川狼川金城淮陽爲一路振威龍仁廣州楊州抱川永平鐵原金化金城淮陽爲一路分三路入送下三道道路則令都巡察使臨時分定。 從之。

世祖 10年(1464)甲申 2月 17日(庚子)
○吏曹據前襄陽府使申允甫上言啓允甫於辛巳二月初四日自襄陽奔父喪解官百官加資在其月六日今欲冒喪加資請勿聽理。 從之

世祖 11年(1465) 乙酉 11月 15日(己未)
○大司憲梁誠之上軍國便宜十條。軍國之事不可不深慮而遠圖之以爲萬全計也。今行巡軍士授一武將乘昏點閱實爲未便。乞今後巡將以文武二員竝差義禁府上直郎官親授兵曹文案對巡將而點送之以其軍目付巡將巡將受軍目而以爲檢察。……臣觀大明官制南直隸鎭江等十四府十五州北直隸順天等八府一十八州俱不隸布政司此高皇帝深慮也。朝八道慶尙道安東晋州全羅道南原光州忠淸道公州洪州京畿坡州水原江原道春川襄陽黃海道延安平山咸吉道永興北靑慶源平安道義州定州成川等郡直隸漢城府其文移等事皆仍其舊但褒貶殿最令吏曹主之。……

世祖 12年(1466) 丙戌 閏3月 10日(辛巳)
○辛巳/命祭東海神。

世祖 12年(1466) 丙戌 閏3月 14日(乙酉)
○命聚農人善農歌者圍帳內歌之襄陽官奴同仇里者最善歌。命饋朝夕以樂工例隨駕又賜襦衣一領。

世祖 12年(1466) 丙戌 7月 12日(辛巳)
○兵曹詳定軍器以啓 ……襄陽平海杆城北靑慶興德源富寧文川端川江界昌城朔州慈山宣川順川泰川熙川价川各鄕角弓三十六張磨箭筒箭各十八部長槍十五柄中槍二十一柄環刀三十六把弓弦七十二箇鐵甲二領大錚一中小錚各二鼓二大小角各二……

世祖 13年(1467) 丁亥 8月 24日(丁巳)
○兵曹據江原黃海道體察使韓繼美啓本啓曾革江陵安仁浦海門通闊且水深可爲泊船之處況江陵府在海邊中央人居稠密請以曾革連谷襄陽兩浦船軍及江艘復設萬戶戍禦。 從之。

世祖 14年(1468) 戊子 3月 20日(庚辰)
○承政院奉旨馳書于江原道觀察使金礩曰洛山寺造成時聽僧學悅言便宜發馬其馬文令襄陽府使成給。

世祖 14年(1468) 戊子 6月 4日(壬辰)
○兵曹據江原道兵馬水軍節度使啓本啓江陵安仁浦在三陟高城之間海口通闊可泊兵船。且江陵人居稠密慮有倭寇請以曾罷連谷襄陽兩浦船艘及水夫移屬安仁浦差遣萬戶以固防禦。 從之。

睿宗 卽位年(1468) 戊子 11月 2日(戊午)
○承政院奉旨馳書于襄陽府使黃允元曰前者諭爾以聽僧學悅言發馬自今勿復爾也。

睿宗 1年(1469) 己丑 1月 18日(癸酉)

○癸酉/江原道觀察使啓前此本道諸邑田稅橫城原州寧越平昌旌善江陵三陟蔚珍平海等邑則納原州興原倉襄陽杆城高城通川歙谷淮陽金城平康伊川安陜鐵原金化狼川春川楊口麟蹄洪川等邑則納京倉。今新定《大典》漕轉條註云原州興原倉春川昭陽江倉竝收江原道田稅。臣據此參詳鐵原距京三日程昭陽江則四日程金化距京及昭陽江竝三日程安峽伊川距京四日程昭陽江則五日程金城平康距京及昭陽江竝四日程淮陽距京及昭陽江竝五日程其道里遠近雖同而抵京之路坦夷昭陽江之路間有大嶺大川爲阻每天日寒凍人馬顚仆辛勤跋涉民甚苦之。請淮陽金城金化平康伊川安峽鐵原等七邑之民願納京倉者聽。命下戶曹議之戶曹請依啓本施行 從之。

睿宗 1年(1469)己丑 3月 11日(乙未)

○以曺錫文爲昌寧君韓伯倫淸川君姜子順儀賓府儀賓林自蕃襄陽君金孝江長川君韓致仁戶曹參判李承召禮曹參判權恪戶曹參議司憲府持平趙益貞加奉列。鄭蘭宗姜老行虎貢衛大護軍朴埴江原道水軍節度使李從生平安道水軍節度使革江原平安東道節度使以林自蕃朴居謙拜寧邊江陵府使兼節度使。至是以埴從生嘗拜兩府府使還兼節度使。翊戴功臣未拜堂上官者惟孝江益貞。是日特命孝江拜堂上官。益貞每政進秩至拜二品而止故今加奉列。

成宗 1年(1470)庚寅 2月 30日(己卯)

○兵曹啓今承傳旨國家昇平日久軍額漸耗。世祖爲國家大計遣大臣搜括閑散以充軍額。然於抄刷之時不免太詳民亦狃於安逸或有逃避者。由是軍保不充番上頻數無暇力農民甚苦之。其汰去冗兵更定番次以裕兵民以副世祖足兵固國之意。……江原道淮陽諸色軍士一百九十二高城三十四杆城五十八橫城八十一狼川五十楊口七十九春川二百七十三襄陽一百歙谷二十五旌善四十四江陵一百五十三平康四十一寧越一百三十通川四十四蔚珍六十五平海五十一平昌五十一金城一百八十五鐵原一百四三陟六十三原州二百八十一麟蹄三十三洪川八十金化五十五伊川八十八安峽七十八竝仍舊摠計二千三百三十八。……竝仍舊摠計九千九十一。兩界則其道赴防無番上往來之弊仍舊四番何如從之。摠計十一萬四百六十八。

成宗 2年(1471)辛卯 4月 2日(甲辰)

○原州牧使李世瑄罷。史臣曰世瑄襄陽府使時瑄兄也。其母偏愛時瑄故兄弟不相能。時瑄嘗董役洛山寺因諂事僧學悅竟爲堂上官至是除襄陽府使輦其母過原欲不入世瑄語曰過我不入人謂我何且我兄也母當從我。時瑄不從世瑄怒自刎其頸刃過皮膚間得不死。朝廷鞫其由未得其實只罷世瑄。世瑄固妄矣時瑄不得無罪而獨免焉時論恨之。

成宗 4年(1473)癸巳 6月 26日(乙酉)

○吏曹啓頃討施愛其從征鄕吏一等廣州李啓義李銀孫李枝李敦杆城崔延壽尹耕莘利川徐首孫平山金處中通川金建中二等江陵咸有文襄陽李乙山巨濟朴生老慶州金貴一靈光曺溥廣州李貞孫沔川韓希積安岳李治禮楊自成元庚申楊善智豐川金允精金得精盧得生兎山金繼生平山金鑰載寧林茂信州李開尙州尹元生三等新溪裵孟順信川金得山遂安李仲達振威趙瑞李自知等三十三人竝皆自募請賜牌永世免役。從之。

成宗 8年(1477) 丁酉 1月 24日(癸亥)
○戶曹據量田巡察使李克增啓本啓江陵珍富驛橫溪驛大和驛臨溪驛襄陽五色驛麟蹄富林驛殘敝莫甚凡供給必不能支請公須位田依大路例給二十結使之蘇復。從之。

成宗 8年(1477) 丁酉 2月 6日(乙亥)
○利川府使朴楣襄陽府使閔永肩辭上引見謂曰守令之事不過七事爾等體予意毋聚斂以安民生。
[註](七事):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息 姦猾息

成宗 9年(1478) 戊戌 7月 23日(壬午)
○壬午/受常參視事。大司諫安寬厚啓曰臣前日請洛山寺開舊路除禁標至今未得聞命。上曰洛山寺禁標不過百步海水至廣何必於百步內捕魚乎舊路距寺不遠凡奉使往來襄陽者耽妓留連或㸃炬夜行不無失火延燒之慮。若復開舊路予欲革妓。寬厚曰妓則雖不關有無然襄陽有妓其來尙矣今若革之後世必曰爲寺革也。古之帝王澤梁無禁與民共之今若禁焉後世必曰爲寺禁也。上曰予不好佛庸何傷臣子欲盡革先王之事可乎寬厚曰如其非道革之何害左參贊許琮啓曰先王之事係于憲章者不可輕改如此等事當速改之。寬厚曰若歲凶民飢則必採海而食豈宜令民舍近而求遠上問左右曰其禁標之內民家幾何必欲資海物而生蒼海至廣豈必於禁地乎都承旨孫舜孝啓曰非謂無他處也爲寺設禁於義不可耳。持平安璿啓曰臣等累陳佛家事一未蒙兪不勝缺望。上曰如欲盡革先王之事則必毁圓覺寺盡誅沙門然後快於心歟寬厚曰其大者雖難卒革如此小事革之甚可。璿曰臣意雖毁圓覺寺盡誅沙門何不可之有上曰魏帝盡誅天下沙門此則已甚矣。

成宗 13年(1482) 壬寅 2月 8日(丁未)
○持平丘夙孫來啓曰……今則洪州春川襄陽同時除授皆未赴任……

成宗 15年(1484) 甲辰 4月 19日(乙亥)
○義禁府啓行護軍具致洪曾爲江陵府使於道內諸邑求請雜物罪律該杖八十奪告身。三陟府使金祚襄陽府使金仲衡高城郡守朴始行杆城郡守沈安禮歙谷縣令沈家南蔚珍縣令盧從愼三陟浦僉制節)[節制]使金光弼安仁浦萬戶金孟隱贈遺致洪罪祚杖七十奪告身二等仲衡等各杖六十奪告身一等。命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韓明澮尹弼商李克培尹壕議請所啓施行。洪應議當依所啓然臨別相贈非他納賂之類情在可恕。傳曰致洪只奪告身金祚等依律功減一等。

成宗 16年(1485) 乙巳 7月 23日(辛未)
○辛未/御宣政殿簷下視事。典翰鄭誠謹將刑曹啓本啓順川囚吳祿生花妻貴莊殺祿生本妻莫加罪律該斬待時。應敎奇禮將刑曹啓本啓江華囚白丁李賛强盜罪律該斬不待時。竝從之。右承旨安琛將刑曹啓本啓襄陽囚良女佛德奸婢夫李莫山罪律該斬待時。上顧問左右左議政洪應對曰佛德本非士族且年踰五十情欲亦衰矣。右贊成鄭佸曰當論奴主之分不當論士族與否也。治罪當如法。右議政李克均啓曰告佛德者其壻尹之商也。壻告妻母律雖不載然不可不治其罪。上曰尹之商之告謀得奴婢也。此風長則壻告妻母者後必多矣。佛

德與莫山非奴主之分。凡有可生之道者生之可矣。其減死。

成宗 16年(1485) 乙巳 8月 15日(癸巳)
○癸巳/御經筵。講訖司諫許篁啓曰昨政以閔永肩爲刑曹參議其爲人躁急無學術凡治事務行權術恐不合六曹之任。上顧問左右大司憲李瓊仝啓曰閔永肩曾爲襄陽仁川邑宰能堪其任無失誤之事。上曰苟無失誤之事當試用之。篁曰永肩雖有辦事之才。豈知恤民之方治獄重事請改差。上曰有判書參判焉參議豈獨專乎

成宗 16年(1485) 乙巳 8月 19日(丁酉)
○命議刑曹參議閔永肩改差當否于議政府及領敦寧以上。鄭昌孫議永肩爲人臣不詳知。然別無痕咎遞差未便。尹弼商盧思愼議閔永肩才行臣則不知。但聞任襄陽仁川之時人皆言其能亦無民怨。守令百責所萃猶且如此參議之職可治矣。洪應議閔永肩臣未知爲人非文武出身想物議未滿。然本曹堂上有判書參判才質美者可以學而爲之矣。沈澮李坡鄭佸議但聞閔永肩有辦事才然徒以此而驟登六曹果如言者所啓。蘭宗議臣頃年與閔永肩同仕修理都監知其有辦事之能未聞有他過失。刑曹雖是重任上有上卿亞卿非擅斷之位試可何如傳曰宰相議皆以爲可用故予欲試之其語臺諫。

成宗 17年(1486) 丙午 1月 10日(丁巳)
○成均館典籍李承福上疏曰臣父世門去癸酉年七月以咸吉道都鎭撫考滿遷執義同年十月臣父與都節制使李澄玉坐所管鏡城府使李耕嗓潛輸軍器之罪配澄玉寧海配臣父三陟。澄玉遂反乃以鍾城敎授李善門爲僞承旨草叛逆敎書。臣父世門其時已解任還朝卽赴配所略不干於澄玉叛逆之事。而以善世字音相似司諫院誤以臣父世門爲善門駁臣遞正言臣不勝痛恨。伏願命覈眞僞以解臣冤。傳曰今觀疏可謂曖昧。諫院不得的知而駁之其問于政府及領敦寧以上。鄭昌孫韓明澮沈澮尹弼商洪應盧思愼尹壕李坡鄭佸仝謙光李崇元議：今觀上疏果如其言則似曖昧。更考其時罪案處之。李克培議李澄玉叛逆脅鍾城敎授李善門草僭逆之書世門則無與焉。請問諫院所以駁之之意。上命義禁府考世門罪案以啓。義禁府啓世門癸酉年安置于三陟戊寅年量移于襄陽癸未年特放餘無可考矣。命考實錄。

成宗 17年(1486) 丙午 11月 22日(癸亥)
○慶尙道觀察使孫舜孝上書曰臣去戊戌年爲江原道觀察使乙巳年又爲本道觀察使歷審兩道沿海形勢。江原道通川歙谷高城杆城襄陽江陵三陟蔚珍平海等九邑皆沿海本道寧海盈德淸河興海迎日長鬐慶州蔚山機張東萊仝海熊川昌原漆原鎭海泗川昆陽河東晋州固城南海巨濟等二十二邑亦皆沿海。然其賊路緩急之勢則慶州以上旣無潮汐又無島嶼白浪呑天長風倒海相推迭盪如山之頹。倭雖善於操舟何依而用力以此觀之慶州以北不足慮也。自蔚山以下始有潮汐島嶼蔚山之鹽浦東萊之釜山熊川之薺浦倭奴歸順者來居。…

成宗 17年(1486) 丙午 12月 14日(乙酉)
○襄陽府使柳自漢上疏曰臣以劣能叨宰百里値歲旱乾民虞溝壑載竭庸愚奉揚荒政。惟恐上不副宵旰之憂下不慰生民之望思所以先爲之備者蓋有日矣。敢以管見仰瀆宸覽伏惟垂察。國家自祖宗以來置義倉焉置軍資焉置常平焉其所以備荒之法至精至密而算無遺策矣

然公私儲積俱爲尠少有倉廩之名而無倉廩之實。且民無遠慮禾稼稍登輒爲酒醪群聚宴飮又其啖食倍於他國一人常兼數人之餐。未至來春儲蓄已竭種糧所需一仰官貸習以爲常。萬有刀〔刁〕斗之警數年之災國胡以應之臣竊寒心。臣竊觀中朝開創之初有循吏携李朱氏作《牧民心鑑》。當時豪傑吳興潘氏用之以致百里之善治。其備荒之條乃云大口歲積穀或豆麥幾斗小口積穀幾斗制如義廩歲歲加積。如遇凶年卽如舊數自分給之官府不預其事。李悝作平糴之敎魏文侯用之以致國家之儲峙。其平糴之條乃云歲有上中下熟上熟則糴三中熟則糴二下熟則糴一。大飢則發大熟之所斂中飢則發中熟之所斂少飢則發下熟之所斂。此皆已驗之事而備荒之良法也。雖然朱氏之《心鑑》詳於度口之大小而略於較歲之豐歉李悝之平糴詳於校歲之豐歉而略於度口之大小。所謂知其一而不知其二詳於彼而略於此者也。臣愚以謂以朱氏度口之法參之以李悝較歲之策若歲大熟則大口出粟若干斗小口出粟若干斗中熟則大口出粟幾斗小口出粟幾斗下熟亦如之多不過於一碩小不下於五斗。歲歲加積積年愈久積穀愈多豈特古人三年耕餘一年之食九年耕餘三年之食而已哉凶年則計其所入之多寡散之以利民而勿使如常平義倉之還償則其爲粟也雖入於官府之廩而無異於自家之儲民皆自以爲樂而不憂他日之水旱矣。或者議曰儲其民財濟其民急法非不善也。然法之末流弊必生焉豈非後日斂散之際或是病民之端乎臣則以謂或者之言似然而猶未也。因百姓之力以生百姓之財取百姓之財以供百姓之費安有爲民之病乎與其民無遠慮用之無節而卒轉死於溝壑孰若官自收貯而節其侈用以備緩急乎官收其粟民自節費卒值凶年隨分均受而不憂後日之還償豈非荒政之一助乎朱氏嘗宰河陽之寧津繼兩持憲節歷奉楚二郡其於備荒事首急此事收効一時著諸《心鑑》而誌其後曰後之牧民者果能同其心而施諸政亦不失循吏之名。伏惟殿下特降綸音頒諸中外擧行此法則國家幸甚。命示大臣。鄭昌孫議此法似爲便益請姑試一邑驗其便否。韓明澮尹弼商議此雖古之美法今難擧行。沈澮議斂民私穀藏於官府民不得費用似若利於民。然出入之時爲害於民必多斷不可行也。洪應議此救荒之良策然近來連遭饑荒民無儲積未免負債奚暇得贏餘以蓄之哉當俟豐年穀粟有餘徐議施行。李克培議此策古人行之有效然古今異宜行之不得其道則終爲民害。令自漢訪問民願姑試襄陽一邑以觀便否。盧思愼議斂散之際吏緣爲奸民不蒙利而反受其患恐不可行。尹壕議民間逋負甚多不能盡償況以無名之粟徵於民間可乎法雖美今不可行也。從克培議。

成宗 18年(1487) 丁未 9月 11日(丁未)

○襄陽都護府使柳自漢上書。略曰臣觀江原一道異於他道。西據大嶺東盡滄海嶺西多霜雪嶺東多風雨。加以土地磽确禾穀不蕃歲雖登稔民猶以旨蓄芋栗繼之然後僅得終歲。故民間儲橡實數十碩者謂之富家。其饁農夫非此無以贍足民之拾取只於九月十月之間。今巡幸適當其時雖支供之費不勞於民然峙芻茭修行營不可不以民也何暇拾橡實爲明年之計乎伏望講武姑待十月望後如不得其便俟明年春蒐何如

御書示領敦寧以上及政府兵曹。沈澮尹弼商李鐵堅孫舜孝李崇元議江原民以橡栗爲食誠如自漢所啓。然年年凶歉久廢講武今年稍熟定期徵兵刈芻茭營行宮業已爲之似無妨於拾栗。且十月望後雪寒軍馬凍傷春節則

非徒臨農備糧亦難大事已具不可進退。洪應議四方徵兵已有日期不可進退。然其疏內有風水損傷之語此道不可謂無災也只狩京畿何如李克培議橡栗車駕還宮後拾之未晩也。且春蒐正當農月尤不可也。盧思愼議江原之民雖雜以橡栗爲食非專恃此以爲農糧也。大事已定不可以小弊輕爲進退。愼承善李瓊仝金克忸林壽昌議講武國之大事徵兵日逼不可進退。春蒐則正當農月尤不可行。傳曰自漢之言不可用也。

成宗 18年(1487) 丁未 9月 20日(丙辰)

○丙辰/司諫院正言柳麟種來啓曰呂希寧參判李則從妹夫也李峴從姪也。判書許琮出使李則敢以注擬不自爲嫌人皆謂家門政事。日者申逡盧公弼皆以任私用人見罷聖明之下用人豈少容私意請速改希寧幷治李則之罪。傳曰希寧事已有前例不可改也果有情則當鞫之。麟種又啓曰襄陽府使柳自漢以本道失稔請停講武。臣意亦謂講武重事雖不可廢日數太多量減何如且玄俊以朝士冒喪奸妓罪關綱常不可從輕。請依律論斷何如傳曰講武大事不可以一人之言輕易進退也。玄俊事依允。

成宗 18年(1487) 丁未 10月 5日(辛未)

○臺諫更啓閔永肩事傳曰用永肩有關於社稷危亡則如此殫論可也。但指爲俳優而論執至此可乎臺諫啓曰若有關社稷則臣等論執當不止此。凡事固當防微杜漸若至於社稷危亡雖欲救之無及矣。不聽。臺諫又上疏曰閔永肩性本險邪行類俳優徒以術計取悅於人得齒仕版亦已足矣。曾忝刑部已不爲淸議所容況二品崇班乎永肩不稱其職非惟臣等知之三公諸大夫以至國人皆曰不可則公論所在斷可知矣。若開僥倖之門則人皆奔走競進將無所不至。殿下之爵賞其何以勸人乎臣等所啓是非較然天鑑孔昭洞照靡遺而不卽改正者豈不以已有成命不欲中變乎殿下若以公論爲國家之元氣則當正永肩之職。若不信臣等之言則臣等不宜强守言責以興曠官之謂。此臣等所以乞解職而伏閤不已者也。殿下更留三思。不聽。臺諫又啓曰永肩數年之間驟陞二品故駭人耳目。若待積勞而陞職人不甚駭而永肩亦自安矣。傳曰卿等初言永肩不宜二品今言積勞而後可授二品矣。此則操弄幼主之言也。若以予爲稍有知識則何言之若是乎後日可授二品則今日授之有何不可臺諫更請不已不聽。臺諫又辭職傳曰漢成帝用張禹朱雲折檻此則可矣。永肩之事豈至於此卿等屢請辭職聽之何難然予本無佛諫之心故今亦優容其勿辭。史臣曰永肩(之)貞熹王后族親也。洛山寺在襄陽歲賜京倉米一百碩永肩守襄陽示一簡于吏曰大妃知運米有弊通計三年所納三百碩以本府倉米納于洛山寺此內降懿旨也。仍令邑人輸納於寺而乃使其奴受米於京倉私自用之。後守仁川因緣宮掖多私進海錯。

成宗 20年(1489) 己酉 2月 4日(壬辰)

○壬辰/刑曹正郎趙之瑞來啓曰臣以兼持平往江原道掌試鄕闈。進士入試之日入門官平昌郡守金成慶報曰監司關文至此外面書試官開析。試官原州牧使金秀光襄陽府使柳自漢謂臣曰監司關文可開見否臣答曰見之何傷秀光析而見之乃八佾賦與李愿歸盤谷詩題也。秀光等語臣曰監司欲以公道選取自命題以送。今以此試之何如臣曰我以御史爲掌試而來監司不宜命題。安知此題於中路不爲他人所窺乎遂焚之卽出他題以試之

臣竣事上京而秀光等疑監司嫌怒具由報監司實非監司所命題也。監司囚成慶問關文所由來則乃儒生稱監司所送授方林〔芳林〕驛吏以傳於入門官也。臣於其時計不及此不卽擧劾請待罪。傳曰御史在焉監司安得命題李陸必不爾也。假如陸所爲爾棄而不推可乎然如之何其勿待罪。之瑞慙謝而退。

成宗 20年(1489) 己酉 3月 14日(壬申)

○江原道觀察使李陸啓二月二十四日本道山火連燒襄陽府居民二百五戶洛山寺觀音殿杆城鄕校及居民一百二十四戶一時皆燒。唯人畜不傷而閭閻所儲之穀盡爲灰燼。請移納通川田稅以給。從之。

成宗 21年(1490) 庚戌 7月 11日(辛酉)

○鄭文炯來啓曰臣頃爲江原監司聞李承祚因鐵釘受罪。然非自用也乃贈洪貴達也。臣遞還見承祚細問之果贈貴達也。命召問承祚承祚來啓曰臣去乙巳年五月往在襄陽本家朝廷授臣慶尙道水軍節度使。臣將上京見本道觀察使洪貴達飮酒敍舊貴達謂臣曰父在咸昌搆屋幸遺鐵物見助。臣許諾及赴任遺以鐵釘百餘介實非臣自用也。傳于承政院曰其下書慶尙道監司問貴達以啓。貴達時居父喪在咸昌。

成宗 21年(1490) 庚戌 8月 10日(庚寅)

○慶尙道觀察使鄭佸馳啓曰咸昌居喪人洪貴達處問求釘於李承祚之意答云父生存時所居舊家頹落欲修補求得鐵釘是年爲江原監司到襄陽偶見慶尙左道水使李承祚相對談話間仍說父求釘意隔數朔父通書曰水使送三寸釘一百二十箇及海物一箱汝宜致謝。傳曰然則承祚之事誠爲曖昧其以此意諭臺諫。

成宗 21年(1490) 庚戌 10月 10日(戊午)

○命召領敦寧以上政府六曹漢城府議閔永肩參判李時琠判決事當否。沈澮議臣與永肩時琠素無交分又不與同事未知心行善惡。但聞二人曾爲守令有治事之能未聞有大過失。尹弼商盧思愼尹壕盧公弼議臣等素不與永肩同事未悉其爲人。但每除職臺諫必彈論恐其人未孚於物望也。孫舜孝成俊議永肩時琠雖非文武出身有治事之才。永肩曾經襄陽府使楊州牧使仁川府使星州牧使時琠曾經陰竹縣監江華府使(鄕)延安府使晋州牧使驪州牧使皆無所失有治效何妨於參判判決之任李崇元韓健議永肩有治事之能。然於參判恐未副物議。成健議向者永肩陞二品臣爲大司憲已論其過當。權健議永肩心術蘊奧未能悉知其人輕浮恐非令器。權偍宋鐵山安友騫議臣等未知永肩之爲人。然六卿之貳不可不愼擇。尹弼商洪應李克均李崇元議時琠有吏才且有學識歷任州縣皆有政聲。於斷訟都監已經決事伏惟上裁。李鐵堅議臣去辛丑年慶尙監司時時琠爲晋州牧使適其年凶荒救民之勤決訟之數有異於他。曾任陰竹江華延安驪州等邑行己無失民不怨咨判決之任以爲無妨。李克墩成健宋鐵山安友騫韓健尹慤議時琠處事强明所至皆有聲績以臣所見判決事之任玆爲得人。傳曰群議皆以時琠爲可任不可以臺諫之言而遞差也。永肩亦當敍用。

成宗 22年(1491) 辛亥 7月 4日(戊寅)

○敎開城府留守柳洵京畿觀察使金悌臣江原道觀察使金礪石忠淸道觀察使洪興兵馬節度使曺淑沂全羅道觀察使金克儉兵馬節度使辛鑄慶尙道觀察使鄭崇祖左

道兵馬節度使河叔溥右道兵馬節度使曺克治永安南道節度使卞宗仁北道節度使成俊曰……今年又犯造山堡殺害我鎭將虔劉我人民搶奪我頭畜……江原道原州寧越平昌旌善橫城春川麟蹄狼川洪川金化伊川楊口淮陽金城安峽鐵原平康等官軍士九月初八日發程同月二十五日到吉城平海蔚珍三陟江陵襄陽杆城高城通川歙谷等官軍士九月初四日發程同月二十一日到吉城……噫兵旣出而有名師當直而爲壯執訊獲醜予一人豈欲逞憤於伊吾息馬休戈使邊氓庶幾按堵於朔野。

中宗 4年(1509) 己巳 閏9月 9日(戊辰)

○臺諫啓曰……憲府又啓曰江原道觀察使李繼福前日承旨時多有所失而及爲觀察使臺諫駁其不合方面之任以其不可無自新之路故停之。今聞率行僧人宗諗於襄陽之地給糧過夏或聽請囑多放獄囚作弊於各官。今則給糧在鐵原僧則已令搜捕矣請遞繼福之職而推之……。傳曰朴守經梁閏閔精遞差金貞美降授可也。餘不允。

中宗 5年(1510) 庚午 5月 9日(癸亥)

○江原道觀察使安潤孫馳啓曰本道沿海各官小猛船體鈍不可行用於海洋留浦軍執弓者不過二三難以防禦。平海蔚珍外皆無城子防備尤難要害處須用陸軍。分戍防護請設江陵三所平海蔚珍三陟襄陽杆城高城通川各二所歙谷一所據險處則設鹿角城平地則設木柵道內軍士限倭變寢息除上番防護江陵三陟留防軍竝皆權罷爲當。都體察使啓曰木柵鹿角城排設時須以剛明差使員監董其役使之無弊。道內軍士則宮闕侍衛緊重不可除上番。以下番軍士及閑良有武才人抄擇、上番。以下番軍士及閑良有武才人抄擇分番防戍江陵三陟留防軍則脫有事變在主將節度雖當無事不可遽令權罷。上可之。

中宗 7年(1512) 壬申 5月 14日(丁巳)

○江原道觀察使高荊山上疏其略曰……嶺東各官皆沿海汀脫有緩急將何以禦敵且嶺東南至于平海郡北至于歙谷縣相距八百五十三里其間九官居民四千八百八戶田畓五千五百五十二結。國穀今年春等會計所載軍資別倉倂米時留庫一萬七千三百五十五碩散在一萬三千二百八十五碩十斗皮雜穀幷時留庫二萬三千三百八十二碩。散在四萬六千九百十一碩五斗矣。……措轉便否問諸古老水軍則曰追思四十餘年前襄陽洛山寺高城楡岾寺重創時用中小猛船運慶尙米麪鐵物用之。古之水路卽今之水路也豈通於古而不通於今乎臣請同道米穀二萬餘碩特命漕運分置本道沿海九官如運黃海米穀于平安賊路各官之例以備不虞。……

中宗 8年(1513) 癸酉 8月 8日(癸卯)

○臺諫啓邊脩趙英傑李繼孟成世貞事。憲府啓曰襄陽府使李鈞少時雖爲守令坡州廣州皆不善治。今則年老貪汚豈合於治民乎亦可改正。羅楫來歷不多不當陞敍判官亦速改正。皆不允。

中宗 10年(1515) 乙亥 2月 7日(乙未)

○江原道原州寧越江陵襄陽旌善杆城麟蹄橫城地震。

中宗 11年(1516) 丙子 4月 17日(戊辰)

○以旱遣官祭宗廟社稷祈雨又降香祈雨于八道嶽海瀆之神。
[註](嶽海瀆) : 國家가 祭祀지내는 四嶽·三海·七瀆。四嶽은 南原의 智異山·都城의 三角山 開城의 松嶽山·定平의 鼻白山이고。三海는 襄陽의 東海·羅州의 南海·豐川의 西海。七瀆은 公州의 熊津·梁山의 伽倻津·都城의 漢江·長湍의 德津·平壤의 平壤江·義州의 鴨綠江·慶源의 頭滿江이다。

中宗 13年(1518) 戊寅 7月 3日(庚子)
○臺諫啓前事。諫院啓曰襄陽府使秦澹非徒年老不堪治事其人物不合於臨民之官宣川郡守申永澈貪汚。請俱遞之。傳曰尹之任鳳山君邊脩李成童朴好謙可遞餘不允。

中宗 15年(1520) 庚辰 4月 3日(庚申)
○隕霜。京畿楊根積城全羅道全州益山昌平雲峯和順臨陂江原道原州平昌橫城連三日隕霜襄陽杆城淮陽高城平康三陟下雪金剛山則雪深七寸。

中宗 15年(1520) 庚辰 12月 22日(丙午)
○江原道襄陽杆城地震屋宇搖動。

中宗 16年(1521) 辛巳 9月 13日(辛酉)
○江原道襄陽杆城地震。

中宗 16年(1521) 辛巳 11月 10日(戊午)
○江原道襄陽江陵地震。

中宗 16年(1521) 辛巳 12月 22日(庚子)
○全羅道長城光州南平樂安南原羅州潭陽珍原和順海南大風雨雷電。江原道杆城襄陽地震屋宇振撼

中宗 19年(1524) 甲申 4月 4日(戊戌)
○江原道淮陽通川高城杆城金化襄陽楊口原州麟蹄等地下雪。

中宗 19年(1524) 甲申 4月 18日(壬子)
○江原道蔚珍杆城寧越襄陽雨雹。

中宗 19年(1524) 甲申 6月 11日(甲辰)
○臺諫啓曰……
襄陽府使金事結憑藉堂參例物多辦私裝本府方推。此事必推其人吏事干則不可使在其職而推之。……再啓不允。

中宗 20年(1525) 乙酉 6月 24日(壬子)
○憲府啓曰金事結前爲襄陽府使多用堂參。雖得發明物論未便豈可敍用乎傳曰金事結當初臺諫啓之累次推覈木緜授受處分明已得發明不可以此終不敍也。

中宗 21年(1526) 丙戌 3月 25日(戊申)
○戊申/江原道觀察使閔壽千馳啓曰道內時病物故人三陟四十一襄陽五十八杆城九高城十八。

中宗 21年(1526) 丙戌 6月 16日(丁卯)
○咸鏡道文川德源定平鏡城吉州明川鍾城癘疫死者摠二百三十三江原道三陟襄陽杆城高城平海歙谷摠百十一。

中宗 21年(1526) 丙戌 8月 24日(乙亥)

○京畿永平楊州等官雨雹江原道三陟雨雹楊口雨雹深一尺許襄陽杆城下雪慶尙道蔚山等五邑雨雹。

中宗 22年(1527) 丁亥 1月 3日(辛巳)
○辛巳/臺諫啓前事。諫院又啓襄陽府使孔瑞麟本有物論又有誤事請遞。不允。

中宗 22年(1527) 丁亥 5月 29日(乙巳)
○江原道江陵襄陽杆城雨雹。

中宗 23年(1528) 戊子 閏10月 2日(庚午)
○夜艮方電江原道洪川襄陽雷。

中宗 23年(1528) 戊子 11月 3日(辛丑)
○御朝講。持平洪石堅曰……臣爲襄陽府使時黃瑾爲江陵府使。江陵雖有文風然皆安於少成。若得生員進士則自足而不復力學也。黃瑾能文者也。聚其儒生一月三度製述親自考試以之勸奬故士習大變爲及第者多矣。近間臣爲觀察使時觀之已與其時大異生員進士亦爲闕榜矣。一黃瑾爲江陵人才尙多。若自上力爲勸奬則國家豈無人才乎……此自上所當留念。』

中宗 25年(1530) 庚寅 10月 9日(乙丑)
○江原道江陵襄陽等邑雷動。

中宗 25年(1530) 庚寅 10月 10日(丙寅)
○江原道杆城郡襄陽府慶尙道知禮縣雷動。

中宗 25年(1530) 庚寅 10月 11日(丁卯)
○江原道襄陽府雷動。

中宗 26年(1531) 辛卯 5月 30日(癸丑)
○京畿水原高陽等郡江原道杆城襄陽通川歙谷等處蟲。大如二眠蠶損食禾穀。

中宗 27年(1532) 壬辰 5月 25日(壬申)
○壬申/憲府啓曰襄陽府使李允榮素行狂悖刑罰不中民不堪其苦近者亦有濫刑殺人之事請罷。傳曰依啓。

中宗 28年(1533) 癸巳 7月 13日(甲寅)
○傳于政院曰今見全羅道觀察使啓本鄭回石詐稱東宮別監。稱名人及畫員金壽永金貴亨襄陽官奴元孫僧人祖熙士仁等造持佛幀與富商大賈出入閭閻誑民惑衆詐稱東宮所出云。至爲驚怪。特遣義禁府郎官急速拿來窮極推問可也。其中內官金石京者爲主云。此人問于內侍府則無有此名者鄭回石問于東宮則亦無有此名者然不無變名之術當窮索推閱可也。士仁則似不干預其事其道監司請放云矣。然不可輕放一時拿來亦可。

中宗 29年(1534)甲午 4月 20日(丙辰)
○丙辰/憲府啓江原道觀察使曺漢弼都事權璞等酷愛襄陽官妓駄載巡遊所贈之物責辦於守令以贈物多少爲之賢否。且漢弼子新中生員原州官設慶席召致各官守令五六日程襄陽江陵等女妓多數乘驛而來濫給宴幣輸轉之際貽弊各驛使原州凋殘益甚其他墮毁風紀之事亦多。身任一道重寄所爲荒亂敗度至於如此何能糾撿守令乎請幷罷。引儀數書來而見之元數八而兼則六也。以此十三四員無不可爲之事而又有假引儀。安益齡閔世良許復亨裵鐵重李昌宗等五人皆老悖不能任事之人。令持公座簿而來則常不仕故無公座簿云。請革

罷。諫院啓檢閱李滉逆人權瑱同生兄礩之女壻今爲定屬。滉決不可爲史官請推藝文館官員幷遞李滉。引儀事不允餘皆如啓。

中宗 29年(1534) 甲午 4月 20日(丙辰)

○丙辰/憲府啓江原道觀察使曺漢弼都事權璞等酷愛襄陽官妓馱載巡遊所贈之物責辦於守令以贈物多少爲之賢否。且漢弼子新中生員原州官設慶席召致各官守令五六日程襄陽江陵等女妓多數乘驛而來濫給宴幣輸轉之際貽弊各驛使原州凋殘益甚其他墜毁風紀之事亦多。身任一道重寄所爲荒亂敗度至於如此何能糾檢守令乎請幷罷。引儀數書來而見之元數八而兼則六也。以此十三四員無不可爲之事而又有假引儀。安益齡閔世良許復亨裵鐵重李昌宗等五人皆老悖不能任事之人。令持公座簿而來則常不仕故無公座簿云。請革罷。諫院啓檢閱李滉逆人權瑱同生兄礩之女壻今爲定屬。滉決不可爲史官請推藝文館官員幷遞李滉。引儀事不允餘皆如啓。

中宗 29年(1534) 甲午 12月 17日(己酉)

○諫院啓前事。又啓曰富平府使成琛前爲坡州牧使多有誤事弊及於民。襄陽府使柳希渚惑於嬖妾居官不謹。請竝遞。皆不允。

中宗 34年(1539) 己亥 4月 30日(丁卯)

○政院以江原道觀察使書狀入啓其書狀曰江陵府使張季文等牒呈今四月十八日下雨大嶺及連根等山頂下雪經日不消。襄陽同月十九日雪嶽山下雪高城同日金剛山腰下雪鐵原十八日下雨時山頂下雪杆城楊口同日諸山下雪深五六寸金化麟蹄狼川同日山上雪深三尺。雨麥外餘禾穀時未立苗故無損傷處。附近各邑亦下雪與否行移訪問。卽下于禮曹。

中宗 36年(1541) 辛丑 12月 2日(癸丑)

○御夕講。特進官金銛曰臣爲江原道觀察使察道內之事嶺西則田穀甚好救荒不難而時無飢餓之民。唯嶺東水田專不得食。襄陽江陵蔚珍等官尤甚失農。適今年橡實多結故民多備在臣巡行時或有所見之處。賑濟幕則有名無實飢民雖至於死不欲入幕。然事目所付之事不可不爲。大抵救荒凡事各官守令無不盡力措置焉。前者御史摘奸而來守令如有不謹之事以至見遞則飢荒之歲恐有迎送之弊。上曰各道歲後欲下送御史以察救荒之事。如是然後守令必盡心措置矣。失農處守令又遞之則豈無其弊徐觀其公事而爲之也。

中宗 37年(1542 壬寅 11月 8日(甲寅)

○甲寅/御思政殿引見江原道觀察使金緣。上曰近來守令不務恤民。監司宜嚴明黜陟減省刑罰。凡事卿其勉焉。緣曰臣敢不盡心但聞江陵襄陽三陟杆城蔚珍等處今又失農民生至難連年飢饉舊穀已盡新稅未收救荒甚難此事至爲可慮。上曰年年如此民不聊生。荒政果難卿其懋哉

中宗 38年(1543) 癸卯 6月 22日(乙未)

○乙未/諫院啓曰……

楊州牧使邊明胤襄陽府使李蓂亦在準期之類請遞……答曰成琛以元勳之子親爲功臣而爲堂上將至三十年 不須改也。餘皆依允。

中宗 38年(1543) 癸卯 8月 2日(甲戌)

○甲戌/傳于政院曰今見江原道觀察使書狀江陵三陟襄陽平海通川高城杆城等官風水之災不小 民生至爲可慮。水退後禾穀損傷人物沈沒與否更審馳啓事下書。且於他道風水之災有無詳悉馳啓事亦下書可也。

明宗 1年(1546 丙午 5月 23日(戊寅)

……江原道江陵旌善襄陽橫城通川春川淮陽杆城歙谷鐵原伊川原州狼川平康金城楊口金化安峽高城地震川渠動盪。慶尙道淸道大雨有一民家沙頹覆沒壓死者三人。

明宗 1年(1546) 丙午 11月 20日(癸酉)

○江原監司狀啓曰……

臣所經原州平昌寧越等官抄發閑良以李貞儉爲統將押領馳送下番軍士及雜色軍有武才人則以有賊變處各官守令押領起送江陵判官以助防將不分晝夜馳赴襄陽以北各官則以淮陽府使李億爲助防將措置待變事移文……三公回啓曰上敎至當。下備邊司則自當爲公事矣。

明宗 2年(1547) 丁未 4月 19日(庚子)

○京城雨雹京畿廣州雷動雨雹楊根下霜淸洪道保寧慶尙道安陰開寧星州知禮居昌三嘉咸陽善山雨雹大丘隕霜。江原道襄陽雪嶽山高城金剛山下雪旌善雨雹 全羅道臨陂沃溝咸平靈光鎭安長水雨雹平安道江界雨雹。

明宗 4年(1549) 己酉 8月 29日(丙寅)

○江原道襄陽有杏開花結實。

明宗 4年(1549) 己酉 10月 21日(丁巳)

○江原道襄陽杏樹開花結實。

明宗 5年(1550) 庚戌 8月 29日(庚寅)

○憲府啓曰襄陽府使林千孫人物庸鄙惟務善事到處不謹。前爲全羅兵使時取斂之事無所不爲利其作紙凡老除者在法納紙故名曰作紙。然例皆徵布。年未滿六十者皆許老除使軍額一空。羅州牧倉庫米乘其牧使出去公然開出使其營屬軍卒駄載輸去請罷其職不敍以懲其餘。答曰林千孫所犯如此則雖罷其職固不足惜傳播之言不無構成誣陷之弊故不允。後只罷其職。

明宗 8年(1553) 癸丑 10月 3日(丙子)

○丙子/江原道襄陽雨雹雷電。

明宗 9年(1554) 甲寅 7月 27日(乙丑)

○江原道江陵三陟襄陽旌善平海蔚珍大水杆城雨雹。

明宗 10年(1555) 3月 29日(甲子)

○禮曹以孝子襄陽居忠順衛金壽永父母歿哀毁骨立不食采果啜粥三年又自作告天之誓一百三十二字自涅于左右膝。……等入啓命旌門復戶。

明宗 12年(1557) 丁巳 12月 3日(壬午)

○江原道襄陽地震屋宇搖動。

明宗 17年(1562) 壬戌 6月 11日(癸亥)

○癸亥/傳于政院曰江原道蟲災似甚。通川歙谷杆城襄陽三陟麟蹄江陵生靑黑蟲食黍稷菽粟殆盡而襄陽尤甚田畝只餘空莖併啖野草堆散道路人馬蹂躪臭穢逼

人。又入家室穿房緣壁毒螫滿身人不能堪。近因連續下雨必自漸滅然令該曹廣考前例講究消災之方亦措救民之策。且原州境內癘疫熾發民多夭札。別遣明醫齎藥救療事言于禮曹。

宣祖 13年(1580) 庚辰 7月 28日(乙未)

○乙未/司諫院啓近來人心不古巧詐橫生爲守令者急於解由遞來之際多以往年還上散糶播錄於時給之案已成弊習極爲駭愕不可不隨現重治。羅州牧使文益誠前爲襄陽府使時飜籍之穀多至五千七百餘石。以有識文官敢爲如此之事其無謂甚矣。請命罷職以警其餘。答曰 依啓。

宣祖 16年(1583) 癸未 12月 11日(己未)

○己未/襄陽府使柳夢鶴辭職上疏答曰自有公論無以自明也。勿辭。

宣祖 24年(1591) 辛卯 6月 25日(戊午)

○戊午/兩司合啓右贊成尹根壽判中樞府事洪聖民驪州牧使李海壽襄陽府使張雲翼等黨附鄭澈引進奸邪排斥異己請削奪官爵。依允。根壽以元勳不允翌日允之。雲翼遠竄穩城。

宣祖 26年(1593) 癸巳 6月 5日(戊子)

○經略移咨大概本國八道之中某道某邑倭奴盡數占據某道上犯某道未犯某處某道全未入境逐一備細開寫明白咨復施行。……江原道原州淮陽襄陽春川三陟江陵鐵原等府鎭通川平海旌善高城扞城寧城平昌等郡金城蔚珍歙谷伊川平康金化狼川洪川楊口橫城麟蹄安峽等縣俱經賊患亦有占住。……

宣祖 26年(1593) 癸巳 10月 18日(戊戌)

○戊戌/司諫院啓曰……江陵府使南復興爲人麤鄙濟以貪饕。到任之後專以酗酒割剝爲事。請命先罷後推。襄陽府使洪麒祥前爲京畿召募使成泳從事官托以募粟出入兩湖濫用刑杖貽弊多端爲人笑罵。及赴本府號令顚倒政委下吏民受其弊不可在職。請命罷職。……答曰餘依啓。承旨改正事他人不顧君父皆棄而逃去此人等獨爲扈駕。必須褒奬故如是爲之矣。更勿論啓。

宣祖 28年(1595) 乙未 7月 15日(丙戌)

○義禁府啓曰權用中爲襄陽府使時壬辰捧糴會計不錄耗數剩數無置處不有朝廷命令斂怨肥己者乃巡按御史金尙寯狀啓之罪也。該曹論理回啓令本道考覈則皆準其數別無欠縮之處用中發明之辭亦不無可據。被鞫之罪似無更訊之端而當初罪名非輕自下未敢擅便。上裁施行何如傳曰初出於御史之覈。御史乃朝廷耳目之官而親自手閱目覩非如在京臺諫泛然風聞之比。不信其言乃使他人推閱不無意外之慮。若以此而得逭後弊滋而刑政頹矣。

宣祖 28年(1595) 乙未 7月 15日(丙戌)

○義禁府啓曰權用中爲襄陽府使時壬辰捧糴會計不錄耗數剩數無置處不有朝廷命令斂怨肥己者乃巡按御史金尙寯狀啓之罪也。該曹論理回啓令本道考覈則皆準其數別無欠縮之處用中發明之辭亦不無可據。被鞫之罪似無更訊之端而當初罪名非輕自下未敢擅便。上裁施行何如傳曰初出於御史之覈。御史乃朝廷耳目之官而親自手閱目覩非如在京臺諫泛然風聞之比。不信其言乃使他人推閱不無意外之慮。若以此而得逭後弊

滋而刑政頹矣。

宣祖 29年(1596) 丙申 11月 26日(戊午)

……上曰然則限大路築城守南乎守北乎睟曰守南云矣。成龍曰若爲砲樓則可以守之但無工役罔知所爲。大概軍小糧無何以爲之乎上曰砲樓雖作無器械則只空樓而已。大概我國城最大擊其左右不知。李提督以平壤城難守云。古人守城分番爲之。四面合圍若至累月則以何軍能守乎且中原守城極緊呂文煥守襄陽六年。我國則難支數三月以故將士危之不能入城。制度如是而能驅入乎大概先爲磨鍊分軍某軍守某堞某將領某面後數爲巡撿習陣而今巡撿使已出分別爲之可矣。磾曰財力蕩竭無處辦出矣。上曰不爲習禮乎雖小事爲三度習禮。守城何等事而不爲乎臨亂則必蒼黃矣。……

宣祖 31年(1598) 戊戌 2月 18日(癸酉

○憲府啓曰權知承文副正字金瑾以復讎召募使從事官往來忠州挾妓張樂縱酒于彈琴臺下卽其父汝岊戰沒之地。爲人子者如遇其地號痛隕絶不忍經過而其所行乃敢如此凡在見聞莫不痛愕。請命削去仕版以正倫紀。內外軍餉渴乏繼用無路特以儲粟優數守令或陞堂上或爲陞職以勸他人在所不已。而其中僅過百餘石或纔五十石者亦授重加褒奬之典反歸於不重物情皆以爲未便而納粟事目以米一百七十石爲堂上。私家所納其數尙多況守令官備之數如此其少者乎坡州牧使沈日休襄陽府使李弘老永同縣監鄭元卿堂上加請竝命改正。答曰依啓。守令加資事不可無活法已受加今不可改。仍傳曰此時外方亦有妓樂乎問于政院。右副承旨崔瓘啓曰西北邊方尙循往習不廢妓樂臣等曾有所聞忠州則焚蕩之後似無音樂等事。然乃是昔日有妓官臺諫之論亦必有所聞而發。備忘記曰前聞外方守令等張樂宴飮或奉使者亦然其心術極爲駭愕而臺諫不論無人請禁常切私嘆。此時國中豈可有妓樂乎六鎭滿浦外盡爲革去痛禁違者以敗常論事令備邊司議啓。

宣祖 31年(1598) 戊戌 2月 19日(甲戌)

○持平李必亨來啓曰變亂之後爵賞濫施名器汚蔑流品混淆纔易一醉之譏不幸近之識者之寒心久矣。守令等加措會外之穀是不過職分內微細之事別無可紀之功而授以重加勸人之典反令有功者怠物情深以爲未便。坡州牧使沈日休襄陽府使李弘老永同縣監鄭元卿堂上加竝命改正。答曰依啓。

宣祖 31年(1598) 戊戌 4月 27日(辛巳)

○復讎廳啓曰……

附近復讎之軍則唯驪州原州洪川橫城近於忠州高城扞城襄陽江陵三陟平海蔚珍距寧海不遠。右十三官募聚之穀則三百三十石應募之人則竝與納糧者計之八百五十餘名其中雖除老弱女子以八百之衆運三百之穀功力不煩似可易致。然則忠州所入一百七十六石寧海所入一百五十四石也。但如此多事之時本軍號令不能通行於列邑方伯發號守令施令諄諄遍諭使之從便搬運後令本官蠲免苦役以慰其勞則庶幾公私兩便。以此意下書於江原監司急速施行。……

宣祖 31年(1598) 戊戌 6月 3日(丙辰)

○以申葆爲襄陽府使朴東亮爲延安府使金蓋國爲典翰金義元爲吏曹正郎沈詻爲副修撰。

宣祖 31年(1598) 戊戌 6月 3日(丙辰

○獻納金順命來啓曰襄陽府使申葆以縣監超三品其爲猥濫莫此之甚。謂葆有治績之可稱而陞遷之則自當有相近之秩固不容濫授非據。縣監而陞郡守尙且不可而況於府使乎階級有次名器至重爲一葆而破壞之寧有是乎請亟命改正。答曰申葆爲僉正豈可不爲府使乎

宣祖 31年(1598) 戊戌 6月 18日(辛未)

○司憲府啓曰大賊在境國羞未雪此時宴樂臣子之所不忍爲而吏曹參判姜紳以秩高宰臣不念國事之危急大張宴會盛陳聲樂縱恣之狀固已極矣。及値天將嗔怒略不知愧反爲飭[飾]娼而媚之以解其怒其爲無謂尤極未安。不可尋常推考而止請勿留難亟命罷職。襄陽府使李弘老以災傷見罷之後因其府民之納米遽仍其職。以守令重任反爲買粟之具政體之顚倒苟且莫此爲甚物情深以爲未便。李弘老仍任公事請勿擧行。答曰姜紳已爲推考不允。李弘老善治守令最爲關重旣爲敍用民情亦然故仍任矣非納粟而爲之矣。

宣祖 32年(1599) 己亥 6月 6日(癸未)

○右副承旨李弘老爲人麤猾素無名望。其在平時僅拜兵部郎旋見左授不得與淸顯之職。至是攀附得進自襄陽府使轉刑曹參議尋入銀臺時人以漸入佳境譏之。啓曰頃日憲府秘密啓辭中事自上未知曲折令備邊司察處事傳敎矣。此事機關極重所當急急議處而備邊司以竣大臣出仕商議處置爲啓。左議政李德馨早擢科第歷敭淸顯年三十八入相近代相臣無如德馨之年少者。但入中書無所建明又乏淸儉之德時議少之。方管重任竣完遲速難定右議政李恒福好詼諧隨時浮沈時議少之。以病在告。設使原任大臣雖或有故不得會議公廳有司堂上猶可就議其家句當處置而使極重之事稽滯至此極爲未安斯速議處事言于備邊司何如傳曰依啓。

宣祖 35年(1602) 壬寅 6月 13日(癸卯)

○江原道觀察使朴承宗馳啓曰道內江陵府四月十九日夜下霜禾穀盡爲枯傷。淮陽府四月二十日連夜下霜稷麥粟豆幾盡凍傷二十五日日沒時西風大作雨雹大如橡栗小如太豆春秋牟麰牟麻菜等物盡爲損傷。通川金化平康等地四月二十五日雷聲自北而起驟雨急注雨雹交作大如烏卵小如棒子雨麥黍粟多有枯傷。橫城地自五月初凄風連吹。襄陽三陟扞城等地黃霧四塞云云。啓下禮曹。

宣祖 35年(1602) 壬寅 7月 3日(壬戌)

○壬戌/有政。以洪進爲行同知中樞府事尹洞爲茂城君洞以裕陵守陵官旣畢三年至是陞資憲階拜是職。鄭仁弘爲工曹參判仁弘旣歸上有追召之命故銓曹擬是望。尹安性爲北道兵使金大來爲司諫院司諫鄭穀爲議政府舍人柳穡爲司諫院正言李民宬爲侍講院司書蔡衡爲禮曹佐郎白大珩爲刑曹佐郎成俊耆爲侍講院說書尹守謙爲承政院注書李繼先爲東萊府使金潤身爲宣川郡守姜絅爲白川郡守權斗文爲杆城郡守洪汝誠爲襄陽府使吳大男爲珍島郡守具榮爲平壤判官文德敎爲興德縣監鄭适爲延日縣監。

宣祖 36年(1603) 癸卯 3月 10日(丙寅)

○丙寅/江原道觀察使朴東亮馳啓曰通川郡地金爛津人金石福等進告于郡去二月十五日海水間有赤色二十六日則赤色遍海其赤處則水氣渾濁採海之船遇其赤處似有所礙棹之不利。中洋則深赤如血近邊則微淡取以染物則色如淡紅。歙谷縣令李通通川郡守韓守眞

襄陽府使洪汝誠所報皆然。

宣祖 36年(1603) 癸卯 3月 20日(丙子)
○江原道觀察使朴東亮馳啓曰襄陽府有兩石自海中出橫臥於義湘臺下。海邊曾露石或蒼或黑苔蘚侵蝕而右兩片石如塗白粉其色懸殊。春川東面百姓偶然出野捕得雌雉頭胸翼尾之毛羽太半變形化爲雄雉。變異非常。

宣祖 36年(1603) 癸卯 3月 22日(戊寅)
○江原道暗行御史曹倬書啓春川府使申葆江陵府使柳寅吉三陟府使安宗祿原州牧使姜大虎橫城縣監李彦佐歙谷縣令李通襄陽府使洪汝誠旌善郡守嚴仁述皆善治楊口縣監沈仁祿狼川縣監。皆不治。

宣祖 36年(1603) 癸卯 5月 24日(己卯)
○江原監司狀啓江陵三陟襄陽高城通川橫城等官旱災太甚田野龜坼禾穀焦傷無根高元處不得移。伊川去四月二十一日狂風大作境內人家屋瓦皆飛樹木亦拔。平康四月二十四日鐵原楊口狼川四月二十六日雨雹交下禾穀盡損。旱乾之餘又有風雹之災民生至爲可慮。尤甚旱乾處祈雨香祝幣下送何如啓下禮曹。

宣祖 37年(1604) 甲辰 6月 24日(癸卯)
○江原道觀察使徐仁元狀啓杆城黑蟲大於土中狀如三眠蚕喫損禾穀不得立苗者居半。高城則付種之後淒風冷雨凜若霜秋六月初三日大雷雨黃黑飛蝗遍落於田疇損食無餘數三日之內田野有如灰燼之地一境老弱仰天號哭。江陵以北襄陽通川歙谷等地亦淫雨連月百穀被傷。三陟淒風連吹亢陽極酷麰麥枯損所見慘惻。原州橫城金化淮陽洪川麟蹄春川旌善及他餘各官皆大旱之餘得此大雨而田畓已盡焦傷雖得雨澤無望西成。今年農事大無救荒節次預先措置事。

宣祖 37年(1604) 甲辰 10月 1日(丁未)
○江原道御史宋書啓曰……
襄陽府使洪汝誠誠心爲政絶無紛華淮陽府使嚴仁述到任未久政先愛民平海郡守李希聖別備軍糧米太各五十石長片箭各五十部矣洪川縣監趙國弼衙眷至簡絶不貽弊矣。民間疾苦頗有可言者而旣非下敎不敢書啓。

宣祖 38年(1605) 乙巳 7月 23日(乙未)
……襄陽則府內百餘戶大小人家財畜一時漂沒溘死人物或父母子女或夫妻兄弟有全家淪溺者有沙汰壓死者閭閻街路哭聲徹天濱海之間積斃相枕。……古之言大水者或謂懷山襄陵或謂之沈陸沒崗而恐未有如此之不可形言者其殘滅之狀有甚於當壬辰賊火之焚蕩乎。

宣祖 38年(1605) 乙巳 8月 1日(癸卯)
……大概五六十年以來庚辰水患雖多而不至於如此也。八道之被災雖未及盡聞江原道名山亦爲崩頹云。此雖未得詳知而道說如此矣。江陵公私家舍盡爲漂沈百餘人亦溘死云而襄陽等邑亦被水災……
史臣曰兩界一國之根本而賊路之要衝。其祖宗設險關防之意豈不重哉近來爲監兵使者徒知肥己之謀而不察防備之機以賄賂厚薄爲黜陟以城池高深爲餘事以致西北之空虛可不痛哉

宣祖 38年(1605) 乙巳 8月 4日(丙午)

○卯時、上御別殿……
上曰襄陽杆城等官無水災乎億齡曰嶺東被災尤甚。死者可弔生者可恤別樣安撫收拾人心爲今日之急務。貢物徭役等事別爲除去事。且監兵使營納色目頗多無異於貢物之督納。裁減之事下諭於監兵使則百姓之蒙利多矣。……

宣祖 38年(1605) 乙巳 8月 8日(庚戌)
○江原道監司韓德遠啓曰……麟蹄襄陽高城金城杆城三陟淮陽等官被災一樣云而道路阻絶時未來報。云矣。啓下禮曹。

宣祖 40年(1607) 丁未 閏6月 13日(甲戌)
○以鄭殼爲江原監司金時獻爲襄陽府使柳澗爲左副承旨李廷馣爲輔德李必榮爲司藝吳靖爲修撰。

宣祖 40年(1607) 丁未 7月 5日(乙未)
○以成泳爲戶曹判書朴承宗爲兵曹判書朴弘老爲知中樞府事朴震元爲承政院同副承旨李惟弘爲兵曹參知鄭廣成爲弘文館副修撰成晋善爲成均館典籍黃敬中爲成均館典籍金時獻爲襄陽府使黃益中爲三嘉縣監。

宣修 19年(1586) 丙戌 10月 1日(壬戌)
……臣於是盡然傷心抵書于李潑俾於居憂欒棘心無外慕之日深惟遂初之是而再思朋亡之戒。潑有答書曰何不觀於柳襄陽之遠貶乎宇顒時按湖南其往復之書亦以應瑞外注爲咎應瑞者夢鶴之字而時出襄陽。人多以成渾爲嫉善而臣則素知夢鶴之爲不忠也。夢鶴之爲臺官也欲論尹毅中貪邪之狀毅中使謂潑母曰潑也與夢鶴交厚今茲駁議必潑所爲。吾欲先妹下鄉。潑母招潑責之。對案不食、潑往言厥故夢鶴爲停厥議。

宣修 24年(1591) 辛卯 3月 1日(丁酉)
○以金權爲持平以應敎張雲翼爲襄陽府使。時將論左相鄭澈之罪金權不從故遞拜禮郎雲翼等以澈最親故先補外。洪汝諄自湖南入朝謂同輩曰我若入臺當盡掃姦黨。以此得爲憲長。

宣修 24年(1591) 辛卯 閏3月 1日(丙寅)
○襄陽三陟蔚珍等地有蟻蟲蔽海而出圍合如戰。其後京城南部人家又有黑蟻徧布或斷頭或折腰相枕而死。

宣修 24年(1591) 辛卯 5月 1日(乙丑)
○又合啓右贊成尹根壽判中樞洪聖民驪州牧使李海壽襄陽府使張雲翼等黨附鄭澈引進奸邪。請竝削奪官爵門外黜送。從之。

宣修 38年(1605) 乙巳 7月 1日(癸酉)
○朔癸酉/嶺南關東大水。嶺南仁同靈山安東軍威昌原義興龍宮高靈尙州禮安草溪宜寧金海咸安關東淮陽襄陽金城杆城平康洪川楊口鐵原春川橫城寧越旌善平昌麟蹄等被災尤酷。山家崩頹人畜死者不知其數公廨民家漂沒殆盡深山喬木顚拔浮下於漢洛二江皆稱古未有之災云。

光海 1年(1609) 己酉 9月 25日(癸卯)
○江原監司李馨郁馳啓曰杆城郡八月二十五日巳時青天白日四方無一點雲雷聲發作自北向南之際人人仰望則似煙氣兩處微出於碧空。形如日暈撓動移時而止發雷聲有若皮鼓之聲。原州牧八月二十五日巳時白日中紅色如布長流去自南向北天動大作暫時而止。江陵

府八月二十五日巳時白日晴明忽有物在天微有聲形如大壺上尖下大自天中向北方流下如墜地。流下之時其形漸長如三四丈許其色甚赤過去處連有白氣良久乃滅之後仍有天動之聲響振天地。春川府八月二十五日天氣晴明而但東南天間微雲暫發午時有火光狀有大盆起自東南間向北方流行甚長。其疾如矢良久火形漸消、青白煙氣漲生屈曲裊裊久未消散。俄頃如雷鼓之聲、震動天地而止。襄陽府八月二十五日未時品官全文緯家中庭簷下地上忽有圓光炯如盤初若着地而便見屈上一丈許有氣浮空大如一圍長如半匹布東邊則白色中央則青熒西邊則赤色。望之如虹宛轉纏繞狀如捲旗。及上半空渾爲赤色上頭尖而下本截斷。直上天中少北變爲白雲鮮明可愛。而仍似粘着天面飛動觸揷若有生氣者忽又中斷爲二片而一片向東南丈許煙滅一片浮在本處形如布席。少頃雷動數聲終如擂鼓聲自其中出良久乃止。是時天色清明四際無點翳。

光海 2年(1610) 庚戌 2月 2日(戊申)

○庚戌二月初二日戊申外居士民或詣穆陵服大王喪衰絰終喪或在家服衰詣陵釋服守陵官擧而上聞。侍陵官崔彦俊啓襄陽正兵朴善會服喪去二十八日來到延安司僕李成立亦服喪二十九日來到陵所脫喪服。而成立則又前服懿仁王后喪云矣。守陵官狀啓時此人等追到故未得一時狀啓令臣復命日書啓云。故敢此仰達矣。傳曰此人等至爲可嘉各別褒奬。

光海 3年(1611) 辛亥 4月 30日(己亥)

○司憲府啓曰三水郡守蔡謙進爲人悖戾嗜酒失性。到任之後沈酗廢事加以刑杖殘酷積失人心流亡相繼使邊防要害之地日就空虛請命罷職。高原郡守具仁垕到任之後專事剝割加以刑杖過重號令顚倒使稍完之邑日就凋弊如此之人不可一日在官請命罷職。襄陽府使權縉爲人麤猾不念國事。到任之後沈湎度日惟以肥己爲事民不堪命闔境怨恣請命罷職。近日百隷怠官禁直之員不守交替之規相繼闕直殊極無謂。昨日弘文館上番無緣闕宿論思重地屢致曠闕尤爲可駭。請徑出應入之員竝命罷職。答曰玉堂已爲推考不須罷職權縉以下依啓。

光海 4年(1612) 壬子 3月 6日(庚子)

○壬子三月初六日庚子上王出御西廳親鞫罪人。……王曰尹安性事如何大臣曰以其招辭觀之嫌隙人所共知以事言之世受國恩。老而將死之臣與嫌家共爲逆狀似無其理。且賊口所稱江陰聚會之日乃襄陽出官之日云此極是明證也。與丁好恕赴京同也以口不可道之言歸之尹之一家必欲殺之之意也。王曰右相入來亦問之右相亦以襄陽出官與丁好恕赴京同一明證以對。且曰江華人則初似不必捉來而旣來之後濟世之招如彼則卽可放送不須議也。承旨又稟江華罪人事。王曰日暮姑爲仍囚。明日處置。大臣曰只可拘留矣。

光海 4年(1612) 壬子 3月 8日(壬寅)

○備忘記傳曰襄陽府使尹安性方爲拿囚遞差。

光海 4年(1612) 壬子 3月 14日(戊申)

○傳曰尹安性襄陽到任公文該曹有之乎考啓。

光海 6年(1614) 甲寅 7月 7日(丁巳)

……**王曰疑其入胡地乎縉曰何以知之但我國境內無**

蹤迹可尋故云然。而胡地間事不可以知之矣。上年小臣嘗見嶺東麟蹄襄陽等七邑中多有深山可藏之地。而爲道重疊僅得踰越則其內有可居可耕之地故他道人及本邑人或有入居。而及其鹽醬之絶不得聊活然後出來者居多此賊曾以筏商往來于春川猉獜【麒麟】地。臣之愚意或有致疑於此等地矣。王曰更爲下諭。或畿甸楊州間慮有隱伏之理乎縉曰人多遠求而忽於近地近地之隱伏安保其必無乎京畿監司處下諭爲當。

光海 9年(1617) 丁巳 10月 9日(庚子)

○以韓玉黃德符爲吏曹佐郎南以俊爲司成尹聖任爲文學鄭曄爲襄陽府使曺挺立爲奉敎李大燁爲戶曹參議任興後爲兼說書韓昅爲正言朴自凝爲弘文校理

光海 9年(1617) 丁巳 12月 10日(辛丑)

○吏曹啓曰江原監司書狀云云。歙谷縣令李厚根原州牧使申鑑杆城郡守成俊吉金城縣令李阜等善治之狀本道監司俱爲褒啓襄陽府使沈宗道赴任日淺而亦有稱譽之聲宜有勸勉之典。恩命重事自下擅便爲難上裁。啓竝加資。

光海 10年(1618) 戊午 4月 8日(丁酉)

○義禁府請鞫襄陽罪人金胤黃拾得慶運宮兇檄者也乃許筠婢夫云。羅州罪人陳命生作兇書告變者也。竝拿囚。啓。

光海 13年(1621) 辛酉 9月 7日(乙巳)

○追崇都監啓曰今見江原監司所送水精珠稱云五塊招玉工詳問則此非眞水精決不可用此石乃眞水精所產之萌芽此石所在處必有眞水精云。玉工已爲給馬下送此匠處及所產襄陽官窮探期得眞水精刻期上送事江原監司處下諭何如傳曰允。

光海 13年(1621) 辛酉 9月 8日(丙午)

○備邊司啓曰凡邊鎭有必守之地賊來有不顧之處。以宋之於金言之則汴宋時宗望歎曰關險如此南朝使一人守之我安得過此則必守之地如太原張孝純以死固守宗望置之而過直圍汴京此則不顧之處也。以南宋言之呂文德兄弟固守襄陽以胡元兵力不敢越而南此則必守之地也李庭芝苗再成堅守揚眞伯顔置之而過直入臨安此則不顧之處也。今欲處處而守之則處處不固蓋我分而敵專故也。昌義兩城是必守之地苟得爲不可犯之固則虜馬雖强必不敢置重鎭於後而直擣京城也。兵有常山之形陣有鴛鴦之勢又於中路大鎭連亙則賊雖渡江必自死咋。唯先落角距其安能肆然長驅聖慮神算出尋常萬萬臣等不勝仰歎之至。平壤安州已令監司防禦使悉心料理着意繕完。想今已得就緒否。第定州則金景瑞毁城之後時未修築今欲改築則有如臨渴掘井。且其城址欹側不安專無據險之實此兵家所謂不得地利則棄者也。以此凌漢山城自先年已令當事之臣急急修治。定州之距山城纔介數十里餘捲驅定民亦足入保。第未知臨危可辦否也。平壤安州及凌漢山城貯兵峙糧更加申飭使犬羊無侵突之虞貔貅有奮銳之利爲今日第一喫緊方略請撥上馳諭于西路任事諸臣。傳曰依啓。此事太晩今可及乎已失羈縻之策而合氷之期迫近兵火必不遠矣。更速指授。

光海 13年(1621) 辛酉 9月 18日(丙辰)

○辛酉九月十八日丙辰追崇尊崇都監啓曰水精杖所用水精產於襄陽玉匠給馬下送而監司丁好善以前日上

送萌芽之石爲塞責之地委去匠人不令試采脅勒還送。此無他不欲開端採取也。尊崇大禮在人臣所當盡力而丁好善以方面之臣不有大禮廢閣下諭之意極爲無謂請從重推考。都監官員帶玉匠明日內給馬下送採取眞精罔晝夜上來以及定日何如傳曰允。

光海 1年(1609) 己酉 9月 25日(癸卯)

○江原監司李馨郁馳啓曰杆城郡八月二十五日巳時青天白日四方無一點雲雷聲發作自北向南之際人人仰望則似烟氣兩處微出於碧空。形如日暈撓動移時而止發雷聲有若皮鼓之聲。原州牧八月二十五日巳時白日中紅色如布長流去自南向北天動大作暫時而止。陵府八月二十五日巳時白日晴明忽有物在天微有聲形如大壺上尖下大自天中向北方流下如墜地。流下之時其形漸長如三四丈許其色甚赤過去處連有白氣良久乃滅之後仍有天動之聲響振天地。春川府八月二十五日天氣晴明而但東南天間微雲暫蔽午時有火光狀如大盆起自東南間向北方流行甚長其疾如矢良久火形漸消青白烟氣漲生屈曲裊裊久未消散俄頃如雷鼓之聲震動天地而止。襄陽府八月二十五日未時品官全文緯家中庭簷下地上忽有圓光炯如盤初若着地而便見屈上一丈許有氣浮空大如一圍長如半疋布東邊則白色中央則青焕西邊則赤色望之如虹宛轉纏繞狀如捲旗及上半空渾爲赤色上頭尖而下本截斷直上天中少北變爲白雲鮮明可愛。而仍似粘着天面飛動觸揷若有生氣者忽又中斷爲二片而一片向東南丈許烟滅一片浮在本處形如布席。少頃雷動數聲終如擂鼓聲自其中出良久乃止。

光海 4年(1612) 壬子 3月 6日(庚子)

……王曰尹安性事如何以其招辭觀之嫌隙人所共知以事言之世受國恩。老而將死之臣與嫌家共爲逆狀似無其理。且賊口所稱江陰聚會之日乃襄陽出官之日此極是明證也。與丁好恕赴京同也以口不可道之言歸之尹之一家必欲殺之之意也。且曰江華人則初似不必捉來而旣來之後濟世之招如彼則卽可放送不須議也。承旨又稟江華罪人事王曰日暮姑爲仍囚。明日處置。大臣曰只可拘留矣。

光海 4年(1612) 壬子 3月 8日(壬寅)

○傳曰襄陽府使尹安性方爲拿囚遞差。

光海 4年(1612) 壬子 3月 14日(戊申)

王曰疑其入胡地乎縉曰何以知之但我國境內無蹤迹可尋故云然。而胡地間事不可以知之矣。上年小臣嘗見嶺東麟蹄襄陽等七邑中多有深山可藏之地。而鳥道重疊僅得踰越則其內有可居可耕之地故他道人及本邑人或有入居。而及其鹽醬之絶不得聊活然後出來者居多。此賊曾以筏商往來于春川麟蹄地。臣之愚意或有致疑於此等地矣。王曰更爲下諭。或畿甸楊州間慮有隱伏之理乎縉曰人多遠求而忽於近地近地之隱伏安保其必無乎京畿監司處下諭爲當。

光海 9年(1616) 丙辰 10月 9日(庚子)

○吏曹啓曰江原監司書狀云云。歙谷縣令李厚根原州牧使申鑑杆城郡守成俊吉金城縣令李阜等善治之狀本道監司俱爲褒啓襄陽府使沈宗道赴任日淺而亦有稱譽之聲宜有勸勉之典。恩命重事自下擅使爲難上裁。啓竝加資。

光海 10年(1618) 戊午 4月 8日(丁酉)

○義禁府請鞫襄陽罪人金胤黃拾得慶運宮兇檄者也

乃許筠婢夫云羅州罪人陳命生。作兇書告變者也。竝拿囚。

光海 13年(1621) 辛酉 9月 8日(丙午)

○丙午/備邊司啓曰……

凡邊鎭有必守之地賊來有不顧之處。以宋之於金言之則汴宋時宗望歎曰關險如此南朝使一人守之我安得過此則必守之地如太原張孝純以死固守宗望置之而過直圍汴京此則不顧之處也。以南宋言之呂文德兄弟固守襄陽以胡元兵力不敢越而南此則必守之地也……傳曰依啓。此事太晩今可及乎。已失羈縻之策而合氷之期迫近兵火必不遠矣。更速指授。

仁祖 1年(1623) 癸亥 9月 24日(辛亥)

○諸道參考官光州牧使鄭雲湖順天府使李尙俊任實縣監金寧興陽縣監朴鼎元鐵原府使李埈銀溪察訪金尙襄陽府使李好義高城郡守鄭彦宏鳳山郡守洪得一金郊察訪安璥等皆罷職。

仁祖 2年(1624) 甲子 8月 13日(乙未)

○憲府啓曰臣等卽接襄陽府牒呈檢岾寺僧人稱以防納其人之價謀占本府屬公之物圖出新本宮印文牌字二張恐嚇官吏云。臣等取考該曹文簿則所謂寺僧防納者的是虛僞。防納牟利之徒漁奪生民誠爲向來痼弊況以山僧夤緣宮家胥吏造作騙巧作弊外方殊極可駭。欲爲盤問不肯就捕此而不治法府威令無以得行殊無宮府一體之義。請新本宮掌務稼奴等令攸司囚禁嚴治後査出印文成給之吏依法科罪以杜後弊。工曹郎官移關外方督捧僧人防納之價。防納之禁國法甚嚴山僧防納尤極可駭而身爲該官非徒不能禁斷反爲成給公文當該郎廳請命罷職。答曰新本宮事宜體予意更加諒察勿爲率易論之。工曹當該郎廳推考。再啓從之。本宮下人逾月固爭而不從。

仁祖 6年(1628) 戊辰 9月 17日(甲戌)

○甲戌/禮曹參議鄭百昌改修太祖康獻大王影幀還安于集慶殿而來上引見問曰破汚處幾許畫工能善着采乎百昌對曰倭亂時有雨漏破汚處。且崔光遠爲參奉時致令屋漏霑濕不敬甚矣。當被大罪。上曰本道何不以聞乎對曰守令報于監司而監司趙存性不卽啓聞云矣。畫工李澄頗善着采且改設錦褥修理殿宇。奉安之後臣卽奉審則御容班白仰之肅然不敢近前。國初畫師可謂神妙。上曰恐或失眞今聞爾言誠幸也。因問曰本道農事何如對曰嶺東稍稔而嶺西不如嶺東矣。且守令不可不擇。江陵素稱名府而前府使鄭雲湖妾子悖戾畜怨於人累百年傑搆灰於一炬。襄陽前府使趙緯韓六年在官無粒粟之遺儲其不治可知。上曰此外時任守令之治否如何對曰臣之奉命初非察守令賢否故未之知也。上曰江陵物衆地大云其果然乎對曰南門之外圮於乙巳之水東門之外閭閻櫛比而士子最多。今中別試初試者八人云矣。上曰有何民瘼耶對曰此亦非臣之任故未有所聞矣。

仁祖 10年(1632) 壬申 8月 27日(壬辰)

○江原道襄陽等邑大水。道臣以淹死者啓聞令本道擧行恤典。

仁祖 11年(1633) 癸酉 8月 22日(辛巳)

○辛巳/江原道襄陽等邑大風大水本道以聞。

仁祖 13年(1635) 乙亥 8月 15日(壬辰)
○壬辰/佶億健等自濟州移配蔚珍。上諭所經諸道監司曰各邑若不護恤則必有中路狼狽之患佶等及一家之人竝給馬護送。其後以本縣殘薄難繼其廩食命移于襄陽。

仁祖 15年(1637) 丁丑 3月 2日(辛丑)
○辛丑/備局啓曰咸鏡江原兩道賑救之事無他善策宜以嶺南官穀及御史所募之粟船運于嶺東襄陽杆城等地以爲分賑之地而但如無主管之人則雖欲號令諸道勢亦不易。別擇解事者稱以賑恤御史以便接濟爲當。答曰依啓。下送京官不無弊端令募粟御史兼管擧行。

仁祖 16年(1638) 戊寅 5月 24日(丙戌)
○丙戌/江原道通川雨雹杆城襄陽蝗。

仁祖 16年(1638) 戊寅 10月 5日(甲午)
○甲午/夜有電光江原道襄陽狂風大作飛沙走石。橫城大雨雹。

仁祖 25年(1647) 丁亥 4月 18日(己丑)
○己丑/江原道襄陽大風晝晦。

仁祖 25年(1647) 丁亥 9月 22日(己未)
○己未/江原道嶺東杆城襄陽江陵等邑大水大風連日不止禾穀若斬刈者。監司以聞。

仁祖 26年(1648) 戊子 8月 14日(丙午)
○襄陽儒生李賢一以赴擧入京其奴有投屬於內需司者內司執賢一杖而囚之。襄陽儒生黃夢禎等上疏言賢一被囚受杖乞釋之使得赴擧而不敢備陳其奴投屬之狀政院以其疏語無倫却之。

孝宗 2年(1651) 辛卯 8月 17日(壬戌)
○壬戌/交河縣監金光燦襄陽府使鄭基豐咸平縣監李惟碩石城縣監李惇臨松禾縣監林大樾辭朝面諭以遣之。

孝宗 4年(1653) 癸巳 閏7月 23日(丙辰)
○丙辰/江原道襄陽等邑大風拔木海魚多死浮出海岸。

孝宗 6年(1655) 乙未 3月 3日(戊子)
○戊子/江原道江陵襄陽三陟海水三日合氷道臣以聞。

孝宗 8年(1657) 丁酉 4月 8日(庚辰)
○江原監司趙壽益馳啓曰祇受聖旨有料理蠲減之敎而恤民之意懇惻如此孰不感泣本道凡干民役皆入於大同十六斗之中此外似無大段可減之役。各邑或無牒報或於恒定應役之外事係民怨者則亦有論報之官。請令該曹及各其司稟旨處置。戶曹回啓曰宣諭聖旨之餘有此陳弊之啓凡係病民之政所當採施變通。江陵襄陽兩官逋欠各穀積年流來已久。丁丑以後未收守令旣已推勘杖配。流亡絶戶雖不得全除許令半除以示恤民之意。金城金化、陽等邑刷馬雇價之弊實如所陳亦當有變通之擧而田稅米豆雖少乃是惟正之供不當減給。以大同收米應納中量宜蠲減令該廳稟處。三陟高城通川歙谷等四邑失稔飢饉與嶺東列邑無異而獨未蒙蠲役之惠大同十斗米其數有限雖不得皆減田三稅貿布依啓聞特許退徵於秋成以施窮民一分之惠。從之。宣惠廳回啓曰金城金化淮陽等三邑乃是孔道殘邑去年因道臣所

報許減乙未丙申之役而淮陽獨未蒙減請一體施行。從之。

顯宗 卽位年(1659) 己亥 8月 27日(乙卯)

○江原道襄陽府地大雨山崩壓死七人。上令本道擧恤典。

顯宗 1年(1660) 庚子 1月 18日(甲戌)

○江原監司朴長遠馳啓襄陽等五邑阻飢尤甚請令廟堂指揮救活。備局請以嶺南海邊寧海等邑元穀二千餘石。縣次船運以賑之。

顯宗 4年(1663) 癸卯 11月 27日(辛卯)

辛卯/上引見大臣備局諸臣。領議政鄭太和曰……上唯唯。兵曹判書金佐明曰嶺東被災中江陵襄陽爲甚兩邑騎兵今當番次衣裝單薄凍死甚可慮。宜減番一朔而其代以用餘軍布雇立似便。上從之。……

顯宗 7年(1666) 丙午 3月 18日(戊戌)

○戊戌/狂風大作三陟民家二百五十戶江陵民家一百二十七戶襄陽民家三十八戶失火燒盡。

顯宗 10年(1669) 己酉 1月 16日(庚戌)

○以原襄監司鄭崨狀啓罷本道東萊例納鷹連以價直送戶曹又罷麟蹄楊口兩邑都監屯田諸般身役指徵無處者査出蕩減。嶺東蔚珍平海江陵襄陽等七邑限秋成停西北民刷還以被災特甚也。

顯改 卽位年(1659) 己亥 8月 19日(丁未)

○丁未/江原道杆城大雨連日。人家頹壓死者數人襄陽則因雨山崩壓死者七人道臣前後啓聞上命擧恤典

顯改 1年(1660) 庚子 1月 18日(甲戌)

○江原監司朴長遠馳啓襄陽等五邑阻飢尤甚。請令廟堂指揮救活。備局請以嶺南海邊寧海等邑元穀二千餘石縣次船運以賑之。

顯改 1年(1660) 庚子 2月 24日(己酉)

○江原監司朴長遠各邑饑民條列啓本襄陽死亡者二十一名杆城死亡者二十三名。又狀啓三陟山火延及民家赤身脫出者一百六十餘名燒死者五名。政院啓曰曾因饑民賑救事自上特下一名餓死繩以重律之敎。觀此狀啓兩邑死亡者至於四十四名誠可寒心。若於初頭重施罪責則或不無將來執不以實之弊。請監司及兩邑守令竝從重推考。上從之。仍敎曰此後如踵前習則拿問處置之意嚴明分付。

顯改 10年(1669) 己酉 1月 16日(庚戌)

○以原襄監司鄭崨狀啓罷本道東萊例納鷹連以價直送于戶曹又罷麟蹄楊口兩邑都監屯田諸般身役指徵無處者査出蕩減。嶺東蔚珍平海江陵襄陽等七邑限秋成停西北民刷還以被災特甚也。

肅宗 4年(1678) 戊午 5月 29日(戊辰)

○戊辰/春川江陵平昌三陟襄陽等邑地震。

肅宗 7年(1681) 辛酉 5月 11日(癸亥)

○癸亥/江原道地震聲如雷墻壁頹圮屋瓦飄落。襄陽海水震蕩聲如沸。雪岳山神興寺及繼祖窟巨巖俱崩頹。三陟府西頭陀山層巖自古稱以動石者盡崩。府東凌波臺水中十餘丈石中折海水若潮退之狀。平日水

滿處露出百餘步或五六十步。平昌旌善亦有山岳掀動巖石墜落之變。是後江陵襄陽三陟蔚珍平海旌善等邑地動殆十餘次。是時八道皆地震。

肅宗 7年(1681) 辛酉 5月 22日(甲戌)
○御晝講。知經筵李敏叙曰自辛丑以後常多旱災至辛亥而極矣。辛亥後十餘年一未豐熟今年又如此。朝廷非不軫念民隱而時勢所拘謬規難擺民弊無以革祛。暴斂不除民怨不已。滯獄之弊外方尤甚罪名稍重則官吏不卽處決或至數十年。宜申飭京外俾革此弊矣。……承旨李寅煥曰臣曾任襄陽見之進上一駄人情爲五六駄胥吏爲弊至此矣。上曰聞極敬駭。各別嚴飭。……

肅宗 7年(1681) 辛酉 11月 11日(庚申)
○庚申/江原道江陵三陟蔚珍平海襄陽等地連日地震。

肅宗 22年(1696) 丙子 8月 29日(壬子)
○東萊人安龍福興海人劉日夫寧海人劉奉石平山浦人李仁成樂安人金成吉順天僧雷憲勝淡連習靈律丹責延安人金順立等乘船往鬱陵島轉入日本國伯耆州與倭人相訟後還到襄陽縣界江原監司沈枰捉囚其人等馳啓下備邊司

肅宗 23年(1697) 丁丑 1月 10日(壬戌)
……鞫廳更請裴箕疇面質。裴言七度文書渠自書寒溪道士之說聞於襄陽人宋時釬。及更推裴還諱之被刑十次而斃。時釬以自做妖言承款處斬。箕疇錫鞫廳請對請取服勘斷亦杖斃。榮昌援引申鍵拿來亦自明其餘諸人皆譏捕而無其人鞫廳請更問。榮昌變辭言……

肅宗 23年(1697) 丁丑 8月 4日(辛亥)
○襄陽府使金演江陵府使李喜茂上疏極陳兩邑被災之狀請趁明春移粟盡減賦稅上令廟堂稟處。備邊司請姑觀諸道狀聞而稟處允之。

肅宗 24年(1698) 戊寅 7月 19日(辛卯)
○辛卯/工曹參判吳道一上疏辭職仍陳所懷曰……今乃只擧私餽一款脅持臺臣不遺餘力合啓末段乃曰勿論其始終公私有乖於人臣奉使之體則大矣。此措語果近於張湯之劾奏莊助事耶徒知阿好大臣不知君臣之大義今日義理可謂晦塞也。卿辭如此本兼諸任竝許遞焉。仍命補襄陽府使

肅宗 30年(1704) 甲申 8月 12日(己卯)
○己卯/江陵襄陽庇仁藍浦等邑地震兩道道臣以聞。

肅宗 33年(1707) 丁亥 3月 12日(乙丑)
○乙丑/校理吳命峻上疏請置關東兵使於春川使之兼管嶺東西兵馬襄陽通川淮陽爲文武交差之窠別置烽燧於沿邊各邑以爲瞭[瞭]望斥候之地事下廟堂。

肅宗 34年(1708) 戊子 閏3月 24日(辛丑)
○辛丑/發遣暗行御史兪命凝往黃海道沈壽賢往江原道。命凝貶豐川府使安斗齡海州判官韓世箕平山府使趙泰謙金川郡守李大根褒白川郡守鄭覺先新溪縣令趙鳴鳳壽賢貶通川郡守李挺英鐵原府使李元命襄陽府使成碩夔淮陽府使南宅夏褒寧越府使朴重圭蔚珍縣令金世衡狼川縣監金晛平昌郡守李瀅歙谷縣令申厚軾。

肅宗 35年(1709) 己丑 9月 19日(丙戌)

○丙戌/命前應敎李肇襄陽府使李海朝前修撰任守幹北評事李緈南平縣監林象德司書洪萬遇賜暇湖堂。大提學姜鋧同吏曹抄選。

肅宗 36年(1710) 庚寅 4月 23日(戊午)
○戊午/江原道杆城通川襄陽高城等四邑同日大火延燒人家至六百十八戶人物牛馬多燒斃。上命其中全家被燒之戶竝蠲今年田稅大同各樣身布。

肅宗 39年(1713) 癸巳 閏5月 2日(戊申)
○江原道襄陽橫城等地霜雹。

肅宗 40年(1714) 甲午 2月 1日(癸酉)
○朔癸酉/江原道暗行御史趙錫命入來啓褒襄陽府使沈壽賢伊川府使申弼賢黜平海郡守李復休等。

肅宗 45年(1719) 己亥 5月 5日(丁丑)
○諫院申前達。又言石城縣監柳綏曾於其季父應運生時應運以親命將取其弟綏爲後則綏乃慫慂偏母費辭粧撰呈文禮官之家以其祖母遺命反謂之假托欲歸其季父於誣親之科。是可忍也孰不可忍也請削去仕版。襄陽府使宋宅相賦性昏劣行已鄙汚百億化身惟利是趨家有悍婦日事妬吼黷貨之狀言之汚口。請削奪官爵。世子不從。

肅宗 45年(1719) 己亥 5月 12日(甲申)
○甲申/諫院申前達。又言襄陽府使李太元全不曉事凡所爲政一聽於二三奸吏簽丁則視賂多少以爲操縱聽訟則受人嗾囑裁斷乖謬。請拿問定罪。世子只從譯官及宋宅相事。

英祖 卽位年(1724) 甲辰 11月 20日(庚申)
○領議政李光佐奏曰實錄堂上只有李肇一人而年老眼暗公務叢沓何能精撰乎杆城郡守李德壽文學可合實錄之任卽今朝臣無出德壽之右者。尹淳文識精雅四六甚佳。朝議皆以爲史事當專屬此兩人而實錄堂上之自堂下直爲陞拜乃是別擧措前例所無也。尹淳適陞資故啓下德壽尙在堂下右相欲依故相臣李荇薦陞蘇世讓之例直爲陳達而未果矣。右議政趙泰億曰蘇世讓以洪州牧使被故相之薦爲通政爲嘉善爲大提學。大臣以人事君領相之言好矣。上曰超擢人或爲議而實錄事重李德壽爲僉中樞。泰億又言襄陽府使蔡彭胤之文詞曰彭胤在韋布時以疏色參於誣辱先正臣李珥成渾之疏。公議至嚴故湖堂三十年尙未得邊倅堂上蓋以未經準職故也。上曰斯文事甚重不可以亞長淸職召之。銓曹以未經準職爲拘則予當量而爲之矣。是日擢彭胤爲同副承旨。

英祖 1年(1725) 乙巳 1月 14日(癸丑)
○以洪好人權忭尹錫來爲承旨金在魯爲大司諫權益淳爲襄陽府使。

英祖 1年(1725) 乙巳 2月 4日(壬申)
○春川府使崔宗周襄陽府使朴乃貞辭朝上引見勉飭而送之。

英祖 8年(1732) 壬子 5月 21日(丁丑)
○持平鄭熙普上疏略曰肅廟者社之慶實千古之盛休顧今一二宰臣之年甲適符先朝或以銀臺之列得預當日之宴宜施優異之禮。近來鄕民夤緣京中吏胥圖占錄事唱準每當軍丁歲抄持帖文求免。請飭各衙門只存舊額

勿許新差。湖南前伯之責軍丁補賑資必有管下諸倅之劃策。請令指某現告一體課罪。又言牙山前縣監李泰鎭恬雅自持而被錮殆過十年。昌平前郡守崔昌億未聞疵政而忽被御史之論。襄陽前府使權孚恰有廉聲而遽陷贓汚之科。關東前道臣柳復明淸簡律己而一入臺僇辱未洗。請俯燭而垂恕。故諫官卞爾昌無子以姪廷老爲嗣而族孫國臣欲占爾昌之財産驅逐廷老自主其祀。請令該曹査實嚴治。金堤罪人拿致京獄幾月滯囚。請趁速究勘。上優批從之 惟三守令事以語涉干請不允。

英祖 13年(1737) 丁巳 4月 20日(戊寅)
○江春道襄陽下霜傷麥。岳山積雪如冬草樹皆凍死

英祖 17年(1741) 辛酉 2月 5日(庚子)
○襄陽文官崔逵泰以靑玉圭送於右議政趙顯命曰此乃殷制也非周制。必是箕子舊物而得之於壬辰亂江陵留陣之地。顯命白其言上取覽而奇之。長五寸許色靑黑命置政院。後於講筵以逵泰所進圭制問於承旨趙明履明履對曰其爲箕子圭未可知也。圭制見於書傳及周禮蓋桓圭長九寸信圭躬圭長七寸而其博皆三寸厚皆半寸上左右剡皆半寸云。今以古圖禮器尺及戶曹禮器尺度其圭長則果是七寸而博則不滿二寸厚與剡俱稍異古制矣上曰予亦以爲東方某國之圭而未必眞爲箕子圭也。令尙方依古制以靑玉造諸侯及世子之圭尺用周尺長九寸廣三寸厚五分色靑。蓋倣永樂欽賜之圭制也。

英祖 17年(1741) 辛酉 10月 4日(乙未)
○以尹心衡爲兼弼善。衡高潔有節行以朝廷義理未伸凡十五年屛居不仕。及除襄陽府使又不赴曰外官內職之漸也。陞東萊府使又不就。

英祖 20年(1744) 甲子 11月 27日(庚子)
○正言柳謇上疏略曰宣川府使李昌壽狼愎貪淫請削版。襄陽府使姜一珪被駁苟蹲東部奉事李聖興矇不曉事濟用奉事李觀聖利財劫孀漢城參軍李復齡聽斷不公禧陵直長鄭衡周侵虐陵卒請竝刊汰。內乘韓尙訥狂悖無倫請命汰去。批曰依施李聖興以下風聞無或過耶其宜詳察。

英祖 34年(1758) 戊寅 9月 4日(丁亥)
○丁亥/因宣惠廳草記關東蔘結役之最重處及烟戶錢之入於詳定者量減後其代自京廳區劃事旣已定奪矣。江陵三陟旌善蔚珍四邑或稱蔘結或稱烟戶臨時分徵以充其元定之數窮民之難支國體之有損莫甚於此。而今於減結之際有難一二裁定就道臣所請之數十分商量。江陵減錢一千八十七兩零三陟減錢九百七十三兩零旌善減錢三百九十八兩零蔚珍減錢三百九十三兩零等計結戶而分排減給。至於詳定則襄陽每結減錢四錢零杆城每結減錢五錢租三斗零歙谷每結減錢六錢其餘邑直之。烟戶錢則平昌七百十六兩零狼川四百三十三兩零麟蹄五百九十兩零金城二百六十七兩零安峽一百四十三兩零全減都合減錢爲五千六百兩零租一百四十七石零。今秋爲始依此施行。杆城郡雜役條之從前稱烟戶者不可混減依他邑例改以柴炭價爲名仍前捧用各邑給代則本道無他上納相換之道以均廳上納錢仍留充給後其代自京廳計數移報而成節目。

英祖 39年(1763) 癸未 2月 24日(壬子)
○壬子/竄前北兵使李邦佐于襄陽府禁錮十年。因御史洪述海所啓拿問邦佐邦佐不服及施威嚴問乃自首

左議政洪鳳漢奏曰邦佐素有廉名所坐有難知其眞僞。上然之用輕律。

正祖 2年(1778) 戊戌 12月 23日(己卯)

○召見承旨柳義養。上曰爾纔自江陵遞來江陵有何弊端乎對曰種種弊瘼不敢煩達矣上曰陳田免稅果有效乎對曰東邑之民咸曰此八道之所未有前古之所罕聞者也。莫不鼓舞攢祝其爲效推此可知矣上曰可以永久無後慮否對曰旣已特蠲。從今以後庶無可慮矣。上曰漂倭之必泊於江陵三陟者何也對曰嶺東九郡無非沿海。而倭船之泊不於襄蔚等地而必泊於江陟兩界者似是水勢之有所使然而然也。上曰三陟只有一營將。其外則無他防守。……

正祖 3年(1779) 己亥 5月 29日(壬子)

○壬子/京畿關東嶺南關北關西湖西設賑。自正月始設賑至是畢賑。京畿驪州利川竹山安城陰竹等邑摠饑民三萬九千三百六十四口賑穀三千一百六石江原道寧越江陵襄陽伊川淮陽三陟旌善杆城平昌高城蔚珍金城潢城平康洪川等邑摠饑民一萬八百四十七口賑穀六千五百四十八石……

正祖 6年(1782) 壬寅 5月 10日(丙午)

○旌烈女襄陽民金允恒妻李女孝子淮陽民李茂業閭禮曹覆奏關東御史李夔別單。

正祖 6年(1782) 壬寅 11月 20日(癸丑)

○癸丑/親鞫文仁邦等諸罪人。仁邦供曰所得妖術之冊一則乘門衍義一則經驗錄一則神鞜經一則金龜書而淸溪先生卽德相也。天湜與臣同習此書轉往陽城鎭川等地搆草幕以居。亂離等說看星等事果如瑞集之供而襄陽居李京來是異人故欲爲都元帥。都昌國爲先鋒將瑞集爲運糧官因臣師德相之被配稱以大先生與金勛等八人至有屠掠城邑直犯京城之謀矣。……

正祖 7年(1783) 癸卯 10月 29日(丁亥)

○備邊司進諸道御史賚去事目。先是上命廟堂抄啓御史可合人。且以御極以後御史賚去條件尙不一經添刪命各道句管堂上撰事目至是撰進。……

一昨年懲創之後江襄原橫之間人心俗習更無訛誤之慮果有丕變之效否別加探隨聞以。一諸道鄕戰實是通患而本道亦或有此弊。隨其摘發嚴治禁戢土豪之武斷鄕曲猾吏之侵虐殘民者重繩懲後。一搜訪人才所以無遠遯旌褒孝烈所以樹風聲另加採探論列以啓。……

正祖 7年(1783) 癸卯 11月 10日(丁酉)

○原春道暗行御史趙弘鎭復命進書啓。先是命弘鎭廉察關東賜封書曰……

爾爲原春道襄陽三陟江陵高城通川杆城歙谷蔚珍平海等九郡暗行御史爾須另體至意克殫乃心周視原野細察農形潛行村閭詳探民情若於道塗之間逢着流亡之類卽城出道宣布朝家拯救之意面面慰譬俾各奠厥攸居無或有一夫一婦顚連之患。凡係道臣守宰之治績能否亦須竝行按廉無敢少有諱避如其最不法者先封庫後論啓。……

正祖 8年(1784) 甲辰 5月 11日(乙丑)

○乙丑/關東設賑。自正月始設至是畢賑。公賑江陵襄陽杆城高城通川歙谷三陟蔚珍平海旌善平昌淮陽麟蹄楊口狼川寧越等邑總飢民二萬四千七百七十七口

賑穀二萬一千七百三十五石零。私賑春川原州平康等邑總飢民七百二十五口賑穀六百五十四石零。原春道臣上畢賑啓。襄陽縣監具世勳右職調用大川府使李得臣原州判官趙光逵上弦弓賜給。平康縣監朴禮源賜兒馬一匹。私賑人及願納人等施賞有差。

正祖 9年(1785) 乙巳 3月 23日(壬申)

○壬申/密諭諸道監司兵使曰……嶺東則本道跟捕雖不如三南關西而通杆之間想致騷擾如有各邑發捕之擧、卽爲撤捕。況本道初無未及捉得者尤不宜一向戒嚴必專意安集曉諭。向年襄陽之獄亦出於本道鄕外無賴輩常往來便一逋藪。此一款不可不令營將邑倅知也卿其知悉着意擧行。……

正祖 9年(1785) 乙巳 6月 21日(戊戌)

○原春道觀察使徐鼎修狀啓言國初襄陽洛山寺有生梨甘藿之納於明禮宮而梨樹藿田今無所存遠貿充納緇徒莫能支吾。請蠲減。從之。又啓言選武勸別馬兵等都試沒技人直赴殿試各道通然而獨於本道都試賞典只擧優等不及沒技許多武士輒願一聞於朝。若依他道例特許沒技人直赴殿試則可爲激勸之方。事係科規令該曹稟處。命依他道例施行。

正祖 14年(1790) 庚戌 4月 10日(庚申)

○配姜演于海南縣。原春道觀察使尹師國狀啓言本道卜定黃腸板敬差官旣已準數監封所封各邑姑無濫斫而淮陽府加斫四十三板埋置山谷。封山事體何等至重特敎申飭何等截嚴而身爲守令恣意濫斫淮陽前府使姜岦襄陽前府使洪九瑞罪狀令攸司稟處。敎曰名以守宰黃腸偸斫前所未聞。……

正祖 16年(1792) 壬子 1月 2日(壬申)

○復襄陽定平都護府號以兩邑降號限滿也。

正祖 16年(1792) 壬子 4月 24日(壬戌)

○壬戌/杆城民家一百六十一戶襄陽民家五十四戶高城民家二十八戶失火被燒。命新舊糴及雜役身布山稅海稅竝蠲減一年以兵曹正郎洪大協爲慰諭御史使便宜措處結搆就緖後還朝。

正祖 16年(1792) 壬子 5月 27日(甲子)

○甲子/先是江原道御史洪大協以本道列邑弊瘼條陳書啓事下本道。道臣尹師國啓言……而外此洪川襄陽之四當金城之三當江陵之二當願以合一當八月上納。……命大協就議廟堂廟堂悉稱便竝從之。

正祖 17年(1793 癸丑 4月 9日(辛未)

○辛未/御春塘臺試關東功令儒生製述賜生員申在和等四人及第。先是壬子六月上臨政飭銓官收用關東人銓曹言……其次襄陽進士崔昌迪是也。況是故正言達泰之子觀於所對易義益驗所知之有自。童蒙敎官擬入。年亦老能欲登途與兩儒皆給鋪馬其餘儒生令道臣優給紙筆墨。仍命內閣取前後傳敎奏啓榜眼魁券而敍次之節略經義條對附之條問之下下送關東營鋟印以進命曰關東實興錄分賜入格諸生藏其板于原州牧宮。

正祖 18年(1794)甲寅 12月 22日(乙亥)

○以李晴爲弘文館副修撰吳翼煥爲司憲府執義李益洙李心傳爲司憲府掌令李寅采朴蓍壽爲司憲府持平金

若鍊爲司諫院獻納尹永僖爲司諫院正言李謙彬爲襄陽府使竝中批疏通也。

正祖 20年(1796) 丙辰 4月 17日(壬辰)

○關東道臣以奉朝賀金鍾秀行程啓敎曰『聞卿踰大關嶺登鏡浦臺歷烏竹軒訪松潭書院將向襄陽云。在途加飡遍踏勝區能快滌塵垢之思乎令內閣下諭于金剛山下金奉朝賀行中。

正祖 22年(1798) 戊午 11月 26日(乙酉)

○江原道觀察使洪仁浩狀啓言……

襄陽則節目外加斂之數合爲五百十八兩而一夫一年所當爲二十二兩云。……

正祖 22年(1798) 戊午 12月 1日(庚寅)

○江原道觀察使洪仁浩狀啓言……

襄陽則節目外加斂之數合爲五百十八兩而一夫一年所當爲二十二兩云。……

閱此狀未半可謂紀綱無餘地。有國而無紀綱未之聞也辛亥以後有此犯科之說旣登聞。其間營邑之臣合置何律爲可卿等看詳竝與捄弊之方可勘之律拔例論列以聞

正祖 24年(1800) 庚申 4月 7日(己丑)

○己丑/江原道三陟杆城等暗行御史權晙狀啓言臣入杆城境直抵古栢津火燒處探問事勢審視形止則延燒六十九家而恤典分給米爲二十九石零。燒戶所食還穀時値臘月已封庫故出給之數各穀爲一百五十九石零營邑亦皆有助給。以今所見聚落旣成皆已奠接。其中或有農糧難辦而自願受還者故以附近倉穀留庫條分給。而自古栢津轉尋境內村閭詳細訪問則蓋自癸甲以後朝家存恤之澤偏及於本邑。貢蔘之蠲除陳結之減免砲保之給代流民之限十年勿侵雜役皆是邑民再生之秋而去今十六年之間瘡痍幾盡甦醒流寓亦旣安集比之他邑還爲無弊。外此潛跡時所聞見開錄于左。一本郡古栢津燒戶中有帶軍保者身布旣皆蠲免則三陟燒戶亦有案付軍與內奴驛奴合五名其在一視之義竝爲蠲役恐合事宜。一 三陟後坪窟村居幼學金采仁姪女幼失父母年至二十七而未嫁隣居鄭完守以私賤贖良者欲娶之爲妻而地不相適不敢生意誘同里小兒買給錫指環於金女號於衆曰某女當歸于我。我嘗買給指環。女聞其言仍卽絞死采仁惡其醜名遂爲掩置。後入官家廉問捧招各人至有報營之擧營題亦已白其心而但完守則杖而釋之。不可不一番更査得其直情然後完守則照以誣人之律使冤死之魂得以暴其本情。一 杆城海尺十一船格軍七十七人昨年正月十一日捉魚入海猝遇急風一時漂沒而以屍身拯得前生死未分不得狀聞恤典亦不得題給云。而時値正月寒威太酷惡風大發則其爲淹死丁寧無疑。以臣所聞見言之孤兒寡婦呑聲掩泣有不忍見。分付道臣設祭海上以慰啾啾之魂特蠲船稅俾無白徵之冤。一 襄陽洛山津有東海神廟享禮在於國典則其爲所重如何而近年以來爲祭官者全欠致敬牲豆不潔往來商旅輒事祈禱便成淫祠重以前洪川縣監崔昌迪家在於神廟至近之地鷄犬糞穢雜遝於其間村里烟火繚繞於逼側。神人狎處殊非敬遠之義。近來風濤險惡人物間多淹沒魚産亦甚絶貴沿海人言皆云職此之由。語涉傳會不足爲經其在敬神明重祀典之道不可仍置。分付道臣重新其廟使之潔淨享祀之具亦必申飭凡係淫禱一切禁斷廟前人家亟命撤去。

純祖 4年(1804) 甲子 3月 12日(辛丑)
○江原監司申獻朝以本月初三日獰風大作山火延熾自三陟江陵襄陽杆城高城至于通川沿海六邑被燒民家二千六百餘戶院宇三處寺刹六處倉舍一處各穀六百石零船十二隻鹽盆二十七坐燒死六十一人鱗次馳啓。上大加驚惻命別加蠲恤。以校理洪奭周差慰諭御史召見遣之。

純祖 5年(1805) 乙丑 2月 14日(戊辰)
○敎曰因山前後祭需當爲分定於諸道而其中關西之許多被災沁都之大水海西延白之荐歉關東襄杆等火餘七邑則特爲勿論其代自該曹從長區劃。

純祖 7年(1807) 丁卯 4月 25日(丁酉)
○丁酉/次對。左議政李時秀啓言江陵府使李儒慶疏陳蔘弊令廟堂稟處矣。本府貢蔘元數春秋臘三等爲一百十六兩零己卯特減春等移作京貿今之所納爲五十五兩一錢及軍加蔘三兩零……又啓言江陵貢蔘臣以移作京貢仰奏矣今伏奉特減之命德意所及江民有其蘇之望矣。在前襄陽杆城等邑貢蔘蠲減時詳定元價儲留惠廳以備藥院不時之用今亦依此例三分一蠲減詳定元價令本道每年準數上納于惠廳自惠廳儲留。從之。

純祖 16年(1816) 丙子 1月 1日(辛巳)
○辛巳朔/江原監司南履翼啓言前月初十日十一日之風雪襄陽杆城江陵三陟蔚珍五邑公私船破傷漂失爲二百五十四隻民家漂頹亦多而人物壓死爲四十名。云命別施恤典。

純祖 16年(1816) 丙子 8月 5日(辛巳)
○辛巳/江原監司南履翼狀啓以爲去二十三日風雨江陵漂頹戶三百六淹壓死人二十二襄陽漂頹戶九十九淹壓死人十五三陟漂頹戶二百二十淹壓死人三十四蔚珍等邑漂頹戶八十九淹死人二。

純祖 17年(1817) 丁丑 7月 23日(乙丑)
○江原監司南履翼疏陳襄陽府貢蔘之弊仍請折半作京貢賜批許之。

純祖 22年(1822) 壬午 3月 11日(丙辰)
○禮曹以各式年京外忠孝烈狀報政府分等抄啓。忠臣旌閭秩……
襄陽故士人鄭用觀妻申氏……

純祖 30年(1830) 庚寅 11月 4日(戊午)
○命施襄陽府民家被燒一百四戶別恤典。

純祖 大王 行狀
……丁丑二月甲子詣太廟景慕宮行世子謁廟禮。三月甲寅行世子入學禮。命蠲襄陽貢蔘……

憲宗 8年(1842) 壬寅 8月 13日(己丑)
○己丑/召見江原道暗行御史李埻于熙政堂。罪杆城郡守鄭龜容平昌都守李灌夏州判官金鎭華金化縣監洪準謨襄陽府使任序常江陵前府使柳榮河襄陽前府使尹秀寅通川前郡守任序常伊川前府使李顯英旌善郡守李章培原州前前判官林逈鎭歙谷前前縣令朱榮達洪川前縣監金啓泳鐵原府使李民植狼川縣監李埏寧越府使宋應龍平康縣監洪配厚安峽縣監閔璜世等有差因御史書啓也。

哲宗 卽位年(1849) 己酉 7月 23日(戊午)
○義禁府啓言前北兵使具信喜試記虛冒賂物多數命定配于襄陽府。

哲宗 2年(1851) 辛亥 4月 12日(戊辰)
○戊辰/晝講。召見江原道暗行御史李啓善書啓罪淮陽府使朴敦默鐵原府使金箕祖祥雲察訪李璋溥原州前判官金近喜襄陽前府使柳基豐平海前前郡守徐慶輔蔚珍前前縣監成永龜狼川前縣監權秉德橫城前縣監李儒龍保安前察訪南大儒等金城縣令金在獻安峽縣監姜滑幷褒施陞敍。

哲宗 8年(1857) 丁巳 11月 28日(乙巳)
○乙巳/召見江原道暗行御史李京鎬書啓罪杆城前郡守李容學通川郡守吳致箕平海郡守洪祐錫前郡守吳奎煥蔚珍縣監徐瑀淳淮陽前府使柳興吉襄陽前府使金商一寧越前府使金鎭右麟蹄前縣監金顯初祥雲前察訪金秉周等三陟府使趙秉文褒施陞敍。

哲宗 11年(1860) 庚申 閏3月 17日(辛亥)
○江原監司金始淵以襄陽府燒戶五百五十一戶通川郡燒戶四百七十二戶杆城郡燒戶四百八十六戶啓伊川府使南鍾順慰諭使差下使之馳進慰諭。

哲宗 大王 行狀
……己未閏月關東以襄陽通川杆城山火聞江陵高城善火 皆在一日……

高宗 1年(1864)甲子 2月 12日(癸未)
給襄陽府雪汰壓死人恤典。

高宗 4年(1867) 丁卯 1月 29日(甲申)
應資老人下批百歲者二十七人。中官金寬國楊根尹培西原孫啓亨江東尹海東李聖哲襄陽金弘禮金始翼伊川元錫昉鎭安金洛行興陽沈得文安東朴啓漢金海權仁孫金順永善山李馥春仁同李源極池益漢吉州李東麟漆谷李東赫梁山鄭壽龜盈德崔尙權山淸金雲龍慈仁安東學海州文道彦成川羅錫政金洪圭大邱李光億

高宗 4年(1867) 丁卯 9月 13日(癸亥)
給襄陽杆城等邑漂頹戶及壓死人恤典。

高宗 11年(1874) 甲戌 3月 5日(丁未)
各道獄囚今當依下敎次第狀聞以俟處分。而第其中襄陽罪囚李啓淳。以朝官繫獄已多年所。取見其獄案不過是推治犯葬之墓直而自怯服毒之驗昭著無疑登聞已久尙未稟處非但衆論之稱冤有足干和。謹按大典會通有久囚年滿七十以上者區別狀聞稟處之例則今此大慶之會宜有減等定配之典。獄體至重下詢登筵大臣後考律文酌處恐好矣。敎曰大臣之意何如珪壽曰當初獄案旣非手犯滯囚且久年過七十考律減等允合仁厚之政矣。敎曰大臣之議如此考律酌處可也。

高宗 12年(1875) 乙亥 8月 2日(丙寅)
初二日。江原監司尹秉鼎狀啓以爲江陵府使趙命敎牒呈內卽接本府五臺山月精寺史庫參奉丁鸞龜總攝僧詳旬所報則璿源閣窓矢折落奉安櫃門開冊露所裹紅袱無存守護番僧等逐一嚴査則襄陽洛山寺來番僧在明甘聽僧孟欣守安得靑在炯等指敎今初五日果作變之意丁寧自服。府使馳詣奉審則璿源系譜紀略八卷璿源譜略紬衣八冊幸無見失收拾櫃子另具鎖鑰依舊奉安。在囚

僧在明竝與洛山僧孟欣得青在炯等面面對質則洛山僧輩爲其史庫番僧之有弊百方圖免。與月精僧便作仇讎以百金酬勞之說嗾囑愚迷之在明暗中作變欲爲嫁禍於月精之計掀露無餘。今此僧在明得青孟欣在炯守安等因其私怨之欲洩自陷重科。史庫參奉丁鸞龜總攝僧詳旬僧將性能等身帶守護所犯深重令廟堂稟處。府使趙命敎擅開庫門殊涉妄率其罪狀令攸司稟處。臣罪著溺職惶恐俟勘。敎曰令廟堂稟處。

高宗 15年(1878) 戊寅 4月 30日(己酉)
○三十日。給杆城襄陽三陟等邑燒戶恤典。

高宗 30年(1893) 癸巳 5月 8日(己丑)
○敎曰今見前銜疏李夔在之冒年赴試極爲痛駭。原榜目中拔去令該曹照法嚴繩以懲悖習以嚴科體。秋曹以襄陽府邊遠充軍啓。

高宗 32年(1895) 乙未 5月 26日(丙申)
○二十六日詔曰朕이邦國의維新홈을當ᄒᆞ야實德을民에施코져ᄒᆞ노니朕言을明聽ᄒᆞ라民은邦의本이니本이固ᄒᆞ야사邦이寧ᄒᆞᆯ지니民을保ᄒᆞᄂᆞᆫ道ᄂᆞᆫ行政官에在ᄒᆞ니라本朝의地方制度가盡善치못홈으로州縣이齊치못ᄒᆞ고冗員이多ᄒᆞ야苛稅重斂ᄒᆞᄂᆞᆫ弊害가百出ᄒᆞ야上惠가下究치못ᄒᆞ고下情이上達치못ᄒᆞ니嗚呼라琴瑟이不調ᄒᆞ면更張홈을要ᄒᆞᄂᆞ니行政ᄒᆞᄂᆞᆫ道ᄂᆞᆫ時를因ᄒᆞ야宜를制홈이니今에監司留守等舊制를廢ᄒᆞ고府와郡의新規를定ᄒᆞ야弊源을防杜ᄒᆞ야兆民으로더부러泰平ᄒᆞᆫ福을共享코져홈이니汝百執事와庶民은朕意를體ᄒᆞ라勅令第九十七號監營按撫營竝留守廢止件裁可頒布勅令第九十八號地方制度改正件裁可頒布

地方制度
第一條全國을分ᄒᆞ야二十三府의行政區劃으로ᄒᆞ야左開ᄒᆞᄂᆞᆫ各府를置홈漢城府仁川府忠州府洪州府公州府全州府南原府羅州府濟州府晉州府東萊府大邱府安東府江陵府春川府開城府海州府平壤府義州府江界府咸興府甲山府鏡城府
第二條前條의外ᄂᆞᆫ從來의牧府郡縣의名稱及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官名을盡廢ᄒᆞ고邑의名稱을郡이라ᄒᆞ며邑의長官의官名을郡守라홈
第三條各府의管轄區域은左와如홈漢城府漢城郡楊州郡廣州郡積城郡抱川郡永平郡加平郡連川郡高陽郡坡州郡交河郡仁川府仁川郡金浦郡富平郡陽川郡始興郡安山郡果川郡水原郡南陽郡江華郡尙桐郡通津郡忠州府忠州郡陰城郡延豐郡槐山郡堤川郡淸風郡永春郡丹陽郡鎭川郡淸安郡驪州郡龍仁郡竹山郡陰竹郡利川郡陽智郡原州郡旌善郡平昌郡寧越郡洪州府洪州郡結城郡德山郡韓山郡舒川郡庇仁郡藍浦郡保寧郡林川郡鴻山郡瑞山郡海美郡唐津郡沔川郡泰安郡大興郡靑陽郡禮山郡新昌郡溫陽郡牙山郡定山郡公州府公州郡燕岐郡恩津郡連山郡石城郡扶餘郡魯城郡沃川郡文義郡懷德郡鎭岑郡平澤郡報恩郡懷仁郡永同郡靑山郡黃磵郡淸州郡金義郡木川郡天安郡稷山郡安城郡振威郡陽城郡珍山郡錦山郡全州府全州郡礪山郡高山郡臨陂郡咸悅郡沃溝郡龍安郡益山郡扶安郡萬頃郡金堤郡金溝郡古阜郡興德郡井邑郡泰仁郡長城郡高敞郡茂長郡靈光南原府南原郡求禮郡雲峰郡谷城郡順天郡光陽郡任實郡長水郡鎭安郡潭陽郡淳昌郡玉果郡昌平郡龍潭郡茂朱郡羅州府羅州郡海南郡珍島郡康津郡長興郡興陽郡寶城郡靈巖郡務安郡咸平郡綾州郡和順郡同福郡光州

郡南平郡樂安郡濟州府濟州郡大靜郡旌義郡晉州府晉州郡固城郡鎭海郡泗川郡昆陽郡南海郡丹城郡山淸郡河東郡居昌郡安義郡咸陽郡陜川郡草溪郡三嘉郡宜寧郡漆原郡咸安郡昌原郡熊川郡金海郡東萊府東萊郡梁山郡機張郡蔚山郡彦陽郡慶州郡迎日郡長鬐郡興海郡巨濟郡大邱府大邱郡慶山郡添谷郡仁同郡星州郡知禮郡高靈郡善山郡開寧郡金山郡義城郡義興郡軍威郡比安郡密陽郡淸道郡永川郡慈仁郡新寧郡河陽郡昌寧郡靈山郡玄風郡安東府安東郡靑松郡眞寶郡英陽郡盈德郡寧海郡淸河郡榮川郡禮安郡奉化郡順興郡豐基郡咸昌郡龍宮郡醴泉郡尙州郡江陵府江陵郡蔚珍郡平海郡三陟郡高城郡杆城郡通川郡歙谷郡襄陽郡春川府春川郡楊口郡洪川郡麟蹄郡橫城郡鐵原郡平康郡金化郡狼川郡淮陽郡金城郡楊根郡砥平郡開城府開城郡豐德郡朔寧郡麻田郡長湍郡伊川郡安峽郡兎仁郡平山郡金川郡遂安郡谷山郡新溪郡海州府海州郡延安郡白川郡甕津郡康翎郡長淵郡松禾郡豐川郡安岳郡長連郡殷栗郡載寧郡信川郡文化郡瑞興郡鳳山郡平壤府平壤郡安州郡肅川郡順安郡龍岡郡永柔郡甑山郡咸從郡三和郡慈山郡江西郡德川郡寧遠郡熙川郡孟山郡寧邊郡雲山郡順川郡价川郡殷山郡成川郡陽德郡三登郡江東郡祥原郡中和郡黃州郡義州府義州郡昌城郡碧潼郡朔州郡龍川郡鐵山郡宣川郡郭山郡定州郡嘉山郡博川郡泰川郡龜城郡江界府江界郡厚昌郡慈城郡楚山郡渭原郡長津郡咸興府咸興郡定平郡永興郡高原郡文川郡德源郡安邊郡端川郡利原郡北靑郡洪原郡甲山府甲山郡三水郡鏡城府鏡城郡富寧郡吉州郡明川郡慶源郡慶興郡穩城郡鍾城郡會寧郡茂山郡

第四條各府廳의位置는左와如홈漢城府漢城仁川府仁川濟物浦忠州府忠州洪州府洪州公州府公州全州府全州南原府南原羅州府羅州濟州府濟州晉州府晉州東萊府東萊釜山大邱府大邱安東府安東江陵府江陵春川府春川開城府開城海州府海州平壤府平壤義州府義州江界府江界咸興府咸興甲山府甲山鏡城府鏡城附則

第五條本令은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붓터施行홈

第六條本令施行ᄒᆞᄂᆞᆫ日에時任ᄒᆞᆫ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官職에在ᄒᆞᄂᆞᆫ者ᄂᆞᆫ別로辭命을用ᄒᆞ지아니ᄒᆞ야도本令에依ᄒᆞ야各其郡의郡守가되옴

高宗 36年(1899) 己亥 7月 11日(陽曆)

○十一日。召見肇慶壇奉審宰臣李載崐及議政以下。議政尹容善宗正院卿李載完掌禮院卿趙定熙營建廳堂上李鎬翼李重夏 上曰廟殿奉審則果安寧……重夏曰臣未敢爲定而觀察府旣遠勢將以近邑塡差矣。近而秩高者惟江陵襄陽數郡而已矣。上曰祭官當差邑付標定式可也。道臣兼提調則有益於守護之節乎載崐曰以今官制觀察使屬內部廟壇殿官屬宮內府則不相統率事多齟齬矣。……

高宗 40年(1903) 癸卯 3月 19日(陽曆)

○掌禮院卿金世基奏頃伏奉詔勅唯天子祭天下名山大川而五嶽五鎭四海四瀆之封尙今未遑祀典未備矣。其令掌禮院博攷定祀用稱朕以禮事神之意事命下矣。五嶽五鎭四海四瀆之應封山川參酌磨鍊另具開錄以入而事係祀典所重臣院不敢擅便令議政府稟處何如允之。

別單。

五嶽: 中嶽三角山京畿 東嶽金剛山江原道淮陽郡

南嶽知異山全羅南道南原郡　西嶽妙香山平安北道寧邊郡　北嶽白頭山咸鏡北道茂山郡。
五鎭：中鎭白岳山京城　東鎭五臺山江原道江陵郡　南鎭俗離山忠淸北道報恩郡　西鎭九月山黃海道文化郡　北鎭長白山咸鏡北道鏡城郡。
四海：東海江原道襄陽郡　南海全羅南道羅州郡　西海黃海道豐川郡　北海咸鏡北道鏡城郡。
四瀆：東瀆洛東江慶尙北道尙州郡　南瀆漢江京城　西瀆浿江平安南道平壤府　北瀆龍興江咸鏡南道永興郡

太宗　14年(1414)　8月　21日(辛酉)
○禮曹上山川祀典之制謹按唐禮樂志嶽鎭海瀆爲中祀山林川澤爲小祀文獻通考宋制亦以嶽鎭海瀆爲中祀。本朝承前朝之制山川之祀未分等第境內名山大川及諸山川乞依古制分等第。從之嶽海瀆爲中祀諸山川爲小祀。京城三角山之神漢江之神京畿松嶽山德津忠淸道熊津慶尙道伽耶津全羅道智異山南海江原道東海豐海道西海永吉道鼻白山平安道鴨綠江平壤江皆中祀京城木覓京畿五冠山紺岳山楊津忠淸道雞龍山竹嶺山楊津溟所慶尙道亏弗神館主屹山全羅道全州城隍錦城山江原道雉嶽山義館嶺德津溟所豐海道牛耳山長山串阿斯津松串永吉道永興城隍咸興城隍沸流水平安道淸川江九津溺水皆小祀在前所在官行。京畿龍虎山華嶽慶尙道晋州城隍永吉道顯德鎭白頭山此皆仍舊所在官自行永安城貞州牧監九龍山因達巖皆革去。又啓開城大井牛峰朴淵旣非名山大川乞依華嶽山龍虎山例令所在官行祭。從之。

世宗　19年(1437)　丁巳　3月　13日(癸卯)
○禮曹據諸道巡審別監啓本詳定嶽海瀆山川壇廟及神牌制度
京畿　國行臨津縣德津中祀壇位版書德津之神。右位版藏室則依敎壇壝內近北隨地之宜幷神廚庫房齋室造成。麻田縣高麗始祖以下四位中祀祠宇太祖神聖大王南向顯宗元文大王在東文宗大王在西忠敬王在東。面帳座子函漆令其道改造。臨江縣五冠山小祀壇位版書五冠山之神。積城縣紺嶽山小祀祠廟位版書紺嶽山之神。楊州府楊津小祀壇位版書楊津之神所在官行祭。海豐郡白馬山壇位版書白馬護國之神請削護國二字。臨江縣龍虎山祠廟無位版只有鑄鐵僧像依他排設位版。仁川郡紫燕島水深島龍流島孤島已上同郡地。松家島長峯島黔對島已上江華地。召忽島靈興島犢牛島已上南陽地。龍媒島延安地苫陰島馭鰲島彌正島麻田島構桑島大忍島已上諸道不知所在處。上項諸島於猿島壇引請致祭。右諸島之在於他官者各送所在官祀典改錄汰其不知所在之島。江華府摩利山壇位版書摩利山山川之神請削山川二字。加平縣華岳山壇在縣內平地引請行祭位版書華嶽護國之神請於山麓設壇且削護國二字。江原道　國行襄陽府東海中祀祠廟位版書東海之神。原州雉嶽山小祀祠廟位版書雉嶽之神。淮陽府義館嶺小祀司廟位版書義館嶺之神。德津溟所祠廟位版書德津溟所之神所在官行祭。伊川縣德津溟所壇位版書德津溟所護國之神請削護國二字。洪川縣八峯山祠廟位版書八峯山大王之神請削大王二字。且祠廟在山上極險上下勢難請擇地設壇。原州任內酒泉縣琚瑟岬山祠廟在縣內平地位版書琚瑟岬山之神位請削位字更於山麓擇地設壇。咸吉道　國行定平府鼻白山中祀祠

廟位版書鼻白山之神。永興府沸流水小祀壇位版書沸流水之神所在官行祭。永興府永興城隍祠廟位版書永興城隍之神。顯德鎭白頭山壇位版一書白頭山之神一書顯德鎭之神。右白頭山非本國境內顯德鎭在高麗時革罷別無靈驗請竝削祀典。末應島未勿串聲島北島鼠島猪島古非島葛島小島熊望島松島骨城已上諸島引祭於主山。末應島壇位版十二各書諸島之神請各書某島之神。且一邑內致祭諸島多至十餘不得已致祭諸島外其餘可革處革除。咸興府咸興城隍祠廟位版書咸興城隍護國伯神請削護國伯三字。花島壇位版書花島壓兵之神右島引請行祭未便相望處擇地移祭。宜川郡所衣達城白頭立石遠葱城頭葱城大牙城內神城昌額城杻村城東伐城泥甑城萬谷城白山平波已上不知所在地面。竝引祭於所衣達城。右所衣達城祭所在龍津縣請令龍津縣行祭其不知所在諸城革除。安邊府井島鶴浦列島翼谷城翼谷狼城已上本府地。新島小衣達城草島已上宜興地。熊島鞍島黑島已上永興地。花島蒜島已上咸興地。穿島歙谷地甕遷外猪島卯島已上通川地。道非串菱島連島未然島黑嶽所乙伐烏槍城二山城實直板休谷直嶽遷峴泥嶽突島內儲島訥島狗首島直父島外屹泥坤蒜山狼串荒島見人島史知浦道臨城豆廣荒述甑尾黃石子海城各山杻城槍城骨木額松山炭項關賊述猪山大沙間峯伊乙嶽已上諸島不知所在。壇位版五十九各書安邊府某島之神。右諸島引祭府內未便請於海邊狼城浦近處移壇致祭。其在於他道他官及不知所在處諸島已議於前。且五十九島之神一處合祭位版五十九　而奠物只設小祀一位甚爲未便請每位各設奠物。忠淸道　國行稷山縣百濟始祖中祀祠廟位版書百濟始祖公州熊津中祀廟位版塗紙書熊津之神。鷄龍山小祀廟位版塗紙書鷄龍山之神。丹陽郡竹嶺山小祀廟位版書竹嶺山之神。右祭所依宣德七年受敎移竹嶺山麓。忠州楊津溟所小祀廟位版塗紙書楊津溟所之神所在官行祭。鎭川縣胎靈山壇位版書胎靈山之神。懷仁縣味谷城廟位版書味谷城之神。文義縣壤城廟位版書文義郡壤城之神請削文義郡三字。大興縣大岑島廟位版書大岑島護國之神請削護國二字。德山縣伽倻岬廟位版書伽倻岬之神右神位版與城隍位版連排縣人聚會淫祀請造壇山麓致祭。舒川郡熊津溟所壇位版書熊津溟所之神。全羅道　國行南原府智異山中祀廟位版書智異山之神羅州南海中祀廟位版書南海之神錦城山小祀廟位版書錦城山之神所在官行祭。全州城隍壇位版書全州城隍之神。龍潭縣熊津噴所壇位版書熊津噴所之神。潭陽府龍津濆所壇位版書龍津濆所之神濆字依祀典改以噴字。茂珍郡無等山廟位版書無等山護國伯之神位請削護國伯位四字。羅州仰巖龍津壇位版書仰巖龍津之神右祭所水隔百步水沒則不得致祭請移排高岸。慶尙道　國行蔚山郡亏弗山小祀廟位版塗紙書亏弗山之神所在官行祭。固城縣上樸島下樸島褥秩島壇合爲一壇。位版一上樸島護國之神一下樸島護國之神一褥秩島護國之神。右祭所非三島通望處擇近海通望處移排合壇各設三島之神版各設奠物致祭皆除護國二字。尙州南述西鵄峯廟位版書南述西鵄峯之神鵄字依祀典改鴟。聞慶任內加恩縣梓木山廟位版書梓木山護國之神請削護國二字。本縣合屬虎溪縣獐山廟位版不書請書獐山之神。留後司所在官行祭。開城大井廟設神像於北壁又東北壁排設雜神圖畫常行淫祀。請擇井邊近地設壇位版書大井之神行祭。黃海道　國行豐川郡西海中祀祠廟位版書西海之神。海州牛耳山小祀廟位版書牛耳山之

神。長連縣阿斯津松串小祀壇位版書阿斯津松串之神。長連縣長山串小祀位版書長山串之神。平安道　國行平壤府平壤江中祀壇位版書平壤江之神。箕子中祀殿位版書朝鮮始祖箕子。檀君中祀高句麗始祖中祀殿檀君位版書朝鮮檀君高句麗位版書高句麗始祖。九津溺水小祀壇位版書九津溺水之神。右諸道嶽海瀆山川或立廟或設壇或壇廟竝置祠宇間閣或多或少。今考古制唐《開元禮》祭五嶽四瀆皆有壇。宋開寶五年詔嶽瀆幷東海南海廟各以本縣令兼廟令。宋眞宗令澶川置河瀆廟。非特此也歷代或置壇或置廟沿革制度不同。請國行處立祠廟毁其壇壝神廚庫房各構二間。所在官行祭處或壇或廟隨其所設無祀廟處藏主室及神廚庫房亦令造成。其壇廟看守人則近處住居良人及補充軍公賤中每一所各定二戶免其役常令看守掃除。一祭服京畿國行祭所已曾製造下送其餘各道令其道用各司奴婢身貢及神稅布漸次造作。所在官行祭則獻官着祭服執事校生令着儒冠。一諸祀儀式內諸祀神壇廟園外三十步禁斷樵牧耕種及行人請依儀式禁樵牧行人且令栽松。一神位版之制《洪武禮制》州縣社稷神牌高二尺二寸闊四寸五分厚九分座高四寸五分闊八寸五分厚四寸五分。《元史》社稷神位版用栗素質黑書。杜氏通典《題主儀》書訖光漆重模。本曹已於宣德六年參用古今制度詳定嶽海瀆山川位版制度。今各處神位版或以松木或以椵木或塗紙或朱黑漆或不書體制不一櫝則全不製造請令依規式改造。一壇壝之制宣德六年本曹詳定中祀嶽海瀆依風雲雷雨壇制方二丈三尺高二尺七寸兩壝。小祀名山大川壇及所在官行祭壇依靈星壇制方二丈一尺高二尺五寸一壝四出階各三級。今各官祭壇高低廣狹不一依本曹受教規式改築。議政府議啓曰

嶽海瀆山川或壇或廟非特古制國都所祭山川風雲雷雨及先蠶先農竝皆有壇而無廟則外方嶽海瀆山川國行無祠廟處不必立廟或壇或廟竝令仍舊。藏主室及神廚庫房營構則人家隔遠海曲深山雖定看守人守護甚難。國行則神廚庫房各二間待豐年營造。所在官祭所其未搆藏主室及廚庫者擇官舍內淨處別搆一室藏神板祭器臨祭令齋沐人輸于祭所壇廟看守人則近處住居人一戶復戶委定。仁川紫燕等十二島宜川所衣達城等十三城安邊井島等五十九島其不知所在島城汰去事及永興末應島引請致祭諸島內可革處革除事別無利害姑令仍舊奠物品數亦令仍舊祭服則用各司奴婢身貢及巫女經師貢布神稅布漸次造作餘如禮曹所議。上從之

成宗　25年(1494)　12月　23日(戊寅)

○左副承旨姜龜孫啓曰宗廟社稷昭格署及京畿近處則皆令祈禱請兼禱于外方名山大川。傳曰可遣正郎金孝貞于熊津雞龍山校理鄭積于竹嶺山楊津溟所校理崔溥于南海錦城山佐郎李滯洛于智異山佐郎河潤于主屹山伽耶津乡沸山司議朴訒于雉岳山東海僉正洪湜于義館嶺德津溟所判官趙珩于西海阿斯津松串文學房玉精于長山串牛耳山正郎柳廷秀于沸流水鼻白山豆滿江　僉正鄭鐸于平壤江九津溺水校理成希顔于清川江鴨綠江司成潘佑亨于楊津

定宗 1年(1399) 8月 26日(癸亥)
○太上王如洛山寺設楞嚴法會翌日還。

定宗 2年(1400) 10月 24日(乙卯)
○太上王至貞陵設精勤法席。太上王脫衣施佛將幸臺山洛山國人不知乘輿所指。郎舍上疏曰草創之主子孫之所宜法也。今因佛事遠行于外實非貽謀之道。以國君之父出入無時國人不知所之非體國子民之道也。請遣首相及二三勳老道達國人之情請還車駕保安聖體以慰臣民之望。上曰太上之志已定矣。雖使宰相請之何益

太宗 3年(1403) 8月 1日(丙午)
○遣繕工少監金桂蘭于洛山寺。 設道場禳災異也

太宗 4年(1404) 7月 25日(甲子)
○甲子遣內臣于興國寺及洛山寺設祈晴法會

太宗 5年(1405) 11月 21日(癸丑)
……如有婢子寺內立役一皆禁斷婢子寺內來往不禁僧人及奴婢戶內來往僧人許人陳告徵布一百匹告者充賞長髮充軍。其餘各寺奴婢竝屬公寺內炊爨等事以無職雜僧充役。從之唯衍慶興天華藏神光釋王洛山聖燈津寬上元見菴觀音崛檜庵般若殿萬義京甘露等寺社仍舊。於是晋州牧使安魯生上賀箋曰臣聞天下之生一治一亂聖人迭興漸次除治。當堯之時滔水橫流大禹不作人其魚鼈矣夏商之季桀紂爲暴湯武不興民其塗炭矣戎狄戎狄爲亂虎豹爲災不有周公之聖孰能膺且驅之以除其害乎以至戰國衆暴寡强凌弱篡奪之禍作天理幾乎滅非仲尼筆而誅之則天下之人無君臣矣楊墨橫行誑亂天下非孟軻氏辭而闢之則天下之俗爲禽獸矣。釋氏之害則有甚於此。君君而臣臣父父而子子家國之大典人倫之大本不可一日而去之。……

世宗 4年(1422) 1月 25日(癸未)
○司憲府啓前判定州牧事邊處厚曾任襄陽時衙中所藏麤布九十匹乾魚百五十首鹽十斗等物來處不直答通。又以衙中乾魚及官中乾魚幷百五十首海藿四十束換生繭六石私用。又收巫女鍮鐵十一兩幷衙中鍮鐵造鍮鉢私用。又密買境內洛山寺眞水精念珠二十一枚。又請鹽于境內山城浦萬戶李養脩換緜花及楮。辭連各人明白納招而處厚不承請收職牒鞫問。上以犯在赦前命勿論。

世宗 18年(1436) 6月 4日(己亥)
○己亥先是有奴衆伊者上言如意珠在慶尙道智異山五臺寺若招迎來京則當沛然下雨。上怪之令慶尙道監司使之親往審視乃水精珠也。且其寺碑文曰索水精一枚懸於無量壽像前因名水精社。其非如意珠明矣。僧人等造爲誕妄乃曰此珠乃東海龍王如意珠也。龍王獻于洛山觀音今移此寺。愚民信惑爭相崇信其好爲怪誕如此上令其道監司禁民崇信。

世宗 31年(1449) 4月 6日(乙卯)
○乙卯春秋館前修高麗史據漢少帝及宋蒼梧三蒼梧王故事僞朝辛禑父子皆稱王。謹按少帝蒼梧雖本史稱帝而綱目亦無貶黜。然綱目高后呂氏元年劉友益書法少帝他人子而書太子書少帝無改焉所以罪漢庭之大臣

也。以呂氏紀元不以他人子難正統也。高后八年尹起莘發明亦曰綱目書之略無貶辭若眞孝惠子然者所以著漢朝將相之罪耳。然則綱目之稱少帝非與其爲帝也而本史不作少帝本紀意亦可見矣。蒼梧王則宋書本紀書廢帝諱昱明帝長子也。大明七年正月辛丑生於衛尉府泰始二年立爲太子。至本紀之末乃書曰先是民間訛言太宗不男。陳大妃本道兒之妾也。道路之言或云道兒子也。是則明帝以蒼梧爲子繼統故本紀亦書爲明帝長子也。且太后之廢蒼梧也令曰昱以嫡家嗣登皇統豈意窮凶極悖此亦但數其狂虐之罪耳非以他姓而絶之也綱目之稱主不得不爾。於綱書于皇而於目乃書道兒之子況以蒼梧爲道兒之說特出於民間道路之訛言乎然則少帝蒼梧俱不可引以爲禑昌之證明矣。若夫禑則其母船若　乃辛旽侍婢未嘗爲宮人。恭愍王嘗幸旽第旽請以禑爲養子而立後王睨而笑之旽知王心許之乃使吳一鶚書願狀于洛山寺云願弟子分身牟尼奴福壽住國。賊旽簒奪之謀已著矣。至恭愍王十九年禑之生已六歲矣尚憂無後欲改葬毅陵。王之末年益妃有身喜曰予嘗慮影殿無所付囑妃旣有身吾何憂乎是則王雖許以禑爲後其心至死而不肯以爲子也。禑之將就學也太后托以尚幼而不許。禑之立也太后及侍中慶復興等欲立宗親李仁任欲專權柄違內外之正論援立爲王則是太后與大臣亦不之子也。前修史者且曰有帝命禑之立十有一年而後始有封冊。封冊之明年聖旨曰數請約束朕數不允正爲守分也。請之不已强從之。昌之請朝也聖旨曰自王氏被弒絶祀後　以異姓爲之非三韓世守之良謀也。又曰童子不必赴京。果有賢智陪臣在位定君臣之分數十歲不朝亦何患哉帝於禑之父子絶之深矣。恭讓之立也擧國君臣議曰禑昌本非王氏不可以奉宗祀。又有天子之命當廢假立眞。定昌府院君瑤乃太祖正派宜爲恭愍後。遂以定妃敎奉王卽位以繼正統。斷以大義廢禑昌爲庶人尋正典刑而我太祖實主是議。其所以聲僭竊之罪以致天討而絶之者嚴矣。今若猶王禑昌使逆賊之孽混於三十二代之列而無以別之則非但乖於大義乃有違於太祖正名之義矣。諸侯廢置在於天子而況禑以他姓竊據而上爲天子所絶下爲國論所廢乎漢王莽聘詐肆姦稱假卽眞悉藉太后竊位南面十有餘年之久。漢書斥書其名降爲列傳　以著纂盜之罪。禑以賊旽餘孽竊據神器父子相傳窮凶極惡罪浮于莽安可稱王以亂名分乎前此鄭道傳等修史之時名書禑昌其後河崙柳寬卞季良等讎校尹淮重撰亦皆因之豈無所見哉乞於今修高麗史禑昌父子悉依漢書王莽例以正名分以徵亂賊以嚴萬世之法。從之。

世祖　12年(1466)　閏3月　13日(甲申)

○甲申幸洛山寺。

世祖　12年(1466)　閏3月　28日(己亥)

○賴永使者僧壽蘭還。上寄書曰本國王其書曰隣竝修聘禮固當然。第緣滄溟夐隔風濤爲梗。嘗遣一介中曹颶敗未達區區徒切悵恨。雖然境雖異而心則同。自當遙契奚迹之求我國有名山曰金剛東臨大海亭亭削白。金湧雲表高廣不知幾由旬。華嚴經所謂曇無竭菩薩與其萬二千菩薩眷屬常住設法者卽此山也。頃予省方因詣茲山瞻禮三寶未至山麓地爲震動行入洞門瑞氣彌亘祥雲繚繞。天雨四花大如桐葉甘露普灑草木如沐。日色黃薄眼界皆成金色。異香薰暢放大光明熀耀山谷。仙鶴雙飛盤旋雲際。山中諸刹舍利分身五色悉

設明揚勝會如上種種奇瑞重現。又有曇無竭菩薩現無數小相復現大相其長參天。暨還歷洛山五臺上院月精西水精彌智山龍門上院寺叢林舍利雨花甘露異香等瑞復如前。及至京都又有舍利甘露須陁味之瑞幷臻。前後所得摠七千八百一十七枚。噫我佛變化神通之妙驗於目擊者如是益增感動與諸臣庶踴躍懽忭。遂大赦廣布洪慈。昔佛滅度後王舍城人募金鑄像。文殊以五十三軀藏于金鍾望海誓曰當至有緣國土度濟衆生我應須至其處永爲擁護。於是金鍾漂至我國自住山東。新羅王因創寺安像名曰楡岾。山之表裏伽藍不知其幾而楡岾最勝。山旣大聖常住之所寺又金像自住之處則修福田植善根者舍此奚之顧寺之創建旣久漸就頹敗命有司重修。近爲群臣百姓遠爲隣國種食善因同享大平。我佛出世運大慈悲普濟爲心十方一刹三界一體也。貴邦自來尊尙玄化想亦樂聞而隨喜也。茲因商舶之還告予誓願。予非有求財施願與國王共結良緣齊收妙果益固隣好使兩國臣民同躋壽域。冀亮察。聊將土宜表忱具在別幅照領。不宣。

世祖13年(1467) 5月 27日(辛卯)

○上問尹弼商曰咸吉道軍需將乏爲之乃何楡岾洛山兩寺距咸吉至近而其改創之備甚多。予欲停其役移所費之需於安邊於卿意何如弼商陽驚曰是何敎也李施愛小醜行當就戮。今以小醜之故停國家資福之役得無不可乎臣不敢奉敎。上大悅。

世祖 14年(1468) 1月 23日(甲申)

○命兵曹給僧學祖驛騎往高城楡岾寺其帶去夫匠十五人亦給驛騎。時僧信眉與其徒學悅學祖相結頗張威福勳戚士庶多附之。悅造洛山寺祖修楡岾寺江原道爲之騷然監司守令莫能支梧乃以所得營置産業。

世祖 14年(1468) 5月 4日(癸亥)

○癸亥僧守眉在全羅道奉書以啓曰僧人社長等或稱募緣圓覺寺佛油或稱營建洛山寺化主貽弊於諸邑民間者頗多。上遣內贍寺正孫昭 往鞫之。

世祖 14年(1468) 5月 6日(乙丑)

○乙丑內贍寺正孫昭拜辭其齎去事目一圓覺寺佛油社長及洛山寺化主僧等作弊於官家及民間。此社長及僧人等訪問於僧守眉處及民間隨捕隨繫鞫問以啓。一上項泛濫僧人社長若寓於寺社則捉來爲難姑發官差捕之但勿令騷擾。一諸邑守令聽上項僧人社長言發官差收斂民間者囚禁推鞫若堂上官及功臣議親則啓聞囚禁。僧人社長貽弊民間如此而觀察使都事等不曾覺擧亦竝推鞫。一洛山寺營建所備皆出公家如有私齎募緣文者 盡數收取以啓竝於諸道移文收取。

睿宗 卽位年(1468) 9月 21日(丁丑)

○時僧信眉壽眉學悅學祖等每罷殯殿法席則退處於廣延樓芙蓉閣供給甚優凡有佛事承旨或往來問焉。中樞府知事韓繼禧亦以事往因與談論學祖曰江原道有吾住居寺其賜田甚薄無用欲改受全羅道沃饒之田何以上達曩者學悅以造洛山寺作啓目以啓其時大臣皆非笑之若啓目則政府六曹之事非吾敢爲幸爲我導之。繼禧曰不如乘間用單子啓達。學祖從其言。繼禧以文學大臣而附緇徒時論鄙之。

睿宗 卽位年(1468) 11月 7日(癸亥)
○有僧因大妃殿請爵族人于上傳于吏曹曰洛山寺先王稱爲予創構若其爲先王之事則雖有弊猶或可爲。如洛山寺則爲予創之而今聞百姓受苦予敢忍焉已令拿致其道監司今在闕僧人意不自安或有告歸者。此僧族人、可於東班敍用。無闕則敍於西班。

睿宗 卽位年(1468) 11月 9日(乙丑)
○義禁府經歷許峻執江原道觀察使金瓘以來令承政院問曰洛山寺造成之費何濫收民間乎瓘對曰曾降諭書洛山寺諸事卿宜體予視力盡心雖一匏一索勿煩民間。其後僧學悅見臣親受事目曰事目付物須一一備給。故其中易辦之物令諸邑隨宜備給難辦之物據諭書勿煩之語對之。學悅曰永順君承傳言役民至重非監司所顓故諭以勿煩民自餘諸事監司可以措置。且曰監司功臣非他宰相比願勿阻當。臣不得已移文諸邑然不檢守令至於擾民臣實有罪。卽命解鎖置之闕內。

睿宗 卽位年(1468) 11月 10日(丙寅)
○丙寅上令宦官申雲敎金瓘曰卿觀察一方從僧學悅言行諭旨外事當嚴治其罪以示民第以先王時事特赦之。且將敍用其知之。史臣曰學悅承世祖密旨爲主上改創洛山寺觀察使金瓘從學悅言濫收民間至於匙筯無所不取民不堪苦多與怨讀。瓘任分憂之責當以救民爲急乃不能隨事陳弊務除民瘼。以爲吾寧得罪於民毋得罪於悅凡悅所求雖無上旨亦皆委曲成就之。後果以悅得至二品鄙夫。

睿宗 1年(1469) 2月 25日(庚戌)
○承政院馳書江原道觀察使趙瑾曰洛山寺近處人家竝於五里外從自願給閑地移居具名數及田地結負數以聞。

睿宗 1年(1469) 閏2月 25日(庚辰)
○先是江原道保安道察訪金鍾據驛吏申義澄等狀告馳啓僧學悅侍奉等稱有舊例勒騎驛馬或枉道或留置寺社 令驛吏喂養過驛或至七八日人馬疲困驛路殘弊。請自今依六典及各年受敎僧人鋪馬須待文憑乃給其不照驗擅自枉道者勿給。上覽之命召鍾又遣宦官于洛山寺問學悅悅爲書以啓曰臣之下來也洛山監役僧良遂義心崇德等與臣俱騎鋪馬至上院寺設水陸齋。後到洛山寺臣令崇德等輸安東官鍾崇德等發原州神林驛由堤川直達安東此非枉道。金鍾以崇德等濫騎枉道啓聞請覽今所上義澄寄臣書一通。其書曰察訪入選行次馬匹之數據珍富驛吏狀文及丹丘驛吏供招致我于原州叱令下名其狀與兩驛吏似若一樣者吾以察訪衙前不勝其苦著名狀文察訪當以此啓達。小人罔知所措愁恨盈天未出擧頭。上覽之御崇文堂拿致鍾親問情由取學悅義澄等書示之鍾畫地道路形勢以辨枉道之狀。且言義澄告狀非臣强取若召義澄考問則情僞可辨。上令承旨及參知韓嶬等杖問鍾曰人命固大而汝欲誣人以罪必有敎汝者。其直言之。鍾對曰臣無所議但保護驛路臣之職也。杖二十餘下但號曰義澄殺人。義澄殺人。傳曰先王之時無有如是言者今汝謂予幼沖而言之若此若年幼甚於予則必操縱在掌握而後已也。傳于承政院曰鍾欺君之罪照律以啓。政院啓律當斬。御書傳旨義禁府曰察訪金鍾甘我年幼毁我先王之法阿附宗宰身自僥倖强取驛吏

之招又當親問之時隱而不對罪不可赦。肆命斬首以戒後來。仍命梟首三日禁錮子孫。又傳曰自今每刑人行刑後輒啓。是日雨義禁府以陰雨日不行刑問于承旨承旨曰別有傳旨何計陰雨遂致鍾于義禁府前方待載車鍾猶不知謂守卒曰當此雨何不速置我獄中遂斬之梟首于雲從街。

睿宗 1年(1469) 3月 3日(丁亥)

○江陵人前尙瑞注簿崔召南等十餘人上書陳貢案不便事及僧學悅假托因緣專事殖貨等事。上覽之馳諭江原道觀察使趙瑾拿致召南令政院鞫之。召南曰僧學悅專心貨殖多載綿布令觀察使分授諸邑勒給民間每一匹償穀二石五斗刻期督納貧乏未償者則計利取息。且本府堤堰內平民世傳七十餘石播種之田奪而耕之非獨民失農業堰下水田未得灌溉民皆含冤。又堤堰之北及艷陽寺珍寶驛等地多營倉庫有違僧道故臣與鄕人南允文等共議以啓。上覽之傳曰予雖求言汝豈無可言之事而言僧家事乎予欲置法然旣求其言又從而罪之予不忍焉。遂赦召南而不問學悅。學悅者信眉門徒。歲丁亥重修洛山寺悅督其役軍有逃者輒懲贖收及瓢鼎闔道騷然怨讟蜂起。悅嘗語人曰若計民弊大事不成。悅貪淫殘虐無所不爲至營家陰畜婦女縱其徒求索諸道及金鍾受罪悅益恣。

睿宗 1年(1469) 3月 14日(戊戌)

○傳旨戶曹賜亂臣南怡富平田于水鍾庵趙穎達安山田于平原大君夫人崔戒之張益之順之卞自義等醴泉田于奉保夫人曺敬治三嘉田南怡宜寧田蔣西淸道田于洛山寺鄭崇魯東大門外田康孝文公州田曺敬治昌寧田康純保寧田于楡岾寺。

睿宗 1年(1469) 4月 14日(丁卯)

○西平君韓繼禧將往江原道洛山寺賜蓑衣一部油紙席一張。

睿宗 1年(1469 己丑) 6月 17日(己巳)

○己巳傳于都承旨權璡曰日者金瓘雖被譴責然洛山寺造成時瓘專掌措置而今爲副護軍幷論賞如何璡啓曰瓘未準京職準職敍用爲當。

睿宗 1年(1469) 6月 18日(庚午)

○庚午命監造靑玉佛像郎官監成楡岾洛山寺郎官資窮準職者代加未準職者準職未資窮者加資。都承旨權璡啓曰刊經都監郎官則提調已啓論賞常仕提調之功不下郎官。尹贊年老且功臣嫡長爲嘉善已久可加嘉靖。從之。

睿宗 1年(1469) 5年) 6月 27日(己卯)

○奉先寺成命僧學悅學祖往察制度工拙仍留監之。悅祖見曰某堂柱太高某閣鍊木不精某堂障子質朴。立使毁之董役提調郎官相顧斂手莫措一辭。又欲壞影殿領議政韓明澮綾城君具致寬以都提調適往固執不可壞往復再三乃止。悅遣人啓曰寺當速構措置不可緩也。請用都人車兩輸運木石。上不得已從之車至五百餘兩。後數日上問致寬曰悅不啓而擅壞僧堂卿何不止之致寬對曰臣到寺則已壞矣。上由是非悅悅稱疾而去。悅以善幹事得幸累朝掌營津寬大慈洛山等寺殫竭民力。今又如此勞民傷財猶恐不及時人憤之。

睿宗 1年(1469) 7月 3日(甲申)
○甲申以刑曹判書姜希孟爲推忠定難翊戴功臣晋山君徐居正漢城府判尹洪常儀賓府承賓唐陽君愼承善居昌君鄭文炯開城府留守李承召兼藝文館提學李存推忠定難翊戴功臣星川君讜行遂安都正諝行石陽都正洪達孫中樞府判事南陽君奉朝賀崔濡中樞府判事開城君奉朝賀安慶孫中樞府同知事公山君李蒙哥中樞府知事驪川君奉朝賀柳淑中樞府同知事文川君奉朝賀柳泂中樞府同知事文原君奉朝賀裵孟達中樞府同知事昆山君奉朝賀鄭守忠中樞府判事河原君奉朝賀韓瑞龜中樞府同知事青原君奉朝賀宋益孫中樞府同知事礪山君奉朝賀柳漢中樞府同知事星山君奉朝賀咸禹治中樞府知事東原君奉朝賀韓堈中樞府同知事琅城君奉朝賀尹贊中樞府同知事坡城君奉朝賀韓致亨中樞府同知事兼都摠管金瓘階加嘉善李時琁陞堂上官。兵曹以西班六品以下窠闕有餘以上不足請合三司勇作一司果權授從之。自是功臣不堪任事者授奉朝賀。漢宦官也宦官拜西班職自此始。時琁初爲刊經都監使掌利權有一富商置酒邀時琁及所私娼妓時琁卽往飮物議囂囂吏曹啓罷其職。及再入都監監洛山寺役媚事僧學悅悅之營洛山也徒衆甚多。觀察使金瓘阿悅意問遺優厚頗爲延譽。上怒瓘剝民遞職拿致推鞫至是寺成論賞。

睿宗 1年(1469) 9月 8日(戊子)
○戊子上親行練祭于永昌殿遂詣光陵行祭賜守陵官侍陵宦官冬衣遂幸奉先寺祭于崇恩殿賜奉先寺米百石。是時奉先寺告成爲世祖忌晨設七日佛事。初營是寺僧學祖學悅自洛山寺來改創廚舍十餘間提調郎官不敢措一言。先是來自楡岾刊經都監辦餠果慰之提調金守溫謂郎官曰慰學祖誰先唱之郎官曰具政丞致寬命之。守溫笑曰具公少以正大自許到晩年何至是耶致寬器局峻整門不受私謁世稱其淸然柳陽春薄行金僩無賴致寬皆掩護之至以僩爲可用數數延譽於朝人以是疑之。

成宗 1年(1470) 3月 28日(丁未)
○戶曹啓洛山寺收稅田請以慶尙道三嘉縣田二百結折給。從之。

成宗 1年(1470) 4月 6日(甲寅)
○命減楡岾洛山奉先正因上院寺稅外雜役及奴婢雜役楡岾洛山鹽盆稅。

成宗 2年(1471) 2月 8日(辛亥)
○大王大妃及上同御崇文堂院相韓明澮都承旨鄭孝常右承旨李崇元入啓事。大妃傳于明澮曰政丞請復用圓杖何意耶明澮對曰今盜賊盛行至於京城有明火强盜。當此之時不用重典難以弭之。臣聞曩用圓杖盜賊相戒曰我輩寧爲商賈愼勿爲盜。自革圓杖盜賊尤熾。昔大明高皇帝立法雖寬當時盜一針者皆處死故路不拾遺。今莫如用重典。大妃曰圓杖傷人甚多。今後盜賊正犯者外勿濫用。又傳曰洛山寺營繕功重恐有火災。行者須由新路舊路距寺甚遞行者炊飯恐火延於寺。明澮曰江原道新觀察使去時諭送爲便。大妃謂鄭孝常曰卿須勿忘拜辭曰言之。崇元啓曰凡盜賊在逃者必移文諸道捕之今無一邑捕啓必是守令不用心所致。今後令諸道 月季錄捕獲與否以啓。傳曰卿言是。

成宗 2年(1471) 11月 22日(庚申)
○庚申御經筵。講訖掌令朴崇質啓曰江原道人烟鮮少土瘠民貧當先撫恤僧學悅創上元寺窮極侈麗勞費旣多冒占堤堰因奪旁近民田盡爲己有。滋殖私債干請守令作弊多端甚乖僧道。又作洛山寺以大路近寺移其路行者甚苦之。請祛此弊斥學悅以蘇民生。獻納崔漢禎啓曰申氏寺刹施納奴婢不可不改正也。且婦人夫死爲尼猶謂之不可況處女乎頃者洪敬孫之妹以處女爲尼今又敬孫妹之女亦以處女爲尼此風不可長也。請令後有如此者罪其家長。領事鄭麟趾啓曰太宗革寺社奴婢覺林寺乃太宗少年讀書之處而猶竝革之。今申氏施納奴婢當須改正。領事申叔舟啓曰前朝之末寺社奴婢與僧混處故多有醜聲今痛禁施納爲便。婦女爲尼則與僧雜處內外無防漢禎之言皆是。所宜聽納。上曰予當酌量。

成宗 3年(1472) 1月 14日(辛亥)
○戶曹據宣略將軍南允文上言啓江原道洛山寺僧學悅詐稱陳地受立案盡奪允文田地請令觀察使鞫問還主。從之。

成宗 8年(1477) 3月 25日(壬辰)
○御經筵。講訖參贊官玄碩圭啓曰漢啓城府往審道泉創寺之地乃古寺遺基也。上曰予初以爲新創也。其勸文有言爲元子而創之故宰相多署之也。持平南季堂啓曰釋氏虛誕人皆知之。假令國家新創寺社宰臣所當諫止而尹士昕從邪說以爲民唱請鞫之。上曰脩短在天不關於佛。然重創之法載在大典何妨侍講官崔淑精啓曰臣近日歸鄕里隣有喪母者欲上寺飯僧以無僧而止以此觀之僧徒少息矣。若聞殿下不聽臺諫之請則返俗者還祝髮矣。前朝之季寺刹遍於閭閻今重修者不禁則前朝之弊復起矣。上曰何至是也季堂又啓曰臣又聞國家重修洛山寺今當農月雨澤不降民未播種而反用民力營修佛宇甚不可也。請停之。上默然思之曰予實不知。聞諸何處季堂對曰聞諸開城之人。上命承旨問之。

成宗 9年(1478) 5月 26日(丁亥)
○丁亥御經筵。講訖司諫慶俊啓曰國家令江原道人民煮鹽納于官以給楡岾洛山寺請勿給以除民弊。上曰先王時事不可遽除也。持平李世匡曰如其非道豈以先王時事而不改乎不聽。俊又啓曰任元濬罷未久而尋復封君弘文藝文館言奸邪貪濁甲于一時豈可復用乎上曰以下官論駁彼亦不安故遞耳。其所言竊藥誠虛事也。豈可以此不用乎

成宗 9年(1478) 5月 28日(己丑)
○己丑御經筵。講訖大司諫安寬厚啓曰江原道嶺東郡縣多不築邑城如蔚珍平海雖有之無異垣墻。一歲之間雖未畢築今年築一城明年築一城則庶乎其可矣。上曰得無難乎寬厚曰役民必於農隙則可無弊矣。上曰其令兵曹議啓。寬厚又啓曰洛山寺舊路平易而新路險阨行人甚苦之。臣意以爲舊途遠於寺而寺前樹木茂密行人不得見寺宇請復舊路。上曰若路遠於寺則行人雖見其寺何害其令監司親審以啓。寬厚又啓曰洛山寺前二十餘里寺僧禁人漁採故人民捨近取遠其無弊乎上曰禁之不可。知事洪應曰是必世祖朝僧人學悅請禁也。寬厚曰爲二寺使民失利其可乎上顧謂左承旨朴叔蕃曰其令監司問其禁止與否以啓。

成宗 9年(1478) 7月 24日(癸未)
○御經筵。講訖獻納崔潘啓曰臣等前日請開洛山寺舊路再瀆上聰迄未蒙允不勝缺望。沿海貧民資海錯以坐者多今爲此寺禁民漁採使民失業甚不可。且江原道多山少田聞洛山洞裏有水田膏腴者可種三十餘碩世祖令盡屬此寺而使僧徒耕食臣竊痛焉。乞令還給本主。上顧謂左右曰何如知事姜希孟對曰先王舊典大者不忍遽改小小節目改之無妨。潘又啓曰近來臺諫所言多不聽納臣竊失望。上曰爾之爲言官不久未知已前之事予之改舊典亦多矣。爾等之所以懇懇者爲闢異端也然予若崇信釋氏則爾言是矣予無是也改此何難第以先王朝事不可盡廢故也。若如爾等所言則必盡革寺社而後快於心矣。近者安璿言寺社豈不可盡革方袍豈不可盡戮此言豈可行乎潘曰僧亦人也誅之不可如此弊事雖從臺諫之請而改之後世孰謂殿下輕改舊典乎都承旨孫舜孝曰僧徒奪耕民田之由請推問。上曰僧何奪耕之有似聞人民反奪僧田令觀察使閱實以啓。

成宗 9年(1478) 7月 26日(乙酉)
○乙酉御經筵。講訖領事韓明澮啓曰光陵莎臺石今不可爲也。宜削去三物用黃土築之使莎土得以托根何如上曰削去三物則必有叩椓之事。同知事徐居正曰 削去則誠如上敎不可爲也。昔漢文帝治覇陵施瓦器德至儉也世祖亦崇儉德故遺命勿作石室莎臺石。然帝王陵寢不可無石室莎臺石繼自今須定制以垂後世。世祖疑英陵有水氣遷葬臣親往審之石室之內器仗如昨。今以補板代石室杵築之時板子撓屈不能固築且易爲腐毁水氣浸灌內潤梓宮外濕三物此無石室之故也。且健元陵顯陵獻陵無屢頹之弊獨光陵易崩者無他不用莎臺石也明澮曰然則廣其墳墓加築黃土何如上曰可。司諫慶俊掌令林秀卿請開洛山舊路又罷禁民漁獵皆不聽。

成宗 9年(1478) 7月 27日(丙戌)
○丙戌御經筵。講訖大司諫安寬厚持平李世匡請開洛山舊路罷禁採海除圓覺寺照刺赤不聽。世匡又啓曰近以大司憲金紐命監圖畫大司憲朝廷綱紀無不統攝不可親莅細事也。昨日府中齊坐以圖畫事命召紐紐獨先出非唯廢事且無朝廷體貌。上曰金紐本爲圖畫署提調且聞工於畫故命監其事。圖畫雖細事亦不可無假令先王御容有改畫處中國使臣有求畫者其無畫者可乎世匡曰臣非以圖畫爲可盡廢也圖畫非關於國家政體不必金紐監其事。上曰禮房承旨足以監其事金紐其勿與焉。

成宗 9年(1478) 7月 28日(丁亥)
○丁亥御經筵。講訖獻納崔潘持平安璿請開洛山寺舊路罷禁採海給還禁陳民田。上謂左右曰何如知事李克培對曰臣未知洛山事盧思愼詳知之。然先王時事何必改之領事盧思愼曰臣於世祖朝扈從見之。其道路近於寺故塞之而開新路然其新路不甚迴遠其陳荒之田亦少。且嶺東地濱大海民之漁採豈必於此寺前乎臣以謂除去百姓之弊小更改先王之事大斷不可變更也。璿曰思愼之言欲使殿下不從臣言也。傳曰澤梁無禁爲僧寺而立標禁漁於國體何如上曰嶺東地濱大海無處而不漁只禁寺前豈害於澤梁無禁之義乎克培曰採海細事開舊路則從臺諫之言何如上曰不可。璿又啓曰再犯竊盜不計贓而處死臣意謂未便。書曰與其殺不辜寧失不經。人命至重固不可輕殺通初再犯贓滿十貫而處死爲便。假令竊一針偸一錢亦以再犯而殺之乎甚乖帝王好生之

德。上曰雖立再犯處死之法可以生則生可以殺則殺予每酌其輕重而罪之。潘曰邇來盜賊寢息若計贓則請依大明律。克培曰再犯處死之法載在大典續錄不可輕改。若盜賊寢息則當依大明律。璿又啓曰大抵守令人皆厭之只緣准期不敍之法着在令甲。故爲守令者到官或數月而辭或數年而辭未幾授京職乞別立法以防規免之弊。且國家重守令之職六曹郎官皆許外敍五品而未經守令者不得陞四品法非不密而率多窺避。請自今依大典到任一年而辭則准五年不敍餘各依到任年月准期不敍敍時還除守令。左承旨朴叔蕃曰守令未赴任而辭者六年不敍赴任一年而辭者五年不敍赴任二年而辭者四年不敍例也。大典云托故者六年不敍。註云除授時復除外官。此法可謂通矣何可指謂到任而授京職乎崔士老嘗爲守令到任二年而辭准四年不敍此其一也。上曰假令爲守令者賢可使而實病則其可不用乎且病之眞僞未可知也雖使醫官診候受彼賄賂以虛爲實何以辨之思愼曰果如臺諫之言近來巧避者多辭職者敍用之時復授外職則不拘於六年不敍之法而用人之道廣矣。上曰守令到任辭職者令吏曹勿授京職臺諫亦當檢覈。克培啓曰中庸或問命臣進講問或中庸便於考閱以此進講何如上曰可。克培曰臣幼而讀之中年牽於治事不能修習。且爲學不可間斷只講於小臣進講之日則慮有間斷之弊令經筵官輪次進講何如上曰中庸或問經筵官誰不知之但欲受學於一人耳。

成宗 9年(1478) 8月 7日(丙申)

……大司諫安寬厚啓曰臣等累請開洛山舊路勿禁採海未蒙允可不勝缺望。海錯非處處有之獨多産於洛山寺前禁之不可。且穿川峴迎曙等路昔以爲近於陵寢而塞之今則皆通獨此路不開臣恐小民將謂殿下之重陵寢不如重寺刹也。此特出於世祖一時之命不可永久奉行也。上曰不然。雖曰一時之事是亦先王朝所爲其可盡革乎金紐曰圓覺寺前亦有大路獨爲洛山塞大路可乎當是時若有諫之者則先王當卽從之矣。上曰先王時無大司諫乎寬厚對曰雖有之人各異心。奉使江原道見此弊者非不多也而臣獨言之此人之心不同故也。前日經筵獻納崔潘啓此事上顧問左右李克培對以不知盧思愼曰雖不開舊路無害其志皆曲。大抵大臣當以直道事君克培思愼豈不知是非者乎孟子曰有事君人者事是君則爲容悅者也。唐太宗嘗至樹下譽其樹字文士及從傍讚之太宗曰魏徵嘗謂予遠佞人而未知佞人爲誰果此人也克培等揣知上意逢迎希合臣竊不取。上謂左右曰何如明澮曰古道亦遠於寺復開無妨。居正亦曰海物有産處有不産處臺諫之言是也。皆不聽。

成宗 9年(1478) 8月 24日(癸丑)

○癸丑御經筵。講訖掌令安處良啓曰殿下崇儒重道排斥異端然寺社之田猶未革去實不快衆心。正言尹喜孫曰寺社有田本爲祝釐也。假使祝釐實是誕妄之事況僧徒將田産以利其身乎可亟還收以充軍資。上問左右曰何如領事金國光對曰寺社之田其來已久。然爲住持者以爲己物僧徒雖有飢餓者不肯分與。請從臺諫之言。喜孫曰僧人收稅之時侵民實多。上曰守令在僧何以侵民爲守令而使僧侵民則惡在其爲守令也喜孫曰如學悅者其强暴莫甚民雖訴之守令亦無如之何。上曰 此等守令觀察使當檢察矣先王時事不可猝革。處良曰典章法度則不可輕改如此之事在所當改。近者請革圓覺寺照剌赤則曰不可請開洛山舊路則曰不可請革僧職則

曰不可今此事亦曰不可一未蒙允臣實缺望。上竟不聽。

成宗 9年(1478) 8月 29日(戊午)

……上曰先王之事豈可卒革今大妃在上而先王所建令盡革之固不可矣。紐曰兩宗圓覺爲陵寢而創建者猶云可也其無香火之祝而空食田稅者固當革之。上曰革則當盡革矣。紐曰盡革者本臣等之願而殿下云祖宗舊法不可改之故請之如是耳。上曰予當斟酌爲之。紐曰若云斟酌爲之則何日而革乎縱曰先王之事不忍改之臣謂先王之靈昭昭于天事之有害者改之則亦必喜之矣。請須改革以示大聖人之所作爲出於尋常萬萬也。司諫慶俊曰臣等若請毁圓覺寺盡誅沙門則固不可盡從如細瑣之事雖或改之大妃亦豈非之乎前者令藝文館抄歷代闢佛疏論以進朝野想望至治今不聽此事何也請啓大妃革之幸甚。上曰卿等之言善矣。然予若迎佛骨則言之宜如此也。紐曰殿下雖不好佛先王好佛之害今猶未除其害與好佛同也。雖大典之法若有害於今則皆盡革之至於僧徒之事每稱先王而不改甚不可也。昌孫曰洛山之禁漁江陵之堤堰皆不可之大者固宜卽罷也。知事洪應曰托云踏破山脈而塞路已爲非矣況海錯何關於寺而禁之耶左副承旨金升卿啓曰宗室歲繁而職田有限每以軍資折給軍資歲減是可慮也。請革寺田給宗親爲便。且功臣田職田已令官收獨寺社田許令僧徒自收使之恣暴其田主獨何罪耶上曰寺社之田豈宜官收應曰功臣田職田官旣稅斂則寺田獨不可官收乎不聽。

成宗 9年(1478) 9月 3日(辛酉)

○辛酉御經筵。講訖大司諫安寬厚執義金春卿等論洛山寺塞路禁海採等事不聽。春卿又啓曰各道寺社田通計無慮一萬餘結請革之以充國用。寬厚曰寺社田臺諫屢請革去不允不勝缺望。上曰予若好佛而創爲之則卿等言之宜矣寺社之田其來已久不宜頓革。僧亦人耳其可使之飢餓失所乎寬厚曰久遠巨刹之田則已矣近來新設寺田亦多此則宜革。上於佛家事大者則以爲不可頓革小者則以爲細瑣而置之然則異端何時而去乎上顧問左右知事姜希孟對曰前朝太祖遺敎不作三寶者論以不孝五百年間專尙佛敎。國中有五敎兩宗我太宗罷五敎只置兩宗寺社有田其來已久不宜革去。寬厚曰朝官給祿以其服勞也僧有何勞而給田耶不聽。春卿又啓曰平安道徙邊人十年免稅十五年復戶故新徙者皆富實。今過十五年或充館軍或爲衙前本道館軍乃他道驛吏也。凡人惡徙邊有甚於死惡館軍又甚於徙邊故徙民皆爲逃散之計。請限安集勿差館軍。上曰可。令該曹擬議施行。史臣曰革寺田以充軍資實國家大計顧問之時爲大臣者當以正論事希孟非徒不能至引前朝崇信之事以沮之實斯文之罪人也。

成宗 9年(1478) 9月 20日(戊寅)

○戊寅御經筵。講訖持平安璿啓曰安仲佐授東班職未便。上問左右正言尹喜孫啓曰昨日沈澮言之盡矣不必更問。知事洪應曰祖宗朝固未嘗用宦族於東班。上曰仲佐已試蔭才不可虛棄其授西班職。璿又論革寺社田及洛山寺禁路禁漁未便皆不聽。

成宗 9年(1478) 9月 29日(丁亥)

○丁亥司憲府執義金春卿等上疏略曰臣等竊觀自古論佛氏之害者多矣。爲國家慮者則曰蠹財惑民爲

彝倫計者則曰無父無君。然其說勝大宏闊張皇禍福自漢迄今經歷數千載瀰漫浸漬誠以道學不明人心不正易陷於宏闊之論易惑於禍福之說而天下風靡矣。今殿下明敎化淑人心扶植斯文排斥異端使斯道之明如日中天。然而寺社之田僧徒之選如舊洛山寺之禁耕獵圓覺寺之照剌赤亦如舊也。是四弊誠聖治之大累臣民之所共憤也。臣等每於經筵力陳不可未蒙允兪不勝缺望。傳曰治人者食於人治於人者食人。則卿士之科田所以報其勞也功臣之賜田所以答其勳也是有其功而食於人者也。彼寺社之田不知報何功也今也有田巨剎四十有三其田九千九百十有餘結其稅則以年分上下之等收之亦不下二千六百餘斛況其上上之稅乎以此養無用四十三寺之僧何補於國家哉備飢荒則可以活千萬人之命供軍需則可以支千萬兵之食。其無益於國有害於民如此而因循不革臣等不勝痛心。殿下若以輕變祖宗之舊爲嫌則臣等竊惑焉。蓋立法貴合乎宜如或不便於民有損於國則雖祖宗之法尙或改之況此寺田乃前朝弊風而本朝特因循耳非祖宗創立之法也。伏望殿下留心焉。臣等聞傳曰惡紫之亂朱以其似是而非也。吾儒與釋敎邪正懸殊不可竝擧而相混也。今國家每於三年考藝竝試兩宗僧徒擬文武科其出身者爲中德爲大帥師爲住持略如吾儒之試選彼自謂儒釋同風豈不痛心哉夫設科本以得人得人欲其致用不識僧徒將何用也況淸淨寡欲佛氏之敎則爲其徒者入名山坐靜室衣衲絶穀乃其事也豈可登科與選以誇耀世間哉是乃大典所不載而無用之弊法也。伏望殿下留心焉。臣等聞傳曰民依於土又曰澤梁無禁則土地漁梁民之所資以生者其不可防禁明甚。古之帝王之治民也猶恐一夫之不獲山林川澤與民共之安有禁民所依防民所資以資釋氏哉江原一道土地磽确民生困窮濱海而居者且耕且漁亦不能自給殿下撫恤視他方尤加軫念。而洛山寺傍近之地土品膏腴又有漁採之利今乃禁民耕墾禁人漁採以絶其所資民生之怨何可勝言且寺北舊路自古通行大道也向者以其路近於寺開新路於高險之地又枉二十餘里其行者之苦又何可勝言臣等竊恐無知之民謂殿下崇信佛敎爲一洛山寺害民如此也。伏望殿下留心焉。臣等聞新羅之季崇奉浮屠塔廟半於閭閻而國隨以亡豈不爲永鑑哉今圓覺寺在都市之中凡民無賴者髡首緇衣率依是寺日肆淫穢。臣等未知照剌赤之設爲其僧歟爲其佛歟以爲僧也則僧乃逃賦之人也游手而坐華刹食精飧亦其幸也豈可使公賤代其勞哉以爲佛也則漢唐以下人主之事佛者非一而未聞以佛力享國者也。梁武之事足爲明鑑其無益於人國家蓋可類推矣。況闕內任掃除者名爲照剌赤僧而役此僭擬莫甚。凡有識者孰不痛心伏望殿下留心焉。

成宗 9年(1478) 10月 6日(甲午)

○甲午御經筵。講訖掌令安處良獻納崔潘啓曰昌原君職牒還給不可事不聽。潘又啓曰臣等前日啓洛山事敎云已令觀察使孫舜孝按考今前監司安寬厚李克基在此請問之。上曰予將問克基。潘又啓曰蒜山堤堰利民實多世祖賜上院寺此亦不可之大者也。上曰先王豈奪民田而與之其時文籍必在戶曹。顧謂左副承旨李瓊仝曰其考以啓。

成宗 9年(1478) 11月 30日(丁亥)

○弘文館副提學成俔等上疏曰……

……至令臣等書歷代闢佛章疏以啓中外欣忭皆謂不世出之主將大有爲之時也。近臺諫將圓覺寺照剌赤佛堂澡豆匠洛山寺移路禁漁及寺社收稅田等事屢瀆聖鑑傳曰祖宗之法難以遽改臣等不勝缺望。所謂注者用之當今而不悖垂之後世而無疑固不可以輕議。然或有妨於政則未免更而張之。況出於先王一時之令而非大典久載之法則改之何難祛之何害臣等請陳其弊。照剌赤是宮禁掃除之人非寺社之所宜有澡豆乃盥類所供之物非髡首之所宜用。今以各司有實之人充異端無庸之徒。然則官府之疲弊人物之憔悴未必不由乎此也。至如寺之收稅是何功也夫國之有田田之有稅所以供朝廷百執事之用而坐使不耕之徒又從而食民之膏血今兩宗所屬寺社之田無慮九千餘結。以此充軍資賑窮乏則可以濟萬民之命無益而耗害公廩莫甚於此也。江原道山川險阻田疇磽瘠年穀屢失豐稔人物易至飢饉。山郡則多賴藜藿海濱則專仰魚鹽雖豐年樂歲未免轉于丘壑人煙鮮少道里窵遠蕭條郵驛不過蝸廬數落而已計一道戶口則反不如下道之大邑計一縣蓄積則反不如下道之富家其殘弊有不可勝言。今以洛山寺之故移曲道路使人馬不堪羊腸之苦禁民捕魚欲以東海爲放生池。學悅又於江陵大開水田雖以新墾爲名其實奪人舊業遠近嗷嗷孰不痛憤夫緇徒身無徭役安坐飽暖亦云足矣而勦絶民生又不得蘇息……

成宗 9年(1478) 12月 12日(己亥)

○上御宣政殿命政丞憲府等入。上謂政丞曰欲示憲府疏故召之耳。仍命左副承旨金季昌讀疏。季昌讀訖上曰疏意可嘉。然其曰好賢之心寢弛納諫之美漸怠其所怠弛者何事耶其曰弘文諸儒上章言事不過空言賜酒慰之耳。予謂弘文館所言頗可用故命饋酒。然事有輕重言有可否何必言言而聽之事事而從之其時以是意書示非徒饋酒也。且任士洪以公主病篤不獲已召之今公主之疾尚未差言官再三請還予命遣之。此則予之失也然非不聽卿等之言也。都承旨超陞嘉靖是亦舊例自今予當斟酌爲之。且臺諫之言亦豈盡從當採而用之耳。不任三公非自今始自先朝然矣。然令政府署事無乃可乎領議政鄭昌孫對曰聖上日三經筵日三問安且從諫弗咈何有過舉不任三公古亦有時而言也。左議政沈澮曰果如上敎。雖臺諫之言安可一一聽之乎且政府大臣凡有大事皆得與聞雖不任事亦無妨也。上黨府院君韓明澮曰臺諫爲王耳目非臺諫則無有言事者。然向者如金彦辛等結爲朋黨幾危朝廷幸賴聖明辨之以此觀之雖臺諫之言不可一一聽之。大司憲李克基啓曰臣等非謂聖上拒諫也。恐將有漸故言之耳。願聖上終始惟一。上曰疏中有云朝啓時只啓刑殺文書而已接見大臣稀罕又不當使中官出納公事也予自大妃歸政之後凡事因循使中官出納頗有漏失故事無大小悉令承旨親啓。其只啓刑殺者是乃承旨之失非予意也。凡事宜皆親啓。沈澮曰細瑣事則不須一一親啓也。持平安璿啓曰往者開洛山舊路革圓覺照剌赤等事屢請不允臣竊謂納諫之美不如前日也。上曰疏中又云朝無廉介之士予居深宮豈能悉知外事乎然朝中豈無一人廉介而擧稱士風不美至曰有君無臣莫如此時也此言大不可。何不指言某某爲貪乎克基對曰臣等非謂在朝之臣盡是貪汚。大抵士習不美故言之耳

成宗 10年(1479) 5月 6日(辛酉)
○司憲府執義金礪石等上箚子臣等竊惟蒜山之田本是居民祖業世祖特給上院寺僧徒。因此侵占民田漁取民力爲吾民害滋蔓矣。民之命脈繫此田土安可以先王一時之恩而永斷吾民百世之業乎奪彼與此瘠民肥僧臣竊病焉貨殖本非寡欲者所事僧徒收斂之際群行里閭索人財産奪人頭畜貽民荼毒甚於猛虎臣竊痛焉僧弘智者假威學悅號稱知事管幹艷陽名曰稟庫如撤人家奪民耕抑換陳荒立標禁代毆打衣冠子弟等事則盡是剝民罪該杖百還俗。而凡民則斷之以律弘智則減贖其杖臣竊惑焉。老僧學悅夷居上院乃於艷陽洛山等寺分置弟子廣占農庄務植貨財而僧徒驕逸皆由學悅。在所當推而特命勿推臣竊惑焉。臣等伏願民田之還私債之禁弘智之罪學悅之推一依所啓以快輿望。

成宗 10年(1479) 5月 8日(癸亥)
○司諫院大司諫成俔等上箚子曰臣等伏聞司憲府近將僧弘智等不法事照律以啓殿下不置於法末減其罪所奪民田仍舊還給臣等不勝驚駭。夫僧之爲道離世絶俗以清淨寡慾爲業。今弘智等於洛山近處別開農庄奪人土田撤人家舍以至私債收斂之時橫行閭里搜索民財作弊多端。此雖弘智所爲悉皆學悅所使僧道果如是乎如此不法之事初若不知則已矣今旣遣官推覈情迹現著而猶且容貸則臣等竊恐賞罰無章而民不知所措矣。伏望裁自聖心依律斷罪其奪占田民收還本主勿令殖貨以厚民生。不從。

成宗 10年(1479) 5月 27日(壬午)
○御經筵。講訖大司憲朴叔蓁啓曰尹弼商家使義禁府羅將督納私債以致殺人。義禁府號爲王府其衙門羅將但率行而已安有私使之理其時弼商雖入中朝必有家長請罪之。前者尹子雲家於赴京之行附布事覺其時子雲亦入朝不知故但坐其妻。知事李克培啓曰家人有罪而罪及家長宜也以婦人爲家長而科罪前未之聞也。上曰政丞不知則不可罪也。又豈可以此而罪其夫人乎叔蓁曰近者有一二宰相務殖貨財一不見敗馴至政丞累作家舍傳之子孫以此人相倣效。古人云上有好者下必有甚焉者。今殿下旣罷本宮私債盛德事也。請幷革民間私債。領事鄭昌孫啓曰貧民之所以聊生以有私債也。世宗嘗欲革之而未果私債不可革也。叔蓁又啓曰以私債之故洛山寺僧弘智橫行閭里奪人頭畜本府照律以啓學悅命勿論弘智只贖。且其賜田之時官吏等偏聽學悅之言限外民田竝令給之民懷忿心久矣。請還本主以解民怨。昌孫曰果如限外之田多則推還本主爲便。上曰先王之事如此遽改可乎叔蓁曰只還限外之田則先王賜給之義猶存而吾民之怨庶解矣。上曰予當斟酌。

成宗 10年(1479) 6月 7日(壬辰)
○壬辰御經筵。……
……尹慤又啓曰蒜山之田雖先王所賜當初賜之之時守令等見脅於學悅多所濫占是豈先王之本意耶民之忿怨固已久矣。上曰民之忿怨久矣而其時未得申訴何歟昌孫啓曰自金鍾之死由學悅而江原道內凡有血氣者垂首喪氣畏之如雷霆誰敢違學悅而上達哉右副承旨蔡壽啓曰臣父嘗宰于江原道臣於歸覲時見上院洛山間越險數重相距甚遠。凡輸材轉石皆役居民其民黽勉從事不敢告勞其爲學悅之所刼可知。上曰:堤堰與民田相距更考

其道啓本以啓。……

成宗 10年(1479) 6月 14日(己亥)

○傳曰蒜山堤堰內侵奪民田欲還其主久矣。然先王所賜且恐一與之後民或侵占寺田故未果耳。今年則業已付種其自明年還給民田。如有因此侵奪寺田者聽僧狀告科罪。史臣曰學悅居洛山寺縱惡無顧忌强奪蒜山堤傍民田莫敢誰何民有訴冤者上遣官案問別寺田民田以聞乃有是命。然學悅奸黠有氣勢請託交行竟不與民田。

成宗 11年(1480) 2月 11日(辛酉)

○夕上御宣政殿引見承旨經筵官敎曰……

……上曰先王所創不可遽撤。侍讀官曹淑沂曰先王成憲固當遵守如此事不可法也。檢討官鄭誠謹曰臣等近以洛山寺福世菴等事屢煩天聽而未蒙允許甚缺望。上曰爾等所言誠是矣。然欲絶根株則必盡誅僧徒而後可。今無度牒僧人悉令還俗如此不已可以絶之矣。倪曰世宗不崇佛法末年頗崇信顧殿下愼終如始。上曰爾言是也。講罷夜已二鼓矣

成宗 11年(1480) 8月 6日(癸丑)

○司憲府掌令李仁錫來啓曰世祖大王特給洛山寺奴婢而無永傳之命故今方推刷子枝而殿下始命傳于永世不可。且魚有沼等不可不窮推以釋人疑也。皆不聽。

成宗 11年(1480) 8月 10日(丁巳)

○司憲府大司憲鄭佸等上箚子曰臣等竊謂奴婢世傳之法古昔所無吾東方自箕子受封以來始有奴婢以世傳焉無非所以明尊卑辨貴賤成禮俗也。至于麗季廣建寺社仍賜土田臧獲寺社之有奴婢始於此矣。惟我太宗大王收土田以補軍需。籍臧獲以屬公賤誠萬世一大幸也。聖聖相承至于今日殿下天性聰明聖學時敏一國臣民皆知不惑於異端也。頃聞洛山寺奴婢賜牌無可傳永世之語故推刷都監請以子枝屬公上可之因其寺僧之訴特許永傳世祖初以奴婢屬于洛山寺而賜牌無永傳之語必有以也。柰何判下之墨未乾遽以僧人之言改其成命乎先王之賜如其非道雖改之未爲不可。況賜牌無永傳之語而使之永傳可乎特垂睿斷亟收成命。不聽。

成宗 11年(1480) 8月 20日(丁卯)

○丁卯御經筵。講訖執義李德崇獻納金成慶啓曰洛山寺奴婢其初賜給之數已多竝其子枝永傳之可乎上曰先王賜給欲其永傳也豈可奪其子枝乎德崇等曰如或子枝繁息至于千百其亦永傳之耶上曰予更商量。……

成宗 11年(1480) 8月 24日(辛未)

○辛未御經筵。講訖掌令李仁錫獻納金成慶啓曰洛山寺奴婢不宜永傳。上曰徐當有以處之。

成宗 11年(1480) 8月 25日(壬申)

○壬申御經筵。講訖大司憲鄭佸啓曰洛山寺奴婢特命永傳。先王革寺社奴婢而今若如此則施納奴婢恐從此始矣。上曰:臺諫之言慮其漸也。予當斟酌而處之。……

成宗 11年(1480) 8月 26日(癸酉)

○御經筵。講訖執義李德崇正言劉瓚啓曰洛山寺奴

婢不可幷子枝永傳也。二十年方成正案若已成籍則恐難更改。上曰知道。

成宗 11年(1480) 8月 28日(乙亥)
○御經筵。……成慶權任又請改洛山寺奴婢可傳永世之語上曰予當斟酌爲之。

成宗 11年(1480) 9月 4日(辛巳)
○御經筵。講綱目續編至遼道宗給寺奴侍讀官李世匡啓曰遼主之事大不可。請洛山寺奴婢勿使永傳。講訖司諫李世弼掌令李仁錫啓曰先王雖給洛山寺奴婢非永傳也。今特命永傳此甚不可。上曰吾當詳思處之。……

成宗 11年(1480) 9月 5日(壬午)
○御夕講。講孟子至子路人告之以有過則喜侍講官安琛啓曰上下交而德業成者猶天地交而萬物成。君之於臣固當大包容之量而絶驕吝之心臣之於君亦當盡忠告之誠而無諂諛之失然後可以成其治功矣。帝舜之樂取人大禹之拜昌言子路之喜聞過者皆能勇於自修而絶驕吝也。今洛山寺永傳奴婢之命是大謬擧也。大臣言之而曰商量。臺諫言之而曰商量。迄無成命願殿下勇於從諫卽改永傳之命。上曰予審思之永傳之命不可改也。都承旨金季昌曰琛非欲盡奪其奴婢而言也。欲改永傳之旨也。上曰其子枝後若繁盛則當有以處之矣。仍問僧人有出入都市者乎琛曰有度牒者稱爲見父母橫行閭閻且兩宗圓覺寺在國都中故僧因緣往來者多矣。請令司憲府定兩宗及圓覺寺居僧之額如有數外僧徒橫行都中者一禁可矣。上曰臺官得人則僧徒自戢矣不必別立新法以禁之也。……

成宗 11年(1480) 9月 24日(辛丑)
○司憲府掌令李仁錫請改洛山寺奴婢永傳之旨不聽。

成宗 14年(1483) 8月 21日(辛巳)
○御經筵。講訖大司憲孫舜孝啓曰臣聞修理宮闕以僧徒二千赴役准一朔給度牒。在先朝修營楡岾洛山兩寺度僧六萬而軍額太減。殿下不信佛道禁人爲僧還俗者日多故軍額稍敷。今命度僧二千是國家失精兵二千也。雖不度僧水軍正兵彭排隊卒赴役者不爲小矣。請勿役僧徒。上問左右領事尹弼商對曰宮闕修理不可不急工役重大僧軍不可不役也。上曰天氣將寒欲廣聚役卒以畢其功。今雖度僧曾係軍籍者固不得來赴矣。舜孝曰如不得已其曾受度牒而年未五十者竝令刷出赴役滿一朔則以給禪師大禪師職牒。如是則僧不加多而無損於軍額矣。上曰近日用坊里人助役於功役頗有利。僧軍不可不用也。

成宗 15年(1484) 12月 17日(庚午)
○庚午上以大妃之命敎曰官差往檜巖寺侵毒僧徒使不得安處皆已逃散。憲府曾請招問策辨予許之因此而然歟官差不得上寺之法有之其問以啓。仍敎曰今後奉先檜巖龍門正因水鍾開慶上院洛山及淨業院福世菴演窟等寺令內需司主掌檢察。史臣曰內言不出外言不入可也而大內深邃之地異類之言亦得入焉。甚矣邪說之易肆也且禪敎兩宗禮曹主之大典之法也今令內需司檢察何也

成宗 23年(1492) 1月 17日(戊子)
○御經筵。講訖…… 謙曰江原道人物鮮少而有如金剛山五臺山寺刹甚多所居僧徒不知其幾若以此充軍豈不有益乎益貞曰江原道人物凋殘僅一萬二千餘戶擧一道之民不敵他道一巨邑。此無他爲僧者多故也。謙曰江原道軍需至少不可不慮也。洛山楡岾等寺國家給食鹽其數甚多以此貿穀補軍需豈不足用且洛山寺私鹽盆亦多不須官給也。益貞曰誠如謙所啓以應給洛山等寺之鹽貿穀以裨軍需可也。上曰自祖宗朝給之已久今不可遽革。禮堅曰爲僧者但書四祖呈兩宗由是多僞須令受本官無役公文方給度牒則爲僧者必不多矣。且僧徒雖持僞牒守令何以知之其令禮曹考楡岾修理都監度牒成給年月移于諸道則可辨其眞僞矣。上曰可。且官差雖不得上寺然僧徒必有下山之時此時推刷則無牒之僧可得矣。謙曰大抵江原諸邑不産大口魚惟杆城一邑獨産故諸邑不能自備皆貿易以進請以所産之物定貢。益貞曰本非不産也産不多也故高城杆城通川等官貿於永安道平海江陵蔚珍等官貿於京中。上曰無乃已問於諸道而定貢乎魚不産於安邊故亦減之矣。其更考産不産。

成宗 23年(1492) 1月 29日(庚子)
○御經筵。講訖…… 上曰今不修宮闕創寺社僧何由出度牒洛山事予未及知然先王朝受度牒者今必不在監司守令點檢度牒考其年歲察其容貌則可知眞僞上之所爲下必效焉。予旣不尙異端公卿以下其好尙必同雖有度牒之法無傷也。持平劉璟曰今之爲僧者非惑於禍福之說欲其修道皆避軍役者也。

燕山 2年(1496) 1月 1日(庚辰)
○下內需司單子于承政院仍傳曰楡岾洛山給鹽之敎有先王親押今不廢也。雖云續錄不載必其時以此條不更啓稟而不錄其令依舊施行。承旨等更啓比此事不載續錄今若給之則後必爲例。且鹽亦出於民力不宜枉費也。內需司若奴婢及穀食等事則可直啓今取僧人狀告不關白政院奈事體何……

燕山 2年(1496) 1月 4日(癸未)
○弘文館典翰金壽童等書啓臣等聞內需司啓請楡岾洛山兩寺給鹽。臣等以謂煮鹽功重勞民力以煮而橫費於遊食之徒非王政美事特出於世廟一時私恩耳。成宗取累朝受敎可行者與大臣商確以成續錄而不載兩寺給鹽之條不可以宜竪擅啓輕變大典。請治擅啓之罪永遵成憲。傳曰觀今之勢使人主不得措手足而下之人皆欲任便自爲耳。此事有先王親押不可廢也。且內需司在成宗朝凡事皆直啓不由政院矣。壽童等又書啓臣之於君遇事輒言納於無過之地是敬君也。如漢唐之季閹寺恣橫專制朝政使人主不得有爲然後方可謂之不得措手足也。大典續錄成宗與大臣講劃酌定以遺後嗣而賓天未幾宦寺擅自上聞以撓成法罪不可赦。內需司雖有直啓之例如所管穀布出納等事猶之可也毁先王之法以橫費一百三十斛之國鹽豈內需司所得擅也此實宦竪干政之漸在所痛治。且給鹽雖有世廟御筆成宗不載續錄豈無謂歟世祖亦嘗歲給米于楡岾寺而成宗革之不疑此正殿下所當法也。不聽。

燕山 2年(1496) 1月 10日(己丑)

○司憲府持平李世仁再論洛山給鹽不便及內需司擅啓不可事仍啓命築開城府韓山郡城子于今春。國家前因國恤重以三天使之來民力甚困。今擧此役則是重困之也。今雖始役至三四月尙未訖功將恐民之不得耕耘矣。城子國家大事雖不可廢俟秋築之何如傳曰築城事依所啓。

燕山 2年(1496) 1月 12日(辛卯)

○持平李自堅正言柳世琛啓楡岾洛山等寺給鹽事金孝江不由政院擅啓甚不可。故本府今方緘問矣。傳曰雖臺諫何以不言而擅鞫近侍人乎然則臺諫任自爲之何必啓之自堅啓江原道土瘠民貧煮鹽功重。可以軍需救荒之資移給游食之徒也。孝江則將欲問之非已鞫之也。傳曰給鹽事及孝江推鞫事皆不可聽也。自堅啓宣陵寺供佛事小祥齋事累啓不納。今啓給鹽不可而固拒外間聞之則無乃以殿下爲好佛乎且請鞫金孝江。不聽。……

燕山 2年(1496) 1月 13日(壬辰)

○大司憲李諿大司諫李仁亨等啓臣等論楡岾洛山兩寺給鹽金孝江不報該曹擅啓等事敎云非宜寺弄權臺諫實弄權也。人臣弄權罪莫大焉。臣等不敢安然在職請避嫌。不聽。……

燕山 2年(1496) 1月 16日(乙未)

○掌令徐山甫正言柳世琛啓命臣等就職故退而治事。然楡岾洛山給鹽金孝江擅啓之罪事之大者不得不啓。不聽。

燕山 2年(1496) 1月 19日(戊戌)

○戊戌御經筵。侍讀官成布顔成希顔、檢討官權鈞論洛山、楡岾兩寺給鹽不可事不聽。

燕山 2年(1496) 1月 20日(己亥)

○己亥御晝講。侍讀官金詮典經成重淹論楡岾洛山給鹽事、不答。

○持平李自堅論啓兩寺給鹽不可金孝江擅啓之罪不聽。

燕山 2年(1496) 2月 1日(己酉)

○朔己酉臺諫合司啓兩寺給鹽之非金孝江擅啓之罪不聽。傳于承政院曰予聞臺諫有庭立之時今亦然乎承旨等啓諫若不聽則庭立其來尙矣。至成宗朝亦有之。近臺諫只詣闕論啓而已。傳于臺諫曰予聞臺諫庭立論啓近以李胄之言別設處所無乃坐其中而言事歟臺諫啓臺諫庭立古也。但詣闕不庭立亦久。故臣等詣闕或處司鑰房或設帳幕。若啓事時則出庭中啓訖則退以待命。傳曰書云上刑適輕下服下刑適重上服。今孝江之事不可罪也。

燕山 2年(1496) 3月 4日(壬午)

○壕承善世謙克墩俊世佐季仝自新孝孫世明議楡岾寺刹雖內需司所管其例受鹽該曹旣據法勿給。孝江聽僧人之言敢爾擅啓不當。許琛議洛山等寺歲給鹽成宗朝不錄于續典戶曹亦已受敎不給。金孝江不由政院直達上前此非擅啓而何自古宦官之權必自微始其漸可畏。臺諫之言不可不從。傳曰孝江非擅啓也因先王賜牌而請給有何罪乎若欲鞫之則政府當自鞫之予不可鞫

也。世謙等啓雖有先王賜牌若內需司奴婢穀食等事則直啓宜矣。朝廷經費非宦寺所知。且凡啓事必由承政院。孝江累朝侍從非不知之而率意直啓不可。傳曰孝江因故事以啓是何罪乎世謙等更啓雖曰故事該曹旣啓請勿給而孝江乃敢直啓烏得無罪孝江功臣也其罪則在上裁耳其情則不可不鞫。傳曰宦官若有薦拔朝士等事則固可罪之孝江因故事以啓有何罪乎尹壕語世謙等曰孝江雖似有罪上意如是何敢强啓世謙啓若薦拔朝士敢干國政者則非獨宦官而已雖朝士固可罪之。況宦官常侍君側易於進言故率意直啓其弊甚大。此臺諫所以强執不已也。臺諫立庭今已累月。久廢司事新授守令等亦權除署經而赴任此以孝江之故廢國法也。殿下雖曰無罪豈眞無罪乎傳曰予已知之其各退去。

燕山 2年(1496) 4月 20日(丁酉)

○丁酉御經筵 大司憲李季男……季男曰先王之法固當守而勿壞。然政有沿革可守則守可革具革。請聽僉議亟命盡除。碩輔曰前者洛山給鹽事已行移而因孝江之啓復之。如此弊事皆以爲先王所爲而不革可乎

燕山 2年(1496) 9月 19日(壬戌)

○壬戌御經筵。…… 典經權敏手曰金孝江曾於洛山等寺擅啓給鹽罪固大矣。殿下不治故今又以攸司斷決。奴婢不由政院擅啓判下宜加大罪。舜孫則罪狀未著而斷之如彼孝江罪狀明白而置之勿論臣等缺望。特進官安處良曰臣爲江原監司的知此事。鹽本爲救荒設也而洛山等寺所賜至百餘碩故卽移報戶曹戶曹申聞特令勿給而孝江擅啓還給其罪大矣。王曰寺刹給鹽實爲無益之事。然先王朝事不可遽革故還給也。濱曰殿下闢佛之敎臣僚莫不忭賀而洛山之鹽尙且因循請更商量。王曰先王朝故事不可一朝遽改。濱曰宜茂已令推鞫尹慤亦不可不鞫而其加資亦當改正。王曰慤之罪較之宜茂則輕矣然幷鞫之。加資則不可還收也。濱曰若曰已成之命而不改正則不可也。有罪無功而加之以資此不可之大者也。處良曰臺諫之言是也。其初擢慤爲憲長者欲聞正論而慤不供職事還收其資當矣。王曰慤不以立廟爲非者直言其情耳。但毁正論故已命鞫之然其資不可還奪也。敏手曰金孝江事請聞發落。王曰予當商量言之。

燕山 2年(1496) 9月 24日(丁卯)

○丁卯御經筵。…… 光弼曰他餘財用等事雖不由政院可矣若奴婢大事何可不由政院乎自古宦寺皆因小事寢成大事其漸甚微其禍甚大。殿下於前日洛山給鹽時不治其罪故如此大事皆得自擅誠非細故也。速推鞫以杜其漸。王曰此非使參政事也自祖宗朝已有前例。……

燕山 2年(1496) 11月 28日(辛未)

○持平姜叔突正言趙元紀啓金孝江推鞫事命棄之。孝江於前日洛山寺給鹽事已負大罪只令杖六十收贖而不痛懲故其心不悛。今又作大罪而殿下亦棄之臣等未審上意請依律科斷。且盧思愼父子相避事有在下當避之法。今以其子之故而遞父之職於義何如不聽。

燕山 2年(1496) 12月 10日(癸未)

○癸未御經筵。……

宗元曰前日洛山之事可以懲矣今尙不懲。又犯大罪豈可末減侍讀官金詮曰雖有前例此事與錢穀出納異請從臺諫之言。王曰是以加罪耳。檢討官宋欽曰法與宦寺較之則自有輕重。惜一宦寺輕改公共之法不可。詮曰以杖一百徒三年之罪減之至此甚不可。王曰雖云有罪固無情實而臺諫侍從言之故減等罪之耳。宗元曰凡八議之人雖減一等亦所以厚待之也不宜減之如此也。且盧公弼事雖有前例請須改之以救後弊。不聽。

燕山 2年(1496) 12月 11日(甲申)

○司憲府上疏曰臣等以謂……去歲內資官吏之罪用善得以擅啓而無刑譴洛山等寺之鹽孝江得以請賜而加寬典孝江安所懲艾而不敢恣乎殿下卽位以來欲臻至治而左右群竪恃恩專恣一至於此臣等不勝失望……

燕山 2年(1496) 12月 13日(丙戌)

○丙戌御經筵。王問曰……衰曰此豈過誤前日洛山寺事臺諫極諫然後只加杖六十。其時殿下必以謂足懲其惡。然今又爲此事其罪斷不可輕。前者憲府推鞫時孝江多爲不恭之言以凌辱之。尋敎曰…… 王不答。

燕山 3年(1497) 1月 5日(丁未)

○大司憲丘致崑…… 孝江前此擅啓洛山寺給鹽之事以試殿下殿下不深治之。故今又擅立僞法是乃怙終賊刑者也可謂無情乎…… 不聽。

燕山 3年(1497) 1月 7日(己酉)

○大司憲丘致崐司諫崔溥合司啓旣以孝江之啓爲非而不用則殿下已洞照奸僞矣。前年洛山寺給鹽事旣不懲戒故又作大罪請速科罪。……不聽。

燕山 3年(1497) 1月 15日(丁巳)

○丁巳掌令李守恭啓孝江前此檢岾洛山之事不痛繩以法故無所懲艾復犯大罪。今若不置重典則諸宦效尤末流之弊不可勝言。曺疹孝智之犯比孝江則輕成宗無所寬貸請以成宗爲法。傳曰論諫累日而不聽者以其不可聽耳。凡言事不得蒙允必曰缺望甚非治平之事。……

燕山 3年(1497) 3月 16日(戊午)

○臺諫合司啓……存命仲敬敬生孝江輩亦霑殊渥位至崇品。此何等孤雛腐鼠竊聖上待賢之公器耶況孝江外示曲謹中藏奸巧殿下欲衰佛氏之敎而詐給洛山之鹽。殿下欲興凋弊之郵而矯奪奉安之隷再犯欺罔之罪死有餘辜。不置大辟反加優秩臣恐誤殿下者必此老奸而宦官之盛自此始矣。……

燕山 3年(1497) 7月 16日(乙卯)

○乙卯御經筵。……謙曰本道民生艱苦煮鹽於海以資其生。反使此民奉獻鹽於寺僧徒倍數責納民甚苦之。如洛山寺僧能自煮鹽又何給之成宗朝欲革此弊大臣以謂先王朝事不可更改。故遂寢其議今則可革也。貴達曰臣嘗爲本道監司其弊果如謙所啓今不可納鹽於寺。若不得已則使之自收於民間豈可令民輸納乎臣聞學悅托爲佛事囑監司請以緜布散給民間責貿油蜜監司承順分定諸邑令民輸納于學悅。如此等事不可勝數。以故民間尙未蘇復。今此納鹽雖非如荏蜜督納之比蓋寬民一分則民受一分之惠請須革之。不答。……

燕山 4年(1498) 1月 4日(庚子)
○庚子大司諫金永貞執義李惟清等啓……況金孝江城府深密奸巧有餘是秦之趙高漢之恭顯也。曩者洛山之鹽奉安之隷擅啓予奪欺君罔上死有餘辜反授優秩不次超陞天命有德之意亦安在哉……

燕山 7年(1501) 2月 12日(甲午)
○甲午議政府啓咸鏡道漕轉至甚難也。大抵全羅道漕轉則海中島嶼多故雖遇風依舶可免覆船之患。然今慶尙之穀欲運於咸鏡則必由江原大洋之中無島嶼可依少有遇風船必敗覆。前者楡岾洛山寺創成時運用慶尙之粟而敗船者不可勝數此明驗也。傳曰其停之。

燕山 8年(1502) 8月 12日(辛亥)
○辛亥御經筵。大司憲金永貞曰掌令金晋錫曾經高城郡守。常言江原道土瘠民貧而月精洛山楡岾等寺一年所給食鹽二百餘碩使民輸納。若欠本數則奪民衣笠甚者至奪牛隻侵責不少。請蠲減。若不得蠲減使僧徒受去則民不困矣。……

中宗 8年(1513) 11月 19日(癸未)
○先是洛山寺田在宜寧慶順公主以例賜田受之厥後寺奴命同申訴云有王牌寺社田不當屬公。至是戶曹請依禮曹關有王牌田地勿令屬公仍舊給寺。從之。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세종대에 편찬된 지리지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조대부터 시작하여 1477년에 양성지 등이 완성한 팔도지리지에 우리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詩文)을 첨가하여 성종 12년(1481년)에 왕명으로 노사신, 양성지 등이 명나라의 '대명일통지'를 참고하여 총 50권으로 완성한 인문지리책으로 우리나라 각 도의 연혁, 풍속, 무덤 및 사당, 관청, 토산품, 학교, 성곽, 산천 등과 역대의 이름난 사람들의 기문(記文), 단군 신화 등이 실려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성종 16년(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연산군 5년(1499년)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에 의해 2차에 걸쳐 교정과 보충이 이루어 졌으며, 중종의 명에 따라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均) 등에 의하여 중종 25년(1530년)에 동국여지승람을 새로 증보하여 만든 조선 전기의 적국지리지로서 총 55권에, 내용은 각 도의 연혁과 관원을 개괄한 후 진관 소속별로 목·부·군·현의 건치연혁 및 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봉수·궁실·누정·학교·역원·창고·불우·사묘·능묘·고적·명환·인물·우거·효자·열녀·제영 등의 조목 아래 해당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술했다.

본지에 첨부한 부록 물에는 동람서(東覽序)와 제1권 경도상(京都上) 중 단묘(壇廟)편 양양동해신묘(襄陽東海神廟)의 기록 부분과 제44권 중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편과 제45권 고성군(高城郡)편 중 양양김씨(襄陽金氏) 기록이 있는 성씨(姓氏)편만 복사 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輿地勝覽箋

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經筵事監春秋館事弘文館
兼領
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
臣 李 荇
資憲大夫吏曹判書兼同知
經筵春秋館事藝文館提學 世子右
副賓客 臣 洪 彦弼 等奉

旨撰新增東國輿地勝覽訖謹繕寫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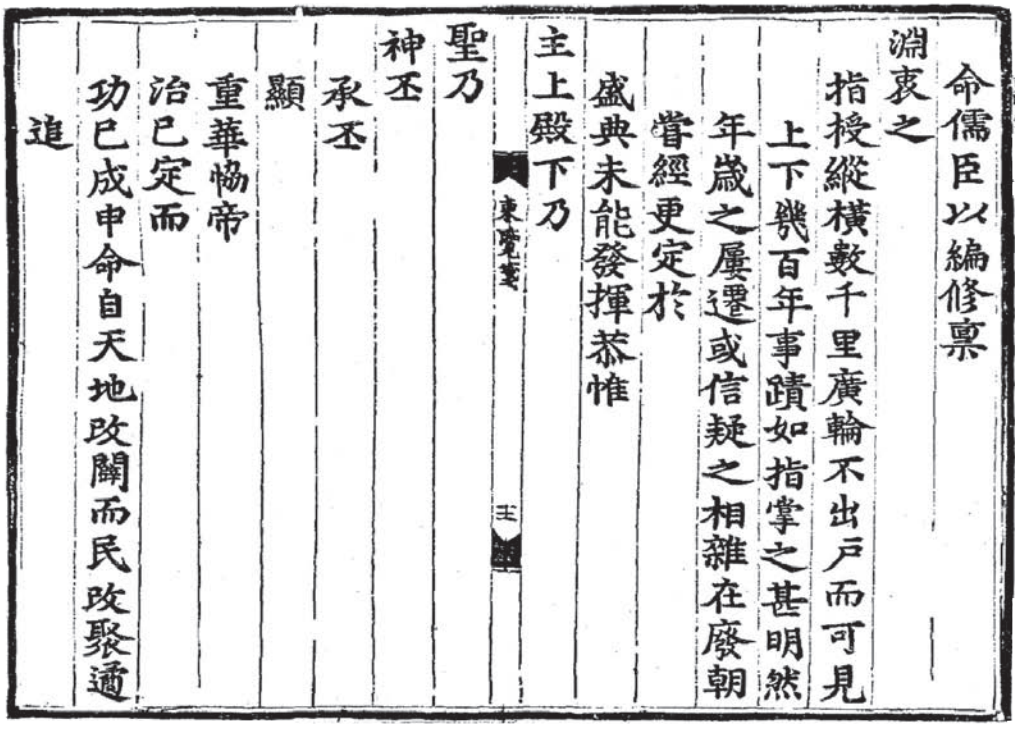
進 臣 荇 等誠惶誠恐稽首稽首

上言伏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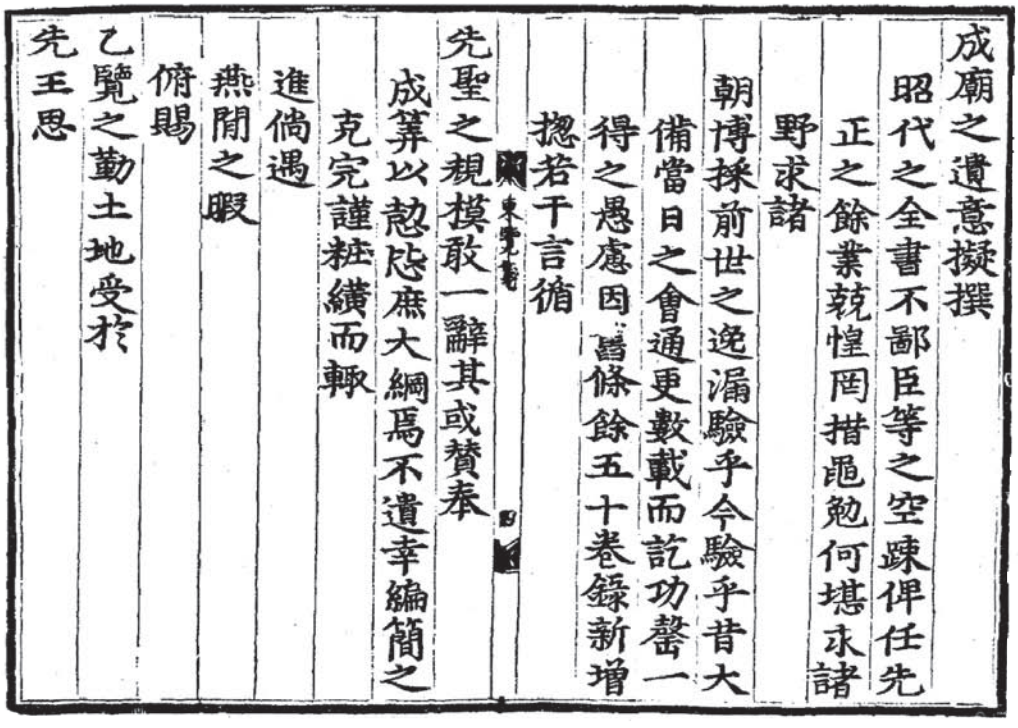
聖繼
神承幅員極四方之廣風移俗變畫籍隨
一時之宜既有作之於前可無述而
於後匪今伊始振古皆然禹貢成篇
載續唐虞之典周官分職寔纘文武
之謨于前世而有光固後人之當法

雖或因或革之各異亦所損所益之
可知念我
朝鮮爲邦肇自箕子作教山川形勝佳
哉鬱鬱而葱葱禮樂文章煥乎彬彬
而郁郁厥後離合之不一而致變更
之無常逮我
太祖之作興復茲隆古之疆理自東西南
北之遠盡入於版圖暨鳥獸魚鼈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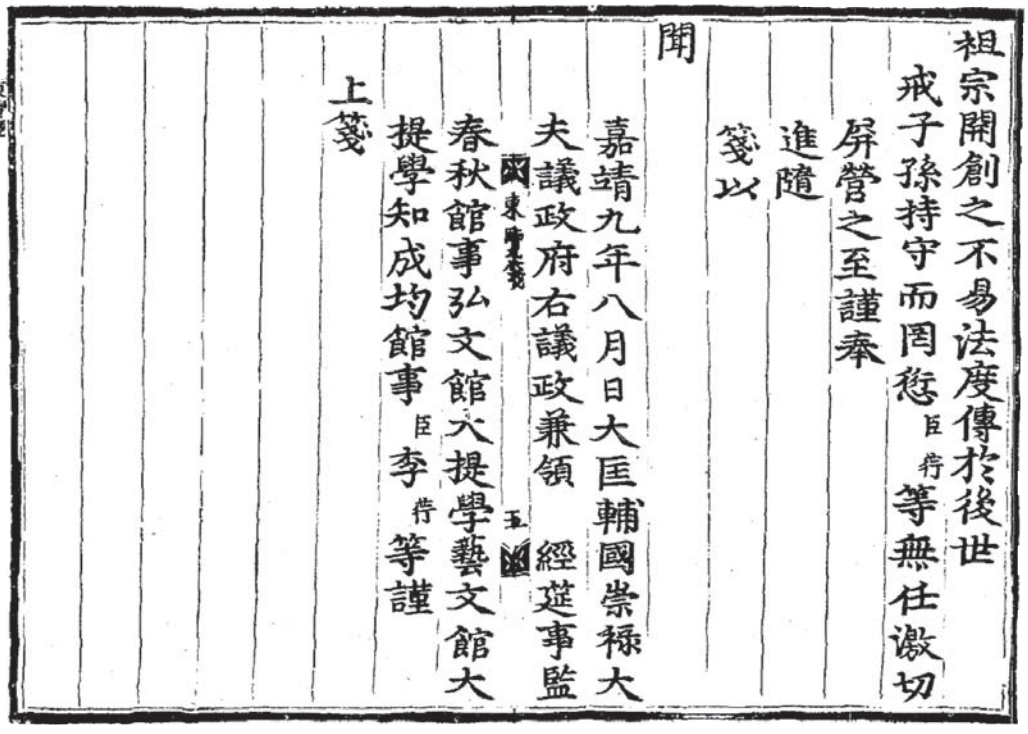
微咸若乎
風化顧
國乘之無著乃
列聖之未遑惟我
成宗康靖大王
道合先天
志存稽古謂欲垂示於來世曷若表章
於當時



命儒臣以編修稟
淵衷之
指授縱橫數千里廣輪不出戶而可見
上下幾百年事蹟如指掌之甚明然
年歲之屢遷或信疑之相雜在廢朝
嘗經更定於
盛典未能發揮恭惟
主上殿下乃
聖乃
神丕
承丕
顯
重華恊帝
治已定而
功已成申命自天地改闢而民改聚遹
追



成廟之遺意擬撰
昭代之全書不鄙臣等之空疎俾任先
正之餘業兢惶罔措黽勉何堪永諸
野求諸
朝博採前世之逸漏驗乎今驗乎昔大
備當日之會通更數載而訖功罄一
得之愚慮因舊條餘五十卷錄新增
揔若干言循
先聖之規模敢一辭其或贊奉
成算以恝怨庶大綱焉不遺幸編簡之
克完謹粧潢而輸
進倘遇
燕閒之暇
俯賜
乙覽之勤土地受於
先王思



祖宗開創之不易法度傳於後世
戒子孫持守而罔愆臣行等無任激切
屛營之至謹奉
進隨
箋以
聞
嘉靖九年八月日大匡輔國崇祿大
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
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
提學知成均館事臣李行等謹
上箋

新增東國輿地勝覽序

東國輿地勝覽我
成宗大王朝所纂集也
成宗大王以緝熙之學乃於萬機之暇留
意輿地圖誌
命宣城府院君盧思愼等撰次爲書首
自京都下及諸道沿革之有異風俗
之不同尊而

廟社陵寢嚴而
官闕官府學校是教養之地土産乃衣
食之原論人物則孝子烈女爲之綱
語形勝則城郭山川爲其要以至樓
亭寺社驛院橋梁名賢事蹟騷人題
詠纖細微隱靡不備錄雖歷代之久
四境之遠一開卷而瞭然如指諸掌
寔一國之勝覽而

列聖之所未遑也蓋出於周官體國經野
之法度而郁郁乎文哉其在廢朝更
令撰修頗有增損遺至末年立私藏
之禁是書之在於民間者無幾矣恭
惟
主上殿下性稟生知運值中興文明之治
有光前昔念惟是書之修於廢朝者
或有未盡而敝政之未多爭紛更其

沿革之由亦不可使無徵遂
命儒臣撰爲續編証訛補漏而又令臣
行
監掌其事祗奉
教旨不勝惶悚開局設員刻期責成凡
事之有疑而不可闕者必用文移往
復故再閱歲始克就緒嗚呼以臣等
愚魯雖於京都之內耳目所聆覩者
尚或有所脫誤況在四方遠或數千

里之外欲盡以文移爲定不亦難矣
乎謬妄之罪無所敢逃雖然
聖念所及豈區區於事爲文字之末哉於
廟社則思敬而致如在之誠戒後嗣不敢
慢於
宮闕則思安而念肯構之勤使後世無
以加覽土地之廣則思受之於
先王而慮一物之不得其所見物產之夥
則思出之於民力而以四方惟正之
供觀人物之盛則思
祖宗培養之功而政不可以徒行覩山川
之壯則思歷代興替之跡而險不足
以終恃思之又思以至纖微無不皆
然損之益之與時宜之則是編之撰
於
聖明之政亦不可謂無萬一之補云嘉靖

九年庚寅八月上澣大匡輔國崇祿
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
監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
大提學知成均館事臣李 荇 拜手稽
首謹序

奉
敎修新增東國輿地勝覽官員職名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經筵事 藝文館 弘文館 春秋館事 臣 李 荇
正憲大夫行同知中樞府事兼 春秋館事同知 經筵事 世子左賓客 臣 尹殷輔
資憲大夫戶曹判書兼 世子左副賓客 臣 申公濟
資憲大夫刑曹判書兼同知 經筵春秋館事 藝文館提學 世子右副賓客 臣 洪彦弼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副摠管 臣 李思鈞
嘉善大夫吏曹參判 臣 黃孝獻

折衝將軍行龍驤衛大護軍 臣 李希輔
折衝將軍行義興衛護軍 臣 鄭士龍
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兼 藝文館敎 臣 沈彦光
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兼 藝文館校 臣 沈思順
通訓大夫承文院判校兼春秋館編修官漢學敎授 臣 尹漑
奉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敎兼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臣 元繼蔡
奉正大夫守掌樂院正 臣 魚承濬
通德郎守成均館司藝兼承文院校勘 臣 蔡世英
儀俌將軍行虎賁衛副護軍 臣 尹漵
奉大夫行吏曹正郎 臣 李億孫
奉直郎守議政府檢詳 臣 洪敍疇
奉直郎守吏曹正郎兼承文院校理 臣 黃恬
承議郎守司憲府持平 臣 李仕
承訓郎守承文院校理 臣 朴光佑

進東國輿地勝覽箋

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
輔國崇祿大夫宣城府院君兼領
經筵事 臣盧思愼 推忠定難翊戴純誠明
亮佐理功臣崇政大夫議政府右贊
成兼知 經筵事五衛都摠府都摠
管晉山君 臣姜希孟 純誠明亮佐理功
臣崇政大夫達城君兼弘文館大提

學藝文館大提學知 經筵春秋館
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臣徐
居正 正憲大夫知中樞府事 臣成任
通
政大夫禮曹參議 臣金自貞 等奉
旨撰東國輿地勝覽訖謹繕寫投
進 臣思愼 等誠惶誠恐稽首稽首
上言伏以
覽

聰明作
元后
端膺曆數之歸惟土地
受
先王
奄有幅員之廣肆編圖志庸徹
冕旒窮觀帝王之興咸有版籍之撰禹
貢成於夏史數土至詳職方著於周

書經野悉備降及歷代各紀方輿赫
大明之
照臨志一統以昭揭惟吾海隅之地實
是天作之邦檀君啓祚於前箕子受
封於後四郡虎爭而幅裂三國蠻戰
以土崩逮王氏統合以來得提封粗
保而有顧女直雄據公險割地滋深
而胡元遙制恥羅縮國蓋久屬茲麗

季之鹿失偉我
太祖之
龍飛
化家
建丕基地啟闢而民啟聚
作室乃肯構
聖善繼而
神善承恭惟
主上殿下
挺膺智之資
撫盈成之運顯哉
謨而承哉
烈巍乎
功而煥乎
文凡制度之更張維其時矣況版圖之
述作烏可已乎不鄙臣等之空疎俾

仕書局之纂輯旁採子集所載兼摭
郡乘之傳首
神京而
廟社公署之是編次諸道而城郭關防之
亦記沿革紛其非一名號隨之不同
豈惟形勝山川抑風俗而物產以至
樓亭宮室暨院宇與橋梁古跡
陵墓之駢牧列刹祠宇之具錄驛程所

以待使命學校所以育人材烈女旌
存歿而遺名賢並古今而取於宦遊
乎考政蹟以題詠而採詩歌皆聚此
書實稟
成命臣等俱以雕篆濫叨編摩緣文獻
之可攷無徵有紀載之此詳彼略久
淪精於數四載方斷手於若干篇數
萬里疆域之分可按圖而瞭心上千

百年興廢之跡一開卷而在目中倘於燕閒時賜乙覽地既莫非有念祖宗開拓之艱難命惟不于常庶子孫持守而勤恤臣思愼等無任激切屏營之至謹奉

進隨箋以聞

成化十七年四月十九日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宣城府院君兼領經筵事臣盧思愼等謹上箋

東國輿地勝覽序

輿地有書古矣黃帝畫分野唐虞分十二州夏有禹貢周有職方秦漢以降各有誌有圖宋嘉熙中建安祝穆撰方輿勝覽博採事要逐節分入諸州之下其文雅有足可尚然趙宋渡江天地分裂不能無南北不盡之歎欽惟

皇明馭宇文軌攸同作一統誌四海萬國莫不包括猗歟盛哉念我東方自檀君肇國箕子受封皆都平壤漢置四郡二府自是三韓爪分馬韓統五十四國辰卞韓各統十二國然無圖籍可考厥後新羅高勾麗百濟三國鼎峙新羅之地東南至海西至智異山北至漢水高勾麗東至海南至漢西北踰遼河百濟西南至海東至智異北至漢然三國地醜莫能相尚新羅滅麗濟幅員益廣及其衰境壤日蹙弓裔據鐵原稱後高麗甄萱據完山稱後百濟土地幅裂莫能統屬高麗太祖操雄搏鴨合三韓而一之成宗始定十道顯宗置三京四都護八牧五十六知州二十八鎮將二十縣令

睿宗擊逐女直置九城後定爲五道兩界地理之盛於斯極矣但西北以鴨綠爲限東北以先春嶺爲界蓋西北不及高勾麗而東北過之然其歷代地誌粗見於三國高麗二史而未之詳焉恭惟我

太祖康獻大王受

天明命

定鼎漢陽
列聖相承封疆日闢定爲八道處四方之
中曰京畿西南曰忠清東南曰慶尚
偏南曰全羅正東曰江原正西曰黃
海東北曰永安西北曰平安凡京二
府四大都護府四牧二十都護府四
十四郡八十三縣一百七十三表裏
山河經緯益鞏我

殿下即位之十年戊戌春正月臣梁誠之進
八道地誌臣等進東文選
上遂命宣城府院君臣盧思愼右贊成臣姜
希孟知中樞府事臣成任南原君臣梁
誠之大司成臣鄭孝恒參議臣金自貞承
文院判校臣李淑瑊左通禮臣朴崇質
行護軍臣朴楯臣居正等以詩文添
入地誌臣等恭承
嚴命簡率詞臣分科責成上自館閣圖
書下至私藏草藁無不披閱一切分
入先之以沿革者以一邑興廢不可
不先知也繼之以風俗形勝者風俗
所以維持一縣形勝所以控帶四境
也以名山大川爲之經緯以高城大
砦爲之襟抱先書
廟社所以尊

祖宗敬
神祇也次書官室所以嚴上下示威重
也定五部而辨坊里設諸司而治庶
務
陵寢乃
祖宗永安之地桓壇又國家不刊之典興
學以育一國之才旌門以表三綱之
本寺剎歷代以之祝釐祠墓前賢以

之追崇土産者貢賦之所自出倉庫者貢賦之所以貯樓臺所以時遊觀而待使臣也院宇所以接行旅而禁盜賊也壯關防以待暴客列站驛以傳使命人物記已往之賢名宦勸將來之善又終之以題詠所以吟詠物像歌頌

王化實不外乎詩與文也錄摠圖於京都 東覽序 玉 之首各付圖於其道之先以此兩京八道撰成五十卷繕寫以進 臣 等居今世而窮歷代之迹處都下而考四域之遠焉能免舉此而遺彼循訛而失實哉然披書以考其事覽圖以觀其迹則泰山不必登河源不必窮八道地理瞭然心目曾不出戶而視如指掌矣然則豈徒一時士子開廣聰明仰贊

盛治而已哉必將

聖子神孫承

祖宗輿地之廣

聲教之遠而永言持守於萬世也無疑矣成化紀元之十七年蒼龍辛丑四月下浣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達城君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 東覽序 大 大提學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臣 徐 居正 拜手稽首謹序

奉
敎修東國輿地勝覽官員職名

總裁

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 經筵事 臣盧思愼
推忠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 經筵春秋館事 臣姜希孟
純誠明亮佐理功臣資憲大夫前行判書兼知 經筵春秋館事 臣梁誠之

纂集

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 臣鄭孝恒
通政大夫禮曹參議 臣金自貞
通訓大夫承文院判校知製 敎 臣李淑瑊
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 臣朴崇質
禦侮將軍行忠武衛護軍 臣朴楣
通訓大夫內資寺正兼承文院衆校漢學敎授 臣鄭孝終
通訓大夫行成均館司藝 臣朴悌順
通訓大夫行承文院校勘 臣安處良
通訓大夫行承文院校檢 臣李孟智

禦侮將軍行五衛都摠府都事 臣金澤
奉列大夫行成均館典籍兼西學敎授 臣趙枰
奉直郎承文院校理 臣金錫元
奉訓郎行成均館典籍兼東學敎授承文院校檢 臣趙亨門
宣敎郎守吏曹佐郎 臣李復善
宣務郎守司憲府監察兼承文院校檢 臣朴文孝
宣務郎守成均館典籍兼承文院校檢 臣李宣茂
宣務郎行承文院博士 臣黃璘
啓功郎行承文院著作 臣崔漢源

從仕郎承文院正字 臣李承健

撰修官

正憲大夫行忠武府大司憲兼知 經筵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臣成俔

嘉善大夫行忠武衛上護軍臣任士洪

折衝將軍行龍驤衛上護軍臣李德崇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臣李 蓀

通訓大夫承文院判校臣金 肯

通訓大夫行成均館司成臣朴義榮

中直大夫守尚衣院正臣李自堅

中訓大夫守宗簿寺正臣李達善

中訓大夫守司憲府掌令臣南世周

奉正大夫行司憲監令正臣李懿孫

振威將軍行義興衛副護軍臣金 詮

奉列大夫行儀賓府經歷臣李 堉

奉列大夫行軍資監令正臣李 亂

定略將軍訓鍊院僉正臣崔淑卿

中直大夫行承文院校理臣趙元紀

奉正大夫行校書館校理臣李 陌

奉訓郎守司憲府持平臣柳希轍

奉直郎行成均館典籍臣裴益臣

奉訓郎行成均館典籍臣黃 瑾

奉訓郎成均館典籍臣孫世雍

宣教郎守成均館典籍臣尹世霖

宣教郎守司憲府監察臣金緻文

奉訓郎行校書館博士臣金致賢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一

京都上

古朝鮮馬韓之域北鎮華山有龍盤虎踞之勢南以漢江爲襟帶左控關嶺右瑣渤海其形勝甲於東方誠山河百二之地也百濟中葉自漢山而徙居未幾播遷南土高麗肅宗雖置南京有時来巡而已皆不足以當形勢之勝至我

太祖康獻大王受天明命定鼎于此以均四方來廷之道里以建萬世不拔之閎基非東西開三京形勢所能彷彿其萬一也猗歟盛哉

新增 國都 大明董越朝鮮賦膽彼東國朝家外藩西限鴨江東接桑暾天池殆其南戶鞾鞨爲其北門其國東南皆際海西北爲建州正北爲毛

北四千里說者云視古也國封三四今則獨存者事百辭抗顏今皆爲所有蓋惟不蹈前人之覆轍所以獨蒙 昭代之深恩也 詔許建邦自爲聲教本朝洪武二年高麗國王王顓表賀即位 詔許自爲聲教賜以龜紐金印曰誥曰書視庶按士窮則辟富雖蠻宦達則搏鵬變豹其國本 朝鮮正祖癸丑年農勤稼穡技子午卯酉年會試殿試亦及丑未年農勤稼穡技習工巧官多倣古俸則給田刑不以宮盜乃荷校閭宦皆非官刑惟衆如傭賃者爲之所以甚少惟宦賤則不輕貸此事以勸第二四通事所言皆合貿遷一以粟布隨居積以爲贏用使盡禁金銀雖錙銖而亦較民間不許儲合丈金銀以糶粟布之多者爲富室其貿遷交易一以此其國食官多者亦以此田賦以結代訓牛耕四日者乃輸四斗之租畫一年之力耕四日之地爲二結士養以類定貢身寄二齋者皆食二時之稍成均館齋舍五百人每三歲以期經原

者謂之舍貢以詩威來者謂之進士又自南中東西四學并者謂之并學四學遞北不敢名尊 朝廷也生員進士居上舍并學居下齋生員進士額歲試中者乃謂之式年乃入官否則仍舊於成均館式年每三歲止取三十三人官非三品綺繡不得丈身小官皆服紬布不服紵絲其布之深青色者亦不常服惟會時乃用之民受一廛禾麻則皆穿管其衣亦如進人其最可道者國有八十之老則男女皆錫爵以冕其恩每歲季秋王燕八十之老人於殿如燕八十婦人於宮子有三年之喪雖奴婢亦許行以成其孝國俗喪父母三年且爲墓如廬舍許行百日之喪有碩行三年者亦聽王都設歸厚之署儲棺槨以濟乎貧窮 其國推都者周於鄉自一路觀之中村者似鄉王都設署便之鄉飲嚴揚禪之文秩豆遵以戒其愆 開文淵閣同推此二字爲國家婚姻謹乎媒妁子出再醮者雖多學亦不得齒於士流俗取再婚

之烟雲東郊之草樹攫青抹綠爭效奇於欄楯之下
者千萬其狀此亭之所以得名也然其所以爲人主
燕息之所則實在彼而不在是焉是亭也歷九閱之
祖聖相承六祩之邃幽龍家閨高明爽塏蓋其地自
宗置離宮以來儲祥畜祉秘而不發幾至九十餘年
適遇我 殿下堂構之秋而俶然有成豈非有所待
而然耶退朝清燕之餘徃徃布玉趾以登法宮之仗
一切屏去服夏后之衣岸光武之牘恰神澄慮與道
爲謀玉若青陽和暢草木繁榮則應乾坤生物之仁
而疲癘餘寒何以無飢薰風南來長景爍空則咏帝
舜解慍之操而滿壑清陰何以均施黃落在候藁實
告成則吾民什一之斂不可過制也勝六眉瑣窗氛
襲裘則曰吾民戰癯之飢不可更勞也凡四時之景
一經于 宸眼者皆取以爲發政施仁之實不啻是
也記曰張而不弛文武不能也弛而不張文武不爲
也然則一弛一張之具亦所不廢如欲紬經而質疑

鴻碩之儒可以並召如欲選射而觀德決拾之士可
以耦進于以從容顧問于以講習武備何莫非君國
子民之嘉猷偉範耶此我 殿下作亭深意而中和
位育之極功是可以馴致也昔宋孝宗營翠寒堂於
禁中嘗召趙雄王淮等奏事堂下古松數十清風徐
來帝曰松聲甚清遠勝絲竹夫孝宗宋之賢主也平
時無燕遊聲色之奉宮室苑囿之娛而乃建斯堂願
不圖安佚而拳拳於延訪宰輔以防擁蔽之害其英
風雅度至今烨然於簡策之中今我 殿下聰明仁
聖遠過孝宗而斯亭之設偶與之同前後聖賢規模
制作異世而同符吁可想已彼芙蓉雙曜之峙壯觀
於上陽凝思韶芳之葬重煥於未央甘爲遊畋巡幸
之備耳爲足爲今日道也誠願 殿下毋怠毋荒永
肩一心無登眺之際深懼玩惕之易流而必以懷保
小民爲祈天永命之實如上所云則我朝鮮億
萬世無疆之休寧不在玄乎臣敢以是爲獻

增瑨源毅在 文昭殿東壯奉 安 先王 先后睟容之所 匪躬堂 即昌德宮

南實廡在延英門外○徐居正記易蹇之六二曰王
臣蹇蹇匪躬之故盡匪躬者知有君而不知有躬也
凡我在廷之臣其知所以匪躬者乎請試論之三公
上法台階下取鼎象位百寮之上居具瞻之地義我
冠冕譚譚廊廟屹然國家之柱石炳若人物之弦龜
可不知輔相之職論燮之道乎當思夫亮職有闕何
以補之王猷未熙何以闡之曰都曰俞何以颺之嘉
謀嘉猷何以告之贊化育而孝弟之畏天讜而戒懼
之思以一言而悟主不以百計而要君思以藥石而
陳之不以鴟夷而遂之圖事揆策開誠心而布公道
正色率下存大體而略細務於匪躬之義庶近之矣
若或位極而功名足以累其心操厚而富貴足以蕩
其志權欲專而貴欲贍危不扶而顛不持復有臨事
模稜與世浮沉布被而鈞名牙籌以盡利來伴食之

諸招覆餗之誚謂之匪躬可乎至如貳公弘化六卿
分職暨諸大夫凡百盡臣尊位重祿仕專責大遭難
遇之時值可爲之秋當思夫寅亮承弼之何遑也啓
沃贊襄之何暇也於制作則思潤色之於賢俊則思
薦拔之若何而措官刑若何而阜民財于戈何以弭
之土地何以闢之論大策決大疑言爲輕重國忘家
公忘私身任安危思以忠信節義自礪不以成敗利
鈍自小夙興夜寐鞠躬盡瘁於匪躬之義庶近之矣
若或旅進旅退患得患失席寵而固權竊位以妨賢
立朝無大節盜世皆虛名復有瘝曠無能執咎自是
妨政而害治曠官而失職昧止足之幾興尸素之刺
謂之匪躬可乎至如人主之寵仕臣下者莫如近侍
人臣之親昵君上者莫如近侍盡近侍者常居左右
獨典衡要天顏咫尺九重甚邇法語丁寧重瞳屢回
如耳目焉達人主之聰明如喉舌焉代人主之綸命
握機不可不密出納不可不愼酬酢而數奏之從容

而獻替之思上澤之或壅則導宣而霈之愁下情之有阻則開陳而達之論思於廈氈之上運籌於帷幄之中上無過舉下無隱情精白一心奉揚惟謹若然則雖謂之匪躬可也若或窺伺人主之喜怒逢迎人主之顏色構巧思而悅之設奇計而中之瞑眩之言不達忤縫鑿斐之辭或成貝錦納言廢職默諫成風謂之匪躬可乎至如臺諫者朝廷公論之所在人主居九五之尊處億兆之上其高也非特日月其威也不啻雷霆然而抗天顏批龍鱗惟臺諫能之排金門叫玉墀惟臺諫能之立人主左右與人主爭是非人主曰可臺諫曰不可人主曰不可臺諫曰可犯冒不諱骨毀不挽雖碎首而不辭奚鼎鑊之可逃若然則牽裾猶可復折檻何獨美須謂之匪躬可也若或貌臺諫而心不臺諫言臺諫而行不臺諫明諍顯諫於晁旒之前以塞其責潛移默奪於利勢之中以濟其欲議論發於陰私封駁出於好惡遇事不言則緘口如金入論事不足則合口如蜀椒復有知論事而不知大體知論人而不知長短紛紜擾攘徼鎖細屑上煩人主之聽覽下駭朝廷之見聞不知其忠而其佞亦復誰毀而誰譽哉然則謂之匪躬可乎至如若大若小曰察曰宋明明在位穆穆布列文武並用各盡所長細大不捐惟器是適是宜懷材抱藝卓犖甦傑之士裒然而起斂然而興振長策而騁長技行素志而展素蘊陳力就列輔理承化於匪躬之義庶近之矣若或僥倖進取睥睨時態於權門勢宅熱則附冷則背雖抱關擊柝得則喜失則怨以奔競爲出身之逕庭以賄賂爲媒進之階除赧然無恥冒然無識謂之匪躬可乎嗚呼虞書之命九官商訓之儆有位周官之分六職皆總內外庶官而定上以是欲訓迪之下以是相箴警之上下之間勸戒深切非後世之所能及也奈何王禹偁作待漏院記只規宰相而不及庶寮予先正有言爲君難爲臣不易爲君之難則

聖上宵旰憂勤旣體而行之爲臣不易則羣臣知者鮮少苟能知爲臣之不易則可以知匪躬之義矣知匪躬之義則不可負爲臣之職矣請書此用規在位者因以自警云

壇廟

社稷壇

在京城內西仁達坊社在東稷在西兩壇各方二丈五尺高三尺四出陛各三級壇飾隨方色黍以黃土社有石主長二尺五寸方一尺剡其上培其下半當壇南陛之上四門同一壝方二十五步繚以周垣國社國稷神座並在南北向后土神配國社后稷神配國稷各在正位之左近北東向○祀典載大祀

風雲雷雨山川城隍壇

在南郊方二丈三尺高二尺七寸四出陛兩壝二十五步風雲雷雨神座居中山川居左城隍居右並在北南向

嶽海瀆

壇在南郊制與風雲雷雨同唯一壝無壇有廟三間○嶽南智異山在南原中三角山西松嶽在開城北鼻白山在定平○海東海在襄陽南海在羅州西海在豐川○瀆南熊津在公州伽耶津在梁山中漢江西德津在長湍平壤江在平壤鴨綠江在義州北豆滿江在慶源

先農壇

在東郊制與風雲雷雨同惟一壝無壇有廟三間○嶽南智異山在南原中三角山西松嶽在開城北鼻白山在定平○海東海在襄陽南海在羅州西海在豐川○瀆南熊津在公州伽耶津在梁山中漢江西德津在長湍平壤江在平壤鴨綠江在義州北豆滿江在慶源

蠶壇

在東郊制與風雲雷雨同壇於壇南十步正月親祀先農行籍田之禮

先蠶壇

在東郊制與風雲雷雨同神座在北南向成宗九年春又築壇于昌德宮後苑北向成宗七年築觀耕臺於壇南十步正月親祀先蠶行親蠶禮

雩祀壇

在東郊制與風雲雷雨同神座在北南向方四丈勾芒祝融后土句芒祝融后土攀牧率命婦親祭玄冥后稷神座俱在北南向西上○已上載中祀

靈星壇

在南郊方二丈一尺高二尺五寸四出陛一壝二十五步神座在北南向

老人星壇

在南郊

馬祖先牧

瀉秋空俯瞰吟詩日已紅但道游魚清可數區區屈指與疵同陽墻呼僧李達衷詩面壁禪僧卷招樹登樓客子對花叢相呼共醉西江月未要徒揮一麈風○安軸詩聲輕郡檻臨水府隔墻禪舍倚岩叢愛僧眞趣無人識十里茶煙颺竹風○李穀詩官舍僧房纔隔壁砌花窓竹共成叢上樓無偶聊相喚非為頗師有遺風

襄陽都護府 東至海岸十二里南至江陵府界六十五里西至麟蹄縣界五十五里北至杆城郡界四十五里距京都五百十一里

建置沿革 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改翼嶺為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

東覽四十四 三十四

令高宗八年以禦丹兵有功陞為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降為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為府太宗十三年例改為都護府十六年改今名

屬縣 洞山縣在府南四十五里本高句麗穴山縣新羅改今名為溟州領縣高麗顯宗時來屬本朝因之

官員 府使 教授各一人

郡名 翼峴 伊文 翼嶺 德寧 襄州

山 襄山

姓氏 本府金李孫朴河鄭張林尹(並續)洞山朴金崔李陳林(續)

川 雪岳在府西北五十里鎮山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所冬羅嶺在府西六十里重巒疊嶂地勢險阻舊有路通京師今廢城隍山在府北二十五里五峯山在府東北十五里或稱洛山水山在府東十里德山在府北三十六里草津山在府南二十九里籬山在府北六十三里雙成湖西即大嶺

東覽四十四 三十五

東支也有奇峯縱橫如設屏籬故名俗云蔚山陽野山在洞山縣南十里鼎足山在府西南四十里三峯峻起形如鼎足故云海在府東十三里祀典祭東海神于此載中祀雙成湖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南大川在府南二里出江陵府五臺山與所冬羅水合流經府南入海竹島在府南四十五里觀瀾亭前滿島皆蒼竹島下海潮有石凹如槽磨礪巧刻凹中有小圓石讀傳圓石拯轉其中磨而成凹磨盡則世改矣

土產 苧鐵出西禪寺東峯下竹箭出竹島海松子五味子紫草人參地黃茯苓蜂

蜜白花蛇 海衣 蠏 鰒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鰱魚 銀口魚
黃魚 魴魚 古刀魚 廣魚 鱸魚
秀魚 雙足魚 海參 松蕈

城郭 邑城 石築周四百三尺高五尺土築周二千八百二十五尺內有二井今半頹落

關防 大浦營 在府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自江陵安仁浦移泊于此○水軍萬戶一人 新增 正德庚辰築石城周一千四百六十九尺高十二尺

烽燧 水山烽燧 北應德山南應草津山 德山烽燧 北應杆城

竹島南應陽野山 應水山 草津山烽燧 南應陽野山 北應水山 陽野山烽燧 南應江陵連谷縣注文山北應草津山

新增 宮室 東軒 姜渾詩襄陽來憶故人賢殘雪晴擧映畫軒孟浩空吟驢背句山公倒久習池筵正逢明月樓臺靜不用青娥意態妍莫道此行情興薄會須他日更尋仙

樓亭 太平樓 在客館南○鄭樞詩消暑樓成延佔前命名人到甲辰年排簷老樹孫輪月傍岸垂楊半縷煙拄笏高吟迎爽氣舉觴白眼望青天朱絃不用纖纖手過雨林間鳴澗泉○安軸詩名途信步不圖前來住斯樓已二年覆檻竹叢分爽氣塵門搖樹撼蒼煙應觀民業憂吾國虛負君恩愧彼夫計拙未能興利路若為滇壑湯金泉○趙浚詩古郡經營自國前大平風月半千年島還官樹三竿日人語漁村一縷烟江漢奔流傷世道山河壯續誓皇天還來濟蚊民憔悴欲倒東溟作布泉○李穀詩李君起廢事超前敢恥書存天慶年棟宇已同金盛日閭閻還有太平煙滿簷秋氣山圍坐隔岸濤聲浪接天寄語新除賢太守隱之何害酌貪泉○此樓風景僅贍前來往登臨又一年蕉葛冷霑銀漢露琴心暖起玉田煙清閑可喜壺中日阨塞還嫌瓮裏天欲和諸公氷雪句羞將短褐汲深泉○金禮蒙詩澄清敢望范公前游賞循能及牛影逐峴山官道月夢尋華岳御爐煙思深欲報暖無地任重難堪愧有天佳境逢來饒逸興狂還似飲狂泉 觀瀾亭 在洞山縣東二里○李穀詩懶踵金鋪晝戟門閑尋翠竹白沙村東溟浪靜天逾碧西塞山高日易昏偶作勝遊殊可喜欲談時事却成吞古來觀海難為水井底何人妄自尊○亭外峯巒擁縣門檻前洲渚抱漁村碧波可染衰鬢白清景能醫病眼昏三島

壯遊天共遠百川浩浩海井呑若為對此忘機坐不校入間有達尊○安軸詩民間百物入侯門山水千年屬一村別島隔雲橫縹緲片帆和月落黃昏鴻雁寞路弋何慕鯨鯢怒蒼波舟可呑兩過新亭推未去更人迎拜是陽尊○姜淮伯詩亭前茅屋掩柴門樹樹梅花雪裏村四面蒼松煙暗淡數聲柔櫓月黃昏湖光鏡淨元無累滄浪雲舒却欲呑唯有青山贈奕兀古今蒼翠獨能尊 新增 李陸詩鳴汕十里赦朱門柳暗花明自一村月上東溟波浩浩風吹西塞雨昏昏蓬瀛未必三十隔雲夢猶能八九呑回首日邊何處是只應瑞拱隱居尊 秘仙臺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拱隱居尊峯峭拔上有虬松數株蟠之如臺其上可坐有徑如線通陸海惡則不得渡 降仙亭 在府北二十九里 祥雲亭 在府南二十五里傍海有長松連十里蒼翠成陰仰不見日松間無雜卉惟山躑躅春時花開

爛如紅錦

學校 **鄕校** 在府東二里○安軸記關之東山水奇秀而襄陽居其中其英靈之精淸淑之氣必無虛言而於百餘年間未聞有懷奇才德之士出是邑而瑞入倫者此非山水之氣無驗而邑人之性不善蓋是邑自古隣於藩境變亂屢興學校之道不修也今者區宇混一而民不知兵聖學重興子弟日盛宜置學校養育人才茲是邑者唯以薄書爲急而慮不及焉故山水之氣盤礴鬱積而無所發子弟之性桎梏而無以脫此豈非邑人之不幸歟余到是邑聞之耆舊邑之北有洞相傳云文宣王洞斯必古之學基而廢已久矣余心竊嘆焉即於其地命邑人營之邑人咸喜曰子之志也忧以忘勞於是符下同年友通州守正郎陳君監督其役工役始興而邑守正郎朴君來莅任朴君亦文儒相門之子也實

用其力以成吾志此豈非邑人之幸也歟夫地之氣其衰也久則其旺也暴其盡也遠則其發也盛自今家有才學之孫里有仁厚之俗然後有以雪山水之恥而知余言之不實也然制度麤疎事功有闕望後來君子一寓目焉

驛院 **祥雲驛** 在府南二十五里丞本道屬驛十五連倉五色降仙麟丘竹芭淸澗雲根

明波大康高擧養珍朝珍登路巨豐貞德○丞一人○金克已詩塞上無塵況有年花容鳥語尚欣然千車白雪繅絲地萬頃黃雲割麥天漁父磯邊苔錯落樵童壠上草芊眠往來勝槩尤堪賞曾遺騷人得幾篇

麟丘驛 在洞山縣南二里

連倉驛 在府內五里

降仙驛 在府北三十里○金克已詩燕捎舍南柳蟬翳帶回槐四眺渾軒豁客懷忽自開○鄭摅詩馬頭旌旆拂

煙霞水店山村紅白花偏愛鄰亭好風景千株松下浪淘沙

佛宇 **洛山寺** 在五峯山○新羅僧義相所建殿上安拘檀觀音一軀歷代崇奉頗有靈異我 世祖幸此寺以殿舍隘陋 命新之極宏壯○高麗僧益莊記襄州東北降仙驛之南里有洛山寺寺之東數里許巨海邊有窟其高可百尺其大可容萬斛之舟其下海濤常出入爲不測之壑世稱觀音大士所住處也窟前距五十許丈海中有石上可鋪一席出沒水面昔新羅義相法師欲覩聖容乃於石上展坐拜稽精勤至二七日尚未獲覩便投身海中東海龍扶出石上大聖即於窟中伸臂手授水精念珠曰我身未可親覩但從窟上行至雙竹湧出處是吾頂上於此可營一殿安排像設也龍亦獻如意珠及王師受珠而來有雙竹湧立乃於其地創殿以龍所獻王造像安之即茲寺也我太祖立國春秋

遣使設齋三日以致敬焉厥後書於甲令以爲恒規水精念珠及如意珠藏於是寺傳寶之癸丑歲天兵圍入我疆是州於雪嶽山築城守禦城隘寺奴取水精念珠及如意珠埋於地而亡走上告于朝兵退遣人取之藏於內殿世傳有人到窟前玉誠拜稽則靑鳥出現明宗丁巳庾資諫爲兵馬使至十月到窟前焚煦拜稽有靑鳥含花飛鳴落花於懷頭上世以爲稀有云云○高麗庾資諫詩海崖高絶處中有洛迦峯大聖住無住普門封不封明珠非我欲靑鳥是人逢但願洪波上親瞻滿月容○安軸詩大聖圓通境曾聞海上峯恩同甘露潤香有紫泥封隨類身常現纓述眼不逢莫論眞與假但自禮慈容○金富儀詩一自登臨海岸高迴頭無復舊塵勞欲知大聖圓通理聽取山根激怒濤○金克已詩幸尋妙境住華蹤澄慮冥觀萬想空浪底月誰分上下峯端雲自占西東俄瞻佩像金堂裏已見眞身石窟中不待相師齋

七日它心應願定先通觀音窟在五峯山○我翼祖與貞淑王后詣此祈嗣夜夢有一納衣僧來告曰必生貴子其名善來名之靈穴寺四來未幾度祖生遂以善來名之靈穴寺四岳山道寂寺在鼎足山

祠廟社稷壇在府西文廟在鄉校城隍祠在城內東海神祠在府東春秋降香祀致祭厲壇在府北

古跡權金城在雪岳頂石築周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半頹落俗傳昔有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洛山寺記所云天兵闌入我疆是州於雪岳山築城守禦疑即此冷泉在五峯山下世傳觀音化作女刈稻元曉因取飲冷泉與之感誰○鄭樞詩海岸山從赫世前幾看興廢迄今

年秋涵一野亞紅稻日照五峯生紫烟德女故居莎覆砌曉公遺跡樹連天登樓擬結相思夢夢裏還應酌冷泉五色驛在府西四十五里今廢

名宦高麗崔宰爲知州時有降香使凌辱存撫使宰曰將及我矣棄官而去本朝李師元爲府使

題詠鵬路淼茫連北浸金克己詩曾停客櫂暫遊巡躍馬重尋景更新云云鰷墟迢遞接東濱波間髣髴窺泉客水底依稀見海人我欲張帆超巨壑天吳鼓怒若爲神山城却月楓栖上前人詩閱塞輪蹄想幾巡風煙萬狀迭詩新云云水榭垂雲藻荇濱臺下縱無巫峽女洞中應有武陵人貪程未得尋仙境步步迴頭一悵神倚山樓觀壺中地鄭樞詩云云傍水閭閻盡裹煙玉笙遙聽鼇頭月蔡璉詩云云羽駕迢超鶴背天大野東頭看海日姜希孟詩云云長林一面見江天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驛 在郡北十里 元巖驛 有舊基在郡西南六十三里彌時坡嶺路開撤五色驛移于此

獅子院 在郡西四十里

佛宇 乾鳳寺 在金剛山南 普賢寺 在天乳山

祠廟 社稷壇 在郡西 文廟 在鄉校 城隍祠 在城內西 厲壇 在郡北

古跡 烈山廢縣 在郡北三十五里本高句麗僧山縣一云所勿達新羅景德王改童山爲守城郡領縣高麗改今名仍屬別號鳳山 南山城 石築周一千五百尺今廢 古城山城 石築周四百二十八尺內有一井今廢

東覽四十五 十一

題詠 俯看海市出重樓 蔡壎詩遠見村莊橫翠障云云 映日飛霞明海島 李達衷詩云云經冬積雪滿岑樓 歲久松鱗百尺脩 安軸詩重岡四擁地幽幽云云宮遺樹深風滿院海門霞霽水明樓兩蓑漁艇乎生約塵袂征鞍早晚休若賜城南鏡湖月舊居何必戀吾州 孤烟起處浪喧屋 鄭樞詩云細雨晴時山近樓

高城郡 東至海岸八里西至淮陽府界七十二里南至杆城郡界三十三里北至通川郡界三十六里距京都四百九十九里

建置沿革 本高句麗達忽新羅眞興王二十九年爲達忽州置軍主景德王改今名爲郡高麗爲縣今本朝因之 世宗朝例改爲郡

官員 郡守 訓導 各一人

郡名 達忽 豐巖

姓氏 本郡 柳朴孟俞吳 劉吾 盆來 崔江陵 鄭九阜 金襄陽 安昌李 加恩利川寧 高安 參奉 崔皇甫朴

風俗 捕魚爲業 種麻不紡績常布爲網以捕魚爲業

山川 金城山 在郡西九里鎭山 金剛山 在郡西五十八里詳見淮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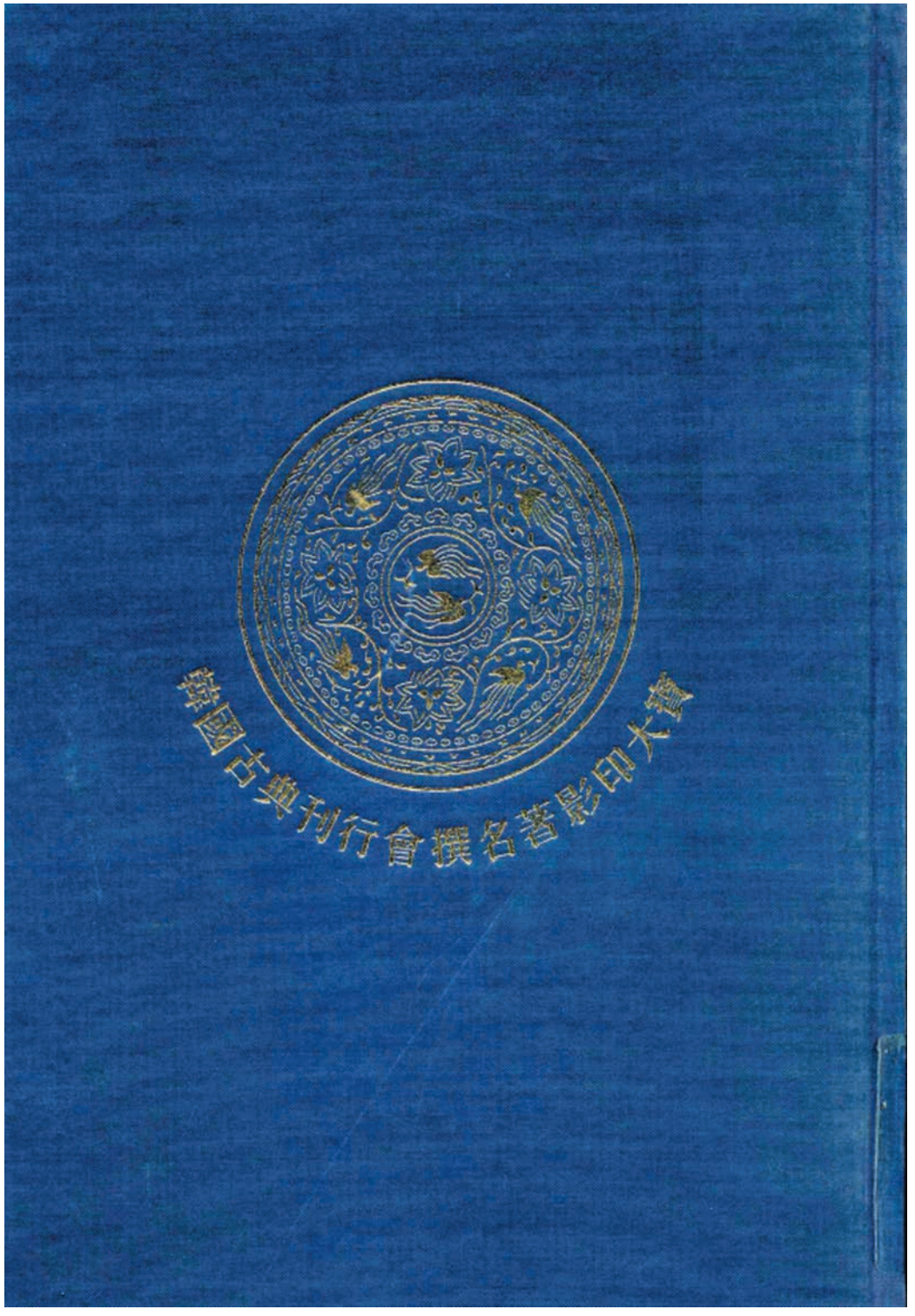
東覽四十五 十二

李穀記自通川至高城一百五十里實楓岳之背其上嶺嶂險絶人皆謂外山盡與內山爭奇怪狗嶺 在郡西三十八里卽金剛山東麓勢極險峻我世祖大王踰此嶺幸榆岾寺○鄭樞詩狗嶺煙霞賦尼臺樹木攢登危山更攀探勝路何難林過花捎帽盡行石受鞍愛他廬爲井子歲不曾乾 櫻嶺 在郡西七十二里○成任詩梨嶺至櫻嶺迢遞路險艱行人愁冒雨贏馬解登山溪畔僧炊飯林中客御鞍蹄擊窮一月無地著吾閒 佛頂巖 在郡西六十七里諺傳昔有佛頂和尚者說經龍女出岩際聽法王今有穴在岩上其深無底其下又有佛頂庵 鷹巖 在郡北二十三里山勢多奇峻有一巖遠如蹲虎近如飛鷹故名 掛鍾巖 在郡南十三里有孤峯千丈挺東海峯頭有巖如屋內面縱縱如虫食果其中可坐數十人高麗閔漬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증보문헌비고는 동국문헌비고의 증보판이다. 총 250권의 방대한 분류서로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모든 제도와 문물을 16개 분야로 나누어 연대순으로 정리한 백과사전이자,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수적인 기초 문헌이었다.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 또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고도 불린다.

본지에 첨부한 부록 물은 '양양동해신묘' 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 부분 발췌하여 편집실에서 재편집한 것이다.


韓國古典刊行會撰名著影印大系

洪鳳漢·李萬運·朴容大外編著

增補文獻備考 上

明文堂 刊

增補文獻備考卷之七十九

弘文館 纂輯 校正

禮考二十六

章服一〔冕服以上表服衣制 君服〇皇服〇襯服〕

檀君元年敎民編髮盖首〔以下編髮以上衣服衣制〕

箕子朝鮮衣冠制度悉同中國

補尹根壽曰平壤有藤杖一雙相傳爲箕子杖一則中絕以黃錫包束其折處盛之漆匣凡監司出衙聽騎兩人持而前導監司坐而聽政對賓客輒植之階上左右承以朱漆木至壬辰倭亂見失云

補江陵人李有根家有世傳古烏玉笏短而且狹與我朝之制大異其面刻痕徵有箕子笏三字耆老皆以箕子笏稱之襄陽文官崔遠泰作序緘送于判書李德壽轉入于楓宸云

衛滿朝鮮椎結夷服

馬韓以緩珠綴衣爲飾及懸頸垂耳魋頭〔魋頭者剪髮被面垂髮被肩被面垂髮被肩〕露紒布袍草履

弁辰俗好衣幘下戶詣郡朝謁皆假衣幘自服印綬〔弁辰與弁韓雜居其俗相類以長大爲好衣服絢麗之飾〕

濊男女皆衣曲領〇男子繫銀花廣數寸以爲飾

扶餘在國衣尙白白布大袂袍袴履革鞜出國則尙給繡錦罽大人加狐狸狖白黑貂裘以金銀飾冒

補晉書夫餘人凡奉使者皆衣錦罽

渤海服章亦有紫緋綠牙笏金銀魚之制

新羅眞德王二年金春秋入唐衣服請變唐儀唐帝賜衣帶始服中朝衣冠〔以下君服〕

補唐玄宗賜新羅王五色羅紫繡紋袍

高勾麗王服五采以白羅製冠革帶金鉊

百濟古尒王二十八年王服紫大袖袍靑錦袴金花飾烏羅冠素皮帶烏革履坐南堂聽事

高麗國初視朝服制用柘黃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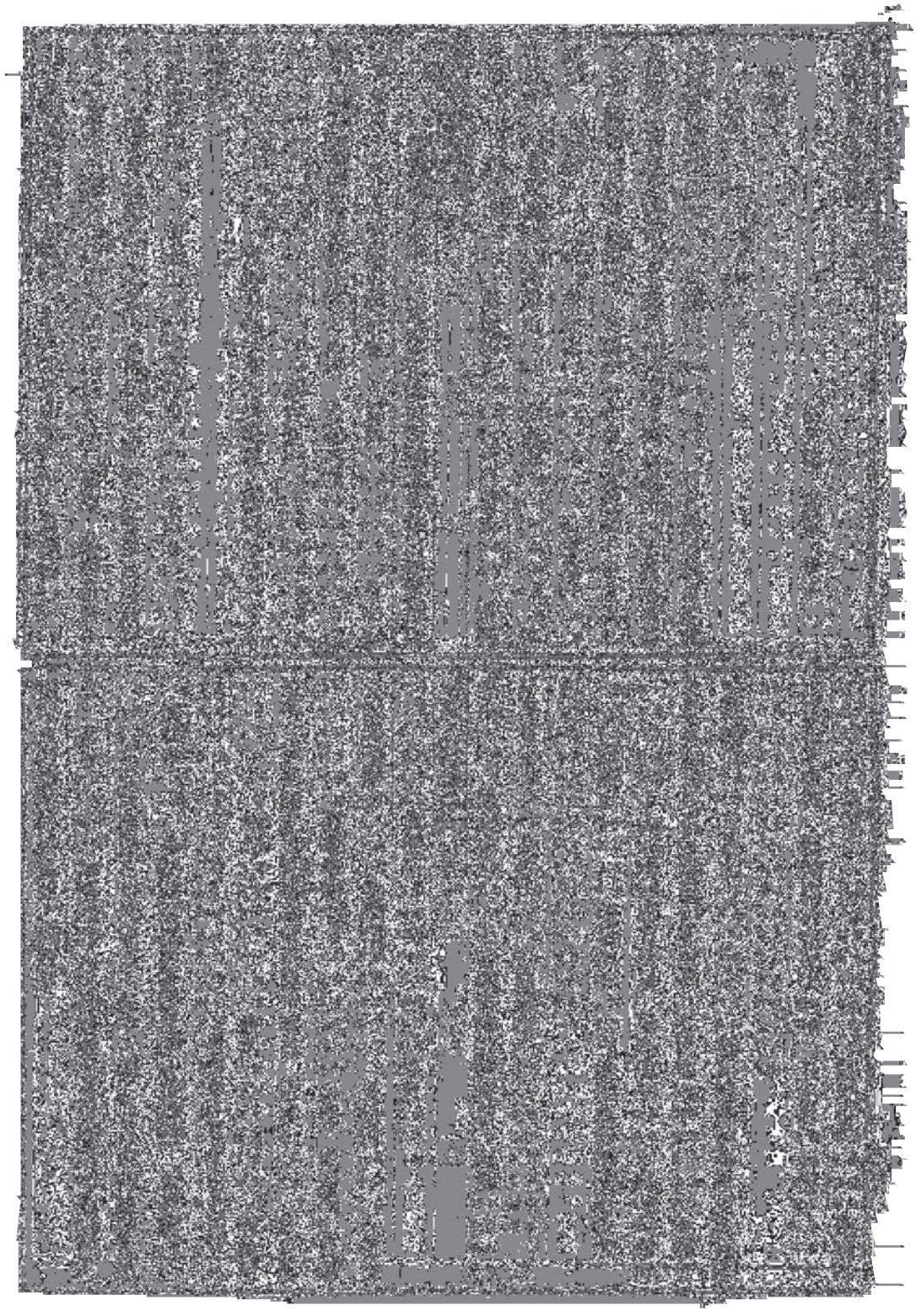
太祖時新羅敬順王獻眞平王玉帶初眞平王時有神人降於殿庭謂王曰上帝命我賜爾玉帶王跪受凡郊廟大祀皆用之時人讚曰雲外天頒玉帶間降龍裔雅相宜吾君自此身彌重淮擬明朝鐵作厚及敬順王降來獻乃鎖金安玉排方腰帶長十圍六十二銙也命藏于物藏庫先是新羅使金律來太祖問曰聞新羅有聖帝帶有諸律對不知敬順徧問群臣無知者有皇龍寺僧年過九十者曰予聞眞平大王所服歷代傳寶藏在南庫遂開庫覓之風雨暴作白晝晦暝乃擇日齋祭然後得之

補輿服志曰王太祖開國初事多草創冠服之制皆用羅舊

文宗三年詔曰朕覽羣臣所上封事多言俗尙侈靡攸司援先王典禮

	德王改今名爲郡		
		安昌縣 本寬伊縣顯宗改安昌四入高城在南二十五里	
猪迬穴縣 一云烏斯押	豢猳縣	豢猳縣 入高城在北二十七里	
迬城郡 一云加羅忽	守城郡	杆城郡 初改今名降縣後陞郡	杆城郡 仁祖七年降縣十六年復舊
僧山縣 一云所忽達	童山縣	烈山縣 入杆城在北三十五里	
翼峴縣 一云伊文	翼嶺縣	翼嶺郡 高宗陞爲襄州後降爲縣元宗復爲襄州	襄陽郡 太祖六年陞府太宗十六年改今名世祖七年降縣後復舊今上三十二年改爲郡
穴山縣	洞山縣	洞山縣 顯宗入屬陽在南四十五里	
休壤郡 一云金惱	金壤郡	金壤縣 忠烈王陞通州	通川郡 太宗十三年改今名爲郡英祖三十八年降縣四十七年復舊

道臨縣 一云助乙浦	臨道縣	臨道縣 入通川在南三十里	
吐上縣	堤上縣	碧山縣 入通川在南十里	
平珍峴縣 一云[illegible]峴	偏險縣	雲岩縣 入通川在南五十里	
習比谷縣 谷一作呑	習谿縣	歙谷縣 入金壤高宗復置	歙谷郡 宣祖二十九年入通川三十一年復舊爲縣今上三十二年改爲郡
奈生郡	奈城郡	寧越郡 初改今名入原州忠烈王復置	寧越郡 肅宗二十四年陞府今上三十二年改爲郡
郁烏縣 郁一作于	白烏縣 景德王改白烏	平昌縣 初改今名入原州忠烈王復置寺嶋陞郡後降縣	平昌郡 太祖元年陞郡
斤乙於		平海郡 顯宗入蔚州明宗復置忠烈王陞郡	平海郡 國初四爲郡
橫川縣 一云	潢川縣	橫川縣 [illegible]入春川[illegible]務	橫城郡 太祖十四年與



增補文獻備考卷之二十八

弘文館　纂輯　校正

輿地考 十六

關防 四

城郭 四 ○江原道 ○黃海道

江原道江陵邑城舊有土築　中宗七年石築 周二千六百尺 高十尺 有四門內有井十四池二　羽溪山城在南六十一里土築 周四百五十尺 今廢 普賢山城在西四十里石築 周一千七百七尺 今廢 濊國古城在邑城東土築 周三千四百八十尺 ○嶺路大關嶺　員泣峴　毛老峴　禿峴 並西路○見橫城輿地 火飛嶺 南路 鋏峴 並西路

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輿地考 一

三陟邑城三面石築 周二千五十尺 四尺高四尺 西絕壁 周四百三十一尺 沃原城在南九十里沃原驛傍土築 周五百七尺 高八尺 頭陀山城在西四十五里　太宗十三年因險土築 周八千七百二尺 十五尺高六尺 後倭寇來侵陷之 今廢 吳火城在東八里辛峒十年土築 周一千八百七十尺 內有泉一 補 三陟浦城在東八里　中宗十五年石築 周九百尺高八尺今廢 補 古邑城輿覽三面土築 周一千四百四十尺高七尺 補 葛夜山古城在北二里山上有古城城中有古井世傳悉直時御井 補 府南古城在南二十五里交柯驛○嶺路楡嶺 橫城南關路 中衣嶺 本縣南路 百福嶺 本縣西路 唐旨峴 江陵路 瓦峴 並西路

襄陽邑城有石築土築 石築 周四百三尺土築周二千八百二十五尺高五尺今廢 內有井二　權金城在北五十里石築 周二千一百十四尺今廢 土王城在北五十里石築 補 邑誌 土民王姓人築遺址尚存 右兩城在雪岳山上 補 大浦鎭城輿覽在東十二里中宗十五年石築 周一千四百六十九尺高十尺今廢 ○嶺路五色嶺 見關隘路 弼如嶺 關隘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 江陵路 兄弟嶺　雨寒峙 並西路 平海邑城石築 周二千三百二尺十五尺高九尺 內有井六　白巖山城在西四十里石築 周二千五百六十尺 內有井三　越松鎭城在東七里 周六百二十八尺高三尺今廢 補 吾台峯城　姑母城備局謄錄亦有廢城 ○嶺路珠嶺　三乘嶺 並南路 大峴　仇里峴 並西路

杆城邑城石築 周二千四百六十九尺高十五尺今廢 內有井二池四　南山城石築 周一千五百二十八尺今廢 內有井一　古城山城在烈山廢縣石築 周四百三尺今廢 補 草島古城在北三十五里只有基址 ○嶺路彌時嶺 南路○見關隘路 俗呼嵐嶺 陳富

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輿地考 二

高城邑城石築 周二千七百九尺今廢 內有井四　金城山城在西八里石築 周二百六十步今廢 聲串長城在北三十六里石築 長九百八十二步今廢 城直小城在北三十六里石築 周一千三百七十尺今廢 補 養珍驛北石城輿覽在北二十七里 周一千七百九十六尺今廢 補 大康驛西土城輿覽在南二十七里 周二千八十尺今廢 ○嶺路狗嶺 西路 揷時嶺 關隘界

通川邑城土築 周一千七百六十六尺 中宗朝增築石城 周三千九百四十尺高十一尺今廢 內有井二　黃古介山城在北二里石築 周一百七十五尺高四尺今廢 碧山城在南十里石築 周二千一百二十五尺高六尺今廢 金幱山城在東十里石築 周一千三百七十尺今廢 補 北山城輿覽在北二里石築 周五百四十九尺高三尺今廢 ○嶺路楸池嶺 西路○見關隘路 瀧

嶺　板幕嶺　鄭遷　途南路

蔚珍邑城石築　周二千五百六尺高九尺　內有井四　古山城在北七里土築　周四千四百七十尺今廢　內有井一　古邑城在東五里土築　周一千二百十尺今廢　安逸王山城在西四十一里石築　周七百五十三尺今廢　補尉珍浦鎭城輿覽在南十一里

中宗七年石築　周七百五十尺高十一尺今廢　○嶺路葛嶺　三陟路　高草嶺　笑指東界　補鉢耳嶺　補烏城堡　補召造嶺　補廣峴　途西路

嶺　直峙嶺　差突東界　補鉢耳嶺　補烏城堡　補召造嶺　補廣峴　途西路

歡谷邑城在北朴山上石築　周二百九十三尺色詩基址六千五百三十一尺今廢　內有井七

古山城在西一里石築　周九十五尺今廢　南山城在南十四里石築　周一千九百六十一尺高南　內有井一○嶺路文峙嶺　南路

原州鴈原山城在雉嶽山南麓石築　周一千三十一步今廢　內有井一泉五新羅

神文王時始築三國史北原賊梁吉使弓裔東略地弓裔出宿雉嶽山

石南寺行襲酒泉奈城鬱烏御珍等縣皆降之世傳此城爲梁吉所據

高麗時元冲甲據此破丹兵本朝　宣祖壬辰原州牧使金悌甲驪州牧使元豪於此爲倭寇所敗亡　金臺山城在東三十里雉嶽山腰石築　周六千六十尺今廢　內有井三州人松弼官據此城叛○嶺路柱峙　車踰嶺

松峙　途東路　西化峙　西路　可莫只峴　江陵路

春川鳳山城在北一里石築　周二千四百六十三尺高十尺今廢　三嶽山城石築　今廢　○嶺路幾落遷　北路　席破嶺　西路　原昌峴　南路　甫通遷　北路

旌善古城在東五里石築　周七百八十所今尺高八尺今廢　○嶺路星摩嶺　見平昌縣路　碧波嶺　途西路　半古峙　東路　所也峙　南路　鑰峴　北路　補夜連洞　江陵界○東路

寧越正陽山城在東十里石築　周二千三百十四尺高十九尺今廢　莞澤山城在東二十里三面石壁石築　周三千四百七十七尺今廢　○嶺路高德峙　見平昌縣路○北路　角斤峙　西路　分德峙　北路　花折峙　通寧界　補密積藪　寧路

平昌魯山城在北一里石築　周一千三百六十四尺今廢　內有井一○嶺路七足嶺　東南路　梨峙　江陵路　補高德峙　見寧越路○西路　補星摩嶺　見旌善路　補味呑嶺　途東路

橫城德古山城在東七十里石築　周三千六百五十三尺今廢　內有井一○嶺路禿峙　見江陵境路作禿峴　檜峙　九道味峙　途東路　旀等乃峙　小三馬峙　途洪川路　加五峙　途平路

洪川大彌山城在東十里石築　周二千一百九十七尺今廢　○嶺路獐尾嶺　神堂峙　途西路　國師堂峙　華川界

麟蹄寒溪山城在東五十里石築　周六千二百七十八尺今廢　內有井二○嶺路味旀嶺　色詩作陳矢嶺○見江陵境路作僧時嶺　屹伊嶺　炭屯嶺　途北路　頭毛峙　見橫口路　建里峙　色詩作雞伊嶺○陝川界　補五色嶺　見襄陽路　補西坡嶺　途東路　補加奴峙　南路　補眞寶嶺　北路

淮陽南山城在南十里石築　周一千六百六十七尺今廢　北山城在西南四十里嵐谷廢縣石築　周八百八十尺今廢　古山城在東五十里和川廢縣石築　周一千八百四十尺今廢　義館山城在北一里石築　周一千九百四尺今廢　天寶山城在南十五里石築　周五千六百三十尺今廢　鐵嶺古城在西北五十里光海十一年以漢河戰敗有北憂設關嶺上營嶺東九邑軍始役翌年罷　補長楊縣古山城在東一百五十里廢縣東四里　周九百五十所尺今廢　○嶺路平介嶺　安邊界　楸池嶺　見通川路

增補文獻備考卷之三十一

弘文館 纂輯 校正

輿地考十九

關防七

海防一○ 東海

東海之岸自慶興造山之南向西南斜迤至鏡城自鏡城南至魚郞浦自魚郞東折至加乙亇山盡處(山北係鏡城山南係明川)自加乙亇山之南向西南折轉至吉州之門巖自城津向南至胡打烽臺之東自端川向西南斜迤至定平自永興向南乍西至德源之北自德源向東南斜迤至長鬐蔚山自蔚山自南乍西至東萊之海雲臺大抵東海之沿與西南海異

少彎轉迂回處地之深入海曲者惟鏡城之梨浦明川之露猜(在加乙亇山南)

迎日之東乙背串也

慶興(以下係咸鏡道○南至海六十里)

造山浦(在南三十里有萬戶鎭有城見城郭)西水羅串(在南六十里有權管鎭地深入海曲者方言曰串有城見城郭)

(含西俗稱)掘浦(在東三十五里許有倉基張佛高麗北伐時漕轉處)檜洞浦(在西二十五里)鹿屯島(一云沙次麻島)

(谷坪甑浦沙次麻在南五十六里豆滿江入海處距邑三十里有島堡)卵島(在南七十里周十三里)麻田島(在北四十)

(里)楸島(在北四十五里)赤島(在南五十里周十二里有翼祖遺蹟有城見城郭作香池十里)

初 穆祖在斡東與女眞諸萬戶數相宴會 翼祖承襲亦如之

後 翼祖威德漸盛諸萬戶手下之人皆歸心諸萬戶忌而謀害

乃跪告曰吾等將獵北地而來請停會二十日 翼祖許之過期

不來 翼祖親往奚關城道見一老嫗戴水桶 翼祖渴欲飮老嫗進水因言曰公不知乎此處之人實因請兵而去貴官威德可惜吾不敢不告 翼祖遑遽而返使家人乘舟順豆滿江而下期會赤島自與孫夫人至慶興後峴望見斡東之野賊騎彌滿先鋒幾及之 翼祖與夫人走馬至海岸自岸至赤島水廣可六百步本無潮汐深不可渡舟亦未至無如之何忽水退惟百餘步未竭翼祖與夫人共騎一白馬而涉從者畢涉水復大至不得渡而去翼祖遂陶穴而居其基至今猶存爲斡東之人聞 翼祖在赤島皆歸焉

慶源爲慶興之次(南至海一百六十五里都海津並有倉)

穩城爲慶源之次(南至海二百六十五里都海津並有倉)

大草島(在南海中周二十一里)小草島(在大草島東)

鍾城爲穩城之次(南至海一百八十里都鹿野社有倉)

椴島(在南一百九十八里)

會寧爲鍾城之次(東南至海一百四十九里都櫻山社有倉)

茂山爲會寧之次(南至海二百三十五里鄉加隣鐵社有倉與本府地不相連越在會寧府界南至寧府界東)

慶興外六邑皆去海絕遠故書邑之時爲漕運地各置海邊一路設海倉六邑相去里數不可以官府計也故於其官下不書而自慶興之雄耳社西界至富寧之孟山嶺東不過二百四十餘里其間五府沿海之地也

安邊爲德源之次 北至德源官五十里東至江原道歙谷界九十里東至海三十里北至二十里

浪城浦 在北二十五里鶴浦烟臺所屬 歷戎串 在東五里國島 在東六十里周五里 鶴浦 在東六十里高歷戎串 在東五里國島 在東六十里周五里

君山北石壁倒立四隅石柱北列海島巖頭西南斜土覆其上有箭鏃似 女島 在北島北距府三十里

歙谷爲安邊之次 以下俱江原道○西至咸鏡道安邊界七里東至海三里

穿島 在南十六里周三百餘步島有泉通南北風時相逐自島能海船南可住艦石亭其間八九里又自艦石亭絕海深處可住舍

欄檻其間有小島森列口穿島野島羊島楸島赤十餘里 侍中臺 在北七里東有小島森列口穿島野島羊島楸島赤十餘里島社島自島艦之舊名七賓本朝聽駐蹕時

增補文獻備考 卷三十一 輿地考 五

睿孫子先奉祖相之命遁至於此名 東德島 在東南有二島一周一百五十步一周一百三十步

通川爲歙谷之次 北至歙谷官三十四里東至海十里

甕遷 在南七十里石山社子院路繞山屋其不得并行下有海浦海之作樓俗傳侯寇到此官軍擊之喜躍於海又名侯躍遷

卵島 在東水路五十里三面石壁倒立西有一逕通水屋僅容一艘舟每歲三四月採中食島蕈蕨即育豬島 在南水路五里

高城爲通川之次 北至通川官一百二十三里東至海八里

荒島 在南水路二里 沙島 在南水路三里 松島 在南水路四里

靈津串 在北二十二里金剛山東麓山形如竹筍聳壁之狀 高城浦 在東七十里有萬戶鎮今廢興德作七里 鳴沙 在南二十三里沙邊連陸高麗五十四里 松島 在南二十三里沙邊連陸高麗時東萬國以舟即來圍焚戰艦

杆城爲高城之次 北至高城官一百里東至海七里

黃浦 在南二十五里 松池浦 在南二十里 竹島 在南二十里周二里有僧舍古基碑箭竹國其上 無路島 在南四十五里周回數百里 掛島 在南三十里 猪島 在烈山縣北三十五里三十里有箭竹 草島 在北三十五里烈山東五里有城郭

襄陽爲杆城之次 北至杆城官八十五里東至海十二里

雙城湖 在北四十里周二十里有萬戶鎮治所今廢 大浦 在東十二里咸宗十一年自江陵移仁義縣萬戶鎮于此

今廢有城 竹島 在南四十五里飄風亭前隔島曾竹島下有大石洞如樓廓昏夜則洞中有小鐘石

江陵爲襄陽之次 北至襄陽官一百二十五里東至海十里

安仁浦 在東南二十五里有萬戶鎮因舊所置今廢又曾置十里有寺成海今成北二十里有化城成沙成曾古兵成處

遮谷浦 在東三十五里溪谷廢縣置 注文津 在北四十里 梧川 邑誌魯梧耳津在南八十里○右三浦有

添城 今廢 堅遣浦 在東十里城南川入海處

三陟爲江陵之次 北至江陵官一百十七里東至海八里

三陟浦 在東八里舊有倉使今廢有城見城郭 藏吾浦 在南六十二里有內外藏吾里舊東海舟處有乐板 德山島 在南二十三里交阿尹東

增補文獻備考 卷三十一 輿地考 六

蔚珍爲三陟之次 北至三陟官一百五十三里東至海九里

蔚珍古縣浦 在南十一里有萬戶鎮今廢有城見城郭 于山島 鬱陵島 在東三百五十一作百一里一作百一

作于一作羽一作武二島一即于山今稱鬱島

島在蔚珍縣正東海中與日本之隱岐州相近三峯岌嶪撐空南

峯稍卑日淸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歷歷可見風便二日可到

地方百里產柴胡葉本石楠藤草諸香木薑竹多合抱者薏實桃

核大可爲杯升山猫大如犬鼠大如猫海中有大獸牛形赤眸無

角卒臥海岸見人獨行害之遇人多走入水名可之島本于山國

新羅取之後恐導倭爲寇刷出居民空其地高麗太祖庚寅土頭

貢獻授使白吉丹以土頭爲正朝顯宗壬戌島民被女眞寇畧逃

來者多處之禮州爲編戶德宗壬申島主遣其子夫於仍多郎來

貢仁宗己未溟州道監倉使李陽實入島取果核木葉異常者以

增補文獻備考卷之三十九

弘文館　纂輯　校正

輿地考二十七

離宮室三

外方宮室

京畿道

開城府　敬德宮　在縣制我　太祖開基舊宅後考徙焉宮○倉宗十九年置參都御史兼理文命堅于留宮　太平館　在西小門外○高麗時館接東番後為使臣止宿之所　勿far常寺　宋　宋厚所建及　壯觀之所○國初嘗重修其舊今　上三十二年改分東常同　逝斯亭　在花潭上○南宗己未留守尹洪重修易以石柱　大乘堂　即行宮在大興山城

增補文獻備考　卷三十九　輿地考　一

江華府　行宮　在虎頭北　仁祖九年留守李時白建　璿源閣　在摩尼山城　體檀山頂足山城　顯宗庚子留守閔鼎重修○肅宗丙辰留守權尚夏改建　史閣　在行宮東○正祖五年留守徐有榘修　壽尾亭　在月串鎮舊基武時實新刻堅　外李章閣　在行宮東○正祖五年留守徐有榘修舊基武時實新刻堅　無忘樓　在西軒基○英祖甲子留守金始煥重建又僕記○亦東有小島其名後為鎮○英祖甲子留守金始煥重建又僕記○亦東有小島其名為假復水臨江南人平津西入井天塹分流為二故俗呼尾故名焉　枕戈亭　在城內○李朝燕城時得一古劍故留守李興銘建　清心樓　在客館北高

驪州　清心樓　在客館北高

楊州　豐壤宮　在州東五十里桑麻鎮舊驪宗上王潛邸年久頹毀　奉先殿　在州東三十五里　景德山城　在州東七里高城山城南壁樓○府東北隅文忠公李恒福記○世祖壬午府使閔孝恪重建中板外閣記今廢　訪花隨柳亭　城東北樓城東北樓正祖時建　華陽樓　城西南隅正祖時建　未老閑亭　行宮　正祖時建　迎華亭　在昌義門外五里正祖時建　杭眉亭　在孝西門外五里純祖辛卯建　利川　愛蓮亭　在客館東宋詩始建明光緒年高麗戊申重建　通津　控海樓　在府西十里文峰山城　楊根　鑑湖亭　在郡西人里　朔寧　羽化亭　在郡南入里江川上○顯宗丁未郡守李山甫建○肅宗己未郡守閔維重建黃履翼記　果川　龍驤鳳翥亭　正廟時建

增補文獻備考　卷三十九　輿地考　二

忠清道

忠州　實錄閣　在客館東南隅本朝實錄藏焉　忠州　元帥臺　在州西七星　拱北樓　望祭山城北門樓　洪州　四達亭　牧使鄭士顯始建　愛蓮堂　孝宗丁酉趙文正公來時重修記　淸風　寒碧樓　在客館東玉麗時建東○年久頹圮府使閔維重修重修記　明月樓　在客館東玉麗時建東○年久頹圮府使朴炳文重修記　公州　拱北樓　望祭山城北門樓　淸州　拱北樓　望祭山城北門樓三里○顯宗朝府使李存身重建　儉然齋　顯宗朝府使金壽增建

丹陽　鳳棲亭　在客館東南隅　蒼霞亭　在郡西二十里龜湖上　水雲亭　在郡南二十里龜湖上　棲碧亭　在合江上人駐

星州　實錄閣　在州城內客館東北今廢

金海　燕子樓　在虎溪上

密陽　嶺南樓　在客館東○舊在嶺南寺之小樓後廢前朝都巡王乙已知郡事金浩因其舊改新因以寺名名之仍撰記○本朝世祖庚辰府使姜淮仲改建快哉亭於樓北申叔舟撰記○法宗壬寅大甲辰府使李熙輔重建

晉州　矗石樓　在州內育一里矗石城內○壬辰倭亂守城將士多死於此○太宗癸巳牧使權遇重建河崙撰記

尙州　鳳詠樓　前朝都巡王庚戌牧使金南得建文靖公李穡撰記庚申牧使于吳○庚午牧使宋國重建權近撰記○本朝成宗戊申牧使鄭顯祖改建文忠公金宗直撰記今廢

金海　金守溫撰記○今廢

陜川　涵碧樓　在郡東五里南江石崖上○前朝建安撫使撰記○知郡事金宗直撰記○宜寧乙巳爲大水漂沒○庚申宗丙申府使孟胄瑞重建○英廟乙未又重建○成宗己酉郡守李承召改建了未府使李集等重建

靚風樓　在府城內○成宗辛卯府使蔡壽改創○壬辰火癸巳府使慕華改構

永川　朝陽閣　在川樓東址

梅月樓　在客館東○成宗己酉郡守金永濟建金紘撰記今廢

梁山　日暇亭　在郡西十八里黃山郵舍北○文正公宋時烈撰記

梁川　濟民樓　在郡西南一里龜山南○仁宗癸丑知郡事趙宗建繼學權敍授文獻撰記

固城　洗兵館　仁祖朝統制使金應南建貴正撰記統制楊宏敬

義城　朝陽館

奉化　實錄閣　在縣北七里太白山舊址寺北十里○明宗丙午建

眞寶　玉流亭　在縣治後○舊名蒼玉亭文義公李浚詩有玉流二字改今名

開慶　交龜亭　在縣西二十七里烏浦龜湖上○成化年間建觀察使安陽撰

安義　光風樓　在客館北○舊名宣化樓成宗甲寅縣監鄭陵八改建易今名○宜君丁酉倭亂燬于兵燹縣監沈宗仕重建

比安　衝瀛樓　在客館東○太宗癸未置縣監沈陽建

山淸　換鵝亭　在客館西○縣監沈陽建

新寧　瑁碧亭　在客館西○英宗乙卯縣監吳瑗後廢○丈每年春縣監宋翼昌重建文正公宋浚吉撰記

禮安　秋興亭　在客館東○仁宗乙巳縣監李郁建觀察使閔箕命名閔撰記今廢

延日　寅賓堂　在客館西北○成宗庚子縣監金得胤建文忠公金宗直撰記

江陵　瓏源閣　實錄閣　寒松亭　在府東十五里臨鏡臺南江原道

鏡浦臺　在府東北十五里○舊無亭前臨忘湖王因宴存海便朴訒眞淳亦其主要輪撰記今廢

善山　月波亭　在府十一里鉢次足津東岸○定宗己卯府使崔關建權近撰記今廢

靑松　讚慶樓　在客館南○仁宗己酉郡守河澹建洪汝方撰記

大丘　如水閣　一名琵琶樓又名觀西閣○觀察使李美鎭撰記觀察使李敬儀又撰記

東萊　靖遠樓　舊在客館北○世宗丙寅縣令金時寯建申叔舟撰記○宣祖壬辰倭亂燬燼　通宗戊子府使柳輅重建夏峰撰于客館南

草梁客館　在府南二十七里○英廟庚寅重建○貢使所館

鎭南亭　在府南五十里多大鎭

蔚山　伴鶴亭　舊東朝新名一鶴軒○英廟庚辰府使閔安大重建改今名

太和樓　在府西南五里○自鄭麟趾有

巨濟　制勝堂　在閑山島忠武公李舜臣統制使時營建○英廟庚申統制使閔維重經略舊額命撰記

咸陽　學士樓　舊在客館南在城溫古堂前太守時所建官故名焉○英廟庚寅郡守申子權重建申叔舟撰記○仁祖癸酉郡守鄭弘溟改名涵碧樓

齊雲樓　舊在客館西北今廢原額感恩時移建南門外名焉

鏡浦臺　在府東北十五里○舊無亭前臨忘湖王因宴存海便朴訒眞淳亦其主要輪撰記今廢

霽月堂　舊○後增其制視淸月堂名文正公宋時烈撰記○仁祖甲申縣監朴長遠重建

原州　蓬萊閣　在宣化堂北通政中○彦宗平子觀察使李晚榮重建○英祖四百四十四年戊申使金宗星重修仍撰記　龜石臺　在州東二里

襄陽　降仙亭　在府北二十九里今廢

春川　開韶閣　在客館西○仁祖六年戊辰府使柳孝恭重建○正祖丁酉又大水漂去庚子府使李東馨重建撰記　昭陽亭　在府北六里昭陽江岸○諸樂樓後改今名○宣祖乙巳大水漂去丙午府使柳孝恭重建○正祖丁酉又大水漂去庚子府使李東馨重建撰記

三陟　竹西樓　在客館西○有　肅宗　御製七言絕句一篇

伊川　天遊臺　在公廨西○肅宗乙卯府使李喜輔建○英祖辛未府使李衡萬改建

寧越　觀鳳樓　在客館東今廢　錦江亭　在府東一里洞邱江岸○世宗戊申郡守金復根建○肅宗朝贈　上王詩額

梅竹樓　在客館北○郡守　子規樓　望祭壇有御製短句　中秋座建今廢

平海　越松亭　在郡東七里路邊傳述郡守徐思恭之德○蓋觸亭字爲山突高類觀使李元宗所建○有　肅宗朝御製七言

四仙亭　在郡北八里三日浦中○蓋無亭字前朝必有至今猶存物使朴信貞所建○本朝　王祖乙巳郡守李宜先重建

杆城　清澗亭　在郡南三十餘里岸上本洞口郡守

蔚珍　望洋亭　在海邊

歙谷　侍中臺　在郡北七里○舊名七宮臺高麗使禪明修望闕拜謁故之命遂至改今名以志舊

麟蹄　合江亭　在縣之五里

黃海道

黃州　廣遠樓　在客館東○世祖丁丑幸使高閑撰記○後改太虛樓　宣祖丙午明使朱之蕃題額　月波樓　一名

具又增建下有池臺　宣祖丙午明使朱之蕃到黃岡步使四字又題像額

海州　芙蓉堂　在客館西○牧使金公望改建文正公宋時烈撰記　栢林亭　在官舍北　控海臺　高麗文王登宋時烈撰記

瀋熱亭　在州北三里○宣祖己卯牧使權克孝又撰記　延安　平遠堂　在城中四通之衢○宣祖己卯府使尹守勇建文成公李珥撰記　君子亭　在府東三里牧使李民宬重修記

平山　靈昭堂　在府西六十里館舍○仁祖乙丑　李期自謫經留時止宿于此○英祖壬午書額懸板堂三字觀察使　韶英重　撰記

瑞興　月迎臺　在府北七里白城內

甕津　披香亭　在城內

鳳山　洞仙別館　在郡南四里○高麗庚午北使來時館役一人死于客館其後北使拘留不入館每設假家於館傍西

子部守吳彦宗作別館三十間又整一井置冀目土築墻得作館待之留由是民弊永止

安岳　友蓮堂　在公廨北○郡守　金公粹建今廢

遂安　華表館　建萬後又經改建○英祖甲戌郡守沈發又移建于郡

新溪　秀林亭　在官門東一里○郡守　英祖壬午重建

長連　却暑亭　在縣西今廢

松禾　照鏡軒　在客館左

咸鏡道

咸興　本宮　在府南十五里雲田艦都　永興朝貢部○宣祖二十五年使臣洪履祥先海時觀察使韓浚謙重建○有　肅宗朝御製弓弧一箱御筆扁額　慶興殿　在慶興十五里鍾城朔　冕旒于慶興○有盤松樣　宗皇自書扁額咸興府守于此故人謂之慶

之祭先爲議定壇壝牲幣之禮祝號辨祀之式酌古準今以爲恭祀典而膺天祜批以侯邦之祭分野星辰厥有故事之可按壇壝儀節依南壇例爲之壇號以星壇爲定尾箕神室奉安禮節令大臣議領議政趙斗淳以爲尾箕爲東方分野則神室奉安當在於東方神室而位次則謹按周制歷代祀典似當在於后稷氏之下天駟先牧嶽瀆之上矣 敎以依此爲之祭享以每年正月上寅日行事定式祝式頭辭依相臣議只曰諱某而與南壇有差殊之別○光武元年始祀圜丘五星二十八宿從享而星壇廢

嶽海瀆山川

增新羅邊聖王五年十月王北巡祀太白山今三陟

基臨王三年至牛頭州今春川望祭太白山

祭志 名山大川分爲大中小祀大祀三山一奈歷皆北部○今慶州二骨火切忽火郡○今永川三穴禮大城郡○今慶州望○中祀五岳東吐含山大城郡○今慶州南地理山青州○今晉州西鷄龍山熊川州○今公州北太白山奈己郡○今奈吉化○又本西鷄龍山作今公州望祭太白山作今奈吉化○又本南海耻也里推火郡○今密陽○一名悉直西加耶岬嶽馬戶山郡○今固城北熊谷嶽地理志郡○今安邊西海東阿等邊溟火郡○今興海南兄邊居漆山郡○今東萊西未陵邊屈山郡○今臨陂北非禮山邑今三陟四瀆東吐只河退火郡○今興海○一名甘堀南黃山河館良州○今龍山西熊川河熊川州○今公州北漢山河漢山州○今廣州俗離嶽三年山郡○大加耶郡○今高靈上助音居西西林郡○今舒川烏棲嶽結己郡○今結城北兄山大城郡○不能洒還在於晉州兄山聚屬時隔北兄山○原本作今清道恐誤清海鎭助音仙○今巨濟小祀霜嶽高城郡○今高城雪嶽皆城郡○不顯析城縣於義陽○原本作今析城恐誤華嶽斤平郡○今加平緋嶽七重城○今慶源負兒嶽花溪白州○今京都月奈嶽月奈郡○今慶興武珍嶽武珍州○今光州西多山伯海郡雖知可縣與地考作雖珍阿縣今錦愛月兒山奈吐郡沙熱伊縣○今錦城道西城高特郡○今鎭冬老嶽進禮郡丹川縣○今慶安竹旨及伐山郡只居西郡○今慶興熊只郡○今熊川嶽髮子珍色郡○今扶餘于火生西良郡于火縣○今豆山○一作髮嶽三峙大城郡○今清道奔黃牟梁作警山之訛無考是高墟沙梁○今晉州嘉阿嶽三年山郡○今報恩波兵谷原嶽阿支縣○興地考無慶州本號嘉阿分疏考文獻非藥嶽溫火郡○今興海○一本有書分嘉阿支獻加林城加林縣○今林川○一本有作加良嶽青州○今晉州西述牟梁○慶州伯納山新羅時稱西述

高勾麗以三月三日會獵獲猪鹿祭山川

增山上王七年薨嗣於山川

高麗穆宗七年幸鎬京加方嶽州鎭神祇勳號

增顯宗即位初國內羣望神祇皆加勳號

二年監察御史安鴻漸上言丹兵至長湍風雪暴作緋嶽神祠若有旌旗士馬丹兵懼不敢前昔苻秦伐晉望見八公山草木皆爲晉兵畏而退去神明所贊古今何殊請令所司修報祀從之

十九年陞南海神祀典以定安縣再進珊瑚樹也

文宗三十三年山川神祇加知幾二字號

增三十六年幸溫水郡制加所過山川神號

肅宗六年二月遣便秩祭山川詔曰己卯幸三角山所過山川神號各

加仁聖二字令所在州縣祭告

睿宗十七年王有疾禱于山川神祇

仁宗元年十二月秩祭山川

六年以天文有變詔宰祀國內山川

九年祀國內名山令鄭知常撰祭文

明宗十四年以太子無嗣遣使禄祭于白馬山

高宗四十年國內名山及耽羅神祇各加號濟民

四十一年祈祀于山川以有蒙古兵也

元宗十四年以討耽羅時無等山神有陰助之驗春秋致祭

忠烈王元年六月遣使于忠清慶尙全羅東界等道徧祭山川

三年以耽羅之役錦城山神有陰助之驗令所在官歲致米五石以奉其祀

忠宣王三年禁祭紺岳山時尙鬼公卿士庶親祭

忠肅王十二年山川載祀典者各加德號修葺祠宇

忠穆王四年冬王病遣贊成事李君侯設水陸會於天摩山

恭愍王八年以賊起祭中外山川於神廟以求助

十年禱兵捷于群堂

十九年大明太祖高皇帝遣道士徐師昊來祭山川祝文曰皇帝遣朝天宮道士徐師昊致祭于高麗首山及諸山之神首水及諸水之神高麗爲國山勢磅礴水德汪洋實皆靈氣所鍾故能使國君尊慕中國以保生民朕混一天下高麗奉表稱臣朕已封王爵古典天子於山川之祀無所不通是用遣使修祀

師昊又載碑石而來立于會賓門外陽陵井其文略曰洪武三年春正月三日癸巳皇帝御奉天殿受群臣朝乃言曰邇者高麗遣使奉表稱臣朕已封其國王則其境內山川既籍職方考諸古典天子望祭雖無不通然未聞行實禮達其敬者今當具牲幣前往用答神靈於是上齋戒七日親製祝文至十日庚子上臨朝以香授臣師昊臣以四月至其國設壇城南五月丁酉敬行祀事於高麗之首山大華嶽神及諸山之神首水大南海神及諸水之神臣聞帝王之勤民者必敬神皇上受天明命思與普天之下共享昇平故遣臣致祭于神

神既歆格必能庇其國王世保境土年穀豐登民庶靖安庶昭聖天子一視同仁之意

高麗時積城紺岳祠春秋降香祝行祭○鎭州(今鐵川) 胎靈山春秋降香行祭(即金庾信藏胎之地)○南原智異山仍新羅舊典爲南岳中祠○光州無等山(一云武珍山)仍新羅舊典致祭○長興長山串春秋降香祝行祭載小祀○交州(今陽德縣)德津溟所載祀典○定州(今定平)鼻白山春秋降香祝行祀○德州(今永興)沸流水春秋降香祝行祭

本朝嶽海瀆 嶽南智異山在南原中三角山在都城北西松嶽山在開城府北鼻白山在定平海東海在襄陽南海在羅州西海在豐川瀆南熊津在公州伽倻津在梁山中漢江在都城南西德津在長湍平壤

江在平壤鴨綠江在義州北豆滿江在慶源壇制與風雲雷雨同惟一壝無壇則有廟三間

名山大川 東雉岳山在原州南鷄龍山在公州竹嶺山在丹陽方丈佛山(與瑞光寺佛山同)在蔚山主屹山在閒慶錦城山在羅州中木覓山在都城內南西五冠山在長湍牛耳山在海州北紺岳山在積城義館嶺在淮陽大川南楊津漠所在忠州楊津在楊州西長山串在長湍阿斯津松串在安岳清川江在安州九津瀙水在平壤北德津漠所在淮陽沸流水在永興壇方二丈一尺高兩尺五寸四出陛一壝二十五步無壇則有廟三間

太宗六年命修治山川壇給守護人丁

五禮儀 嶽海瀆神座在北南向(三獻自則就白岳山祭之三獻轉在北白岳神座東)仲春仲秋祭之(孟春先行元壯祭)每位饌實籩豆各一簠簋各一豕俎一爵一嶽海瀆各籩二山川各籩二罍祝享儀同節祭惟不飮福受胙(說見圜丘報祀)同新雨惟飮福受胙

(補)許穆曰祭山川海岳最尊今四瀆中祀而海岳小祀蓋失之禮也

(編)今 上光武三年十月 詔曰惟天子祭天下名山大川而五嶽五鎭四海四瀆之封尙今未遑祀典未備令掌禮院博攷定祀

金剛山曰東嶽智異山曰南嶽三角山曰中嶽妙香山曰西嶽白頭山曰北嶽五臺山曰東鎭俗離山曰南鎭白嶽山曰中鎭九月山曰西鎭長白山曰北鎭東海在襄陽郡南海在羅州郡西海在豊川郡北海在鏡城郡洛東江曰東瀆漢江曰南瀆浿江曰西瀆龍興江曰北瀆

名山大川 神座在北南向仲春仲秋祭之(孟春先行元壯祭)每位籩豆各八簠簋各二豕俎一爵三白幣一象尊二祝稱國王散齋二日致齋一日獻官三品州縣獻官守令祭儀同嶽海瀆川則沈祝北郊嶽海瀆望祈時並祀五方山川神位(詳見神祠)

宣祖二十六年 上還自龍灣遣香祝祭各道名山大川

仁祖十九年始祭摩尼山山在江華府命守臣建祭壇于山之中麓又建立版奉安閣每歲春秋降香祝行祀

肅宗十六年瑞興縣有毒疾民多暴死 上親製祭文遣禮官祭本道名山

己未北壇新雨祭獻官憲豊君瀗上疏言豕一之牲分享嶽瀆山川十九神位片片裁切所見埋沒禮曹啓行之已久不可增設議遂寢

二十九年禮曹判書閔鎭厚言漢挐山以海外名山獨漏祀典命議大臣領議政申琓議州縣名山大川皆載祀祭漢挐山獨漏禮曹啓所謂五禮儀未成之前耽羅未順之時故因此落漏者似然追載祀典恐無

所妨領中樞府事尹趾完議漢拏山不入於祀典本州啓本所謂五嶽儀崇成時本州乍順乍逆者非考據之言無亦以海外區別不同內服而然耶國典所無今難擅行而第本州事體與諸道州郡有異若令本州春秋享祀如諸侯祭封內山川之禮則似或無妨　敎曰漢拏山以海外名山獨不入於祀典未免欠闕依領相議施行

濟州牧使李喜泰啓言漢拏山異於他山自九月積雪人不通行不得已山腰雪殘精潔處行祭

四十三年　上幸溫泉禮曹啓曰幸行時所經一路名山大川祭溪江來三月初三日果川冠岳山穉山聖居山各於駐蹕日設行溫陽溫井祭同月初八日設行請香祝幣物自京下送犧牲該道封進從之

四十四年以癘疾熾盛遣重臣致祭于山川

英祖七年　上講曲禮因文義　敎曰今開各處祭器不備岳瀆祭器借用於山川非事神以敬之義申飭該曹

十五年　上臨南北壇增牲牢諸品 詳見增 永昌

十八年　敎曰北民濟活專待南穀穀物順運專在洽海艱民之力臭載洋中非特濟活之漠然吁嗟船人亦非吾民思北道之飢民願南沿之船格中夜無寢慶誠以祈亦爲民之一道分付該曹下送香祝于東南北令三道道臣躬自致祭於當道海神以祈利涉

四十三年左議政韓翼謨言懸瀑之祀有國所重興王之地視他尤別我國北關若周之邠岐漢之豐沛列祖舊基皆在於此　列朝陵寢皆奉於此一水一麓無不發源於甚山此實我朝炳靈發祥之地尙未有崇報之禮或者以偪近彼界難之臣謂山川之祭傳稱望秩不必登山巔而行祭以中國言之醫無閭謂之北鎭而鎭廟在於平地距山頂未知爲幾里自白頭至茂山其間陂陀丘陵無非此山則依近村舍設壇築壝時節薦享少無所妨　上下詢大臣奉朝賀會拓基以爲有國於名山大川崇祀報賽從古已然況我國諸山皆發脈於白頭山而山之旁近又是　列聖陶復發祥之地則立國近四百年尙未議崇祀於是山者恐是闕典且以定平鼻白山爲北鎭者若以其時北路疆土未盡入於版圖也則如鏡城吉州等邑在麗末已盡收發慶源之豆滿江亦以北瀆載祀典況如長白大山既在錢吉之界則不以是爲北鎭而乃以自長白南去九百里之鼻白山定以北鎭者議有所未敢知白山之祀臣無容別議又命二品以上會議利曹判書洪重孝以爲禮云諸侯祭封內山川臣未知此山果在封域之內歟頃年穆克登定界時立碑分水嶺以爲界則嶺之距山殆一日程恐未可以謂之封內也設壇之所早凍晩解仲秋雪或亥丑二月氷猶過尋勞將發民治道掃雪鑿氷面後乃可行祭若値風雪則人吏驟卒之能免凍死亦未可必也敎曰昨日所奏中發祥攸慶四字起感況此非張大不過望祀以祀典法例言之三角山同祭於白岳岳瀆合祭於北郊此非徒我朝典禮卽皇朝舊典思之及此瞿然而起名大臣諸臣莫重之事亦不敢已見爲是先令儒臣讀龍飛歌第一章今我　始祖慶興是宅八字彌切徵忱

以此觀之白頭山爲東國宗山其尤明驗今雖非我國之境其在追報之道猶爲望柴況在我國乎漢挐山雖國中名山豈比於此因一牧使狀聞昔年特擧祀典況此乎望祀一節令儀曹擧行設壇可合處問于道臣禀處行祭時日依嶽海瀆例以正月二月八月擇日設行神位版書以白頭山之神祭物祝式依鼻白山例香祝亦依嶽瀆祭例一年分兩等下送可也咸鏡監司金器大啓甲山府八十里雲龍堡北八里惠山鎭南七里許有望德山以程道言之爲二百餘里以相望言之不過百里全體乾然對峙可合設壇從之又以行祭時若値風雨事多難便命依鼻白例營建祭閣

續五禮儀 嶽海瀆山川親享新雨與親享先農儀同

正祖十七年 敎禮曹濟州漢挐山祭儀註依五禮儀所載州縣名山大川儀行之從禮曹之請也

城隍

高麗文宗九年宣德鎭新城置城隍神祠賜號崇威春秋致祭

仁宗十四年西京平金富軾遣人祀城隍諸神

高宗二十三年加封溫水郡城隍神號以郡吏玄呂等擊敗蒙兵城隍神有密佑之功也

忠肅王六年焚德水縣城隍祠宇王敗于是縣海東青及內廐馬毬怒而焚之

金海府松岳堂在金剛社西北諺傳高麗元宗遣金方慶征日本時留次金剛社祀松堂之神于此邑人祀本邑城隍神者兼祀于此

本朝城隍壇與風雲雷雨同壇享城隍之神

太宗六年命修治城隍堂壇塲給守護人丁

五禮儀 神座居風雲雷雨之右並南向祀儀見風雲雷雨壇屬祭時先行發告祭于城隍壇又於屬祭日奉城隍位版行祀于屬壇 詳見吉禮

仁祖十四年 上在南漢命祭于本州城隍以祈神助

增補文獻備考卷之七十九

弘文館 纂輯 校正

禮考 二十六

章服 一〇 羅麗以上衣服雜制 新羅 〇 百濟 〇 高麗

檀君元年敎民編髮盖首 以下羅麗 以上衣服總論

箕子朝鮮衣冠制度悉同中國

補 尹根壽曰平壤有藤杖一雙相傳爲箕子杖一則中絕以黃錫包束其折處蓋之漆痕凡監司出衙聽騎兩人持而前導監司坐而聽政對賓客輒植之階上左右承以朱漆木至壬辰倭亂見失云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 二

補 江陵人李有根家有世傳古烏玉笏短而且狹與我朝之制大異其面刻痕徵有箕子笏三字舊老皆以箕子笏稱之裹陽文官崔遠泰作序緘送于判書李德壽轉入于楓宸云

衛滿朝鮮椎結夷服

馬韓以緩珠綴衣爲飾及懸頸垂耳魋頭 魋椎也科連貫以髮髽後被肩皆以露紒布袍草履

弁辰俗好衣幘下戶詣郡朝謁皆假衣幘自服印綬 弁辰與弁韓北史則以此俗之不同

濊男女皆衣曲領○男子繫銀花廣數寸以爲飾

扶餘在國衣尙白白布大袂袍袴履革鞜出國則尙紛繡錦罽大人加狐狸狖白黑貂裘以金銀飾冒

補 晉書夫餘人凡奉使者皆衣錦罽

渤海服章亦有紫緋綠牙笏金銀魚之制

新羅眞德主二年金春秋入唐衣服請變唐儀唐帝賜衣帶始服中朝衣冠 以下新羅

補 唐玄宗賜新羅王五色羅紫繡紋袍

高勾麗王服五采以白羅製冠革帶金鉔

百濟古尒王二十八年王服紫大袖袍青錦袴金花飾烏羅冠素皮帶烏革履坐南堂聽事

高麗國初視朝服制用柘黃袍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 二

太祖時新羅敬順王獻眞平王玉帶初眞平王時有神人降於殿庭謂王曰上帝命我傳賜玉帶王跪受凡郊廟大祀皆用之時人讖曰雲外天頒玉帶開祥瘴龍衮雅相宜吾君自此身彌重淮擬明朝鐵作堺及敬順王降來獻乃鎔金安玉拼方腰帶長十圍六十二銙也命藏于物藏庫先是新羅使金律來太祖問曰開新羅有翠帝帶有諸律對不知敬順徧問群臣無知者有皇龍寺僧年過九十者曰予聞眞平大王所服歷代傳寶藏在南庫遂開庫覓之風雨驟作白晝晦暝乃擇日齋祭然後得之

補 輿服志曰王太祖開國初事多草創冠服之制皆用羅舊

文宗三年詔曰朕覽羣臣所上封事多言俗尙侈靡攸司授先王典禮

鉉

尙德祠宇 肅宗甲申建 本朝新寧縣監尹明運

彦陽粲龜書院 肅宗壬辰建 高麗侍中益陽郡忠義伯諡文忠公鄭夢周

本朝右贊成贈領議政諡文元公李彦迪　大司憲贈領議政諡文穆公鄭逑

江原道

江陵松潭書院 仁祖丙子建 顯宗庚子賜額 本朝右贊成贈領議政諡文成公李珥

五峯書院 顯宗丙辰建 周文宣王孔子

鄕祠宇 仁祖乙酉建 本朝吏曹參判崔致雲 配享 本朝大司憲崔應賢 設享

子 兵曹佐郎朴公達　贈領議政諡文正公崔壽崧　龍宮縣監

朴遂良　橫城縣監崔雲遇　鐵山縣監崔洙

原州七峯書院 光海壬子建 顯宗辛亥賜額 高麗進士元天錫　本朝直提學贈吏曹判書諡貞簡公元昊 肅宗甲申追享 配享 本朝右贊成諡靖憲公鄭宗榮 肅宗己卯追享

陶川書院 肅宗癸酉建 顯宗辛亥賜額 本朝掌樂正許厚

忠烈祠 顯宗辛亥申建 康成賜額 高麗應揚上護軍諡忠肅公元冲甲 配享 本朝忠淸監司贈領議政諡文肅公金堉甲　全羅右水使贈左議政諡忠壯公元豪

鹿巖祠宇　本朝進善丁時翰

影堂　本朝益安大君諡安襄公芳毅

春川文巖書院 光海庚戌建 仁祖戊子賜額 高麗贈儀判書明朝禮部尙書金湝

本朝左贊成贈領議政諡文純公李滉 配享 本朝吏曹參判李廷馨 肅宗丁巳追配

判中樞贈領議政諡文簡公趙絅 上同

道浦書院 孝宗庚戌建 高麗太師諡壯節公申崇謙 配享 本朝領議政諡文貞公申欽 光海辛丑十一月賜額

司纂正贈都承旨金敬直 同上

春曉堂影堂 肅宗甲申建 漢承相武鄕侯諡忠武侯諸葛亮　本朝贈吏曹判書諡淸簡公金時習　工曹參判金壽增　執義贈吏曹判書諡文康公金昌翕 肅宗己巳追享

鐵原褒忠祠 顯宗乙巳建 肅宗戊申賜額 本朝宣川郡守贈領議政諡忠武公明朝贈遼東伯金應河

寧越彰節祠 肅宗乙未建 己卯賜額 本朝禮曹參判贈吏曹判書諡忠正公朴彭年　右承旨贈吏曹判書諡忠文公成三問　直提學贈吏曹判書諡忠簡公李塏　司成贈吏曹判書諡忠景公柳誠源　禮曹參判贈吏曹判書諡忠烈公河緯地　北兵使贈兵曹判書諡忠穆公俞應孚 配享 本朝本府戶長贈工曹參判嚴興道　錦城大君瑜 正祖辛亥 道享 和義君璔 上同

巡忠祠 英祖戊寅建 本朝本府殉節人

襄陽東溟書院 仁祖戊辰建 高麗三司左尹龍源府院君本朝贈漢山伯諡襄烈公趙仁璧

三陟景行祠宇 仁祖乙卯建 本朝永興府使贈吏曹參判金孝元

年陞都護府使○谷山都護府使高勾麗始置郡新羅景德王置郡
太守高麗成宗置防禦使顯宗改知州事本朝　太祖二年以　神
德王后康氏鄕陞府使　太宗二年降知州事後降知郡事　顯宗
十年復陞都護府使○甕津都護府使水使兼高勾麗始置縣高麗
顯宗置縣令本朝　太宗朝太六年置兵馬使兼判縣事　世宗五
年改置僉節制使後置縣令　肅宗四十五年陞都護府使後水使
兼○瑞興都護府使高勾麗始置郡高麗成宗置防禦使顯宗革屬
知平州事元宗以藏胎置縣令本朝　太宗十五年陞知郡事　世
宗六年以入朝官者尹鳳之鄕陞都護府使　顯宗十二年趙大立
賊殺府使李宇柱特命百年降縣監朝英祖三十八年復舊朝正祖

元年降縣監十年復舊○豊川都護府使高勾麗始置縣高麗成宗
陞都護府使顯宗改防禦使本朝　太祖六年以兵馬使兼知州事
太宗十三年改知郡事尋復舊　世祖五年朝四改置僉節制使
睿宗元年以　王妃外鄕陞都護府使○國長湍都護府使高勾
麗始置縣新羅置縣令高麗顯宗革屬瓮津府使睿宗置監務本朝
太祖原本作太宗元年今釐改　元年置萬戶兼監務　太宗二年置兵馬使
兼判縣事　世宗五年改僉節制使後改縣監光海朝原本作十六年今釐改
因明將毛文龍侵掠陞都護府使　英祖四十年因屯民埋殺別將
特命百年降縣監國今　上五年復陞都護府使○江原道都護府
使七員淮陽都護府使高勾麗始置郡新羅景德王置郡太守高麗
成宗置團練使顯宗改防禦使忠烈王以鐵嶺把截功陞牧使忠宣
王降府使本朝　太宗十三年改都護府使○鐵原都護府使高勾
麗始置郡新羅景德王置郡太守高麗成宗置團練使穆宗罷之顯
宗改知州事高宗降縣令後陞牧使忠宣王降府使本朝　太宗十
三年改都護府使○春川都護府使新羅善德主取貊國置州軍主
高麗成宗置團練使神宗陞都護府使後降知州事本朝　太宗十
三年陞都護府使朝十三年降郡十五年陞都護府使仁祖十五年陞防禦使後移送
於鐵原府　英祖三十二年朝三十一年以惡逆鼎衍之胎邑降縣監四
十一年復舊國今　上二十五年陞留守○三陟都護府使新羅智

證王取悉直國置州軍主景德王改知郡事高麗成宗陞團練使顯
宗降縣令恭愍王置安集中郎將辛禑改知郡事兼萬戶本朝　太
祖二年以　穆祖外鄕陞府使兼僉節制使　太宗十三年改都護
府使　世宗三年置兵馬使仍兼領明年罷○襄陽都護府使高勾
麗始置縣新羅置郡主高麗顯宗置縣令高宗以禦丹兵功陞防禦
使後以降賊降監務元宗復知州事本朝　太祖六年以　上之外
鄕陞府使　太宗十三年改都護府使　正祖七年以逆賊胎邑降
縣監國十六年復陞都護府使○伊川都護府使高勾麗始置縣新
羅置郡主高麗顯宗置縣監務本朝　太宗十三年改縣監光海初
陞都護府使　仁祖元年降縣監　肅宗十三年陞都護府使○寧
越都護府使高勾麗始置郡新羅置郡主高麗革屬知原州事恭愍

여지도서輿地圖書[조선 읍지]

영조 33년(1757년)~1765년에 전국 각 군현에서 편찬한 313개의 읍지(邑誌)·영지·진지를 모은 전국 읍지.

55책. 채색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295개 군현의 읍지, 17곳의 영지, 1곳의 진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군현 중 39곳의 읍지가 누락되어 전한다. 제1~5책은 경기도, 제6~13책은 충청도, 제14~17책은 강원도, 제18~21책은 황해도, 제21~30책은 평안도, 제31~35책은 함경도, 제36~49책은 경상도, 제50~55책은 전라도의 순서로 읍지들이 묶여져 있다. 〈여지도서〉는 1530년에 〈동국여지승람〉이 신증된 이후 250여 년이 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책은 각 읍에 읍지 편찬 규식(規式)을 하달하여 각 군현에서 편찬하여 도에서 모은 읍지를 그대로 합편했기 때문에 항목구성은 일정하나 내용의 상세함과 소략함, 글씨, 지도 등이 군현에 따라 상이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하여 군현별 지도·방리(坊里 : 人口 첨부)·제언(堤堰)·도로(道路)·전결(田結 : 旱田·水田)·부세(賦稅 : 進貢·雜貨·田稅·大同·均稅)·군병(軍兵) 등의 항목이 첨가되어 사회적·경제적인 내용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도와 읍지의 결합지도 필요성의 증대, 인구·상업 및 유통의 증가, 지방 재정 파악의 강화 등 18세기 중엽의 사회적·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18세기 중엽의 조선 사회와 전국 각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서도 중요하다. 1973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책으로 축소 영인·간행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본지에 첨부한 부록 물은 양양부편을 편집실에서 재편집한 것이다.

輿地圖書

江原道 襄陽

襄陽

江陵鎮管所屬襄陽府　東至東海十里西至春川縣界五十里南至江陵界七十里北至杆城界三十五里西距京五百十里六日程西南距監營四百里五日程

坊里

府內面南門里自官門一里編戶二十九男六十三口女六十九口城內里在官門外編戶五十男一百二口女一百八口舊鄕校洞里自官門東距二里編戶五十男八十八口女七十八口靑谷里自官門北距五里編戶二十六男三十六口女二十八口連倉驛里自官門東距三里編戶一百三十四男二百九十九口女三百二十口　東面古迊介里自官門東距五里編戶十男二十七口女二十六口金剛里自官門東距七里編戶十四男三十二口女三十二口松田里自官門東距十里編戶十男二十一口女十五口佛城里自官門東距八里編戶二十一男三十八口女三十四口水山津里自官門東距十里編戶十五男二十七口女二十四口屈浦津里自官門東距二十里編戶三十四男四十二口女五十四口　部南面西門里自官門西距二里編戶十六男四十六口女五十口文宣王里自官門西距三里編戶十三男三十二口女三十八口木日里自官門西距十五里編戶十男二十六口女二十六口巨末里自官門西距八里編戶十男二十六口女二十口林泉里自官門西距三里編戶四十九男一百六口女一百八口靈穴寺自官門西距二十里編戶八僧十七口　西面公須田里自官門西距十五里編戶十五男二十三口女三十三口盈德里自官門西距三十里編戶十八男三十三口女三十八口西林里自官門西距四十里編戶五十三男九十二口女一百二十六口靑臺里自官門西距一百里編戶七男二十七口女二十三口五色里自官門西距五十里編戶五十七男八十四口女一百四十五口上平里自官門西距五里編戶二十三男五十二口女四十九口長牲里自官門西距十里編戶六男十一口女十五口水洞里自官門西距十里編戶十男二十五口女十三口熊田里自官門西距五里編戶四十三男九十五口女七十六口南面插存里自官門南距二十五里編戶十九男三十六口女四十五口瓦洞里自官門南距十里編戶十男十六口女二十四口陽穴里自官門南距二十里編戶二十男三十八口女五十口板橋里自官門南距七里編戶二十一男三十八口女四十三口如雲浦里自官門南距二十五里編戶二十九男三十八口女六十七口祥雲驛里自官門南距二十里編戶八十八男一百八十二口女一百七十四口縣北面陶洞里自官門南距二十里編戶九男十六口女十七口末谷里自官門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四十九口女七十四口　廣汀里自官門南距三十里編戶四十男四十七口

女八十九口大峙里自官門南距三十五里編戶四十男四十三口女七十二口魚城里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二十四男三十九口女四十七口元日田里自官門南距四十里編戶十三男十五口女二十口綿飛峙里自官門南距六十里編戶十五男二十七口女二十九口法水峙里自官門南距七十里編戶三十七男四十六口女六十五口草津里自官門南距三十五里編戶十五男五十三口女五十六口明珠寺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六僧二十四口　縣南面月乃里自官門南距七十里編戶二十五男三十二口女五十八口見佛里自官門南距六十里編戶三十三男四十八口女六十七口元堂里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二十四男四十三口女五十二口北盆里自官門南距四十五里編戶五十六男八十五口女一百四口陽也津里自官門南距六十里編戶七十九男一百十四口女一百二十九口獜丘驛里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九十男一百九十六口女一百五十七口　位山面甘洞里自官門北距十里編戶十五男二十四口女二十七口眞水洞里自官門北距十里編戶六男十口女十三口涌月里自官門北距十里編戶十四男十五口女二十六口土川里自官門北距十里編戶三十七男七十七口女七十五口　沙峴面小斤橋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五男二十四口女二十三口北洞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二十九男五十六口女六十九口勿甘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男十三口女十五口魯洞里自官門北距十五里編戶七男十口女十一口長山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五男十八口女三十三口砧橋里自官北距二十里編戶三十九男五十口女六十九口北津里自官門北距十五里編戶二十六男四十二口女三十二口洛山寺自官門東距十五里編戶二十一僧二十八口　降仙面屯田洞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九男三十一口女六十三口上福洞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十五男二十三口女三十一口石穗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一男四十九口女七十四口勿編津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一百九男二百四十二口女二百二十八口　道門面上道門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男三十三口女三十三口下道門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四十四口女八十二口勿編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八男十九口女三十三口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四男三十五口女六十九口甕津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七十八男一百七口女一百三十一口神興寺自官門西北間距四十里編戶二十僧四十九口　所川面論山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男三十九口女五十八口扶月浦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十八男四十八口女三十八口束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口女一百八十二口東津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八男七十九口女九十六口以上己卯式準

道路

自官門南至祥雲二十里自祥雲至洞山三十里自洞山至

江陵界二十里自官門北至洛山十五里自洛山西至麟蹄界彌時嶺二十五里北至杆城界二十里自官門東至海邊鰲山十五里自官門西至涼峙二十里自涼峙至麟蹄五色嶺二十里自官門西南至西林三十里自西林至九龍嶺四十里自九龍嶺至江陵界印巖三十里建置沿革

本高句麗 翼峴縣 一云伊文縣 新羅時改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洞山縣在府南四十五里本高句麗 穴山縣 新羅改爲溟州領縣高麗顯宗時來屬本府本朝因之

郡名

翼峴 伊文 翼嶺 德寧 襄山 襄州

形勝

城池

府城 石築周四百三尺高五尺土築周二千八百二十五尺內有二井雉堞今盡頹廢只有東南西門

官職

府使 文堂下從三品堂上正三品通擬置其屬座首一人別監三人軍官十五人衙前二十七人知印十六人使令十九名官奴二十五名官婢二十五名 敎授一員 今廢

山川

雪岳 自淮陽金剛山來爲江陵五臺山主脈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姑雪至夏而消故名 城隍山 自雪嶽北麓來東至海岸自官門北距二十五里 五峯山 自雪嶽東麓來東至海岸自官門北距十五里或稱洛山 水山 自五臺山來東至海岸自官門南距二十九里 籬山 自雪嶽東麓來爲青草湖西南岸有奇峯縱橫如設籓籬故名俗云蔚山亦稱天吼山 陽野山 自五臺山來東至海岸自官門南距五十里 鼎足山 自五臺山來爲道寂寺主脈自官門西南距四十里三峯峻起形如鼎足故云 海 自官門東距十三里祀典祭東海神于此載中祀 雙成湖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南大川 自官門南距二里出五臺山與所冬羅水合經府入海俗稱漢川 竹島 自官門南距四十五里觀瀾亭前溝島皆蒼竹島下海溢有石凹如槽磨礲巧刻凹中有小圓石諺傳石搖轉其中磨而成凹磨盡則世改矣

姓氏

金 江陵 慶州 李 咸平 全義 安城 慶州 嘉山 朴 清州 河 鄭 草溪 張 蔚珍 尹 漆原 林 羅州 新增蔡 平康 崔 江陵 盧 光州 高 濟州 黃 昌原

風俗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尙文學 貴禮義

壇廟

社稷壇 在府西一里小阜上 文廟 在府西三里大成殿九間東西廡各六間神門七間奠祀廳三間東西齋各四間明倫堂十四間祭器庫一間書籍庫一間 城隍壇 在府南一里 厲壇 在府北三里 城隍祠 在府北一里 東海廟在府東十里海上正殿六間神門三間奠祀廳二間東西齋各二間百川門一間每歲首別祭仲春仲秋常祭香祝皆自京下來

公廨

客舍 三十五間 衙舍 一百八間 鄕廳 十間 訓鍊廳十四間 軍器廳 十間

堤堰

靑谷堰 在府北二里周回六百三十尺長二百四十尺廣八尺水深四尺 臥峴堰 在府北十五里周回九百二十三尺長一百五尺廣四尺水深三尺 田村堰 在府南七十里周回一千五百八十五尺長二百七尺廣五尺水深三尺 葛往堰 在府北十五里周回 三百五十三尺長二十五尺廣五尺水深四尺 小勿堰 在府北十里周回七百七十四尺長一百三十五尺廣三尺水深三尺 洞山堰 在府南五十里周回九百尺長二百四十尺廣五尺水深一尺七寸 古郡堰 在府北十里周回六百十尺長一百二十八尺廣六尺水深三尺倉庫 邑倉 六十一間 洞山倉 在府南五十里洞山縣倉舍六間 降仙倉 在府北二十里降仙驛倉舍六間軍器庫 十間 詳定庫 八間

物産

苧 鐵 竹箭 海松子 人蔘 五味子 紫草 地黃 茯苓 蜂蜜 白花蛇 海衣 早薑 生鰒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鰱魚 銀口魚 黃魚 古刀魚 廣魚 鱸魚 秀魚 雙足魚 海蔘 松蕈

橋樑

南大川 自官門南距二里夏則用舟 廣汀川橋 自官門南距三十里 勿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降仙川橋自官門北距二十里 和尙巖川橋 自官門南距六十五里廣遷坂 自官門南距五十五里 屈湖坂 自官門東距二十里 德耆院 自官門北距七里今廢

驛院

祥雲驛 自官門南距二十里大馬三匹卜馬八匹吏一百五十四名奴三十名婢二十九名 連倉驛 自官門東距五里察訪郵館在此大馬三匹卜馬八匹吏二百七十名奴一百三十名婢七十名 降仙驛 自官門北距二十里大馬二

匹卜馬四匹吏一百九十二名奴七名婢八名　麟丘驛　自官門南距五十里大馬二匹卜馬三匹吏七十名奴八十一名婢六十一名

牧場

分養馬二匹八月受來于司僕五月上納

關阨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弼如嶺在府西四十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　猉麟界　所冬羅嶺在府西六十里卽弼如嶺南枝接猉麟界舊有路通京中今廢　阻沈嶺　在府西四十五里卽所冬羅南枝接猉麟界　九龍嶺　在府西七十里卽阻沈南枝接江陵　金川面界　兄弟峴　在府西四十里向五色嶺路兩峴對峙相似故名　雨寒峙　在府西二十里向九龍嶺路

烽燧

水山烽燧　在府東十里南應草津山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草津山烽燧　在府南二十九里南應陽野山北應水山　陽野山烽燧　在府南四十里南應江陵注文山北應草津山以上烽燧皆新羅時所設今廢

樓亭

大平樓　在客館南十六間元仁宗延祐二年創建庚辰重創　觀瀾亭　在府南五十里洞山縣東今廢　秘仙臺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峯峭拔可觀舊有亭今廢　降仙亭在府北二十九里降仙驛東舊有亭今廢　祥雲亭　在府南二十五里祥雲驛南舊有亭今廢　新增醉山樓　在府衙外三間

寺刹

洛山寺　在府北十五里五峯山中上下法堂各八間寮舍七房合七十間賓日軒四間奉揭　肅廟御製高麗僧益壯記略云襄州東北降仙驛南里有洛山寺寺之東數里海邊有窟其高可百尺其大可容萬斛之舟其下海濤常出入世稱觀音大士所住處新羅僧義相欲親覩聖容乃於窟前石上拜稽稽勤至二七日尚未得覩便投身于海海龍扶出石上觀音大士卽於窟中伸臂授水晶念珠曰我身則未可親覩但從窟上行至雙竹湧處是吾頂上此地可營一殿龍亦獻如意珠及片玉義相果於生竹處設殿以龍所獻玉造像安之卽洛山寺也我　太祖定國後春秋遣使設齋目爲定規水晶念珠及如意珠藏於是寺癸丑天兵闌入□(我)□(殪)是州於雪嶽山築城守禦城陷寺奴取水晶念珠及如意珠埋於地而亡走上告於朝兵退遣人取之藏於內殿世傳有人到窟前至誠拜稽則靑鳥出現明宗朝兵馬使　庾資諒到觀音窟前焚香拜稽有靑鳥含花飛鳴花落於幞頭云我　世祖幸此寺以佛宇隘陋命新之極宏壯　睿宗嗣服命臣韓繼禧

祇奉香幣且賜田畓奴婢以供香火 肅廟御製曰快登南里洛伽峯風捲纖雲月色濃欲識圓通大聖理有時青鳥含花逢 觀音窟 在府東十五里五峯山之下海滸石崖中折海水入其中噌吰作聲其上架小閣安觀音像我 翼祖與 貞淑王后詣此祈嗣夢有一衲衣僧來告曰必生貴子其名善來未幾 度祖誕降遂以善來名之 靈穴寺 在府西十五里雪嶽山南麓下法堂三間寮舍單房十間 四擁寺 在府北五十里雪嶽山中今廢 道寂寺 在府南十五里鼎足山中今廢 新增神興寺 在府北五十里雪嶽山中法堂六間板閣三間普濟樓七間寮舍四房合四十間 內院菴 在神興寺北十間 少林菴 在神興寺東八間 明珠寺 在府南五十里五臺山北麓下法堂四間寮舍二房各十間碧玉樓十間 圓通菴 在明珠寺東三間 寶蓮菴 在明珠寺北五間 開雲寺 在府南六十里五臺山東麓下法堂三間寮舍單房十間

古跡

義相臺 在府東二十里觀音窟之南臨海阽絶卽神僧義相所遊處云 繼祖窟 在府東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谿谾迂中有僧舍因石爲屋 飛仙臺 在府西五十里□(金)堂洞白石平鏞清川中流或布而爲瀑或渟而爲潭臺之北壁石嶂突□(從)森束如劒戟樣 河趙臺 在府南三十里小麓迤入海中陡絶爲臺臺之左右巖壁奇古海濤衝激浪雪飄散世傳國初河崙 趙浚遊賞處故遂名之 權金城 在府北五十里雪嶽山中勢甚高絶石築周千餘尺廢堞尚存俗傳昔有權金二姓避亂于此故名 冷泉 在府北十五里五峯山中世傳觀音化爲德女刈稻於此元曉因取飮冷泉與之戲謔云鄭樞詩曰德女古基莎覆砌曉公遺跡樹連天 五色驛在府西四十五里舊有驛站以通京師嶺廢而驛移爲杆城元巖驛也 新增沙林寺碑 在府西三十里有沙林寺遺墟石碑金時習集王羲之字撰弘覺禪師碑字體右高世以爲寶中年爲野火所燒尚餘片石留在府中 黔達洞 在府南八十里卽金時習卜居處洞有紫芝俗傳五歲童子所採云土王城 在府北五十里雪嶽山東石築遺跡尚存俗傳古有土姓王築此云有瀑布數千丈飛下石壁間

鎭堡

大浦營 在府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自江陵 安仁浦移泊于此水軍萬戶一人石築周一千四百六十九尺高十二尺今廢

人物

李世門 文科官至執義 李承福 世門之子文科官至正言 崔基鉾 文科官至司藝光海時河仁浚驅率太學諸生倡廢 母之議基鉾慨然曰人之道滅矣詣 闕陳疏見阻遂退歸鄕里仁廟朝徵不起 新增李彙晉 文科官至承旨 崔逵泰 文科官至正言 知製敎 李彙恒 文科壯元官至獻納 孝子盧景福 文府使母病斷指旌閭 李相俊 父病斷

指旌閭　李彙健　生員父母之病俱刲指嘗糞事　聞給復
金景吉　父病斷指旌閭　朴良雲　官奴母病斷指旌閭　烈
女尹氏　趙奎輔之妻夫死之日自縊同穴旌閭　金氏　李命
春之妻夫葬之日自縊以從旌閭　陳氏　咸萬春之妻夫死
之日溺死同穴旌閭

旱田
二百十結八負四束己卯摠

水田
四百六十五結七十負三束己卯摠

進貢
人蔘　白茯苓　白扁豆　赤茯苓　茅香　五味子　芫蔚子
何首烏　木通　白芍藥　羌活　當歸　川芎　蔓荊子　枳實
防風　茯神　獨活　牧丹皮　蓮翹　蟬殼　菸蓌仁　葛花　柴
胡　金銀花　茵陳　蘗皮　麻黃　白芨　山藥　鬱粟殼　羚羊
角　猞　葛根　文魚　大口魚　松魚　鰱魚　銀口魚　廣魚　沙
魚　鰱魚卵　海蔘　紅蛤　生鰒　大口卵　粉蘿　生梨

糶糴
元會八千六百十六石賑穀二千七百九十六石別會五百
七十石營穀一百三十石十月開倉十二月封倉

田稅
布十四同三十二疋二十四尺每年四月收捧五月以陸路
八日達于京上納于戶

大同
作布十六同十六疋田稅一時收捧上納于宣惠廳而程道
與田稅同儲置米三百二十五石

均稅
結錢五百八兩選武番錢九十六兩船鹽盆藿稅錢四百三
十四兩納于均廳

俸廩
衙祿公須位米一百七十八石租五十石太一石錢一百五
十兩錢則以詳定廳上下柴三千五百五十束炭四十四石
藁草九千七百二十斤以上民戶收捧

軍兵
騎兵　四百五十四名　御營軍　十九名　禁衛軍保　三十
七名　資保　二十一名　官納保　三十八名　訓鍊都監砲手
保　一百八十八名　別破保　五名　樂工保　十八名　樂生
保　六名　典設保　三十六名　武學　十三名　牙兵　六十三
名　束伍軍　三百九名

대동지지大東地志

조선 후기 철종 13년(1862년)부터 고종 3년(1866년)까지의 지지를 김정호가 펴낸 지리서이다. 30권 15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강원도편은 제15권에 실려 있으며, 양양편에는 연혁(沿革), 산수(山水), 방리(坊里), 성지(城池), 진보(鎭堡), 창고(倉庫), 역참(驛站), 진도(津渡), 토산(土産), 누정(樓亭), 단유(壇壝), 전고(典故)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大東地志卷十五

江原道 嶺東 關東

古山子 編

本濊貊樂浪百濟分而有之(今伊川平康安峽鐵原爲百濟地西文周王南遷後入于高句麗)東漢末新羅漸拓其地(今江陵三陟杆城皆屬濊小國春川爲樂浪所據)晉初至于泥河(今德源口原川種城洪川春川嶺川金化高邊哥富悉時百濟伊川平康安峽鐵原眞興王時歸于新羅)景德王十六年置溟朔二州都督府(今之巡營)於本道領郡縣孝恭王時爲弓裔所取景明王時回歸高麗成宗十四年以登和交春溟等郡縣爲朔方道明宗八年改沿海溟州道而析交東

卷十五 關東 一

春等郡縣別稱春州道、後改東州道元宗四年改溟州道爲江陵道改東州道爲交州道忠肅王元年改淮陽道恭愍王五年改江陵道爲江陵朔方道六年又改江陵道九年復改江陵朔方道十五年又改江陵道禑十四年江陵道始析於朔方道而合於交州道稱交州江陵道(並嶺東西爲一道而自府珍至歙谷本屬交朔方道)本朝太祖四年改江原道、孝宗朝改原襄道(後復舊號)肅宗九年改江襄道(十八年復舊號)英宗四年改江襄道(十三年復舊號)正宗六年改原春道(十五年復舊號)凡二十六邑(嶺西十七邑嶺東九邑)

巡營

太祖四年設營於原州(又稱監營)[員官]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一員 中軍(萬都尉捕使)都事 審藥 檢律各

原州鎭(管寧越旌善平昌隸屬洪川橫城)

鐵原鎭(管淮陽伊川楊口金城平康金化狼川金化)正宗朝(移淮陽鎭于此)

春川鎭(舊爲原州鎭管正宗朝爲獨鎭)

江陵鎭(管襄陽三陟平海杆城通川高城蔚珍歙谷)

保安道(在春川泉前報在原州丹卯驛)[屬驛]丹卯田案安昌神林新興葛豐蒼峯烏原安興連峯泉甘原昌仁嵐安保安昌楊閭延平梁水平安碧灘好善餘報臨溪高臨檀溪 二

珍富大和芳林雲從

銀溪道(在淮陽銀溪谷在金化生昌驛)[屬驛]生昌豐田龍潭林丹玉岡乾川直木昌道瑞雲新安山陽原川芳川舍春逕仁馬收嵐技寓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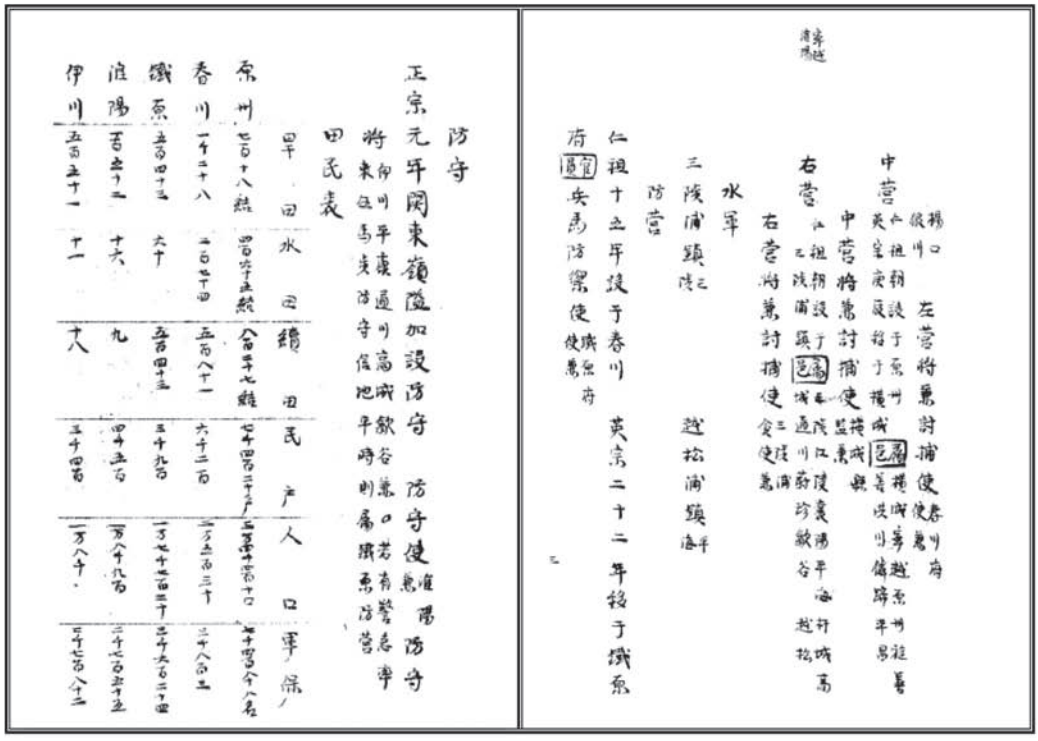
平陵道(在三陟邑紡舊在交柯驛)[屬驛]文柯史直祈興龍化沃原興富守山德新達孝樂豐安仁大昌木溪卯山老德

祥雲道(在襄陽棠坊舊在連倉驛)[屬驛]連倉癢卯降仙元岩清澗竹苞雲泉明波大康高李養珍朝珍藤路巳豊貞德

共八十一驛吏卒九千三十四各三等馬四百八十七匹

兵馬

左營(仁祖朝設于鐵原英宗朝移于春川)[屬邑]春川伊川鐵原淮陽金化平康安峽金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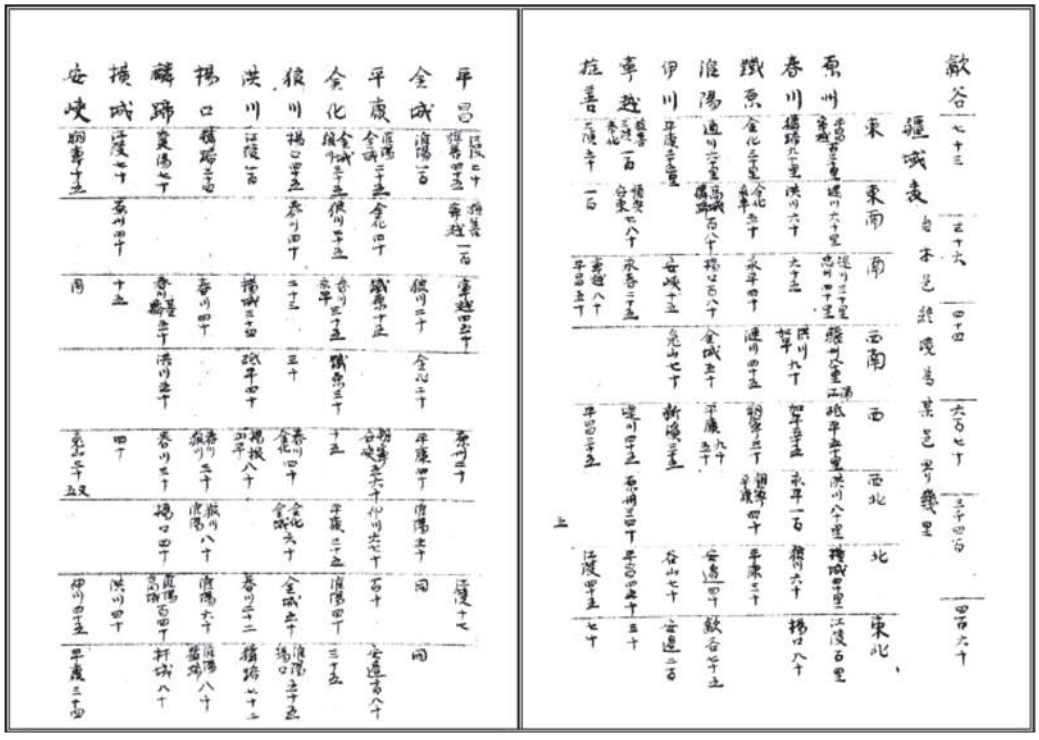


楊口 鐵原 左營將兼討捕使 春川府
中營 仁祖朝設于忠州 英宗庚辰移于楊城 乾隆 楊城寄越 忠州旺善 英宗庚辰移于楊城 乾隆 平昌
中營將兼討捕使 楊城縣監兼
右營 仁祖朝設于 乾隆 茂松 陵 慶陽 平海 杆城 高城 通川 蔚珍 越松 越松浦鎮 平海
右營將兼討捕使 三陟浦鎮 僉使兼
水軍
三陟浦鎮 三陟 越松浦鎮 平海
防營
仁祖十五年設于春川 英宗二十二年移于鐵原
府 乾隆 安邊都護府使兼

亭越	一百八十八	十二	二百三十五	三千六百	一千五百七十八
旺善	四十九	二	九十四	一千九百	九十二百七十	七百八
平昌	六十二	二	一百七	一千四百七十	五千四百	七百
金城	一百六十三	六	十	三千六百	一千八百九十七
平康	三百九十四	十八	三	四千六百	一百八千五百三十三	中百七十三
金化	一百八十五	十六	五	三千三百二十	四千八百八十	一千七百三十六
狼川	一百六十八	十三	七	二千五百五十	九千三百五十	一千七十四
洪川	二百三十一	七十五	三百五十一	三千三百六十	一万七百	二千五百六十一
楊口	一百六十九	七十	一百九十七	一千九百	七十六百三十	一千三十八
麟蹄	一百八	一	一	一千四百二十	六十二百二十	八百三十

槿城	一百九十二	一百七十九	二百九十	一百九百	三百三十三
安峽	一百五十四	三	三	八千七百	一千一百八十八
江陵	六百八十六	八百五十七	三百二十四	三百三十六百	三千五百六十一
三陟	二百九十二	一百五十七	三百四十一	一万六千三百	二千五百七十七
襄陽	一百六十五	四百八十七	五十	二千二百	九千	一千五百九十一
平海	四百十三	三百八十一	二十五	二千五百	一百二千七百	三千四百六十四
杆城	一百九十四	四百六	六十二	一千九百	一万四百二十	一千八百十四
高城	一百三十二	一百三十一	一百十五	一千七百	七千四十	八百六十五
通川	一百五十五	一百四十三	一百二十一	一千八百	四千三百三十	一千三百七十
蔚珍	二百四十六	二百七十一	三十四	三千四百	一百二千一百	二千六百九十七

四平	田	水	田	續	田	民	戶	人	口	軍	保
原州	七百十八結	四百六十五結		八百五十七結							四千六百八十八名
春川	一千二十八	二百七十四	五百八十一	六千二百			二万五百三十		二千八百五十		
鐵原	五百四十三	六十	五百四十三	三千九百			一万七千二百三十		二千六百二十四		
楊陽	百五十二	十六	九	四千五百			四千八百		三千七百五十		
伊川	五百五十一	十一	十八	三千四百			一万八千		三千七百八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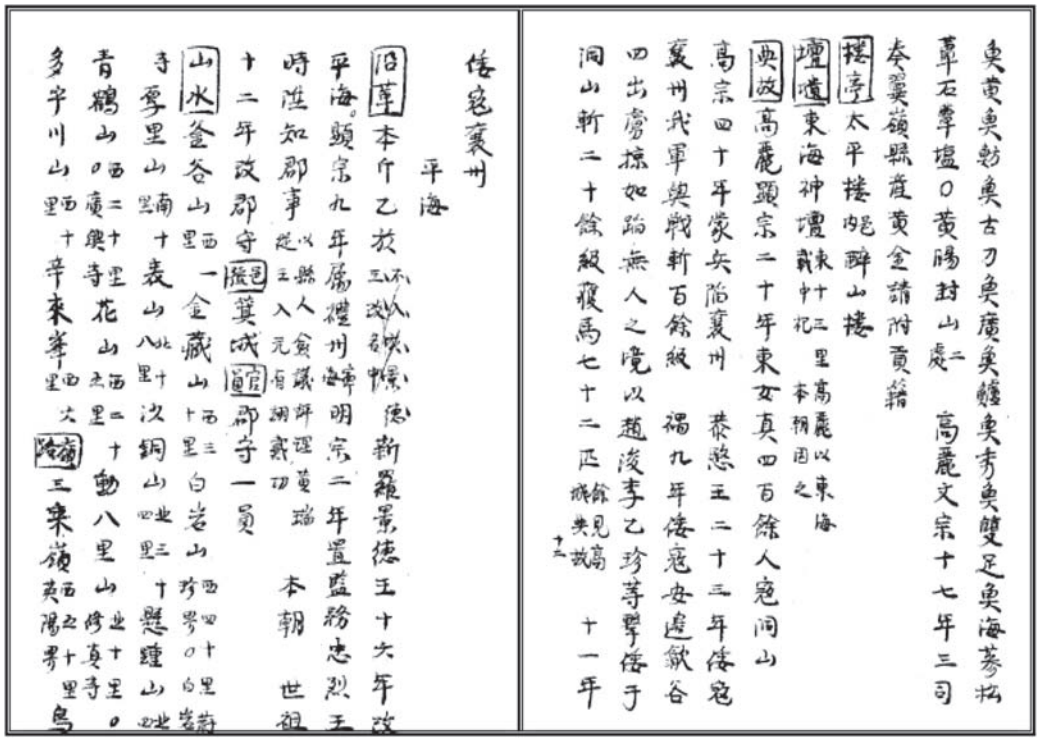
慶陽

沿革 本伊文峴後改翼峴新羅景德王十六年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九年置縣令屬東京八年陞慶州防禦使兼兵馬使十一年降縣令屬慶州防禦使以鹽州四十一年降縣令四十四年降德寧監務以降元宗元年陞知慶州事本朝 太祖大平以 上之外鄉陞爲府 太宗十三年改都護府十六年改慶陽 正宗七年降縣十六年復陞

古 同山 南四十五里本大山縣景德王十六年改同山爲慶州都督府領縣高麗顯宗九年屬慶州

山水 峴山 里二 城隍山 里二十 水山 東十 德山 里三十五 草津山 南二十里 雲岳山 西北四十里 鵲峙 西北四十里 雄盤洞 府西深山神興寺 靈穴寺 祖窟 窟在山之東 普門庵 南對雪岳東臨大海下有高丈餘窟有香燈 奇岩層巖坐其上指點羣峯 峯皆門之下十里有金堂岩 廣可布百人 金床 泉石清洌洞府宏敞夫以丹崖翠巘 天吼山 里許城界之 五臺山 西南大十里江陵界東支有明珠寺 五峯山 東臨海下有冷泉 陰山寺 里許小山東臨海下有冷泉 世祖十一年與中宮及王世子 皆駐蹕寺 寺之觀音堂在海岸海濤常出入為不測之 坐構屋堂上納現毫像 屋在堂傍東望滄海 蔚山 西二十五里在青草洞之 陽野山 洞山南十里 鼻足 山西南四十里二峯 草峯 南二十里 海邊 連水坡 西北二十五里 五色嶺 府西二十里 所冬羅 復西二十里 所冬羅 峙界

嶺 西大十里 舊有九龍嶺 通京大路 俗稱 峙界 南二十五里 所良峙 西三十里 海 東十里 南江 一出五臺山北流 一出所冬羅嶺東流合于色 南入海 青平湖 仙臺在湖之東北石峯峙於其上 雙湖 南十里 麻湖 南大 竹島 南四十五里 觀魚亭 前島皆竹島下海 坊里 府南面 東面五統十 南面初十統二十 改峴 北初十統十五 滄仙 北初十統二十五 道門 西初二十統二十五 所川 西初二十統三十五 縣北 南初二十統二十五 縣南 南初四十統七十 古縣 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指江陵 安仁南高麗置高麗戶 于此 中宗十五年築 大十九尺 後革 青草湖 東北其草蔓未收 城周一千四百 尺 峯山古城 土築有虹霓石門 高麗移 一百十二尺 大浦鎭 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指江陵 安仁南高麗戶 于此 中宗十五年築 倉庫 東倉 邊東海此倉 里十 岡山倉 古在岡山 驛站 祥雲道 南二十五里 倉驛 連倉驛 古名冀菴 麟卓 驛南五十里 驛北三十里 滄仙驛 驛北三十里 屬滄雲道 草 五色驛 西四十五里 色路廣設于 村城 為元老驛 南二 津渡 南江津 里 土產 麻 紙 箭竹 海松子 五味子 人蔘 茯苓 紫草 蜂蜜 白花蛇 海夜 靑 鰒紅蛤 文魚 大口魚 均魚 鰱魚 銀口



奧黃奧鮫奧古刀奧廣奧鱸奧秀奧雙足奧海蔘松
蓁石蓁塩○黃腸封山二處 高麗文宗十七年三司
奏襄嶺縣産黃金請附貢籍
樓亭 太平樓內院醉山樓
壇壝 東海神壇東十二里高麗以東海
本朝因之
典故 高麗顯宗二十年東女真四百餘人寇洞山
高宗四十年蒙兵陷襄州 恭愍王二十三年倭寇
襄州我軍與戰斬百餘級 禑九年倭寇安處歙谷
四出虜掠如蹈無人之境以趙浚李乙珍等擊倭于
洞山斬二十餘級獲馬七十二匹餘見高麗典故 十一年

倭寇襄州

平海

沿革 本介乙於三不知年改 德新羅景德王十六年改
平海。顯宗九年屬禮州。明宗二年置監務忠烈王
時陞知郡事 以縣人金深評理黃瑞 本朝 世祖
十二年改郡守 因 冀城 置 郡守一員

山水 釜谷山西一里 金藏山西三十里白岩山西四十里蔚
珍界○白岩寺 夢里山南十里 表山北十八里 汝銅山北三十里 懸鐘山北四
青鶴山西二十里 動八里山北十里○修真寺
多平川山西十里 辛來峯西之十里 陰 三 東嶺西之十里 烏
英陽界

근재집謹齋集

근재선생집(謹齋先生集)권1에는 1330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안축(安軸)이 江陵道 存撫使 재임 시에 지은 시문 「關東瓦注」가 실려 있다. 첫머리에 李齊賢의 序가 있으며, 詩 110題와 記 4편이 실려 있다. 시는 칠언율시 · 칠언절구 · 오언배율 · 오언율시 등 各體詩가 창작 시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간혹 창작 배경이 并序되어 있는 작품도 있다. 끝에 1331년 10월 최해가 지은 跋과 1364년 초간시 사위 鄭良生의 跋이 있다.

이 문집에는 양양을 배경으로 하여 읊은 시문과 양양에 향교를 창건하게 하였다는 양양신학기(襄陽新學記)문이 실려있는 보배로운 문집이다.

謹齋先生集卷之一

關東尾注

古者置官採詩非取其絺章繪句而已欲以觀其美刺而為之勸誡也當之學士存撫江陵道集其所為詩若文名之曰關東尾注吟咦風月摹寫物像固亦無讓於前人矣其感憤之作關乎風俗之得失生民之休戚者十篇而九讀之使人愾然嗚呼孰能誦之吾君之前乎

前政堂文學李齊賢序

詩

天曆三年五月受江陵道存撫使之命是月三十日發松京宿白嶺驛夜半雨作有懷

讀書求道竟無成自愧明時有此行但盡芻蕘陳施實學敢將崖異盜虛名民生塗炭知難救國病膏肓念可驚取取枕前眠未穩臥聞山雨注深更

過鐵嶺 庚寅年合本國遣兵 自雙城來入我境 至將不能守聞 風奔壘而走故驅掠人物而入

乾坤設險竟何功小賊驅民掃地空誰使兵權歸竪子至今遺恨起悲風

六月三日入鐵嶺關望和州作

路入關門眼暫開紅旗黑槊共徘徊忽驚職是憂民寄還愧身無濟世才煙火里閭多索寞草萊城壘久摧頹可憐聚散邊鄉吏猶具衣冠禮往來

次和州本營詩韻

萬疊山圍四望中東溟隔岸水浮空龍爭古壘黃榆月鴉噪遺墟老樹風蝶土重遷憐喋類棄城謀變說妄雄當時誰握籌遺策惆悵無人衣一戎

次襄州公館詩韻

名途信步不圖前來往斯樓已二年覆檻竹叢分爽氣簷門榕樹撼蒼煙歷觀民業憂咨國虛負君恩愧彼天計拙未能興利路若為溪壑湧金泉

次安昌驛亭許正言詩韻

海上青霞紫霧間揖仙東望問三山倚欄人未須臾駐萬古千秋物自閒

次興富驛亭詩韻
千畦禾黍舞風前。喜見農家大有年。久倚陰軒
清爽足。水禽飛過小溪煙。

三陟西樓八咏

竹藏古寺
俯窺巖久盡成圍。手種居僧今已非。禪榻茶軒
深不見。穿林翠羽獨知歸。

巖控清潭
流川為陸陸為川。有底清潭獨不然。看取奔灘
停瀋處。奇巖削立重難遷。

依山村舍
傍山煙火古孤村。竹下紅桃卧守門。力橘田夫
皆惜日。戴星服役返乘昏。

卧水木橋
一木搖搖跨石灘。望来惟恐踏波瀾。居民足與
心曾熟。如過平途不細看。

牛背牧童
仰空吹笛快軒眉。半背身無掩膝衣。家在山前
陂隴隔。雨天行趁暮鴉歸。

壠頭饁婦
婦具農飡自緑滄。曉来心在夏畦間。壠頭日午
催行遍。餉了田夫信步還。

臨流數魚
樓下清潭窟穴空。游魚育卵粟排紅。莘莘衆尾
知多少。前數無窮後亦同。

隔墻呼僧
聲堅郡樓臨水府。隔墻禪舍倚巖叢。愛僧真趣
無人會。十里茶烟颺竹風。

次平海公館後亭詩韻
公館多幽賞。褰衣上後亭。疎簾風裊舞。高樹露

蟬聲。地古村容老。天低水面平。溪山皆舊眼。記
我去年行。

次韻張秀才見贈
昧日城西四顧行。桑麻深處望烟光。停驂謂有
隱君子。此是先生避世堂。

詠梅
關東處處賞江梅。愛此新枝最後開。風雨人間
春掃地。出塵仙艷映粧臺。

過仙遊潭
潭上風烟畫淡濃。欣然似與故人逢。也應嗔我

念念過却恐重來不見容。

謾成

碧海青山畫不如。事稀端合置迂疎。午窓睡足
吏人散。讀盡巾箱數卷書。

次韻許正言見寄

燈前偶讀北山移。自愧歸休已太遲。俗薄何人
遵我教。粹深無計救今時。處身道可貧無諂。到
口言當遜莫違。惟子與吾交契厚。相規豈合各
從宜。

大雨歎 在和州作

二氣失調燮。羣龍未安蟄。陰厥發玄機。懸空兩
勢急。暴流漲南川。浩浩沒原隰。水溢雨不止。皆
言及井邑。惟恐卷人家。更念傷穀粒。顧余牧一
方。此咎其誰執。誠徵不動天。起坐徒悒悒。頹天
罪我躬。哀聽生民泣。

在和州始見二毛有感

壯健光陰憂裏經。百年身世亦堪驚。忽多閒小
青山遠。謀算狂謀白髮生。冰罷塵冠漸晝澁。曉
來羞鑑太分明。自知貴賤難逃事。有底未禁悲
感情。

齒痛

壯歲氣益增。晚年病交會。血脉衰於中。齒髮老
于外。毛髮不覺痛。雖白尚無害。牙齒熟以搖。酸
痛極刀劊。飯屢啜糜粥。肉硬嚼魚膾。漸見脫以
虛。唇亦不能蓋。還童藥未成。嘆息無可奈。謂言
少年子。莫恃如編貝。

秋夜

秋聲動林木。夜坐心悽悽。烟空淡而杳。露冷泫
以淒。因念遠遊子。路永東復西。家人耿無寐。剪
衣在深閨。衣成無使寄。掩袂空悲啼。又念力田

夫。揮汗病夏畦。農功旣云畢。四野禾頭低。一飽
已可望。蠻笑對醜妻。人生貴適意。何用事奔睽。
貴賤雖異軌。終歸理亦齊。更殘燈燼落。月下聞
寒鷄。

參歎 參貢多蛀。故云。

神農著書論草名。草中羅蔘蔘最精。一根三枝
開五葉。理人神效難具評。年年貢獻聖天子。藥
局老醫皆嘆驚。舶車商估競求買。轉賣遠方價
不輕。從此官家利其利。歲收編民有期程。物之
貴者本自貴。非如凡草賤生成。方民採掘遍山

谷。千捜萬索得一蓋何曾訐曰足鉢兩農衣弊盡投蓁荊。是時秋未卧風雨畏吏督納忘私營。歸来對妻告悲泣。已有弃土流亡情。乾坤生物賦彝性。本以至仁濟羣生。生民一病出於彝理彝之彝其誰行。有能移根種遠方。拮根無種非所争。吾民寧作至愚民。不願益智多聰明。

島島詩 并序

島在和州押戎縣之東大海中。去岸十餘里。望之秃峰兀然。無所見。余自和州南行。望而過焉。厥後聞風濤險阻。不欲往觀。自南還和

州。和州守金君郊迓于押戎縣。勸余訪是島。余實以意告。金君曰。島既在海中。海常多風。遊者多欲觀而不得往。今幸風日晴好。平波鏡靜。此天賜也。盍往觀乎。請之懇懇。余固從之。因乘小舟至島而周覽。島無異物可賞。但條石圍島。卓立耳。石之狀。如義石亭峯高而多其數。島南有洞。石之根斷者出水而平列。可坐十餘人。若先觀義石亭。則不觀是島。可也。余既至而悔。又恐風浪起促迴舟到岸而後。身心安焉。然好事者皆曰。關東形勝。國島為最。使遊賞者具舟楫。載酒殽妓樂而妨農害民。一方苦之。因作長句六韻詩一篇。以為後来者之誡。

仙島遥疑駕六鼇。落落去路隔雲濤。浮空一朶孤峯兀。排海千條怪石高。堅劒身嗟無鳥翼。涉来命恐等鴻毛。滿磯苔上散輕策。打岸風前掀小舶。搖棹疲民流熱汗。具筵貪邑瀝殘膏。若為添作東溟水。沒盡奇觀免此勞。

和州廣坊人羅廣示余

俊猛精神外躍如。雷明雙眼在秋虚。寸機坐得

冥冥翼。可畏人心巧有餘。

葡萄酒和州隱者持以勸余

斗酒千金足市恩。古人曾獻貴人門。山翁癡拙無機巧。虚負凉州老一村。

松菰

滑滑如飛氣力多。懸流十尺可跳過。嗟予知進不知退。永失滄溟萬里波。

松菌

秋凉杖屨步松間。手摘嘗新氣味閒。深肉官家香已損。望雲投箸愧青山。

王昭君

君王曉開黃金闥。辭輦轉轂北使發。明妃含淚出椒房。有意春風吹鬢髮。漢山秦塞漸茫茫。迢迢耳悲笳。秋夜長。可憐穹廬一番月。曾照臺前宮掾粧。將身已與胡兒老。惟恐紅顏凋不早。琵琶絃中不盡情。塚上年年見青草。

夢見西掖同舍諸賢

一辭西掖傍東溟。過幾樓臺幾驛亭。宿志已償山水窟。高吟還憶牧丹屏。別來無信顏雖絕。夢裏相逢眼尚青。何日朝天叅棣上。共傾宣醞醉還醒。

范丞相麥舟圖二首

大義深仁体相公。能輕重利恤人窮。父知子貴非先見。只為渠心與我同。

異氣當從大義求。虎生三日便窺牛。曼卿一得無心惠。天下民皆飽麥舟。

伯顏丞相訪文正公義田宅圖

弓馬南迴過古村。前賢遺澤至今存。戰功豈獨疆兵力。能訪田廬義子孫。

竹島詩二首 并序

戊午年兵亂。朔方十二城。八保是島。時大將軍愼孰平。為知兵馬使。都兵馬錄事全諒為叅謀。城中乏食。全諒議發粟賑給。孰平持其議不從。城中人多有飛怒者。有吏趙暉卓正二人。素蓄異志。乘衆怒謀亂。因踰城引敵入。殺知兵馬使并十二城守令。凡民不從反者皆殺之。驅掠民物。投于彼。由是諸城皆敗。全諒以讓賑給故免。後收孰潛遁歸國者。合處登州古地。而知州諸城池沒失者。今皆不復云。

隣境兵塵犯塞垣。朔方民物此來奔。元戎自失懷綏策。姦吏因成亂賊根。三戶子孫誰雪恥。百年骸骨尚含冤。行人為問當時事。莫老傷心不忍言。

儲粟屯膏豈遠圖。阻飢民命在須臾。若分甘苦盡仁惠。雖死人無怨及吾。

元帥臺詩 并序

和州鵝浦縣之東。有湖環七八里。湖中有小島。島上有臺。昔知兵馬使嘗遊是臺。方民補知兵馬使為元帥。故名其臺云。

滄海支流作鏡湖青峯四擁水平鋪中藏別島非塵土上有高臺作畫圖日映波心跳尺鯉雨晴沙嘴戲雙鳧百年前輩風流盡惟有長松老不枯

次洞山縣觀瀾亭詩韻

民間百物入侯門山水千年蜀一村別島隔雲橫縹緲尼帆和月落黃昏鴻飛寒路弋何慕鯨吸滄波舟可呑兩過新亭推未去吏人迎拜是陽尊

九月十三日因迎香使此行途中卽事

天香絡繹降丹霄候吏鄰民望使軺夜聽先聲離古館曉牽殘夢過長橋雨晴海嶠歸雲懶風亂山蹊落葉驕南去此來身已老舊盟魚鳥若相招

次篹最石亭詩韻

千條怪石成奇峯蒼崖烟霏水墨濃鯨濤起海雪霜漲屋氣浮空樓閣重糢糊字沒太古碣瘦瘦根蟠何代松磯邊箬笠坐相揖月下羽衣招可逢悵望仙徒已兩散厭看俗子如雲從若為亭前伴鷗鷺掃却人間塵土蹤

亭在通州此二十許里有橫峯嶪然聞海者是也峯之懸岩條石櫛立如方柱石周方各尺許高可五六丈方直平正如以繩墨削立無大小之異又去岩十餘尺有四石柱離立水中稱為四仙峯皆以條石為體合數十條為一峯峯上有矮松一株根幹老蹙不知年紀自四峯小此而石狀又變或大或小或長或短或欹或橫或積或散實皆奇怪異常此非巧匠鍾琢之功蓋天地剖判之始

元氣所鍾者也其賦狀之巧若是之異吁可怪也其所以名叢石者得之昔羅代四仙常遊是亭而其徒立碣石誌之石猶存而字剝不可識余乘小舟遶峯遍覽以謂叢石之奇怪實天下所無而亭之所獨有也或者曰子未曾遍覽天下焉知天下無此石乎余曰凡四方山經地志記者窮天下之物而載之未聞有石之如是者凡古之奇舛實贋畫者窮天下之物而摹之未見有石之如是

也。按此則余雖未曾遍覽天下。亦可以坐知之也。或者然之。夫斯亭。雖萬物俱備。然山水之美。風烟魚鳥之類。東海之濱。尺地寸步。無處不然。豈斯亭之所獨專哉。惟石之奇怪。乃亭之所獨有也。而記斯亭者。未有特稱茲石。而與山水間衆物泛論。余竊怪焉。故特評之如此。

叢石亭。宴使臣有作

仙峯在海濱。觀覽奇且壯。倚欄四面顧。長天接烟浪。條石列水中。叢立多異狀。如繩墨削成。元

氣為良匠。羅代四仙徒。簪履遊亭上。當時碣猶存。摩挲空悵望。嘉言遍四方。使賓競來訪。傍邑慣送迎。奔走移供帳。亭下吏呀咻。樽前仙妓唱。民今失農業。妻子不能養。斗蓄已殫空。一宴勝仇讎。何人寫依圖。持獻君與相。

穿島詩 并序

島在歙谷縣南。去縣十五里。島有石。國島叢石之支裔也。人所尋翫者。蓋穿其腹耳。

小島出洪波。橫穿依通穴。南北水互連。相激碎飛雪。滿島石狀奇。條條均削截。橫臥若積篋。倒

垂如裹鐵。長者束而立。短者散以列。陰崖或成窪。驚浪常養窟。穴中少廣平。坐席無地設。苔石滑而側。腥濁不清潔。海風愈打頭。須臾心不悅。望岸促行舟。舟人力鼓枻。行行白沙渚。始喜免魚鼈。以島比叢石。奚止十倍劣。觀彼此可遺憾。余信人說。使賓遠聞名。來往無時節。豈惟舟楫勞。亦竢民膏血。聲塵不揣殘。此害何時絕。國叢石

穿島三詩。終之意一同。此余志所歸。不啻不然。

金幡窟。詩 并序

通州南郊。有禿峯。穹隆而東臨大海。峯之懸

崖有窟。廣可七八尺。深可十餘步。仰而兩壁互合。俯而水深不測。窟既深而水氣浸漬。故常幽暗淋漓。有風則驚濤涵湧。不可到。相傳云。窟是觀音眞身常住處。人有至誠歸心。則眞身現于巖石而青鳥飛來。以此驗之。余乘小舟到窟。是日幸風浪靜息。深入窟中。細觀其狀。窟之奧。石壁高三尺許。石紋黃而爛斑。如浮屠所謂袈裟之金幡。無面目肩臂體相。人見此。以為觀音眞身現于石。下有石磊嵬。而其色微青者。人以此為蓮臺。噫。此果是觀

音眞身耶。若曰石紋如佛服。故尊敬則可矣。以此爲觀音眞身。則余未之信也。余到窟之日。有靑鳥飛入窟中。毋人云。此海鳥也。此果是觀音之應耶。余觀是窟而旣有是心。寧有靑鳥之應乎。若是鳥果爲觀音之應。余之是心。眞合觀音。而世人之以石紋爲觀音者惑矣。因作四韻詩一篇。歸之正云。

海上蒼崖窟穴深。人傳常住是觀音。飛翔鳥翼靑如錦。出沒巖紋色似金。見此皆言眞聖現。至今虛使衆癡尋。欲參水月莊嚴相。面照明明本分心。

登州古城懷古

暮天懷古立城頭。赤葉黃花滿眼秋。不覺蕭墻蕆近禍。惟憑海島作深謀。百年丘隴無情草。十里風烟有信鷗。遙望朔方空歎息。一聲羌笛使人愁。

高城道中小歌

倦遊南北路茫茫。來往如梭有底忙。翠麓斷時看佛塔。橫峯高處踞胡床。老鴉村樹秋烟淡。瘦馬河堤暮草黃。弊郡殘民誠可憫。一年生理矣農桑。

金剛山

骨立峯巒劒戟明。居僧齋罷坐無營。如何山下生民類。膴望時時感嘆行。

賀尹代言

年方列宿掌文衡。東國儒林宰有榮。入彀英才皆俊選。察毫精鑑獨分明。堂親未老稱觴壽。座主俱存擁笏迎。我與相公緣更厚。白眉家弟作門生。

用前韻獻尹政丞

三韓德業是阿衡。兩代偏承絕代榮。黃閣已和金鼎味。錦襴曾眷寶珠明。森森玉筍盈門立。濟濟簪裾滿路迎。使外未能叅慶席。顧余遺恨在平生。

賀益齋相國詩 并序

軸辱拜。今月日。有書生自松京至。言相國門生尹代言。掌成均試。以詩賦取士。上臨軒唱榜。明日。尹公引門生。迎公于私第。公又引門生。迎公之座主。尊岳公永嘉府院君。與悅軒老相國同赴慶。送三韓聲靚。以稀

有為義談軸聞而嘉歎心自語曰自古科擧已来文儒見門生門下者有之然皆在晚景懸車之後今相國尊齒方盛衮職始歸而見此盛事豈不萬萬於古者哉恭惟尊岳公府院君悅軒相國俱以三韓三達尊坐享尊安而眼見門生門下生之又領門生實古今之所無古人所云門生門下見門生者不復貴矣相國功名之日既長不待懸車復見門生門下生之領門生決無疑也今詞臣之秉筆館閣者皆不世之才想歌詠盛美雄詞雅頌

溢乎眼底矣僕雖僣詞臣之數以不才遠在海陬不獲齒于慶席宜自揣才分甘領簿書無以望剡衆作者也然軸於相國厚知最厚遊於門下者久矣不忍緘默謹課成長句四韻云

文闈發策得英才掌試傳芳壽宴開白雪清歌和寶瑟紫霞盛酒滿金杯門生自領門生到座主親迎座主來多賀相公連喜慶二郎當依桂林魁

至順元年十月始八日承 王命赴京發

和州馬上偶作

晨昏戀 主貢忠誠更有思家骨肉情山水關東雖信美出城西笑馬蹄輕

是日過孫山驛

破驛依山麓居民孰可憐薄田荒不種通户索無烟更酷斂當路實多焉困鞭何時回太古飽食得安眠

是日過鐵嶺

巨嶺橫空半東西路此分登高笑前將負險怯孤軍絕澗水和雪危峯石戴雲無人修古驛天下但崇文

宿銀溪驛

馬首前途認歸来已再經天寒積雪白夜永一燈青暗室聞飢鼠疎簾見小星溪名如有實豈得屬鄰亭

九日過多林驛

冒曉尋山驛茅茨傍水湾負暄飴背曲伏櫪馬瘡深度嶺腰如束凌寒口似噤朝暉猶未上爐火直千金

過松澗驛

一區幽澗隘雙嶺擁嵯峨壑北狐狸走門前雉兎過地磽秋穫少洞窓暮寒多聞說渠生理踟躕獨自嗟

十日宿林丹驛

黃昏投古館數戶閉柴扉隔岸人猶語棲林鳥已稀幽窓多爵氣暖堗挫寒威年儉困供億寧教妻子肥

過楓林驛

望烟知有驛老吏出迎忙馬困溪山遠人稀草樹荒飢鼯綠壞壁飛雪洒虛堂王事隨吾後遲

留已夕陽。時有京使。持符後故云。

宿龍潭驛

寄宿茅茨下霜濃測氣嚴困來伸病脚。危坐撚疎髯屋老塵棲壁窓明月掛簷心忙眠未穩斗覺夜厭厭

十一日過王溪驛

吏引綠溪路平田桑柘疎林間逢猛犬冰底見纖魚門有輸蹄困家無磵石儲傷時空仰屋寒日照荒墟

過澄波渡

古渡舟如葉天寒波更澄崩崖懸醜石斷岸積層冰浪急近堪杷游魚深莫窺誰高師敢輕淺手有濟人能

宿白嶺驛

歸路天容慘凍雲增暮寒眼明看傳舍身倦卸征鞍喬木藏烟塢青松立雪巒倚窓瞻鵲嶺蒼翠出雲端

過桃源驛

小亭臨大道遥望是桃源風雪滿深巷草萊埋壞垣誰將此山驛輕比古仙村百歲興亡裏居民半不存

除夜

燈殘古館轉幽幽客路難堪歲暮愁夢罷明朝年五十夜深高卧數更籌

元日

人多先我飲屠蘇已覺衰遲負壯圖歲歲賣癡癡不盡猶將古我到今吾

次通州客舍詩韻

倚欄東望海連天喬木村容不記年鶴路迢迢仙島外鯨波浩浩釣臺前強吞弱吐歸樵話異

迹奇觀載文篇坐對遺民問興廢夕陽漁笛隔風烟。

海棠

海棠花發白沙堤紅艷紛紛沒馬蹄時復行間六七里忽聞枝上鷓鴣啼。

題灌木驛亭

彤雲赤日火銷空傍岸叢茅在眼中珍重成林百年樹坐來分我一標風。

永郎浦泛舟

平湖鏡面澄滄波凝不流蘭舟縱所如泛泛隨

輕鷗浩然棄清與泝洄入深幽丹崖抱奇石玉洞藏瓊洲傴山泊松下空翠凉生秋荷葉淨如洗鬒絲滑且柔何晚欲迴棹風烟千古愁古仙若可作於此從之遊。

遊雲巖縣亭

鞍馬長途困熟忙解衣亭上快風凉儉年民事知誰恤喜見山田麥半黃。

次韻寄題張秀才幽居

勝地千金不易求山禽野鶴混沙鷗若為卜築滄波上同把漁竿萬事休。

五月二十五日自和州南行中途遇雨馬上有作。

海天雲黑遍微茫吹面斜風送雨忙山路黃泥深滑滑野田寒水漲泱泱濕裝束縛困難動暑氣熏蒸眼欲僵行近村橋驚短夢釣魚人語隔鷺梁。

是日阻雨留宿歙谷。

困卧風軒萬事輕一成幽夢到天明滿堦新竹應頻我不聽燈前疎雨聲。

次歙谷客館詩韻

栽種成陰竹木蕪孫枝稚筍日新添事稀庭院吏人散坐見蜘蛛網雨簷。

阻雨留通州雨晴向高城有作贈太守。

蕭條弊邑雨留人對食時時愧吏民曉起雲容皆脫壞日昇天氣忽清新坐知荃刺在吾背旋喜羽毛生此身為囑同心賢太守一年農課莫因循。

是日馬上即事

積雨難堪悶悶愁喜看晴日出雲頭自然行處得佳景可是良辰無勝遊莫野晚花香澹澹稍

畦新葉綠油油。道傍聞說老農話。今歲應逢大有秋。

仝遷路

峻巖臨海作懸梁。棧道緣空望欲迷。俯瞰狂瀾深莫尺。仰攀危磴滑難梯。行人匍匐投雙手。羸馬凌兢竭四蹄。叱馭王公猶畏愼。解飛漢士亦顚躋。險嶮豈與井陘比。要害應將函谷齊。聞道敗軍曾過此。愧無良將一九泥。

次高城客館詩韻

海嶠皆陰卷。村墟霽景明。晚涼浮几席。空翠落簷楹。積檜雪裏苔巖瘦。風前麥壟平。蠶經凋懈色。無術濟民生。

三日浦詩 并序

浦在高城此七八里。外有重峯疊嶂。含抱而內有三十六峯。周列洞壑清幽。松石奇古。中有小島。簪石盤陁。昔四仙遊此而三日不還。故得是名。水南又有小峯。峯上有石龕。安石彌勒像。峯之北崖石面有丹書六字。宋郎徒南石行云。小島古無亭。存撫使朴公搆亭於其上。景致最佳。益齋相國作記云。

仙境藏洞中。琉璃水溶溶。團欒小蓬島。出水如芙蓉。飛亭鳥斯革。金碧混玲瓏。憑欄四面聆。三十六奇峯。石佛在石龕。萬古蒼苔封。仙人駕黃鶴。戞泽千萬重。銜碣沒沙際。丹書留筆蹤。乘舟挹清芬。簪履無由從。娟娟水中月。落落石上松。嗟余生苦晚。滿目愁雲濃。

又次三日浦詩韻

海上金鼇頭。戴瀛珠宮。此日入門晨。蘭舟泊近丹書洞。綠霧輕飛瑤草汀。

二十九日。馬上即事。

水旱相仍值歲荒。推擯未去久皇皇。力微任重今方困。此去南來太似忙。鷺立碧池荷背側。鷺飛黃壟麥頭昂。新晴尚有薄陰在。疎雨過山生晚涼。

次韻朽城客館詩

重岡四擁地幽幽。歲久松鱗百尺脩。官道樹深風滿院。海門霞氣曉明樓。兩蓑漁艇平生約。塵袂征鞍早晚休。若賜城南鏡湖月。舊居何必戀吾州。

白鷗

矧弋元非為汝施滄波萬里尚驚疑回看今世功名路無地安然可立錐

題清潤驛萬景臺次詩獻納詩韻三首

海邊蒼石疊成臺萬景雲奔入眼來一葉漁舟向何處信風輕漾似浮盃

何代高賢舊勒臺坐看魚鳥去還来可憐虛棄郵亭路登賞無人舉酒盃

盍戶

吾聞古聖人窶僬而理國生民但耕鑿豈曾知帝力後世利門開能臣爭獻策權蓋起何時歷

代沿不革本國法寖嚴歲課踰稼穡自我出閘東傍海親督役陋居如褐廬蓬門不掛席老翁率子孫寸刻不休息浿寒汲滄溟負重肩背赤酷熱燒烟煤熏煮眉目黑門前十車柴不能供一夕日煎百斛水未能盈一石若不及期程妻吏來怒責輸官委如山轉賣為布帛君王重功臣賞賜不吝惜一人身上衣萬民苦深積哀哉彼鹽戶破衣不掩脊所以困難堪通逃暧形跡若為東海波凝作雪山白官家恣取用與民俱有益不然恤爾生時時需蒸溽念此駐行驂

君門九重隔

奉咨末山堂頭惠朱李

異果堆盤色味鮮清香馥馥嘆炎天細看不是人間種擬食還丹學地仙

六月十三日眞珠南江泛舟

小艇泛橫江雨餘波淨淙投篙泝東流陰崖遶且曲翩翩雙鬢鷁坐石濯我足石鐫寒泉生泠泠瀉氷玉有客靜彈琴松風滿山谷晚来棹中流歌笑往而復此樂人間無眠来伴鷗宿乘舟下南灘清露泣疎竹

六月十七日三陟西樓夜坐

夜色虛明水氣清登樓俯檻聽江聲冗然忘我無人見風露滿空山月生

翠雲亭

城南新構一層樓栽種成陰地轉幽午日燒空紅不漏夏陰籠檻翠如流故人遠在誰同賞騎馬催行為少留舊眼稚松今已壯登臨感念昔年遊

次越松亭詩韻

事去人非水自東千金遺種在亭松女蘿情合

膠難解。芬竹心親粟可餐。有底仙郎同煮鶴。莫令樵父學屠龍。二毛重到曾遊地。却羨蒼蒼昔日容。

寄題丹陽北樓詩 并序

飽膏粱之食者。無適口之味。飫咸韶之樂者。无盈耳之音。類此而推之。則人之於天下之物。心之所樂。目之所翫。莫不皆然。余自關東遊覽以後。樓臺山水之美。極矣心自度之。以為自今以往。凡四方所稱奇勝之地。必無容目者也。余到箕城。人有稱丹陽北樓之美者。

余心所度者如彼。而未之信也。今年夏四月。自箕城歸覲桑鄉。道于丹陽。歷訪所謂此樓者。其奇觀勝致。皆可貪翫。而與關東異者寡矣。私怪而觀其形勢。蓋丹陽在關東之尾。而境相接也。其山水之美。溢乎關東。若將奔突于南。而丹陽勒止之。故其氣勢雄盤壯蓄於斯。而不敢過爾。自是以南。雖有涌脫者。皆支流餘裔。而不足觀也。彼人之未遊關東者。以斯樓為南州之最。不為過也。南有觀魚臺。余之二十年前所嘗遊時。日已久。未遑尋訪。登樓顧望。而彷徨不忍去也。有鄉先生勸余留詩。旣領其請。因念念未暇。旋也。厥後數月。未嘗一日斯樓忘也。今六月。又到箕城。思欲再登斯樓。而不可得。因寄題長句四韻詩。樓丹陽守故李公朝隱所營也。

萬松交峙翠陰浮。縹緲新樓壓渡頭。激石浪噴千丈雪。洒簾風送一襟秋。自嫌塵土隨征馬。空羨烟霏滿釣舟。我識觀魚臺下路。綠蓑何日共臨流。

題平海望槎亭

金碧浮空映水陰。登臨一望灑塵襟。雨晴綠樹黃鸝語。風軟滄波白鳥心。八月仙槎通上漢。百年漁店隔前林。滄洋萬古人無眼。秘蓄天慳直待今。（邑南舊無樓存禮使君始起樓故云。）

次韻題南同年書樓

眷性逍遙學老莊。蒙菴終不到槐堂。為民讀史功曾熟。尚有蓑心向太陽。

七月一日自蔚珍向三陟路上遇雨

馬頭貪賞好風烟。沙渚徐驅懶下鞭。出海遠山明復暗。滿空疎雨止還連。不嫌露濕行泥路。却

喜雯凉洗熱天時見漁舟雪鬢叟蓑衣底袂肱眠。

次旌善公館趙元帥詩韻

峻坂縈迴叱馭行桑麻十里是荒城不毛石齒圭田小側足山腰線路橫聽兩更添為客恨望雲難慰寄親情風巖水穴非人世洗盡塵痕骨已清。吾鄉隔嶺不得覩學故云。

次旌善板上韻

雨餘江漲滯幾鄉民事民情問細詳隱士耦耕疑禁溺敬仙来過是庚桑地高霜早秋未短洞

密陰深夏未長一代後生多俊秀百年遺俗尚循良山村豚飽非晨飲隣舍鷄肥無日攘太守不須開宴樂我因慵病臥臨觴。

贈毋山崔大賢

平生所學是綱常傲世心高魚稻鄉下視榮名如幣屣肯將章帶換金章。

次臨瀛公館東軒詩韻

宦遊湖海感流年恩薄誰言有二天秋院虛凉歸夢後暮山平遠斷鴈邊織機深巷三更火漁艇滄波萬古烟鏡浦松亭容我住不須蓬島更求仙。

題寒松亭

四仙曾會此客似孟嘗門珠復雲無迹碁官火不存尋眞思翠密懷古立黃昏惟有煎茶井依然在石根。松近為山火所燒故云。

別母

暮逢朝別未雷連母子相持淚似泉養志光陰今漸短不知何日報恩憐。

登太白山

直過長空入紫烟始知登了最高巔一丸白日低頭上四面羣山落眼前身逐飛雲疑駕鶴路懸危磴似梯天兩餘萬壑奔流漲愁度螢週五十川。

七月兩中發江陵府二首

才疎無術救斯民衆責紛紛在此身解負今朝歸意迫兩師那得少留人。

二載劬勞但為民豈曾求媚自謀身寒松卮月知吾意時逐征鞍遠送人。

到襄州寄通州太守

朝天路上肯違留二載關東已倦遊元帥臺前

湖月滿。與君寒夜泛蘭舟。

八月始四日此行泛永郎湖。

暮雲半卷山如畫。秋雨新晴水自波。此地重來難可必。更聞船上一聲歌。

奉答通州太守贈別詩

關東二載鎮軍營。未把恩讎慰物情。回謝江湖釣臺月。他年尋我白鷗盟。

再遊三日浦。次板上詩。

亭上奇觀似畫成。恍疑凡骨入三清。雙雙白鷺和烟靜。六六奇峯照水明。甲乙難尋碑篆跡。宮

商已變棹歌聲。惟餘石面丹書在。誰解仙郎萬古情。

在和州伏見 拭目。寄獻賀齋尹大叔相國。元凱

廊廟經綸係一身。德高山斗老儒臣。滿門子姪承餘慶。同日遷官六七人。

賀尹侍中

明主憂時起大賢。再魁黃閣尚中年。雖當一飯寧忘國。塗炭蒼生望息肩。

賀金七宰

賢相來從畎畝中。三韓拭目仰清風。我今謾賀區區意。但為蒼生不為公。

賀李政堂

相國高懷慕謝安。筆堂氣味似東山。今朝復為蒼生起。三尺琴閒自不閒。

八月將赴京。又有 旨。仍行秋祭。南行路上有作。

鞍馬關東路。秋黃再八槐。吏民嫌拙政。山水駐凡才。昨已推相送。今胡去又迴。多慚見沙鳥。虛過釣魚臺。

鏡浦泛舟

兩晴秋氣滿江城。來泛扁舟放野情。地入壺中塵不到。人遊鏡裏畫難成。烟波白鳥時時過。沙路青驢緩緩行。為報長年休疾棹。待看孤月夜深明。

夜坐聞鴻

月落寒空霜露清。雲間孤鴈兩三聲。秋風湖海倦遊客。半夜思鄉心不平。

次洛山詩韻

大聖圓通境。曾聞海上峯。恩同甘露潤。香有紫

泥封。隨頼身常現纏迷眼不逢。莫論眞與假。但自禮慈容。

至順二年九月十七日。罷任如京。過順忠關。

杖節八關口。還從此路歸。朔風吹列戟。落葉滿征衣。未救民間病。寧敎國體肥。縱傾東海水。難洗二年非。

過桃源驛

山下蕭條數戶民。平生奔走馬蹄塵。田頭雨足身無暇。名是桃源實是秦。

過松澗驛

地瘠山危少廣平。此間何事可安生。居民不忍離鄉土。料得流亡非本情。

記

鏡浦新亭記

天下之物。凡有形者皆有理。大而山水。小而至於拳石寸木。莫不皆然。人之遊者。覽是物而寓興。因以爲樂焉。此樓臺亭榭所由作也。夫形之奇者。在乎顯而目所覩。理之妙者。隱乎微而心所得。目覩奇形者。愚智皆同。而見其偏。心得妙理者。君子爲然。而樂其全。孔子曰。仁者樂山。智者樂水。此非謂覩其奇而見其偏。蓋得其妙而樂其全也。余未遊關東。時論關東形勝者。皆曰國島叢石。而鏡浦臺則不甚稱。羨越泰定丙寅。今知秋部掌士朴公淑。自關東杖節而還。謂余曰。臨瀛鏡浦臺。羅代求仙人所遊也。余登是臺。觀山水之美。心誠樂之。到今惓惓。未嘗忘也。臺舊無亭宇。有風雨則遊者病焉。故命邑人構小亭于其上。子爲我記之。余聞是言。怪朴公之見。與衆人之論不同。不敢妄自評品。思欲一覽

而後記之。今余幸承命。出鎭是方。歷觀奇勝。彼國島叢石亭。奇巖怪石。實驚駭人目。而乃奇形之一物也。及登是臺。淡然閒曠。無奇怪異物驚駭人目者。但遠近山水而已。坐而四顧。水之遠者。滄溟浩瀚。而烟浪崢嶸。近則鏡浦澄清。而風漪溶漾。山之遠者。洞壑千重。而雲霞縹緲。近則峯巒十里。而草樹青葱。常有沙鷗水鳧。浮沉來往。客與乎臺前。其春秋烟月。朝暮陰晴。隨時氣像。變化不常。此臺之大率也。余久坐而寓目。覺漠然凝神。至味存乎閒淡之中。逸想超乎奇

形之外。有心獨知之而口不可狀言者。夫然後知朴公之所樂者。不在奇怪一物。而得吾所謂理之妙者。昔永郎之遊是亭也。必有所樂焉。今朴公所樂者。其得永郎之心歟。朴公命邑人構是亭。邑人咸曰。永郎遊是亭而未聞有亭宇。今千載之下。安用亭為。遂以陰陽忌語告之。朴公不聽。督命之役者。除土而得亭舊基礎砌猶存。邑人異之。不敢有言。亭之基迹。既去古綿遠。至於堙沒而邑人不知。今而偶見。此安知非永郎復生于今耶。余前聞朴公之言而得其端。今登

是亭而考其詳。因書于亭上。至順二年二月日。

記。

襄陽新學記

關之東山水奇秀。而襄陽居其中。其英靈之精。清淑之氣。必無虛蓄。而於百餘年間。未聞有瓌奇才德之士出。是邑而瑞人倫者。此非山水之氣無驗。而邑人之性不善。蓋是邑自古隣於藩境。變亂屢興。學校之道不修也。今者區宇混一。而民不知兵。聖學重興。予弟白盛宣置學校。養育人才。而莅是邑者。惟以簿書為急。而慮不及焉。故山水之氣。盤礴鬱積而無所發。予弟之性。梏梏襟裾而無以脫。此豈非邑人之不幸歟。余到是邑。聞之耆舊。邑之北有洞。相傳云。文宣王洞。斯必古之學基。而廢已久矣。余心竊歎焉。即於其地。命邑人營之。邑人咸喜曰。余之志也。悅以忘勞。於是。府下同年友通州守正郎陳君監督其役。士役始興。而邑守正郎朴君來莅任。朴君亦文儒相門之子也。實用其力。以成吾志。此豈非邑人之幸歟。夫地之氣。其衰也久。則其旺也暴。其蓄也遠。則其發也盛。自今家有才學之

孫。里有仁厚之俗。然後有以塞山水之耻。而知余言之不失也。然制度麄疎。事功有闕。望後來君子一寓目焉。

翠雲亭記

余於皇慶壬子春。以單騎遊仙槎郡。郡之南白沙平堤。有稚松數千餘株。童童可愛。余顧謂同遊邑人曰。待松之長。構亭于此。則可與寒越二亭相甲乙也。厥後有邑人之訪余者。則必問松之平安否也。越泰定丙寅年間。聞存撫使朴公於仙槎郡。構新樓而風致甚佳。問其所。即余往

者所見稚松之地也常思欲一登斯樓以償吾
往昔之志而計無得也今幸出鎭是方尋登斯
樓其淸幽勝致不是塵鞅間所嘗見者大抵樓
亭之作不在高曠則在幽深而倦彼則思此倦
此則思彼者人情之常也凡關東樓臺亭榭皆
在高曠故人之遊者目倦乎風濤之怒身疲乎
氛霧之蒸而及登斯樓得淸幽之趣則如走曠
困獸入于窮谷還空倦鳥投彼茂林有至樂存
焉此朴公置樓之志歟朴公高情灑識非余庸
陋之比而斯樓之作偶與僕往昔淺見相合則

余於奇觀異境雖曰有眼可不愧也因追念舊
遊二紀于今而松之稚者皆已壯矣夫人之見
松之稚而又見其壯者能無情乎悲感之餘不
忍嘿過書以記之兼留長句四韻詩因以簡朴
公云

臨瀛公館墨竹屛記

人心之在乎中而不接於外則虛靈不動而安
其本有事物交於我然後有以動於中而發於
外其接物而動我心者耳目口鼻之類皆是而
目之所交者尤廣焉凡物之交於我者有正而
激我者有不正而撓我者惟聖人應物有道而
不失其正衆人則因物有遷而趨向異道故古
之君子欲正其心者常於日用之間愼其接物
而至於目之所覩則尤自擇焉有對冰壺而思
其淸佩弦韋而效其柔愈者有焉蓋欲謹其外
而養其中也臨瀛東方巨鎭而公館無屛幛之
設過於陋素余得生綃數匹作長屛十二疊請
劒山道人行公掃墨竹此非直爲奇觀而飾其
陋素而已其亦深有所取者焉夫竹之爲物淸
而無累貞而不變虛而有容直而不倚古之賢

人君子無不愛之王子猷曰何可一日無此君
耶其見愛也類如此求之於人則其伯夷之流
也孟子曰聞伯夷之風者頑夫廉懦夫有立志
且於百世之下聞其風者其效至此況於晨夕
起居之際目見而親炙之乎自今到是館而坐
是屛者見竹之淸則可以懷廉恥而不傷民財
見竹之貞則可以礪節義而不易所守見竹之
虛則可以寬褊客衆而無苛暴之心見竹之直
則可以不隨時阿附而挺然獨立竹之所以激
人者如是則斯屛之設豈非生民之福歟人之

見是竹而得是心者鮮矣見是竹而不得是心者余記是觀焉

近閱金無迹集集多關東紀行余謂登臨之賦備極無餘矣今觀當之此錄詞意精妙自成一家皆無迹所不道也余於是拊卷歎賞者久之至順辛未孟冬

崔瀣謹題

辛丑冬紅賊冦京家藏舊本皆失艱於復得常以為恨甲辰春余出判清州按廉使柳公得其本屬余曰吾欲為之刋

行於世子之於謹齋為甥也勉之哉余於是欣然而喜鳩工鋟梓其脫誤則嘗在側聞其口授姑以所聞正之至正二十四年甲辰仲秋旬鄭良生書

謹齋先生集卷之一

동사강목東史綱目

조선 정조 2년(1778년) 안정복이 저술한 사서로서, 단군조선부터 고려 공민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중국 송나라 주자(朱子)의 통감강목(通鑑綱目)의 체제에 따라 편찬한 강목체 · 편년체 사서이다. 동사강목을 통하여 오늘의 양양이 시대별로 통치권 등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서다.

구암유고久庵遺稿 · 구암집久庵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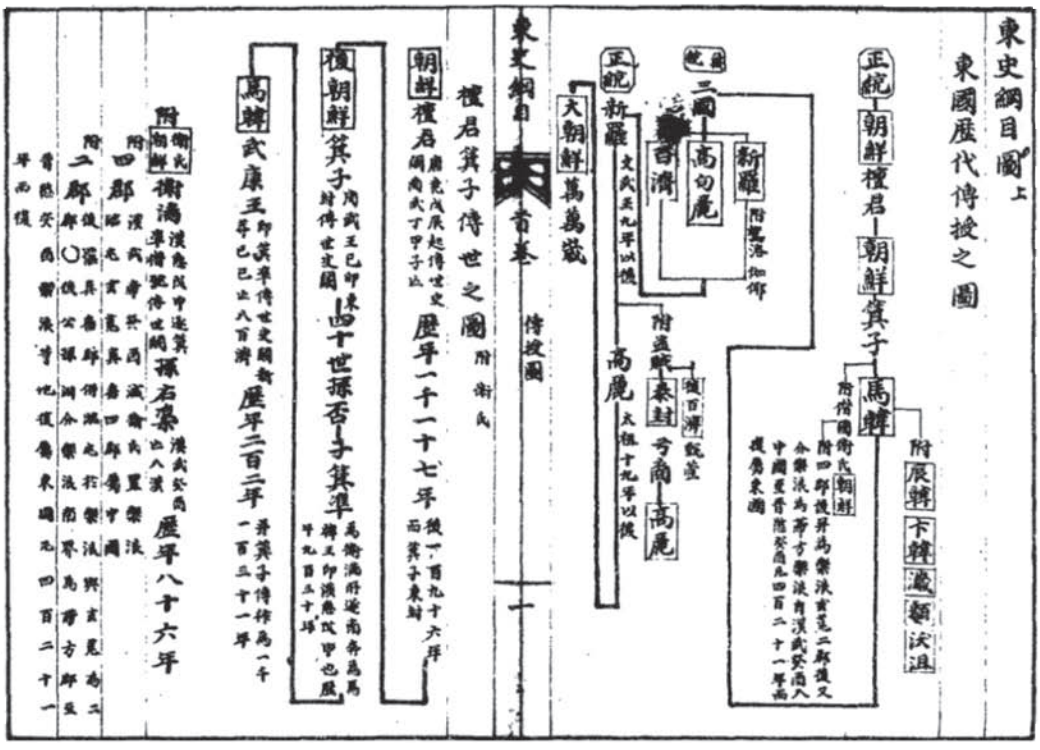
광해군 2년(1610년) 강원안무사를 지낸 정경세(鄭經世)가 지은 문집으로 단군조선시대 이후 한사군 삼한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지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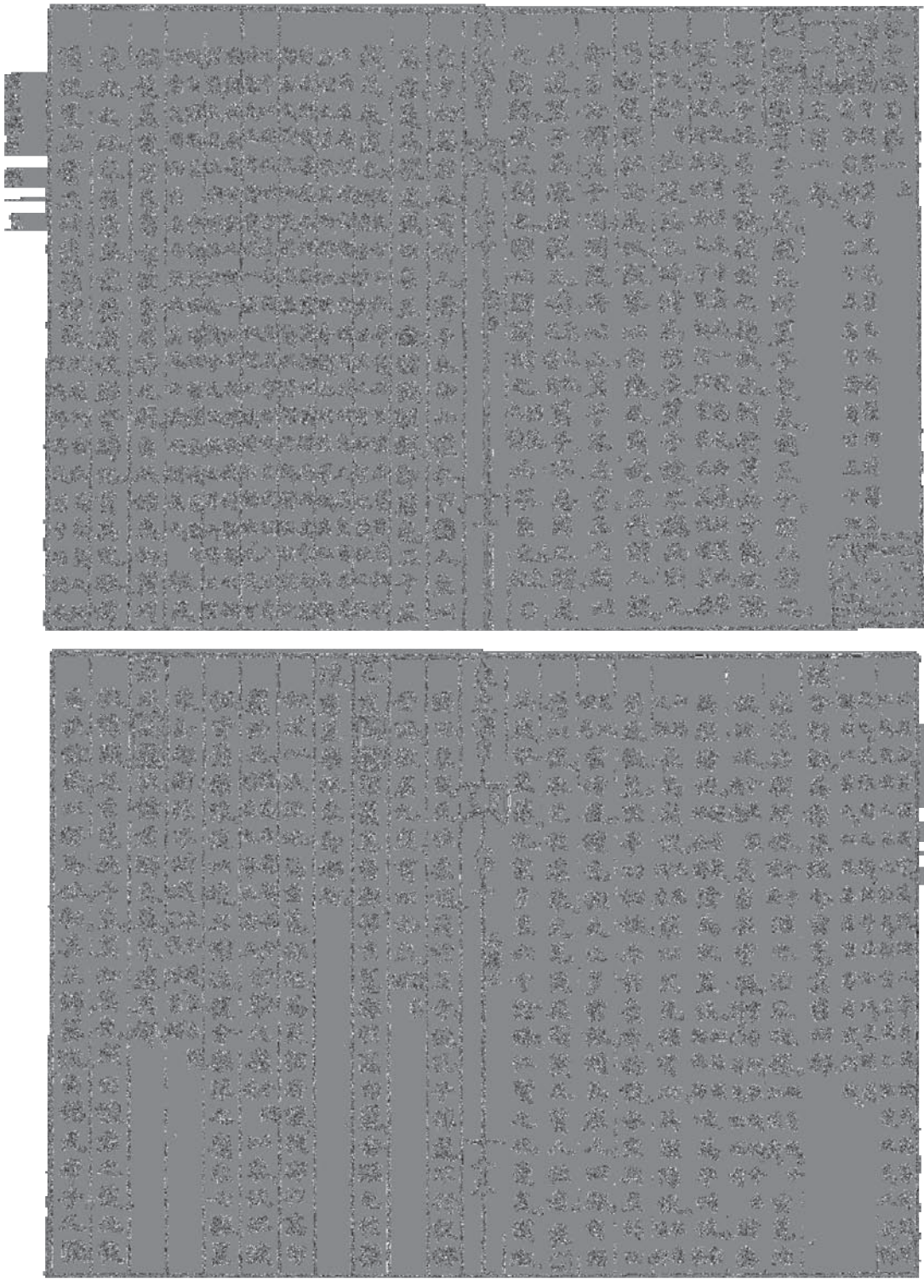
옥동집玉洞集 [유한계록遊寒溪錄]

선조 8년(1575년) 양양부사 문익성(文益成)이 향토의 문인 배경부(裵景孚) · 최도경(崔蹈景)과 같이 한계산(寒溪山)을 유람하며서 지은 문집으로 농고리재[일명 빨딱고개 · 한령(寒嶺)] 백암(白巖) 오색(五色), 오색에 있는 절의 오층석탑, 형제현(兄弟峴) 소동라령(所冬羅嶺) 등 지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언記言

조선 중기의 학자 허목(許穆 : 1595~1682년)의 문집으로 숙종 15년(1689년) 왕명으로 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자의 호를 따서 '미수기언(眉叟記言)' 이라고 부른다. 원집 · 속집 · 습유(拾遺) · 자서(自序) · 자서속편 · 별집으로 구성되었는데, 크게 나누어 현종 15년(1674년) 이전에 쓰여진 〈원집〉과 그 이후에 지은 〈속집〉이 합계 67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로 〈기언별집〉 26권이 있다. '기언' 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뜻은, 말의 중요함과 위험함을 두렵게 여겨, 말하면 반드시 써서 지키기에 힘쓴 한편, 날마다 반성한 데서 나왔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육경(六經)으로 근본을 삼고 예악(禮樂)을 참고하였으며, 백가(百家)의 주장에 통함으로써 50년 동안 분발한 결과, 글이 간명하면서 두루 갖추어졌고, 늘어놓았으면서도 엄격하다고 한다. 또, 천지 · 일월성신을 비롯한 자연과 그 현상들, 인간과 사물의 질서와 지켜야 할 도리, 시 · 서 · 육예(詩書六藝)의 가르침, 희로애락애오욕(칠정) 등 인간의 감정, 제사나 귀신과 같은 기이한 것, 일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논하는 것, 도의 높고 낮음, 세상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 현인 · 열사에서 어리석은 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간에 대한 유의점을 두루 포함하였다.
양양의 지리역사에 관한 기록만을 발췌했으며 동해신묘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東史綱目圖上
東國歷代傳授之圖
正統 朝鮮檀君 朝鮮箕子 馬韓
附辰韓 卞韓 濊 貊 沃沮
附倭國 附北狄 朝鮮
附四郎 說并為樂浪帶方郡 又
合樂浪為箕子朝鮮 前漢武帝滅之
中國屬者前後凡四百二十一年而
復為東國
正統 新羅 文武王九年以後
附渤海 泰封 弓裔 高麗
復百濟 弘農
正統 新羅 文武王九年以後 高麗 太祖十九年以後
大朝鮮 萬萬歲
檀君箕子傳世之圖 附衛氏
朝鮮 檀君 唐堯戊辰起傳世史 歷年一千一十七年 後一百九十六年
綱目戊子甲子止 而箕子東封
復朝鮮 箕子 周武王己卯即東 四十世孫否子箕準 馬衛滿所逐南奔為馬
封傳世史圖 準王即漢惠帝甲也歷 韓王即漢惠帝甲也歷
年九百三十年
馬韓 武康王 即箕準傳世史闕新 歷年二百二年 并箕子傳作為一千
年己巳止八百辛 一百三十一年
附朝鮮 衛氏 衛滿 漢高帝甲辰中逆箕 孫右渠 漢武父閎
準稱號傳世闕 出八漢 歷年八十六年
附四郡 漢武帝開滿衛氏置樂浪
附二郡 後漢 郡昭帝玄菟屬焉 樂浪 郡領縣四 郡領縣二
郡○後漢公孫淵分樂浪南界為帶方郡 玄菟 為二
晉咸安因郡縣之 晉地復為東國 元四百二十一
年而復
東史綱目 書卷 傳授圖 一
附辰韓 詳地理考
附弁韓 合上
附濊 合上
附貊 合上
附沃沮 合上
按右諸國傳世歷年都無可攷今闕之
東史綱目 書卷 傳授圖 二



地理考

按讀史者必先定疆域然後可以知占據之形便攻戰伐之得失考分合之沿革無是時矣三國之時必有掌故之官而漢唐用兵夷夏交亂簡裔焚滅數千年秘書圖籍舉無所傳惜哉金文烈修史去古未遠庶可博考古籍而只憑新羅斷爛文字苟且成編鄭河東亦踵謬而成麗史使國邑山川并無可據甚者顛倒遠近移掇南北而謂之信史可乎今據傳記之遺存者互相參驗為地理考丙子冬昌福識

檀君疆域考

檀君疆域無考而箕子代檀氏其提封半是遼地則檀君之世亦當然矣古記云北夫餘為檀君之後按夫餘在遼東之北千餘里蓋檀氏世衰子孫北遷而舊疆因入箕封矣麗史地志江都摩尼山塹城壇世傳檀君祭天壇傳燈山一名三郎城世傳檀君使三子等之然則其南亦當限以漢水矣

太伯山考

三國遺事云太伯山今妙香山在今寧遠府麗志及輿地勝覽并從其說太伯之變為妙香未知在於何代而我東諸山名號多出於僧釋妙香之稱亦僧家文字也李牧隱妙香山記曰山在鴨綠水南與遼為界長白山之所分也地多香木然則妙香之稱以其香木之多而然也檀君降於太伯山檀木下檀是香木故後人遂稱其君曰檀君名其山曰妙香耶三國史崔致遠傳上太師狀云高句麗殘孽北依太伯山下國號渤海此指今白頭山而上所謂長白山是也即檀君所降地也又按路氏覽江表傳有大卦山下有大城世傳檀君墓今土人以大卦為太伯亦未可信

白岳考附阿斯達

遺事檀君初都平壤又移白岳山阿斯達又云阿斯達亦云白岳在白州地今白川或云在開城東今白岳宮是今未皆未定之辭也麗史金謂磾傳引神誌仙人秘詞有白牙岡之說而以西京即平壤當之世傳神誌檀君時人出檀弓疑制詩所謂白牙岡即白岳也檀君之移都猶高句麗之自平壤移東黃城新羅之自金城移月城耶麗誌文化九月山世傳阿斯達山在江華地廣覽在今文化縣東十五里基址尚存然則白岳當是此地也方言阿斯近九達近月故也古者東方地名皆以方言呼之則此亦然矣或云山有宮闕故址故俗稱關山誤傳為九月山云

箕子疆域考

漢書曰玄菟樂浪本箕子所封唐書裴矩曰遼東本箕子國遼史地志遼東本朝鮮周武王釋箕子囚去之朝鮮因以封之遼東志遼東本箕子所封之地一統志遼東名宦亦載箕子盛京志瀋陽奉天府義州廣寧之界皆云朝鮮界則遼地太半為箕子提封戶口汀根青云廣寧城北三里有箕子井傳有箕子廟有

劉豫叛甲寇。孟靖聞。為兵火所燒云。而箕子又都平壤。凡都邑之地。多空國中。則吳氏濛所謂。遼河以東。漢水以北。皆箕氏地者。然矣。至後孫。當燕之末。失西界千餘里。以滿浿汙為界。即漢志遼東郡東部屬縣浿汗也。於是而遼地入中國。(括地志曰。麗滅貊。東沃沮五國之地。東西千三百里。南北二千里。東至大海。四百里。西至營州界。九百二十里。南至新羅國。六百里。北至靺鞨國。千四百里。按。此亦可以備考。)

衛氏疆域考

衛滿箕箕氏。其地西北限浿。浿汙。又侵降其傍小邑。真番臨屯。今東北塞外及北道嶺東之地。是也。西渡大海。通青齊。南至漢水。接三韓。後亡。入漢。置四郡。

滄海郡考

史記。張良欲為韓報仇。東見滄海君。得力士。註。滄海君東夷君長。滄海之名。其來久矣。至漢武帝元朔元年。濊君南閭降。以其地為蒼海郡。蓋因舊號也。至濊考。(又見雜說三韓條。)

三韓考

三韓之地。自今漢水以南為始。馬韓今漢水以南。京畿忠清全羅道之地。西渡海通青齊揚越。東南渡海通倭。北限漢水。接朝鮮。東連辰卞二韓。後百濟有其地。

○辰韓今慶尚道。洛江以東之地。北連濊貊。西北接馬韓。西界多與卞韓錯居。東濱海。通倭。服屬馬韓。後為新羅。

○卞韓今慶尚道洛江以西。西南跨智異山。迄至今全羅道東南之地。東與辰韓雜居。西北與馬韓接。東南渡海通

地遠邑至于此也。然則彼地所謂公險鎮者。必是後來斥地移設者。而史無文也。大抵高麗之世。未嘗作土至于豆滿。恭愍雖復東界。而其所復八州五鎮。皆是咸州以南。亦未盡復九城之地也。至我 太祖。始奄有豆滿以西。金宗瑞所謂 太祖奄有大東。東北至于豆滿。置孔鏡吉端。青洪咸七州云者。是也。麗志言四履東北。以先春嶺為界者。蓋有未詳也。(更授。恭愍王四年。女真斡里朶來朝。差李公。而。原是俘本國公險鎮境內。斡都里又曰。若倘中尹瓘平吾地立碑。曰高麗地境云。則豆滿者豆滿江地也。高麗史疑居太甚。後人無我考焉。)

哈蘭府考

高麗史地志云。咸州浸於元。稱哈蘭府。勝覽云。哈蘭故治在今府南五里者。亦非也。何以知其然也。麗史趙暾傳云。咸州以北哈蘭洪獻(今洪三撒(今北)之地。本為我疆土。則哈蘭府別在咸州之北矣。辛禑十一年。倭寇咸州洪原北青哈蘭等處云。則亦可以旁證矣。元志。開元西南曰寧遠。又西南曰南京。(當在烏喇南界。)又南曰哈蘭府。又南曰豐城。據此則哈蘭府別有其地。而蓋今咸興即其界內耳。哈蘭者合懶也。咸京志。金以混同江南近高麗。為合懶路。西為恤品路。今永吉州(卿烏)之南西。當為合懶恤品二路。元置合蘭府。水達達路軍民萬戶府。以此觀之。則其地域。蓋可想矣。疆理地域。有國之所必詳者。而我人昧昧多錯。以此規模。若當事變。何以處之耶。可嘅也已。

疆域沿革考正輿地勝覽高麗史地志多有可疑者故今考驗傳記更定其大槩如此

京畿道

古朝鮮地漢武帝時爲樂浪南界後漢末公孫康分樂浪南地置帶方郡今漢水以北盡屬焉漢南卽馬韓地後入百濟而其近東及西北之地多爲羅麗所侵奪濟亡併於羅置漢州及其末弓裔竊據回歸高麗

忠淸道

古辰國馬韓地後爲百濟唐滅濟置一都督府二州見熊津都督考尋爲羅所併置熊州

全羅道

古辰國馬韓地今智異西南近海諸郡亦屬弁韓後入百

濟唐滅濟置郡縣設五州見熊津都督考尋爲羅所併置全武二州

慶尙道

古辰國辰韓地新羅興於其地今洛東以西近海至智異山屬弁韓後爲六伽倻之地亦入新羅置尙良康三州

江原道

古朝鮮地爲濊貊所居漢武帝時爲樂浪東界今嶺東卽濊地而漢臨菟郡也嶺西爲貊地後分入新羅高句麗亦併於新羅置朔溟二州

黃海道

古朝鮮地漢武帝時爲樂浪屬縣公孫康分樂浪南地置帶方郡近海之地多屬焉三國時或屬麗或屬濟侵奪無常麗濟亡併於羅

平安道

古朝鮮地漢武帝時置樂浪郡光武時以薩水北屬高句麗南屬漢後麗併其地唐滅麗置安東都護府於平壤尋移府於遼東玄宗時今大同以北多屬渤海新羅末弓裔定浿西今大同江以北十三鎭今平安道北境及咸鏡道南境降平壤大氏亡近邊之地爲女真所據高麗興盡復之以鴨綠江爲界

咸鏡道

古朝鮮地今北道爲北沃沮南道濱海爲東沃沮南沃沮在北沃沮之南距今三甲等地漢武帝時爲玄菟郡昭帝

時徙郡遼界沃沮分居後屬高句麗唐滅麗屬唐尋爲渤海大氏所據今文川以北是也其南爲新羅大氏亡近北之地爲女真所占高麗興復之至先春嶺爲界

遼東

古初九夷之地舜置幽營二州羈屬東夷夏商之代屬東夷周武王時封箕子於檀君朝鮮故地今奉天府之義州廣寧以東皆其封內也戰國末燕攻取之尋入于秦漢漢末爲公孫氏所據公孫亡入魏至晉初爲中國郡縣又爲慕容氏所據與高句麗相侵奪慕容衰併於麗唐滅麗回屬中國後爲渤海地渤海亡併於遼遼金元入于明

寧古塔

古肅愼氏之地西界為真番夷所據屬於朝鮮漢武帝滅朝鮮置真番郡今永吉等州之地是也昭帝時罷郡後為靺鞨白山部屬於高句麗麗亡屬渤海大氏大氏亡併於遼

分野考

漢書地理志燕地尾箕分野即析木之次樂浪玄菟亦宜屬焉晉書天文志渤海入箕一度樂浪入箕三度玄菟入箕六度是以後人以我國為箕分當聞之師曰箕子封地在南箕之地洪範之陳即信洛書為之洛書之位二八易位（按陰陽之數起於子午陽數起子順行故一居坎二居艮三居震四居巽陰數起於午逆行故九居離八居坤七居兌六居乾今洛書之數二居坤而八居艮故曰易位其位二八易位者二五爻之重又皆陳聖與八卦微之兩暘燠寒風相應此天人感應之理）坤艮相直上應天河河本環田而今中華之所見者亦只首艮尾坤艮當箕尾之墟矣今鴨綠以東之水莫不從艮注坤與箕文合其事似若神助然則我國之為箕分天文地理之脗合有如是者夫漢志又曰朝鮮在海中越之象在北方胡之象有越象故亦以斗分當之唐一行曰箕與南斗相近為遼水之陽盡朝鮮三韓之地在吳越東按今三南即古三韓之地與吳越相直然則漢水南至于海當以斗分為定

經緯線分野圖

矣噫先生之德之功在我東赫赫照人耳目不啻如冥途之日月而一列聖相承褒典荐加上自王都太學下至僻縣小黌莫不嚴恭饗祭以為崇德報功之地則其揄揚贊頌豈待膚末之一言哉猶且言之而不知止者其猶大匠拋槩而鄙人無不同聲成相各致其力爲可已乎此百謙所以續貂諸公而不敢辭也

東史纂要後叙

癸丑秋余病罷居西湖適舍弟柳川子亦待謫田里與之朝夕徃來披閱古今書籍以自遣一

日偶得東史一秩乃嶺南吳斯文澐所撰其書上自三朝鮮下及高麗氏大綱大要無不備載焉煩簡得通鑑史略之中且為名卿碩士與夫義烈之徒皆立傳僭竊摧凶亦無不以類而附其末有頭有緒甚便考覽亦吾東方不可無之書也但詳於列傳而略於本記又無表志其國之法制沿革其君之政治得失皆無以考其終始此為可欠抑三韓四郡之說亦沿襲諸家之陋未見有折衷之論此則實我東方一大欠事不特為吳公此書惜也吳公嘗從先君子遊於

吾輩為尊執久聞退居林泉日以書史自娛其於先代文獻宜其有所徵思欲一拜起居目叩其所疑顧南北脩阻際會無便乃敢出於僭妄自叙所見如此書無遠近如或此紙流傳得經吳公具眼則不知以為如何也謹按我東方在昔自分為南北其北本三朝鮮之地檀君與尧並立歷箕子暨衛滿分而為四郡合以為二府至漢元帝建昭元年高朱蒙起而為高句麗馬其南乃三韓之地也韓之為韓不知其所始而漢初箕準為衛滿所逐俾海而南至韓地金馬

郡都馬稱為韓王是為馬韓秦之亡人避役入韓地韓割東界以與之是為辰韓又其南有弁韓屬於辰韓各有渠帥後漢書云弁韓在南辰韓在東馬韓在西其指三韓地方亦已詳矣新莽元年溫祚滅馬韓而百濟興馬漢宣帝五鳳元年朴赫居世為辰韓六部民所推戴而新羅始焉弁韓前史雖不言其所傳而新羅儒理王十八年首露王肇國於駕洛據有辰韓之南界其後入於新羅疑此即為弁韓之地也然則南自南北自北本不相參入雖其界限不知的在

何處而恐漢水一帶為限隋南北之天塹也崔致遠始謂馬韓濊也弁韓濟也此一誤也攝近雖知馬韓之為百濟而亦不知高句麗之非弁韓混而說之此再誤也自是以後作史之家承誤襲謬前唱後和不復就其地而覈其實遂將一區三韓之地左牽右引糾紜錯雜至今數千年間求有定說可勝惜哉何以明其然也當三韓時本國雖無文字兩漢書皆有列傳試以年代上下地界遠近求之則百代雖遠歷歷如在眼前夫何難卞之有哉前漢書曰漢武帝討右

渠遂定朝鮮地為樂浪臨菟玄菟真番四郡樂浪郡治朝鮮縣臨菟郡治東暆縣玄菟郡治沃沮城真番郡治霅縣郡云朝鮮縣今之平壤東暆縣今之江陵沃沮城今之咸鏡道此則皆有可據之書不可誣也霅縣郡雖不知其所在當漢昭帝合四郡為二府時以樂浪臨菟合為東府都督府則樂浪臨菟之間黃海江原京畿左道等地地界固已相接矣又以玄菟平那合為平州都督府平那即真番也（平那山在真番境內故云）玄菟北窮野人東濱大海南接臨菟暎不可跨越臨菟千里之地而與下三道合則其形勢非關西一帶更無去處意者樂浪郡治雖在平壤所謂真番其必在平壤迤西之地與玄菟合也歟然則四郡二府之界限其止於此亦明矣惟真番地方比三郡似為狹小其或侵入鴨江之外則亦不可知也自高句麗起得二府舊地南至漢江北至遼河皆其所有又何時為弁韓或馬韓耶以此知四郡二府之自為四郡二府而與三韓不相涉也後漢書云弁辰在辰韓之南亦與倭接又云弁辰與辰韓雜居衣服居處風俗

同其稱弁韓必曰弁辰則弁韓之於辰韓必為附庸而不相懸遠可知又云馬韓統五十四國辰弁韓各統十二國所謂國即今之郡縣合辰弁二韓僅得二十四國不能當馬韓之半以此見之湖西湖南合為馬韓而嶺南一道自分為辰弁二韓又何疑乎馬韓歷四郡二府之時至新莽時為百濟辰韓亦歷四郡二府之時至宣帝時為新羅弁韓之與辰韓始為附庸終為合屬如上所云則三韓又何時入中國為四郡二府哉吾又以是知三韓之自為三韓而與四郡

二府不相涉也崔致遠唐昭宗時人上溯三韓時幾千有餘年其出於傳聞非耳目所及則與攀近何異攀近亦何異於今時之人哉而況崔致遠聰明才氣固吾東方第一人然其歷代興廢必資聞見而知致遠入唐遊學時年十二其還國纔二十八今唐書所載皆致遠遊學時所說十二歲童子雖所生之國其能貫穿千年沿革而不一誤亦未可必也後之覽者每以古今人不相及必欲奉信而不敢疑其亦過矣攀近亦近世大儒久居金馬郡親見所謂箕準城遂

以馬韓安為百濟則亦庶幾乎有見矣而終不肯大眼遠察反生此區區附會之計其釋弁韓在南則乃曰蓋自漢界遼東之地而云爾其引弁韓苗裔在樂浪則乃去苗裔二字而直云弁韓在樂浪何其穿鑿若是之甚哉其他平那山之平字與弁盤相近遂謂弁韓為高句麗云者則又與兒童迷藏之戲無異直是可笑盖三韓僻在東南一隅之地去中國最遠雖堯舜揖遜而聲化不暨楚漢交爭而干戈不擾毗鑿晏如長育子孫別為天地間一壽域故西北避亂之

人多歸之仍成村落各以其本管名其居慶州之得彌樂浪亦如辰韓之或名秦韓也後人不分此二樂浪曰以平壤為弁韓何其誤哉

題陰符經後

甲寅秋冬間余在墳庵金享吉時往來焉齋居無事之中相與剸談陰符秘訣令人悠然有感興遠遊之意不知此身猶在萬丈塵凹也仍借其書晝讀而夜誦之訖數日不釋于懷但見其石火電光若明若不明終不知有神機鬼藏之妙雖余俗緣未化朝暮之遇卒不可期而於其

書亦不能無惑焉竊以所得於吾師者為之評曰夫有德者必有言德者言之本也言者德之標也未有胸襟洒落明快而其發之於言者含糊支晦使人莫測其端倪也易大傳曰中心疑者其辭支孟子曰遁辭知其所窮聖賢豈欺我哉乃如之人肆為詭秘之術欺己欺人又將欺後世以盜隱名之名欲與黃帝並傳其幽暗嵚嵜嘔之心已可想見於千載之下其言之有取無取非所論也唯其假託陰陽勝伏之說闔闢張皇易惑難明不但蒙學淺識為之被瞞雖邵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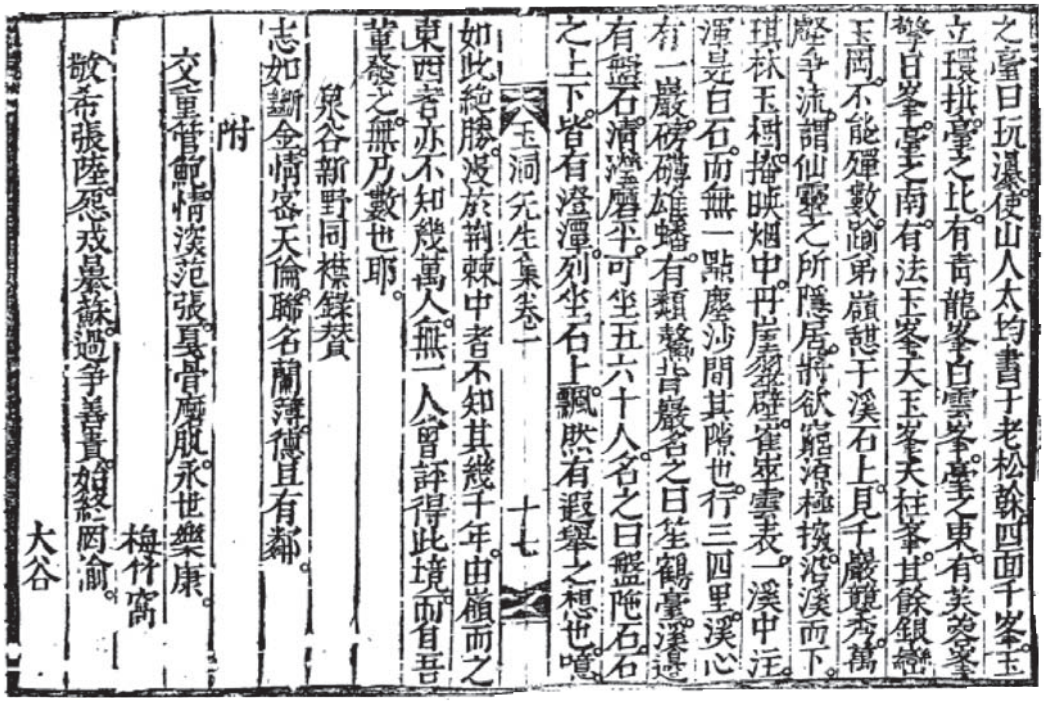
遊寒溪錄

乙亥冬守襄陽與崔嗣景裴景孚及二子勵劼將遊寒溪自峴山城踰香峴歇馬于寒頴東臨滄海雲濤茫茫西瞻雪岳石角峨峨況積雨新霽纖雲四捲未到寒溪逕與先飛下嶺五里許有洞窈窕名曰白巖數椽茅屋獨占一壑烟霞眞茵壽中孤村也西行二里許渡一澗彷徨四顧得一巒麓壁立千尋雙溪挾流亂濺噴玉下有石潭澄淨上有蒼松交翠眞絶勝區也遂移石築臺列坐其上此八仙區第一程也使蹈景名之曰雙瀑臺使景孚白書于老柏鉄又令童

子釣得松江小鱸作膾飛秋露數觴清談半日忽覺塵慮滌盡步遊溪而行十里許有古驛基其間清川白巖步步皆奇又西行五里餘有本寺兩崖石壁橫截左右者數重徑馬到寺西面石峯削立銀幛一曲清溪流注碧玉潭中有五層石塔甚古各口占五言小絶題其面夕餉後杖策緣溪而西數十步許眾石九絶各占石散坐或詠詩或釣魚或舉酒相屬擡頭北望則層巒疊嶂松桂烟霞依依然有爛柯之想翌日還出石門轉而北行七八里許隨兄弟顧駐馬南望則昨夕北望諸峯皆在眼下遂逾西行三四里許憩

馬于所冬嶺下嶺入寒溪上壑千章松檜蔚然而滿谷或特立巖崖自枯摧折虯負棟樑之材未見匠石之收不能無興感焉稍下二三里許洞壑幽邃林木蓁蔚密葉翳日清陰可愛一帶長川蟠曲縈紆信馬徐行不知其幾回渡也行二十餘里渡一澗盤石可坐五六人青松陰其上自石鋪其下清流激湍可以濯纓川裝源於雪岳上峯西南流至此幾六十里看此至寒溪古基千巖萬壑都是石也或磅礴雄峙或突兀削立奇形怪狀不可殫記遂舍馬而徒杖青藜琴碧蘿緣巖餙一線路曲賞而進十步九休始窮獻

喜臺絶頂夕知勝地在險非有仙風道骨安得至此乎還大乘庵因徃觀瀑布瀑布距庵五六里石路磽确未穩著步既到瀑布之南緩望見則蒼崖鐵壁不知其幾萬丈也一帶清川直下其間或觸石而散噴珠交錯或隨風而下玉絲飛翻第以水淺未做壯觀令僕夫折持青枝橫障其源有頃決之則流波迅壯雷風相薄白日青空霹靂交鬪聲振一壑驚掀搴岳毛髮盡竪心魂俱爽俯瞰下洞深不可測直欲捫手相攜懸崖絶險無隙可緣此又神龍之所窟宅也遂逐陰崖而坐玩賞終日曾中查滓頗釋十分名所坐



之當日玩瀑使山人太均書于老松躅四面千峯玉立環拱堂之比有青龍峯白雲峯堂之東有芙蓉峯聲日峯堂之南有法王峯天王峯天柱峯其餘銀巒玉岡不能殫數諸弟嶺誥于溪石上見千巖競秀萬壑爭流謂仙靈之所隱居將欲窮源極掖沿溪而下琪林玉樹掩映烟中丹崖翠壁雲表一溪中汪渾皃白石而無一點塵沙間其際世行三四里溪心有一巖磅礴雄蟠有類鰲背巖名之曰笙鶴臺溪邊有盤石清瀅磨平可坐五六十人名之曰盤陀石石之上下皆有澄潭列坐石上飄然有遐舉之想也噫

如此絶勝沒於荊棘中者不知其幾千年由嶺而之東西者亦不知幾萬人無一人曾評得此境而有吾輩發之無乃數也耶

泉谷新野同樵錄贊

志如謝金情密天倫聯名蘭薄德宜有鄰

附

交重管鮑情深范張髣髴前脩永世樂康

梅竹窩

敬希張陸恕戒暴蘇過爭善實始終之岡渝

大谷

記言卷之三十五　外篇

東事四

地乘 初作誌林。改地乘。書大抵出地輿。貨殖。重禮義善俗。

朝鮮九域之地在燕齊外東南西際大海北連靺鞨句麗末世失玄菟遼東地七百里以浿水爲界南北三千里東西千里風氣之殊聲音服食嗜欲與中國異俗蓋方外別國上古自檀君歷箕子氏三韓四郡二府及三國之世幷韓馬韓爲百濟所幷眞番赫居世所起而臨屯夷貊之地悉幷於新羅樂浪幷於句麗玄菟幷於遼

東高麗幷有三韓地分爲關內中原河南江南嶺南嶺東山南海陽朔方浿西十道後改揚廣慶尚全羅交州西海東界北界我　太宗十三年定京坊慶尚全羅忠淸江原咸吉卓安黃海八道州郡縣因革不同山川界別邑里區分百里不同俗千里不同語南方多鳥北方多獸風氣使然也山峽之俗樸騃機利之民儇急習性然也東方偏薄之氣噪擾無常心大體皆然

王城圻內之地本馬韓之域東北古貊西盡大海南陽出碧海濱竭鹵宜稻貊西敍粟居三

王城立后手實在百濟爲南平壤麗時爲南京王者之所更居五民之所聚其俗纖嗇善女工技巧衣履冠帶四方輻湊纖戎賓服國制重儒術詩書教士有禮樂之風開京士女素服尚聲律古國之風也

太祖定都漢陽徙豪傑大族其不從而禁者業工商有世工世商駔儈互市易貨古今事浮屠仁柔惡殺爲江西仰最有麗王祠德津新羅北瀆載中祀三角曰華山祭中嶽

仁祖十四年南漢立溫祚祠

浿西朝鮮古地其星箕尾其次析木獯貊句麗玄菟皆屬焉西瀆大海其北閭延虞芮連靺鞨其穀峽中大秬細秬其利綿麻參漆銅鐵皮革海濱食稻鱭魚蓋龍灣中國之途物貨之所流平壤檀君之國至周箕子所封也箕子之教重禮俗敬鬼神器用俎豆婦人貞信不淫黎民樂業句麗尚騎射俗變勁悍好氣力習用弓矢刀矛平壤有檀君東明祠有箕子祠載中祀免山有箕子塚江東有檀君塚浿江國之西瀆載中祀寧遠優渟水上迦葉原北扶餘鮮卑夫婁之地

成川。古沸流之國。亦曰東扶餘。見檀君世家。西海。古朝鮮南境。今圻外舊武之地。東連貊地。西際大海。其利緜麻。鹽鐵。海錯。其種稻二穀粟五。我 世宗時。海州出秬黍。一粒一分九寸。爲黃鍾之長。三分損益。成十二律。麗時。太師崔冲教九齋弟子。曰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德大和。待聘。鹽州南池長淵。汭汀長山長山國之材木之所出。其嶼白翎。大靑小靑。儒州阿斯達。祀桓因氏。神市檀君。有唐莊京。麗史檀君氏之國都。

中原河南烏韓之地。爲百濟溫祚所并。西濱大海。東有嶺阨之阻。土沃五種。無不宜。其利海錯林漆。棗柿。木綿。苧布。銅鐵。太原出琉黃。西州蘊。泰出竹箭。風俗儉嗇。多富人。峽俗火耕種粟。其民朴略多質。上黨出豪俊。熊州敎公州舊俗。男箏笛。女歌鼓。百濟遺風。富強之餘也。大體尙強悍善鬪。河南慰禮。溫祚古都。有溫祚祠。溫祚三世至文周。自南平壤徙都熊州。至明禮立。又徙於泗沘。改國號曰南扶餘。有熊津國之南瀆。載中紀。蘇泰今泰安郡西其嶼上山。北波其外田橫島。

江南海陽。江南今全州。海陽今光州。本馬韓之地。西南際海。有鹽鐵。海錯。橘柚。梔。檳竹箭之利。蛻俗不力田。作業漁採。無積聚。江南出梓漆。梅。檜。莞。苧。蕉。薑。穰荷。薺。金。金馬尙厖朴。古國之風也。金堤五渠瀆田九千八百。碌澤之地。五種無不宜。全州江海之都會。物貨之途。商賈之所。尙儉。利民不椎朴。帶方輕悍。尙騎射。淸渠縣今龍潭。以東。朴野。火文。畜。芋。掾。界羅界羅州。風俗。尙富。麗好任俠。奇氣。潭州潭陽府。稱多才俊。龍安古俗。以春秋每歲。行鄕飮酒禮。其誓曰。不孝者黜。不友者黜。不信者

黜。非國政者黜。鼓長吏皆黜。勉德業。規過失。恤患難。成禮俗。同歸于孚。皆再拜序齒。序飮大體。金馬以南。尙巫覡。倡優。淫技。百戲。群山在海中。方六十里。有澳。卞山。宮室。舟車。材木之所出。羅州有南海神祠。小祀。帶方南原府有南嶽祠。尙書大傳曰。天子祭名山大川。五嶽視三公。四瀆視諸侯。其餘視伯子男。謂其牲幣籩豆爵獻之數也。諸侯祭名山大川之在其地者。記三王之祭川也。皆先河而後海。故晉人將有事於河。必先有事於惡池。齊人將有事於泰山。必先有事於

交州唯陽東界古濊貊之地自沃沮至句麗南境沃海千里亦西貊多山土瘠其種菽麥大稏小稏平原種稻畜積海濱鬻魚鹽多大澤食螺蛤海岸多竹箭峽中緣麻林漆蠶歸葬藥紫檀貊俗癡騃火嗜欲尚廉恥同姓不相娶旌善稱孝弟鄉溟州濊國喜舂貊國襄汕海上有東海神祠小祀平原雉徽有東嶽祠東州楓泉原弓裔所據廣野三百里四塞多阻有濁川蔚珍東海中鬱陵于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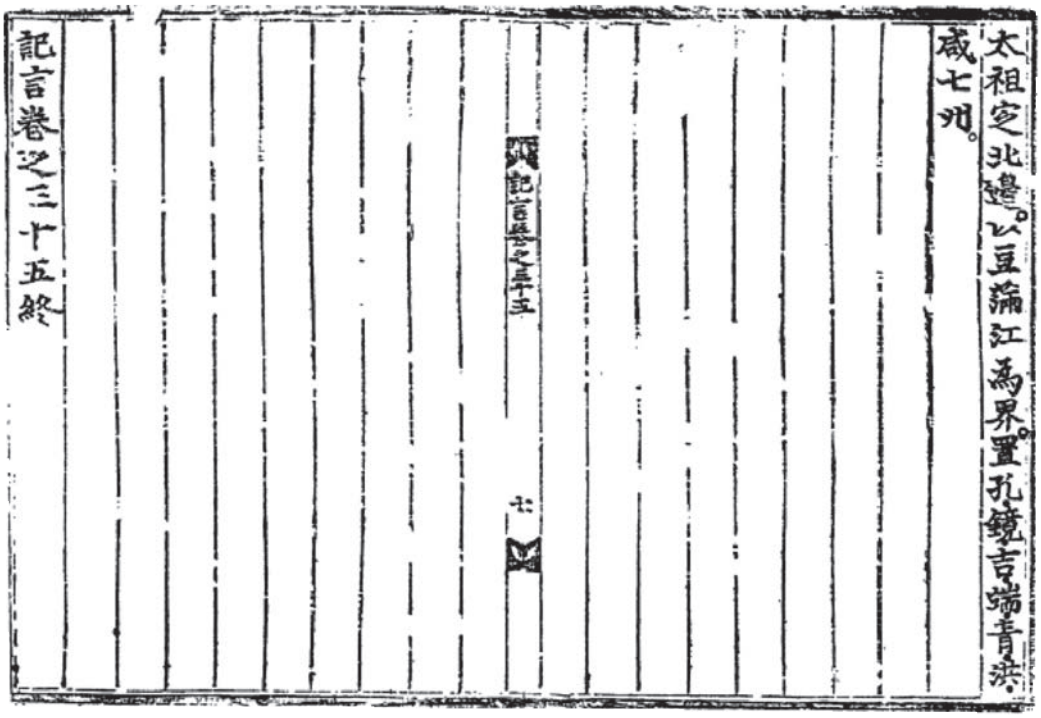
朔方沃沮之地或曰置溝婁在蓋馬東瀕於淳海北自挹婁南至濊貊千餘里其俗質樸強悍嗜利尚弓馬其利魚鹽緜麻皮革銀石琉黃北方多善馬沃沮有三種曰東沃沮曰北沃沮曰南沃沮。

挹婁在不咸山北古肅慎氏之地也土沃善田種尚勇力地寒穴居弓長五尺搭矢石鏃八寸與沃沮同俗在鞮鞨之域朔方咸開通北麗時為永安真所據尹瓘吳延寵伐逐之後和州迺北叛入于元拗仁兩擊平之復和營安長頃高文宣八州又後沒于元。

配休。先告從祀所以尊大神也。祭山川海嶽最尊。今四瀆中祀。而海嶽小祀。蓋失之禮也。毛羅南海中國。幅員四百里。其種宜麥宜黍。秫土瘠民貧。其民癡騃。其俗儉嗇。女三男二。多壽考。良馬出焉。有柑橘玳瑁蠙珠。琥珀檀。新羅時有高麗者來朝。賜國號曰耽羅。至高麗初置濟州。

大嶺之南古辰韓之地。在濊貊南。新羅立國千年。開井田。建國學。修祀典。薛聰作九經口訣。風俗淳厚。知禮讓。稱君子之國。東南際海。西北阻山。土沃。五種無不宜。其利魚鹽銅鐵銀石楮漆竹箭梅橘石榴。

長山通日本。貿蠻夷百貨。樂浪古國之餘。沃壤倍收。多富人。尚儉素。物衆而饒。列肆互市。與浿西平壤稱東西京。晉陽尚侈富。京山好女工。寧海善絲桐。皆富樂之餘也。徙往有賢人之化。慕仁義。安善俗。重為邪近。峽地瘠。力田節用。儲積糧食。海陬風俗。龐戾鮮恥。尚巫覡咀呪之事。有北嶽松孽永穴潮泉合浦月影九千七億二萬八千尺有奇。樂浪有赫居世娑蘇廟。其澨鹽田絶影。出善馬。其外馬島七百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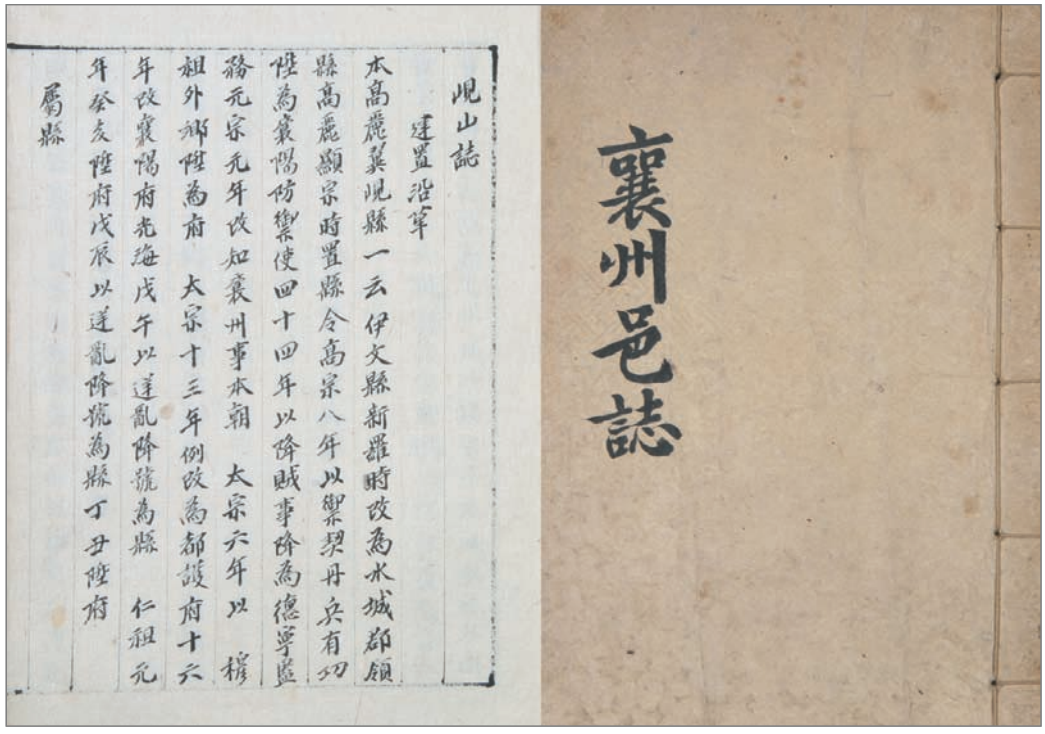
太祖定北邊。以豆滿江爲界。置孔鏡吉端青淳。咸七州。

記言卷之三十五終

양주읍지 襄州邑誌

양양군의 지리지로서 일명 현산지 또는 양양읍지로 불리어지며 수록 내용은 건치연혁(建置沿革)·속현(屬縣)·고현(古縣)·군명(郡名)·관원(官員)·호소하천(湖沼河川)·영애(嶺阨)·관해(官廨)·봉름(俸廩)·학교(學校)·사묘(祠廟)·역원(驛員)·폭원(幅員)·방면(防面)·봉수(烽燧)·진공(進貢)·적조(糴糶)·풍속(風俗)·성씨(姓氏)·명환(名宦)·효열(孝烈)·진포(津浦)·이참(里站)·도서(島嶼)·물산(物産)·목장(牧場)·원림(園林)·서숙(書塾)·형승(形勝)·사찰(寺刹)·고적(古蹟)·제영기문(題詠記文) 순으로 편집 기록하고 그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집필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본지의 마지막 기록인 '양주교궁재당중수기'(襄州校宮齋堂重修記)에 '聖上卽祚二十三年玄羊仲秋望日知府靑松沈東潤記并書(성상즉조이십삼년현양중추망일지부청송심동윤기병서)' [순조 23년 계미(1823년) 8월 15일 부사 청송 심동윤이 짓고 썼다.]라 기록 되어 있으니, 양양읍지는 1823년 8월 이후에 기록하였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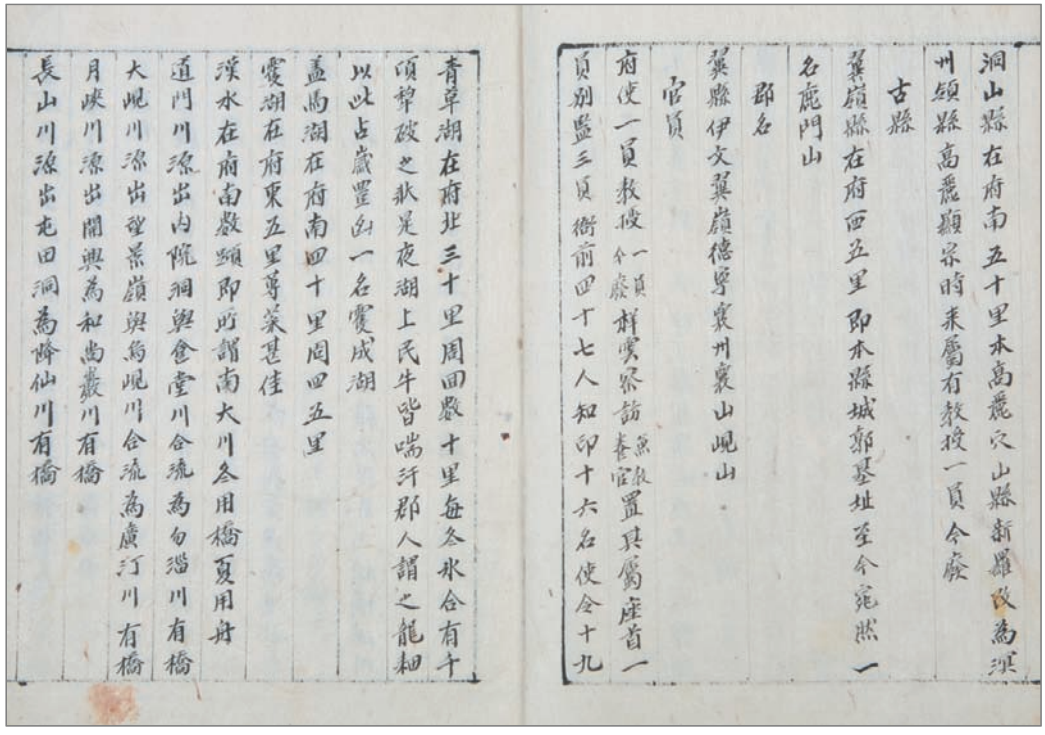
襄州邑誌

峴山誌

建置沿革

本高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為水城郡領縣高麗顯宗時置縣令高宗八年以槥契丹兵有功陞為襄陽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為德寧監務元宗元年改知襄州事本朝 太宗六年以 穆祖外鄉陞為府 太宗十三年例改為都護府十六年改襄陽府光海戊午以逆亂降號為縣 仁祖元年癸亥陞府戊辰以逆亂降號為縣丁丑陞府

屬縣



洞山縣在府南五十里本高麗穴山縣新羅改為淳州領縣高麗顯宗時來屬有教授一員今廢

古縣

翼嶺縣在府西五里即本縣城鄰基址至今宛然一名鹿門山

郡名

翼縣伊文翼嶺德寧襄州襄山峴山

官員

府使一員教授一員今廢 鄉實眾論 兼教 兼官置其屬座首一員別監三員衙前四十七人知印十六名使令十九

青草湖在府北三十里周回數十里每冬水合有十頃許破之非是夜湖上民牛皆喘汗郡人謂之龍相以此占歲置幻一名震成湖

蓋馬湖在府南四十里周回四五里

震湖在府東五里蓴菜甚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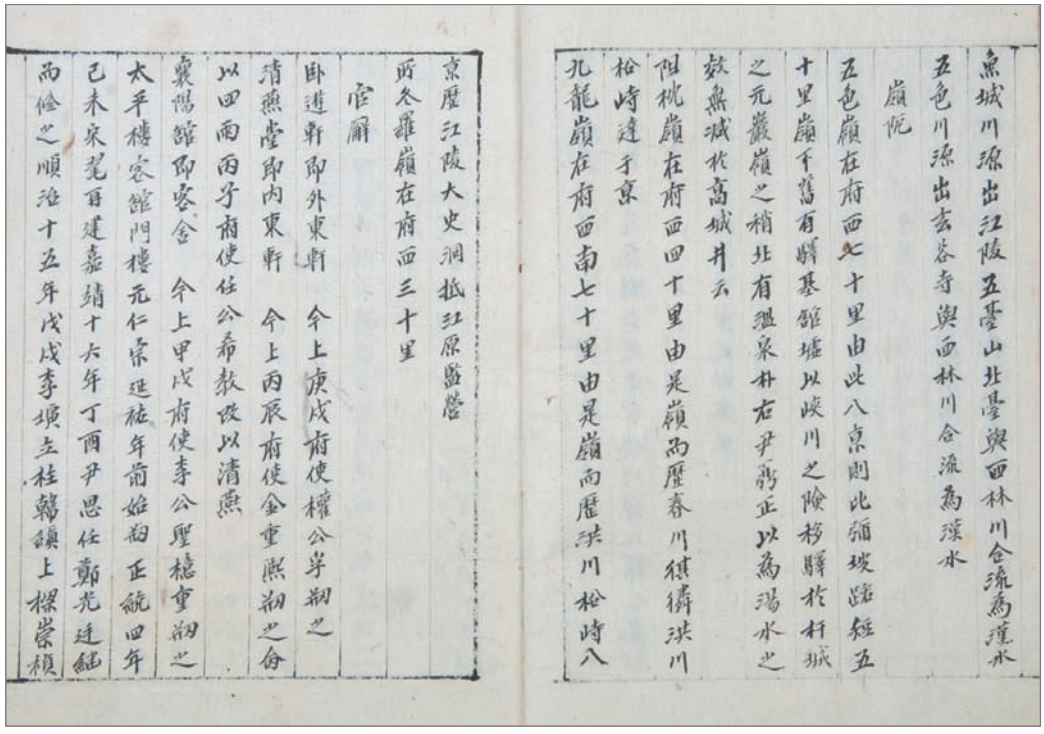
溪水在府南數頭即所謂南大川各用橋夏用舟

通門川源出內院洞與倉壹川合流為句溜川有橋

大峴川源出望景嶺與為峴川合流為虞汀川有橋

月峽川源出開與為和尚巖川有橋

長山川源出龍田洞為降仙川有橋



魚城川源出江陵五臺山北麓與西林川合流爲漢水
五色川源出玄谷寺與西林川合流爲漢水

巘阨

五色巘在府西北十里由此八京則北舖坡踏程五十里巘千舊有驛基館墟以峽川之險移驛於村城之元巖巘之稍北有溫泉朴右尹鄭正以爲湯水之效魚城於高城井云

但桃巘在府西四十里由是巘而歷春川猿猻洪川松峙達于京

九龍巘在府西南七十里由是巘而歷洪川松峙八

京歷江陵大史洞抵江原盤磐

所冬羅巘在府西三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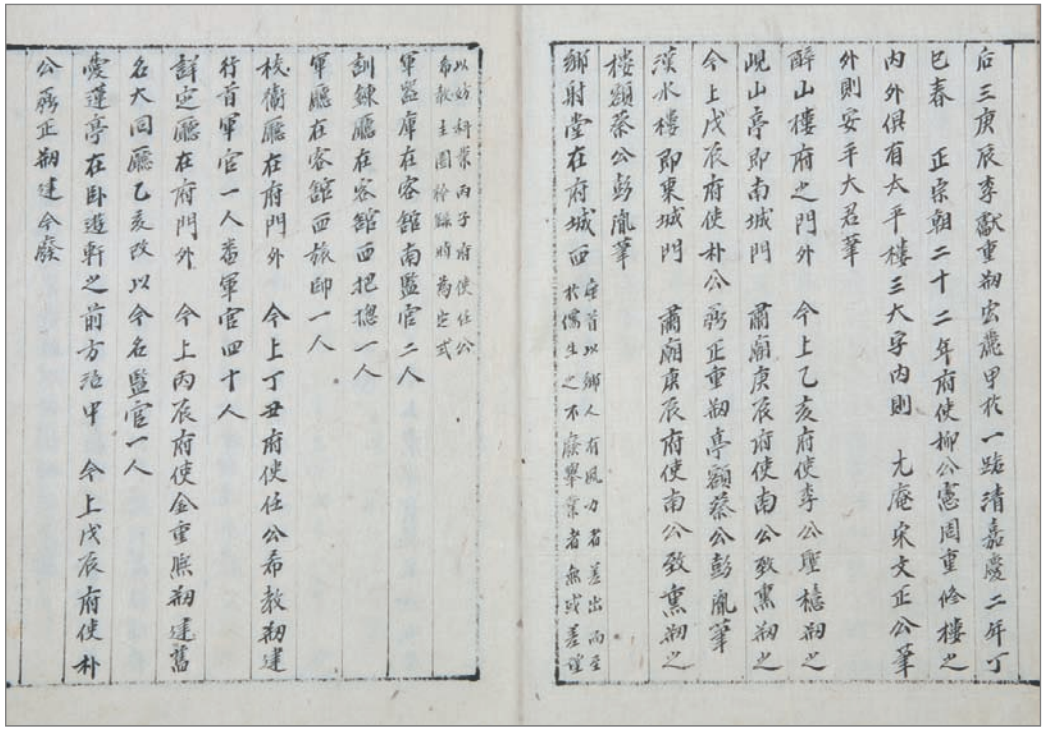
官廨

卧遊軒即外東軒　今上庚戌府使權公尊韜之

清燕堂即內東軒　今上丙辰府使金重熙韜之命以四面西牙府使任公希教改以清燕

襄陽館即客舍　今上甲戌府使李公壓穗重韜之

太平樓客館門樓元仁宗廷祐年前始韜正統四年己未宋冕首建嘉靖十六年丁酉尹思任鄭光廷繼而修之順治十五年戊戌李頊立柱翰鎭上樑崇禎



丘三庚辰李獻重韜宏治甲戌一路清嘉慶二年丁巳春　正宗朝二十二年府使柳公憲周重修樓之

內外俱有太平樓三大字內則　九庵宋文正公筆

外則安平大君筆

醉山樓府之門外　今上乙亥府使李公壓穗韜之

峴山亭即南城門　肅廟庚辰府使南公致熏韜之

今上戊辰府使朴公弼正重韜亭額蔡公彭胤筆

漢水樓即東城門　肅廟庚辰府使南公致熏韜之

樓額蔡公彭胤筆

綿射臺在府城西　卓首以綿人有風力若差出而至於儒生之不慣舉弓者無或差違

以始射柳葉而子府使任公希教主圖枚縣府爲定式

軍器庫在客館南監官二人

訓鍊廳在客館西把摠一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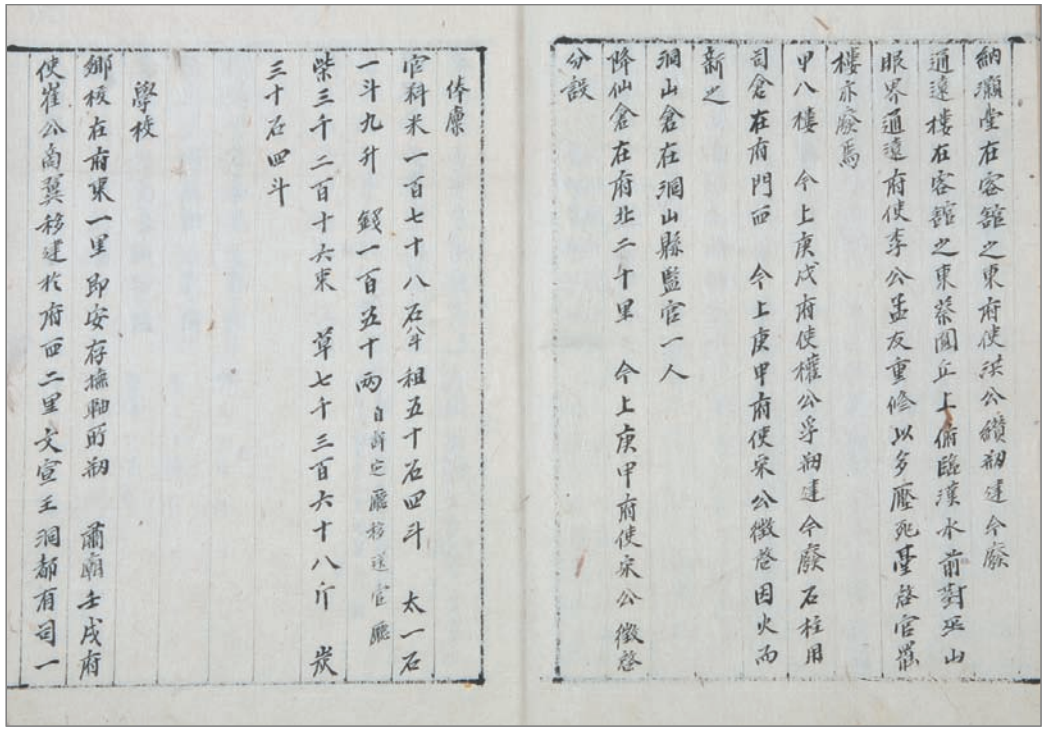
軍廳在客館西旅帥一人

梳衛廳在府門外　今上丁丑府使任公希教韜建

行首軍官一人番軍官四十人

訓定廳在府門外　今上丙辰府使金重熙韜建舊名大同廳乙亥改以今名監官一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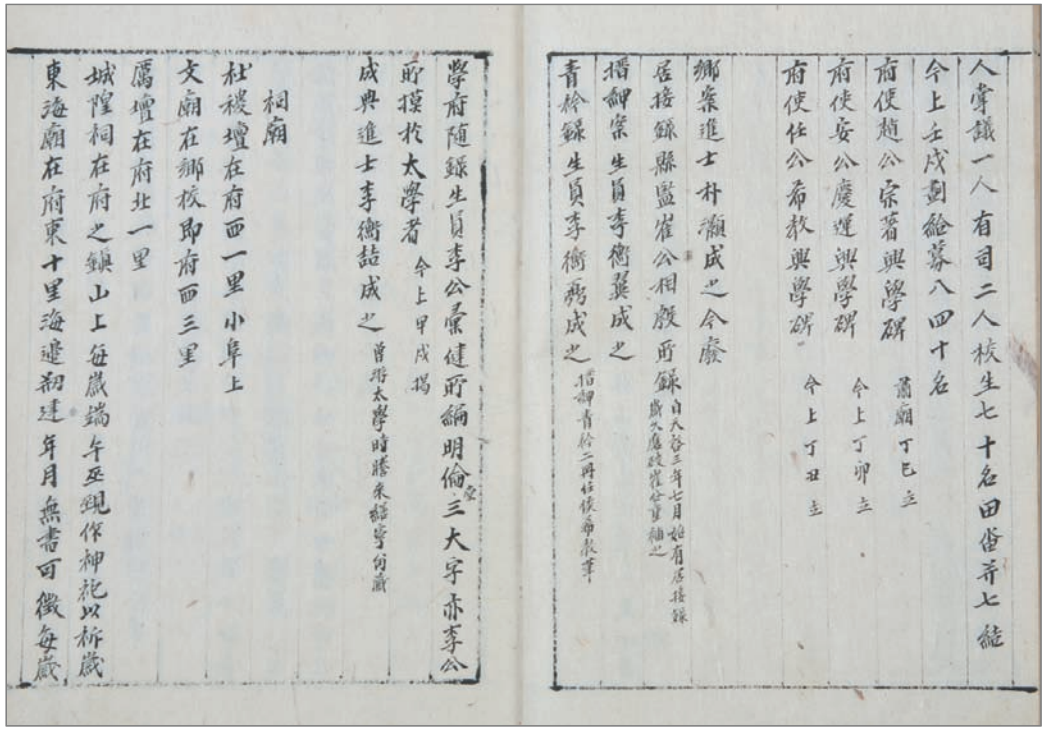
慶運亭在卧遊軒之前方池中　今上戊辰府使朴公弼正韜建今廢



納瀾亭在客館之東府使沈公鏡初建今廢
通遠樓在客館之東荼園丘上俯臨漢水前對平山
眼界通遠府使李公孟友重修以多慶死罪監官嚴
樓亦廢焉
甲八樓 今上庚戌府使權公孚初建今廢石柱用
司倉在府門西 今上庚申府使宋公徵啓因火而
新之
洞山倉在洞山縣監官一人
降仙倉在府北二十里 今上庚申府使宋公徵啓
分設

倉廩
官料米一百七十八石半 租五十石四斗 太一石
一斗九升 錢一百五十兩 自前巡營移送官廳
柴三千二百十六束 草七千三百六十八斤 炭
三十石四斗

學校
鄉校在府東一里 即安存撫使所創 肅廟壬戌府
使崔公南翼移建於府西二里文宣王洞都有司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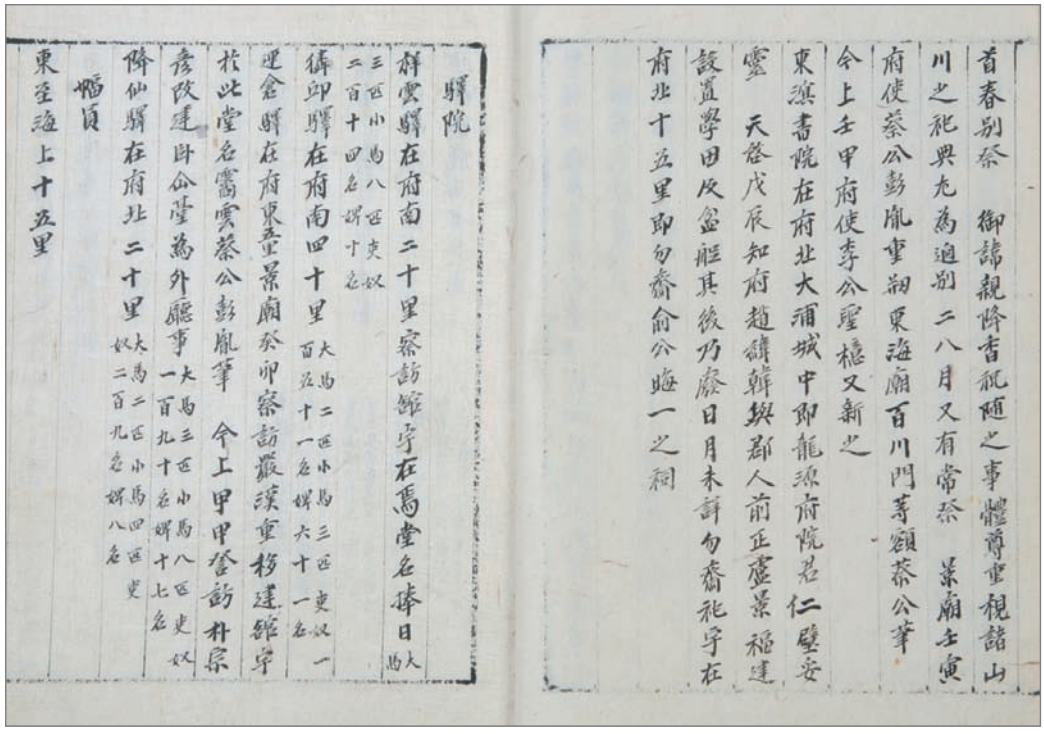


人掌議一人 有司二人 校生七十名 田畓并七結
今上壬戌劃給募八四十名
府使趙公宗著興學碑 肅廟丁巳立
府使安公慶運興學碑 今上丁卯立
府使任公希教興學碑 今上丁丑立

鄉案進士朴瀾成之今廢
座接錄縣監崔公相厥所錄自天啓三年七月始有座接錄
播紳案生員李衡翼成之
青衿錄生員李衡翼成之 播紳青衿二時任候希教事

學府隨錄生員李公彙建所編明倫堂三大字亦李公
所摸於太學者 今上甲戌揭
成興進士李衡喆成之 曾掌太學時謄來經學句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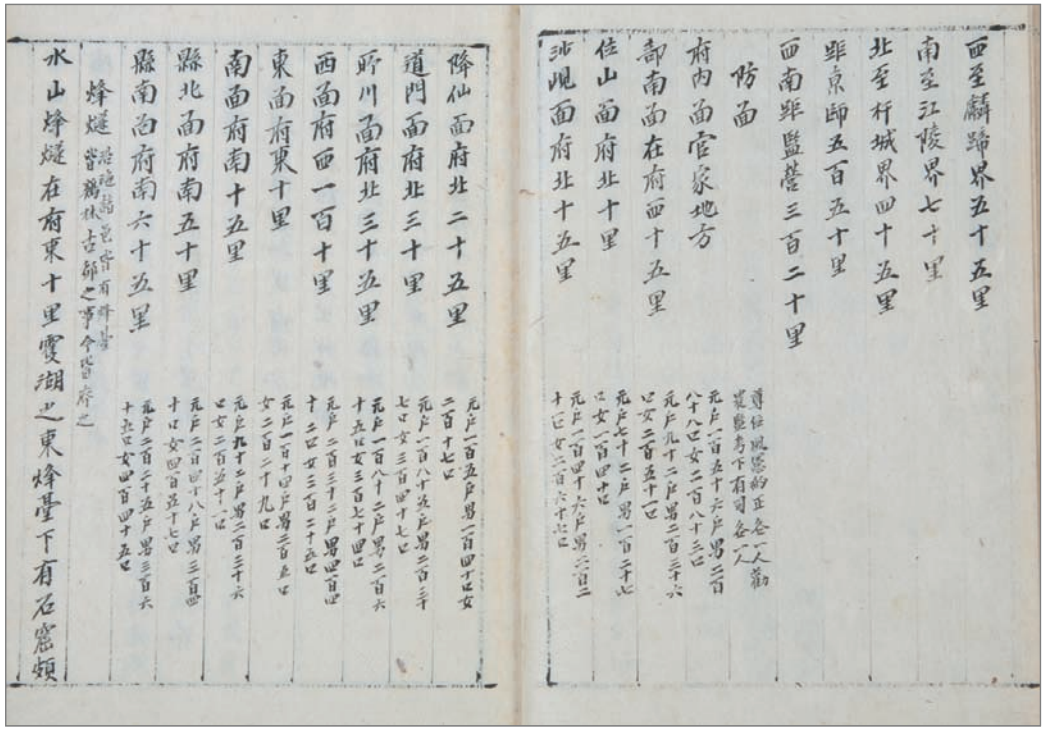
祠廟
杜禊壇在府西一里小阜上
文廟在鄉校即府西三里
厲壇在府北一里
城隍祠在府之鎮山上每歲端午巫覡作神祀以祈歲
東海廟在府東十里海邊初建年月無考可徵每歲



首春別祭　御諱親降香祇隨之事體尊重視諸山
川之祀興尤為迥別二八月又有常祭　景廟壬寅
府使蔡公彭胤重刱東海廟百川門等額蔡公筆
今上壬申府使李公聖穆又新之
東濼書院在府北大浦城中即龍源府院君仁壁妥
靈　天啓戊辰知府趙纘韓與郡人前正盧景稷建
設置學田及盥粧其後乃廢日月未詳句齋祀守在
府北十五里即句齋俞公晦一之祠

驛院

祥雲驛在府南二十里察訪館宇在焉堂名捧日　大馬
三匹小馬八匹吏奴二百十四名　雜丁名
德卿驛在府南四十里　大馬二匹小馬三匹吏奴一百五十一名　雜六十一名
迎鑾驛在府東壹景廟癸卯察訪嚴璞重移建館宇
於此堂名靄雲蔡公彭胤筆　今上甲申登訪朴宗
彦改建卧碑壹為外廳事　大馬三匹小馬八匹吏奴一百九十名　雜十七名
降仙驛在府北二十里　大馬二匹小馬四匹吏奴二百九名　雜八名
幅員
東至海上十五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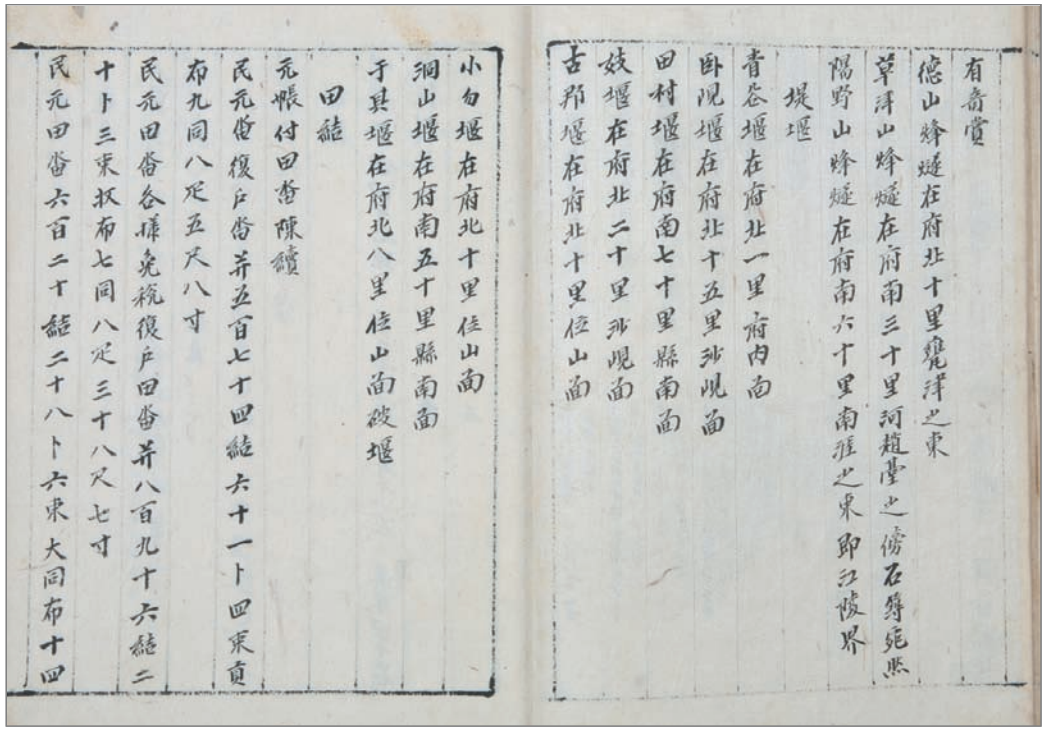
西至麟蹄界五十五里
南至江陵界七十里
北至杆城界四十五里
畢京師五百五十里
西南畢監營三百二十里

坊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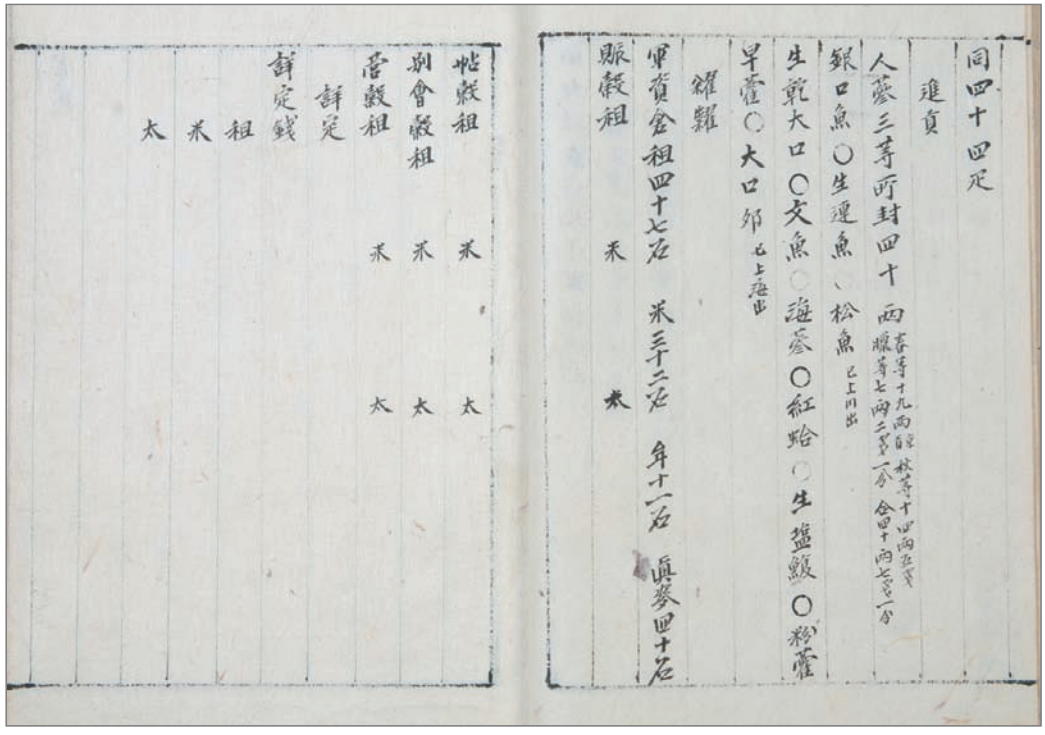
府內面官家地方
都南面在府西十五里
住山面府北十里
沛峴面府北十五里

降仙面府北二十五里　戶一百五戶男二百四十口女二百十七口
道門面府北三十里　戶一百八十戶男二百三十七口女三百四十七口
所川面府北三十五里　戶一百八十二戶男二百六十五口女三百七十四口
西面府西一百十里　戶二百三十三戶男四百四十三口女三百二十五口
東面府東十里　戶一百十四戶男三百五口女三百二十九口
南面府南十五里　戶一百九十五戶男二百三十六口女二百五十一口
縣北面府南五十里　戶二百四十八戶男三百四十口女四百五十七口
縣南面府南六十五里　戶二百二十五戶男三百六十五口女四百四十五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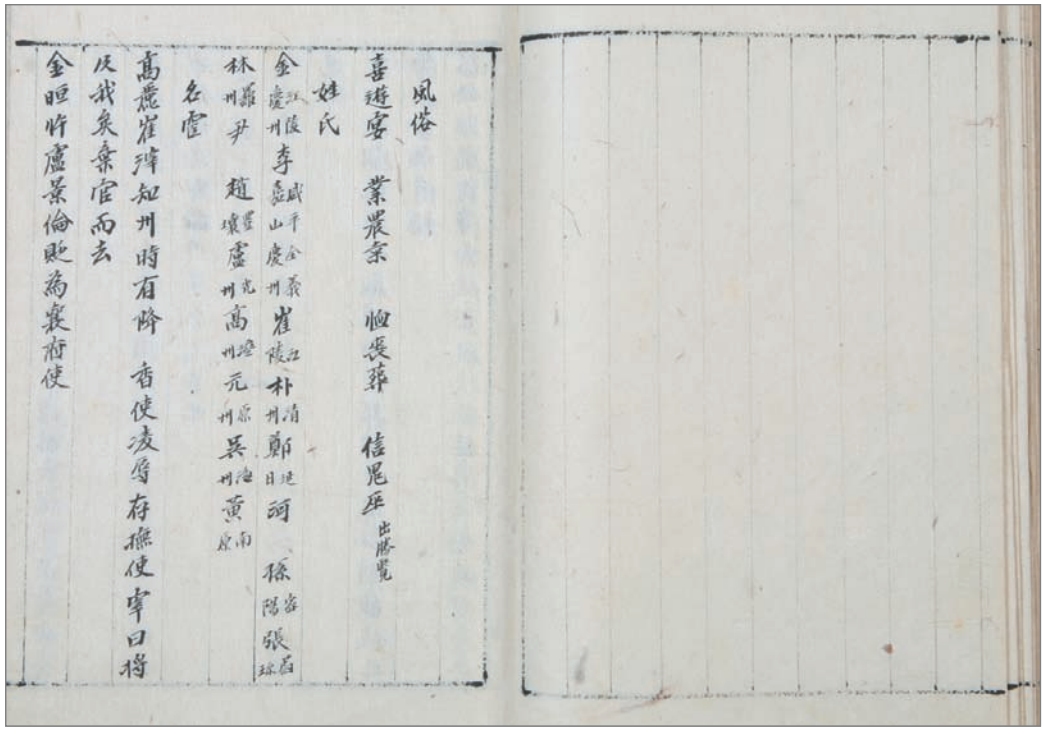
烽燧　在地誌載烟台有烽火舊制今此台存之
水山烽燧在府東十里雙湖之東烽臺下有石窟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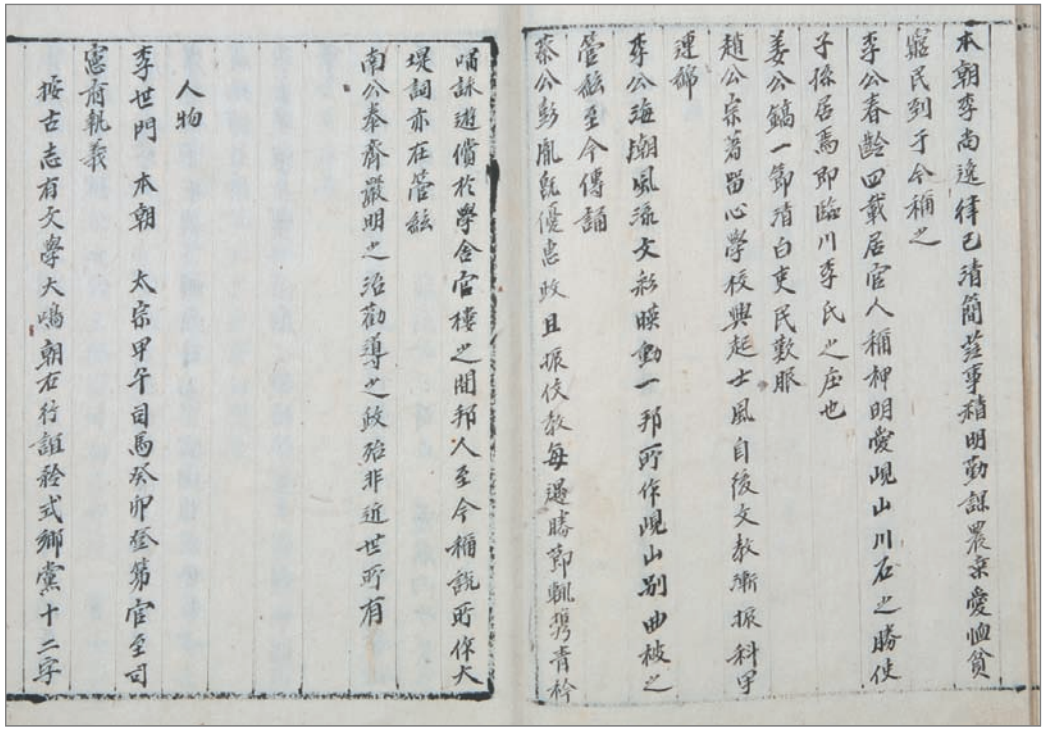
有斎堂
德山烽燧在府北十里龍洋之東
草洋山烽燧在府南三十里河趙臺之傍石舊兎燕
陽野山烽燧在府南六十里南雅之東即江陵界
堤堰
青谷堰在府北一里府內面
卧峴堰在府北十五里北峴面
田村堰在府南七十里縣南面
妓堰在府北二十里北峴面
古邦堰在府北十里位山面
小白堰在府北十里位山面
洞山堰在府南五十里縣南面
于其堰在府北八里位山面破堰
田結
元帳付田畓隨續
民元畓復戶畓并五百七十四結六十一卜四束負
布九同八疋五尺八寸
民元田畓各樣免稅復戶田畓并八百九十六結二
十卜三束收布七同八疋三十八尺七寸
民元田畓六百二十結二十八卜六束大同布十四



同四十四疋
進貢
人蔘三等所封四十 兩 各等十九兩 收等十四兩五錢 雜等七兩二錢一分 合四十兩七錢一分
銀口魚○生鰒魚、松魚 已上川出
生乾大口○文魚○海參○紅蛤○生鹽鰕○粉霍
早霍○大口 邠 已上海出
雜雜
軍資舍租四十七石 米三十二石 牟十一石 眞麥四十石
賑穀租 米
別會穀租 米 太
留穀租 米 太
詳定
詳定錢
租
米
太



本朝李南逸律己清簡莅事精明勤課農桑愛恤貧
寡民到于今稱之
李公春齡四載居官人稱神明愛峴山川在之勝使
子孫居焉即臨川李氏之庄也
姜公鎬一節清白吏民歎服
趙公宗著留心學校興起士風自後文教漸振科甲
連鄒
李公瀷翔風流文新睽動一邦所作峴山別曲被之
管絃至今傳誦
蔡公彭胤氓優恵政且振伎教每遇勝節觴詠青衿



唱詠遊備於學舍官樓之間邦人至今稱說所作大
堤詞亦在管絃
南公秦齊嚴明之治勸導之政殆非近世所有

人物

李世門 本朝 太宗甲午司馬癸卯登第官至司
憲府執義
稽古志有文學大鴻臚在行誼稔式鄉黨十二字

風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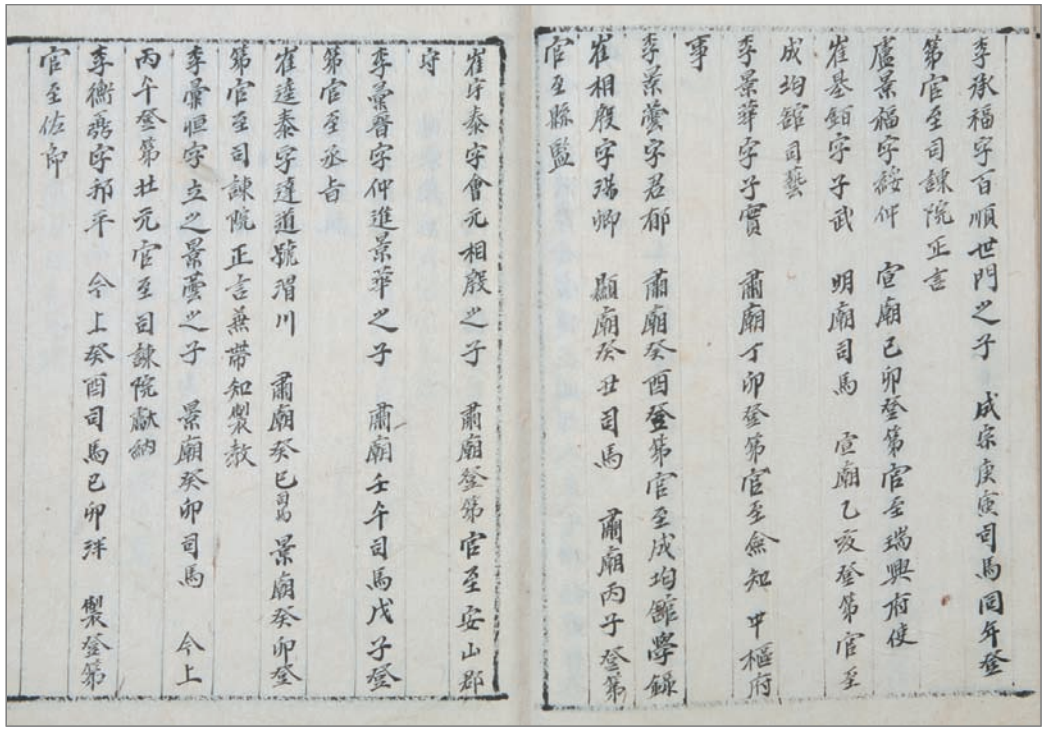
善遊宴 業農桑 恤喪葬 信鬼巫 出勝覽

姓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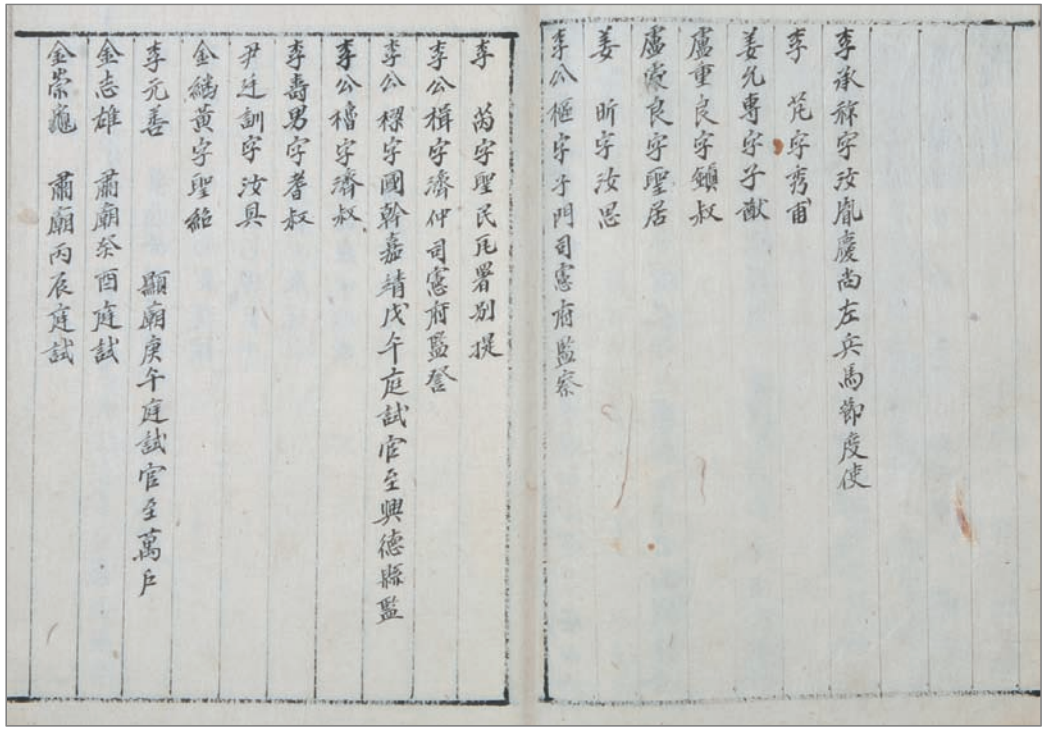
金(江陵慶州) 李(咸平全義慶山慶州) 崔(江陵) 朴(清州) 鄭(延日) 河 孫(密陽) 張(安東)
林(羅州) 尹 趙(豐壤慶州) 盧(光州) 高(慶州) 元(原州) 吳(海州) 黃(南原)

名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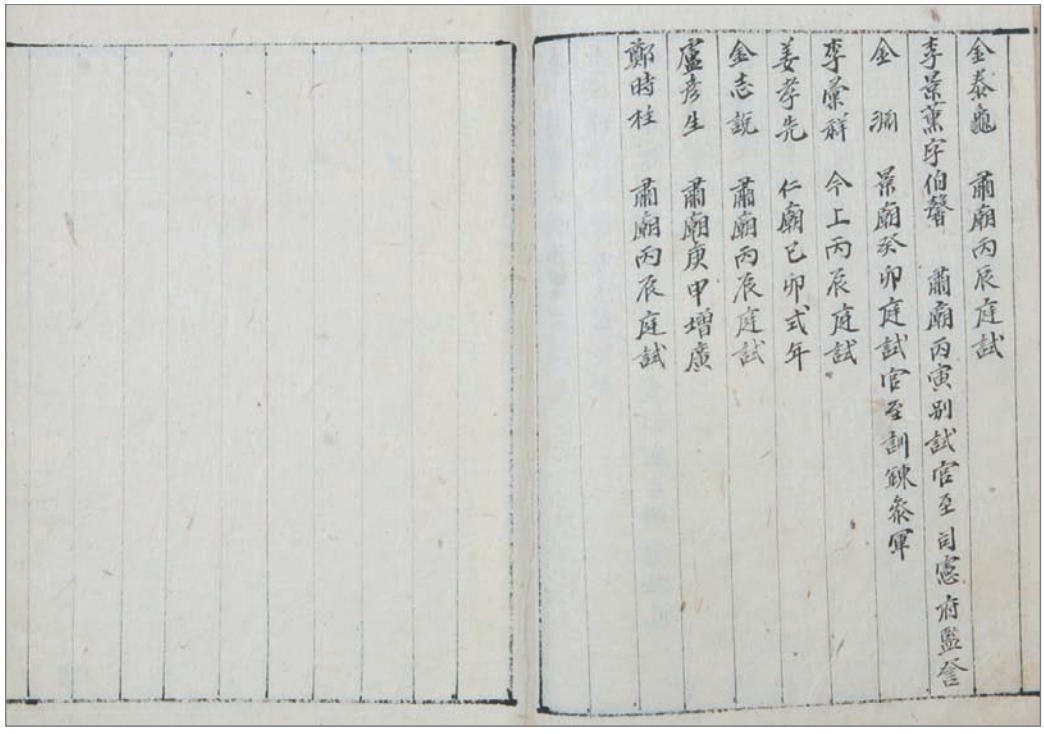
高麗崔瑋知州時有聆 香使凌辱存撫使辛曰將
反我矣棄官而去
金旺忻慶景倫歷為襄府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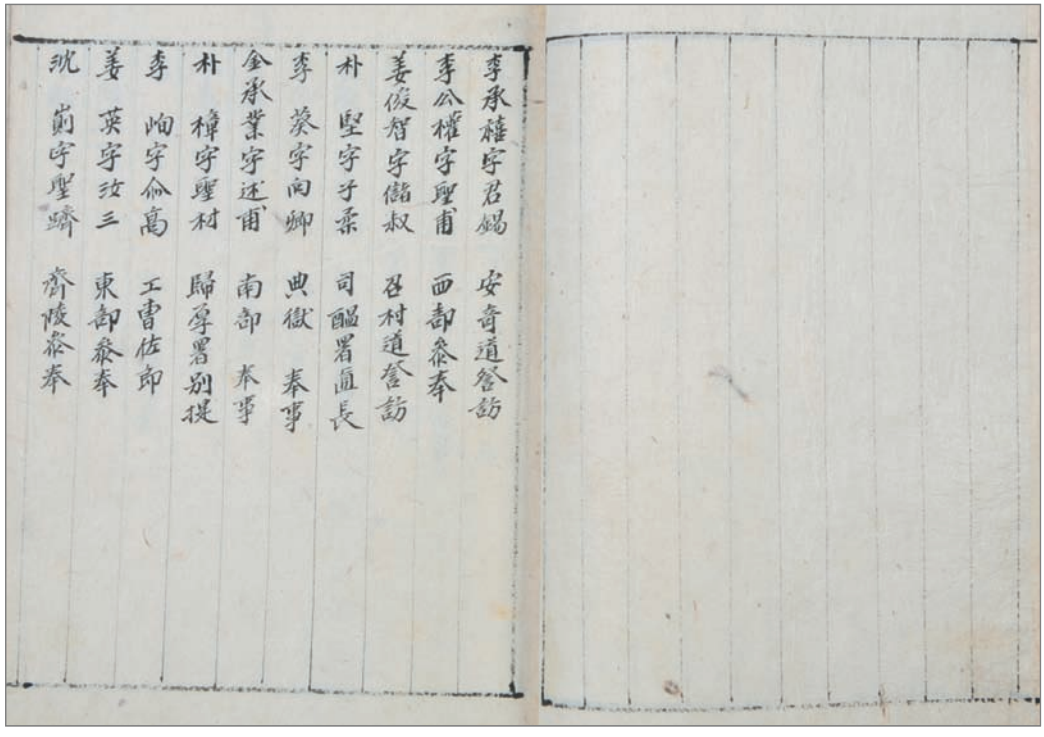
李承福字百順世門之子　成宗庚寅司馬同年登第官至司諫院正言
盧景福字發仲　宣廟己卯登第官至瑞興府使
崔基鎭字子武　明廟司馬　宣廟乙酉登第官至成均館司藝
李景華字子實　肅廟丁卯登第官至僉知中樞府事
李榮瀷字君郁　肅廟癸酉登第官至成均館學錄
崔相履字瑞卿　顯廟癸丑司馬　肅廟丙子登第官至縣監
崔守泰字會元相履之子　肅廟登第官至安山郡守
李景晉字仲進景華之子　肅廟壬午司馬戊子登第官至巫吉
崔達泰字達道號眉川　肅廟癸巳增　景廟癸卯登第官至司諫院正言兼帶知製教
李景恒字立之景瀷之子　景廟癸卯司馬　今上丙午登第壯元官至司諫院獻納
李衡鎭字邦平　今上癸酉司馬己卯拜　製登第官至佐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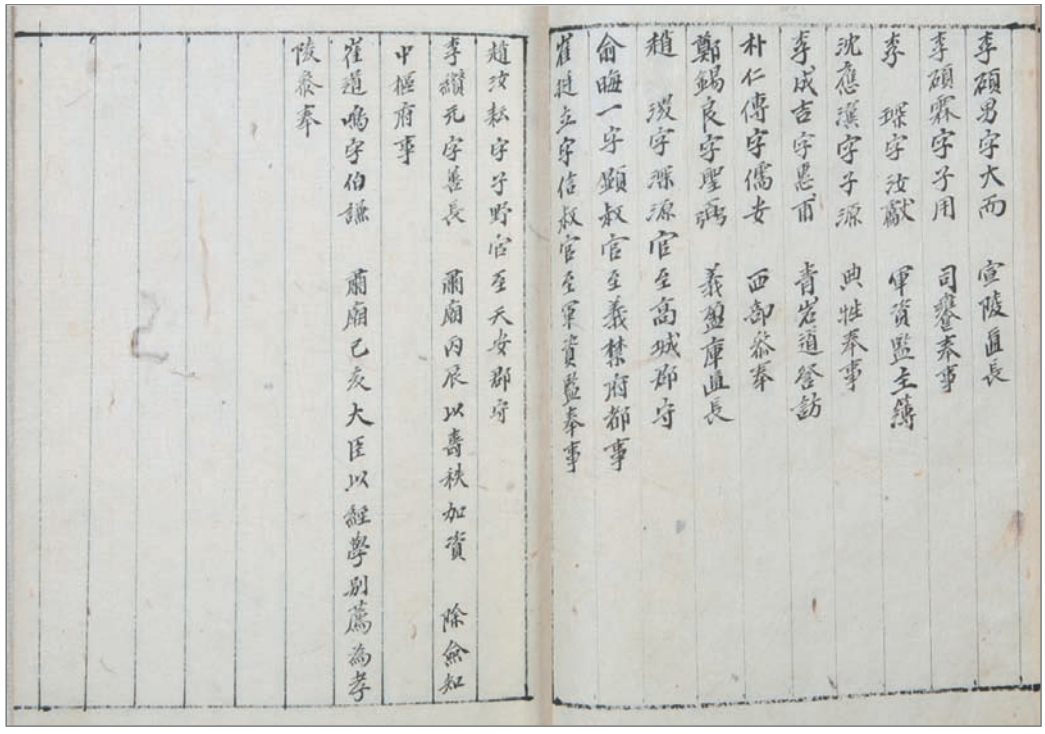
李承祿字汝胤慶尚左兵馬節度使
李　芃字秀甫
姜允專字子獻
盧重良字鎭叔
盧震良字聖居
姜　昕字汝恩
李公極字子門司憲府監察
李　茵字聖民兵曹別提
李公楫字濟仲司憲府監督
李公樑字國幹嘉靖戊午庭試官至興德縣監
李公稽字濟叔
李壽男字耆叔
尹廷訓字汝具
金緝黃字聖能
李元喜　顯廟庚午庭試官至萬戶
金志雄　肅廟癸酉庭試
金崇龜　肅廟丙辰庭試



金泰龜　肅廟丙辰庭試
李景薰字伯馨　肅廟丙寅別試官至司憲府監令
金　洌　景廟癸卯庭試官至副提學
李彙翰　今上丙辰庭試
姜孝先　仁廟己卯式年
金志謨　肅廟丙辰庭試
盧彦生　肅廟庚申增廣
鄭時柱　肅廟丙辰庭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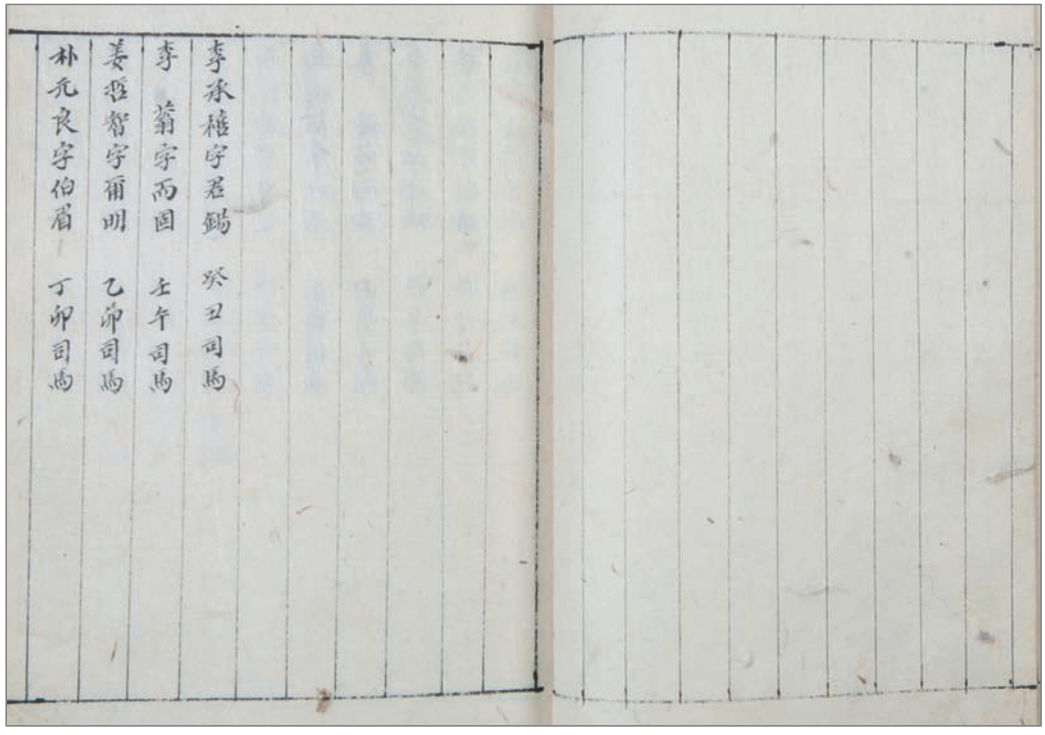


李承雄字君錫　安奇道參訪
李公權字聖甫　西部參奉
姜俊智字儁叔　召村道參訪
朴　堅字子柔　司醞署直長
李　燮字向卿　典徽　奉事
金承業字述甫　南部　奉事
朴　樟字聖材　歸厚署別提
李　昀字允高　工曹佐郎
姜　英字汝三　東部參奉
沈　奠字聖疇　齊陵參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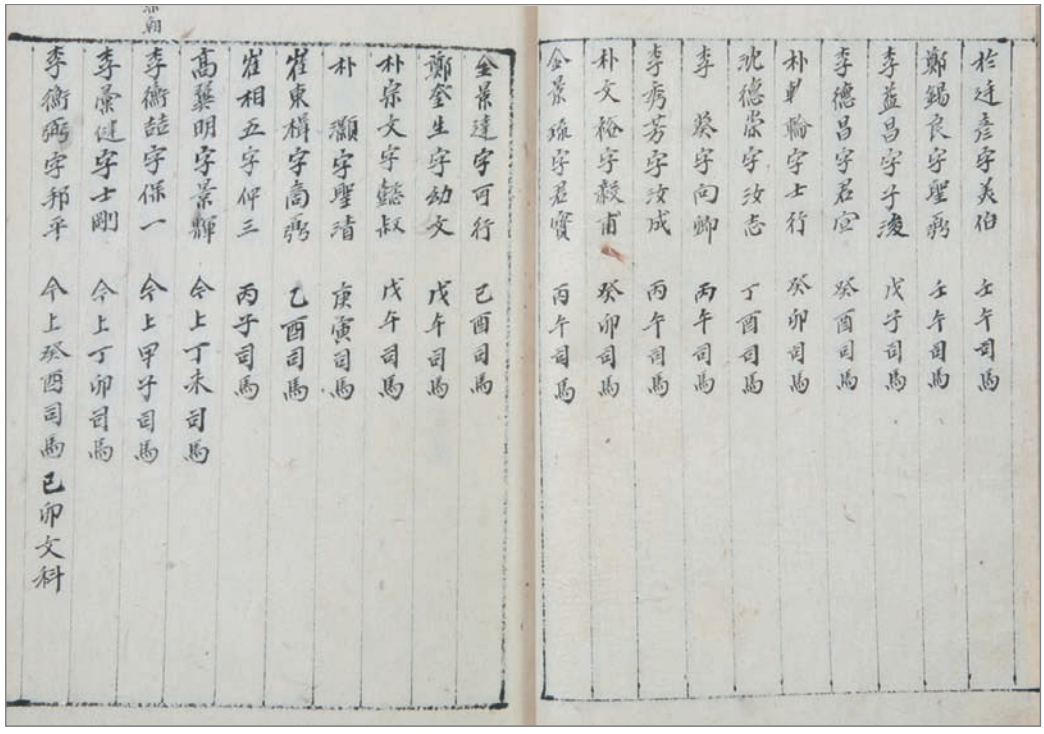


李碩男字大而　宣陵直長
李碩霖字子用　司饔奉事
李　琛字汝獻　軍資監主簿
沈應漢字子源　典牲奉事
李成吉字愚而　青岩道經訪
朴仁傳字儒老　西部參奉
鄭錫良字聖瑞　義盈庫直長
趙　璥字潔源　官至高城郡守
俞晛一字顯叔　官至義禁府都事
崔挺立字信叔　官至軍資監奉事

趙汝勑字子野　官至天安郡守
李續元字善長　肅廟丙辰以壽秩加資　除僉知
中樞府事
崔道鳴字伯諧　肅廟己亥大臣以經學剔薦為孝
陵參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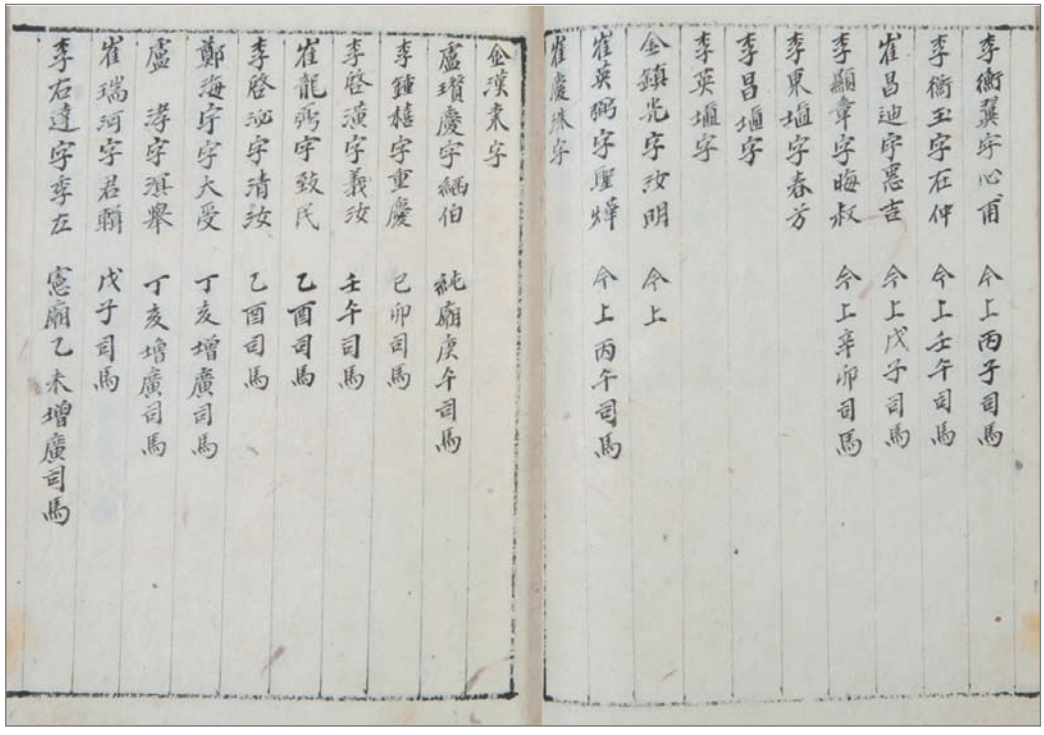


李承植字君錫　癸丑司馬
李　蓊字而固　壬午司馬
姜程智字爾明　乙卯司馬
朴元良字伯眉　丁卯司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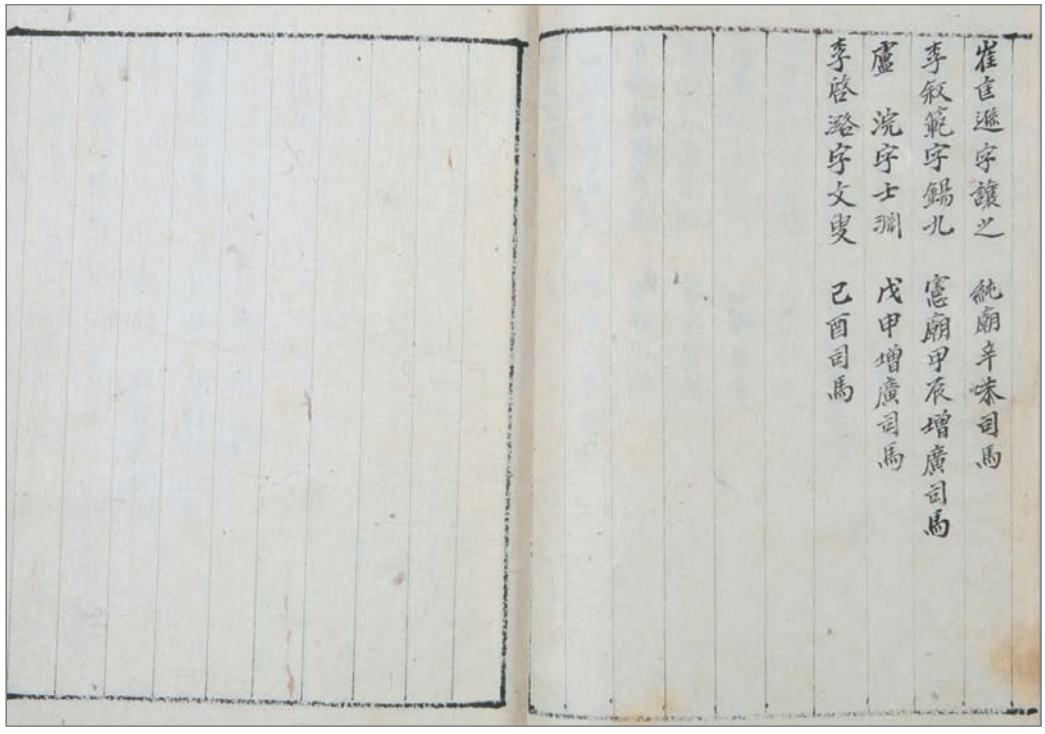
於達彦字美伯　壬午司馬
鄭錫良字聖弼　壬午司馬
李益昌字子淩　戊子司馬
李德昌字君宜　癸酉司馬
朴卽翰字士行　癸卯司馬
沈德崇字汝志　丁酉司馬
李　葵字向卿　丙午司馬
李秀芳字汝成　丙午司馬
朴文樞字穀甫　癸卯司馬
金景琥字君實　丙午司馬

金景達字可行　己酉司馬
鄭奎生字幼文　戊午司馬
朴宗文字鑑叔　戊午司馬
朴　灝字聖清　庚寅司馬
崔東榘字高弼　乙酉司馬
崔相五字仲三　丙子司馬
高夔明字景輝　令上丁未司馬
李衡誌字係一　令上甲子司馬
李景健字士剛　令上丁卯司馬
李衡弼字邦平　令上癸酉司馬 已卯文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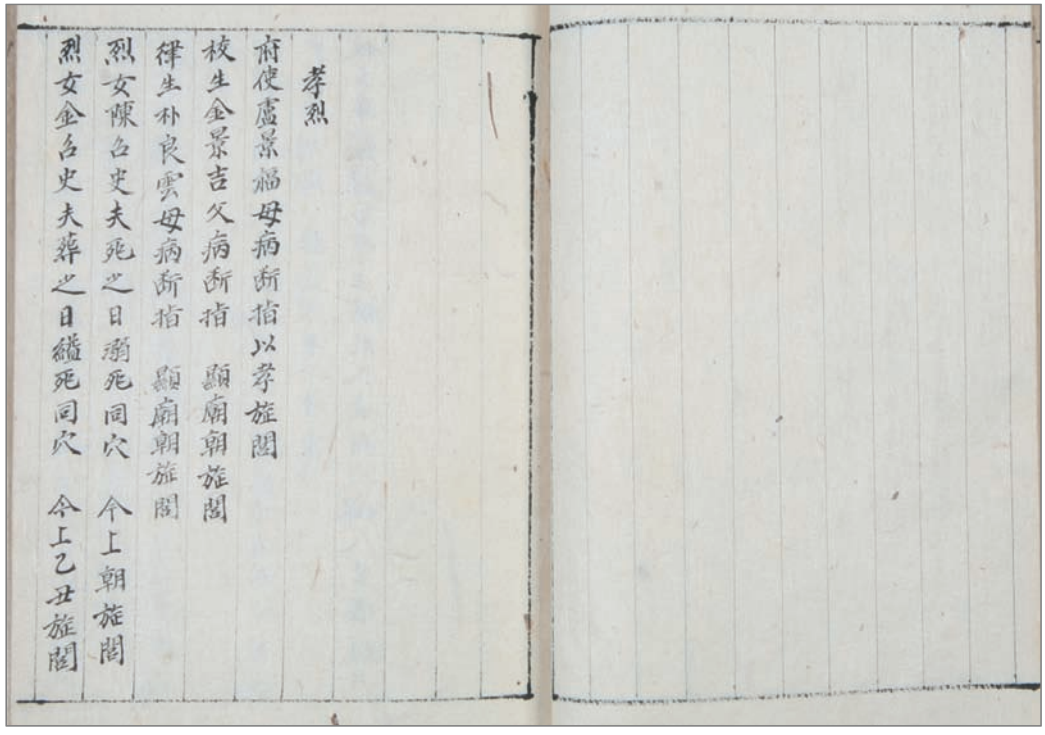


李衡翼字心甫　令上丙子司馬
李衡玉字在仲　令上壬午司馬
崔昌迪字惠吉　令上戊子司馬
李顯章字晦叔　令上辛卯司馬
李東壎字春芳
李昌彌字
李英壎字
金顯光字汝明　令上
崔英弼字聖煒　令上丙午司馬
崔慶琳字

金漢秉字
盧瓚慶字緬伯　祐廟庚午司馬
李鍾檍字重慶　己卯司馬
李啓演字義汝　壬午司馬
崔龍弼字致民　乙酉司馬
李啓泌字清汝　乙酉司馬
鄭遊字字大受　丁亥增廣司馬
盧　涔字濯舉　丁亥增廣司馬
崔瑞珂字君顒　戊子司馬
李右達字季立　憲廟乙未增廣司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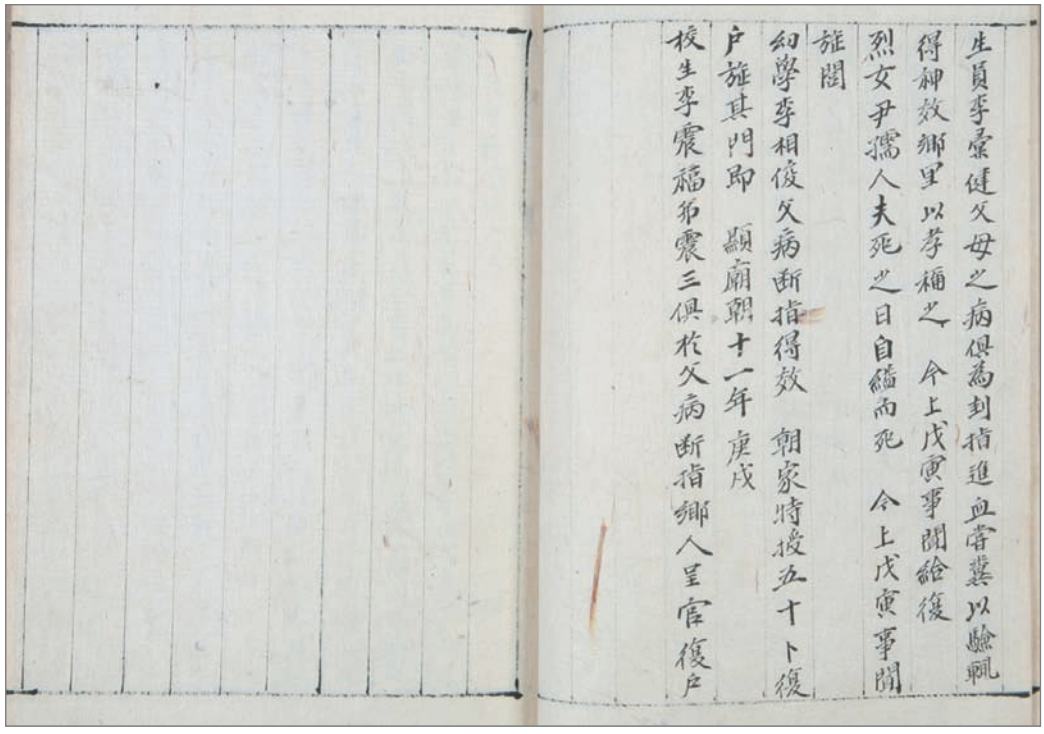


崔宜遜字讓之　純廟辛未司馬
李敘範字錫九　憲廟甲辰增廣司馬
盧　浣字士涵　戊申增廣司馬
李啓潞字文叟　己酉司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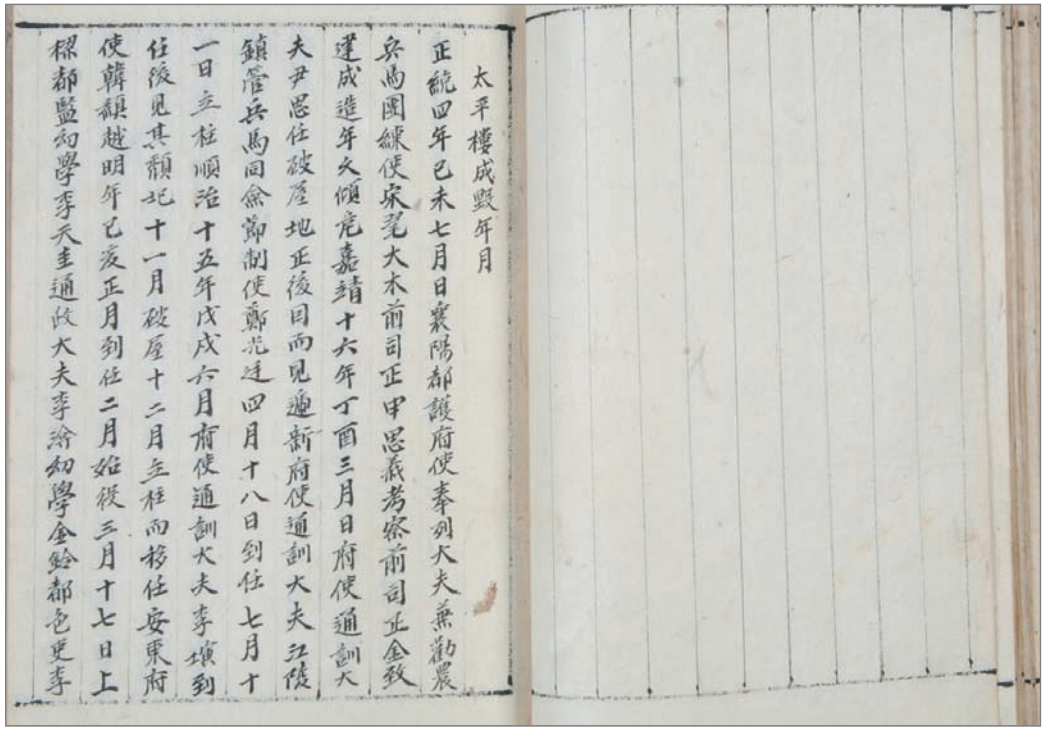


孝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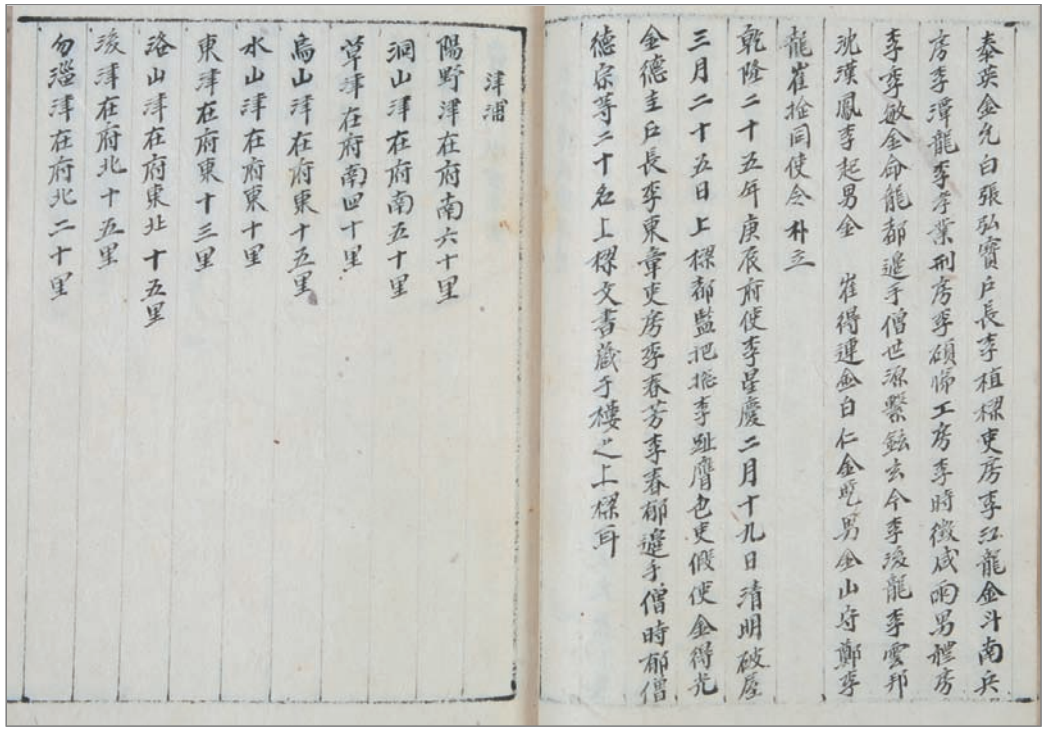
府使盧景福母病斷指以孝旌閭
校生金景吉父病斷指　顯廟朝旌閭
俾生朴良雲母病斷指　顯廟朝旌閭
烈女陳召史夫死之日殉死同穴　今上朝旌閭
烈女金召史夫葬之日繼死同穴　今上乙丑旌閭



生員李景健父母之病俱爲刲指進血書裹以驗孚
得神效鄕里以孝稱之 今上戊寅事聞給復
烈女尹孺人夫死之日自縊而死 今上戊寅事聞
旌閭
幼學李相俊父病斷指得效 朝家時授五十卜復
戶旌其門即 顯廟朝十一年庚戌
校生李震福弟震三俱於父病斷指鄕人呈官復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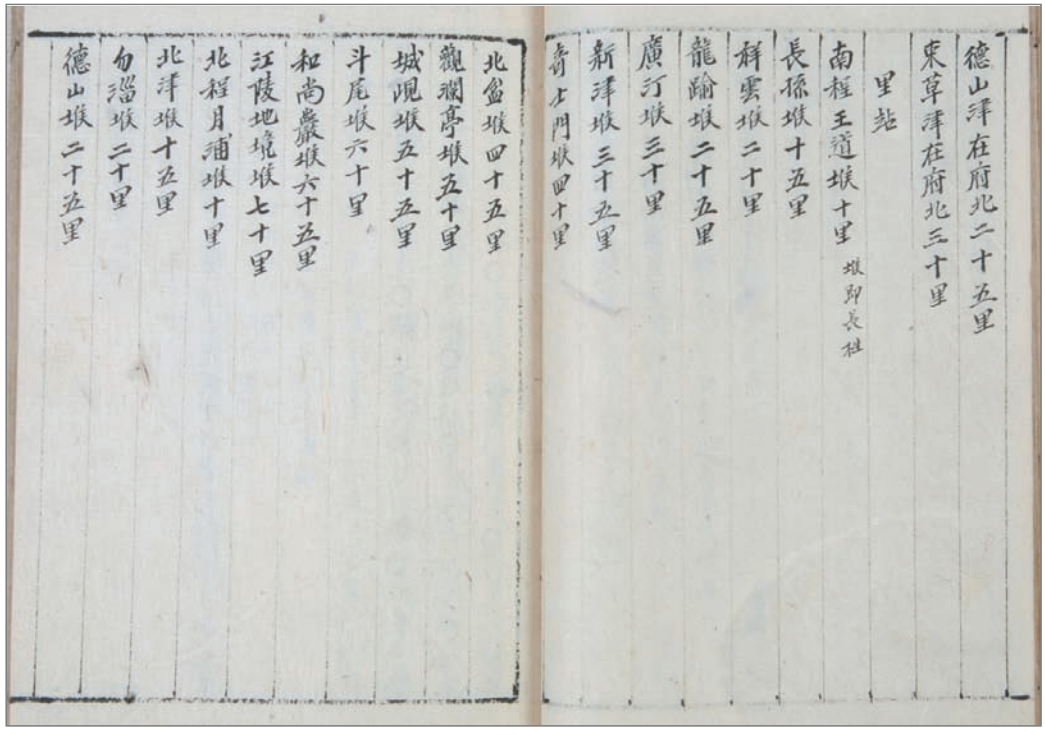


太平樓成歲年月
正統四年己未七月日襄陽都護府使奉列大夫兼勸農
兵馬團練使宋冕大木前司正甲思義考察前司正金致
建成造年久傾危嘉靖十六年丁酉三月日府使通訓大
夫尹思任破屋地正後因而見遞新府使通訓大夫江陵
鎭管兵馬同僉節制使鄭光逵四月十八日到任七月十
一日立柱順治十五年戊戌六月府使通訓大夫李壎到
任後見其頹圮十一月破屋十二月立柱而移任安東府
使韓顯越明年己亥正月到任二月始役三月十七日上
樑都監幼學李天圭通政大夫李淪幼學金鈐都色吏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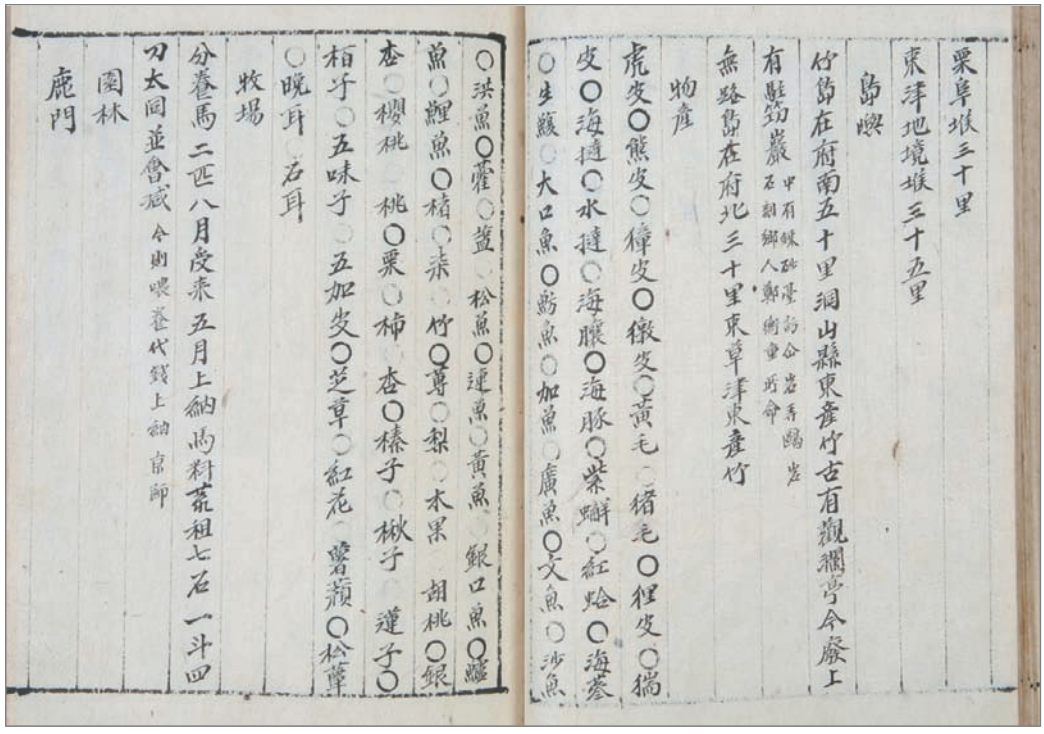
奉奕金允白張弘寶戶長李植樑吏房李紘龍金斗南兵
房李澤龍李孝業刑房李碩儒工房李時徵戒兩男禮房
李李敏金命龍都遞手僧世琳繫鈺出今李復龍李雲邦
沈璞鳳李起易金　崔得建金白仁金晛男金山守鄭李
龍崔捻同使令 升三
乾隆二十五年庚辰府使李星慶二月十九日清明破屋
三月二十五日上樑都監把摠李亞膺色吏假使金得光
金德圭戶長李東章吏房李春芳李春郁遞手僧時郁
德宗等二十名上樑文書藏于樓之上樑耳

津渡
陽野津在府南六十里
洞山津在府南五十里
草津在府南四十里
烏山津在府東十五里
水山津在府東十里
東津在府東十三里
路山津在府東北十五里
後津在府北十五里
勿淄津在府北二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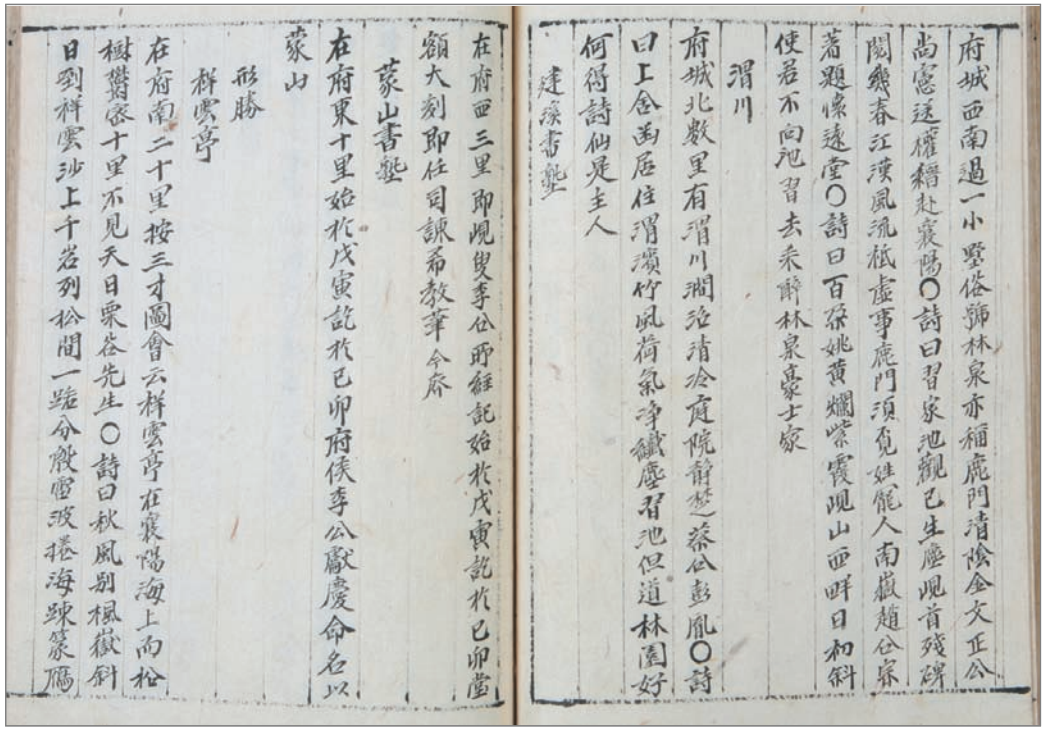


德山津在府北二十五里
東草津在府北三十里
里站
南程王道堠十里 堠即長社
長孫堠十五里
群雲堠二十里
龍踰堠二十五里
廣汀堠三十里
新津堠三十五里
衙古門堠四十里

北盆堠四十五里
觀瀾亭堠五十里
城峴堠五十五里
斗尾堠六十里
和尚巖堠六十五里
江陵地境堠七十里
北程月浦堠十里
北津堠十五里
勿淄堠二十里
德山堠二十五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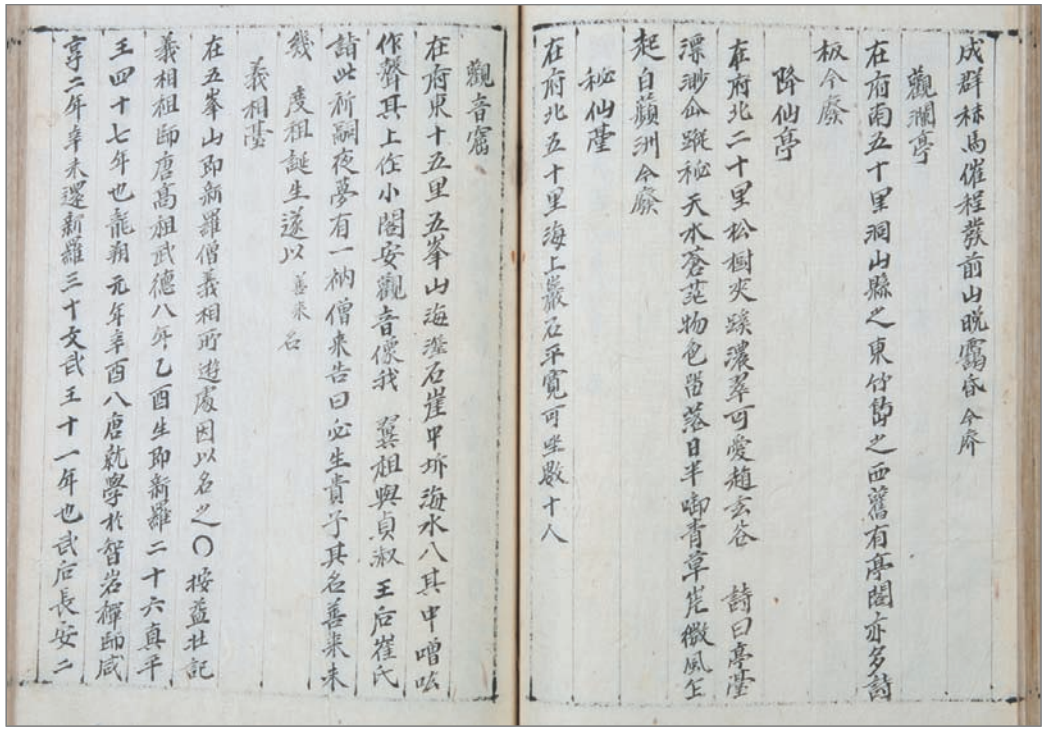


栗阜堠三十里
東津地境堠三十五里
島嶼
竹節在府南五十里洞山縣東叢竹古有觀稠亭今廢上
有懸筍巖 中有蛾眉泉名勝志 石刻鄉人鄭衛重所命
無路島在府北三十里東草津東叢竹
物産
虎皮○熊皮○獐皮○徽皮○黃毛○猪毛○狸皮○猫
皮○海獺○水獺○海豚○紫蝟○紅蛤○海蔘
○生鰒○大口魚○鮸魚○加魚○廣魚○文魚○沙魚
○洪魚○霍○鹽○松魚○蓮魚○黃魚○銀口魚○鱸
魚○鯉魚○楮○赤○竹○薑○梨○木果○胡桃○銀
杏○櫻桃○桃○栗○柿○杏○榛子○楸子○蓮子○
相子○五味子○五加皮○芝草○紅花○薯蕷○松蕈
○晩耳○石耳
牧場
分養馬二匹八月度來五月上納馬料菉租七石一斗四
刀太同並會減 今卸喂養代錢上納京師
園林
鹿門



府城西南過一小壘俗號林泉亦稱鹿門清陰金文正公
尚憲送權稱赴襄陽○詩曰習家池觀已生塵峴首殘碑
閱幾春江漢風流祇虛事鹿門須覓姓龐人南嶽趙公家
藏題像遠堂○詩曰百祭姚黃爛紫霞峴山西畔日初斜
使君不向池邊去來醉林泉豪士家
渭川
府城北數里有渭川洲沿清冷庭院靜楚蔡公彭胤○詩
曰上舍閑居住渭濱竹風荷氣淨纖塵習池但道林園好
何得詩仙是主人
建緣書塾

在府西三里即觀察李公睟光經記始於戊寅訖於己卯堂
額大劑即任司諫希教筆今廢
蒙山書塾
在府東十里始於戊寅訖於己卯府使李公獻慶命名以
蒙山
形勝
祥雲亭
在府南二十里按三才圖會云祥雲亭在襄陽海上而松
樹鬱密十里不見天日栗谷先生○詩曰秋風別楓嶽斜
日到祥雲沙上千岩列松間一路分殷雷破浪海蛛篆隔



成群林禽催程蒙前山晚靄依今廢

觀瀾亭

在府南五十里洞山縣之東仙跡之西舊有亭閣亦多詩板今廢

聆仙亭

在府北二十里松樹夾蹊濃翠可愛趙玄谷 詩曰亭望漂渺仙蹤秘天水蒼茫物色留落日半啣青草岸微風生起白蘋洲今廢

秘仙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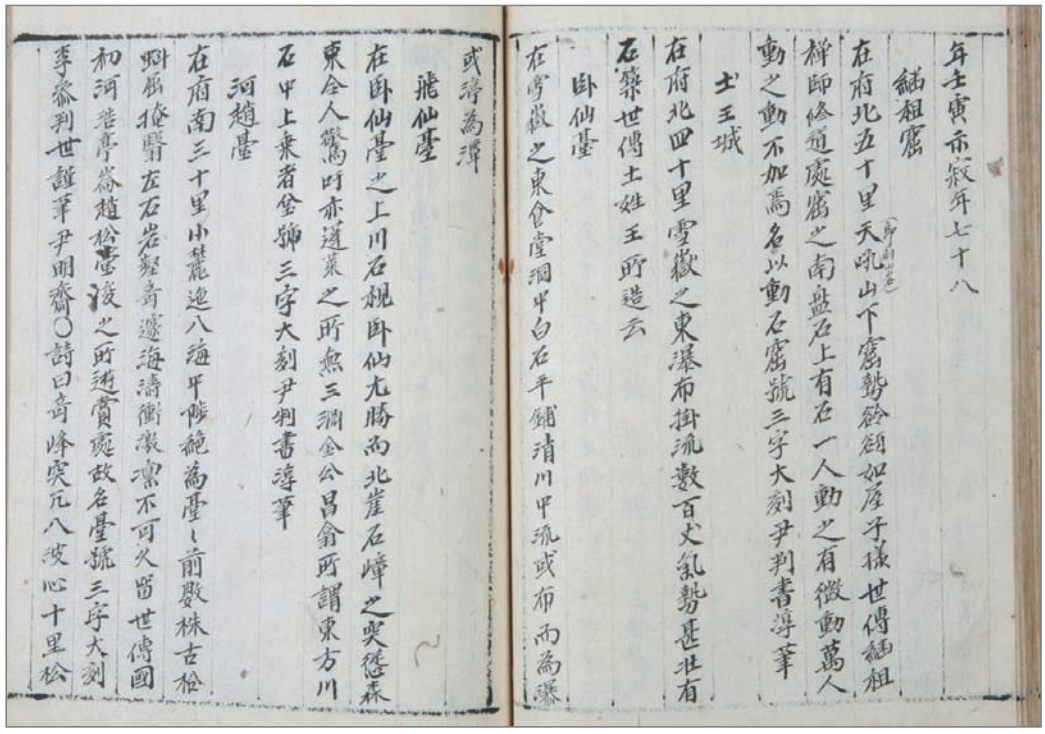
在府北五十里海上巖石平寬可坐數十人

觀音窟

在府東十五里五峯山海澄石崖甲坪海水八其中噌吰作聲其上作小閣安觀音像我 聖祖與貞淑王后崔氏詣此祈嗣夜夢有一衲僧來告曰必生貴子其名善來未幾 慶祖誕生遂以善來名

義相壁

在五峯山即新羅僧義相所遊處因以名之○按益壯記義相祖師唐高祖武德八年乙酉生即新羅二十六眞平王四十七年也龍朔元年辛酉八唐就學於智嚴師咸亨二年辛未還新羅三十文武王十一年也武后長安二年壬寅永徽六年乙卯八



年主寅永徽六年乙卯八

繭祖窟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盆屈如屋子孫世傳繭祖禪師修道處窟之南盤石上有石一人動之有微動萬人動之動不加焉名以動石窟號三字大刻尹判書導筆

士王城

在府北四十里雪嶽之東瀑布掛流數百丈氣勢甚壯有石寨世傳土姓王所造云

臥仙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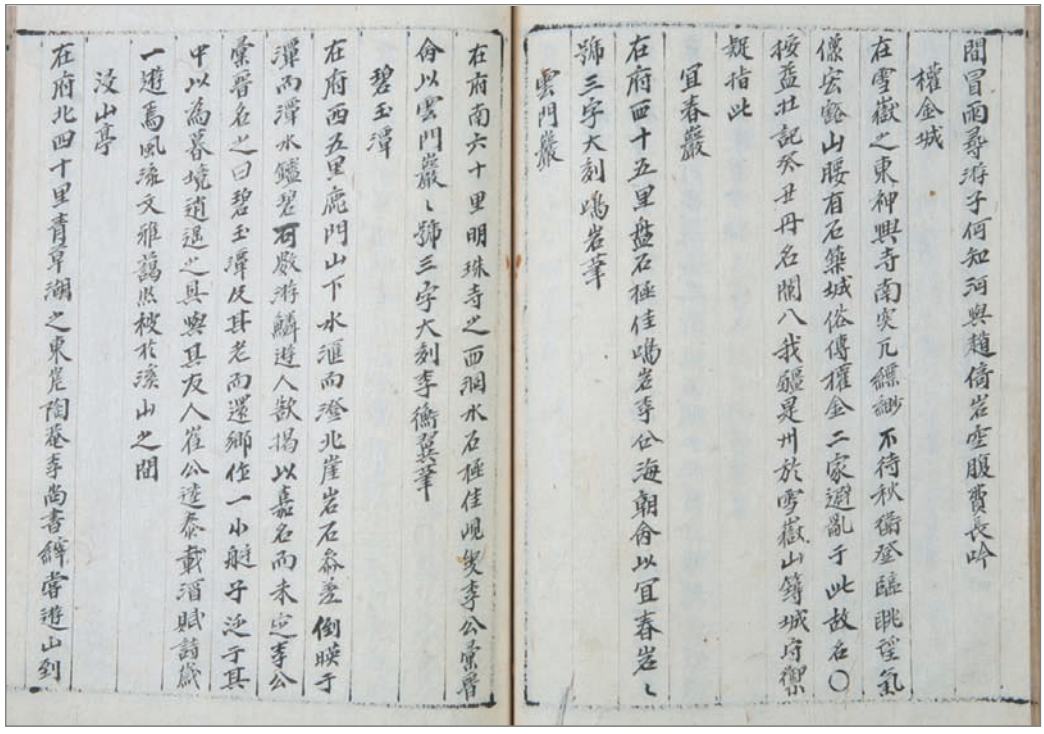
在雪嶽之東金剛洞中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為瀑或淳為潭

龍仙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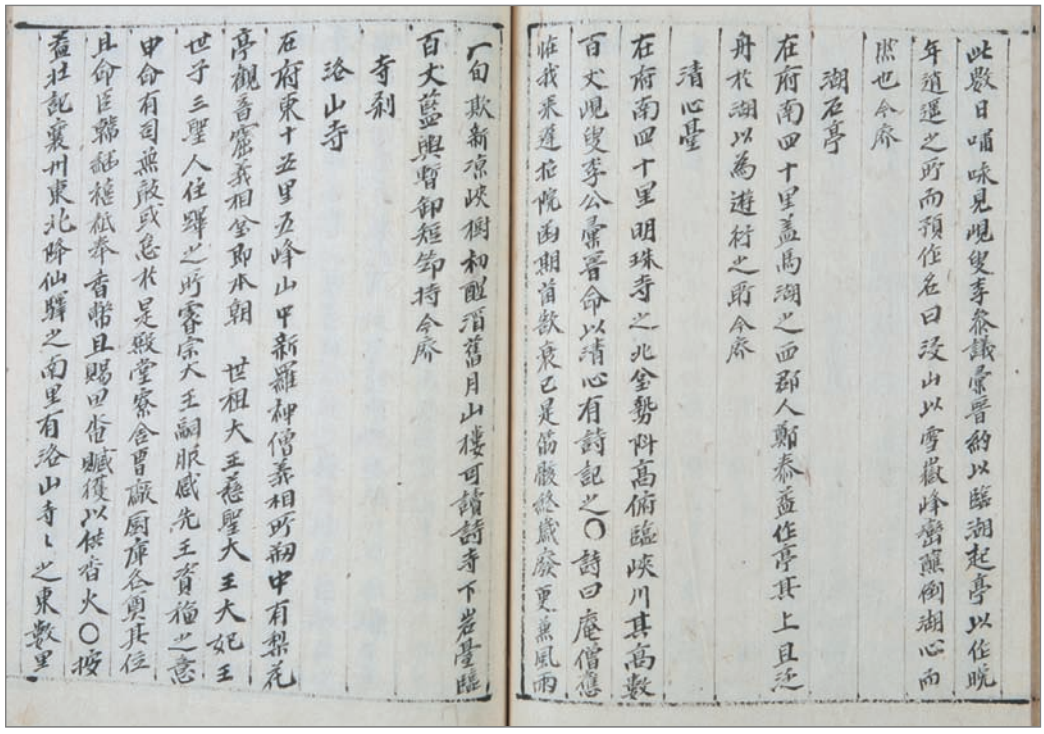
在臥仙壁之上川石舷臥仙尤勝而北崖石嶂之奧德森東金人驚時赤遣萊之所煞三洞金公昌翕所謂東方川石甲上乘者金帥三字大刻尹判書導筆

河趙壁

在府南三十里小龍迎八海平陂絶為壁下前數株古松斜枝倒垂左右岩壑奇邃海濤衝激凜不可久留世傳國初河趙等為趙松壁後之所遊賞處故名壁號三字大刻李參判世誼筆尹明齋○詩曰奇峰突兀八陂心十里松



閒冒雨尋僧子何知訪與趙倚岩虛腹賈長吟
權金城
在雪嶽之東神興寺南突瓦縹緲不待秋衙登臨眺望氣
像宏敞山腰有石築城俗傳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
按益壯記云丹名關八我軀是州於嗚嶽山築城府衙
擬指此
宜春巖
在府西十五里盤石極佳鳴岩季公海朝命以宜春岩ㄴ
獅三字大刻鳴岩華
雲門巖
在府南六十里明珠寺之西洞水石極佳觀察李公景晉
命以雲門巖ㄴ獅三字大刻李衙襲筆
碧玉潭
在府西五里鹿門山下水滙而澄北崖岩石森羣倒映于
潭而潭水鑑碧有數游鱗遊人數揭以嘉名而未必李公
景晉名之曰碧玉潭及其老而還鄉住一小舸于泛于其
中以為暮境逍遥之具與其友人崔公逢泰載酒賦詩歲
一遊焉風流文雅藹然被於溪山之間
沒山亭
在府北四十里青草湖之東崖陶菴李尚書辭官遊山到



此數日哺味見觀察李公義鐵景晉約以臨湖起亭以住晚
年逍遥之所而預住名曰沒山以雪嶽峰巒蘸倒湖心而
然也今廢
湖石亭
在府南四十里蓋馬湖之西邵人鄭泰益住亭其上且泛
舟於湖以為遊衍之所今廢
清心臺
在府南四十里明珠寺之北全勢附高俯臨峽川其高數
百丈觀察李公景晉命以清心有詩記之○詩曰庵僧意
惟我來遊在幌函期首歎衰已是筋骸終歲廢更煎風雨
一旬歎新涼峽樹初醒舊月山樓可續詩寺下岩臺臨
百丈益與暫卸短笻持今廢
寺刹
洛山寺
在府東十五里五峰山甲新羅神僧義相所刱中有梨花
亭觀音窟義相望東本朝　世祖大王慈聖大王大妃王
世子三聖入住驛之所審宗大王嗣服戚先王資福之意
申命有司無敢或怠水是殿堂寮舍曾厨庫各與其住
且命匠歸福穗祝奉香幣且賜田畓贍復以供香火○按
益壯記襄州東北峰仙驛之南里有洛山寺ㄴ之東數里

許巨海邊有窟其高可百尺其大可容萬斛之舟海潮常出入爲不測之險世稱觀音大士所住處也窟前距五十許步海中有石上可鋪一席出沒水面昔新羅法師欲觀觀聖容乃於石上展坐拜禮精勤至二七日尚未覩覩便投身海中東海龍扶出石上大聖即於窟中伸臂手授水精念珠曰我身未可覩覩但從窟上行至竹澗出處是吾頂上於此可營一室安排像設也龍亦獻如意珠及玉帥授珠而來有竹湧立乃於其地初殿以龍所獻玉造像安之即該寺也○印月庵在梨花亭南岸 今上乙丑山人精釋初之庵號李公業恒所命額逕溟金公鎭商筆

神興寺

在府西北五十里雪嶽之東崇禎甲申以禪定寺移初 今上丙子監司韓光肇設置禪教都僧觀丁丑府使任公希教以関東稱雪四字刻揭寺門壬午監司李公最中革嶽甲申初設三寶○雪嶽庵在靑峰下一名普門庵額三大字李公安訥筆○內院庵在天吼山下 今上丁未山人幸稔重修○安心庵在內院庵之西谷數里 今上戊午山人天心初之 山林庵在達摩峰下 今上甲戌山人坤鏡初之李公書觀題楹柱曰寺初征羅運託年獨擎中華大明天若教我牧閒旅寺何羨蘇仙赤壁雄

明珠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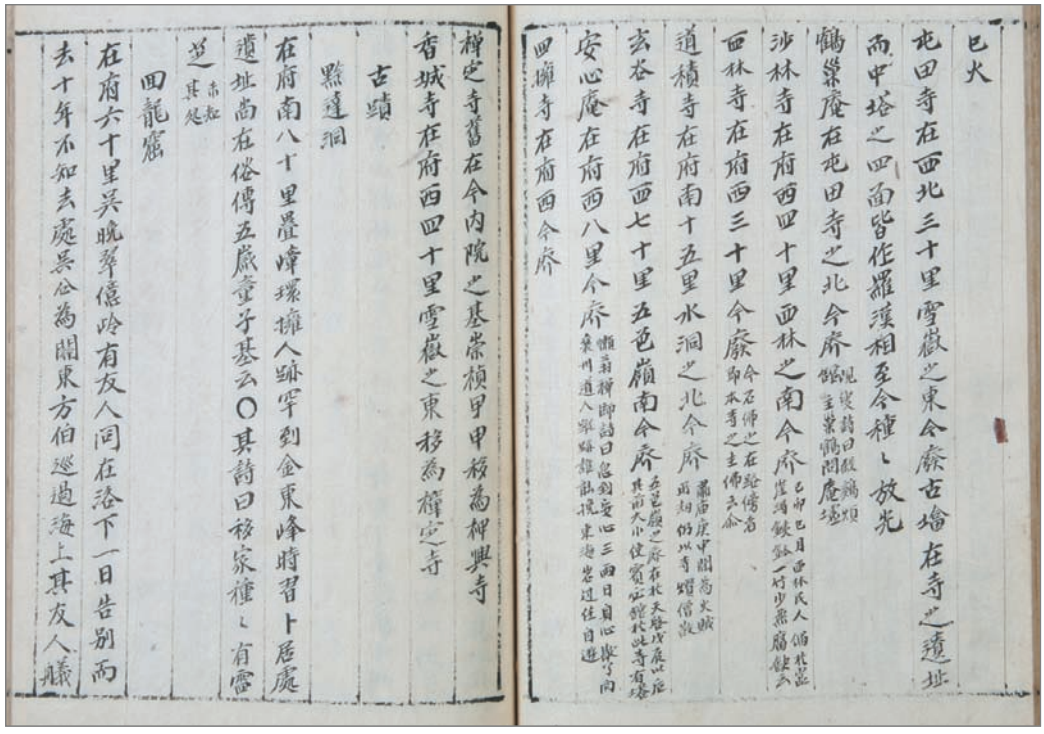
在府南五十里法水峴之東慶基而慶基鞠 肅廟辛巳始奠冕基亦明珠蓋明與珠二僧人主掌之故名曰明珠碧玉樓蔡公彭胤所命其時星夜侧掛明珠牓雪峯中涵碧玉樓額三大字李尙龔筆 香爐庵在雲門岩之上 肅宗丙辰山人秀瑩初之 今上丁丑爲火所燒 今上戊寅移建於寶蓮庵之傍名以圓通寶蓮庵在望景峴西今上壬戌山人道心初之

靈穴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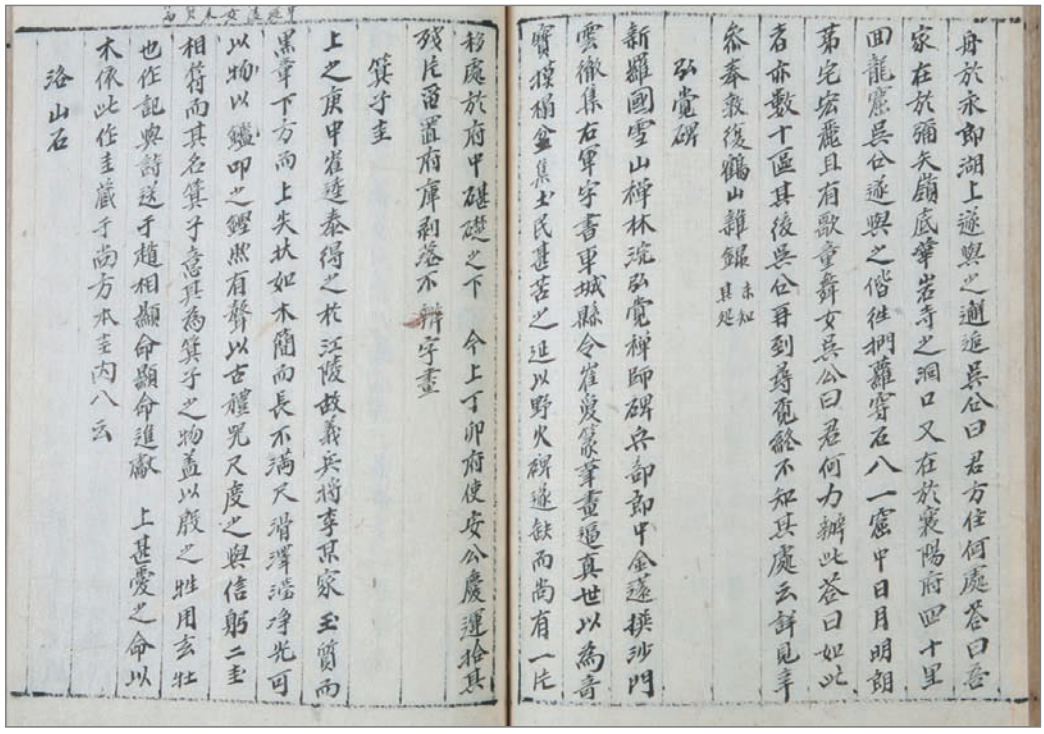
在府西十五里雪嶽東南新羅神僧元曉所初 按元曉用新羅二十六眞平王三十九年生于昌寧柳池村北栗谷里自真平而溯而訝之則靈穴初建年數可以掛摟數千餘年當無鬻攸之灾邦人傳以爲神 今上己巳偶灾庚午重建 衆遠庵在靈穴之西初廢年月不可考白鶴庵在寺之西麓甲申初之

閒雲寺

在府南七十里滿月山之東妙覺洞即善卽祖師所初云而年月不可徵 今上戊午移建於月川上己巳火庚午移建於祖禮峰之西丙子火戊寅重建於月川之上○吉祥庵在閒雲之西數頓步 今上丙辰山人淨心初建己



巳火
北田寺在西北三十里雪嶽之東今廢古塘在寺之遺址
而中植之四面皆作羅漢相至今種ㄴ放光
鶴巢庵在北田寺之北今廢 俗呼鵲巢 詩曰維鵲有巢維鳩居之 鵲巢鶴閒庵之名
沙林寺在府西四十里西林之南今廢 乙卯己月西林民人伐其松盡 僅遺缺一行少無腐缺之
西林寺在府西三十里今廢 今石佛之在於傳者 即本寺之主佛云爾
道積寺在府南十五里水洞之北今廢 羅麗時中間為火賊 所焚僧以考燈傳說
玄谷寺在府西七十里五色巔南今廢 石色巔之府在於天登戊寅之 其間大小使實必經此寺有緣
安心庵在府西八里今廢 雖前輩即詩曰忽到安心三四日自心數字向 東州道人雖雖亂說東海若過住日遊
四獅寺在府西今廢
禪定寺舊在今內院之基崇禎甲申移為神興寺
香城寺在府西四十里雪嶽之東移為禪定寺
古蹟
點蓬洞
在府南八十里羅峀環擁入雖窄到金東峰時習卜居處
遺址尚在俗傳五歲童子基云○其詩曰移家種ㄴ有靈
芝 朱紅 其起
田龍窟
在府六十里吳晩翠億齡有友人同在洛下一日告別而
去十年不知去處吳公為關東方伯巡過海上其友人攜



舟於永郎湖上遂與之遨遊吳公曰君方住何處答曰吾
家在於彌矢巔底肇岩寺之洞口又在於襄陽府四十里
田龍窟吳公遂與之偕往捫蘿穿石八一窟甲日月明朗
第宅宏麗且有歌童舞女吳公曰君何力辦此答曰如此
者亦數十區其後吳公再到尋覓終不知其處云詩見羊
衆奉敎復鶴山雜錄 未知 其起
弘覺碑
新羅國雪山禪林院弘覺禪師碑 衆都都中金遂撰沙門
雲徹集右軍字書軍城縣令崔瑩篆蓋遵真世以為音
寶模搨金集士民建苔之 迓以野火碑遂缺而尚有一片
移處於府中礎礎之下 今上丁卯府使安公慶運拾其
殘片留置府庫剔落不辨字畫
箕子圭
上之庚申崔遵泰得之於江陵故義兵將李慕家 玉質而
黑章下方而上尖扶如木簡而長不滿尺滑澤溫淨光可
以物以鐵叩之鏗然有聲以古禮咒尺度之與信圭二圭
相符而其名箕子意其為箕子之物蓋以殷之胜用玄牡
也作記與詩送于趙相顯命顯命進獻 上甚愛之命以
木依此作圭藏于尚方本圭內入云
洛山石

在洛山海上舊在辛卯有二石自海中來閣於岸上又咸鏡道海水亦濁膠粘不利行舟以水爽甚亦服不可食自北以東至江原道通川襄陽凡七日而止詳見柳相成龍本集

海水石

在權金城上皆圓小水磨礱世傳上古避難者遷置海上石以為過戲漆下之用或傳淪來之世山入海中而石在頂上故然云蓋多蚌蠣之屬漆梨之花亦多甚異事焉

墮淚碑

府使李公尚逸五年居官留惠而去邦人立石頌德其後寇民之有冤者必抱牘碑前而泣曰今監倘知此冤邦人至今傳以為墮淚碑

沒字碑

府使李公景容有遺愛民立碑於觀瀾亭歲久石老不可記認安衆議慶遷戲之曰真所謂沒字碑

御史徽

府使鞫公顯在官之時有暗行御史在境內顯使伶俐官奴誘致御史於官廨仍為鎖囚之御史乘間脫出遂令帶來書吏往書于木官告以奉命顯即令放出仍謝曰衰陽厮便是御史徽

妓生灘

在府西二里漢水上流世傳冀嶺設縣時妓舞于山頂巖石上為風所捲墮于城下灘水仍以為灘歸云

權縉碑

在府城東邦人傳云縉居官甚苛士民憤之於其在官之日預立善政碑以悅其意縉得碑之後一節清惠謙為真碑云

慈心塔

在府西十里安心庵古基慈心者即安心之僧也事母甚勤母歿而累石為塔日流於其下仍謂之慈心塔靈穴寺老僧呂岑詳傳之

和尚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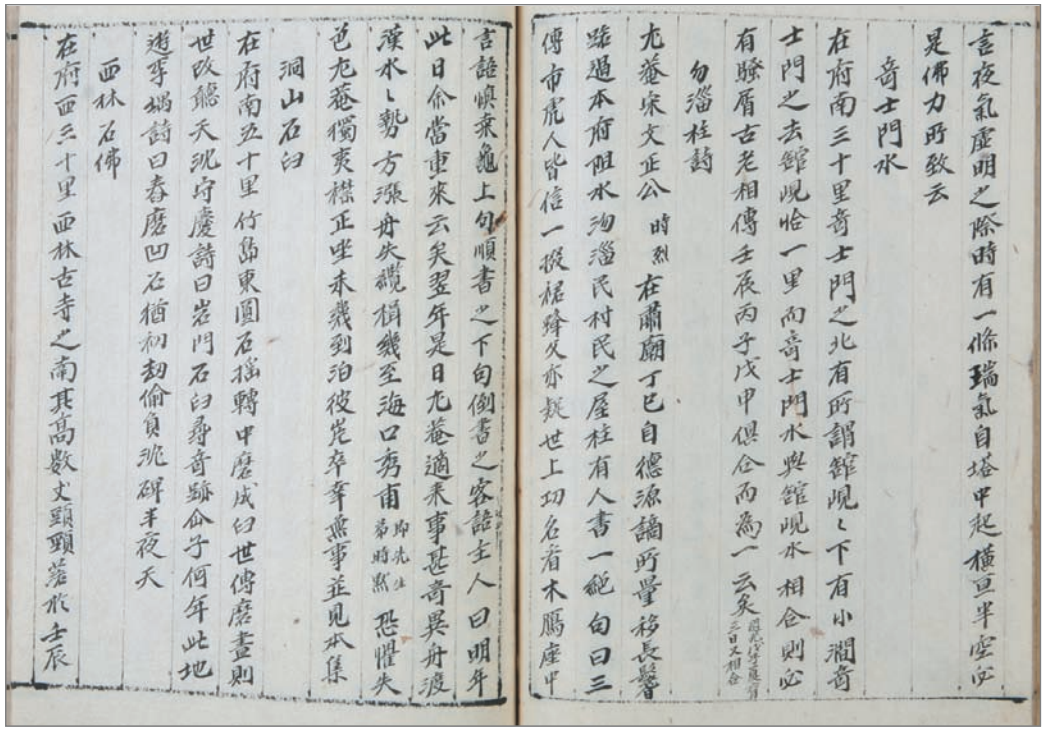
在府南七十里崔(曙)城雲過童子時就卷於本府外縣之家與群兒出遊溪上群兒徵川魚授崔公以簡中魚皆放之水時有神僧過之見公魚活扒大喜之奉唾於海上岩石誦呪而去後人名其石曰和尚巖

觀音塔

在府東十五里五峰山中海水觀音改金日有二枚舍利落在孤獨孤山人釋讓賜石安塔詳見李公錫所撰碑

龍田洞塔

在府西北三十里龍田寺古址四面皆作佛像塔千村人



喜夜氣虛明之際時有一條瑞氣自塔中起橫亘半空正是佛力所致云

奇士門水

在府南三十里奇士門之北有所謂舘峴ㄴ下有小澗奇士門之去舘峴恰一里而奇士門水與舘峴水相合則必有驗屑古老相傳壬辰丙子戊申俱合而為一云矣

勿淄柱銘

尤菴宋文正公 時烈 在肅廟丁巳自德源謫所量移長鬐還過本府阻水泊淄民村民之屋柱有人書一絕句曰三傳市虎人皆信一投梭疑久亦疑世上功名看木鵬塵中

吉語順乘龜上句順書之下句倒書之客語主人曰明年此日余當重來云矣翌年是日尤菴適乘事甚奇異舟渡漢水ㄴ勢方漲舟失纜猶幾至海口秀甫 即先生弟時熙 恐懼失色尤菴獨爽襟正坐未幾到泊彼岸卒事無事並見冰集

洞山石臼

在府南五十里竹島東圓石搗鞠中磨成臼世傳磨盡則世改鼈天沈守慶詩曰岩門石臼舂奇蹤余子何年此地遊李端詩曰舂磨四石猶初劫偷負沈碑半夜天

西林石佛

在府西三十里西林古寺之南其高數丈頭頭羅於古辰

吳火尚有靈驗邦人之燕子者閣而祭之即嗣續自是以後祈禱相續而靈應輒至云

雪嶽山靈

古有神興僧人祿蘇八山方飯之際有一盲嫗老嫗前乘乞飯僧輒與之嫗之小頃皆嘖之僧怒而杖之嫗避去因忽不見僧下山翌日嘔血即斃以為山靈所譴云

道嶺端祠

在府北十五里往來人敬事之不敢騎馬而過郡人崔令挺之個儻尚氣嘗乘醉騎馬而過其前忽然馬驚而斃崔公怒拔所佩刀斷為一脚擊破神祠小頃三足之馬能自起立自後神亦無靈祠遂廢焉

壽貞船封

在府北二十里有小碑刻曰成化六年壽貞船封八字按成化即 皇明憲宗年號而六年庚申即我 成宗大王元年

蟹峴塚

新羅時世達寺之莊舍在濕州橋李郡本寺遣僧調信知莊信到莊上悅金昕公之女往就洛山大悲前禱祈得幸數年間其女有配又往堂而恐大悲之不遂已哀泣至日暮俄成假寐忽夢金氏娘入門謂調信曰兒早歲上人放

半面而迫於父母之命強從人今願為同穴矣信乃顧喜
與為夫婦計活四十年有五介兒家徒四壁衣裳不給適
過蟹峴大兒飢死权瘞於道傍夫婦各離兒食歸掖蟹峴
所但見塚乃在彌勒也遂就奉安於隣寺

德耆坊

僧元曉至洛山南郊與白衣女人酬洽泉戲之時野中柮
上有一青鳥鳴曰休醍醐和尚忽隱不現柮下有笑脫鞋
師既到寺觀音座下又有所見脫鞋一隻方知前所遇聖
女乃真身故時人謂之觀音柮師欲入聖嶠更覩真容風
浪大作不得入而去後有嶠山祖師梵日大和中入唐

到明州開國寺有一沙彌截左耳與師言曰吾亦鄉人也
家在翼嶺縣德耆坊師他日還本國須成吾舍以會昌七
年丁卯還國先刱嶠山寺大中十二年戊寅夜夢昔所見
沙彌到牕下曰昔在明州開國寺與師有約蒙既見誰何
其晚也祖師驚覺到翼嶺境尋訪其居有一女居洛山下
村閭其名曰德耆女有一子年纔八歲常出遊於村南石
橋邊告其母吾所與遊者有金色童子母以告于師、驚
喜與其子尋所遊橋下水中有一石佛昇出之截左耳前
所覩沙彌即正趣菩薩之像也

冷泉

在府東十五里五峰山下世傳觀音化為女刘福元曉因
取飲冷泉與之戲謔云鄭樞C詩曰德女古墓沙覆砌曉
公遺跡樹連天

真水

在府北十五里世傳　世祖大王之駐蹕洛山也司饔晚
必求水味之甘冽者以銀量境內井泉而獨此水寂為斤
重因取為

御供　世祖遂錫名以真水

石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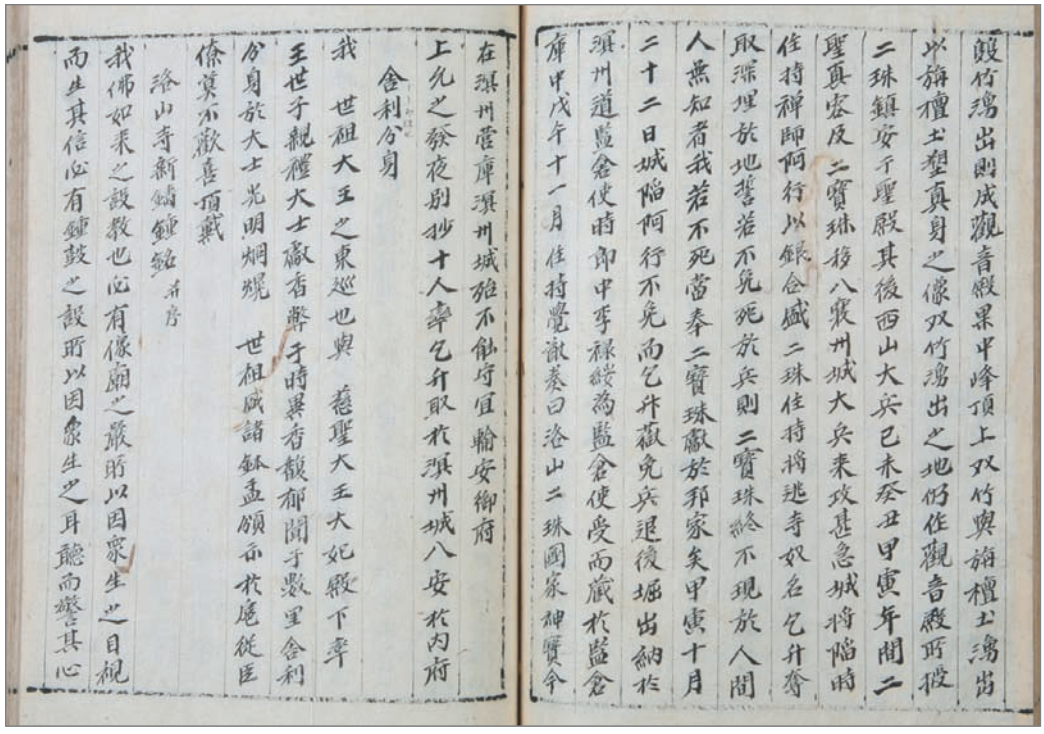
在府西二里翼嶺古縣城之中有石竇峙而開世傳鐵叟
穴農時有大風則官家遣人致禱其應甚至邦人傳以為
神穴除地為壇以之南有老木今無

靈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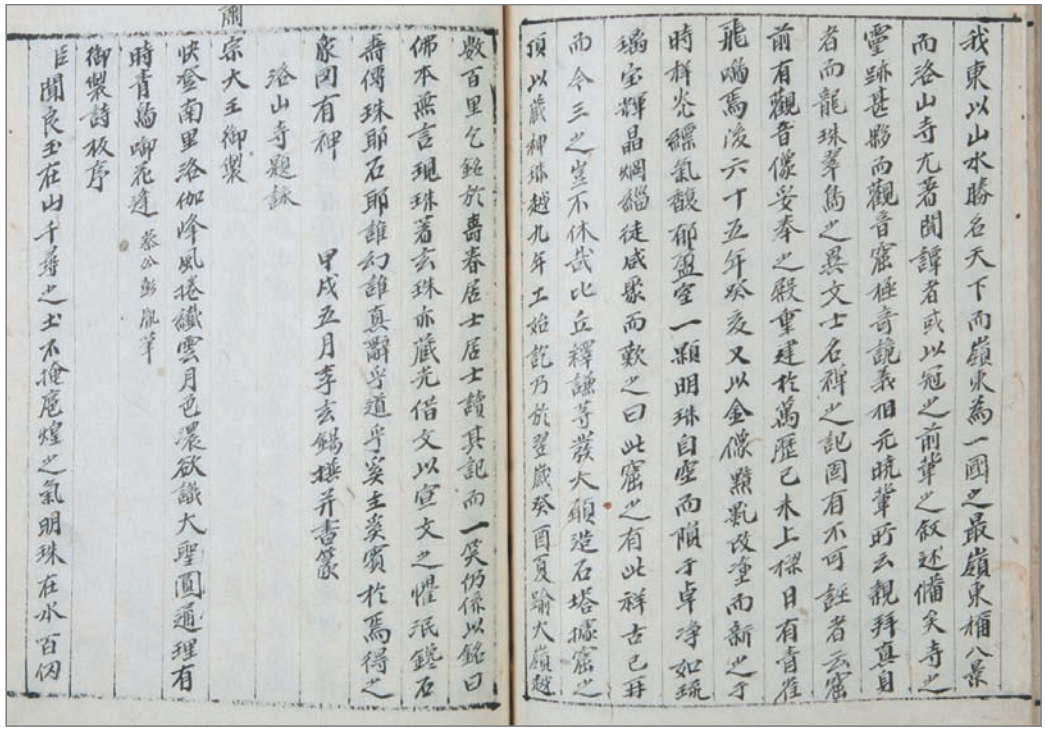
在府十五里即今靈穴寺　世傳寺之西澗小竇下通洛山
觀音窟古有神僧以杖刺石竇小頃出于觀音窟以是
名之且海上水味全鹹獨觀音窟之水與靈穴寺之水性
味相似云

龍王寶珠

義相祖師至洛山八窟中親見觀音觀音以水精念珠並
東海龍王所獻寶珠授義相義相受之觀音言此中峰上



設竹湧出則成觀音殿果中峰頂上双竹與旃檀土湧出
以旃檀土塑真身之像双竹湧出之地仍作觀音殿所設
二珠鎮安于聖殿其後西山大兵已未癸丑甲寅年間二
聖真容及二寶珠移入襄州城大兵來攻甚急城將陷時
住持禪師阿行以銀合盛二珠住持將逃寺奴名乞升奪
取深埋於地誓若不免死於兵則二寶珠終不現於人間
人無知者我若不死當奉二寶珠獻於邦家矣甲寅十月
二十二日城陷阿行不免而乞升獲免兵退後掘出納於
襄州道監倉使時御中李祿綏為監倉使受而藏於監倉
庫中戊午十一月住持覺徹奏曰洛山二珠國家神寶今
在襄州官庫襄州城殆不能守宜輸安御府
上允之癸夜刻抄十人率乞升取於襄州城入安於內府
舍利分身
我 世祖大王之東巡也與 慈聖大王大妃殿下幸
王世子親禮大士徹香幣于時異香馥郁聞于數里舍利
分身於大士光明炯現 世祖感諸鉢盂頒示於扈從臣
僚莫不歡喜頂戴
洛山寺新鋪鍾銘 并序
我佛如來之設教也必有像廟之嚴所以因衆生之目視
而生其信必有鍾鼓之設所以因衆生之耳聽而警其心
蓋欲衆生由六塵之外感以修六根之功德者也我 太
上大王在位之十二年東巡登金剛山 禮畢無竭並海
而南親幸是寺與 王大妃及我 主上殿下瞻禮觀世音
大士相于時舍利分身五彩晶熠 太上王發大誓願命
禪德學悅重刱以為我 殿下資福之刹延命大願緬述
盖虔寺既成凡百餘間極其壯麗百用皆備而鍾其一焉
嗚呼不由色相無以現圓滿之體不緣聲塵何以發衆生
清淨之覺然則楗椎道具非止節午二之徒之作止實山
門之法兢衆生警策也況 太上大王聖德神功卓越千
古之盛美我 主上殿下以聖繼聖重發大孝之偉績不
可不名彝鼎而勳鍾鏞以垂耀於罔極也銘曰六根皆因
六塵發凡聖昇沉由此決我佛如來三覺圓建大伽藍初
法物金聲玉振遍法界法界衆生驚夢識音稽會上十二
五一乀圓通諮菩薩觀音大士覺所覺聞思修方功第一
我願令此大鍾音如彼無窮慈悲力恒沙損入普門中成
就無邊衆功德 太上至德冠百王垂統萬世光赫乀我
王承我聖祖聖孫有東方至治宜恐不壞垂罔極塵劫
從來觀此刹成化五年四月佘守溫奉 敎撰鄭麟宗奉
敎書
洛山寺觀音堂中捨利碑銘 并序



我東以山水勝名天下而嶺東為一國之最嶺東稱八景而洛山寺尤著聞譚者或以冠之前輩之叙述備矣寺之靈跡甚夥而觀音窟極奇詭表相元曉葦所云覩拜真身者而龍珠葦為之異文士名禪之記固有不可誣者云窟前有觀音像妥奉之殿宇建於萬歷己未上樑日有青雀龍鳴焉凌六十五年癸亥又以金像黯氣改塗而新之子時群峯縹氣靚郁盈室一顆明珠自空而隕于卓淨如琉璃室輝晶燭貓徒咸聚而歎之曰此窟之有此祥古已稱而今三之豈不休哉比丘禪謙等發大願造石塔藏窟之頂以嚴神琳越九年工始訖乃於翌歲癸酉夏踰大嶺越數百里乞銘於嗇春居士居士讀其記而一笑仍係以銘曰

佛本無言現珠著玄珠亦藏光借文以宣文之幢泯鐫石壽傳珠郎石郎誰幻誰真辭浮道孚奚主奚賓於焉得之衆因有神　甲戌五月李玄錫撰并書篆

洛山寺題詠

宣廟大王御製

快登南里洛伽峰風捲纖雲月色濃欲識大聖圓通理有時青鳥啣花逐　蔡公魯觀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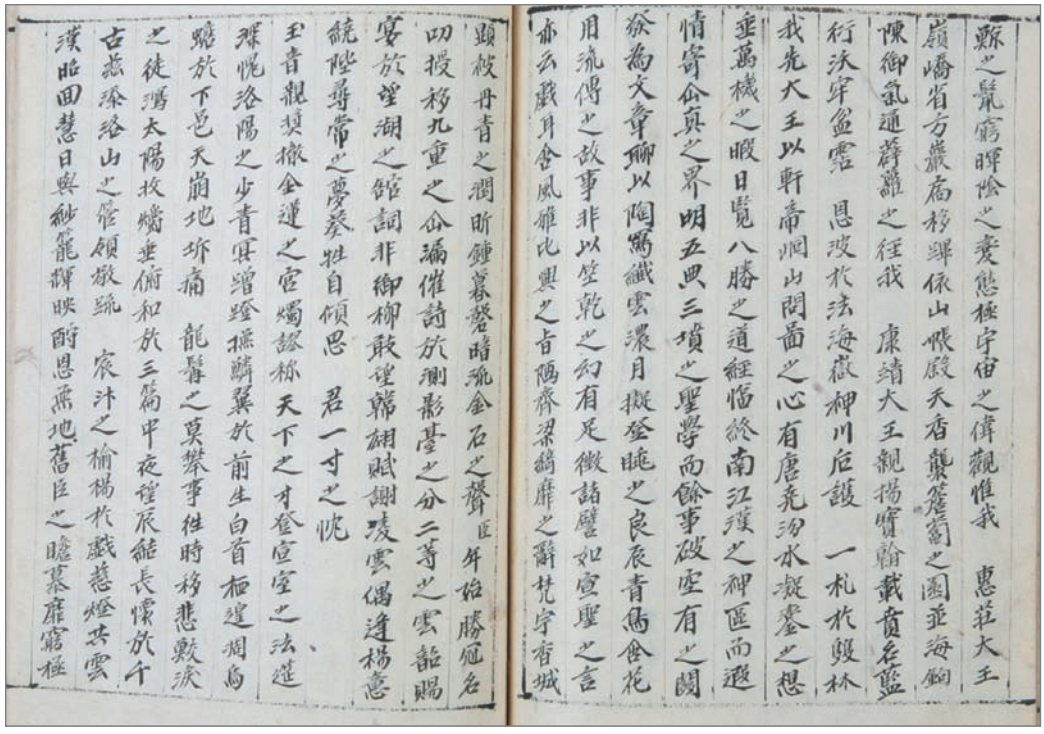
御製詩板序

臣聞良玉在山千尋之土不能虧煌之氣明珠在水百仞

之泉必生圓玩之文故至寶之所藏而采光之斯見然則書厨載籍尚有蠹蝕之觀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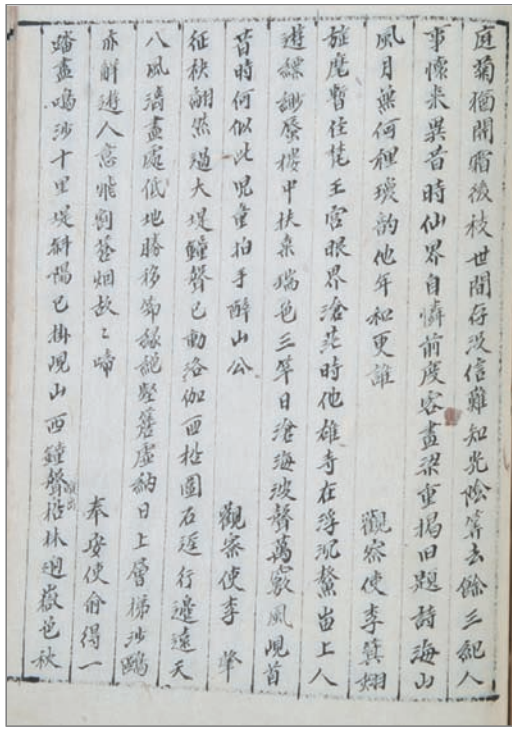
奎藻隱稱詎無山海之動色也哉曉嘉五峰之靈境窮遊三島之仙區飛太祖之所垂虔　高皇帝所嘗眷其文分雪嶽根抽滄流體勢連軒金鰲騰而撒海鬐鬣新妙玉女絮而下雲降仙之臂北臨林園森秀廣洞之桐南指穆觀瑤井微橫香露之甲出疑知琅玕之與隴立漫汗之外分明見河趙之壘擁三面而陵增聞一方之浩渺相傳大士之窟直透海夷之宮珠璉室八而噴吐寶氣常充而雙輦鐵忽茂福化莫窮之艷姿淨鉢剩泉留匀葉之將龍危

嵓石鏟峭壁上夷闊世行裨偃蓋於鮑魚之所懸崖片碣建標於伊臂之墟水府徽琳證禪心而永信祇園瑞竹占佛頂而開基排雲昔而衛階仰瞻人優跨蚣腰而布棟下壓鼇脊覆神齋條之龍金塑慈悲之像迴廊四注燠室承雷而迸飛閨幾吻凉軒抗而東直青空無外暘谷在前當天鷄之始啼俄羲馭之將戒景光欲吸漸收太白之蒼海氣淦亦已射搏桑之扶桑層巒沸湯魚龍叫呼於一時殿宇朱殷天水敲磨於萬里梨亭之露靚充快世界之雷眠未閣若乃逆光榮洲踟涉屢市招攻一席露日箱帆大浪連山得海倒整蓁蕪泉耀月舍老胖之蹤拂檻霏微雪散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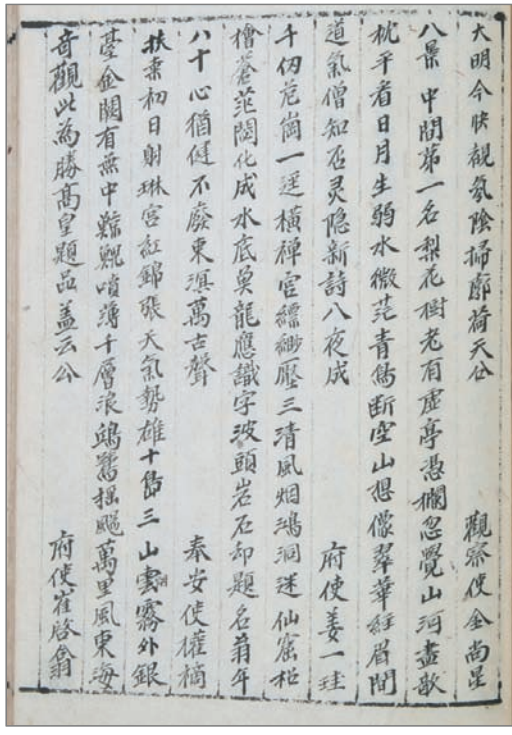
縣之鼠竄暉險之憂態極宇宙之偉觀惟我 惠莊大王
嶺嶠省方巖廊移蹕依山帳殿天香襲簷窗之圖並海鮫
陳御氣通辭讓之往我 康靖大王親揚寶翰載貢名篇
行沃穿盆露 恩波於法海嶽神川庇護 一札於毀林
我先大王以軒帝洞山問畐之心有唐亮沼水擬蠁之想
垂萬機之暇日覽八勝之遺經臨終南江漢之神區而遐
情寄企真之界明五典三墳之聖學而餘事破空有之關
發為文章卿以陶寫緇雲環月擬登睫之良辰青鳥含花
用流儁之故事非以笠乾之幻有足徵諸璧如宣聖之言
命云載月舍風雅比興之旨陶齋梁鎬靡之辭梵宇香城
顯校丹青之潤斯鍾磬暗孤金石之聲臣幷始勝冠名
叨授移九重之命滿催詩於測影基之分二等之雲韶賜
宴於望湖之館詞非御柳敢望歸湘賦謝陵雲偶逢楊意
毓陛尊帶之夢蓼莪自傾思 君一寸之忱
至音親摸撫金蓮之宮獨認桥天下之才登宣室之法筵
謀悅洛陽之少青宜增蛩摇麟冀於前生白首相逢周鳥
蹲於下邑天崩地坼痛 龍馨之莫攀事往時移悲歎深
之徒增太陽投燭垂倫和於三篇中夜望辰結長懷於千
古恭承洛山之管頓啟統 宸汴之榆楊於戲慈燈共雲
漢昭回慧日與秒龍輝映酌恩流地舊臣之瞻慕靡窮極

意慕天聖德之形容難盡謹拜手稽首奉和曰滄海一面
桂層峰桂陰之紫翠環試看欄頭奎壁動上方屋殿亦
遥遥 府使臣蔡忠胤
海上孤巒處甲有洛伽峰大聖住燕住普門封不封明珠
非我欲青鳥是人逢但願洪波上觀瞻滿月容兵雨夜
資餘不雕大聖圓通境曾聞海上峰恩回甘露潤香有紫
泥封隨類身常現鏡迷眼不逢莫論真與假但自禮慈容
存燕使安軺一自登臨海嵐萬面頭燕復舊塵旁欲知大
聖圓通理聽取山根激怒濤 金富儀
幸哥沙境住葬聚滄廬宴觀萬恩空浪底月誰分上下峯
端雲自占西東俄聽假像金堂裡只見真身石窟中不待
相即齋七日定心應願定先通 翰林金克己
萬樹梨花海上亭洛山遥遥一瞑丁誰庭竟日閒無事須
讀楞嚴大帝經 東濱鄭斗卿
白浪翻天風撼山佛燈明處寺僧閑門前滄海庭前月獨
占尋觀天地間 南岳趙宗著
玉宇迢迢落月東滄波萬里思翻紅蜆乙百姓皆含恭奉
出金輪真道中 簡易崔
龍嗅龍公撤玉塵琳宮光景轉頭新滄瀛倒接銀濤珠柢
樹根成白蕊春歲暮登臨仍勝地天涯會合是宗人不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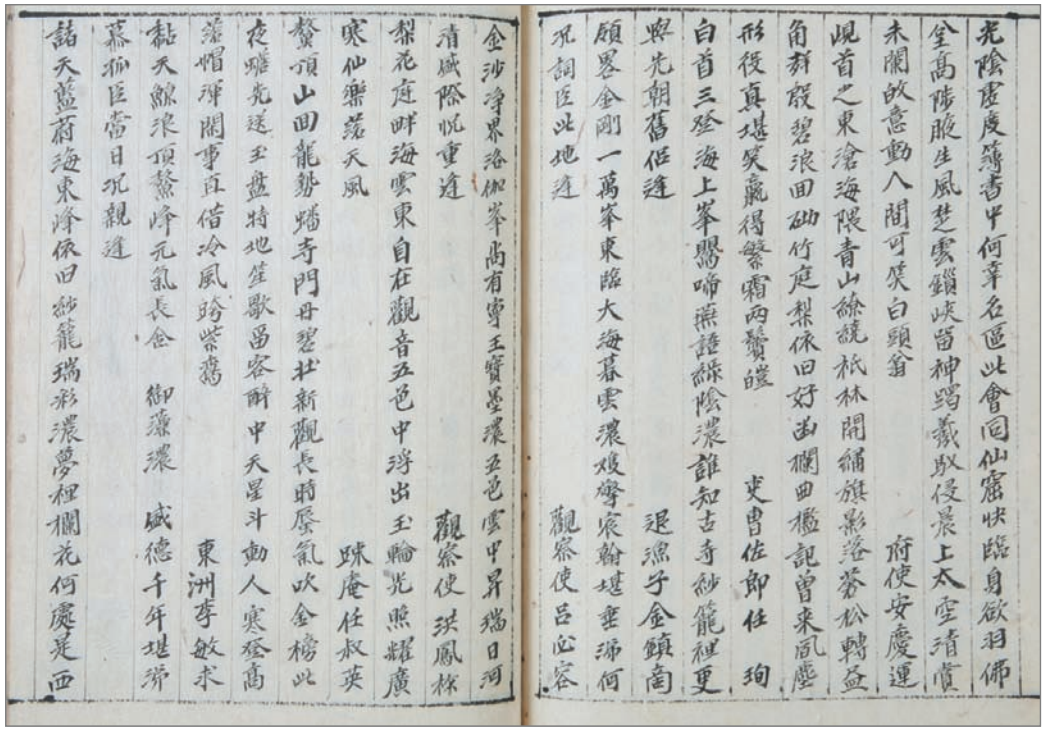


歸驢簑衣濕且鬪稱前漫浪身
至人亦有塗泥趣靈跡曾留海岱東一手慈悲荅蘇域十
秋塗屐壓瑞蒙鰲魚自吼僧催鉢室氣帶騰壁虹吐欲效
白華王子讀娓無奇語與爭工
安堅水墨石川詩千載伽藍兩絕奇劫火併將僧室去名
區便覺聲舟移香雲法雨虛無裡斛見頑垣指點疑頼有
宣陵宋翰在神光依舊擁山祇 澤堂李植
我來手翳扶桑枝飛過塗瀛世莫知華表鶴歸明月夜梵
宮僧定暮鍾時五峯林老三聲笛大海 鼈百首詩千古
峴山羊祜酒論仙風彩更何雄 府使崔南龍

庭菊猶開霜後枝世間存沒信難知光陰荏苒去餘三紀人
事慷慨異昔時仙界自憐前度客畫梁重揭舊題詩海山
風月無何裡琰劫他年和更誰 觀察使李箕翊
旌麾暫住梵王宮眼界塗花時他雄寺在浮玩盤出上人
遺像謝屏樓中扶桑瑞色三竿日滄海波聲萬家風幌首
昔時何似此兒童拍手醉山公 觀察使李 華
征秋翛然過大堤鐘聲已動合伽西杜圖石逕行遲遠天
八風清盡處低地勝移筇緑艇整蓑虛納日上曾佛此鷗
亦解遊人意飛到蓉畑故上啼 奉安使俞得一
蒲盡鳴沙十里堤斜陽已掛峴山西鐘聲招林迎嶽色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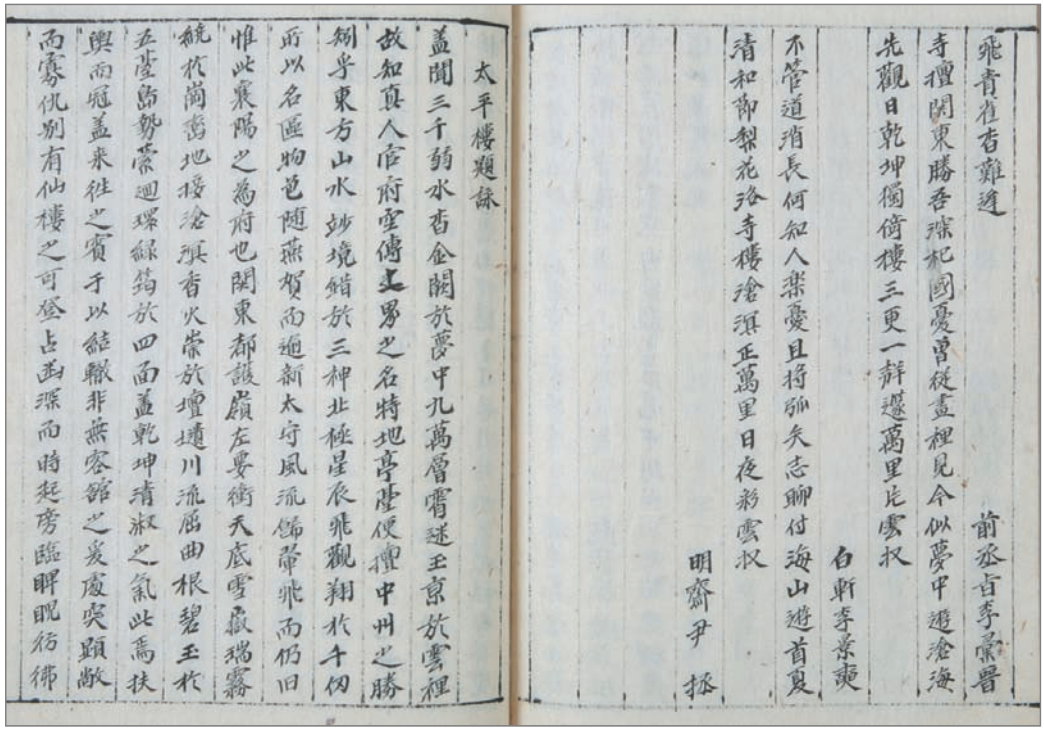


連海水低手挈高僧身跳整卿扶倦客點危梯登閣忽愛
醫皐鶴稱衣翩然擬我啼 觀察使俞 崇
芙蓉一朶鏡中垂到此方省造化奇青鳥飛來兵佛地琴
華清息老僧知杜牧齋護藏珠塔欄檻平臨滄日池為梨
向花臺上立扶桑影接最東枝 觀察使李重協
招提突兀海雲傍俯視塗旗極渺茫山出一支從靈嶽天
開別地較金剛門前近接魚龍窟樓外平臨日月光聊下
冷風通萬里身輕欲與大鵬翔 觀察使趙載浩
金盤聲出水晶宮萬里紅塵百丈雄穿宇宙氣通銀漢外山
河影射紅霓中遠識依廬無邊雪吳楚之間不盡風要識
大明今快觀氣陰掃靜荷天公 觀察使金尚星
八景中間第一名梨花樹老有虛亭憑欄忽覺山河盡收
收乎者日月生弱水微茫青鳥斷空山想像翠華經眉聞
道氣僧知在灵隱新詩八夜成 府使姜一建
千仞危崗一逕橫禪宮縹緲靄三清風烟鴻洞迷仙窟松
檜蒼茫閟化成水底臭龍應識字波頭岩石却題名前年
八十心猶健不廢東溟萬古聲 奉安使權楠
扶桑初日射琳宮紅鯉飛天氣勢雄十島三山雲霧外銀
臺金闕有無中鰲魚噴薄千層浪鵬鷺搖飄萬里風東海
奇觀此為勝萬里題品蓋云公 府使崔啓翁



光陰虛度簿書中何幸名區此會同仙客快臨身欲羽佛
坐高陽腋生風楚雲鎖峽留神蹟義敢侵晨上太空清賞
未闌故意動人間可笑白頭翁　府使安慶運
覘首之東滄海隈青山絲繞杖林開繡旗影落蒼松鶴益
角幹殷碧浪回砌竹庭梨依旧好曲欄曲檻記曾來風塵
形役真堪笑羸得繁霜兩鬢皚　吏曹佐郎任　珣
白首三登海上峯鸞吟燕語綠陰濃誰知古寺紗籠裡更
與先朝舊侶逢　退溪子金鎮商
願畧金剛一萬峯東臨大海暮雲濃幾翰堪垂鴻何
況詞臣此地逢　觀察使吕必容

金沙淨界洛伽峯尚有寧王寶墨濃五色雲中昇瑞日河
清感際恍重逢　觀察使洪鳳祚
梨花庭畔海雲東自在觀音五色中涌出玉輪光照耀廣
寒仙樂繞天風　疎庵任叔英
鰲頂山回龍勢矯寺門毋碧北新觀長時屡氣吹金榜此
夜雖先送玉盤特地佳歌留客醉中天星斗動人寒登高
落帽殫閑事直借冷風珍紫蕎　東洲李敏求
黏天鰲浪頂鰲峙元氣長含　御藻濃　盛德千年堪崇
慕孤臣當日況親逢
諸天蓋荷海東降依旧沙籠瑞彩濃夢裡欄花何處是西



飛青雀杳難逢　前巫吉李彙晉
寺禮閑東勝吾儕紀國憂曾從畫裡見今似夢中遊滄海
先觀日乾坤獨倚樓三更一醉遶萬里起雲收
　白軒李荇叟
不管道消長何知人樂憂且將弧矢志卿付海山遊首夏
清和節梨花滿寺樓滄淇正萬里日夜彩雲收
　明齋尹拯

太平樓題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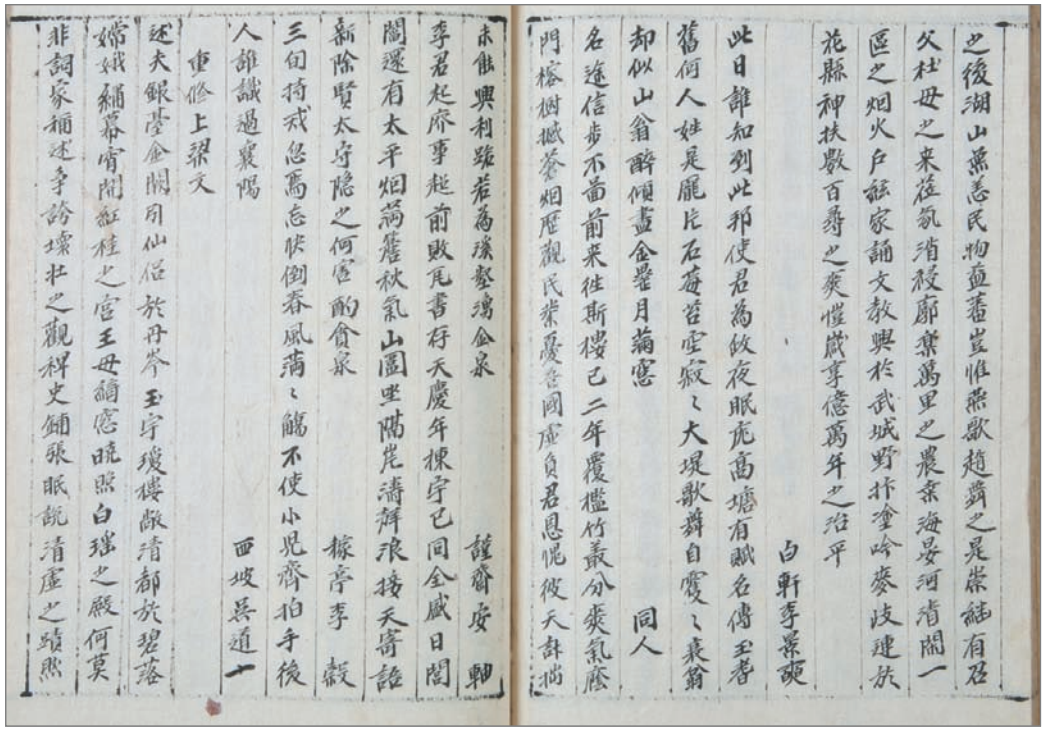
蓋聞三千弱水杳在閬於夢中九萬層霄遂至京於雲裡
故知真人居府望傳之異之名特地亭虛便擅中州之勝
剜乎東方山水妙境錯於三神北極星辰飛觀翔於千仞
而以名區物色隨燕賀而遍新太守風流倚鄂非而仍旧
惟此襄陽之為府也關東都護巍在要衝天底雲霞瑞霧
繞於崗壑地接滄溟香火崇於壇遶川流屈曲根碧玉於
五臺島勢縈迴環綠筠於四面蓋乾坤清淑之氣此焉扶
輿而寫蓋來往之賓于以館轍非無客館之爰處奚顧敞
而寥仇別有仙樓之可登占勝環而時起旁臨睥睨衍佛

閣苑之城延歷村閭依俙武陵之境鵝鳴犬吠疑越鵬而昇天鶴嘯鳥飛訝成橘而渡瀛觀太平之揚顧泰英邑大序於金廻先一笑而開顏訓客寄名章於粉壁青山映戶如聞謝眺之吟白石鋪階未遇初牟之此光通洛寺彩霞旭於殘霄氣抱琪州紬霜雲於晴亟杭歐讓序唐勢屏而秋催觀頊歐威暘谷噓而春早簡斟霞醪琳觴爛雲之殊棄泰雲璈艷質耀蟾宮之玉長空飛步呂道士之三過暝日鋪憂王仲宣之四望顧歲年之已久斯林宇之漸頹非為懸休之私終成鳩僝之志柏樞相楠趙潘整而非遲桂棬在梁浮念滿而伊通卜日居月諧於農隙謀雪斧電

刃於公餘閑使專美於前無令齊觀於後萬龍蹁躍增喜氣於陽俠鳳翔翱動歡容於宿媼豈士女之戚聲抑亦飛走之香欣雖興齊徑閑於天時即修繕惟賴於地主前府伯李侯名頊星山也人傑英亭軼風高暢於雲衢屈節專城仍薄遊於霧術黃堂坐嘯俾一鶚而共來白屋興謳恐霞飛之遲去政報最於三異惠補均於一同未見都料之記知已聞山公之啓事頁書增秩遽擾擾於繁雄閣境驚心饒攀轅而遮擁耳提面命事未了於苟完足往心留行有遺於初許烟霞帶恨悵之色鴟鳥含別雜之情舊令尹必告其所為新使君為可以不勉爭府伯韓侯名鎮西

平人也荊州頑識膂籍甚於諸公竹使遑恥憂忽分於百里鷰較金閨之載為聊乘郡彦之亟歡適值身逃於大藪何難手修乎遠者近者念撫頻而皆悅工不勸而自趨今者人謂斯何古來物若有使迴臨飛鳥見突兀於眼前九協炙龜想經營於心上何須規首望於占之傳且向遠頭試聽萬人之頌滄洲峯水將合此而焉求玄圃丹丘尚登茲而可覽誰知月俸之助得救不日成之休清風共明月長閑碧海與青天俱燭顧名思義良士永保無荒為政以仁賢者方能同樂垂示來許庶幾晶哉景頭襄獲導趙曾經信宿殘星長邊依趙颯之高楼斗酒百篇慚李白之

秀句白頭投簡敢遵司馬大夫青眼披緘其奈雕蟲少技蒼苔窮巷僕此日之揮毫半空浮雲憶當時之統筆重修滕閣記何望於昌黎左指洪崖夢長通於蓬島遠賁虹飛之舉用添鴛躍之歡抛梁東五夜皆眠八表同柔地已從滄海出桃避先報碧空紅抛梁西楊柳陰陰擁大堤舞罷羽衣尋去路暗烟秋盡迷抛梁南玉洞桂烟離裊裊長川流八海碧峰彈向水中遥抛梁北長空紫霞五雲色夜夜密聞宿斗牛朱簷不受三更黑抛梁上一倚欄干杖萬家棋樹瓊林帶雪香四時依得仙人賞抛梁下不用篙瞭薰鶴駕偏瞰晴川素練橫分明一派銀河瀉伏願上梁



之後湖山蕭瑟民物蕃蓋豈惟歌趙舜之是崇誦有召父杜母之來蓋氣消殺廓葉萬里之農桑海晏河清閭一區之烟火戶誦家誦文教興於武城野拜塗嶺麥歧建於花縣神扶數百壽之爽愷歲享德萬年之治平

白軒李基魯

此日誰知別此邦使君為政夜眠庵高塘有賦名傳玉者舊何人姓是麗卜石蓋雲寂寂大堤歌舞自愛襄翁却似山翁醉倒盡金罍月滿窓

同人

名逸信步不前前來往斯樓已二年欄檻竹叢分爽氣簾門榜樹撼餐烟歷觀民業憂吾國虛負君恩愧彼天群鴻

未能興利端若為瘼墾瑞金泉

鍾齋安 軸

李君起席事起前敗庇書存天慶年棟守已回金臧日閭閻逐有太平烟滿籬秋氣山圍坐隔岸濤聲浪接天寄語新除賢太守陰之何宜酌貪泉

椽亭李 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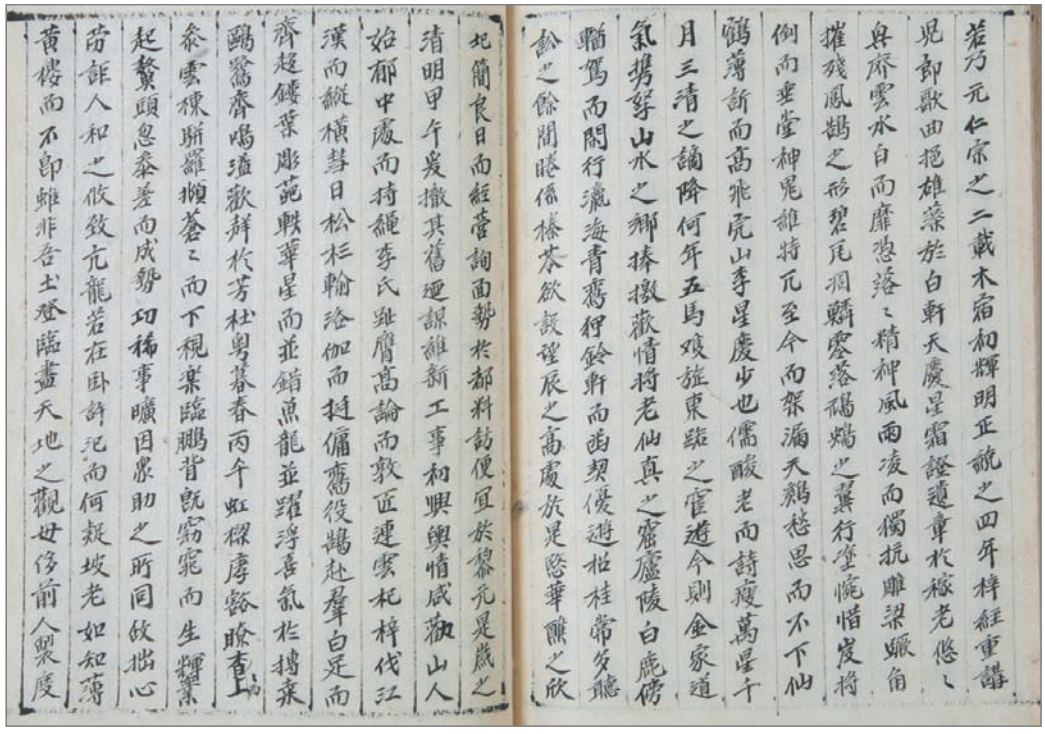
三旬持戒忽焉忘快倒春風滿一觴不使小兒齊伯手後人誰識過襄陽

西坡吳道一

重修上梁文

述夫銀臺金闕列仙侶於丹岑玉宇瓊樓敞清都於碧落嫦娥細幕宵開桂桂之宮王母簾窓曉照白猿之嶽何莫非詞家補述爭誇壞壯之觀神史鋪張眠說清虛之蹟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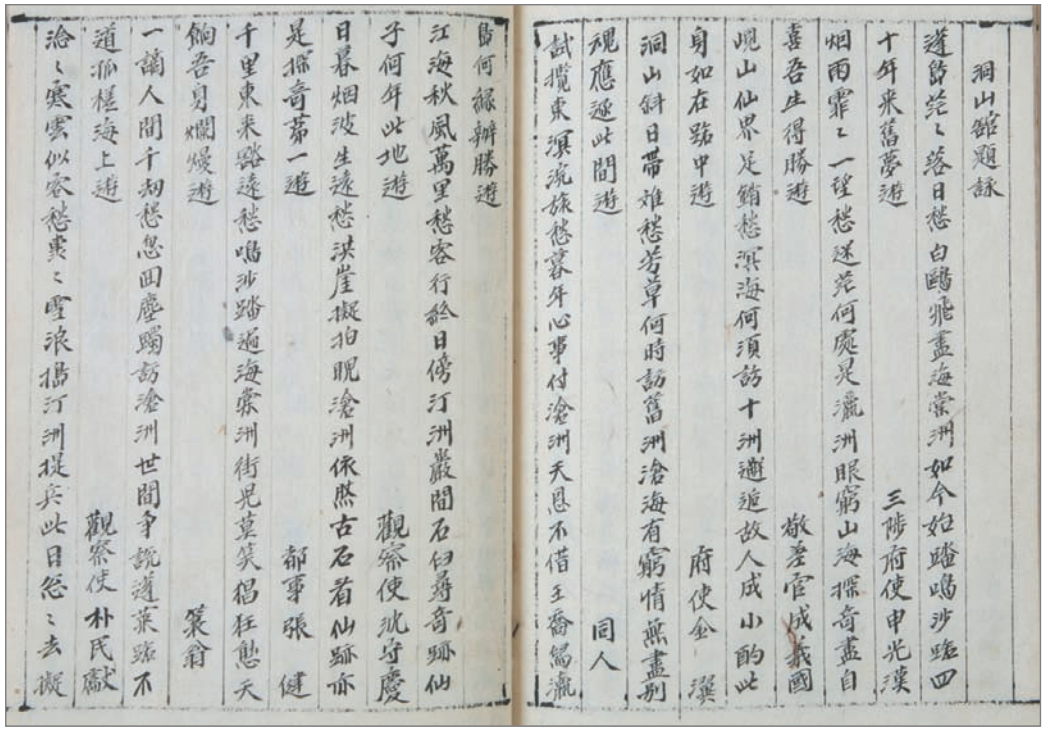
而仙凡夐隔水恨望於千年聖神都遥竟照叙於大合情望之極氣述權王之駕莫忘有照難真是非終古局若名區勝景擅湘海之風流快閣飛樓開雲霞之氣態憑欄嘯傲則沈休文八詠之風擇筆酣歌則李太白三登之趣設有遊業方丈閬風玄圃誓不援於江山雖非杜觀鵬簫月守瓊樓意已起於埃塵者哉惟茲襄陽之為府關東勝地海上名神信義相之所仰蓋仙子來即之所杖為螺青鬢鬟盤雲巖而上森鴨綠葡萄感漢流而下咄天連勸海瞰日月而尤遥境接金劉覓神仙而何遠千里尋真之客涉彌巔而來道中州奉使之人望五峰而遥臨遊山勝候幾多放跡之謝公得地樓基要慰鬱憂之王孫爰有太平樓在客館之南是樓也起於特地勢則涉天臨睥睨而斟窈瞑閣閣而爽塏罨簷四着綠欄抗而棨迴啊閣高擎鉢石承而雄立如楹迂溪斗牛樓宿於窓間若冀垂雲為兆田翁於檐底習祀斜對山翁之驕為時迴視首前臨羊公之輕裘可想長天秋水勝閣序之清江暮雨朝雲高塘詞之妍當白鷗相近森三而鳴沙黃鶴策名都之車馬周遊閱海歷覽漢山咸暇日而攀躋極清時之行樂瑰章玉韻載畫楹而孤傳趙舜燕歌踏錦逸而宴喜何清海晏寧休四望之憂歲熟民和共樂太平之像此樓之所以得名也



若乃元仁宗之二載木宿初輝明正統之四年祥經重講
見卽歌曲挹雄藻於白軒天慶星霜證遷章於稼老悠〻
鼻祭雲水白而靡愁落〻精神風雨凌而獨抗雕梁嫩角
摧殘風鶴之形碧瓦洞巔雲落禍嫡之聲行塗曉惜歲將
倒而要堂神鬼誰特兀至今而槩滿天鵝慈恩而不下仙
鶴薄斯而高飛況山李星廢少也儒酸老而詩瘦萬星千
月三清之鑰降何年五馬飛旌東臨之霍遊今則金家道
氣携琴山水之鄉捧檄歡情將老仙真之霞廬陵白鹿傍
轡駕而閑行瀛海青鸞伊鈴軒而逈契優遊柏桂常多聽
鈴之餘閒睦係椿萱欲試望辰之高處於是盥華釀之欣
妃簡良日而經營詢面勢於都料訪便宜於磐元是歲之
清明甲午爰撤其舊更課雖新工事和興興情咸歡山人
始郁中處而持纓李氏雖膺高論而敦匠運雲杞梓伐江
漢而縱橫琴日松杉輸洛伽而挺偏鷹役竭赴聲白疋而
齊趨鏤葉彫蕃軼華星而並錯魚龍並躍浮吾氣於搏乘
鷗鷺齊喝溢歡舞於芳杜鵑暮春丙午虹樑摩蓋瞻查上
衆雲棟聯羅擁蒼〻而下視槩臨鵬背既窈窕而生輝檐
起鰲頭息奏差而成勢功楊事曠因衆助之所同故拙心
苟詎人和之攸致亢龍若在卧許死而何疑坡老如知薄
黃樓而不即雖非吾土登臨盡天地之觀世後前人製度

符古今之美三王遊興將聞落筆之遲呂老飛岭復有題
詩之所舞衽歌扇足供麾子之閒懷吏舍民園不必黃公
之借景況復蒙匪壽域民物華香爾和旭於海陽咏雷雲
於天外筐編一代顧荷類而斯符歌政四時庶樓亭之同
樂潘而苑希文之雅志進退亦憂王逸少之格言遊談是
刺書稱若保合奚弛於斯民詩著太康戒宜深於良士攸
楫納爽當思暑雨之咨倚檻裁詩須念谷蘿之咏聚舞遶
景端為歌俗之前賴建齋雲築止藏歌之用賢逸善頌用
採新詞抱梁東扶桑曉色何玲瓏仙家日出不知閒巷碧
桃天地中抱梁西鹿門芳樹疏雲低簷前細雨零芝顛來
來安洞春可賀抱梁南大堤楊柳青驂〻瞻攸歛綠巫山
峽中有白鷗三兩函抱梁九夜夜繁星璨斗極我欲恩渠
朝紫皇脩簷恩若双飛翼抱梁上擬霄壁月搗金浪晛山
女兒古銅鞮往往行雲遏清唱抱梁下江草青〻名杜若
幾往零之遺所思芳華歲暮知者寡伏願上梁之後風月
無邊山河不老桑麻一境鷄犬靜於仙孫枝誦千家納華
禁於灵谷漢川春浪常歌躍鯉之雷天吼獰飈不偃蟠蛟
之稻繁華士女並函太古之春醲酬笙歌長奏昇平之曲
千萬間之大庇以俟後人百餘尺之杜觀將期永世

李獻慶撰



洞山館題詠

遊鄂花ㇾ落日愁白鷗飛盡海棠洲如今始識鳴沙路四
十年來舊夢遊　三陟府使申光漢

烟雨霏ㇾ一望愁迷花何處是瀛洲眼窮山海探奇盡自
喜吾生得勝遊　敬差官成義國

覩山仙界足銷愁渠海何須訪十洲邂逅故人成小酌此
身如在瑞中遊　府使金　濮

洞山斜日帶雉愁芳草何時訪舊洲滄海有窮情無盡別
魂應遶此間遊　同人

試攬東溟流旅愁暮年心事付滄洲天恩不借王喬舄瀛
島何緣辦勝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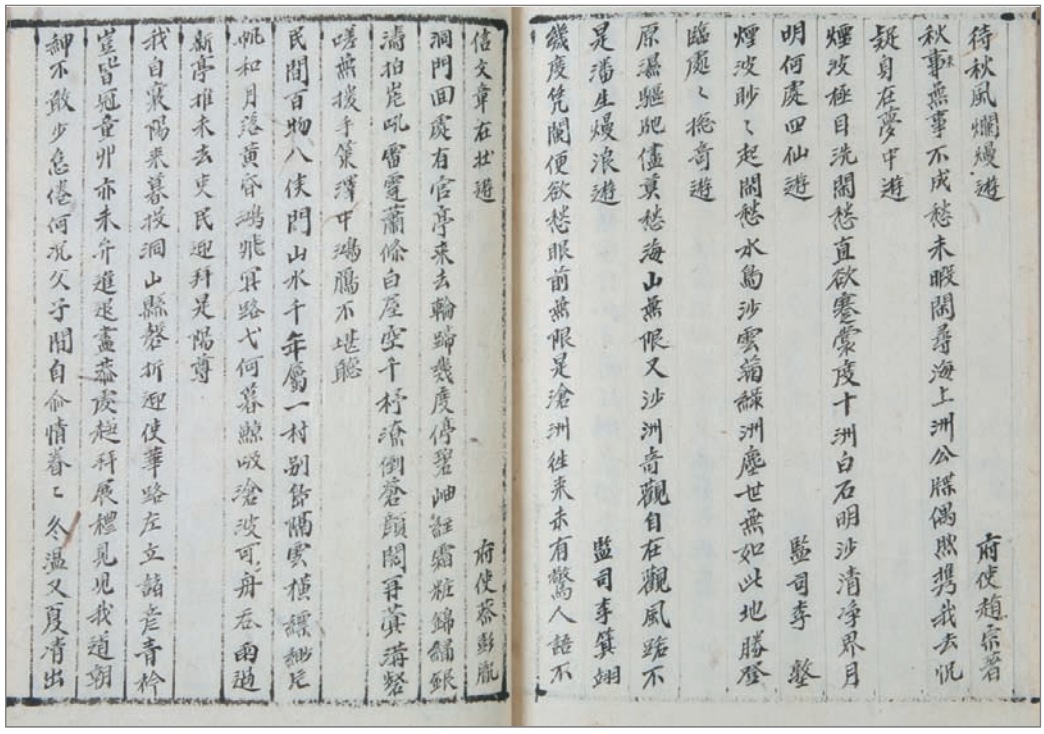
江海秋風萬里愁客行終日傍汀洲巖間石白尋奇跡仙
子何年此地遊　觀察使　沈守慶

日暮烟波生遠愁洪崖擬拍睨滄洲依然古石看仙跡亦
是孤奇第一遊　都事　張　健

千里東來路遠愁喝沙踏遍海棠洲街兒莫笑猖狂態天
鍾吾身爛熳遊　兼翁

一蘭人間千劫愁忽回塵躅訪滄洲世間爭說遨蓂事不
遂孤槎海上遊　觀察使　朴民獻

滄ㇾ寒雲似客愁裏ㇾ雪浪搖汀洲提壺此日忽ㇾ去擬



待秋風爛熳遊　府使　趙宗著

秋事無端不成愁未暇閑尋海上洲公牒偶然携我去忧
疑身在夢中遊

烟波極目洗閑愁直欲霎霖度十洲白石明沙清淨界月
明何處四仙遊　監司　李　墅

烟波眇ㇾ起閑愁水島沙雲箇箇洲處世無如此地勝登
臨處ㇾ探奇遊

原濕驅肥儘莫愁海山無限又沙洲奇觀自在觀風路不
是潘生熳浪遊　監司　李箕翊

幾度笻閣便欲愁眼前無限是滄洲往來未有驚人語不
信文章在壯遊　府使　蔡彭胤

洞門回處有官亭來去輪蹄幾度停碧岫紅霜粧錦繡銀
濤白屋吼雷霆蘭傍白屋雙十杯添倒客顏閑暮冥蒲磬
嗟無投手策躋中鴻鵠不堪聽

民間百物入侯門山水千年屬一村別館隔雲横碧嶂飛
帆和月過黃昏鴛鴦戲浪何暮鷺吸滄波可舟在兩遊
新亭非未去吏民迎拜是陽尊

我自衰陽來暮投洞山縣磬折迎使華路左立諸彦青衿
豈曾冠童州亦未介進退盡森處趨拜展禮見我道頌
神不敢少怠借何況久予聞自命情春ㇾ冬溫又夏清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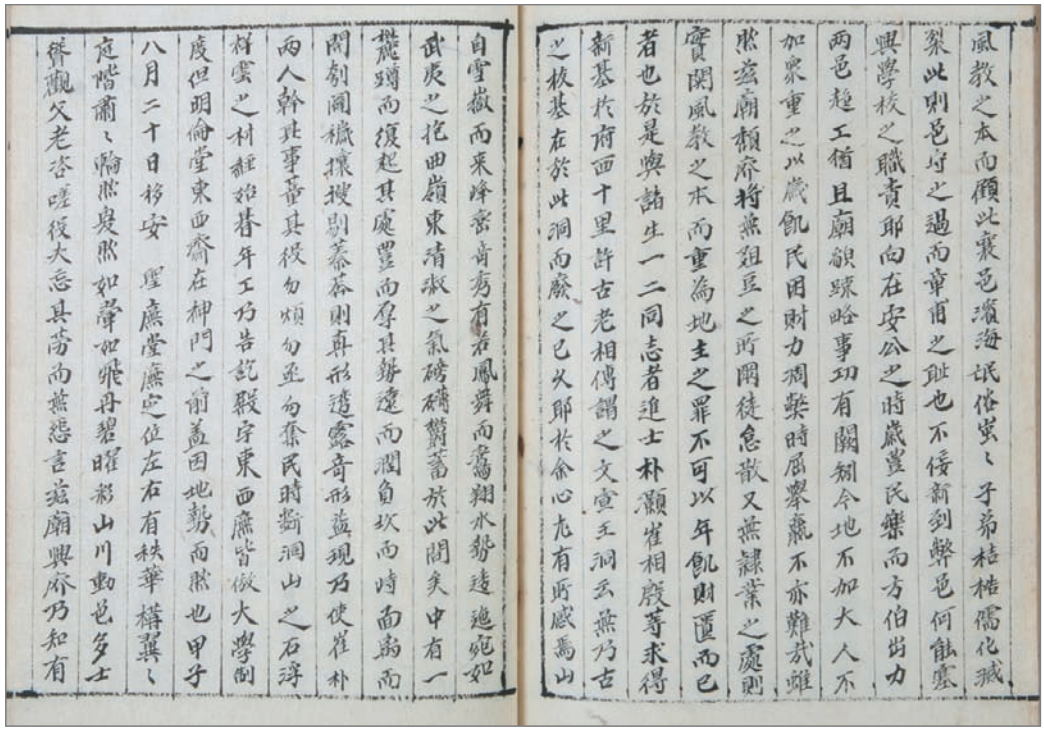
告而反面皆在性情中矣柯易不加勉力唯在我諸劇資
黃卷朝遠其肯捨小善亦必遵　觀察使朴民獻
狐嶼凌空碧海回舊閱石編在林懷路從嵯嵽岩阿過天
到雲峰穴裡開月下更看先塗淨鶴邊時覺影徘徊仙翁
擣藥應時至御柏燒丹有宿灰
遠客無愁似有愁微茫煙雨暗汀洲倚欄默默東來事千
里悤悤餘一日遊
物色何留辭有愁殘花唯雨自沙洲寄聞一到還歸去脚
踏休時勝夢遊
　柳枝文序

新學記

關之東山水奇秀而襄陽居甲其英靈之精清淑之氣必
無虛當而於今百餘年間未聞有瓌奇才德之士出是邑而
端人倫者此非山水之氣無驗邑人之性不善蓋是邑古
自關於蕃境喪亂屢興學校之道不修也今者區宇混一
而民不知興聖學中興子弟日減恒置學校養育人才而
蓋是邑者唯以簿書為急而慮不及他故山水之氣鬱積
鬱積而無所發子弟之性程惰檮梏而無以脫此豈非邑
人之不幸歟余到是邑聞之耆舊邑之北有洞相傳云文
宣王洞斯必古之學基而廢已久矣余心竊歎焉即於其
地命邑人度之邑人咸喜曰余之志也慨而忘勞於是府
下同年友通州守正卿陳君監督其役工役始興而邑守
正卿朴君來莅仕朴君亦文儒相門之子也實用其力以
成吾志此豈非邑人之幸歟天地之氣其衰也久則其旺
也暴其蓄也遠則其發也眹自今家有才學之孫里有仁
厚之俗然以雪山水之助而知余言之不失也然則度麁
疎事功有關望後來君子一寓目焉　謹齋安　軸記

校建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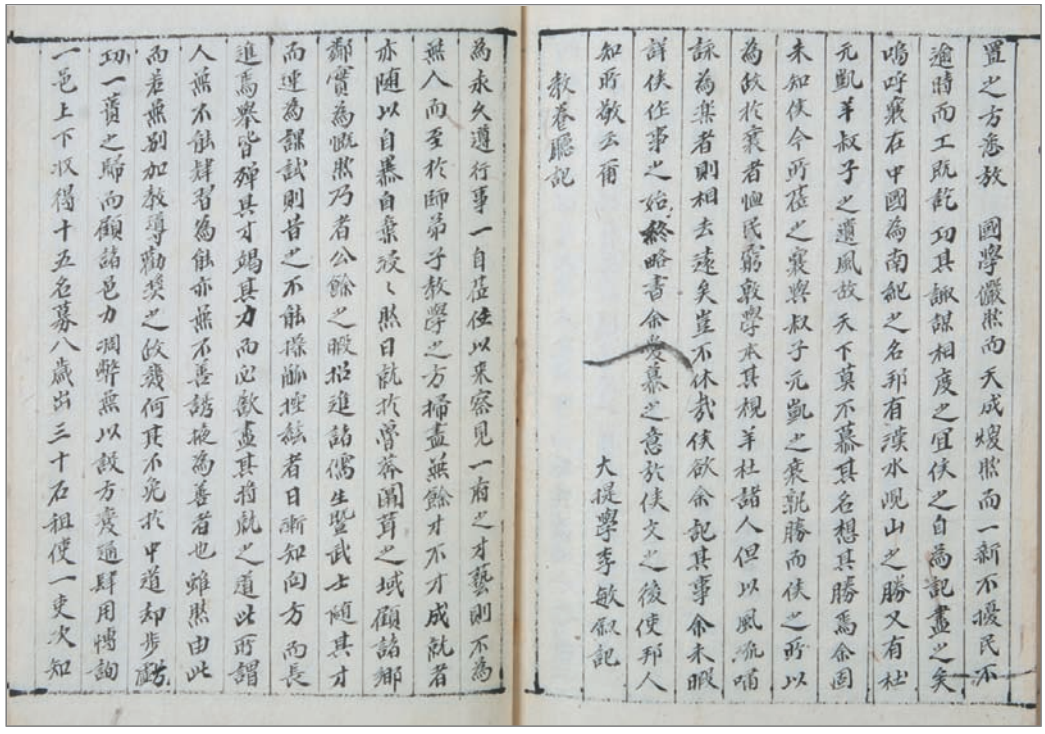
壬戌之秋九月初吉余來守覲山越二日　謁文宣王廟
廟在治之北城外基址湫隘東西無廡而殿宇剝落上房
風雨神門之外有風化樓亦既頹毀左右支撐余問于諸
生曰此廟之權輿者歸而制度之麁粗若此後之莅是邦
者何限而不思所以修而葺者抑何歟諸生拜而言曰新
學小生雖未知古事而耳聞在安軸記余取而視之弘治
三年道伯安軸實主張是而邑守朴君通州守陳公監董
工役矣諸又生拜而言曰安公之後百數年而至天啓丙
寅始乃重修而今去丙寅又將二十紀則廟宇之圮理勢
固然賢主之繼來者亦豈無其人而因循至今者必有待
耳顧侯並蒙之余慨然嘆曰今方　聖學高明重道崇儒
內而國庠外而州序舉皆一新規模此正培養人才振作



風敎之本而顧此褒邑瀕海氓俗蚩蚩子弟椎髻儒化臧
聚此則邑守之過而章甫之鮮也不侵新到弊邑何能臺
興學校之職責郎尙在安公之時歲豐民樂而方伯出力
兩邑趨工循且廟貌疎略事功有闕剏令地不加大人不
加衆重之以歲飢民困財力凋瘵時屈擧贏不亦難哉雖
然茲廟類帝將無俎豆之所閭徒怠散又無隸業之處則
實閼風敎之本而重爲地主之罪不可以年飢財匱而已
者也於是與諸生一二同志者進士朴顯崔相廈等求得
新基於府西十里許古老相傳謂之文宣王洞云無乃古
之校基在於此洞而廢之已久耶於余心尤有所感焉山
自雪嶽而來峰巒奇秀有若鳳舞而鶴翔水勢迂迴如
武庾之花曲嶺東清敞之氣磅礴鬱蓄於此閒矣中有一
隴蜿而復起其處豐而厚基勢遒而潤自坎而時面前而
開剏闢機攘搜剔蕪荒則真形透露奇形益現乃使崔朴
兩人幹其事董其役勿煩勿亟勿奪民時斬洞山之石浮
槎雲之材經始暮年工乃告訖殿宇東西廡皆倣大學制
度但明倫堂東西齋在神門之前蓋因地勢而然也甲子
八月二十日移安 聖廟堂廡之位左右有秩華構冀之
庭階爾乃翬飛如翬如飛丹碧曜彩山川動色多士
瞻觀父老咨嗟後人忘其苦而無德言遊廟興斯乃知有

時而蠢爾之民亦有所興感而然也歟嗚呼安公記曰邑
之北有文宣王洞校遷新宇倘非天慳地秘以待其人則
前後之事一何相符若是郎大凡物之榮悴人之盛衰何
莫非一氣之消長造化之主張則得此地而建此廟益信
此氣之裒吐化翁之命采而不容人力於其間者明矣然
一府人才之作成蜚譽之占茲廟之興廢非誣也亦宜哉
余於是乎與諸生齋宿于講堂杖優遊徜徉觀容則洞
邃而境靜天朗而氣暢杏壇春日悅閣絃誦之洋溢沂上
清風彷彿詠歸之氣象矣有作而言者曰彼岳陽之重修
鼎竹樓之新搆華則華矣悅則悅矣而校作驗人墨客騷

物嘯傲之資古之人猶且叙其事而奪其義況今之得此
洞營此棟者大有光於儒化爲一邦之盛事豈戔戔無一
言而詔後學也耶余不可以不文辭遂爲之詔蜚然人才
之蔚興職由於師卷教育之如何不專靠於廟基山川之
豐薄肇自今家有才學之士里有禮義之風者必待賢太
守之陶甄後來君子蓋因此加勉焉 府使崔南翼記
襄陽崔侯南翼爲府數歲適當大疫餽縮費蓄力大濟疫
餌惠政爲一道最 朝廷賜秩以廉之又以其餘力追頹
古之文翁儒化既成人士悅服乃復謂 聖廟之陵夷慨
文教之不張相方擇址改建校宮山川之勢若相助發倒



置之方意歟　國學儼然而天成嫂然而一新不擾民不
逾時而工既訖知其謀猷相度之宜侯之自為記盡之矣
嗚呼襄在中國為南紀之名邦有漢水峴山之勝又有杜
元凱羊叔子之遺風故天下莫不慕其名想其勝焉余固
未知侯今所莅之襄與叔子元凱之襄孰勝而侯之所以
為政於襄者恤民霑敷學术其視羊杜諸人但以風流頌
詠為樂者則相去遠矣豈不休哉侯欲余記其事余未暇
詳侯仕宦之始終略書余所慕慕之意於侯文之後使邦人
知所敬云爾

大提學李敏叙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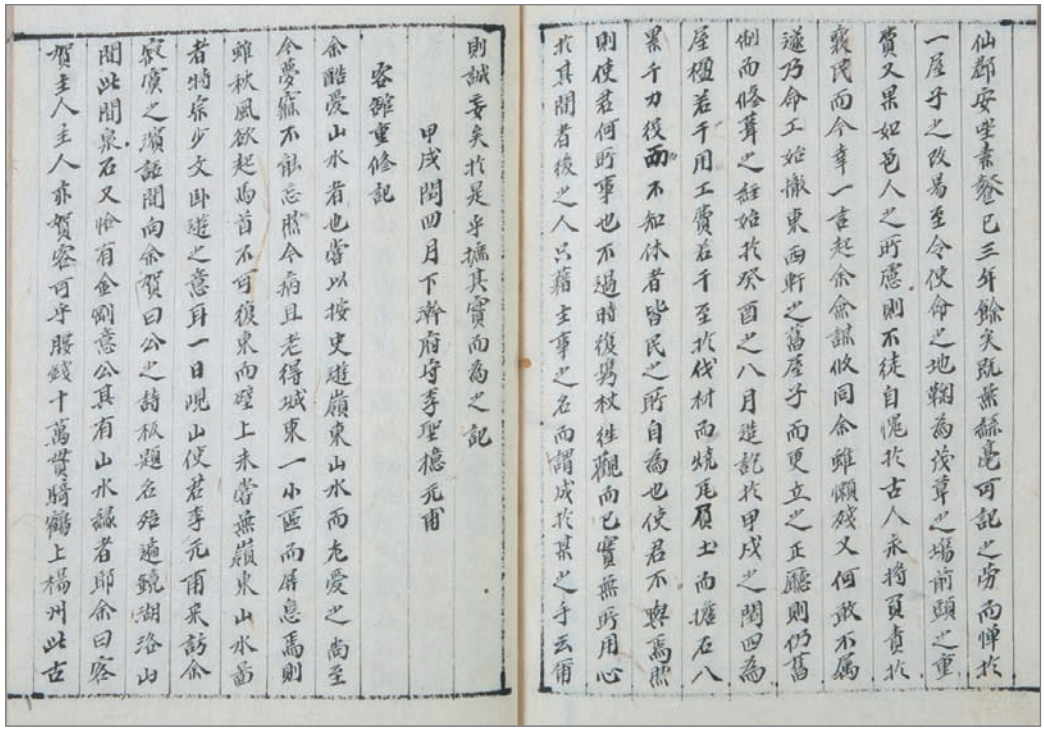
敎養廳記

為永久遵行事一自莅任以來察見一衙之才藝則不為
無人而至於師弟子敎學之方掃盡無餘才不才成就者
亦隨以自暴自棄玆日就於曾荼圃葺之域顧諸鄉
鄰實為慨然乃者公餘之暇招進諸儒生暨武士隨其才
而造為課試則皆之不能操觚搆藁者日漸知向方而長
進焉舉皆殫其才竭其力而必欲盡其稍就之道此所謂
人無不能肆習為能亦無不善誘掖為善者也雖然由此
而若無別加敎導勸奬之政幾何其不免於中道知步趨
功一簣之歸而顧諸邑力凋瘵無以設方喪通肆用惕詢
一邑上下收得十五名募八歲出三十石祖使一吏火知

出納每於月朔告官定期成籍境內文武士各試其才取
優等而俱以三斗米償之其怠慢不幸者隨而罰之以勸
徵焉童學之預其選同其償者亦出於重蒙之意後之能
成者不以閭務而廢却之隨力而勸成之俾使永久遵行
將見人才之蔚然興起而為他日楨幹豈不盛哉豈不休
哉玆書鄰目板以揭之凡我衆士毋負春台之誼孳孳勉
學而勉工焉

客舍重修記

鄭邑之有傳舍未為使命而設而奉　傳脚於正殿以寓
臣民尊　國憲　閫之帨蓋其事体之重視尊常公廨誠
有大矣府之客舍重建于崇禎後壬辰之歲而為疾風急
雨之所觸蠹歲年滋久修葺轉甚駸駸有朝夕傾壓之慮
以事鮮力殘孤敢有易者之余之來此已有年而亦不敢
生意於鋤改逾自旁觀咨嗟而已邑人或曰客舍何等重
屋子而傾頹如此使君胡不思易而新之也莊蕈之頃如
果自頹又材庇瓦盡化為朽前之物而早晩興創之時使
民力重困焉則為襄民者安得不歸咎於使君之不早謀而
使君亦安得辭其責使君其為之余乃起而數曰古人
有立庸而收制疎之中作為國家屏藩者其志業之勤厲
可想於千載之下而如我者生逢太平　盛世忝守海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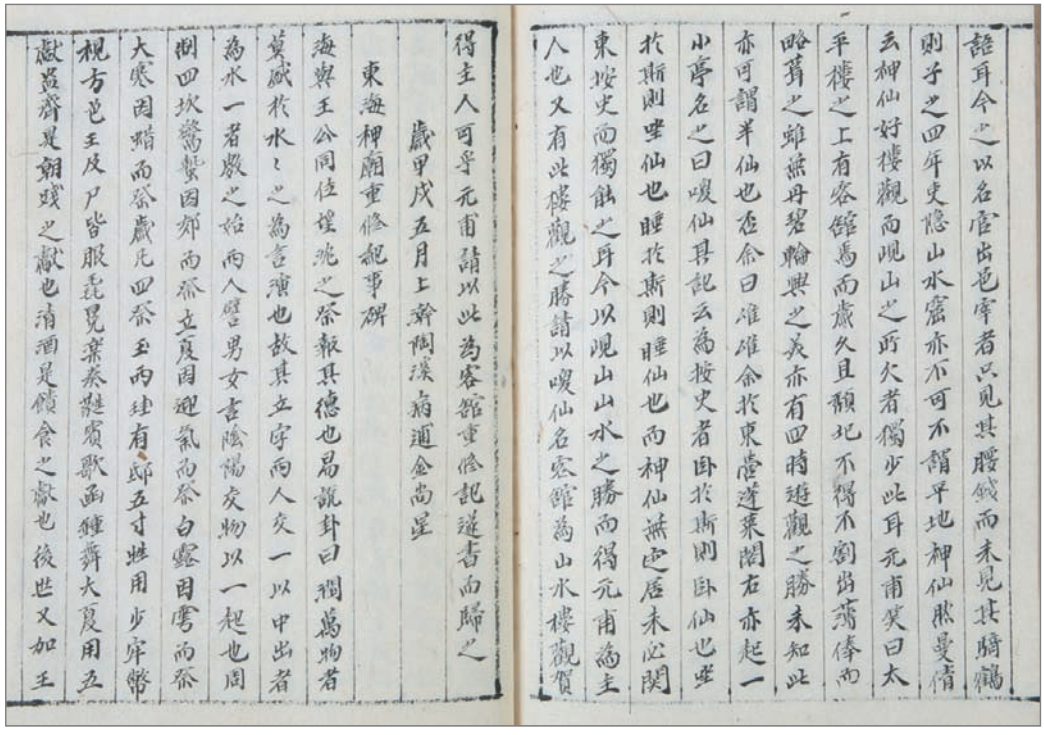
仙都安堂素餐已三年餘矣既無絲毫可記之功而俾於一屋子之改易至令使命之地鞠為茂草之場前頭之重貲又果如邑人之所慮則不徒自愧於古人承捐貢責於襄陵而今幸一言起余余謝收同余雖懶殘又何敢不屬遂乃命工始撤東西軒之舊屋子而更立之正廳則仍舊制而修葺之經始於癸酉之八月迄記於甲戌之閏四為屋楹若干用工費若干至於伐材而燒瓦陶土而壘石八累千力役而不知休者皆民之所自為也使君不與焉然則使君何所事也不過時復策杖徙觀而已實無所用心於其間者後之人只藉主事之名而謂成於某之手云爾

則誠妄矣於是乎撫其實而為之記

甲戌閏四月下澣府尹李聖穆元甫

客館重修記

余酷愛山水者也嘗以按史遊嶺東山水而尤愛之南至今夢寐不能忘然今病且老得城東一小區而居息焉則蟬秋風欲起回首不可復東而望上來嘗無嶺東山水畫者時來少文卧遊之意耳一日覲山使君李元甫來訪余敘廣之頌誦間向余賀曰公之詩極題名勝遍鏡湖洛山間此間泉石又added有金剛意公其有山水誠者耶余曰客賀主人主人亦賀客可乎服錢十萬貫騎鶴上揚州此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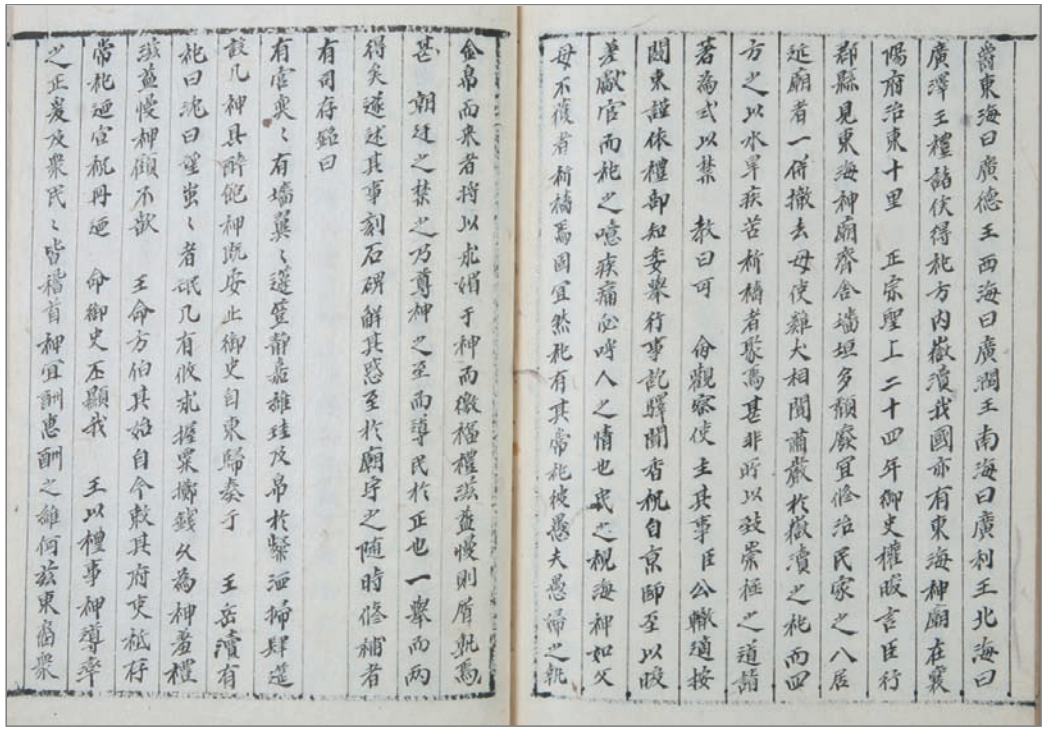


語耳今之以名宦出邑宰者只見其腰錢而未見其騎鶴則子之四年吏隱山水窟亦不可不謂平地神仙然曼倩云神仙好樓觀而覲山之所欠者獨少此耳元甫笑曰太平樓之上有客館焉而歲久且頹圮不得不剏出為傳而略葺之蟬無毋碧輪輿之美亦有四時遊觀之勝未知此亦可謂半仙也否余曰唯唯余於東臺遊來閣右亦起一小亭名之曰嘆仙其記云為按史者卧於斯則卧仙也坐於斯則坐仙也睡於斯則睡仙也而神仙無定居未必閑東按史而獨能之耳今以覲山山水之勝而得元甫為主人也又有此樓觀之勝請以嘆仙名客館為山水樓觀賀得主人可乎元甫請以此為客館重修記遂書而歸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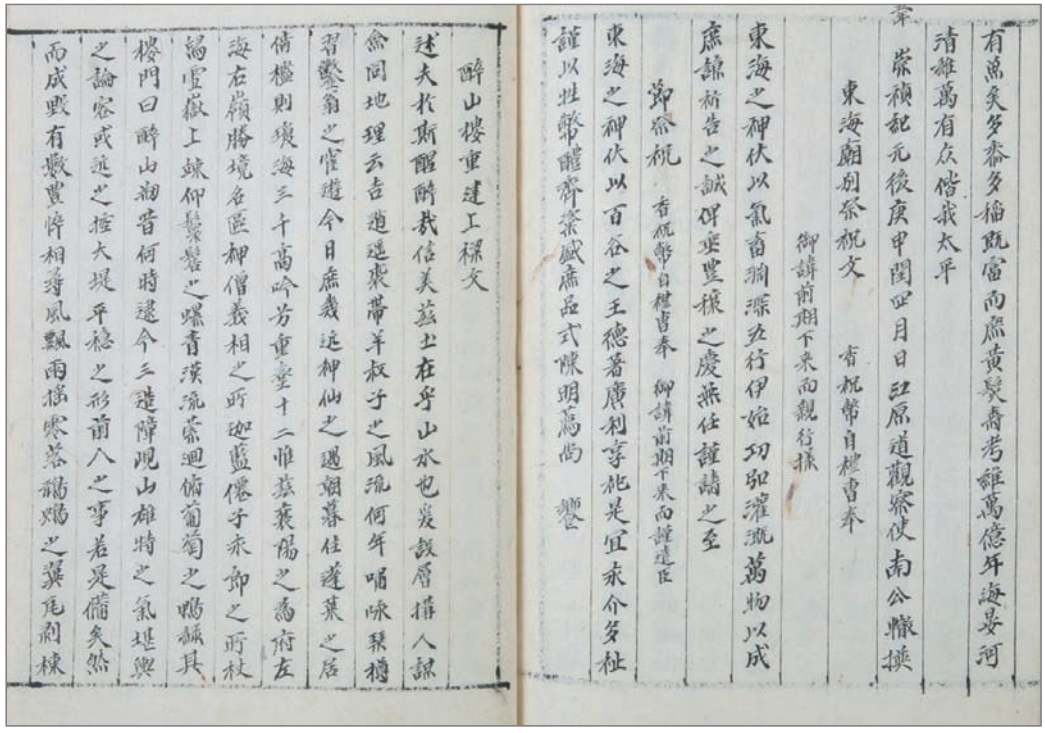
歲甲戌五月上澣陶溪翁通金尚星

東海神廟重修紀事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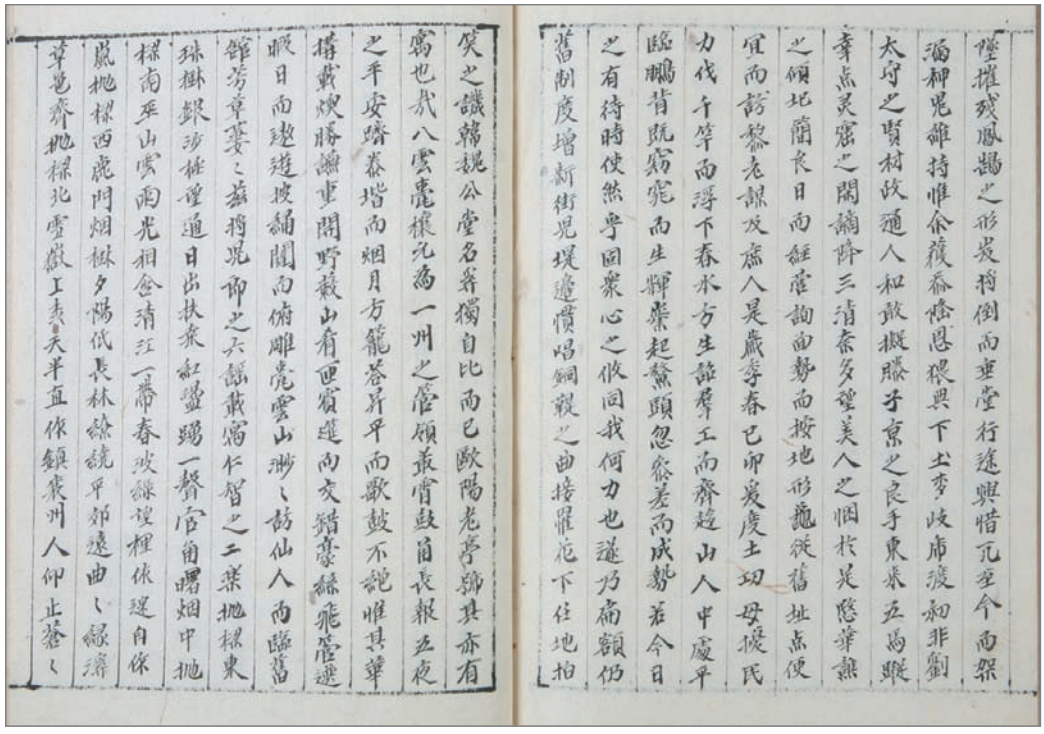
海與王公同位望祀之荅報其德也易說卦曰艮萬物者莫盛於水艮之為言潤也故其立字而人文一以中出者為水一者數之始而人體男女書陰陽交物以一起也周禮四坎鎮曰因郊而荅立夏雩祭祈穀而荅白露因雩而荅大飛烝嘗而荅歲凡四荅王丙建有邸五寸牲用少牢幣視方邑王及尸皆服毳冕黍荅稷黍歌函鍾舞大夏用五獻爵齊是朝踐之獻也清酒是饋食之獻也後世又加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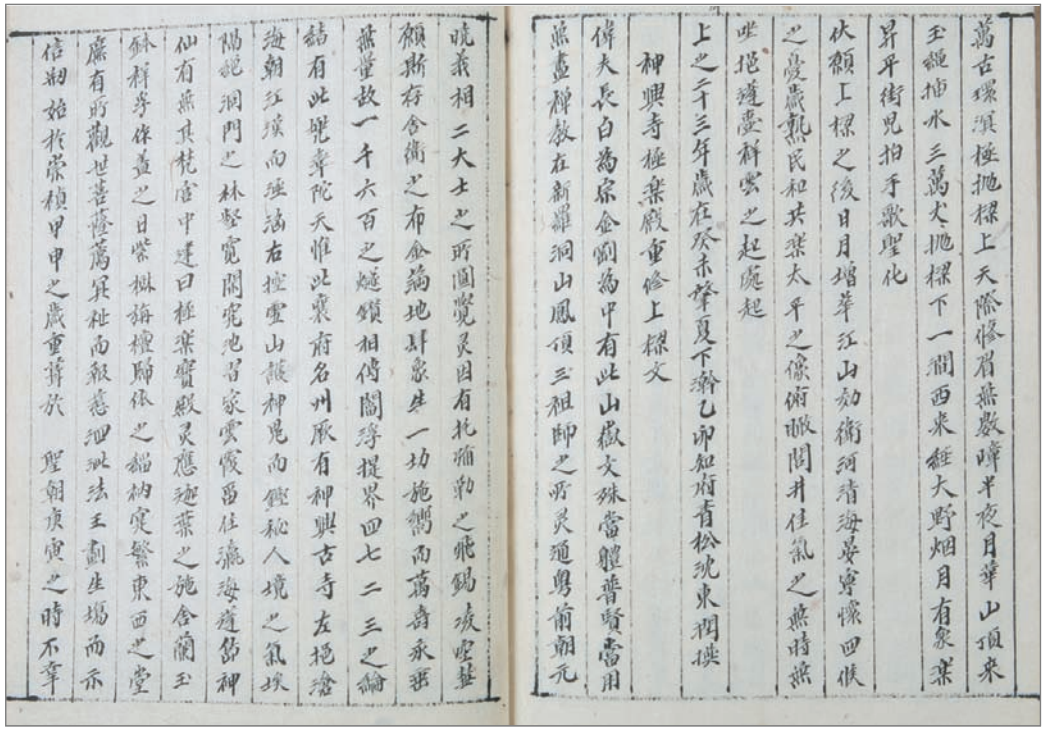
醫東海曰廣德王西海曰廣潤王南海曰廣利王北海曰
廣澤王權設伏得祀方內徽號我國亦有東海神廟在襄
陽府治東十里 正宗聖工二十四年御史權畯言正行
都縣見東海神廟齋舍墻垣多頹廢宜修治民家之八居
延廟者一併撤去毋使雜大相閱肅嚴於徽號之祀而四
方之以水旱疾苦祈禱者聚焉甚非所以敬崇極之道請
著為式以禁 教曰可 命觀察使主其事正公廨道按
閱東誼依禮卿知委舉行事訖驛聞香祝自京即至以畯
差獻官而祀之噫疾痛呼人之情也哉之祝海神如父
母不獲者祈禱焉固宜然祀有其帝祀被愚夫愚婦之祀
舍弟而來者將以祀媚于神而徽褻禮瀆益慢則屑氛焉
甚 朝廷之禁之防尊神之至而導民於正也一舉而兩
得矣遂述其事刻石碑解其惑至於廟宇之隨時修補者
有司存舜曰
有虞氏有墻翼之遵堂靜嘉雖垣及帛於繫祠神拜送
餞凡神具醉飽神既安止御史自東歸奏于 王嘉賞有
祀曰祀曰望祭之者祇凡有依求握衆撫錢久為神羞禮
誠益慢神徽不歆 王命方伯其始自今敕其府吏祇存
常祀迎官祝毋迎 命御史正顯我 王以禮事神尊卑
之正爰及衆民之皆稽首神宜訓惠訓之雖何於東齋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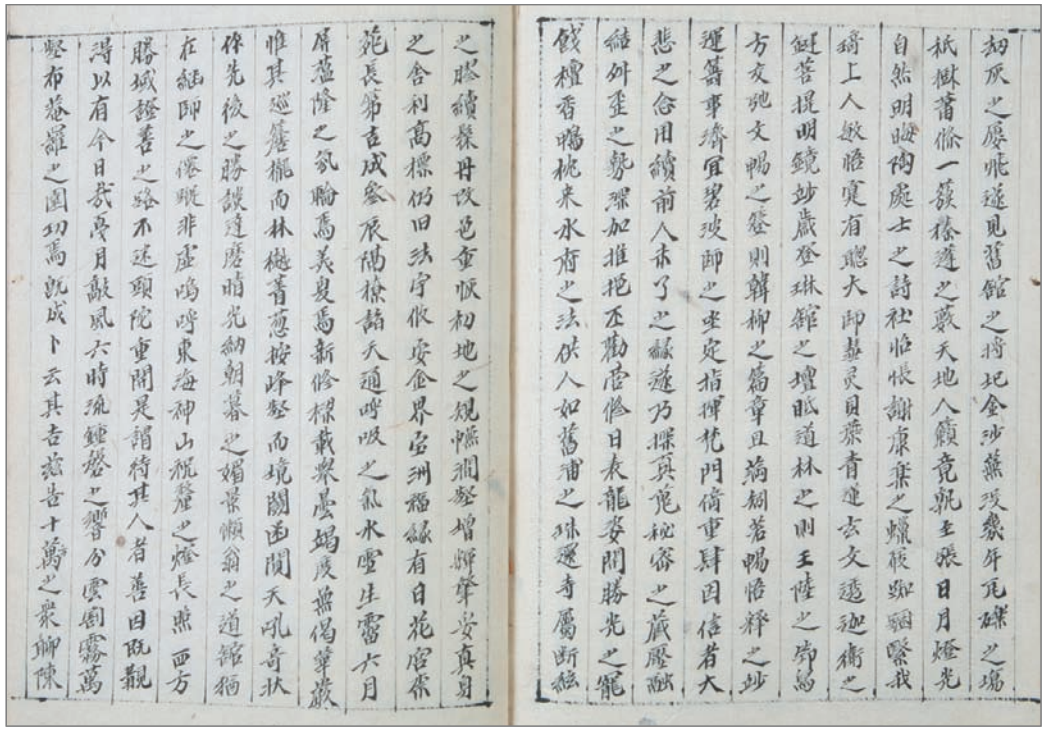
有萬矣多壽多福既富而康黃髮壽考雖萬億年海晏河
清雖萬有次皆我太平
崇禎記元後庚申閏四月日江原道觀察使南公轍撰
東海廟別祭祝文 香祝帝自禮曹奉
御講前期下來而親行揀
東海之神伏以氣畜洞瀁五行伊始初如灌流萬物以成
庶錄祈告之誠俾垂豐穰之慶無任誠謹之至
節祭祝 香祝帝自禮曹奉 御講前期下來而誠遣正
東海之神伏以百谷之王德著廣利享祀是宜永介多祉
誼以壯觀瞻齋粢盛庶品式陳明禋尚 饗
醉山樓重建上梁文
述夫於斯醒酲哉佔美茲土在乎山水也爰設層構入課
爰同地理云吉道遠襄帶羊叔子之風流何年嘯咏聚橋
習鑿翁之雅趣今日庶幾近神仙之遇烟暮住蓬萊之居
倚檻則瀛海三十高吟芳重至十二堆蓋襄陽之為府左
海右嶺勝境名區神僧義相之所迎藍僊子來鄭之所杖
編宜徽工鎌仰鑒磐之螺青漢流紫迴俯蒼蒼之鴨綠其
樓門曰醉山初昔何時遂今三遷障隈山雄特之氣壯與
之論客或近之推大堤平穩之形前人之事若是備矣然
而成毀有數豐降相尋風飄雨摧零落稠賜之巢危剔棟



墜權殘風蝎之形炎將倒而重堂行遂興惜元亟今而架
涵神鬼雖持惟余護春恢恩穆與下士李岐庸渡和非劉
太守之賢材政通人和敢擬滕子京之良手東桑五為疑
韋點灵窟之開編峰三清奈多望美人之恨於是慈華熙
之領地簡良日而經營謝曲勢而按地形施從舊址点便
宜而訪黎老謀及齋人是歲季春己卯炎度土功毋擾民
力伐千竿而浮下春水方生誰聲工而齊趙山人中處平
臨鵬背既翁寵而生神棄起鰲頭忽發差而成勢若今日
之有待時使然孚回衆心之攸同我何力也謹乃前額仍
舊制度增新街兒堤邊憤唱銅鞮之曲接罹花下住地拍
笑之識韓魏公堂名齋獨自比而已歐陽老亭翁其亦有
窩也哉八雲麗樓元為一州之管領兼胥鼓角長報五夜
之平安踏春招而烟月方籠蒼昇平而歌鼓不絕惟其華
構載煥勝讌重開野義山有亟賓遷而文錯豪縣飛管遷
暇日而趨遊彼編閭而俯雕虎雲山渺渺訪仙人而臨舊
館芳章褒之嘉猶況即之云遠載宿仁智之二樂拋棟東
殊榻銀河挂望通日出扶桑紅盤踢一聲官角曙烟中拋
棟南平山雲雨光相會清江一帶春波緑搜棟依遲自依
嵐拋棟西鹿門烟樹夕陽低長林綠繞平郊遠曲々緑滿
章邑齊拋棟北雪嶽工夫天半直依鎮襄州人仰止蒼々



萬古環瀛極拋棟上天際修眉燕數疊半夜月華山頂來
玉鏡抽水三萬丈拋棟下一間西來經大野烟月有象棄
昇平街兒拍手歌聖化
伏額上棟之後日月增華江山効衛河清海晏寰懷四候
之慶歲熟民和共樂太平之像俯瞰閒井住氣之燕時燕
哇搖遷喬科雲之起處起
上之二十三年歲在癸未肇夏下瀚乙卯知府青松洪東潤撰
神興寺極樂殿重修上棟文
偉夫長白為宗金剛為中有此山嶽文殊當體普賢當用
燕盡禪教在新羅洞山風領三祖師之所灵通粤前朝元
曉義相二大士之所圓覺灵因有北福勒之飛錫後空基
額斯存舍衛之布金論地群象生一切施謂而萬善承恩
燕量故一千六百之廻鎖相傳闔導提界四七二三之綸
結有此號章陀天惟此裏府名州厥有神興古寺左挹澄
海朝江旗而連結右控雪山護神鬼而鎮秘入境之氣坡
陽絕洞門之林壑寬開宛也昔家雲霞而住瀛海蓬萊神
仙有燕其棲唐中建日極樂寶殿灵應迦葉之施舍蘭玉
鉢祥芬依蓋之日紫楸海檀歸依之船納寶繁東西之堂
廡有所觀世菩薩萬行而報慈迎祖法王劃生場而乔
信相始於崇禎甲申之歲重葺於 聖朝庚寅之時不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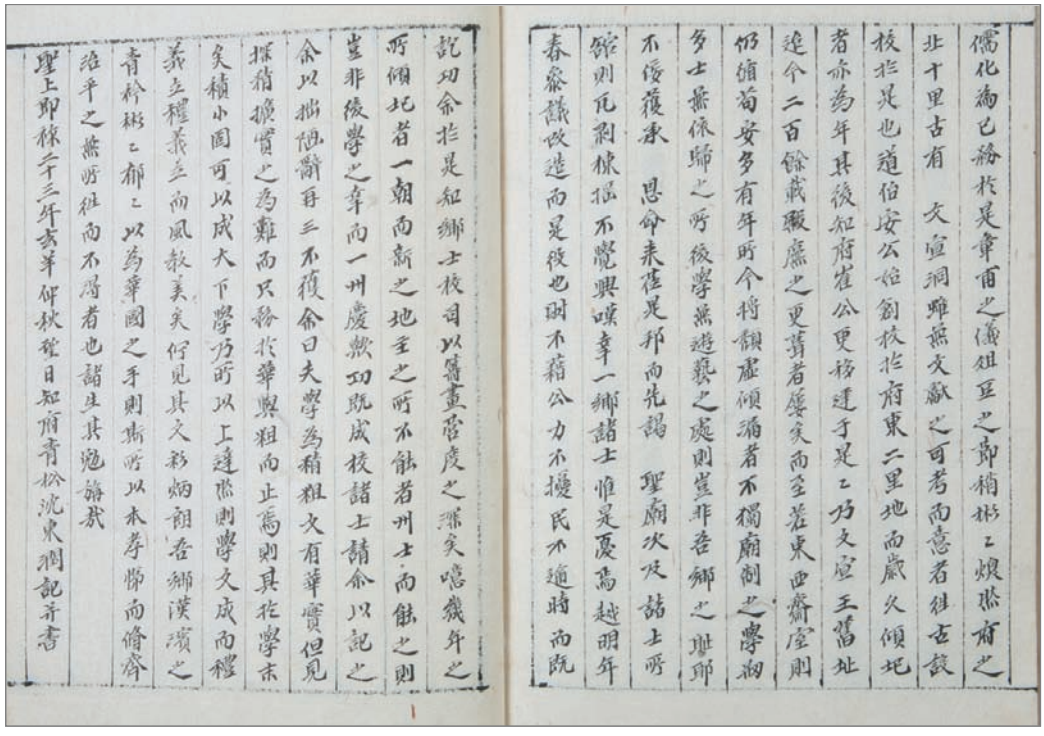


初灰之廢毗遂見舊館之將圮金沙蘇頂衆幷瓦礫之場
祇樹精僊一簇修篁之叢天地人顧竟孰主張日月燈光
自然明滅肉處士之詩社恠悵謝康樂之蠟屐跫跗緊我
尊上人敏悟夐有聰大即墓灵貝葉青連古文透秘衛之
鍵菩提明鏡妙盡登琳瑯之壇眠道林之川王陸之嶺為
方文施文暢之發則韓柳之篇章且藉著暢悟釋之妙
運篝事齊宜碧波即之座定指禪花門倩重肆因信者大
悲之念日續前人未了之緣遂乃像真龍秘容之藏歷歐
蘇外歪之墨跡加推挹丕勸居修日表龍姿問勝光之寵
餞檀香暢桃来水商之法伏人如舊浦之珠遂奇厲斷絕
之勝續慕毋改色重恢初地之規幅圓經增輝聲安真身
之舍利高標仍旧法宇依安金界宝洲福緣有自花宮衆
苑長第吉成參辰陽標語天通呼吸之氣水雲生靄六月
屏蓋惟之氛聊為美夏馬新修標載衆墨竭度無偏筆嚴
惟其巡簷櫳而林樾著蔭按蹄經而境闢面閱天吼奇狀
碎先後之勝談連磨崩光納朝暮之嫣景懶翁之道館猶
在論即之僧眺非虛鳴呼東海神山祝釐之燈長照西方
勝域證善之路不述頭陀重開是謂待其人者善日既覩
潛以有今日哉夏月敲風六時疏鍾發之響分雲劇露萬
壑布蔭羅之園功焉既成卜云其吉慈告十萬之衆卿陳

天僊之謠地標東層巢蒼翠柿簷櫳霽日向林鳴壑遠彩
雲長在碧殊宮地標西倉堂烟雨夕陽低千年更理尋真
夢舊巔灵柯移風啼地標南古廊陰飞暎碧龕不見當時
高蹈蹤晚晴霏翠自成嵐地標北東立千尋山嶽直欲識
高僧千古心君看石上蒼苔色地標上南手去蘆不尋史
俯看三界烟霞深窪鶴飄飞半空響地標不衆降如衆齊
修架清溪一弧古今流住境轉奇松雨飛伏願上標之後
龍象永安鷲巢武輝賢之益燈孔閥貢崗陵之喬齊用慈
筏四方施金葉之聲梵宮寶殿不傾摧靈嶽蒼巢長流時
歲在玄羊仲春上幹知府青松沈東閱撰

襄州校宮齋室重修記

國以學鄉以校其尊聖道而文學飞校者身是故為宮守
以奉聖位設廡齋次列先賢先師堂等明倫堂置齋所飞
以修明 等秩録論儀節者也非士聖道無以明非齋多
士無所録矣然則齋所之於校宮豈徒然而設哉泰惟我
朝 神聖繼承賢哲待興禮樂文明之治不讓於中華者
於今休哉點幽襄亦化育中一撮土耳關之東山水奇秀
而襄處其中昆英灵之精清淑之氣必無虛蓄而鄭在論
古天嘉未破人材不振則聊或有待而然耶自大天歷
衆賴以後按使有安公地主如崔侯者以新修校宮勒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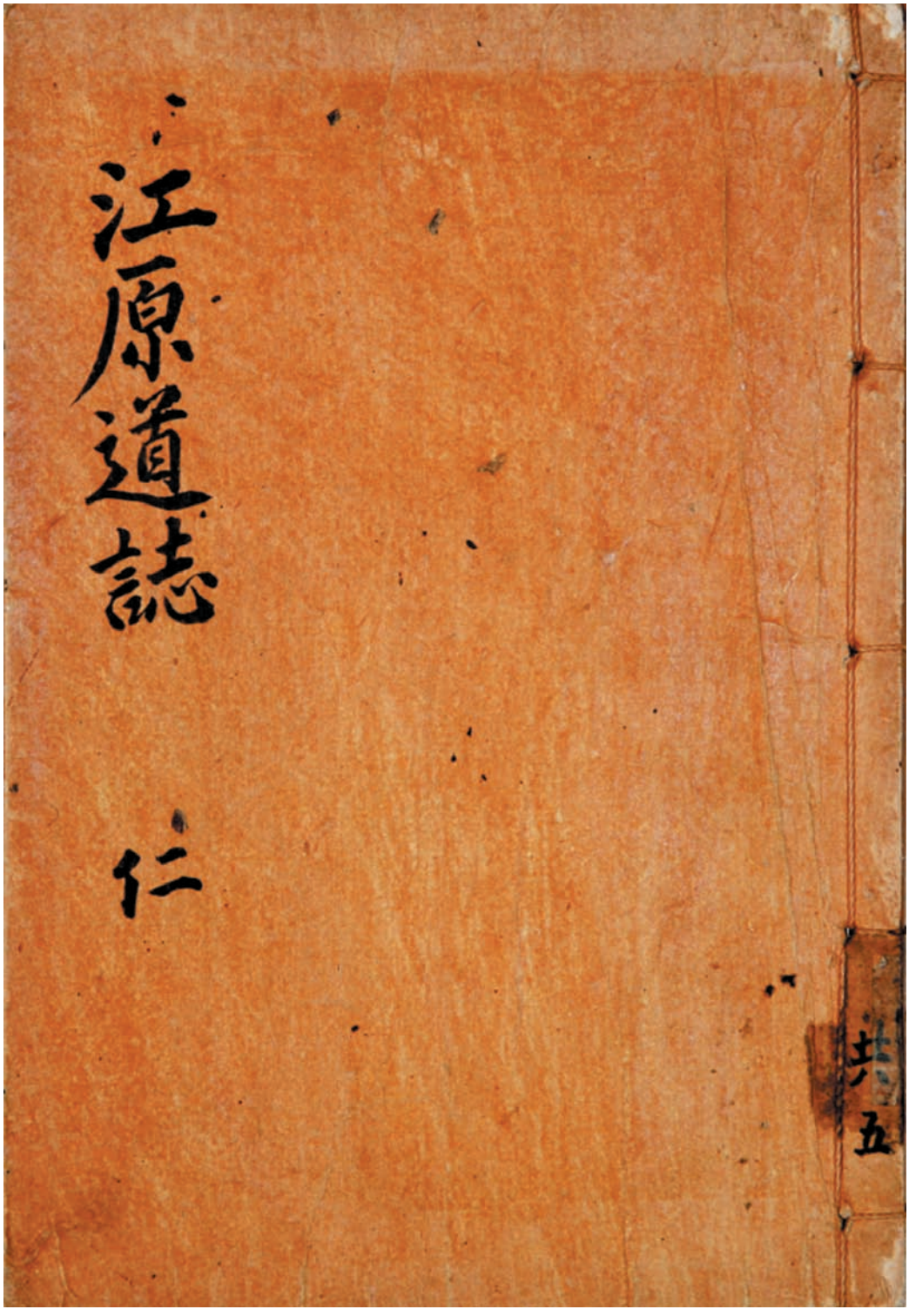
儒化漸已移於是拿雷之儀祖豆之節稱彬之煨燼有之
北十里古有 文宣洞雖無文獻之可考而意者往古設
校於是也道伯安公伯剛校於府東二里地而歲久傾圮
者亦為年其後知府崔公更移建于是乙乃文宣王舊址
迨今二百餘載屢廢之更興者屢矣而至若東西齋廊則
仍頹荀安多有年所今將翻虛傾漏者不獨廟制之學物
多士無依歸之所後學無遊襄之處則豈非吾鄉之壯邱
不復覆承 恩命來莅是邦而先謁 聖廟次及諸士所
館則瓦剝棟摧不覺興嘆幸一鄉諸士惟是廈焉越明年
春衆議改造而是役也財不藉公力不擾民不逾時而既
訖功余於是和鄉士校司以舊畫管度之漸矣噫幾年之
所傾圮者一朝而新之地主之所不能者州士而能之則
豈非後學之幸而一州慶歟功既成校諸士請余以記之
余以拙陋辭再三不獲余曰夫學為稽粗文有華實但見
棟稍擴實之為難而只務於華與粗而止焉則其於學未
矣積小國可以成大下學而可以上達然則學文成而禮
義立禮義立而風教美矣何見其文彩炳煥之為貴乎鄉
青於藍之郁之以為華國之手則斯所以求孝悌而脩齊
治平之無所往而不屑者也諸生其勉諸哉
聖上即祚二十三年癸未仲秋旣日知府青松沈東洞記并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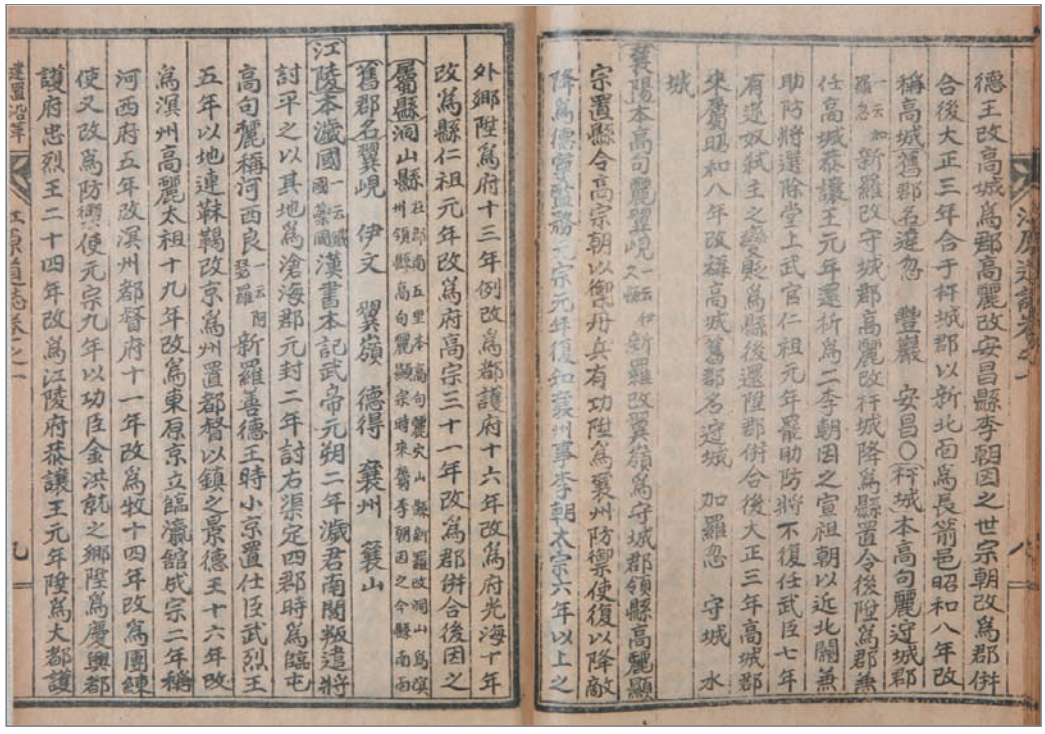
강원도지江原道誌

1940년 9월 일제강점기 총 11권으로 편찬했으며 당시 일본인 도지사 이등태빈(伊藤泰彬)이 머리에 서(序)하고 이어 김윤경(金潤卿)·윤병기(尹炳夔)·김기옥(金基玉)·김용제(金鎔濟)가 서문한 강원도지로서, 여지승람, 고기, 삼국유사, 고려사, 강역고문헌비고, 택리지, 팔도읍지, 연려실기, 전고대방, 국조방목, 동사강목, 동문선, 동학지, 노릉지, 장릉사보, 사찰비, 고조선씨족통보, 제가문집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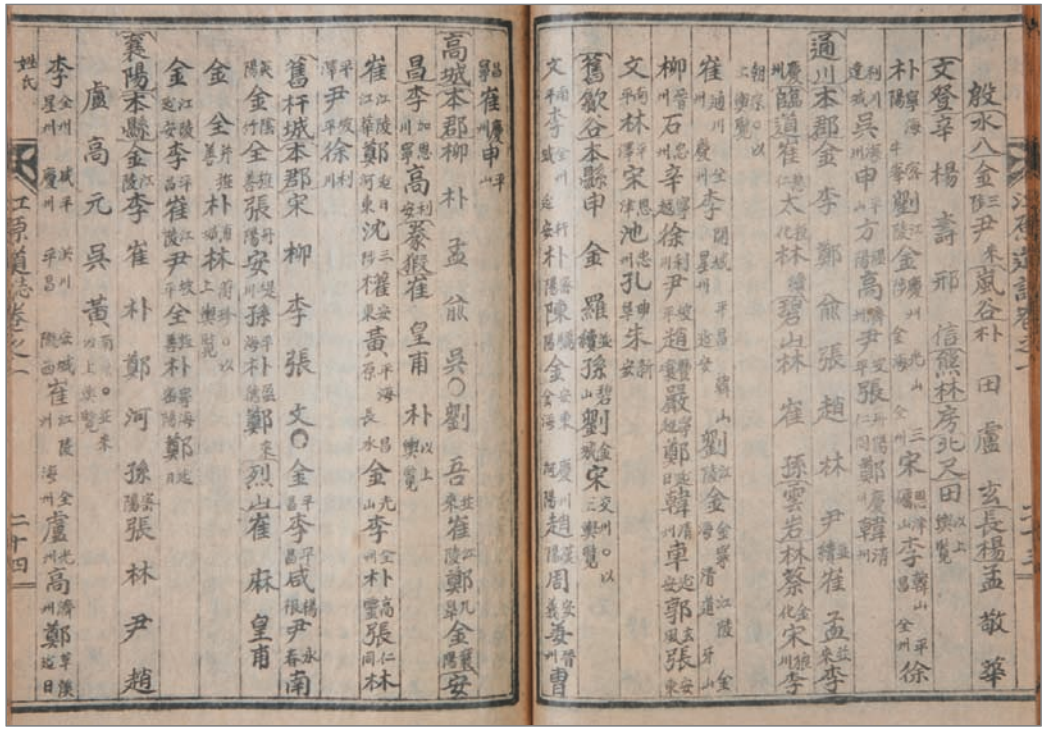
제1권 건치연혁(建置沿革) 위치급지세(位置及地勢) 관직(官職) 성씨(姓氏) 풍속(風俗) 형승(形勝), 제2권 산천(山川), 제3권 고적(古蹟) 토산(土産) 읍면정리(邑面町里) 호구(戶口) 토지(土地) 세액(稅額) 도로(道路) 교량(橋梁) 제언(堤堰) 항만(港灣) 공해(公廨) 관공서(官公署), 제4권 교원(校院) 단사(壇祠) 신사(神社) 누정(樓亭), 제5권 사찰(寺刹) 종교(宗敎) 교육(敎育) 세거씨족(世居氏族) 공공단체(公共團體) 통신(通信) 금융(金融) 시장(市場), 제6권 선생안부서장(先生案附署長), 제7권 문과(文科) 무과(武科) 사마(司馬) 일천(逸薦), 제8권 사환(仕宦) 음사부서사(蔭仕附筮仕) 수직(壽職) 유현(儒賢) 유행(儒行) 문학(文學) 필원(筆苑), 제9권 충의(忠義) 효행(孝行) 열행(烈行) 현원(賢媛) 규행(閨行) 명류(名流) 자선(慈善) 독지(篤志), 제10권 우거(寓居) 적거(謫居) 고승(高僧) 제영(題詠) 총담부기사(叢談附記事) 능묘(陵墓) 비판(碑板) 책판(冊板), 제11권 부록(附錄)

본지에 첨부한 부록 물은 양양군의 기록만을 발췌 복사하여 편집실에서 재편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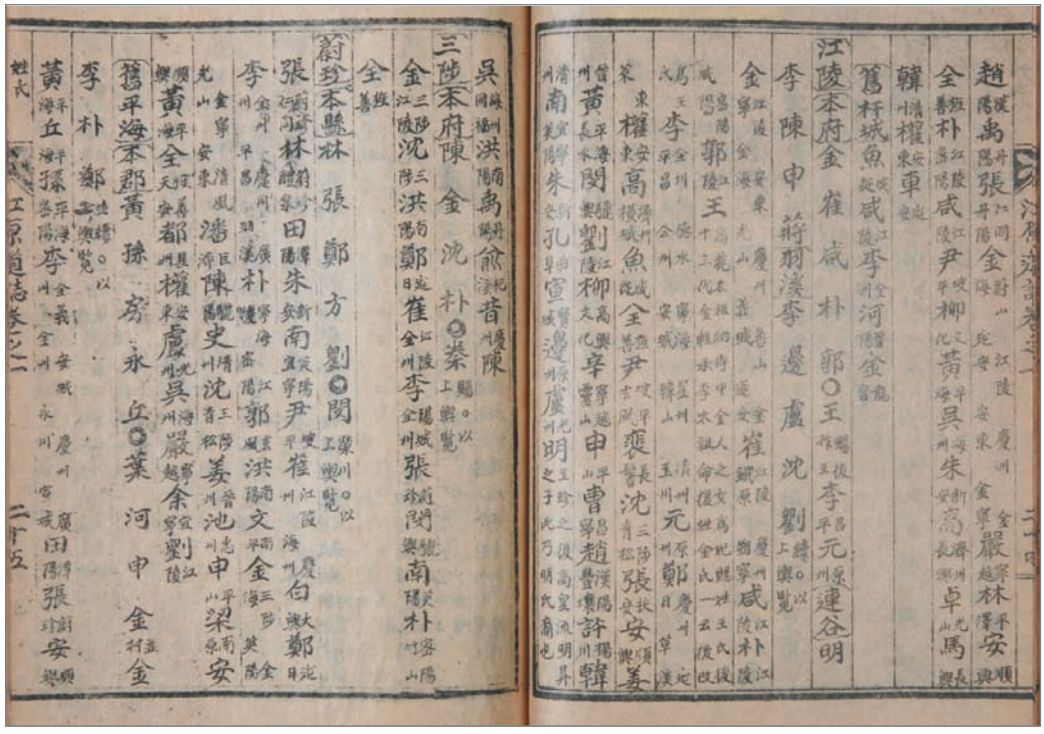

江原道誌
仁
共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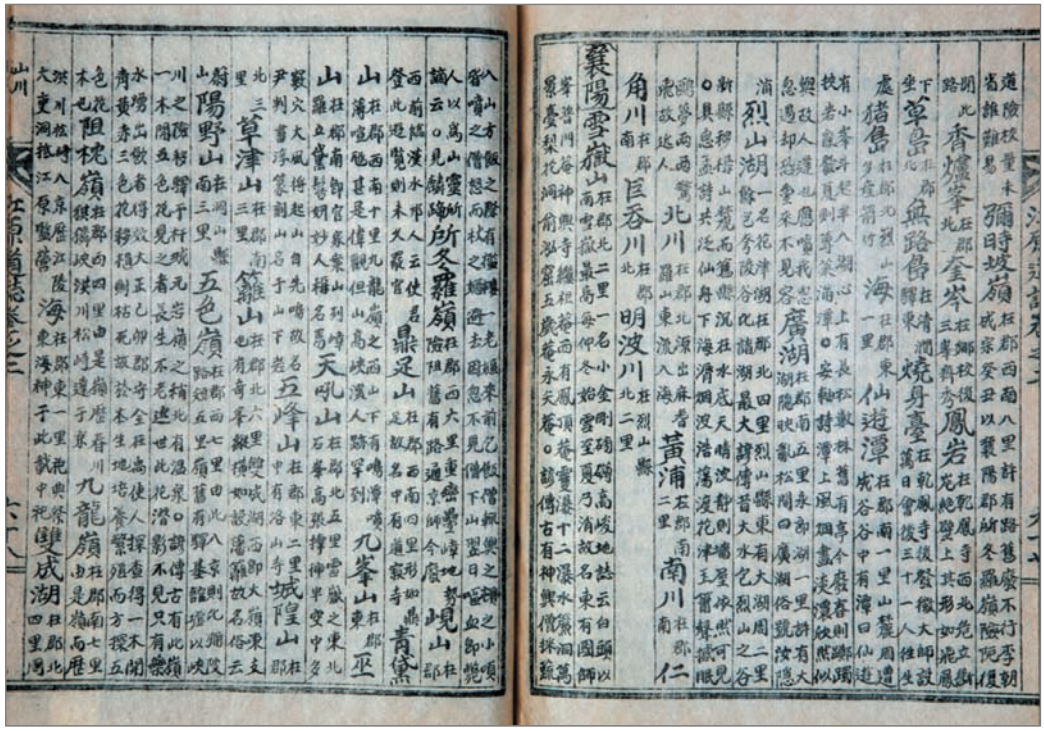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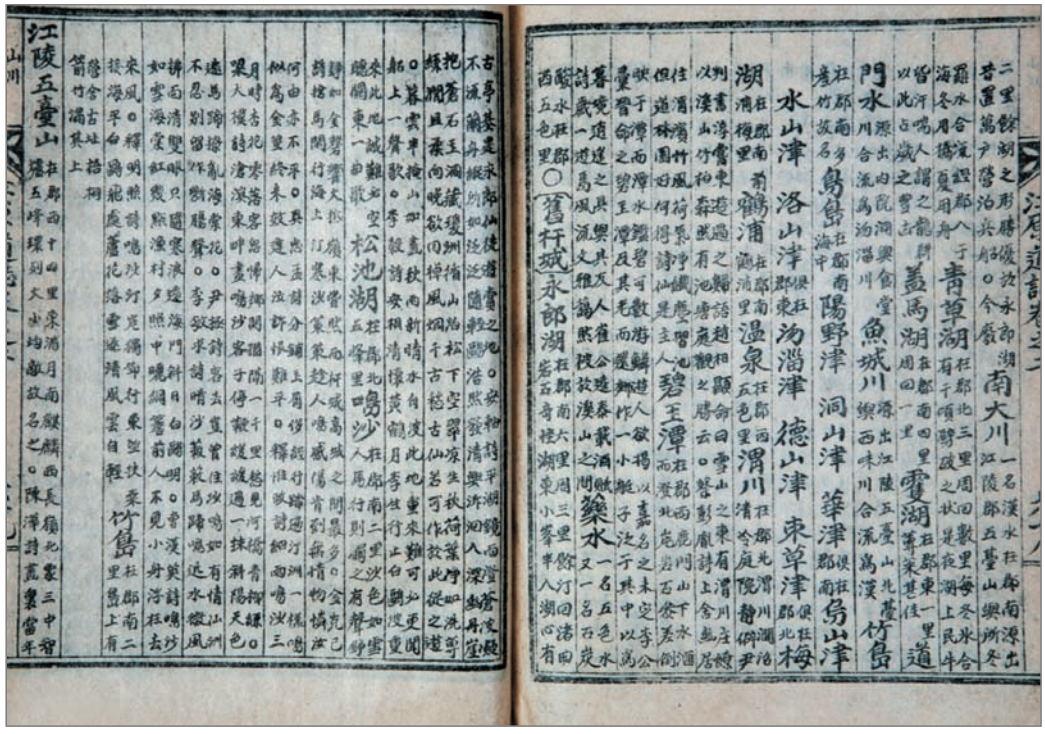
德王改高城爲郡高麗改安昌縣李朝因之世宗朝改爲郡併
合後大正三年合于杆城郡以新北面爲長箭邑昭和八年改
稱高城舊郡名遽忽 豐巖 安昌○杆城本高句麗遊城郡
一云加新羅改守城郡高麗改杆城降爲縣置令後陞爲郡兼
任高城森壤王元年還析爲二李朝因之宣祖朝以近北關兼
助防將選除掌上武官仁祖元年罷助防將不復任武臣七年
有逆奴弒主之變貶爲縣後還陞郡併合後大正三年高城郡
來屬昭和八年改稱高城舊郡名遊城 加羅忽 守城 水
城
襄陽本高句麗翼峴一云伊新羅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
宗置縣令高宗朝以蒙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復以降敵
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李朝太宗六年以上之
外鄉陞爲府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爲府光海十年
改爲縣仁祖元年改爲府高宗三十一年改爲郡併合後因之
屬縣洞山縣在郡南五里本高句麗交山縣新羅改洞山爲溟
州領縣高句麗謚宗時來屬李朝因之今縣南面
舊郡名翼峴 伊文 翼嶺 德得 襄州 襄山
江陵本濊國一云藏國漢書本記武帝元朔二年濊君南閭叛造將
討平之以其地爲滄海郡元封二年討右渠定四郡時爲臨屯
高句麗稱河西良一云阿新羅善德王時小京置仕臣武烈王
五年以地連靺鞨改京爲州置都督以鎮之景德王十六年改
爲溟州高麗太祖十九年改爲東原京立臨瀛館成宗二年稱
河西府五年改溟州都督府十一年改爲牧十四年改爲團練
使又改爲防禦使元宗九年以功臣金洪就之鄉陞爲慶興都
護府忠烈王二十四年改爲江陵府恭讓王元年陞爲大都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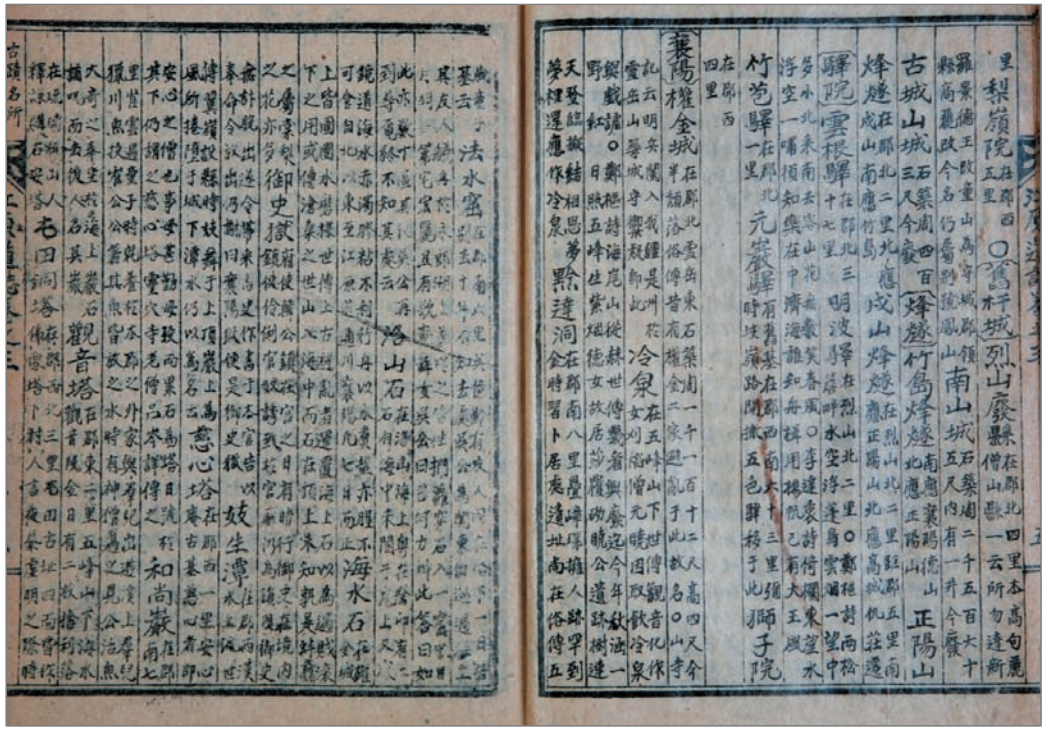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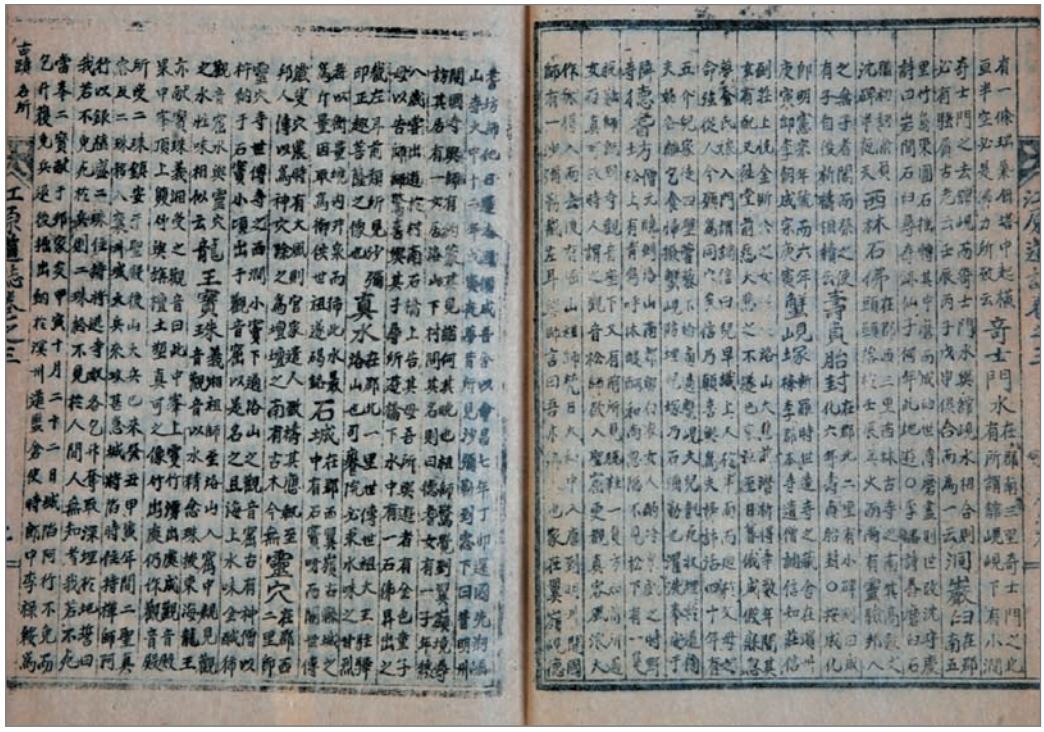
殷水八金三尹宋嵐谷朴 田 盧 玄長楊孟 敬 華
文登卓 楊 壽 邢 信熊林房北又田與覽
朴陽 宋 李 徐
吳 申 方 高 尹 張 鄭 韓
通川本郡金 李 鄭 俞 張 趙 林 尹 禮崔 孟 李
臨道崔 太林 碧山林 崔 孫雲岩林祭 李
崔 李 劉 金 金 劉 金
柳 石 辛 徐 尹 趙 鄭 韓 卓 郭 張
文 林 宋 池 孔 朱
舊歙谷本縣申 金 羅 孫 劉 宋
文 李 朴 陳 金 趙 周 曹
高城本郡柳 朴 孟 俞 吳○劉 吾 崔 鄭 金
昌李 高 崔 皇甫 朴
崔 尹 徐
鄭 沈 黃 金 李 張
舊杆城本郡宋 柳 李 張 文○金 咸 尹
金 安 孫 鄭 烈 崔 麻 皇甫
金 全 朴 林 金 鄭
襄陽本縣金 李 崔 朴 鄭 河 孫 張 林 尹 趙
盧 高 元 吳 黃
李 崔 盧 高 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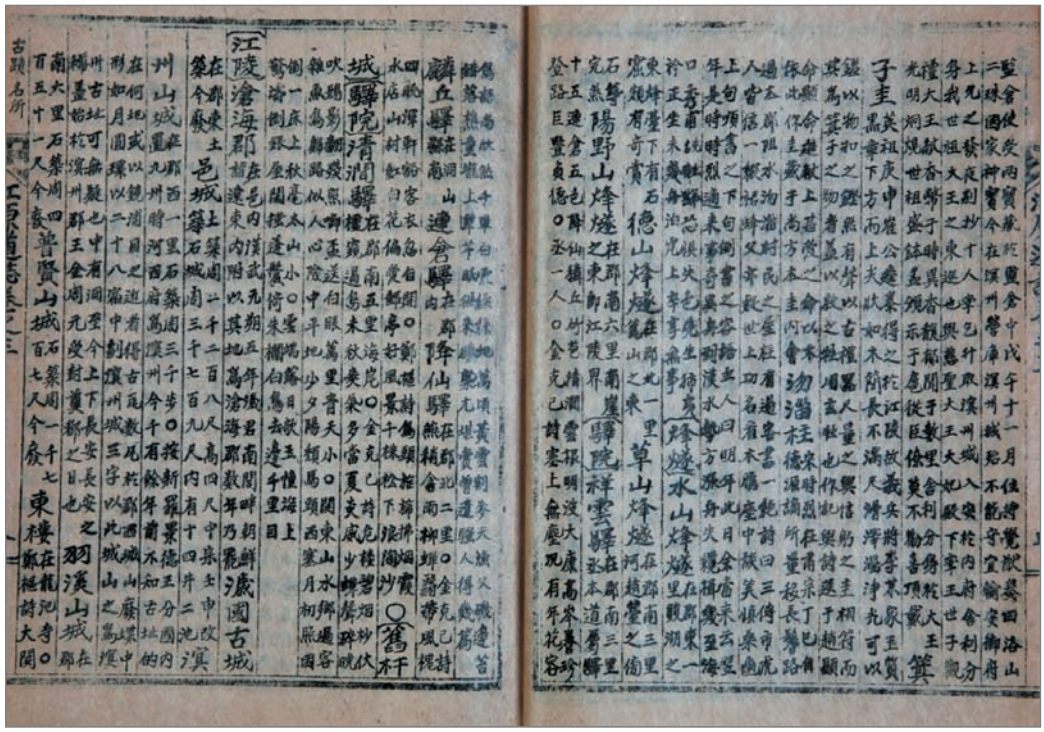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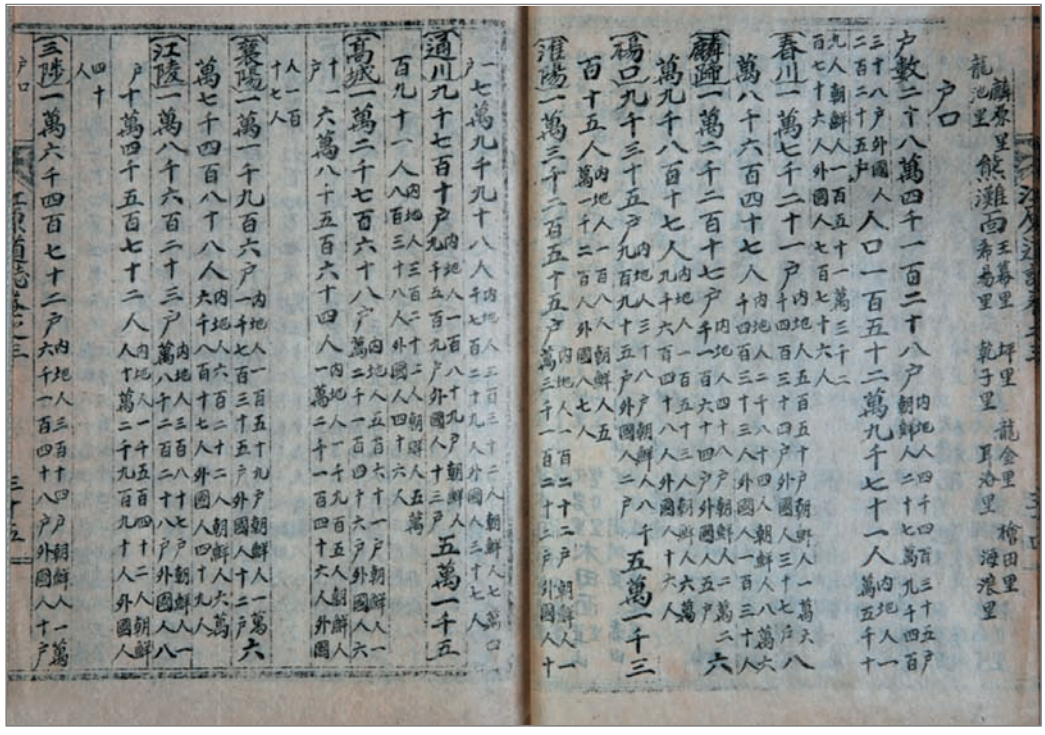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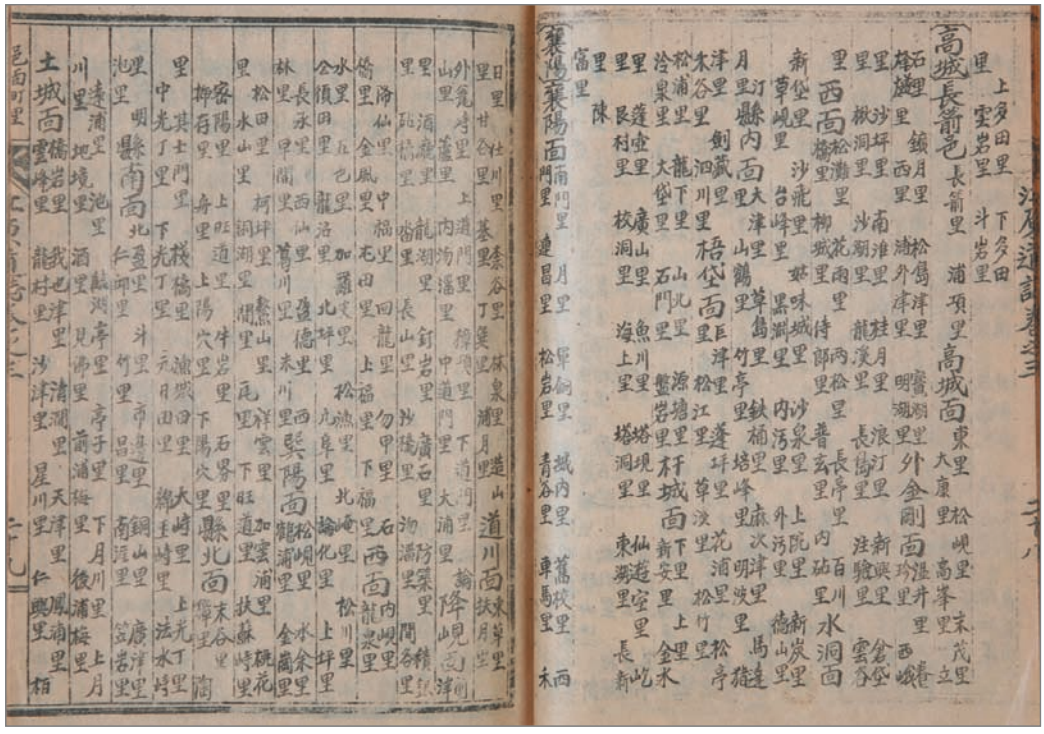
煙草 木材 大麻 砂金 金 山猪 水獺皮
淮陽鉛鐵出郡西水非山 磁石 漆 弓幹桑出郡東城嶺 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蔘 茯苓 松蕈 石蕈 蜂蜜 羚羊 白花
蛇 鮭魚 餘項魚 錦鱗魚 重石 木材 麻布 楮
煙草 白苧 沙蔘 鬱金 當歸 川椒 栢子
通川五味子 人蔘 地黃 茯苓 石蕈 蜂蜜 水泡石
確 鯕 紅蛤 魴魚 文魚 松魚 廣魚 黃魚 鰱魚
大口魚 古刀魚 秀魚 銀口魚 銀魚 海蔘 重石
麻布 洪魚 烏賊魚 鹽 金○舊欽谷鰱魚 大口魚
文魚 黃魚 銀魚 魴魚 松魚 古刀魚 麻魚 廣
魚 銀口魚 鯕 紅蛤 海蔘 蜂蜜 石蕈 人蔘 補
骨脂 地黃 茯苓 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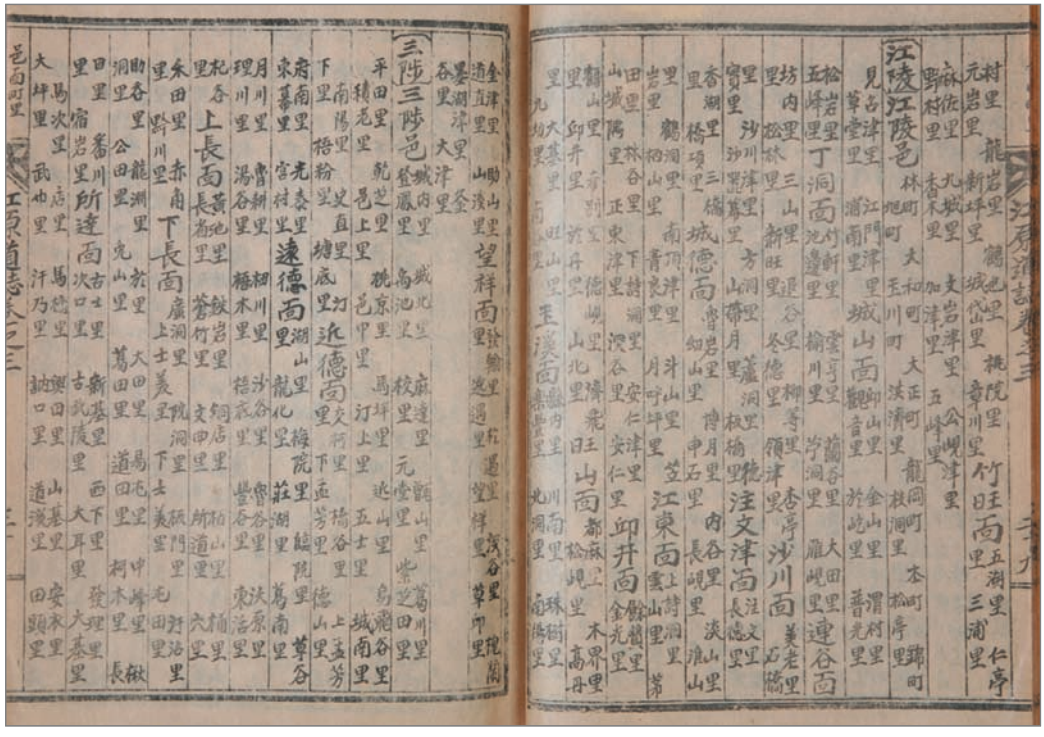
高城磁石出金剛山中靑石出郡西水精石出郡北水爐石出郡北
珍白石英出郡西孤井洞 五味子 人蔘 地黃 茯苓 松蕈 蜂
蜜 白花蛇 蘿 牛毛 細毛 鯕 海蔘 紅蛤 文魚
大口魚 鰱魚 松魚 魴魚 銀口魚 黃魚 廣魚
古刀魚 秀魚 麻魚 銀魚 蕈 鹽 海苔 砂金 石
炭 水晶 木材○舊杆城竹箭出杆城烏及 漆 五味子 人
蔘 地黃 茯苓 松蕈 蜂蜜 白花蛇 海衣 蘿 鯕
紅蛤 文魚 大口魚 鰱魚 松魚 魴魚 銀口魚
黃魚 廣魚 古刀魚 白魚 海蔘 何首烏
襄陽人蔘 蜂蜜 鉄 鐵 麻布 苧布 鰛 鰊 間 海
草 大口魚 和布 紅蛤 海蔘 烏賊魚 鹽 棉花
木材 鰊 鰛 鮎 鮫 鰕
土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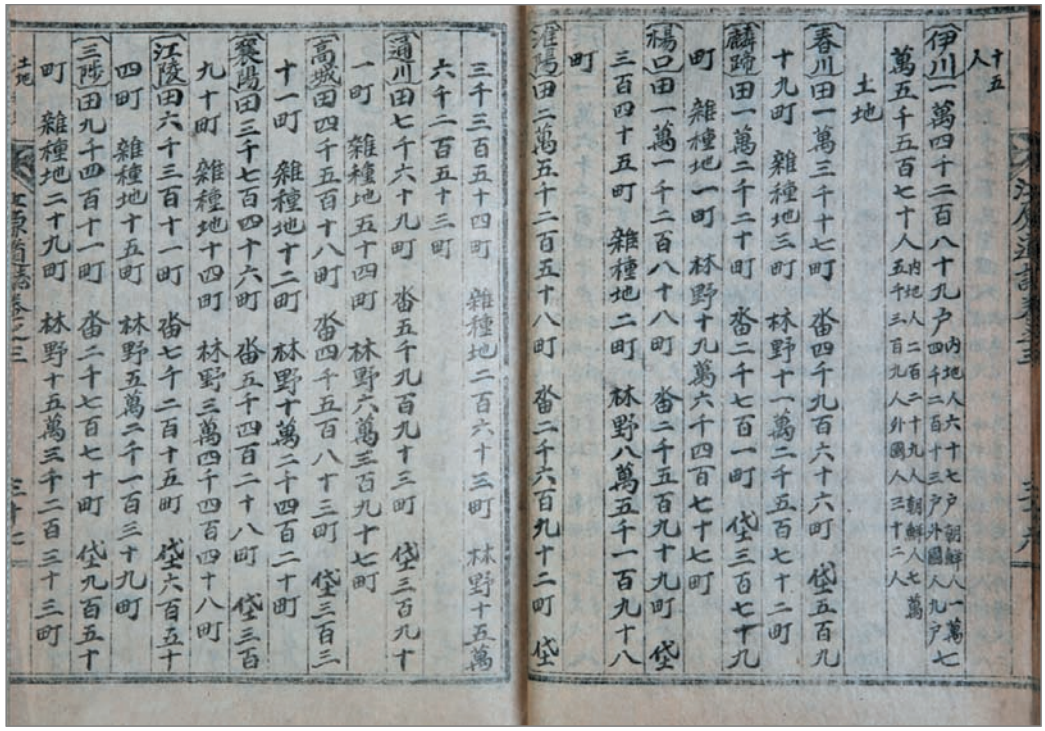


麟蹄里 龍泉里 熊灘面 三幕里 坪里 龍金里
希易里 乾子里 耳沙里 檜田里 海浪里
戶口
戶數二十八萬四千一百二十八戶內地人二十七萬九千四百三十五戶朝鮮人二千七萬九千四百三十八戶外國人二百二十五戶 人口一百五十二萬九千七十一人內地人一百五十一萬三千二百九人朝鮮人一百五十一萬三千二百七十六人外國人七百七十六人
春川一萬七千二十一戶內地人五百五十戶朝鮮人一萬六千四百三十四戶外國人三十七戶 八萬八千六百四十七人內地人二千八十四人朝鮮人八萬六千四百三十三人外國人一百三十人
麟蹄一萬二千二百十七戶內地人四十八戶朝鮮人一萬一千六十四戶外國人五戶 六萬九千八百十七人內地人九千六百四十八人朝鮮人六萬一千六百六十六人
楊口九千三十五戶內地人三十八戶朝鮮人八千九百九十五戶外國人二戶 五萬一千三百十五人內地人一百八人朝鮮人五萬一千二百八人外國人七人
渭陽一萬三千二百五十五戶內地人一百二十二戶朝鮮人一萬三千一百二十三戶外國人十

戶口
一七萬九千九十八人內地人一百八十九戶朝鮮人七萬九千七百二十九人外國人七人
通川九十七百十戶內地人一百八十九戶朝鮮人五百九戶外國人十三戶 五萬一千五百九十一人內地人三百二十二人朝鮮人四十六人
高城一萬二千七百六十八戶內地人五百六十一戶朝鮮人一萬一千六百四十一戶外國人六戶 六萬一千六百八十四人內地人一千九百五人朝鮮人五萬九千七百七十九人
襄陽一萬一千九百六戶內地人一百五十九戶朝鮮人一萬一千七百三十五戶外國人十二戶 六萬七千四百八十八人內地人六百二十二人朝鮮人六萬六千七人外國人四十九人
江陵一萬八千六百二十三戶內地人三百八十七戶朝鮮人一萬八千二百二十八戶外國人八戶 十萬四千五百七十二人內地人一千五百四十二人朝鮮人八萬九千九百十人外國人
三陟一萬六千四百七十二戶內地人三百十四戶朝鮮人一萬六千一百四十八戶外國人十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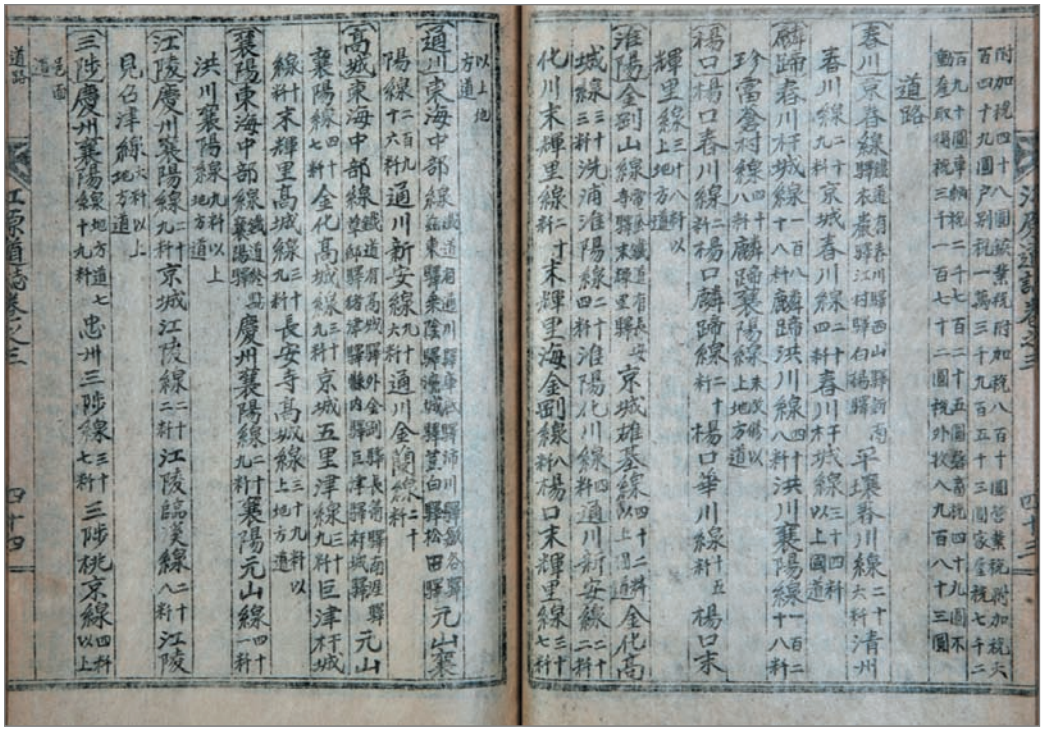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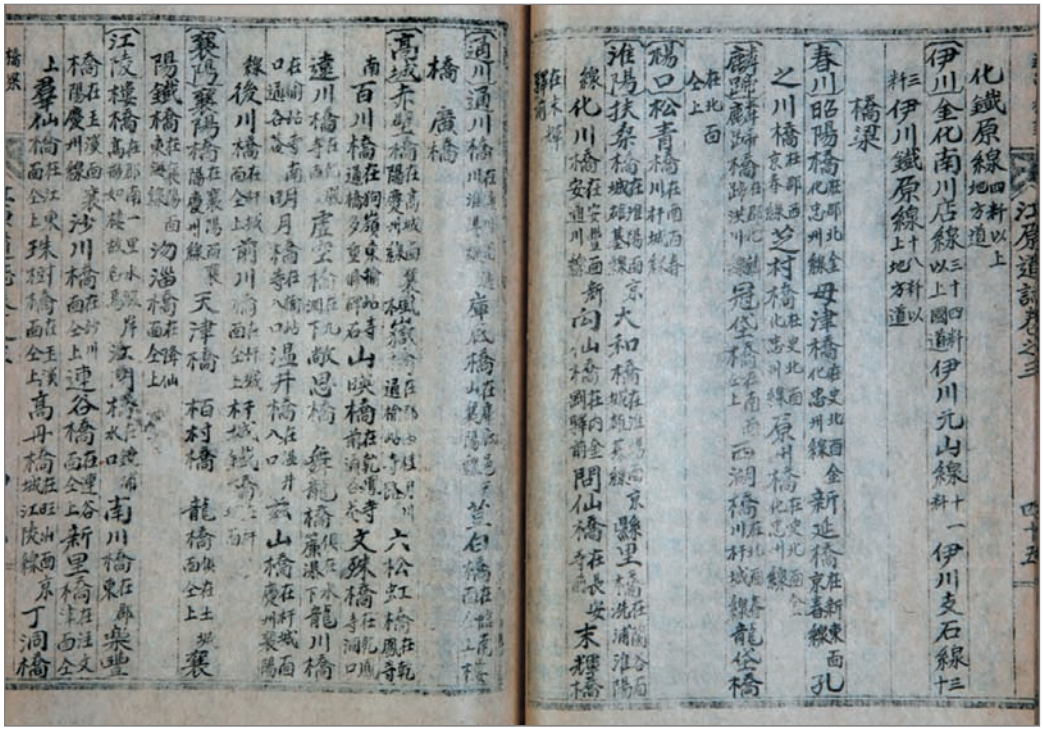


十五
人
伊川一萬四千二百八十九戶內地人六十七戶朝鮮人一萬七
四千二百十三戶外國人九戶
萬五千五百七十人內地人二百二十九人朝鮮人七萬
五千三百九人外國人三十二人
土地
春川田一萬三千十七町 畓四千九百六十六町 垈五百九
十九町 雜種地三町 林野十一萬二千五百七十二町
麟蹄田一萬二千二十町 畓二千七百一町 垈三百七十九
町 雜種地一町 林野十九萬六千四百七十七町
楊口田一萬一千二百八十八町 畓二千五百九十九町 垈
三百四十五町 雜種地二町 林野八萬五千一百九十八
町
淮陽田二萬五千二百五十八町 畓二千六百九十二町 垈
三千三百五十四町 雜種地二百六十三町 林野十五萬
六千二百五十三町
通川田七千六十九町 畓五千九百九十三町 垈三百九十
一町 雜種地五十四町 林野六萬三百九十七町
高城田四千五百十八町 畓四千五百八十三町 垈三百三
十一町 雜種地十二町 林野十萬二十四百二十町
襄陽田三千七百四十六町 畓五千四百二十八町 垈三百
九十町 雜種地十四町 林野三萬四千四百四十八町
江陵田六十三百十一町 畓七千二百十五町 垈六百五十
四町 雜種地十五町 林野五萬二千一百三十九町
三陟田九千四百十一町 畓二千七百七十町 垈九百五十
町 雜種地二十九町 林野十五萬三千二百三十三町

七
圖
通川國稅十萬七千四百六十八圓地稅二萬五千七百二十四
十一圓錢稅一萬三千二百八圓酒稅五萬四千九百二圓營
業稅一千五百五十四圓相續稅二百二十八圓稅外收入八
一圓道稅六萬六千十四圓地稅附加稅二萬六百六圓所得
圓七百五十八圓營業稅附加稅三百十三圓戶別稅一萬一千
五百三圓家屋稅五千十圓林野稅六千五百十二圓車馬稅
二千三百二十八圓屠畜稅一千四百四十七圓漁業稅五千
千一百六圓不動產取得稅五千八百二十七圓船稅外收入
百三十
二圓
高城國稅十三萬一千三百二十六圓地稅一萬七千四百四圓
所得稅五萬一千六百二圓
十三圓錢稅九千七百三十七圓酒稅四萬五千八百五十二
圓營業稅五千三百五十七圓相續稅四百二十三圓稅外收
入七百三十圓道稅七萬七千三十八圓地稅附加稅一萬三千四百
所得稅附加稅一萬三千四百
八圓所得稅附加稅一千五
百二十圓戶別稅一萬一千八百十
八圓家屋稅八千三百二十九圓林野稅四千七百二十二圓
車馬稅五千二十九圓屠畜稅三千二百二十五圓漁業稅二
萬一千五百七十圓不動產取得稅四千八百九十七圓稅外

收入三百八十圓營業稅
附加稅一千七十二圓
襄陽國稅六萬四千五百九十一圓地稅二萬一千七百六十八
圓錢稅一千九百二十圓酒稅二萬四千六百三十八
千三百五圓相續稅二千八百十圓稅外收入三百四十圓營業稅三
百五十二圓
道稅五萬六千四百六圓地稅附加稅一萬七千六百五圓所
得稅附加稅七十九圓營業稅附加稅四百五十七圓戶別稅一萬一
千七百七十圓家屋稅六十七百四十三圓林野稅三千六百
二圓漁業稅五十八十二圓車輛稅二千九百二十四圓屠畜稅一千八百五十
外收入一千
百五十二圓
江陵國稅十六萬一千二百六十九圓地稅三萬三千七百二圓
所得稅四萬一千八百四
十三圓錢稅八千三百九十八圓酒稅六萬四千六百四十六
圓營業稅九千四百二十三圓相續稅一百四十六圓鯨特利得
一千九百十九圓稅道稅九萬一千一百二十一圓地稅附加
稅二萬六
百六十八圓所得稅附加稅七百十三圓錢稅附加稅二千二百七十圓戶別稅二萬三
千五百三十二圓家屋稅一萬一千五百二十三圓林野稅五
十三百七十九圓車輛稅九千三十圓屠畜稅三千一百六十





港灣

通川 庫底港 在庫底邑

高城 長箭港 在長箭邑 巨津港 在杆城面

襄陽 大浦港 在襄陽面

江陵 安木港 一名見召津港在江陵邑十里 注文津港 在新里面注文里 墨湖港 在望祥面墨湖里

三陟 汀羅港 在三陟邑 德山港 在近德面德山里 莊湖港 在遠德面莊湖里 臨院港 在近德面臨院里 湖山港 一名芙湖港在遠德面湖山里

蔚珍 竹邊港 在蔚珍面竹邊里 蔚珍港 在蔚珍面 厚浦港 在平海面厚浦里

堤堰

春川 阿次池 在郡北三里蓮花表盛中處純祖丙戌修築民多蒙利 銅峴池 在郡北二里中廢丙戌修築

水精池 在郡西二里 長嵓伐堤 在郡東二里留守府使孟壽男因嵓下築石剡木引泉作堤灌水走壑新

杏堤谷防築 判書尹世豪卜居西村防堤谷川水作畓於城上人多蒙利中廢丙戌修築 犬淵築 在郡南中廢丙戌築人多蒙利○以上 昭陽堤 在郡北昭陽江岸 養魚池

李公堤 在春川邑知事李圭完創設 以備水患前知事李圭完故邑人立銅像紀績

朝淵堤 在新北面泉田里 城山堤 在春川邑退溪里 泉田洑 在新北面水利組合所築 退

洞堤 在西面水利組合所築 弘谷堤 在西面玄岩水利組合所築 銅浦堤 在新西面銅浦水利組合所築

麟蹄 圓通防築 在郡北圓通里瑞和川岸

楊口 西湖洑 在北面西湖里

淮陽 水利組合貯水堤 在蘭谷面水利組合所築

通川 餘岐堤 在郡內長三百六十尺廣二百四十尺周四百二十尺 登禾堤 在守念長一百五十尺廣三百二十尺周六百八十八尺 項島峰堤 在郡內八里長三百八十尺廣三百二十尺周六百八十八尺 龍淵洑 在通川面芳洞里 貪郊坪洑 在面紫谷

高城 鑑湖堤 在縣西周一里有士夯氷木亭舊址 犯津湖堤 在杆城面周三里有西洋人別莊 黑淵堤 在西面周一里 高峰堤 在郡南

襄陽 青谷堰 在郡北 斷峴堰 在郡北二里沙峴面 田村堤 在郡南七里縣南面 松池堤 在西面周一里

江陵 伐列堤 在郡北 沙斤谷堤 在郡北一里 方洞堤 在郡南 海南堤 在郡東一里以上今廢

三陟 湖山堤 在遠德面大正乙未為洪水所破北今新築 柯川堤 在遠德面改築 池上堤 在池渭道宜

蔚珍 松亭堤 在郡北二里周回三百七十七尺長一百五十三尺廣百四十三尺 九佐里堤 在郡北二里周回四百八十尺長二百八十五尺廣一百五十四尺 甘大堤 在郡北周回六百六十尺長百四十尺廣百十尺

平昌 溪長洑 在平昌面多水里 餘萬洑 在平昌面判書李敦榮築 道敦洑 在平昌面道敦里 蓬山後坪洑 在平昌面後坪里 邑內洑 在平昌面判書李瑞永築 多水里洑 在平昌面

上洑 下洑 寺承旨李根培春先築

旌善 新月洑 在旌善面新月里

寧越 老姑沼洑 在水周面講林里

原州 池內堤 在郡西七里周六百四十尺長二百七十四尺廣一百五十八尺中為水池堤下土地皆為沙石聞今廢

沙堤 在郡西三里周五百八十八尺長三百十一尺廣八十九尺中為水池今廢

橫城 前坪洑 在郡東仁祖乙亥知縣具鏻築引灌以利民 盤踞里洑 在公根面 公根洑 在公根面草堂里 茅坪新洑 源出盤谷里許萬築

華川 龍頭堤 在郡南每大水有患故大正壬子自官設鐵岸工事築成延長十五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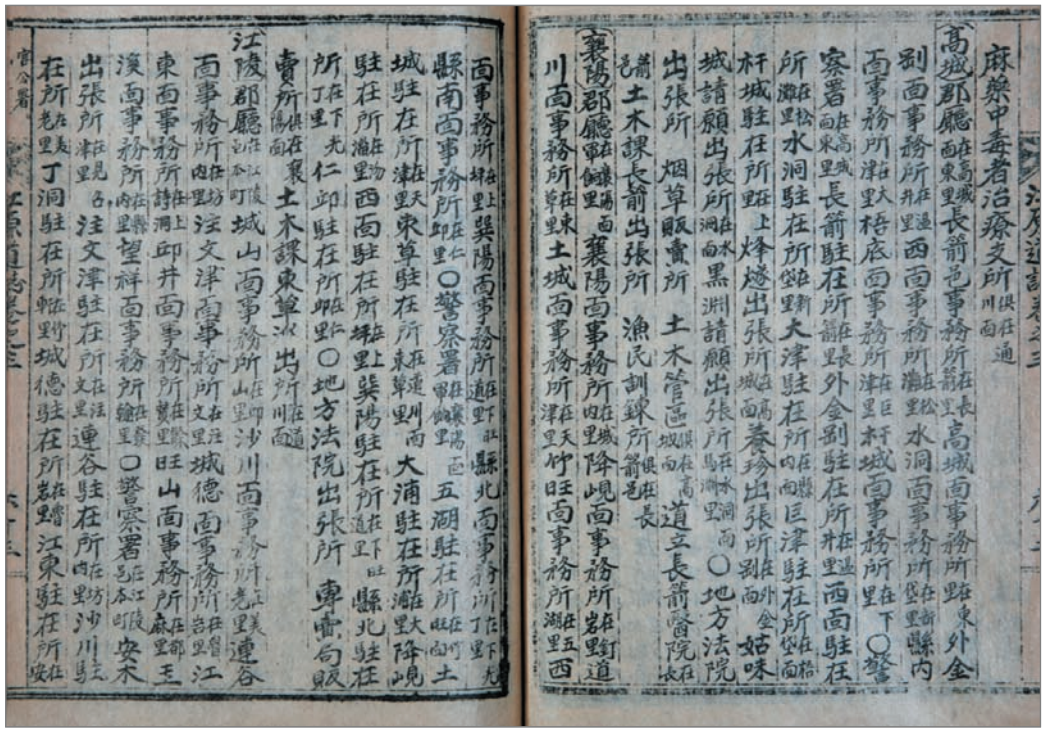
金化 生昌堤 在金化面遺會議員金基玉謀有志知郡守李教貞

長十町 窯峴堤 在近南面中宗朝以灌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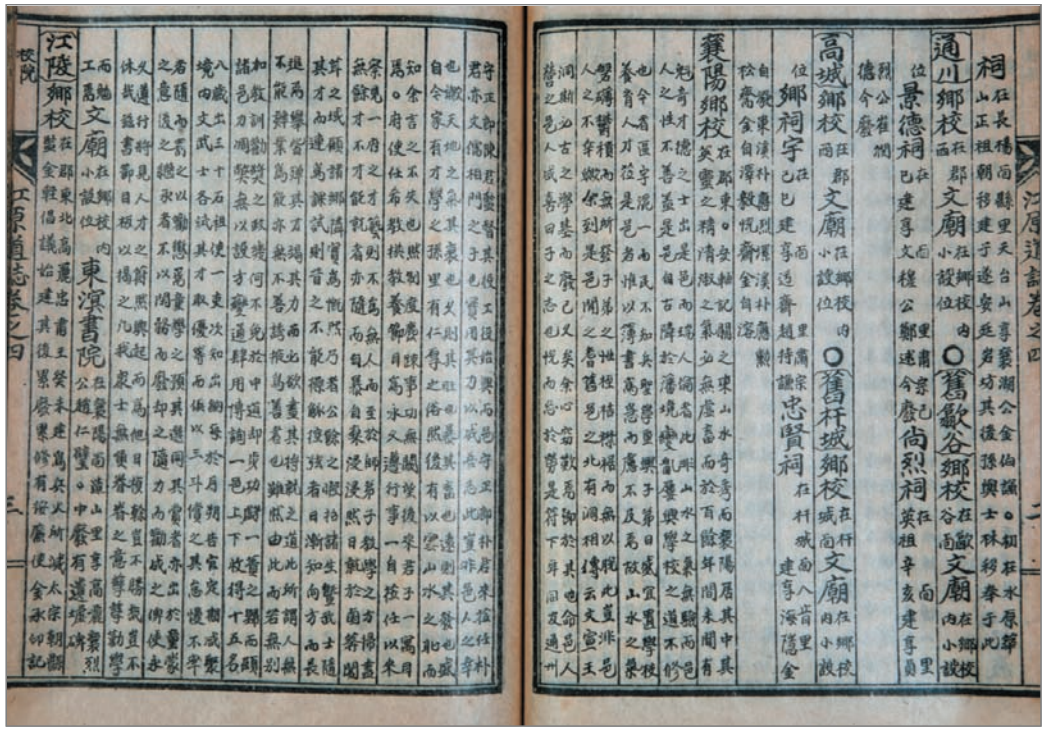
柏洞堤 在近北面周七百二十尺 日暮時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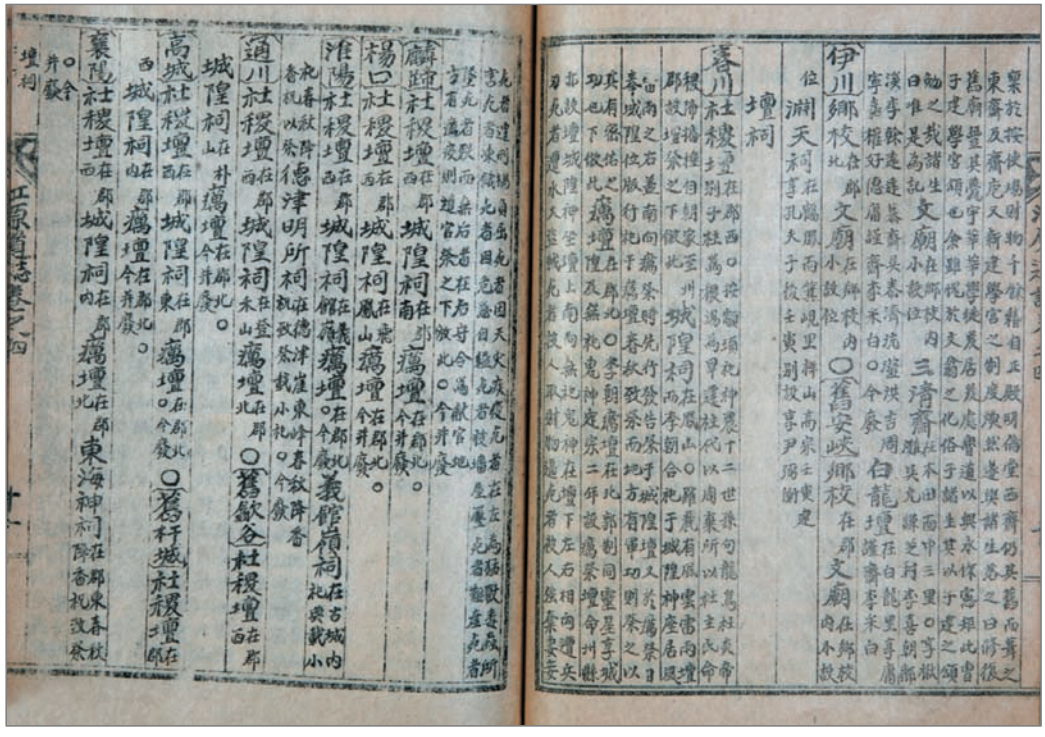
之許 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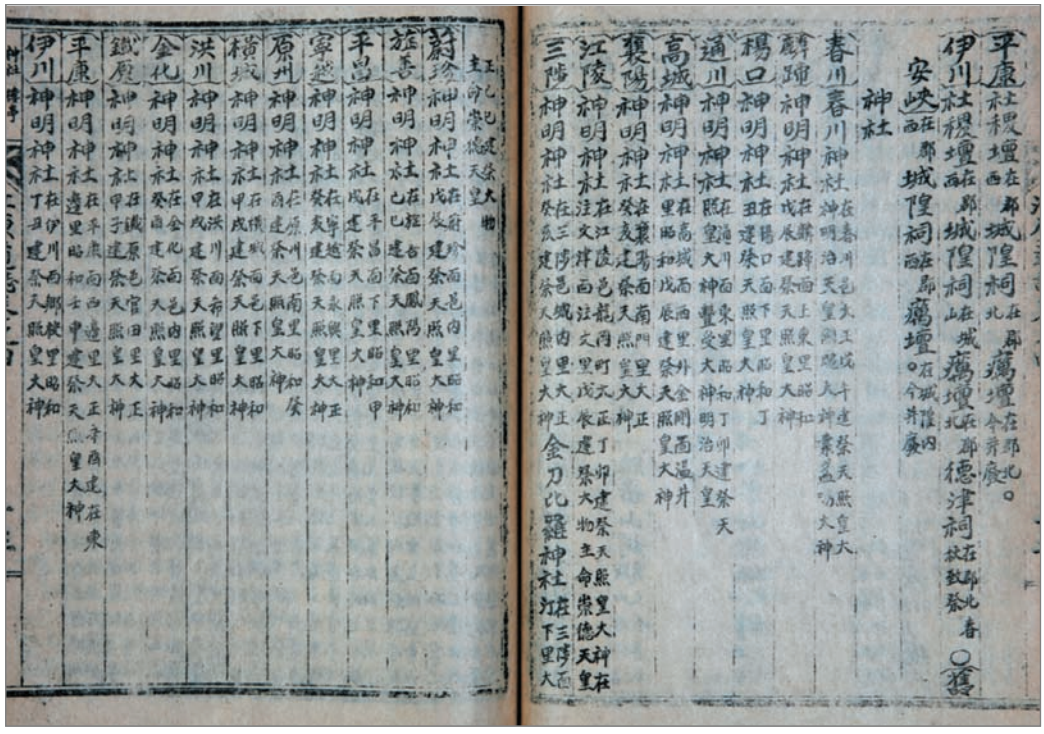
通川通川客館 官衙 吏隱堂 官廳 軍官廳 人吏廳 大同廳 郡倉 南倉 軍器庫 籍庫 軍器庫 獐谷客館 官衙 東軒 將官廳 軍官廳 人吏廳 大同廳 縣倉 鶴浦倉 戶籍庫 軍器庫 高城客館 官衙 東軒 戶籍庫 軍器庫 杆城客館 官衙 東軒 鄉廳 將官廳 軍官廳 人吏廳 大同廳 司倉 戶籍庫 軍器庫 襄陽客館 官衙 臥遊軒 熊堂 鄉廳 將官廳 軍官廳 人吏廳 大同廳 司倉 洞山倉 降仙倉 戶籍庫 軍器庫 江陵館 集賢殿 御製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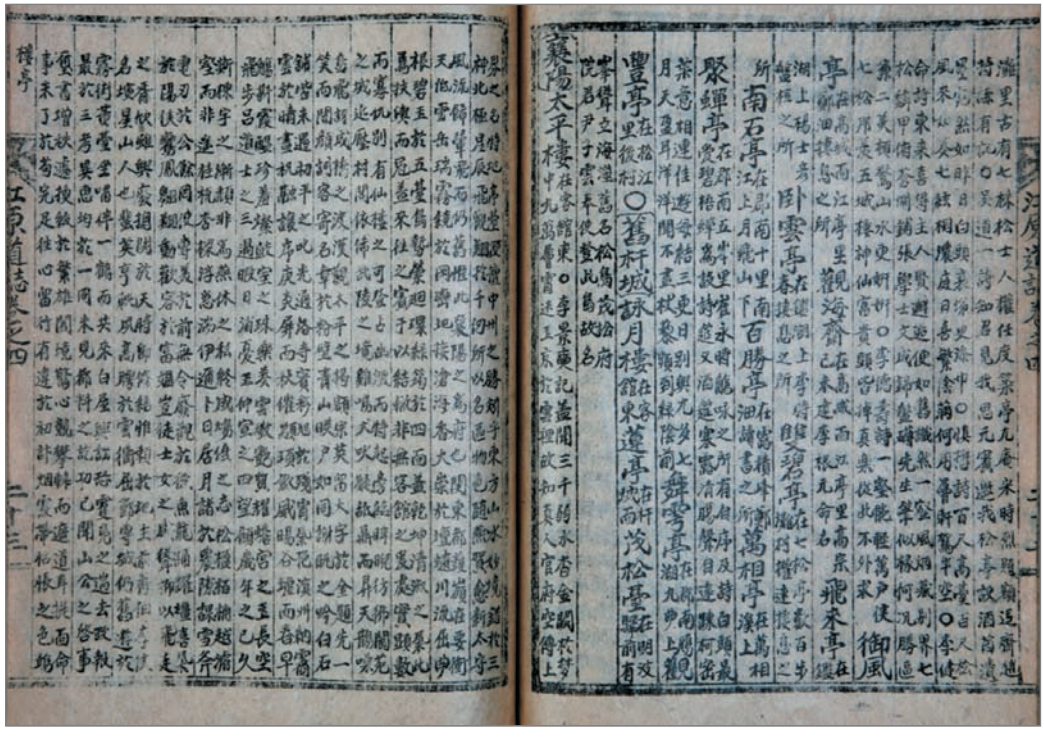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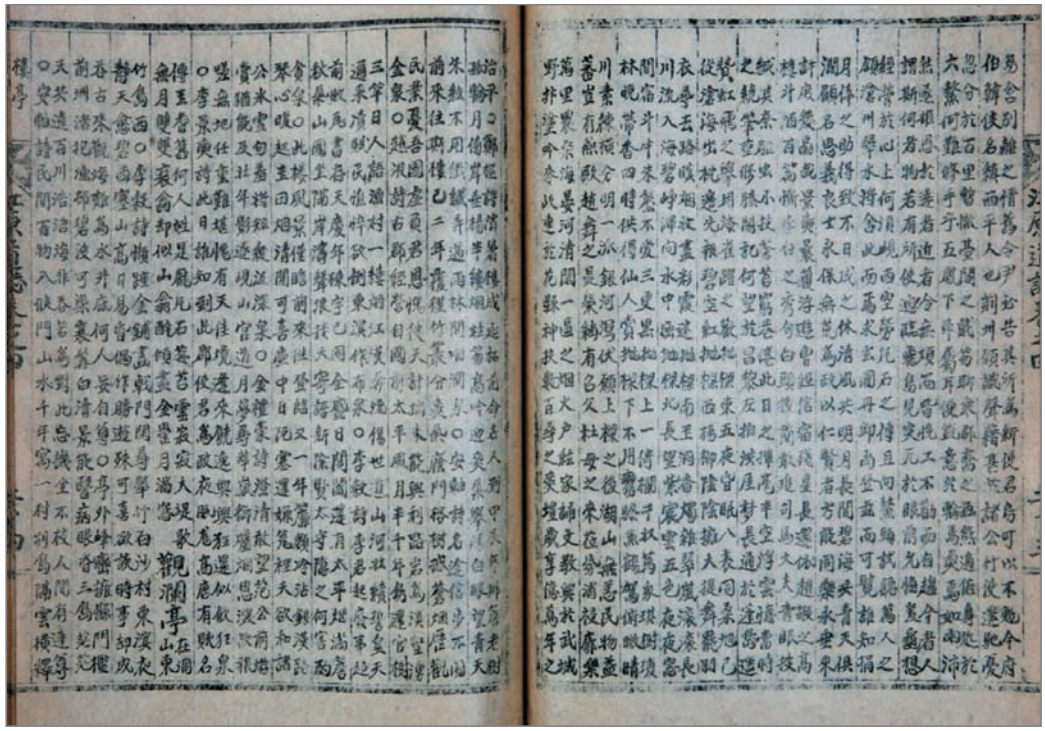
麻藥中毒者治療支所 高城郡廳 長箭邑事務所 高城面事務所 別面事務所 面事務所 杆城駐在所 出張所 土木課長箭出張所 襄陽郡廳 道立長箭醫院 川面事務所 面事務所 縣南面事務所 城駐在所 東面事務所 出張所 江陵郡廳 面事務所 東面事務所 溟面事務所 出張所 注文津駐在所 連谷駐在所 丁洞駐在所 城德駐在所 江東駐在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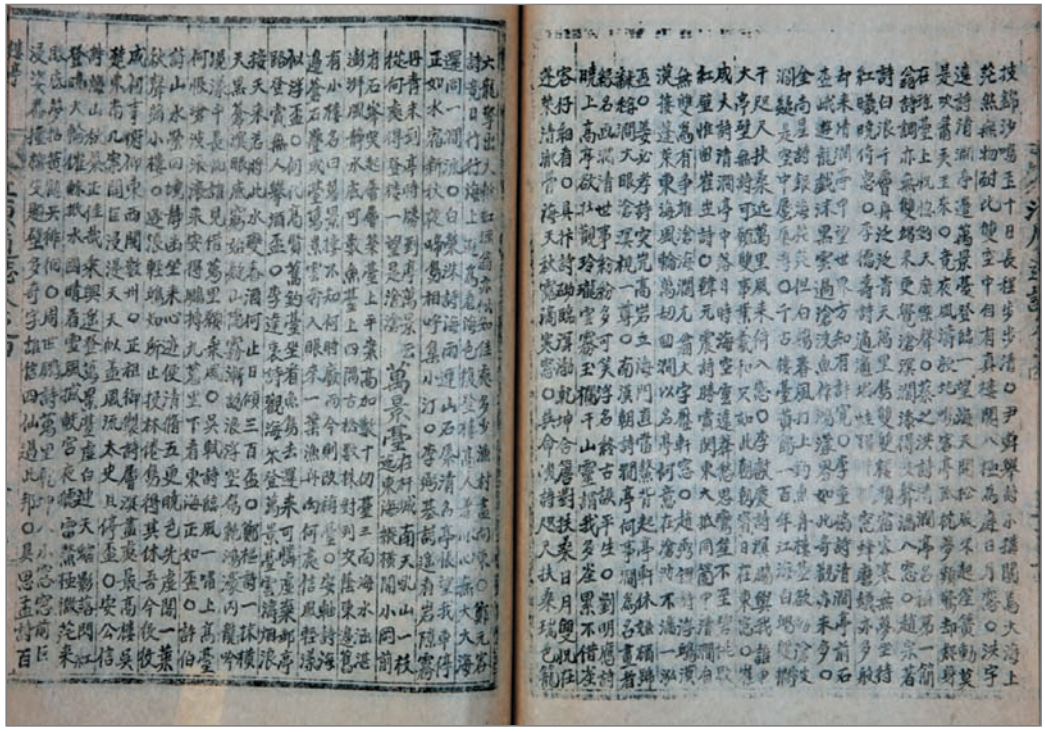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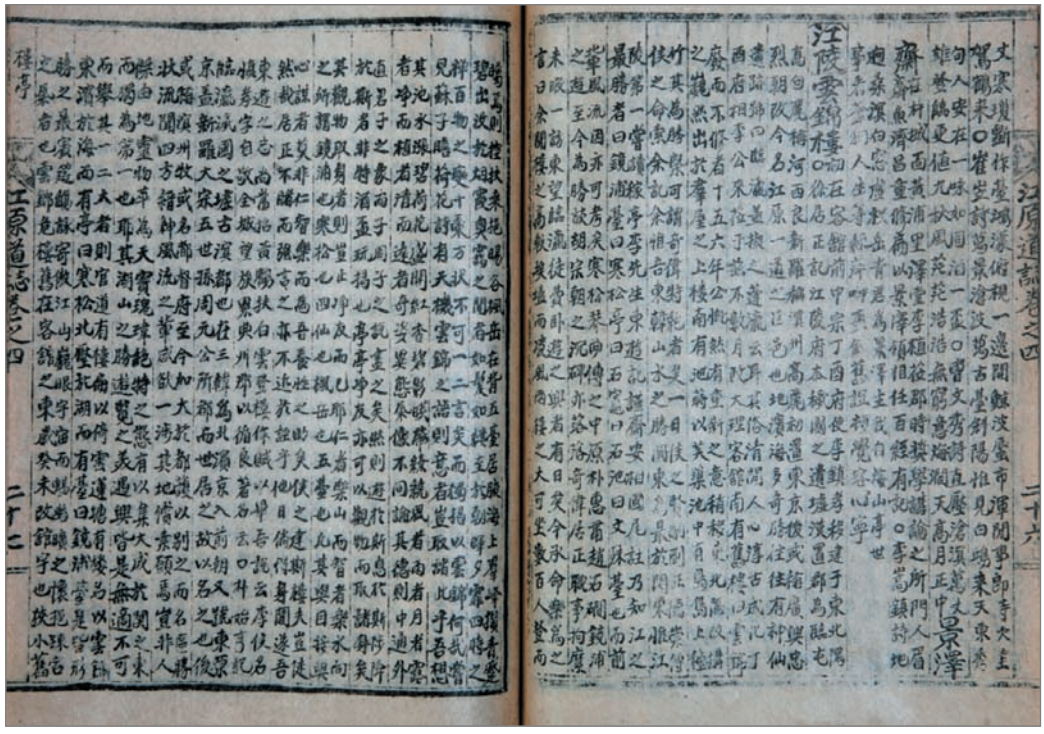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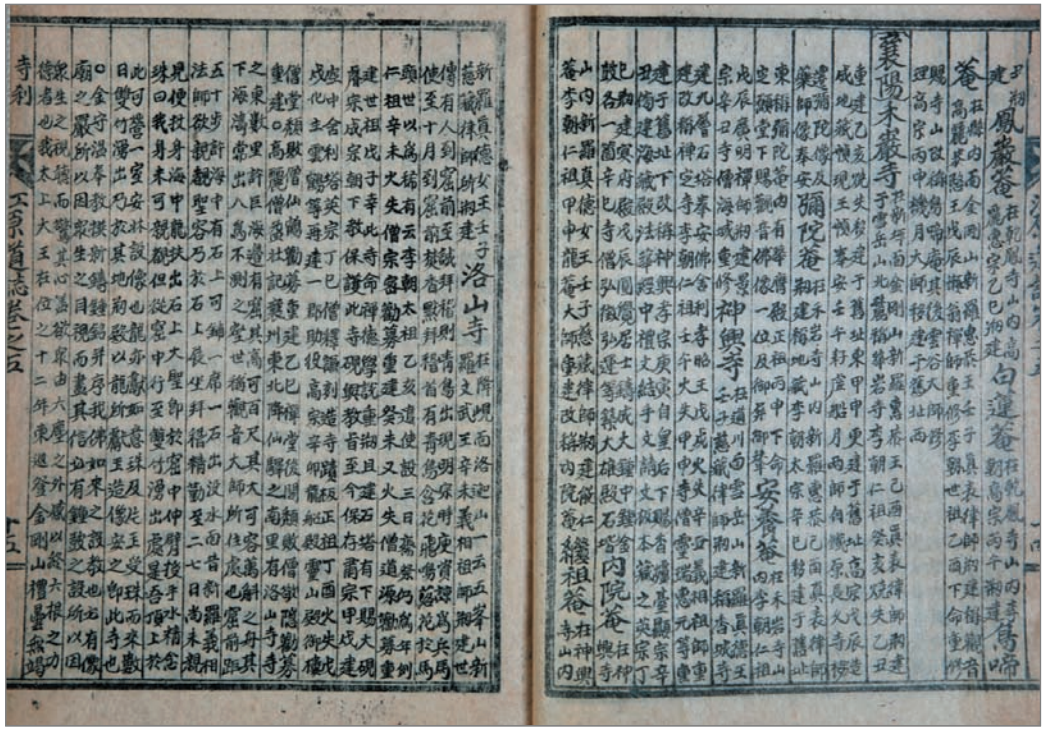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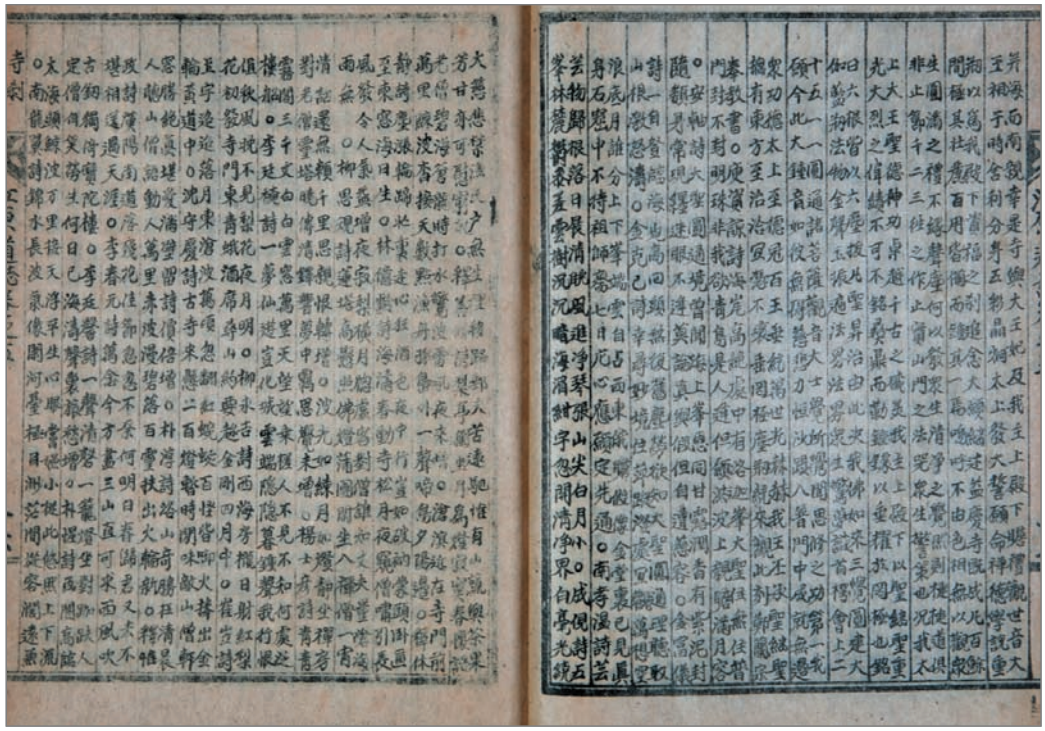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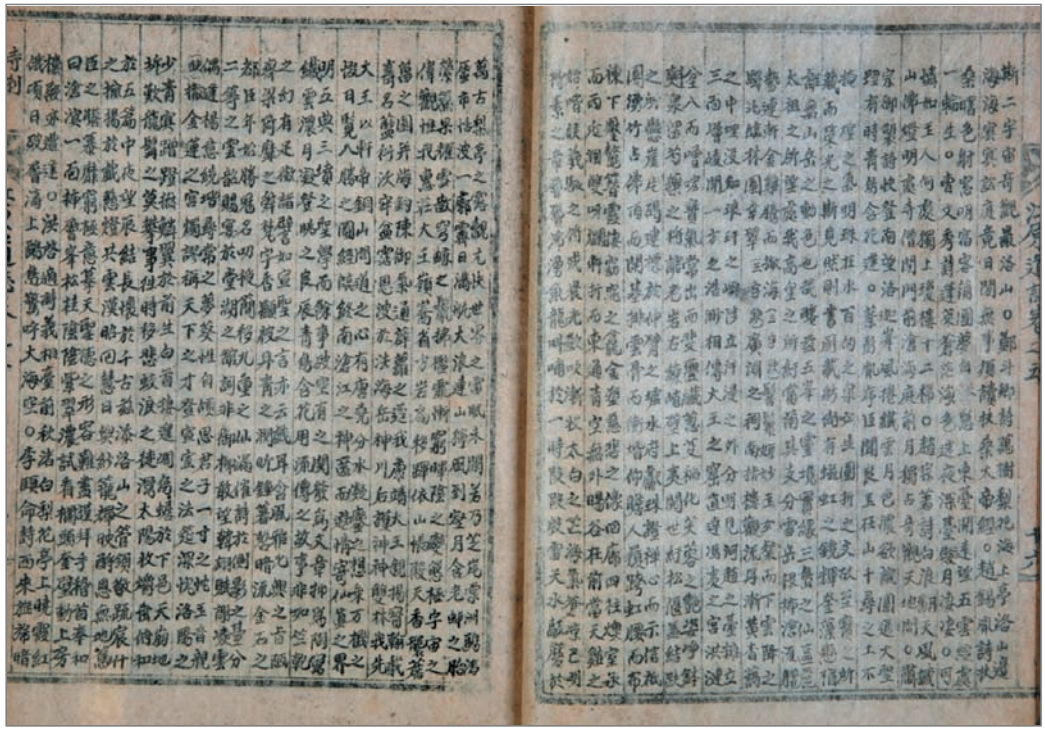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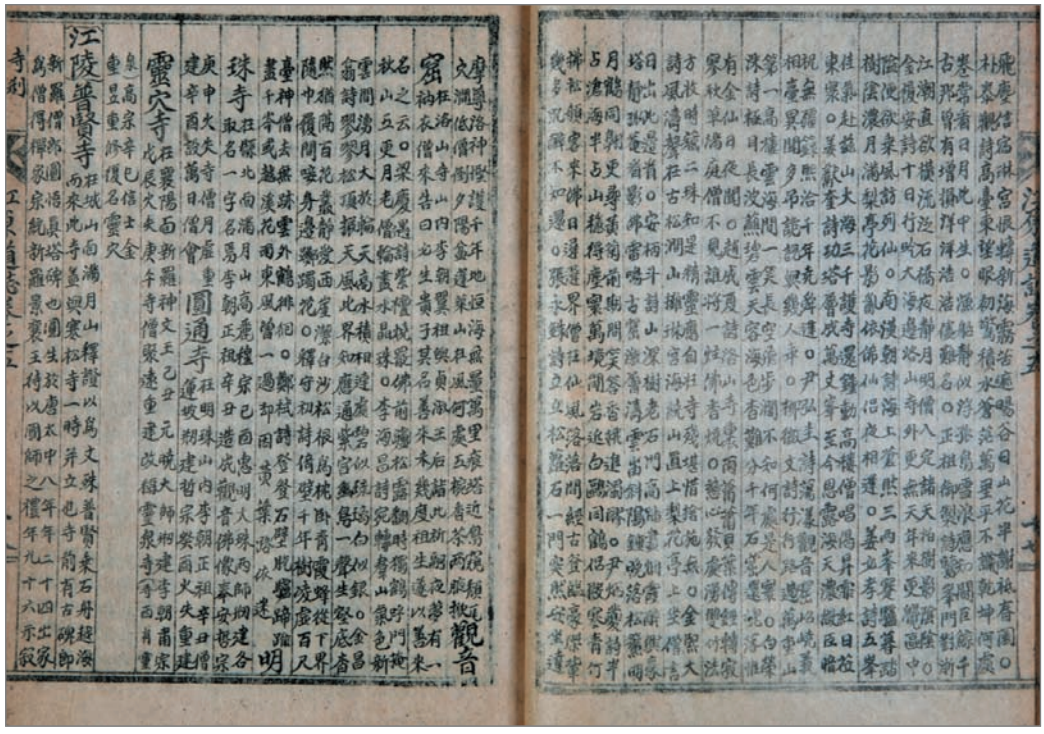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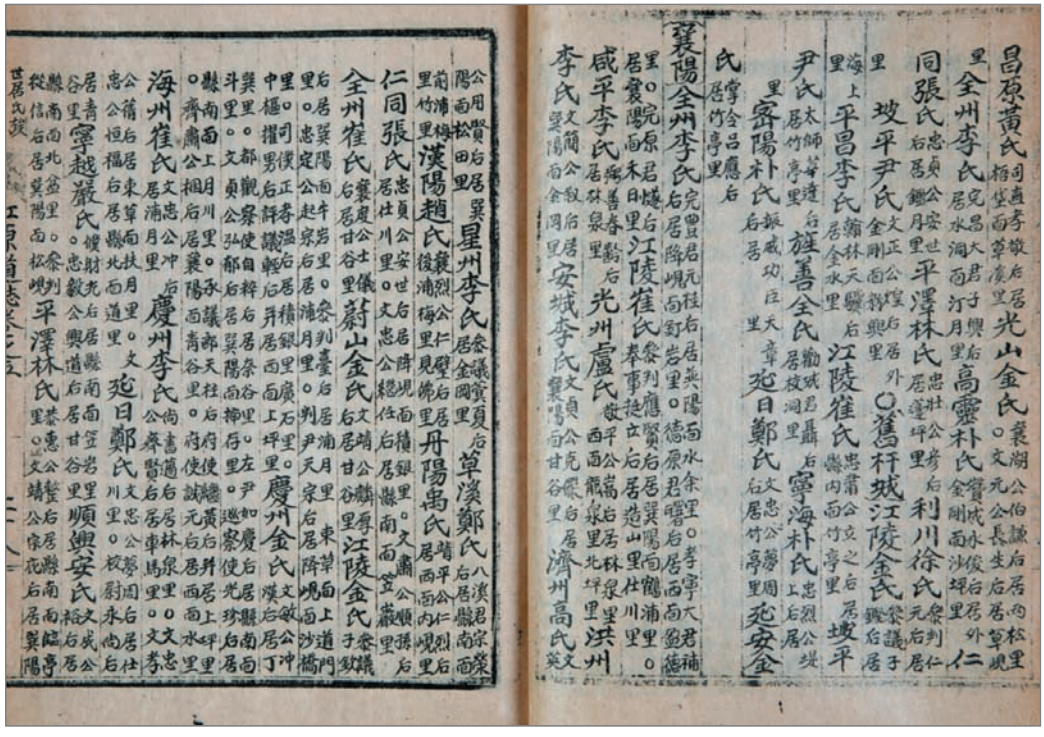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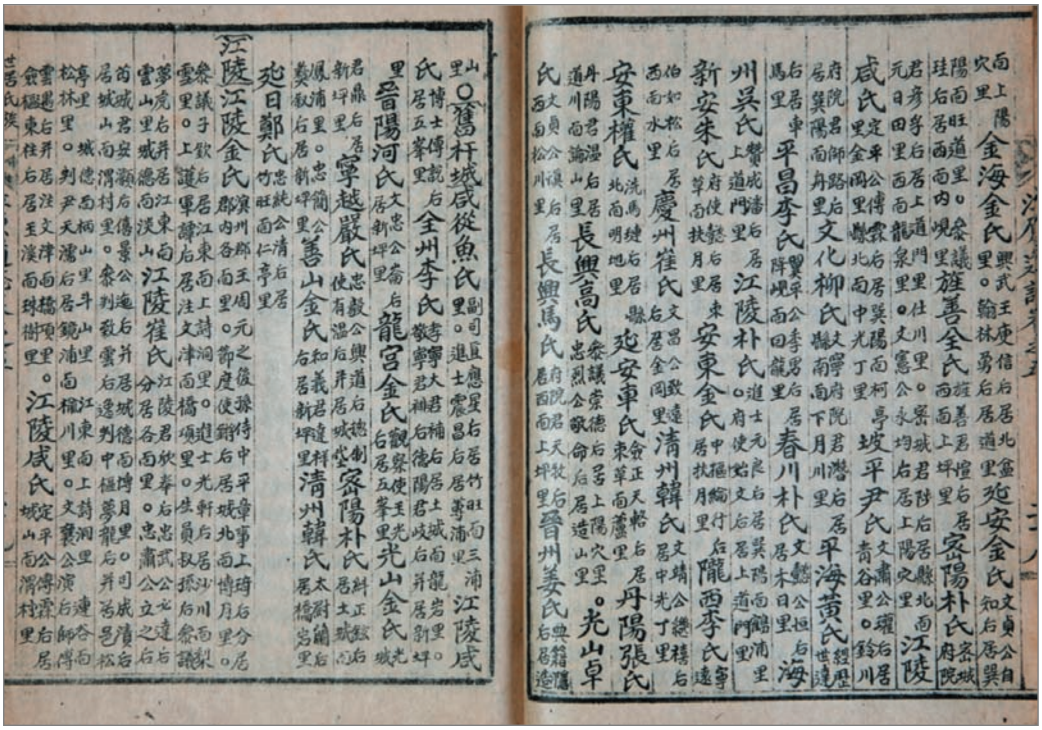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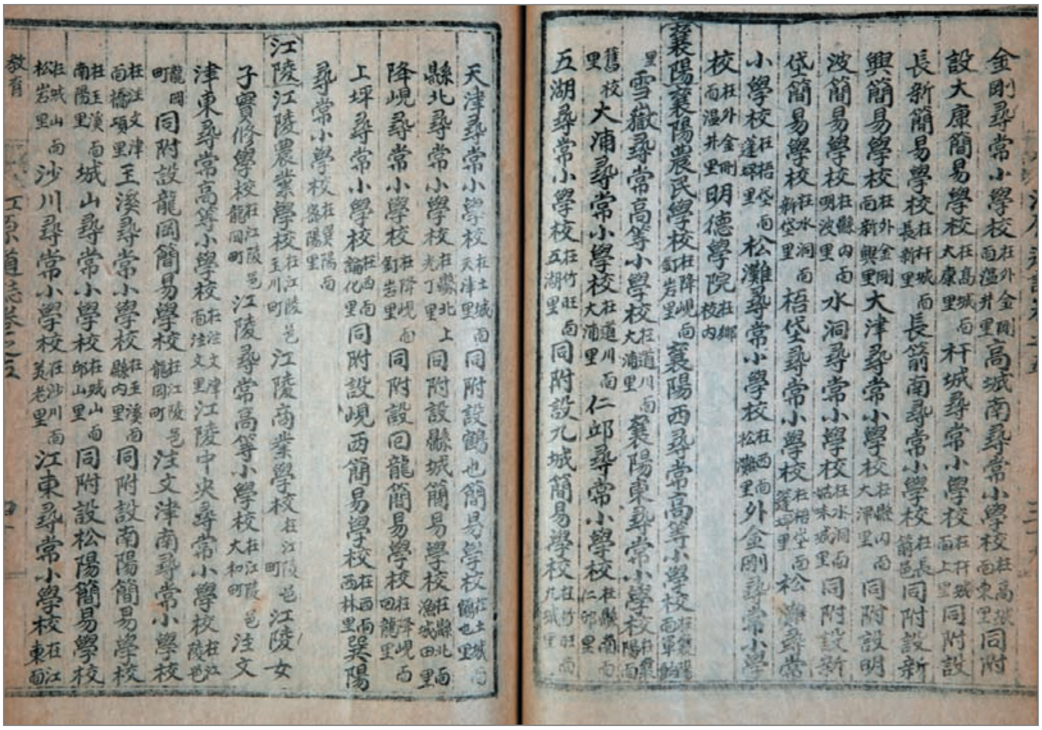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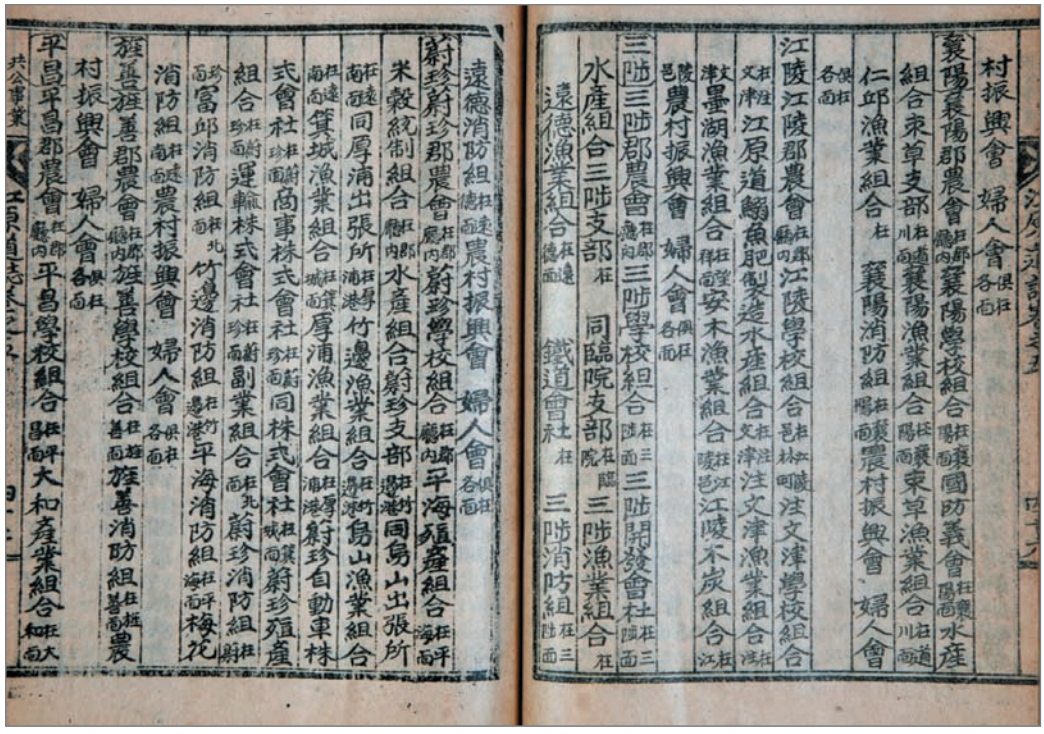
面上陽穴里 金海金氏 興武王庾信后居北面道里。翰林勇后居道里 延安金氏 文貞公自知后居巽
陽面旺道里。參議珪后居西面內峴里 旌善全氏 旌善君愃后居西面上坪里 密陽朴氏 密城府院
君彥孚后居上道門里。仕川里。文憲公元日田里西面龍泉里。密城君陟后居縣北面上陽穴里 江陵
咸氏 定平公傳霖后居巽陽面柯亭里。金岡里縣北面中光丁里 坡平尹氏 文肅公瓘后居青谷里。鈴川
府院君師路后居巽陽面舟里 文化柳氏 大寧府院君潛后居縣南面下月川里 平海黃氏 經歷世達
右居東馬里 平昌李氏 翼平公季居后居降峴面回龍里 春川朴氏 文懿公恒后居末日里 海
州吳氏 贊成潘后居上道門里 江陵朴氏 進士元良后居府使始文后居巽陽面鶴浦里
新安朱氏 府使懿后居草面扶月里 安東金氏 中樞綸后居扶月里 隴西李氏 宣傳寧遠
伯如松后居西面水里 慶州崔氏 文昌公致遠后居金岡里 清州韓氏 文靖公繼禧后居中光丁里
安東權氏 洗馬鏈后居北面明地里 延安車氏 縣監正天輅后居東草面蘆里 丹陽張氏
丹陽君溫后居道川面論山里 長興高氏 參議崇德后居上陽穴里。忠烈公敬命后居造山里 光山卓
氏 文貞公漢后居松川里 長興馬氏 府院君天牧后居西面上坪里 晉州姜氏 典籍隱后居造

山里 ○舊杆城咸從魚氏 副司直應星后居竹旺面三浦里。進士震昌后居尊浦里 江陵咸
氏 博士傅說后居五峯里 全州李氏 孝寧大君補后居土城面龍岩里。敬寧君裍后德陽君岐后并居新坪
里 晉陽河氏 文忠公崙后居新坪里 龍宮金氏 觀察使玉光后居五峯里 光山金氏 光城
君鼎后居新坪里 寧越嚴氏 忠毅公興道后使有溫后并居城坐 密陽朴氏 正斂后居土城面
鳳浦里。忠簡公后居新坪里 善山金氏 和義君達祥后居新坪里 清州韓氏 太尉蘭后居橋岩里
延日鄭氏 忠純公清后居竹旺面仁亭里
江陵 江陵金氏 溟州郡王周元之後孫侍中平章事上時后分居郡內各面里。節度使錫后居城北面博月里。
參議子歆后居江東面上詩洞里。上護軍瑋后居注文津面橋項里。進士光軒后居沙川面雲里。生員叔孫后參議
夢虎后并居江東面雲山里。城德面渼山 江陵崔氏 江陵君欣奉后忠武公必達后分居各面里。忠肅公立之后
苟城君安瀕后傳景公庵后并居城德面博月里。司成潰后居山面渭村里。參判致雲后遞判中樞夢龍后并居邑松
亭里斗山里江東面上詩洞里連谷面松林里。判尹天濡后居鏡浦面榆川里。文襄公演后師傅
雲遇后并居注文津面橋項里。僉樞東柱后居玉溪面球山樹里。江陵咸氏 定平公傅霖后居城山面渭村里
世居氏族 江原道誌卷之五



金剛尋常小學校 在外金剛面溫井里 高城南尋常小學校 在高城面東里 同附
設大康簡易學校 在高城面大康里 杆城尋常小學校 在杆城面上里 同附設
長新簡易學校 在杆城面長新里 長箭南尋常小學校 在長箭邑 同附設新
興簡易學校 在外金剛面新興里 大津尋常小學校 在縣內面大津里 同附設明
波簡易學校 在縣內面明波里 水洞尋常小學校 在水洞面姑味城里 同附設新
岱簡易學校 在水洞面新岱里 梧岱尋常小學校 在梧岱面蓬坪里 松瀞尋常
小學校 在梧岱面蓬坪里 松瀞尋常小學校 在西面松瀞里 外金剛尋常小學
校 在外金剛面溫井里 明德學院 在鄉校內
襄陽 襄陽農民學校 在降峴面釘岩里 襄陽西尋常高等小學校 在襄陽面軍營
里 雪嶽尋常高等小學校 在道川面大浦里 襄陽東尋常小學校 在襄陽面
舊校里 大浦尋常小學校 在道川面大浦里 仁邱尋常小學校 在縣南面仁邱里
五湖尋常小學校 在竹旺面五湖里 同附設九城簡易學校 在竹旺面九城里

天津尋常小學校 在土城面天津里 同附設鶴也簡易學校 在土城面鶴也里
縣北尋常小學校 在縣北面光丁里 同附設縣城簡易學校 在縣北面漁城田里
降峴尋常小學校 在降峴面釗岩里 同附設回龍簡易學校 在降峴面回龍里
上坪尋常小學校 在西面論化里 同附設峴西簡易學校 在西面西林里 巽陽
尋常小學校 在巽陽面縣陽里
江陵 江陵農業學校 在江陵邑玉川町 江陵商業學校 在江陵邑町 江陵女
子實修學校 在江陵邑龍岡町 江陵尋常高等小學校 在江陵邑大和町 注文
津東尋常高等小學校 在注文津面注文里 江陵中央尋常小學校 在江陵邑
龍岡町 同附設龍岡簡易學校 在江陵邑龍岡町 注文津南尋常小學校
在注文津面橋項里 玉溪尋常小學校 在玉溪面縣內里 同附設南陽簡易學校
在玉溪面南陽里 城山尋常小學校 在城山面邱山里 同附設松陽簡易學校
在城山面松岩里 沙川尋常小學校 在沙川面美老里 江東尋常小學校 在江東面
教育 江原道誌卷之五 四一



村振興會 婦人會 俱在各面
襄陽襄陽郡農會 在郡廳內 襄陽學校組合 在襄陽面 國防義會 在襄陽面 水産組合 東草支部 在道川面 襄陽漁業組合 在襄陽面 東草漁業組合 在道川面
仁邱漁業組合 在 襄陽消防組 在襄陽面 農村振興會 婦人會 俱在各面
江陵江陵郡農會 在郡廳內 江陵學校組合 在邑林町 注文津學校組合 在注文津 江原道鰯魚肥製造水産組合 在注文津 注文津漁業組合 在港 注文津漁業組合 在港 墨湖漁業組合 在望洋面 安木漁業組合 在江陵邑 江陵木炭組合 在江陵邑 農村振興會 婦人會 俱在各面
三陟三陟郡農會 在郡廳內 三陟學校組合 在三陟面 三陟開發會社 在三陟面
水産組合三陟支部 在 同臨院支部 在臨院 三陟漁業組合 在遠德漁業組合 在遠德面 鐵道會社 在 三陟消防組 在三陟面

遠德消防組 在遠德面 農村振興會 婦人會 俱在各面
蔚珍蔚珍郡農會 在郡廳內 蔚珍學校組合 在郡廳內 平海殖産組合 在平海面
米穀統制組合 在郡廳內 水産組合蔚珍支部 在蔚珍 同島山出張所 在遠南面 同厚浦出張所 在厚浦港 竹邊漁業組合 在竹邊港 島山漁業組合 在遠南面 箕城漁業組合 在箕城面 厚浦漁業組合 在厚浦港 蔚珍自動車株式會社 在蔚珍面 商事株式會社 在蔚珍面 同株式會社 在箕城面 運輸株式會社 在蔚珍面 副業組合 在九山面 蔚珍消防組 在蔚珍面 富邱消防組 在九山面 竹邊消防組 在竹邊港 平海消防組 在平海面 梅花
旌善旌善郡農會 在郡廳內 旌善學校組合 在旌善面 旌善消防組 在旌善面 農村振興會 婦人會 俱在各面
平昌平昌郡農會 在郡廳內 平昌學校組合 在平昌面 大和産業組合 在大和面

市場 江原道志卷之五 五十三
市場 江原道志卷之五 五十二

瑞和市 在瑞和面 日八日九日開市 縣里市 在縣內面二 縣南面五 日九日開市 箐村市 在內面二 日七日開市
東上南市 在縣南面 日十日開市
楊口楊口市 在楊口面 日八日九日開市 古方市 在水入面 日八日開市 文登市 在水入面 二日七日開市
長坪市 在方山面 三日八日開市 汝安市 在汝安面 二日七日開市 林塘市 在東面三 日八日開市
榆木亭市 在內面 日八日開市
淮陽淮陽市 在淮陽面 三日八日開市 田灘市 在上北面 日六日開市 縣里市 在箐谷面一 面一日六日開市
化川市 在泗東面 三日八日開市 泗東市 在泗東面 三日八日開市 末輝里市 在內金剛面 三日八日開市
上坪市 在下北面一 日六日開市 新安市 在淮陽面三 日八日開市
通川通川市 在通川面 五日十日開市 庫底邑三 日八日開市 松田市 在通川面 四日九日開市
沛川市 在鵝一面一 日六日開市 歙谷市 在歙谷面一 日六日開市 慈山市 在歙谷面 三日八日開市
瀛城市 在瀛城面 日九日開市
高城高城市 在高城面二 日六日開市 杆城市 在杆城面二 日七日開市 巨津市 在梧桑面 三日八日

市場 江原道志卷之五 五十三
市場 江原道志卷之五 五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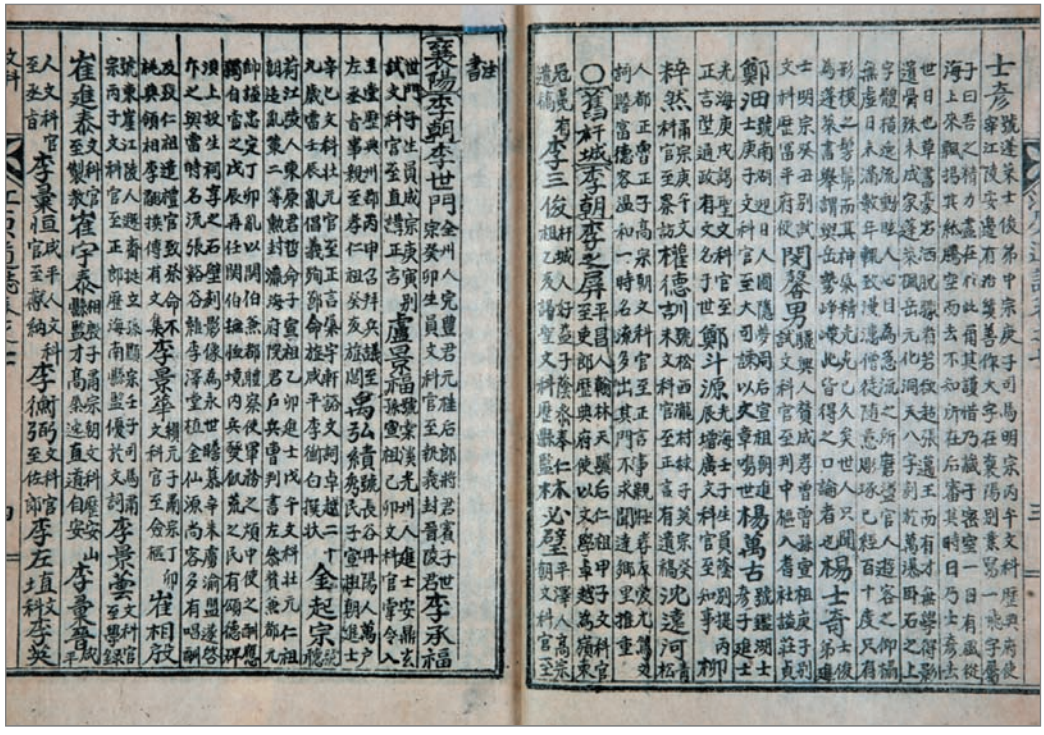
長箭市 在 日九日開市 新垈市 在水陽面 日十日開市 太津市 在縣內 四日九日
珍市 在 日十日開市
襄陽襄陽市 在襄陽面 日九日開市 仁邱市 在陽南面 日十日開市 汐淵市 在浮縣面 五日十日
東草市 在東草面 三日八日開市 楊岩市 在土城面一 日六日開市 其士門市 在面二 日
西林市 在面三 日開市
江陵江陵市 在 日七日開市 連谷市 在連谷面 三日八日開市 玉溪市 在玉溪面 四日九日
注文津市 在注文津面 日六日開市 江東市 在江東面一 日六日開市 望祥市 在望祥面
三陟三陟市 在三陟邑二 日七日開市 北坪市 在北三面 日八日開市 文柯市 在延德面 一日六日
湖山市 在遠德面三 日八日開市 古士市 在新遠面五 日十日開市 黃池市 在上長興面 五日三回
未老市 在未老面四 日九日開市 月山市 在廬谷面五 日十日開市 蟲洞市 在下長興面 四日九日
梧底市 在遠德面二 三回開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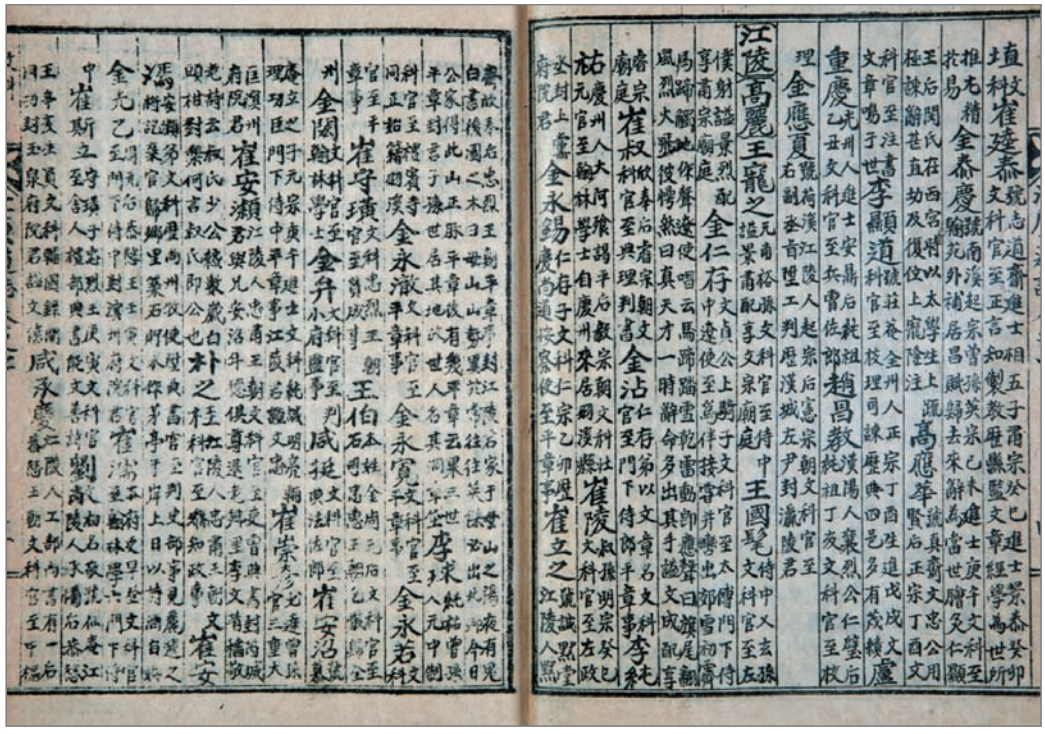
睦天麟 宋光洙 趙正紳 任鎭元 崔錫弼 申璽 柳
益隆 金時保 李挺益 李植 趙斗彬 尹夏教 崔重
鼎 宋徵奎 姜聖復 李德壽 尹志益 金養謙 柳導
徐命九 洪重福 李秉成 趙鳴鳳 趙尙綱 徐宗遜
朴師高 尹渠 金光遇 鄭錫範 沈師得 任鎔 李鼎
燮 吳命觀 吳璿 申暕 李山中 李普行 李普中
李未和 權襲性 趙德常 洪啓瑞 趙漢鎭 李壽彬
金載華 金宗範 李嚴源 李敬曾 李在沆 金啓瀗
朴敦浩 韓周謙 李鼎老 宋仁載 李海曾 徐有儆
尹定鎭 金熙臣 金鎔 宋在誼 尹行定 申在翼 黃
鍾林 鄭龜容 鄭在容 趙啓恒 宋瑞和 徐有畬 許
石老 李曾寧 李容學 尹致誠 李啓昌 李源永 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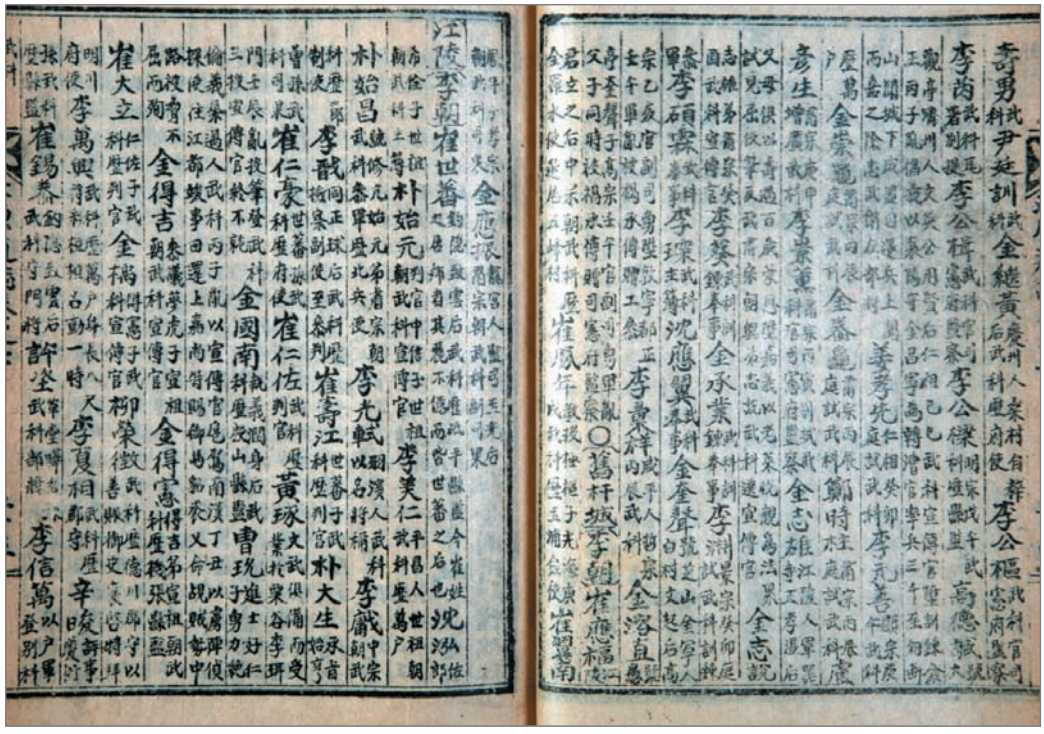
仁會 朴齊甲 鄭舒朝 李寅正 金祖憲 閔鍾洙 李
周鉉 徐應淳 李道植 柳止鎬 高永喜 李秉勉 趙
章教 尹琪 朴齊曾 李承愚 李載觀 金顯熙 徐相
大 柳世主 李鼎夏 申觀熙 申泰衡 李琰九 朴潤
晩 申鉉九 申晃翼 劉泓鍾 金彰鉉 山木永一郎(朴分) 松
鑿泉著長井上重治 松澤義貞 齋藤政之助 松林福右
衛門 安達與次郎 羽場富雄 木村盛之助 川畠卯之
助 矢岡爲十郎 山口文吾 遠藤國太 佐藤廣 鄭養
吉 山下政雄 加藤孫市 佐佐木尙雄

許寬 李安忠 李春齡 林千孫 金禮南 乱年 金
世憲 金瀷 任鼐臣 慶渾 李希文 李之臣 許壁
徐克一 文益成 李昌 李柱國 裵三益 柳夢鶴 柳
廷 李瓘 李長榮 尹景禧 張雲翼 金秀淵 鄭思信
黃奎 洪麒祥 權用中 李弘老 黃廷喆 李鐵 洪
汝誠 李時獻 權縉 尹安性 趙濈 朴承祖 沈宗道
鄭曄 申景遇 李敏樹 李好義 趙緯韓 李忠良
李景容(有舊故碑) 閔機(有舊故碑) 柳桓(有舊故碑) 朴弘美(有舊故碑) 申應材(有舊故碑) 睦叙
欽 韓必遠 李時楷 吕爾徵 李尙逸(有舊故碑) 李忻 朱國
準 鄭基豐(有舊故碑) 金德承 尹衡覺 申恂 李瑛 韓緝
李俊耆 姜綸(有舊故碑) 李雲栽 李溟翼 李昌 李球 鄭世
輔 安命老 趙宗著(有舊故碑) 李寅煥 柳裕 朴千榮 李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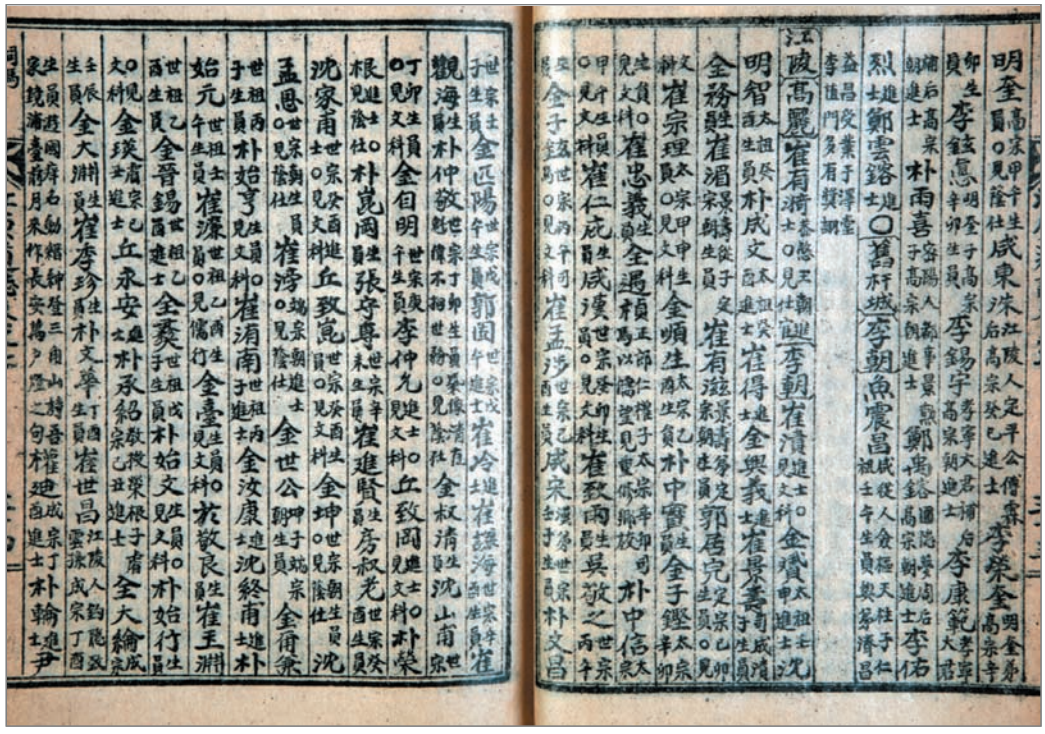
封 崔商翼 安度 任堂 李廷謙 李秉標 蔡成胤
韓命相(有舊故碑) 閔鳳炯 元聖俞 南正重 金演 柳重茂
南致熏 任堂 梁重履(有舊故碑) 李浚 鄭必東(有舊故碑) 成碩慶
李宇謙 李海朝 金斗南 李奎年 沈壽賢(有舊故碑) 崔啓翁(有舊故碑)
李世瓘 尹致履 宋宅相 朴熙晉 蔡彭胤(有舊故碑) 朴乃
貞 鄭東後 徐命淵 柳敬時(有舊故碑) 權孚(有舊故碑) 林杜國 鄭守
杜 李善行 金重熙 南泰濟(有舊故碑) 宋徵啓(有舊故碑) 李庭綽
朴師昌 閔宅洙 姜一珪 安慶運(有舊故碑) 朴弼正 沈益聖
崔成大 李聖檍 任希教(有舊故碑) 吳奉源 金永燮 李皇
慶 洪重一 黃柙 黃啟彦 沈琦 李鎭復 金道煥
李商安 林著喆 宋鍊 丁範祖 尹東晩 李鎭恒 具
世勳 申大觀 金夢華 洪九瑞 申大年 金考鎭 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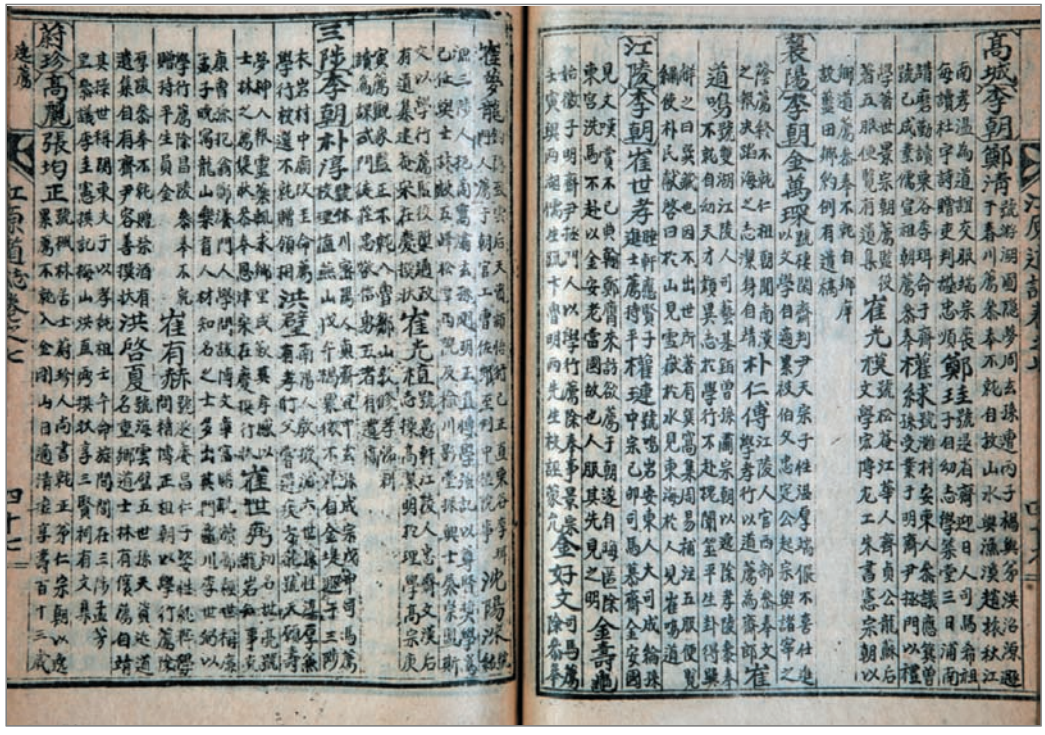


奇男武科 尹廷訓武科 金繼貢慶州人 梁村有 幹石武科官司 后武科 應府使 李公稷武科官司 忠府監察 李尚武科 看別提 李公祥武科 憲府監察 李公樑明宗戊午武科 高應弼進士 以文學鄉里推之 崔挨英宗丙子進 權啓萬號忍菴教官 授子正祖朝進士 觀喪 權以養拙齋號諸生講論著 四禮編次有 遺集載三綱錄 ○舊杆城 李朝 朴幹文學 李朝 朴大生承旨 始昌武科 李戩同正 崔壽江世蕃子武 科歷 李光軾翻溟人武科 李戩中宗 朝以名將 稱 金國南武科 崔仁傑武科 崔仁豪世蕃 孫武科 崔仁佐武科 歷判官 黃琮文武 崔大立仁佐子武 科歷判官 金得吉 得吉弟宣祖朝武 科宣傳官 金得宣得吉弟宣祖朝武 科宣傳官 柳榮徵武科 李夏相武科 辛俊武科 許坌武科 崔錫恭武科 李信萬武科 李萬興武科 金應振 朴始元 沈汲 沈泓 金 江陵 李朝 崔世蕃 金 金崇 金 李生 李崇熏武科 李石麟武科 李璟武科 李 沈應翼武科 金奎聲 金志雄 金志說 金 李 李 金承業 李 沈 金 李 李 金 李 李 李



明奎 高家甲午生員○見陰仕 咸東洙 江陵人定平公僖孫進士 李榮奎 明奎弟高宗辛卯生員 李鎭寧 明奎子高宗辛卯生員 李易宇 孝寧大君補后裔高宗朝進士 李康範 孝寧大君補后裔高宗朝進士 朴雨喜 密陽人觀事景敬子高宗朝進士 鄭禹錫 圃隱夢周后裔高宗朝進士 李佑烈 進士 鄭雲路 進士○舊杆城 李朝魚震昌 咸從人僉樞天柱子仁祖壬午生員 奭泰 濟益昌從業子澤堂李植門多有贊謝

江陵 高麗 崔有渰 參贊天觀進士○見仕宦 李朝 崔演 進士○見文科 金贇 太祖癸酉進士 沈明智 太祖癸酉生員 朴成文 太祖癸酉進士 崔得士 金興義 進士 崔景孝 司成演子生員 金務聖 崔湄 景禧從子定宗己卯生員 郭居完 定宗己卯生員○見文科 崔有淵 景禧參定定宗己卯生員 崔宗理 太宗甲申生員○見文科 金順生 太宗乙酉生員 朴中寶 生員 金子鑒 太宗辛卯生員○見文科 崔忠義 生員 金過頎 正郎仁樘子太宗辛卯司馬以隱望見重儒林拔○見文科 朴中信 太宗甲午生員○見文科 崔仁庇 生員 咸漢 世宗庚子生員○見文科 崔致雨 生員 吳敬之 世宗辛卯生員○見文科 金子鑒 孟思○世宗朝生員 崔涉 端宗朝進士○見陰仕 金世公 卿生員 金汝康 進士 沈終甫 進士 朴始亨 生員○見文科 崔涓南 進士 金始元 世祖士午生員○見儒行 金臺 生員○見文科 朴始行 生員○見文科 金英 進士 丘永安 進士 朴承紹 敬儉參穆子肅宗乙丑進士 金大鼎 生員 崔李珍 生員 朴文華 生員 崔世昌 江陵人鈞龍玄孫肅宗丁卯生員 金大鼎 生員 崔李珍 生員 朴文華 生員 崔世昌 江陵人鈞龍玄孫肅宗丁卯生員 崔進賢 生員 房叔光 世宗庚午生員 崔宗理 太宗甲申生員○見文科 金順生 太宗乙酉生員 朴中寶 生員 金子鑒 太宗辛卯生員○見文科 崔忠義 生員 金過頎 正郎仁樘子太宗辛卯司馬以隱望見重儒林拔○見文科 朴中信 太宗甲午生員○見文科 崔仁庇 生員 咸漢 世宗庚子生員○見文科 崔致雨 生員 吳敬之 世宗辛卯生員○見文科 金子鑒 孟思○世宗朝生員 崔涉 端宗朝進士○見陰仕 金世公 卿生員 金汝康 進士 沈終甫 進士 朴始亨 生員○見文科 崔涓南 進士 金始元 世祖士午生員○見儒行 金臺 生員○見文科 朴始行 生員○見文科 金英 進士 丘永安 進士 朴承紹 敬儉參穆子肅宗乙丑進士 金大鼎 生員 崔李珍 生員 朴文華 生員 崔世昌 江陵人鈞龍玄孫肅宗丁卯生員 金大鼎 生員 崔李珍 生員 朴文華 生員 崔世昌 江陵人鈞龍玄孫肅宗丁卯生員 崔進賢 生員 房叔光 世宗庚午生員 崔宗理 太宗甲申生員○見文科 金順生 太宗乙酉生員 朴中寶 生員 金子鑒 太宗辛卯生員○見文科 崔忠義 生員 金過頎 正郎仁樘子太宗辛卯司馬以隱望見重儒林拔○見文科 朴中信 太宗甲午生員○見文科 崔仁庇 生員 咸漢 世宗庚子生員○見文科 崔致雨 生員 吳敬之 世宗辛卯生員○見文科 金子鑒 孟思○世宗朝生員 崔涉 端宗朝進士○見陰仕 金世公 卿生員 金汝康 進士 沈終甫 進士 朴始亨 生員○見文科 崔涓南 進士 金始元 世祖士午生員○見儒行 金臺 生員○見文科 朴始行 生員○見文科 金英 進士 丘永安 進士 朴承紹 敬儉參穆子肅宗乙丑進士 金大鼎 生員 崔李珍 生員 朴文華 生員 崔世昌 江陵人鈞龍玄孫肅宗丁卯生員 金大鼎 生員 崔李珍 生員 朴文華 生員 崔世昌 江陵人鈞龍玄孫肅宗丁卯生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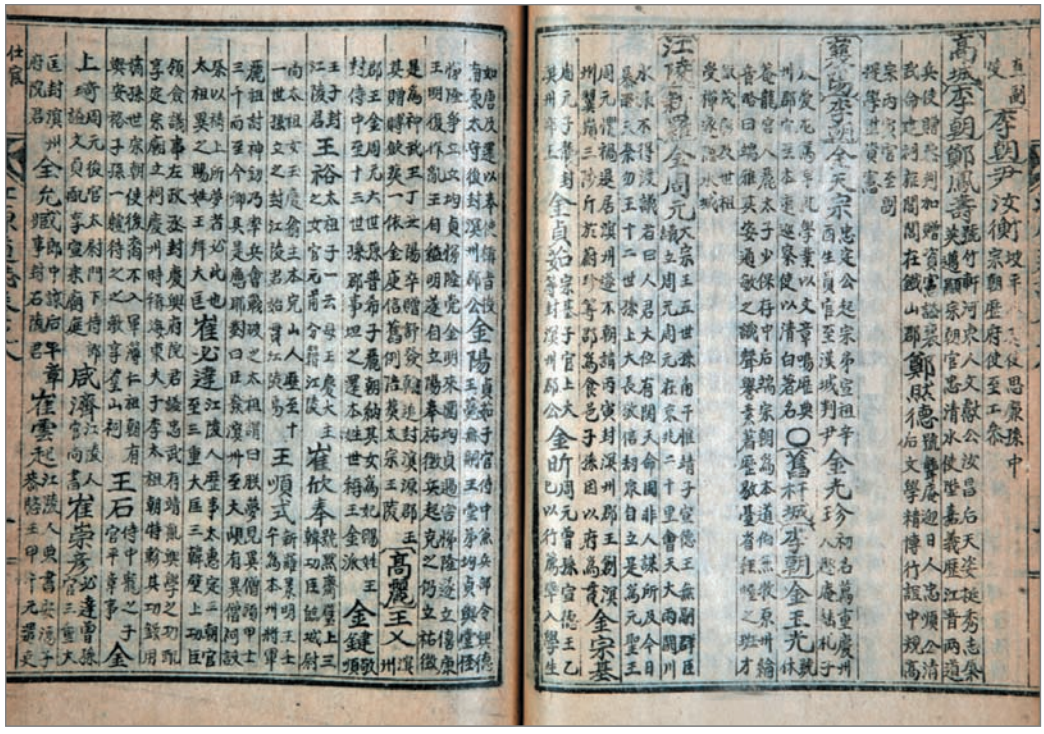
高城 李朝 鄭清 號游湖圃隱夢周玄孫遷內子禍興爺洪沿源避亂居春川爺參奉不就自放山水與源溪趙拔秋江南秀溫為道誼交厥端宗丙子高宗朝進士 鄭主 號逸菴有爵迎日人司馬希祖每讀杜宇詩贈吏判楹忠順子自幼志學登三日浦南靖齋勤讀乘谷季珥命子爵參奉 權緝 號潛村安東人參議應箕曾孫己酉進士 崔光模 號松菴江華人齊員公龍蘇后裔五脈俱贈通訓大夫 崔光模 號松菴江華人齊員公龍蘇后裔五脈俱贈通訓大夫學宗門尤工朱書憲宗朝以鄉道爺參奉不就自鄉庠故墨田鄉約例有遺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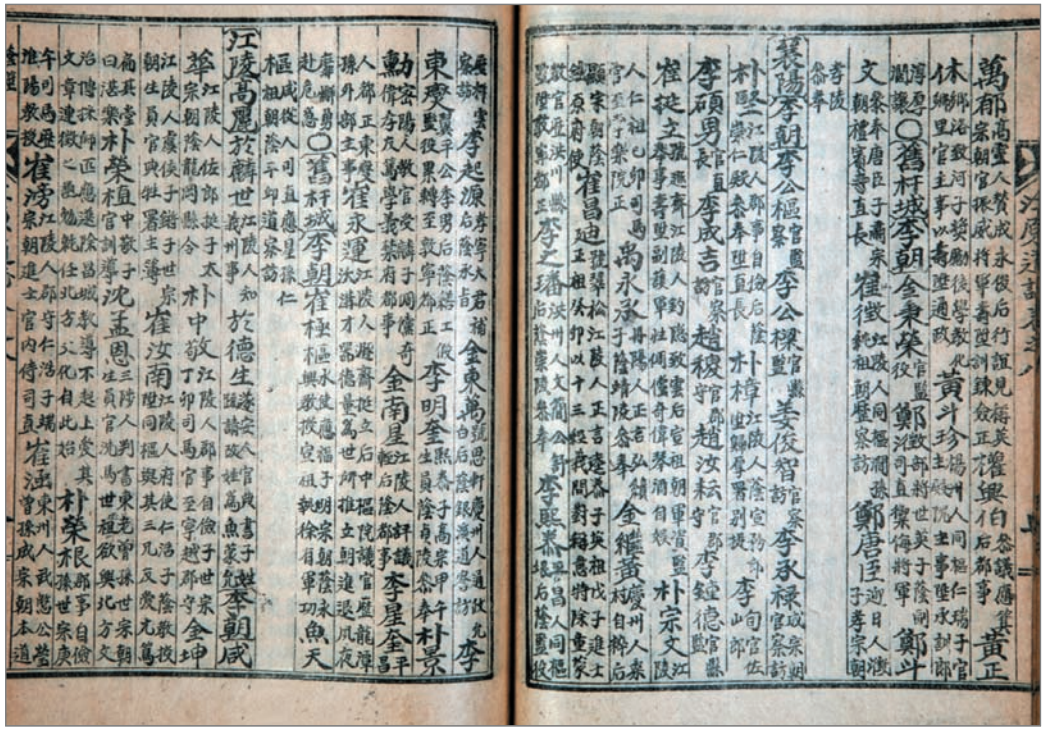
襄陽 李朝 金萬璨 號稜園齊判尹天宗子性溫厚端愿不喜仕進以父學自勉累授伯父忠定公起宗與諸宰之陰德爺終不就自幼之志潔身自精 朴仁傳 江陵人官西部參奉文之孫決溟海仁祖朝聞南漢學者行以道爺為齋郎 崔道暘 號雙湖江陵人司藝基鎬曾孫圖宗朝以避隆陵參奉不就自幼天才類異志於學行不赴現閣筮平性對得舉解之曰吳鼠也因不出世所著有箕富集周易補注五服便覽編俊朴氏獻答曰花山見雪嶽於水見東海於人見者吟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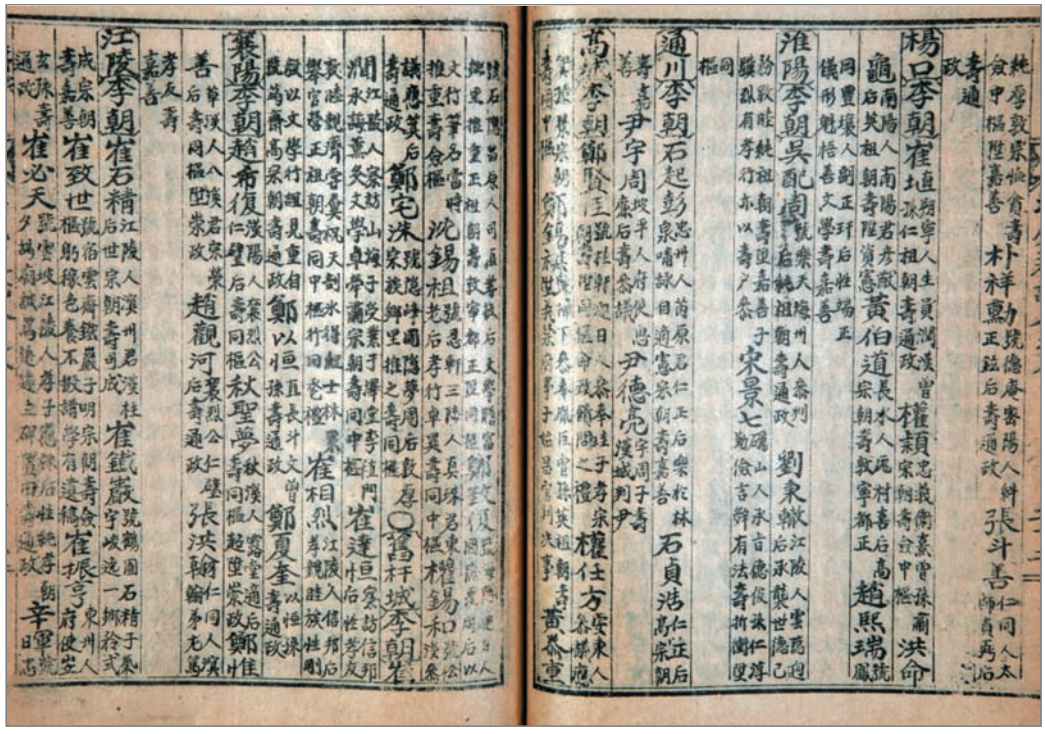
江陵 李朝 崔世孝 睦軒新應賢子權建 號鳴岩安東人大司成錦珠東宮沈馬不起以金安老當國故也人服其先見之明 金壽鵬 號竹庵子明齋尹拯門人以學行爺除參奉事景宗朝士實與內翻備生臨十曾明而先生校誤家允 金好文 司馬爺除參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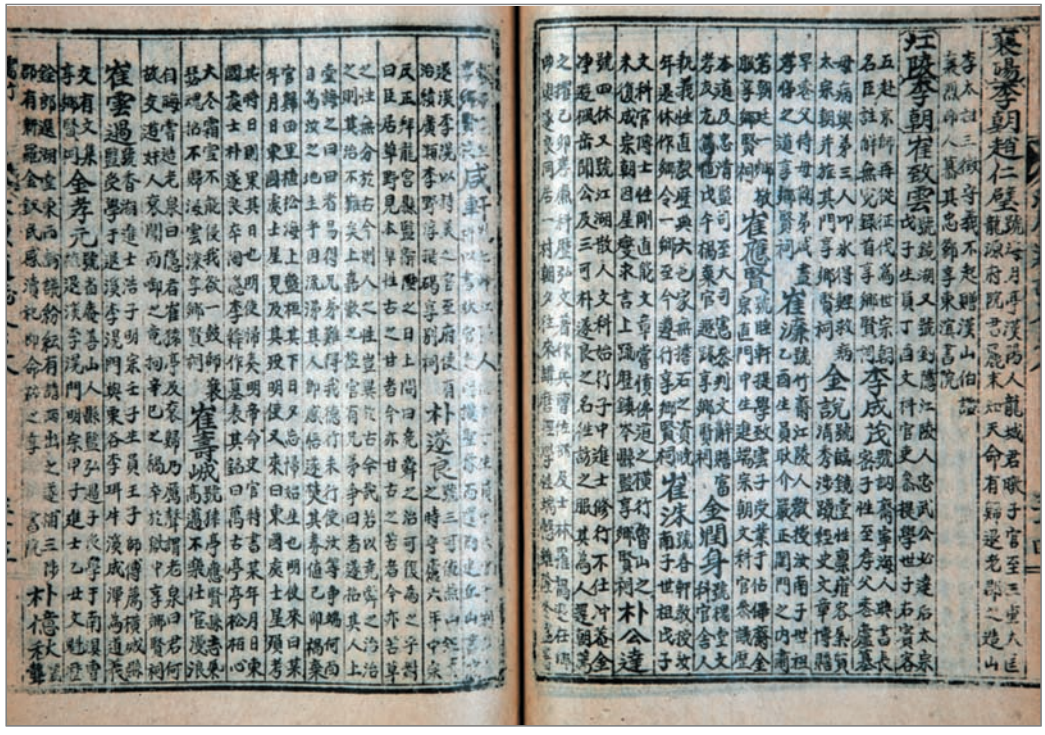
崔夢龍 門人爺于朝官工曹佐郎至判中沈陽派 沈陽派 始祖三陟人 高麗 高宗朝 五代孫 世宗朝 文以學行爺監役 崔光直 號曷軒江陵人忠孝文淵右有通鑑建置始末在慶振狀 崔光直 號曷軒江陵人忠孝文淵右有通鑑建置始末在慶振狀 崔夢龍 門人爺于朝官工曹佐郎至判中沈陽派 沈陽派 始祖三陟人 高麗 高宗朝 五代孫 世宗朝 文以學行爺監役 崔光直 號曷軒江陵人忠孝文淵右有通鑑建置始末在慶振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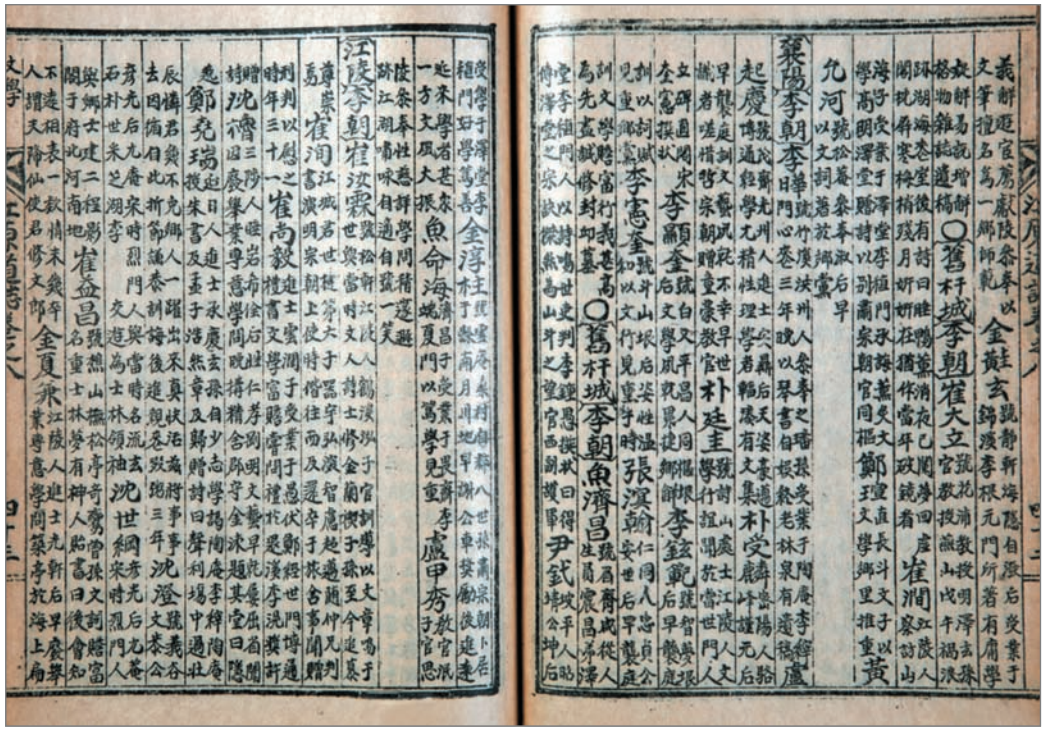
三陟 李朝 朴淳 號林川密陽人與齋紀五代孫 世宗朝 文以學行校理 洪燮 南陽人敬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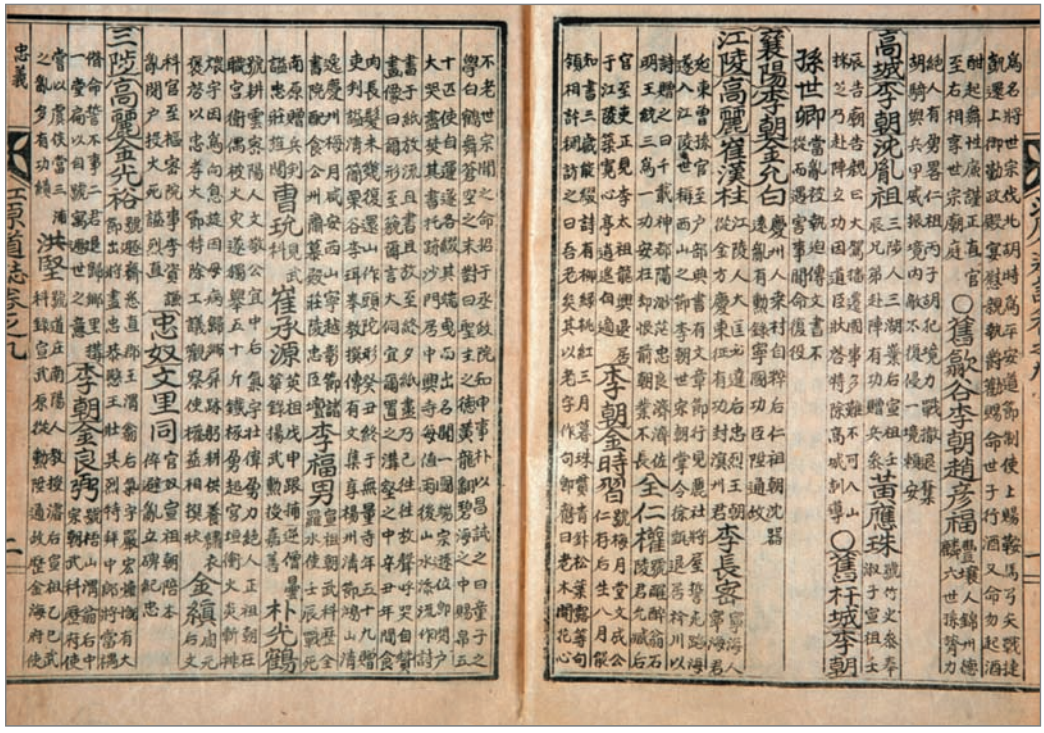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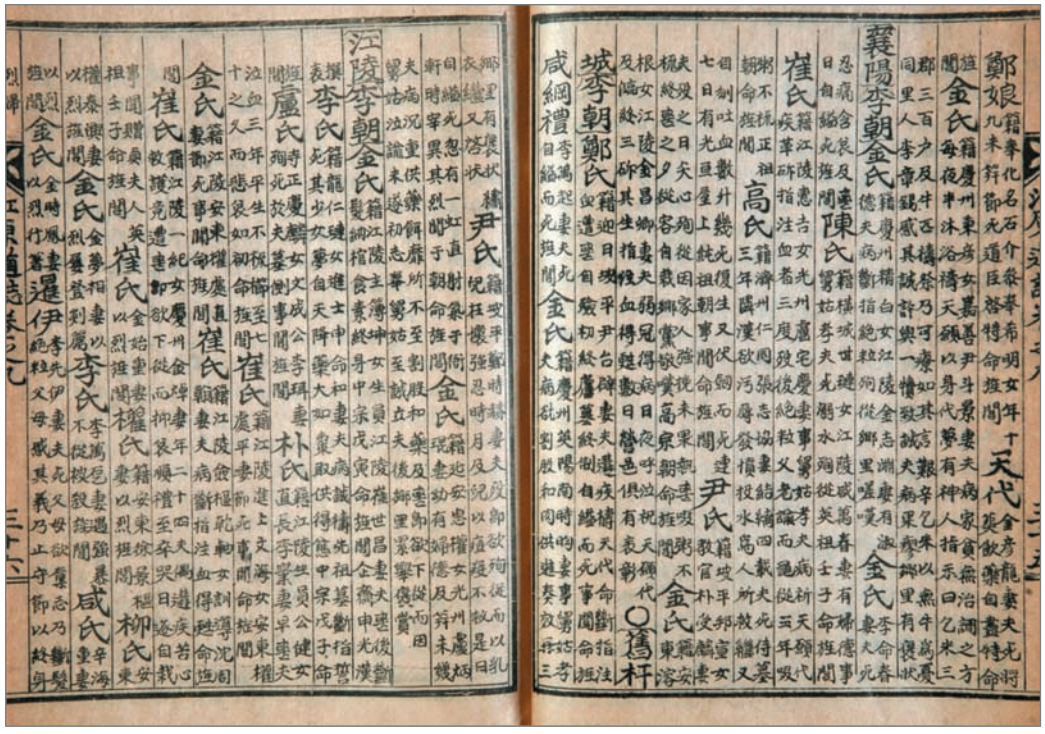


順鄉里有褒閭 孝婦李朝崔氏 籍江華允慶女江陵崔燦邦妻自幼孝父母及歸事舅姑盡婦道夫病斷指及
喪欲下從以舅姑無依不忍遂志日備奉養鄉里欽歎 ○舊杆城李朝全鳳祥 城君善人擬讚台
父病斷指侍墓三年有虎嘗糞護喪中宗朝命旌閭 尹衡佐 耕隱言善后以早喪常自痛恨年至六旬不得餘靴
父嘗身被衰經追喪三年無異初終遭內艱哀毁踰制日步省墓不避風雨累有褒狀 全孔淳 鳳祥右父病斷指祝
天顧壽廬墓三年士林立碑褒彰 全載厚 鳳祥右年纔十七母病祝天斷指廬墓人稱世孝士林立碑褒彰 趙
雲昊 以孝旌閭 黃仁熙 平海人襄武公希顏后事親色養志體病嘗糞祝天以致快復延年八旬士林累薦 子
官贈有褒彰 孝女李朝厚禮 金石奉女以孝旌閭
襄陽李朝李東明 號東湖慶州人襄傳公興商后早失怙侍祖父病試斷指及喪哀毁踰制子鎭壽孫宗潤亦皆
承襲一門人稱三孝 李鎭壽 東明子曾祖母病試父迎醫未及歸即斷指注血回甦延壽十年鄉里稱孝 李宗
潤 鎭壽子母病祝天願壽嘗糞臨症及疾革斷指注血回甦累日 盧浹 號三宜光山人茂起慶瑤早失怙恃事繼母
孝有冰魚之異及喪廬墓鄉黨欽服 張道弘 仁同人忠貞公安世后性至孝家貧供養無許釣魚剪髮賣供菽水戊
寅春貧米歸家以謁亂父母遊散祝天四求保得安全母病斷指父病亦斷指鄉黨稱孝官命復戶 金景吉 號默軒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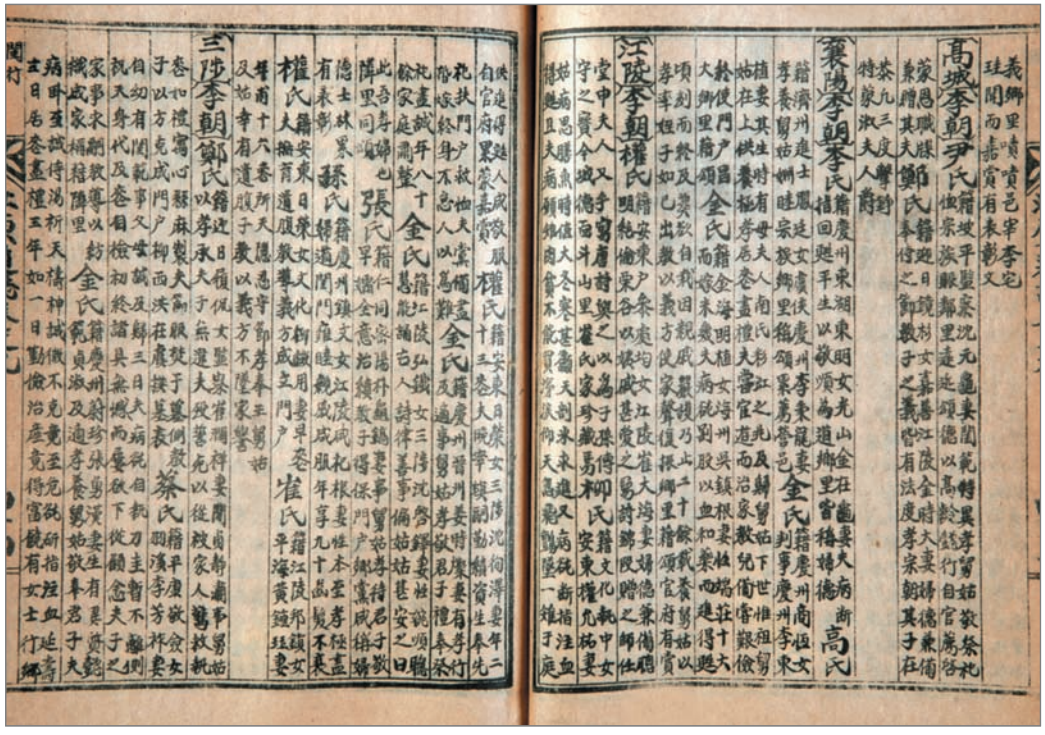
陵人軍器正孝君后母喪廬墓父病思食栗時值嚴冬四求不得有一老授二栗因忽不見供進得效又嘗思川魚剖冰得鯉及
疾革嘗糞斷指正祖朝命旌閭 金鎭權 慶州人府使繼黃后母病世至孝年七十觀供菜蔬疾革斷指注血命延七十歎
日及喪啜粥廬墓宗朝贈承旨旌閭 金商宇 府使鎭權孫天誠孝出天父病嘗疾祈天中求藥冰
中家世孝忠王父喪制哲宗朝贈義禁府都事命旌閭 朴志誼 號守齋江陵人文右觀病嘗糞
養斫指及喪居廬廬墓身被衰麻朝夕哭拜高宗朝命旌閭 金健秀 自延安人父病知右觀病情祝公
天顧壽嘗糞斷指高宗壬辰命旌閭 金倫秀 健秀弟事親孝父病斷指注血回甦兄弟同孝鄉黨稱一門雙孝士林有
發狀 孝婦李朝李氏 籍慶州學榮女仁同張翼夫妻夫病斷指殺身欲以從以七旬姑在上兒在下救及
供養備盡教育有道高宗朝命旌閭 ○舊杆城李朝魚潤復 濟昌玄孫誠孝根天親病斷指注血得甦
魚天柱 咸從人司直應星孫五歲丁父憂日夜號泣肉醬不接口鄉里稱孝童光海深河之役捐財募義有賑偈之勞
特除折衝將軍陞僉中樞 魚哲元 號梧軒咸從人濟昌七世孫早襲庭訓文藝夙就親病斷指注血廬墓終制 河
時同 晉陽人文忠公崙后父病嘗糞及喪廬墓有虎異母喪又如之居喪成疾淚草枯士林爲立表彰閭 盧蒙
彦 光州人文簡公守愼后母病斷指回甦及喪廬墓虎豹來護父喪亦如之士林薦營府正祖朝命旌閭 咸成郁

號醒軒江陵人竹溪傳說右以孝行高宗朝贈童蒙教官命旌閭子仁興仁弘觀病俱斷指鄉里稱頌有表彰文 咸熙
錫 竹溪傳說右官都正性至孝養親志體無違父嗜酒雖當之及疾嘗糞甘苦破冰得魚當陪父出外父被酒路臥雪覆大無
炮及即仲天叫泣反風滅火丁憂廬墓有虎異至今名其地曰孝峴判書李戡規撰孝廬碑銘
江陵高麗金遷 本府吏高宗朝蒙兵來侵母與弟德麟被虜年十五晝夜號泣聞被虜者多道死服喪後十四年有
百戶習成自元來傳母書知母在北州天兄累鄉往以白金五十五兩贖之後六年德麟亦來兄弟終身盡孝鄉人立石
刻曰孝子里 李朝李咸茂 號納齋寧海人典書長容子性至孝父患廬墓母病嘗糞第三人叩冰得鯉教病太
宗朝命並旌其門 李善茂 咸茂弟以孝旌閭 李春茂 善茂弟以孝旌閭司正同兄 李良
茂 號竹遯翁典書長容三子母病叩冰得鯉以孝世宗朝除司正興校太宗丁酉與三兄俱以孝旌閭世宗朝命載三綱行實江陵
鄉有譽詩二絕 崔應祥 號蓮湖生員叔男子性至孝母客死旌吾英於稱林廬墓啜粥致雪筍之異明宗朝命旌閭
崔應祿 號孝谷應祥弟父病斷指嘗糞祝天父願雖內雪自八丁憂啜粥廬墓中宗戊子命旌閭崔東孝撰記文
辛鵬 靈山人文富公蕆右以孝命旌閭立碑 咸汝一 江陵人母病嘗糞斷指有生雖飛入之感肅宗朝命旌閭
朴億秋 號雙鶴軒訓導光良子事親至孝父病患嗚號泣禱天有變鶴飛下取供即癒及親歿斷指得效明宗癸亥以孝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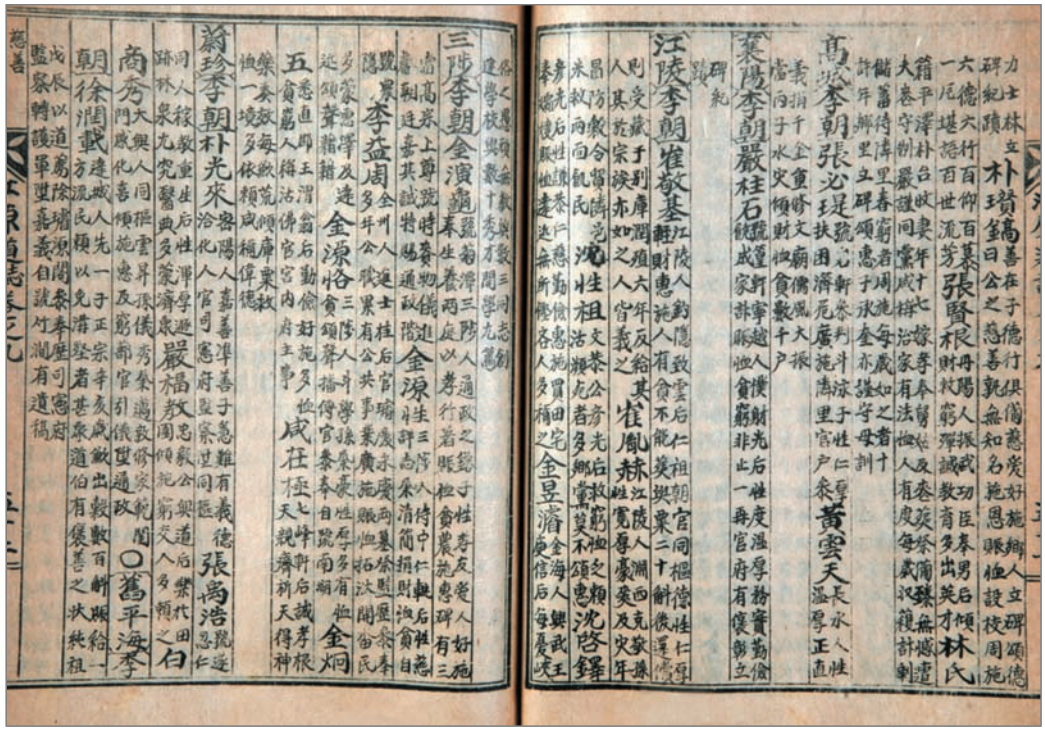
薦授司憲府參奉歷典四邑命旌閭享鄉賢祠相闇李根命撰墓表 金譚 號隱齋江陵人溟州郡王周元后宣祖朝以
孝薦除上護軍命旌閭鄉賢祠士狀尤著宋時烈撰記享鄉賢祠 崔雲嶸 號四休堂江陵人副正汝子孝出天
性父病嘗糞丁憂廬墓母病斷指明宗朝孝薦帶資奉事 金德璋 江陵人節度使時右官康訓導世至孝親喪廬墓平
偶火起迫墓向火痛哭致反風暴雨火滅得全郎廳人謂孝感所致又篤友愛良田健奴盡分與兄弟中宗朝命旌閭名其堂
曰孝友名其里曰孝子贈戶參 金景滉 號遯庵護軍譚子官僉樞事親至孝與弟景時俱蒙旌閭 金景時 號東
皐景滉弟官教授遯菴谷李珥門以孝旌閭 崔挺逸 江陵人溟州君漢柱后誠孝出天親病屢絕祈天加壽斫指注
血回甦肅宗朝贈工議特命褒行旌閭 金琿 號孝隱景滉子官訓導以孝命旌閭世稱一門四孝 沈之濂 三陟
人以孝旌閭 金時閔 興弟時孟俱有至孝并旌閭曰孝友兄弟之碑命 閔忠謀 號孝興人以 崔
恒澈 生員允文右母病斷指其父爲蛇咬徒手捕蛇嘆取其血注於父口又吮其傷士林舉于延營以孝翻除復戶 崔
克敬 號溯西江陵人判院事夢龍孫官主簿親灸于庭文藝夙就及喪啜粥廬墓 曹命沃 號抹釣軒教官命旌
弟與兄孝友尤篤父病斷指有鵲之異感提學曹錫禹撰行狀 沈道恒 號荷谷三陟人希佺后事親至孝遺岩
內艱啜粥哀毁成疾小祥之夜以飲書頻借終祥之跂命使子向北辰焚之症漸有差至大祥之後疾復作而卒 曹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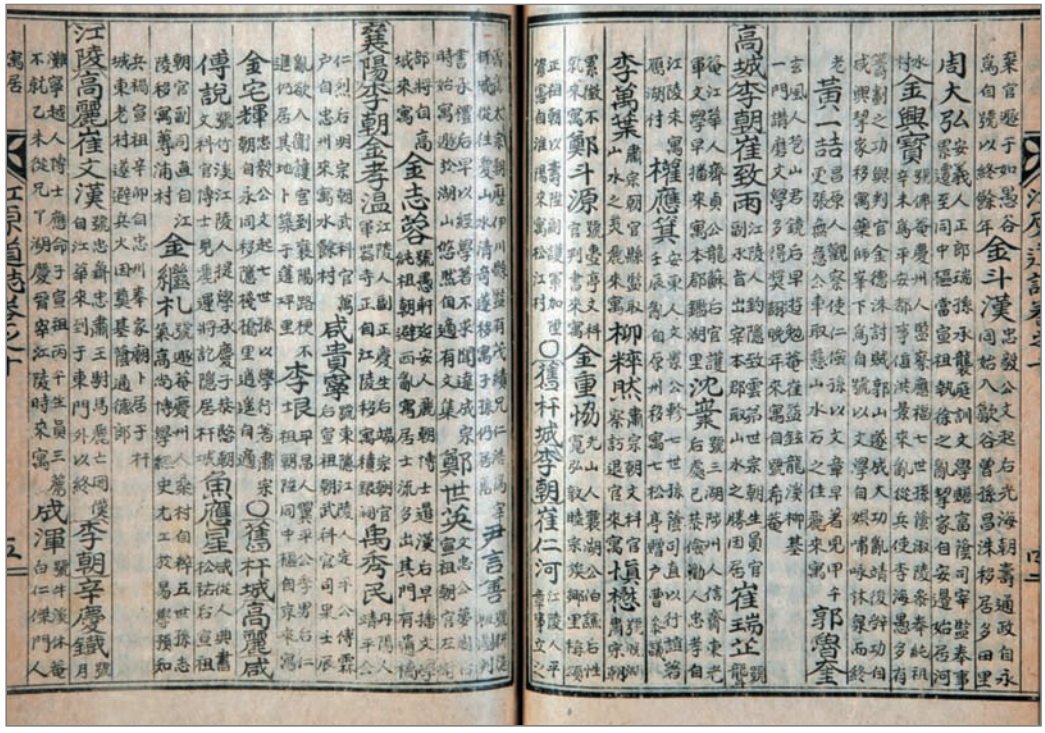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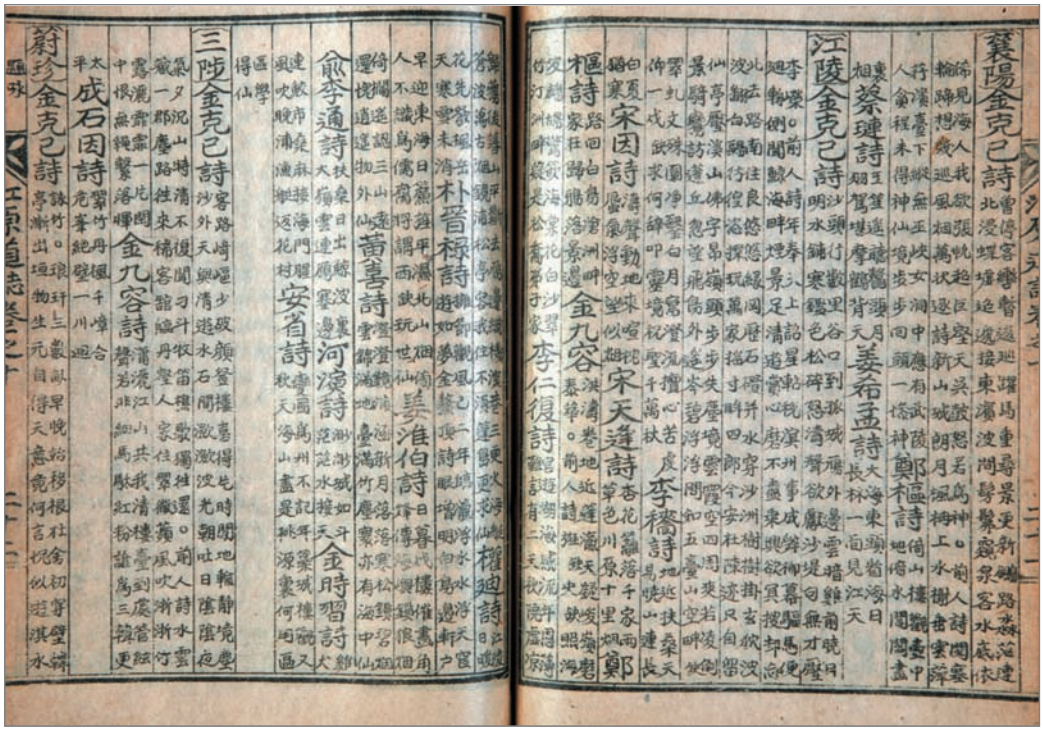
鄭娘籍孝化名石介發孝希明女年十天代會彦龍妻夫先將
九未笄節先遁臣格特命旌閭
金氏每夜半沐浴禱天願以身代夢有神人指示曰乙未三
閭
金氏籍慶州東萊女嘉善尹斗景妻夫病家貧無治湯之方
郡三百户及牛酉穢祭乃可療如其言艱辛乙朱以無牛為憂
同里人李帝錫感其誠許與一犢致誠夫病果愈鄉里有褒狀
襄陽李朝金氏籍慶州德夫病劇指血和藥飲之病遂瘳
金氏李命春妻大元
恐病舍良及妻
日自縊先旌閭
陳氏籍橫城甘雄女江陵戚萬春妻有婦德事
舅姑孝夫先卒誓不改節父老憐而免役
崔氏籍江陵處士孝男女先卒廬墓事舅姑考終
疾革斫指注血者三屢發復絕終天發代
勸不挑正祖
高氏籍濟州仁風張志協妻結縭四載夫先侍養
三年醫漢欲污毒發擲投水為人所救繼又
命旌閭
個制吐血數升幾死復生又伏劍而死建
七日有光亘屋上銃祖朝事聞命旌閭
尹氏籍坡平邑宰尹受鎬妻
夫歿之日矢心殉從容自裁鄉黨哀高宗朝命旌閭
金氏籍安東
城李朝鄭氏籍迥日歿平台牌妻夫遘疫擔
血遺墨曰殁却尹台牌妻夫遘疫擔
金氏籍慶州英陽南時昫妻李氏考終
大痛就刻股和羹供進奏復兵三
咸綱禮李萬起妻夫先
日縊而先旌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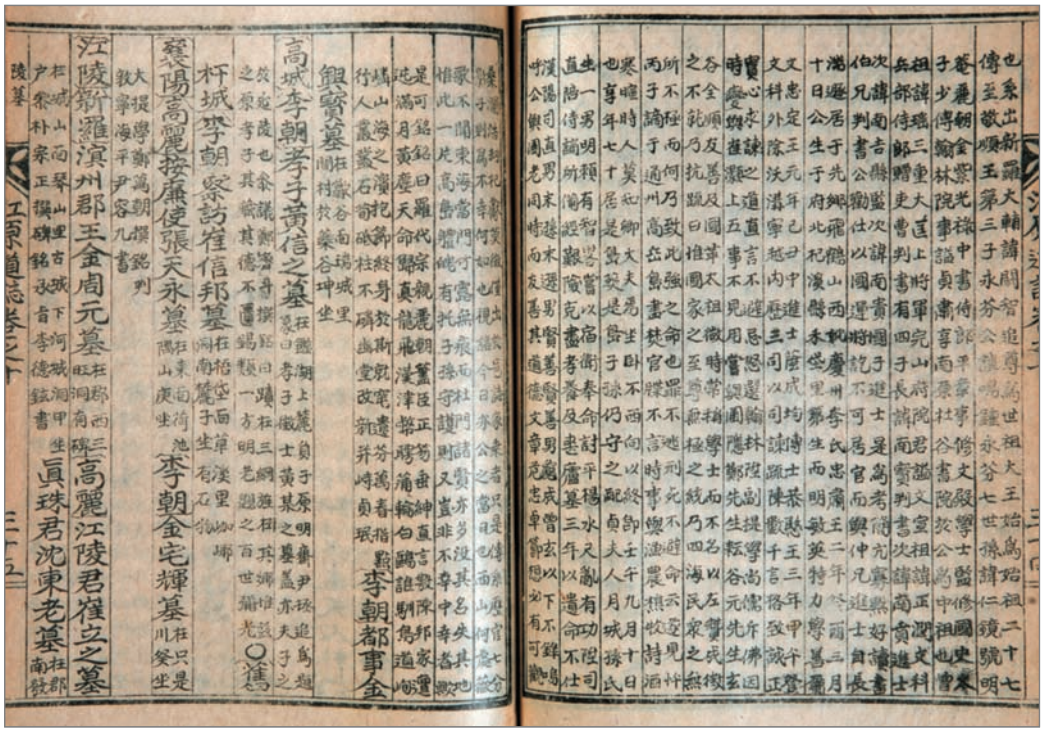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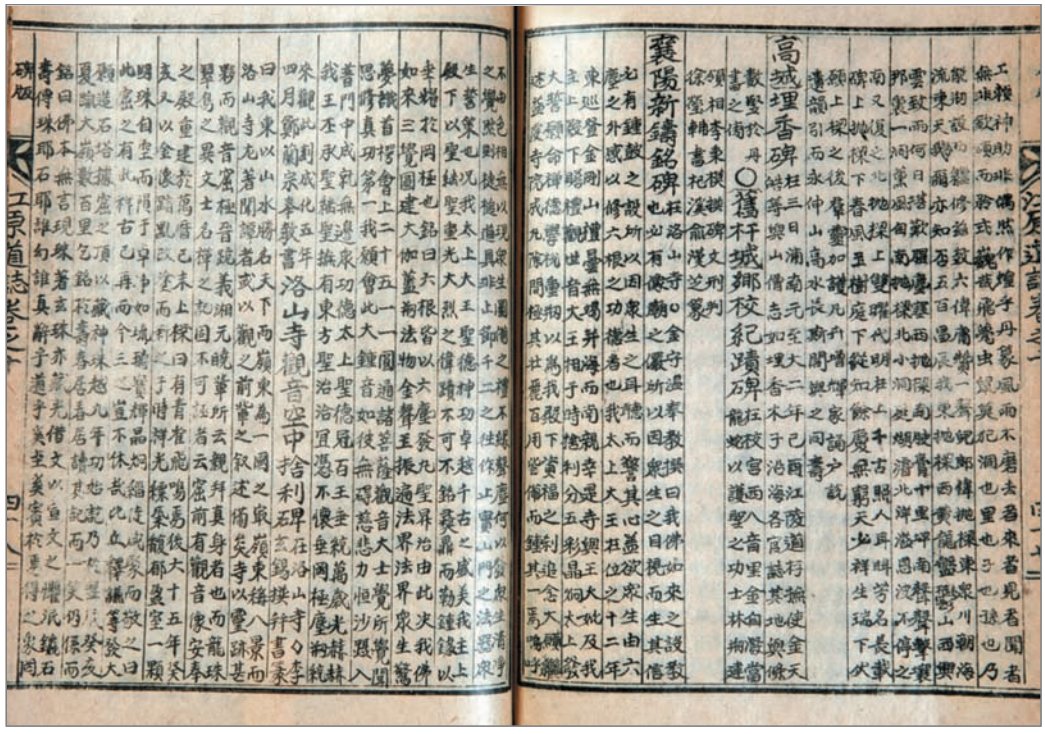
義鄉里貢貢邑宰李宅
珪閭而書實有表彰又
高城李朝尹氏籍坡平監察況元龜妻閨範特異孝舅姑歿祭祀
極其誠敬族鄰鄉里建碑頌德以高齡終行自官旌褒
家恩職隨日境村女嘉善江陵金時大妻婦德兼備
兼贈其夫鄭氏籍迥日奉行之節教子之義皆有法度孝宗朝其子在
茶九三度擊登特蒙泯夫人爵
襄陽李朝李氏籍慶州東湖東明女光山金在龜妻大病斷
指和藥進平生以敬順為道鄉里皆稱德高氏
籍濟州處士愚延女慶州李東龍妻有孝行
孝養舅姑娴睦宗族鄉里稱頌
金氏籍慶州商恒女
植妻其生時有母夫人南氏彩江之先及舅舅姑在上供養極孝居喪盡禮夫喪旣葬
姑在上供養極孝居喪盡禮夫喪旣葬
門戶昌而家業未振夫病疏剔股以血和藥而進得蹇
大鄉里稱頌
金氏籍金海明植女培州吳鎮根妻性端莊十六
項刻而終及葬欲自我因親成服視乃止二十餘載養舅姑以
孝事姪子如己出教以義方使家聲復振鄉里稱頌官府有賞
江陵李朝權氏籍安東人文化執中女
堂中夫人之賢令城倫石斗山里崔氏家珍藏焉柳氏籍
安東權允植妻
字之以為子築傳
穹廬封與之以為子築傳
始病思膳魚時值大冬寒甚翻天割米未進又病疏斷指注血
膳蹇且夫病頻嘗肉食不敢買淳泯仰天悲鳴墜一雉于庭
民建得蹇人成敬服
自官府累蒙嘉賞權氏籍安東日榮女三陟沈尚澤妻年二
十三卷夫喪哭擗踊勉強資生奉先
孔共門户救他夫棄痼盡心醫藥有孝行
酷嫁終身不忍人以為難金氏籍慶州晉州姜時慶妻有孝行
孔盡誠奉八十餘家庭肅整十金氏籍江陵弘鐵女三陟沈參鐸妻性端慧能詳古人詩律善事偏姑姑甚安之曰
此吾孝婦也張氏籍仁同張陽升龜鶴妻事舅姑孝待君子數
隣里同嘆十餘年門內雍睦子得保門户鄉黨咸稱婦
德士林景慕孫氏籍慶州鎮文女江陵成礼根妻性本至孝極盡
有表彰
權氏籍安東日榮女文化執中女大邱教導義方成立門户崔氏籍江陵邦鎮女
及姑幸有遺腹子教以義方不墜家聲
三陟李朝鄭氏籍迥日穫侃女監察崔禧妻閨範夙著事舅姑
孝養如禮寫心醫藥晝夜侍側嘗糞甞味以方克成門户崔震撰墓表
自幼有閨範事父母盡孝事夫子以義方不墜家聲
家事來斷教導以幼
孫氏籍慶州翰珍張勇漢妻生有異質聰
慧貞淑及適孝養舅姑敬事君子夫
病卧至誠侍湯祈天精神誠徹不免竟至危篤斷指注血延壽
撫成家稱賢隣里
金氏籍慶州翰珍張勇漢妻生有異質聰
慧貞淑及適孝養舅姑敬事君子夫
病卧至誠侍湯祈天精神誠徹不免竟至危篤斷指注血延壽
十日后參禮三年如一日勤儉治產竟得富饒有女士行鄉
閭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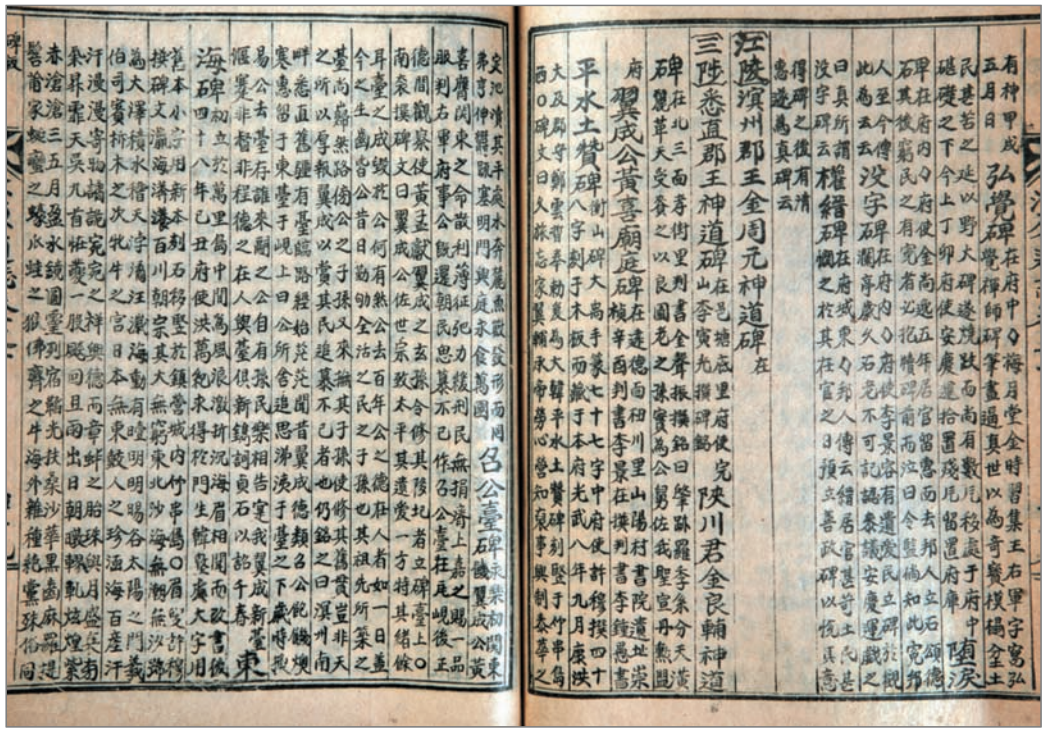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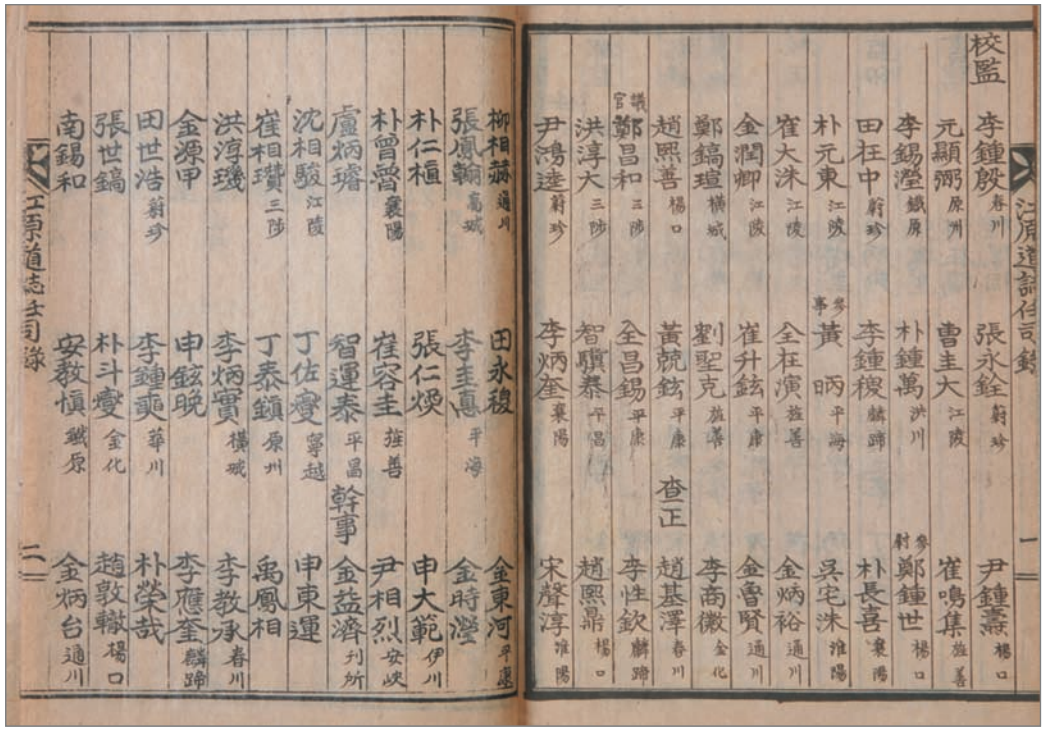












校監
李鍾殷 春川 張永銓 翰林 尹鍾燾 楊口
元顯溯 原州 曺圭大 江陵 崔鳴集 旌善
李錫瑩 鐵原 朴鍾萬 洪川 參判 鄭鍾世 楊口
田在中 翰林 李鍾稷 麟蹄 朴長喜 襄陽
朴元東 江陵 參事 黃昞 平海 吳宅洙 淮陽
崔大洙 江陵 全在演 旌善 全炳裕 通川
金潤卿 江陵 崔升鉉 平康 金魯賢 通川
鄭鎬瑄 橫城 劉聖克 旌善 李商徽 金化
趙熙善 楊口 黃兢鉉 平康 查正 趙基澤 春川
縣官 鄭昌和 三陟 全昌錫 平康 李性欽 麟蹄
洪淳大 三陟 智曠泰 平昌 趙熙鼎 楊口
尹鴻達 翰林 李炳奎 襄陽 宋聲淳 淮陽

柳相赫 通川 田永稷
張鳳翰 高城 李圭憙 平海 金東河 平康
朴仁植 張仁煥 金時瀅 申大範 伊川
朴曾晉 襄陽 崔容圭 旌善 尹相烈 安峽
盧炳璿 智運泰 平昌 幹事 金益濟 刊所
沈相駿 江陵 丁佐燮 寧越 申東運
崔相瓚 三陟 丁泰鎭 原州 禹鳳相
洪淳璣 李炳實 橫城 李教承 春川
金源甲 申鉉晛 李應奎 麟蹄
田世浩 翰林 李鍾奭 華川 朴榮哉
張世鎬 朴斗燮 金化 趙敦轍 楊口
南錫和 安教愼 鐵原 金炳台 通川

李曙世 平海 金振轍 橫城 金樂五
黃戴坤 鄭敬時 朴允采
金廷權 元鍾禹 參奉 申趙燮 金晟奎
主事 全秋鐸 旌善 金柄鉉 柳濤 李鍾河
李斗浩 參奉 金璐濟 佐鳳準
李康犖 徐商麟 寧越 張炳益
崔燁大 吉浩善 華川 崔琰淳
崔相集 吳章煥 柳虞衡
高濟恒 金鶴林 朴孝達
李載斌 平昌 宋基豐 金容九
曹泳煥 朴璉煥 金化 朴京鎬 金城
羅元鉉

黃仁秀 鐵原 朴命燮 周哲楨
李文翼 金德中 沈相璜 高城
尹海重 柳相伯 通川 權秉燮
安教岳 柳承魯 崔秉吉
金榮黨 李麟庠 李大鎔
朴鳳圭 金錫九 李康悅 襄陽
李泰潤 平康 李容求 金南澤
權赫魯 金載衡 尹炳奎
黃兢鉉 劉錫麟 金哲熙
李鳳祐 石鍾欽 李鍾濱
金亨準 鄭基元 鄭孔永 翰林
劉永喆 洪川 李鴻寅 徽令 張相鉉

편집후기

양양군은 그 이름이 '해오름[襄陽]의 고장'이다. 지명의 뜻 그대로 동해 일출의 명소인 낙산사 의상대가 있고,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은 양양의 진산(鎭山)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명산 설악산에서 소사(小祀)의 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또 동해신묘(東海神廟)는 고려시대부터 중사(中祀)로 받들어 왔으며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이 지역은 선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일찍이 20~70만 년 전에 구석기시대 유물이 손양면 도화리에서 발견되었고 이웃마을인 오산리에서도 한반도 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 이 지역 여러 곳에서 청동기 및 초기철기유물이 발굴 · 발견되었으니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를 터전으로 삼았었다. 그것은 지리 · 산수 · 생리(生利) · 역사 모든 면에서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귀한 향토문화유산과 위대한 조상의 얼을 기리고 보존 계승함은 후손된 우리의 책무이며 본지발간(本誌發刊)의 깊은 뜻이라 하겠다.

이번의 획기적인 개선은 종전에는 『향토지』 또는 『양주지』로 명명(命名)되어 오던 군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일치시켜 '양양군지(襄陽郡誌)'로 개칭함으로써 진일보(進一步)한 편찬사업으로 평가되며 군민들이 향토사 인식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의 향토지 발간사를 살펴보면 양양군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양주읍지(襄州邑誌)는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는데, 수록 내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 속현(屬縣) · 고현(古縣) · 군명(郡名)외에 28개 항목으로 편집 기록하고 그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집필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본지의 마지막 기록이 '양주교궁재당중수기(襄州校宮齋堂重修記)'에 '순조 23년 계미(1823년) 8월 15일 '부사 청송 심동윤(沈東潤)이 짓고 썼다.' 라고 기록 되어 있어, 본 읍지는 1823년 8월 이후에 창간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종합적인 향토지로서는 빈약하여 이를 저본으로 광복이후 최초로 1968년도에 양양군교육청 주관으로 증보판 향토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 후 1976년에는 양양문화원에서 증보판을 발간하였고, 1990년에는 양양군청 주관으로 양주지 증보판을 각각 발간하여 면면히 계승된 향토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20년의 기간이 지나 양양지방의 사회전반에 걸쳐 질적 · 양적인 변화에 따른 증보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한 양양군지의 내용편성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분야별로 43인의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6 · 25전쟁의 와중에서 사료가 회진(灰燼)되어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필진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되도록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충실한 자료 수집과 확인 작업을 거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을 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되어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김근우 집필위원님은 투병중임에도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굴하지 않고 충실히 집필하신 노고에 대해 편찬위원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과 뜨거운 갈채를 보낸다.

그 동안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물을 막상 내놓고 보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집필위원이 제출한 원고의 내용이 타 위원과 중복된 부분이 다소 있다. 이를 편집과정에서 조정은 하였으나 집필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원고구성에 필요한 일부는 묵인하였다. 향후 양양군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오면 본서의 미흡한 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충실한 군지가 편찬되기를 기대하면서 양양군지의 편찬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제 양양군지의 출간을 보면서 집필진과 고문헌 자료제공 하신 분, 증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군지가 편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이진호 양양군수님 · 양양군의회의장님 의원님, 세밀한 감수에 심혈을 기우려 주신 임효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김진하 전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지가 출간되기까지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시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양동창 양양문화원장님과 김광영 사무국장님, 강원일보사 출판국관계자,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0년 11월 일

양양군지편집위원회 위원 일동

襄陽郡誌

襄陽郡誌編纂委員會

■편찬위원회

위원장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부위원장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장
위　원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이상집	속초양양 교육장
	김양수	강원도의회 의원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최종덕	한국예총양양군지부 회장
	김원래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오한석	양양군청 문화관광과장
감　사	김양식	전 강원도 관광협회 부회장
간　사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서　기	이정미	

■집필

위원장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민속문화)
위　원	이상수	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선사시대)
	전유길	양양군청 학예연구사(오산리선사유적, 천주교)
	박도식	관동대학교 사학과 교수(삼국 · 고려 · 조선)
	이철휘	고등학교 교사(3 · 1운동과 근 · 현대사)
	엄경선	설악신문 프리랜서기자(근 · 현대 인물사)
	홍문표	경동대학교 외래교수(기후환경)
	김형섭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동 · 식물)
	이규환	전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양양산불, 산업)
	김성영	전 양양남대천보존회장(남대천)
	박홍식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지방자치)
	사득환	동우대학 행정학과 교수(행정)
	윤경호	강릉원주대학교 지역개발과 교수(농업)
	박용진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임업)
	진덕희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명공학부 교수(수산)
	김영식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경제)
	김건석	강릉원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광업)
	김무림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언어)
	이한길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강사(민속신앙)
	최혜정	강릉영동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의생활)
	황재희	강릉영동대학 호텔조리학과 교수(식생활)
	정재국	관동대학교 건축과 교수(주생활)

엄창섭 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문학)
양언석 강원도립대학 교양학부 교수(한문학)
함영문 (사)아시아 지역문화 연구원(사진)
최영철 경동대학교 건축과 교수(유형문화재)
고경재 전 양양문화원장(지명유래)
김진하 현남면장(금석문, 재난 · 재해)
최창섭 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
정영호 단국대학교 박물관장(불교)
박양자 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유교)
이재풍 양양문화원향토사연구원(기독교, 성씨 · 인물)
정석중 관동대학교 관광과 교수(관광)
함석종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축제)
이재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관광자원)
김근우 전 한국체육대학 교수(체육)
박상덕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과 교수(사회기반시설)
홍창의 관동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교통)
이태교 동우대학 복지행정과 교수(보건복지)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장(성씨 · 인물)
이상규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 · 인물)
추종삼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 · 인물)
이상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 · 인물)
김준영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 · 인물)

■지원

위 원 **김원래**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양양군청 민원봉사과장
이재철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장
문종수 양양군청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양양군청 문화관광과장
김호열 양양군청 미래전략과장
이상부 양양군청 산림농지과장
박상길 양양군청 환경관리과장
이한빈 양양군청 건설방재과장
조규백 양양군청 해양수산과장
장금자 보건소장

김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헌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기술보급과장
윤　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차익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학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현 양양군청 의회사무과장
한흥빈 전문위원
박원표 양양읍장
전도영 서면장
윤종덕 손양면장
이향란 현북면장
김진하 현남면장
최근상 강현면장

■편집

위원장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장
위　원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교수
이규환 전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김진하 현남면장
김재환 전 양양도서관 디지털자료실장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감수

임효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교정 · 교열

어진호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강사
권석순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강사

■사진

양양군청　강원일보사　최낙민　김재환

■고문헌 자료제공

고석우　김돈일　박상형　이건주　이근만
이동철　이병률　이준석　최진영

襄陽郡誌

인 쇄 일 2010년 11월 15일

발 행 일 2010년 11월 30일

편 찬 양양군지편찬위원회

발 행 양양문화원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82-1 (☎ 671-6269)

기획편집 양양군지 편집실

인 쇄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